

한중인문학연구

81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제81집 목차

■ 기획 논문

기획 주제-개혁개방 이후 중국 조선족문학의 동향

리해연·석추영·개혁개방 이후 중국조선족 시문학비평 연구	1
조수진·박옥남과 금희 소설에 나타난 조선족의 ‘이주’ 비교 연구	25

■ 일반 논문

김호·戊午(1798)燕行, 夢想과 理想의 노정	49
천스링·장서각본 <금환기봉(金環奇逢)>과 <정정인(定情人)>의 비교연구	77
윤종환·海子(하이즈)와 한국 근·현대시의 정동적 조우	103
NI SEN·중국 민간문학(民間文學) 연구의 존재 방식과 최근 동향	133
소뢰·임다영·청학서 만·한 대역에 보이는 음절 대칭과 비대칭	161
맹강·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필자 정체성 비교 연구	187
蔣琴靑·論朝鮮古代詩話『破閑集』之藝術精神	217
鄭冬梅·尹允鎭·借鑒與己化	241
崔文婷·近代启蒙期韩国杂志对梁启超作品的译介研究	263
郭銳·巴拉物质想象论视角下李沧东短篇小说中的火意象研究	295
李双剑·文有美·论汉语否定提升的性质	317
章婷·宋婷立·周雅洁·韩语母语者的“字感”研究	345
卢锦仪·韩国语话题构式“NP+같이선”及其汉语表达方式	371

개혁개방 이후 중국조선족 시문학비평 연구

-『문학과 예술』을 중심으로-

리해연* · 석추영**

국문요약

『문학과 예술』은 중국조선족 문학예술에 대한 이론적 조명과 비평을 위한 전문지로서 1980년부터 2008까지 28년 동안 중국조선족 문학예술창작과 비평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 바 이는 국내외에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알리고 조선족 문화유산의 발굴, 보전과 계승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되며 조선족 문학예술발전사의 업적으로 된다. 따라서 이에 실린 문학비평은 조선족 문학비평의 대표적 성과로 되며 이에 대한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소수민족 문학 사료 정리 연구 및 한중수교 이후 코리아나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에 일정한 가치 부여가 된다.

중국조선족 시문학비평에 있어 1980년대는 창작에 대한 현실비판과 자아반성을 통해 자신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였고 1990년대는 한중수교의 영향 하에서 자체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입지를 다지는 시기였으며 2000년대는 창작과 비평 모두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였는 바 이 시기에 이르러 중국조선족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위상을 높였다.

그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창작과 비평은 마땅히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조선족 시창작과 그 비평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21세기 조선족 문학창작과 문학비평을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주제어 중국조선족, 조선족 문학, 시문학비평, 문학과 예술, 개혁개방, 한중수교, 민족 정체성

* 중국 연변대학교 외국어학원 조교수

**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교 현대경제인문학원 조교수

〈목차〉

1. 서론
2. 현실비판과 반성을 통한 정립 (1980년-1989년)
3. 한중수교의 영향과 비평의 자각(1990년-1999년)
4. 위기에 대한 대안과 민족 정체성의 확립(2000년-2008년)
5. 결론

1. 서론¹⁾

1976년 10월, 강청을 위수로 하는 “4인무리”의 분쇄로 중국 당대문학사상 가장 처참하고 암담했던 “10년 동란”의 시간이 결속되고 중국은 새로운 역사 발전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78년 12월에는 중국공산당 역사상 중요한 의의를 갖는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가 북경에서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당의 사업 중심을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하던 데로부터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개혁개방, 사상 해방을 중심으로 할 것에 대한 결정을 지었다.

새로운 역사 시기가 시작되면서 동란의 시간 동안 소수민족 문학·변방지역 문학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재해 지역이 되었던 중국조선족 문학은 해동을 맞이 하면서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195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가 동란 기간 파괴되고 흩어졌던 조선족 작가 대오는 새로운 역사 시기에 들어와서 다시 결성되고 확충되기 시작²⁾했고 조선족 문단의 지역적 공간과 문학의 플랫폼이 전례 없이 넓어졌다.³⁾ 1978년 10월,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 제2기 제3

1) 본고에서는 인용문과 조선족 저자의 이름은 조선어 규범에 따른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2) 1960년대 중반까지 중국작가협회의 조선족 회원인수는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지만 1987년에 이르러 38명으로 증가되고 같은 해 12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의 회원인수가 300여명으로 확충되었다. 조성일, 권철, 『중국조선족문학사』, 연길: 연변민출판사, 1990, p.467.

3) 길림성에서는 『연변문예』(월간, 연길에서 1951에 창간, 1957년에 『아리랑』으로, 1961년에 『연변』으로 개칭, 1966년에 정간되었다가 1974년에 다시 『연변문예』로 복간, 1985년에 『천지』로 개칭, 1998년부터 『연변문학』으로 개칭, 현재인 2023년까지 발행 중), 『문

차 전원회의를 통해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를 회복하고 그 산하에는 기존에 없었던 평론분과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1979년 2월에는 문학연구사업과 평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변문학예술연구소를 새로 창립하였고 1980년 1월부터는 연구소의 기관지이자 내부 간행물인 『문학예술연구』(월간)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중국조선족 문학예술발전의 분수령으로 된다.

『문학예술연구』는 조선족 문학예술에 대한 이론적 조명과 비평을 위한 전문지로서 중국문단의 『문학평론』·『문예연구』 등에 해당하는 사명감을 짊어지고 있으며 중국조선족 문학예술이 작품발표지만 무성하고 이론적 측면에서의 총화와 탐구의 원지가 전혀 없던 국면에 종지부를 찍었다.⁴⁾ 1980년 1년 동안은 월간(1호-12호)으로 발행, 1981년부터 1983년까지는 계간(13호-24호)으로 총 24기를 발행하였다. 그러던 1984년, 내부 간행물로부터 공개 간행물로 전환되면서 국내외에 그 존재를 알렸으며 1984년 11월 제26호(통권)부터 『문학과 예술』로 이름을 바꾼 뒤 격월간으로 발간되었다.

『문학과 예술』은 조선족 문학예술연구와 평론일꾼들에게 장을 만들어 주었고 조선족 문학예술평론 대오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조선족예술발전사에 본격적으로 창작과 비평이 병진하는 새로운 국면과 더불어 진정한 평론시대를 열리게 했다. 그러나 체제개혁과 기구조절로 정간(2003년)과 복간(2004년)을 반복하다가 2008년에는 폐간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고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는 비극을 맞이하였다. 이에 대해 김관웅은 “《문학과 예술》은 중국조선족 문화계의 유일한 종합적인 리론지이다... 슬픈 일이다. 700명 문학인들이 살고 있는 문학동네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문학비평지가 ‘요절’하였는

학예술연구』(격월간, 연길에서 1980년에 창간, 1984년에 『문학과 예술』로 개칭, 2008년에 폐간), 『아리랑』(문학총서, 연길에서 1980년에 창간, 2005년에 폐간), 『북두성』(격월간, 장춘에서 1983년에 창간, 1990년에 폐간), 『도라지』(격월간, 길림에서 1979년에 창간, 현재까지 발행 중), 『장백산』(격월간, 통화에서 1980년에 창간, 현재까지 발행 중), 흑룡강성에서는 『송화강』(격월간, 할빈에서 1960년에 창간, 현재까지 발행 중)과 『은하수』(월간, 무단강에서 1979년에 창간, 1998년 폐간), 료녕성에서는 『갈매기』(격월간, 심양에서 1982년에 종합 간행물 『새마을』로 창간, 1987년 『갈매기』로 개칭, 1990년 폐간) 등 잡지들이 발간 혹은 복간되었다.

4) 전성호·립연·윤윤진·조일남, 『중국조선족문학비평사』, 북경: 민족출판사, 2007, p.406.

데 애도하는 작가의 대렬이 보이지 않는구나”⁵⁾라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문학과 예술』이 폐간된 이후 조선족 문학연구는 전문예술이론의 자리를 잃었고 종합성문학비평만 남게 되었다.⁶⁾

『문학과 예술』은 28년 동안 총 154기를 발행하면서 1800여 만자에 달하는, 4307편의 문예평론과 문학작품을 독자들에게 선물하였다. 이는 국내외에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알리고 조선족 문화유산의 발굴, 보전과 계승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되며 조선족 문학예술발전사의 업적으로 된다. 이에 착안하여 본고는 『문학과 예술』에 실린 시문학비평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려 한다. 그 목적은 개혁개방 이후, 특히는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 시문학의 현안을 두루 살펴보고 동시에 비평가 의식의 흐름과 시문학비평의 변모양상 및 특징을 짚어 보면서 나아가 21세기 조선족 시창작과 시문학비평의 발전방향을 전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개혁개방이후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연구를 살펴보면 장덕준 외⁷⁾에서는 1977년부터 1990년 전반까지를 기준으로 비평의 전개 양상과 특성 및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였고 전성호 등⁸⁾에서는 1977년부터 1999년까지를 기준으로 조선족 문학비평과 그 활동 전반의 역사를 사적인 각도에서 정리하였으며 김호웅 등⁹⁾에서는 1977년부터 2010년까지를 기준으로 비평의 변모 양상과 특징을 분석함과 동시에 비평과 문학유산에 대해 정리하였다. 장춘식¹⁰⁾은 2012년

5) 조성일, 『내가 본 조선족문단유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14, p.237.

6) 장춘식, 「신세기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의 현상과 전망 -2012년 비평실천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53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 2014, p.98.

7) 장덕준 외, 「중국조선족 문학비평」, 『중국조선족문학의 어제와 오늘』, 푸른사상, 2006, pp.249-332.

8) 전성호, 립연, 윤윤진, 조일남, 「1977년-1999년의 문학비평」, 『중국조선족문학비평사』, 북경: 민족출판사, 2007, pp.339-472.

9) 김호웅, 조성일, 김관웅 저, 「개혁개방 전기의 문학비평」, 『중국조선족문학통사(하권)』,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12, pp.247-260; 같은 책, 「개혁개방 후기의 문학비평과 문학연구」, pp.636-679.

10) 장춘식, 「신세기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의 현상과 전망 -2012년 비평실천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53집, 성균관대학교인문과학연구, 2014, pp.95-120.

조선족 문학종합잡지에 실린 현장비평을 중심으로 비평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장은영¹¹⁾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시문학비평을 중심으로 이 시기의 문학상황과 시대적 문제의식을 분석하였다. 본고는 이상의 기존연구를 참고하면서 연구대상을 시문학비평에 집중하였다는 점, 21세기 시문학비평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참신성을 갖는다.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문학은 일원화에서 다원화로 나아갔고 조선족 문단에서는 주류 문단의 상층문학, 반성문학, 개혁문학, 신사실주의문학 등 사조의 영향¹²⁾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상응한 작품들을 대부분 우리말로 창작하였다. 따라서 중국조선족 문학은 중국소수민족 문학범주에 속하는 동시에 제외한인문학¹³⁾ 범주에도 속하는, 이중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조선족 문학연구는 중국소수민족 문학연구와 겨레문학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문학창작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제외한인은 중국조선족이며 조선족 문학연구는 제외한인문학연구 및 한국문학연구에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이런 측면에서 본고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소수민족문학사료 정리 연구 및 한중수교 이후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연구에 일정한 가치 부여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11) 장은영, 「1990년대 중국조선족 시문학 비평의 쟁점들-『문학과 예술』, 『장백산』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40집, 경희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2015, pp. 159-183.

12) 연변작가협회, 『연변작가협회 대사기』,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06, p.67.

13) 중국조선족 문학은 제외한인 문학의 범주에 속하며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성격을 갖는다.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제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pp.8-14; 최병우, 「중국조선족 문학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한중인문학연구』 제20집, 한중인문학회, 2007, p.3; 장윤수, 『노마디즘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북코리아, 2011, p.95; 김중희,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 문학과 지성사, 2015, pp.81-93; 김성수, 「연변 문예지의 역사와 ‘코리아 문학’ 재구성」, 『국제한인문학연구』 제29호, 국제한인문학회, 2021, p.33.

14) 최병우, 앞의 논문, 2007, pp.1.

2. 현실비판과 반성을 통한 정립 (1980년-1989년)

중국조선족 시문학은 1950년대 중반에 1차 부흥기를 맞이했다면 1980년대에는 2차 부흥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창작에서 가장 큰 성과는 서정 시인데 발표된 수량만 해도 만 여수에 달했고 장편서사시도 10여 편이 발표되었으며 근 40부에 달하는 각종 시집이 출판되었다. 활발한 시장작과 발맞춰 시문학비평과 연구도 점차 자기의 위치를 찾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 활발히 활동한 문인들은 권철·정관룡·박충록·임범송·전국권·조성일·장정일·최삼룡·김동훈·최상철·현동언·현룡순·김봉웅·김도원·리장수 등을 꼽을 수 있는 바 이들을 비롯한 리상각·한춘·박화 등 일부 시인과 작가 그리고 대학생들이 문학평론과 연구 논문을 3900여 편 발표하였고 이론저서 20여 권을 출판¹⁵⁾하였다.

이 시기에 『문학과 예술』¹⁶⁾은 유산연구, 평론, 작가연단, 사료, 미학, 창작수기, 문예동태, 민속, 명작감상, 문예정보 등 코너를 설치하여 1)주류 문단의 쟁론과 평론에 대한 조선어번역문, 2)조선민족 고전문학작품에 대한 연구 논문, 3)조선족 예술 작품과 문학 작품에 대한 평론, 4)조선족 문단의 “현주소”, 5)조선족과 타 소수민족의 예술창작과 문학창작의 동태, 6)외국문학유파에 대한 소개, 7)우리 민족의 민속, 민담, 전설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실었고 때로는 특집 코너에 중국작가협회의 중요한 회의의 연설문, 연변작가협회와 연변대학교에서 주최한 학술세미나의 논문 등을 신기도 하였으며 학생들의 작문을 신기도 했다. 이 시기 『문학과 예술』에는 총 1676편의 글이 실렸는데 그중 조선족 문학에 관한 평론은 246편으로 전체 글의 14%를 차지했다. 아래 도표를 보도록 하자.

15) 오상순, 『중국조선족문학사』, 북경: 민족출판사, 2007, p.253.

16) 1980년 통권1호부터 12호까지 박찬구, 리홍규가 선후하여 주필을 담당했고 1981년 통권 13호부터 1986년 통권 33호까지 조성일이 주필을, 1986년 통권 34호부터 1989년 통권 54호까지는 최삼룡이 주필을, 1989년 통권 55호부터 1990년 통권 58호까지 최봉석이 주필을 담당했다.

〈표1〉 1980년-1989년 『문학과 예술』에 발표된 조선족 문학평론의 수

년도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통권 호	1-12	13-16	17-20	21-24	25-26
발표 수	29	8	11	15	3
년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통권 호	27-32	33-38	39-44	45-50	51-56
발표 수	25	33	33	36	53

〈표1〉에서 보여주었듯이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조선족 문학평론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다가 1985년부터 양적인 측면에서 현저한 발전을 보여주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1)중국작가협회의 회의내용과 정신, 연변의 문학 좌담회의 내용을 전달하고 2)주류 문단의 쟁론과 평론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조선족 문단에 소개했으며 3)조선고전문학의 전통을 소개하거나 연구한 글, 4) 소련의 문학과 그 독후감 등의 글들이 주가 되었다.

이 시기의 조선족 시문학비평은 “10년 동란”시기의 잔해가 여전히 조선족 문단에 존재하는 현상에 대해 폭로, 비판하면서 조선족 문학예술창작에서의 사상해방을 강조하였다. 시대의 부름에 발맞춰 이 시기 비평가, 잡지의 주필들은 조선족 문학창작의 실태와 현안에 대해 활발한 쟁론을 펼쳤다.

박화는 소설이나 산문에 비해 시가 독자층을 잃고 있는 실태에 대해 분석하면서 조선족 시의 운명은 독자와 창작자 양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¹⁷⁾ 『천지』 잡지사 편집장이었던 리상각은 시작법에 대한 이론적 요구를 제기하였다. 그는 시인은 마땅히 풍부한 생활체험, 예술적 재치, 민감한 감수, 정확한 분석력 등 종합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동시 시 창작을 쉽게 대하지 말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¹⁸⁾고 지적했다.

1985년, 제2회 “두만강 여울소리” 좌담회의¹⁹⁾에서는 조선족 시단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였다. 개혁개방 이전시기의 중국조선족은 벼농사를 중심

17) 박화, 「시의 운명을 두고」, 『문학예술연구』 통권 제10호, 1980, p.13.

18) 리상각, 「시창작에 관한 편지」, 『문학예술연구』 통권 제10호, 1980, pp.17-29.

19) 이 연구회의에서는 전통과 계승, 현대시의 사고방식과 조선족 시문학을 주요내용으로 한 시 관념의 개방문제에 대한 주제토론을 진행하였다.

으로 폐쇄적인 삶을 살았다면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 공동체의 삶은 천지개벽의 수준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는 소설, 산문 등 문학작품을 통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그러나 시문학의 경우는 이와 사정이 좀 다르다. 이시기 조선족 시들은 여전히 송가식이고 현실비판과 참여의 시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대해 좌담회에서 한병국은 창작자가 “자기의 진실한 감정이 아니라 왜곡된 것을 표현한 시들이 있기 때문이다.”²⁰⁾라고 지적했고 문장남은 자연을 완상의 대상으로만 하지 말고 “그런것들을 본따면서 절주가 빨라지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것을 써야 한다.”²¹⁾고 주장했다. 이에 호응하여 립연은 창작자들에게 “량심과 주관세계의 것을 그대로 떼땀이 주장하고 발굴”²²⁾할 것을, 리장수는 또 이 시기 일부 시인들은 “시가의 전통과 혁신은 대립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²³⁾라고 강조하면서 시인들은 마땅히 창작방법, 표현수법 등 모든 면에서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사고를 가질 것을 주장했다.

이 시기 비평가들은 시인들에게 사상해방과 창작에서의 혁신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예 를 삭제함) 문학비평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 반성하였다. 한춘(필명은 산천)은 문학창작과 함께 비평도 공리성에서 해탈해야 하는데 조선족 시문학평론은 “이름난 시인에 대해서는 필목을 아까지 않지만 중, 청년 시인에 대해 도외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말밥에 오르기 쉬운 개척형 시인들과 시작품에 대한 연구, 분석, 지도가 거의 공백지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²⁴⁾ 여기서 한춘이 말했던 “개척형 시인”은 “정통형 시인”과 대립을 이루는 그룹으로 사회공리성을 강요하던 1950년대의 시가 창작을 고집하는 기존의 시단에 불만족을 느끼고 개혁을 시도하며 시의 본체론적 특징을 “자아표현”으로

20) 「두만강 여울소리-좌담회발언요지」, 『문학과 예술』, 통권 31호(1985년 5호), 1985, p.53.

21) 위의 책, p.55.

22) 위의 책, p.56.

23) 위의 책, p.53.

24) 산천, 「조선족시단의 현좌표와 발전기류」, 『문학과 예술』, 통권 37호(1986년 5호), 1986, pp.4-5.

인식하고 시에 주체 감정을 의식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던 시인들을 말한다. “개혁형 시인” 중의 한 사람이었던 한춘은 주류 문단의 몽룡시를 조선족시단에 전파하였고 따라서 몽룡시를 매개로 한 모더니즘의 수용문제가 조선족평단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열띤 토론과 쟁명을 벌이기도 했다.²⁵⁾ 이처럼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조선족 시비평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그룹과 모더니즘의 창작방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그룹의 대결모드가 형성되면서 조선족 시문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각자의 기능을 다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통과 혁신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삼룡²⁶⁾·전국권²⁷⁾ 등과 같이 조선족의 작가·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비평과 연구도 있었던 바 작가의 창작 과정·시가의 풍격·사상예술특색과 문학사적 위치를 규명하면서 목직한 성과들을 이룩하였고 평단에 곧 진입하게 될 신인들과 대학생들에게 교과서적 지식들을 전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은 1989년부터 “해외 문인론단” 코너를 설치하여 남과 북의 학자는 물론, 재일조선인 학자들의 비평²⁸⁾을 실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도는 조선족 문단에 겨레문학을 접할 수 있는

25) 리삼월, 「감탄사 <오!>, <아!>와 김정호의 시 <추억>」, 『문학과 예술』, 통권 38호(1986년6호), 1986, pp.57-59; 김월성, 「시 <추억>에 대한 소감」, 『문학과 예술』, 통권 39호(1987년1호), 1987, pp.30-32; 최성자, 「나는 이런 시를 좋아한다」, 『문학과 예술』, 통권40호(1987년2호), pp.46. 문산, 「<리해시>와 <난해시>」, 『문학과 예술』, 통권40호(1987년2호), p.47. 김월성과 한춘은 시 <추억> 을 두고 몽룡시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고 최성자는 “몽룡시, 난해시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한춘의 주장을, 문산은 “시적 표달능력에서 미성숙하다”며 김월성의 주장을 지지했다.

26) 최삼룡, 「<장백산아 이야기하라>의 서정특색」, 『문학예술연구』, 통권 5호(1980년 5호), 1980, pp.18-24; 「<새별전>의 민족적특성-<새별전>연구」, 『문학예술연구』, 통권13호(1981년1호), 1981, pp.20-34.

27) 전국권, 「열정의 시인 진지한 탐구-시집<샘물이 흐른다>를 읽고」, 『문학예술연구』, 통권8호(1980년8호), 1980, pp.17-23; 「리옥과 그의 시창작에 대하여」, 『문학예술연구』, 통권22호(1983년2호), 1983, pp.5-13.

28) 리철호, 「문학에 있어서의 자유와 평화」, 『문학과 예술』, 통권 53호(1989년 3호), 1989, pp.34-37; 김양기(재일조선인) 지음, 김문학 옮김, 「조선인과 일본인-재일비교문화연구」, 『문학과 예술』, 통권 54호(1989년 4호), 1989, pp.22-26.; 신동욱(연세대학교), 「자연의 서정적 인식과 겨레통합을 전만하는 시세계-리상각시집 <두루미>에 부쳐」, 『문

기회를 창조하였고 대외로는 중국조선족사회와 문학을 알리는 교량이 되었으며 특히 한중수교 이후의 한국현대시와 조선족시단의 상호교류에 밑거름이 되었다.

이상의 비평들을 통해 1980년대 조선족시단과 평단의 상황과 현안을 알아 볼 수 있었다. 개혁개방 이후 비평가와 잡지사 편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작품들에 대해 이론적인 요구가 엄격하고 질적 제고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시 창작은 문학적·예술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기 시비평의 핵심과 결론은 대동소이하다. 요컨대 시인은 사상해방과 창작방법의 개혁이 필요하고 비평가는 비평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론 체계를 확대하며 시인과 마찬가지로 사상을 해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수치로부터 알 수 있듯이 1980년대의 조선족 시문학비평은 창작의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뒤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주류평단과 비교하면 평론의 심도, 규모, 이론 연구, 다원화 방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작품에 대한 평론이 조선족 시문학과 시인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단일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다. 1980년대 조선족 시문학비평은 조선족작가-조선족작품-조선족독자라는 민족올타리에서만 고찰하지 말고 좀 더 시야를 넓혀 주류문학과 세계문학의 고도에서 관찰, 비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3. 한중수교의 영향과 비평의 자각(1990년-1999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조선족시단을 흔들었던 문학관의 개혁과 다원화는 1990년대에 일정한 진보를 보이면서 입지를 굳혔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讲话)²⁹⁾와 중국공산당 제14차대표대회에서 확립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학과 예술』, 통권 55호(1989년 5호), 1989, pp.21-24. ; 리미원, 「남조선 사실, 자연주의 회곡의 형성」, 『문학과 예술』 편집부는 1990년 제1호 12쪽에 “제목과 전반 글에서 쓰이고 있는 《남조선》은 《조선》의 오식이기애 이를 정정하면서 작자와 광범한 독자들에게 깊이 사과하며 양해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문학과 예술』, 통권 56호(1989년 6호), 1989, pp.24-27.

29) 1992년에 덩샤오핑은 중국의 남방도시의 경제개혁상황을 시찰하면서 무한(武汉), 심천

체제”를 통해 전반적인 시장경제화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고³⁰⁾ 개혁개방은 더욱 심도 있게 전개되었다. 이는 중국의 기타 도시뿐만 아니라 조선족공동체의 사회, 경제, 문화 등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마디로 1990년대는 조선족공동체의 지각변동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986년부터 북경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의 물결, 1988년 서울을 립픽과 1992년 한중수교를 통한 한국과 조선족사회의 상호교류, 근대화와 도시화로 인한 조선족 농촌사회의 해체, 시장경제로 인한 언론, 출판의 경제적 위기 등으로 말미암아 조선족사회는 물론, 조선족 문단은 거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인 변화 속에서 조선족 시 창작은 새로운 변모양상을 보였고 비평도 그에 발맞춰 다각적인 비평방법을 통해 연구에 열을 올리면서 더한층 성숙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시작품은 모두 만 여수 발표되고 시집이 46종 출판되었으며 그중 개인시집이 40종에 달한다.³¹⁾ 사실 이 수치는 1980년대의 수치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반면에 문학비평과 연구는 지난 시기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데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이 시기 『문학과 예술』에는 총 1739편의 글이 실렸는데 그중 조선족 문학에 관한 평론은 426편에 달했으며 전체 글의 24%를 차지했다.³²⁾

(深圳) 등 지역에서 당내의 좌(左)적 경향을 비판하고 계속해서 개혁개방을 힘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한 연설로, 이번 시찰과 연설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0) 洪子诚, 『中国当代文学史』,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7, pp.327.

31) 오상순, 앞의 책, p.340.

32) 이 수치는 1990년대에 산출된 전체 조선족 문학비평을 대표할 수 없다. 그 원인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문학과 예술』은 “배달평단”코너를 설치하고 조선의 근, 현대문학을 연구한 글, 한국의 시인과 학자들의 중국조선족 시문학을 연구한 글 등을 대량적으로 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중국조선족 문학과 겨레문학 사이에서 교량의 역할을 하였고 이는 이 잡지의 가치를 가늠하는 척도로 된다.

〈표2〉 1990년-1999년 『문학과 예술』에 발표된 조선족 문학평론의 수

년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통권 호	57-62	63-68	69-74	75-80	81-86
발표 수	42	36	40	39	41
년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통권 호	87-92	93-98	99-104	105-110	111-116
발표 수	43	48	53	39	45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난시기 문학비평은 문학창작에 밀려 변두리에서 서성이던 상황을 조금 벗어나 1990년대에 이르러 입지를 굳혀가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그 원인은 우선 조선족 문학비평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던 주류 문학에 다원문화 공존의 문화적 판도가 형성되었고 다음으로 주류문단에서 다양한 문학비평이론과 비평방법 그리고 비평실천의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고스란히 조선족 문학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의 기성비평가들이 이 시기에도 여전히 활발히 비평 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문학연구와 문학비평의 이론적 기초를 닦은 학원파들, 이를테면 김병민·김관용·김호웅·장춘식·오상순·윤윤진·김경훈·조일남·김성호 등 신인비평가들이 등장하여 비평의 장을 확대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등장한 신인 비평가들은 21세기에 도 여전히 평단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1980년대에 비평가들은 창작과 비평 양자의 사상해방, 창작방법과 비평방법의 개혁 등을 주장하면서 비평과 반비평의 열띤 쟁론을 펼쳤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그러한 쟁론은 줄어들고 민족 주체의식의 수립, 민족 정체성에 대한 각성과 인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는 개혁개방과 상품경제의 전면실시와 더불어 대외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의 사유방법·가치관념·생활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시대적 변천 속에서 조선족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갈등, 민족문화와 외래문화의 충돌을 심각히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과 한중수교를 통해 조선족의 생활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제고되었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하는 물질문명과는 달리 신문명은 쇠퇴해지기 시작했다. 바 사람들은 물질주의·향락주의에 빠졌고 도덕관념·가치관념 역시 사

라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1990년대 비평문단에서 제기했던 민족성, 민족의식, 민족 정체성에 대한 각성과 인식에 대한 문제는 문학과 민족의 운명간의 관계에 대한 주목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김문학은 “우리 문학의 출로는 바로 우리로서의 혼-민족문화주체의식을 정립하는 것”으로 “오로지 민족주체의식이 수립되어야만 우리 문학도 위기를 벗어나 비약할 가능성이 보장된다”³³⁾ 고 주장했다. 이 시기의 민족의 주체의식과 민족문학에 대한 고민과 모색은 1980년대에 주목했던 민족문제, 즉 풍속습관과 사상 그리고 심리소질 등에 대한 언급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시기에 문단에서 다시 제기되는 민족성과 현대성 문제는 개혁, 개방의 시대적 배경에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그것의 예술적 통일을 구현하려는 데 있다.

또한 이 시기의 현대성의 추구는 개혁개방 이후의 역사적 현실 특히는 시장경제의 건립과 관계된다. 조선족 시문학의 현대성 추구는 시인의 과다한 감정방출을 억제하면서 자아성찰에 따른 내면의식의 표출을 중시하고 시적 언어표현과 시적 형상창조에서 은유, 상징적 이미지 창조가 보편적인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적 사유방식에서 반리성, 반리론성이 강하고 기타 예술분야의 미학실천경험을 널리 수용하려는 시도가 보였다.³⁴⁾ 이 시기의 조선족 시문학에 상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은 전통적인 미학관에서의 탈피를 의미하며 시문학의 자율성에 대한 추구를 의미하는 바 이런 점은 시가발전사적견지에서 볼 때 획기적인 사변을 예시한다.

이러한 주장에 입각해 조선족시단을 분석해 본 결과 1990년대 중반의 조선족시는 비교적 희망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김경훈과 최삼룡의 비평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 시기 시작품들에서는 민족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와 그 시적표현 및 시인 또는 화자의 세계와의 관계에 따른 모순적 또는 조화된 인식내용 등이 주로 노래되었고 이러한 민족적인 관심거리와 시인으로서의 독특한 사

33) 김문학, 「중국조선족당대문학비평」, 『문학과 예술』, 통권57호(1990년1호), 1990, pp.6-12.

34) 김병민, 「우리 시문학의 현대성추구」, 『문학과 예술』, 통권113호(1999년3월호), 1999, p.18.

회인식이 주요 논의거리 또는 초점으로 되어왔다.³⁵⁾ 또한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을 보여주었는 바 전통적인 주정시, 현대적인 주지시, 전통시조와 현대시조의 결합 등을 통해 시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자기의 감각을 주로 쓰는가 하면 시대와 사회와 인생에 대한 심각한 사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시에서 영원한 주제라고 하는 사랑, 인정, 우정 등을 노래하는 시, 자연의 위대와 신비와 오묘를 노래하는 시, 민족의 뿌리를 찾는 시, 자아의 고독과 곤혹과 환락과 비애를 표현한 시들을 찾아볼 수 있다.³⁶⁾

그러나 이는 조선족시단의 전반을 대표할 수가 없었다. 1998년도 조선족 시단의 모습은 내용상에서 시적대상의 표면에 안주하는데 열중하고 내면으로 파고드는 작업에 게을렀으며 제재가 다양하지 못해 따분한 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 삶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보였고 고갈된 정서로 너무 급급히 감정을 사정하려는 폐단이 보였으며 은유와 상징을 바탕으로 시를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인 풀이로 시를 만드는 옛 기교가 많이 보였다.³⁷⁾ 이러한 폐단은 조선족 시단의 운명을 좌우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80년대에는 폭발적인 수량으로 새 기상을 떨쳤던 조선족 시는 1990년대에 와서는 독자를 잃기 시작하는 곤혹에 빠졌다.³⁸⁾ 조선족시단에는 시인이 독자보다 더 많은 불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기형적 현상을 초래한 원인은 “시가의 지위 저락현상”³⁹⁾, “시인과 시문학의 가치저락”⁴⁰⁾이다. 이는 현대시가와 조선족시가의 전통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35) 김경훈, 「'94-'95년도 시문학 일별」, 『문학과 예술』, 통권91호(1995년5호), 1995, pp.10-13.

36) 최삼룡, 「'96 중국조선족시단의 현주소」, 『문학과 예술』, 통권101호(1997년3호), 1997, p.12.

37) 김통운, 「'98년 우리 시단의 그 얼굴」, 『문학과 예술』, 통권113호(1999년3월호), 1999, p.26.

38) 리복, 「시의 정서복합론」, 『문학과 예술』, 통권85호(1994년5호), 1994, pp.41-50.

39) 전국권, 「조선족시단과 한족시단: 시가의 불경기 원인분석」, 『문학과 예술』, 통권115호(1999년5호), 1999, pp.4-8.

40) 김몽, 「“두만강여울소리”-시문학탐구 측기」, 『문학과 예술』, 통권85호(1994년5호), 1994, pp.6-9.

이처럼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조선족 시문학과 시단은 존망의 문제에 봉착하면서 창작에서의 애로를 겪은 반면에 시문비평과 평단은 연구방법의 다양화와 연구범위의 확장을 견지하며 입지를 다졌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시기 시문학비평은 시작품의 우열, 시인과 시 창작에 존재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예리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시조⁴¹⁾, 윤동주와 그의 시⁴²⁾, 남영전 토렘시⁴³⁾ 등을 연구대상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펼치면서 민족문학의 우월성을 전파하고 민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였는데 이는 2000년대의 비평을 통한 민족 정체성 확립에 기초를 닦아주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족 시와 한국 현대시의 비교⁴⁴⁾, 조선족 시, 한국 현대시 및 한족 시에 대한 비교⁴⁵⁾, 조선족시단과 한족시단의 비교⁴⁶⁾를 통해 조선족 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개혁개방정책이 제정됨에 따라 장시간 동안 혼란된 사상이 점차 바로잡히고 해외문화의 각종 정보가 밀물처럼 밀려드는 사회적 격변은 조선족 시단의 현대시를 위한 사회적·정신적 여건을 조성하였다. 조선족 시문학은 현대시 창작의 봄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비평가는 조선족 현대시는 마땅히 민족시가 문학전통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1) “시조특집” 특집코너를 설치하여 시조에 대한 평론을 실었다. 『문학과 예술』, 통권83(1994년3호), 1994, pp41-54.

42) 리원, 「윤동주시에 반영된 의식차원에 대하여」, 『문학과 예술』, 통권59호(1990년3호), 1990, pp.32-34 ;“기획조명” 특집코너를 만들어 윤동주와 그의 시에 대한 평론을 실었다. 『문학과 예술』, 통권92호(1995년6), 1995, pp.6-49.

43) “기획조명” 특집코너를 설치하여 남영전과 그의 시에 대한 평론을 실었다. 『문학과 예술』, 통권91호(1995년5호), 1995, pp.14-34.

44) 리복, 「시적대상과 시적상상의 유기적통일문제-한국시 3수와 중국조선족시 3수를 함께 토론함」, 『문학과 예술』, 통권 98호(1996년6호), 1996, pp.12-18.

45) 김룡운, 「시어의 구축으로부터 본 중국조선족시-중국조선족시, 한국시, 한족시들과의 약간의 비교」, 『문학과 예술』, 통권 98호(1996년6호), 1996, pp.23-28.

46) 전국권, 「조선족시단과 한족시단: 시가의 불경기 원인분석」, 『문학과 예술』, 통권115호(1999년5호), 1999, pp.4-8.

4. 위기에 대한 대안과 민족 정체성의 확립(2000년-2008년)

1990년대 이후의 중국문학은 시장경제와 그에 따른 상품화의 거센 충격을 받으면서 독자를 지도하던 지위에서 탈락되어 점차 사회의 변두리(예를 삭제)로 밀려났고 문학이 독자를 선택하던 데로부터 독자와 시장이 문학을 선택하는 형편으로 되었다.⁴⁷⁾ 거대한 문화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주류 문학은 말 그대로 독자 즉 소비자의 구미에 맞춰 “상품화”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바 주류 문학이 입은 이러한 타격은 조선족 문학에 있어서는 더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날이 갈수록 독자마당이 좁아진다. 원래 인구가 적은데다가 문화교육수준제고에 따라 조선족들의 독서취향이 한문으로 전이했다...20세기 80년대 《연변문학》은 6만부, 《아리랑》문학총서는 1만6천부나 되었지만 현재 조선문 문학지중에서 발행량이 수천부를 오르락 내리락 방황하고 있다...1990년대 국가에서 연변인민출판사에 주는 경제적혜택은 193만이었었는데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되려 153만밖에 안되었다...현재 조선족작가들이 받는 원고료는 80년대초의 표준으로 매천자에 15원에서 25원 사이이고 그나마도 몇년동안 받지 못하고 있다. 연변인민출판사가 작가들한테 진 원고료빚만 해도 70만원 이상이다. 조선문 문학지들도 인쇄빛과 원고료빚에 눌러서 숨도 바로 쉬지 못할 지경이다.⁴⁸⁾

이러한 상황에서도 작가들은 창작을 중단하지 않았다. 조선족 소설가들은 국내 대도시나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삶의 현장과 생존 환경 그리고 그들이 처한 운명과 여러 가지 진상들을 작품 속에 여실히 그려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주류 시단에도 등장했는 바 고향을 떠나 도시로 진출한 농민들의 “타공시가(打工诗歌)”가 출현하여 독자들의 이목을 끌었다.⁴⁹⁾ 그러나 조선족시단은 주류 시단의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조선족 시는 민중들의 처절한 삶

47) 김관웅, 「우리의 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문학과 예술』, 통권144호(2006년3호), 2006, p.22.

48) 류연산, 「조선족문학출판현황과 출로에 대한 단상」, 위의 책, pp.128-129.

49) 김관웅, 앞의 글, p.24.

의 현장을 그려내지 않았고 현실을 떠나 유토피아적 창작을 고수하였으며 이는 독자층을 잃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강효삼, 리상각, 리성비, 김학송 등 시인들은 조선족 시의 가장 큰 맹점으로 “시대, 민중, 민족으로부터의 이탈”을 지적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공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를 쓰는 것이 시창작의 정도(正道)”라고 인정하였다.⁵⁰⁾ 김관웅은 현실 이탈, 민중 이탈이 심각한 조선족 시문학은 마땅히 사회와 현실을 뜨겁게 포용하고 민족의식과 민족정신을 반영하며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함과 동시에 이미지화를 훌륭하게 하면서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길로 나아가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⁵¹⁾

독자층과 활동무대를 잃어가던 문학창작의 열악한 상황은 문학비평도 피할 수 없었다. 28년 동안 조선족평단의 든든한 지원군이던 『문학과 예술』이 2008년에 폐간된 사실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붓을 꺾거나 주저앉지 않았고 더욱 활발하게 연구와 비평을 진행하면서 조선족 문학과 비평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문학과 예술』에는 총 892편의 글이 실렸는데 그중 조선족 문학에 관한 평론은 293편으로 전체 글의 32.8%를 차지했다.

〈표3〉 2000년-2008년 『문학과 예술』에 발표된 조선족 문학평론 수

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통권 호	117-122	123-128	129-134	135-136	137
발표 수	38	46	50	16	7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
통권 호	138-141	142-147	148-153	154	-
발표 수	26	61	44	5	-

지난 28년간 『문학과 예술』의 통계수치를 실례로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조선족 문학비평은 1980년대에 창작에 밀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헤매고 있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입지를 다지게 되었으며 2000년대

50) 위의 글, p.25.

51) 위의 글 pp.29-51.

에 들어와서는 그 위상을 보여주기에 이르렀다. 이를 증명하듯 2002년 7월에 “제1회 중국조선족 비평문학시상식”⁵²⁾이 개최되었다. 전성호는 “한민족문화교류협회 지성인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중국조선족비평문학의 열악한 상황을 가슴 아파하시고 그 질적인 향상과 번영을 돕기 위하여 우리 연구소와 합작하여 이상을 제정”⁵³⁾했다고 밝히면서 중국조선족비평문학의 진보와 도약을 전망했다.

2000년대 문학비평의 특징 중의 하나는 여성문학에 대한 비평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 조선족 문단은 남성문학이 주를 이루었고 여성문학은 변두리문학으로 위세를 떨칠 수 없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문학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2000년 12월에는 55만자에 달하는 당대 중국조선족 여류수필선 《푸른 들녘의 꿈》이 출판되는가 하면 200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조선족 여류시인협회가 발족되었고 시집《란아, 너의 이름으로》가 출판되었으며 2002년에는 두 번째 시집인 《강건너마을》이 출판되었다.⁵⁴⁾ 이는 중국조선족 문학사상 전례 없는 발전이고 성과였다.

김관웅은 중국과 조선고대 여성 시인들의 작품과 당대 조선족 여성 시인들의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생물학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여전히 남성작가보다 자유롭지 못한 여성작가들의 처지, 여성시인들의 일탈욕구가 표현된 시어의 의미, 조선족 여성시문학의 발전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⁵⁵⁾ 이 글은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에서 페미니즘연구가 새로운 방향으로 진입하는 전환점으

52) 이번 시상식은 한국 한민족문화교류협회와 중국 연변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평심위원들로는 조성일(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회장, 문학평론가), 김병민(연변대학 부총장, 교수), 장정일(연변일보사 논설고문, 문학평론가), 전성호(문학예술연구소 소장, 연구원), 장덕준(한국 한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민족문화교류협회 회장), 김춘섭(한국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김병욱(한국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평론가)등이며 이들의 만장일치로 립연이 수상하였다.

53) 전성호, 「중국조선족비평문학의 진보와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중국조선족비평문학상》시상식 폐회사」, 『문학과 예술』, 통권132호(2002년4호), 2002, pp.14-15.

54) 김룡운, 「당대중국조선족여성문학론」, 『문학과 예술』, 통권133호(2002년 5호), 2002, pp.13-38.

55) 김관웅, 「녀성과 시1-6」, 『문학과 예술』, 통권129호-134호(2002년1호-6호), 2002, pp.140-151; pp.146-160; pp.145-146; pp.153-161; pp.126-137; pp.170-190.

로 된다.

이 시기 문학비평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민족 정체성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조선족 시문학비평은 한중수교 이후 한국현대 시문학이 조선족 시문학에 끼친 영향, 한국에서의 조선족 시문학, 중국조선족 정체성 확립 등을 중심으로 연구 56)가 진행되었는 바 정판룡의 기존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탈식민주의 문화이론의 수용이 크게 일조하였다⁵⁷⁾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김관웅과 김호웅을 중심으로 중국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을 거주국과 거레반도의 남과 북이라는 “복수(复数)타자의 관계 속에서 규명하면서 중국조선족을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인정”하는 이른바 정체성 확립의 붐이 일어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국내 대학교의 석·박사 학위논문과 한국의 최병우, 송현호 등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비평가들의 연구를 통해 확장·확대되었다. 요컨대 2000년대에 이루어진 민족성과 민족의식 그리고 민족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결국은 민족 정체성 인식에 직결되는 중국조선족 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은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의 성숙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⁵⁸⁾

5. 결론

이상으로 1980년부터 2008년까지 『문학과 예술』에 실린 시문학비평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 작업을 통해 개혁개방 이후, 특히는 한중수교

56) 권혁률, 「새세기 중국조선족시단의 풍경」, 『문학과 예술』, 통권145(2006년4호), 2006, pp.51-68; 김관웅, 「중한수교이후 중국조선족 시문학에 끼친 한국시문학의 영향」-3], 『문학과 예술』, 통권147호-150호(2006년6호-2007년2호), 2006-2007, pp.38-55; pp.19-39; pp.13-41; 김호웅, 「디아스포라의 시학(诗学) 그리고 우리 문학」, 『문학과 예술』, 통권150(2007년3호), 2007, pp.56-66; 류연산, 「한국에서의 조선족문학의 현주소와 미래의 추향」, 『문학과 예술』, 통권150호(2007년3호), 2007, pp.67-77; 최삼룡, 「한국에서의 중국조선족문학연구에 대하여」, 『문학과 예술』, 통권151호(2007년4호), 2007, 74-91;

57) 김호웅, 조성일, 김관웅 저, 앞의 책, p.639.

58) 위의 책, p.640.

이후 조선족 시문학의 현안을 살펴보고 동시에 비평가 의식의 흐름과 시문학비평의 변모양상 및 특징을 짚어볼 수 있었다.

1980년대는 조선족 시문학비평이 시 창작에 대한 현실비판과 자아반성을 통해 자신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였다. 이 시기 시문학비평은 시인은 사상해방과 창작방법의 개혁이 필요하고 비평가는 비평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론체계를 확대하며 시인과 마찬가지로 사상을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의 조선족 시문학비평은 창작의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뒤떨어진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평론의 심도, 규모, 이론연구, 다원화 방면에서 미성숙하였고 작품에 대한 평론이 조선족 시문학과 시인들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단일적인 행보를 보여주었다. 1990년대는 조선족 시문학비평이 한중수교의 영향 하에서 자체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입지를 다지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1980년에 있었던 전통 시가와 현대시가의 우열에 대한 쟁론은 줄어들고 민족주체 의식의 수립과 민족 정체성에 대한 각성과 인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에서 벗어나 모더니즘이 본격화되었다. 2000년대는 창작과 비평 모두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였으며 중국조선족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위상을 높였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조선족 시문학은 한국 시문학을 통해 짧은 기간에 정동부동하게 현대시를 적잖게 접목해왔고 점진적으로 부단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주류 시단과 한국현대시에 비해 많이 뒤쳐져있다. 21세기 조선족 시인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주류 문단과 한국의 현대시를 통해 지식구조를 확대해야 하고 시적자아의 갱신과 시창작의 다양화를 시도하면서 부단히 성장해야 할 것이다. 시 창작의 열과 그 노력에 부응하여 시문학비평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고 비평가는 새로운 이론을 부단히 학습하고 예리한 시각과 객관적인 비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문학창작의 진보와 발전에 밀거름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창작과 비평은 마땅히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조선족 시창작과 그 비평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선족 문학비평은 『문학과 예술』과 같은 전문 문학비평지가 없이 문예잡지의 지면을 빌어

비평을 신는 실정인데 대부분 해당 잡지의 작품에 대한 현장비평이고 거시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극히 드물다. 뿐만 아니라 조선족 비평가 내부의 단대(斷代)현상이 심각하다. 1990년대에 신인으로 등장했던 50후와 60후 비평가들은 이제 원로가 되었고 마땅히 그 바통을 이어야 할 70후는 공백인 상태이며 80, 90후도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21세기 조선족 문학비평의 존망은 평단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러 측면에서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학과 예술』 잡지가 타 문예지의 작품에 대한 비평을 대량으로 실으면서 조선족 문학의 흐름을 짚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듯이 『연변문학(延邊文學)』·『도라지(道拉吉)』·『장백산(長白山)』·『송화강(松花江)』 등 조선족 문학 종합 간행물들은 본 잡지의 작품에 한정된 비평뿐만 아니라 타 잡지의 작품에 대한 비평을 실어 독자층을 넓히고 비평가에게 좀 더 넓은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비평가 대오의 확장과 능력제고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1980년대에 그러했듯이 문학비평은 대학교와 창작자, 잡지사 편집일군 등 다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비평가는 조선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비평을 진행함으로써 주류 문단과 타 소수 민족문단에 조선족 문학을 알리기에 노력해야 한다.

◆ 참고문헌

1. 자료

『문학예술연구』, 연길: 1980-1984.

『문학과 예술』, 연길: 1984-2008.

2. 단행본

김호웅·조성일·김관웅 저, 『중국조선족문학동사(하권)』,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12.

연변작가협회, 『연변작가협회 대사기』,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06.

오상순, 『중국조선족문학사』, 북경: 민족출판사, 2007.

장덕준 외, 『중국조선족문학의 어제와 오늘』, 푸른사상, 2006.

전성호·림연·윤윤진·조일남, 『중국조선족문학비평사』, 북경: 민족출판사, 2007.

조성일·권철, 『중국조선족문학사』,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90.
 조성일, 『내가 본 조선족문단유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14.
 洪子誠, 『中国当代文学史』,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7.

3. 논문

김성수, 「조선족문학의 민족 정체성과 『연변문예』 매체사」, 『상허학보』 제66집, 상허학회, 2022, pp.339-374.
 김성래, 「1990년대 말 중국조선족 문예지 『연변문학』의 지각(地殼/知覺)변동」, 『大東文化研究』 제12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3, pp.353-381.
 이봉우, 「중국 조선문 잡지의 실태와 전망」, 『한국출판학연구』 제35집, 한국출판학회, 2009, pp.327-351.
 임유경, 「디아스포라의 정치학 - 최근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36집, 한국문학연구회, 2008, pp.179-217.
 장춘식, 「신세기 중국조선족 문학비평의 현상과 전망 -2012년 비평실천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53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 2014, pp.95-120.
 장은영, 「1990년대 중국조선족 시문학 비평의 쟁점들- 『문학과 예술』, 『장백산』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40집, 경희대학교비 교문화연구소, 2015, pp. 159-183.
 _____, 「한중 수교 이후 중국조선족 시에 나타난 도시 서정 - 중국조선족 문예지 <장백산> 발표작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46집, 한중인문학회, 2015, pp.379-402.
 최병우, 「중국조선족 문학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한중인문학연구』 제20집, 한중인문학회 2007, pp.5-23.
 최병우, 이은희, 「『한중인문학연구』로 본 한중 인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20.11집, 한중인문학회, 2020, pp.138-142.
 최병우,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년, 조선족의 유산과 과제」,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22.07집, 한중인문학회, 2022, pp.1-13.

4. 인터넷 자료

연변작가협회 <http://www.ybwa1956.com/>

논문 접수 일	2023년 11월 10일
심사 완료 일	2023년 11월 28일
게재 확정 일	2023년 12월 08일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Chinese Poetic Criticism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Centered on “Literature and Art”

LI, Haiyan · Shi, Qiuying

“Literature and Art” is a specialized journal. It has made great efforts to create and criticize Korean-Chinese literature and art for 28 years from 1980 to 2008. Therefore, literary criticism published in this article is a representative achievement of Korean-Chinese literary criticism, and research on this is given a certain value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hinese minority literature after reform and opening and the study of Korean diaspora literature after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In Korean-Chinese poetry criticism, the 1980s was a time to establish oneself through reality criticism and self-reflection of creation, and the 1990s was a time to seek and establish its own development direction under the influence of Korean-Chinese diplomatic relations, and the 2000s was a time to seek alternatives and establish national identity while both creation and criticism faced a crisis. By this time, Chinese Koreans were a diaspora community, raising their status.

The current Korean-Chinese poetry creation and its criticism are not balanced. At this point, it is urgent to prepare alternatives for the existence of Korean-Chinese literary creation and literary criticism in the 21st century.

Keyword Korean-Chinese, Korean-Chinese literature, Poetic Criticism, Reform and Opening up,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national identity

박옥남과 금희 소설에 나타난 조선족의 '이주' 비교 연구*

- '고향'·'가족'·'집'을 중심으로 -

조수진 **

국문요약

박옥남과 금희는 조선족 3세대에 속하는 작가이다. 박옥남은 2세대와 3세대 사이, 금희는 3세대와 4세대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두 작가 모두 조선족의 이주와 정체성 문제를 주제로 작품을 창작했다. 이 글에서는 박옥남과 금희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고향과 가족, 집을 중심으로 두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조선족의 '이주'를 비교 분석하였다.

박옥남 작품에서 '고향'은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조선족마을에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조선족들이 한국과 도시로 이주하기 위해 탈향을 하는 연쇄 이주의 양상을 보인다. 이에 비해서 금희 작품에서는 한국에 이주했다가 고향으로 귀환하는 귀환 이주가 나타나며 돌아온 고향은 낭만성을 상징하는 장소의 의미를 지닌다. 다음으로 박옥남의 작품에 나타난 조선족의 통혼 의식 변화는 조선족이 한족문화에 동화되면서 조선족으로서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금희 작품에서 '가족'은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취업 문제로 중국 관내와 도시로 이주하는 분거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박옥남 작품에 나타난 이주민의 임시 거처와 금희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박옥남 작품에 나타난 이주가 조선족 마을공동체의 해체과정으로 나타난다면 금희 작품에 나타난 이주는 농촌과 도시 공간으로 대비되며, 인물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로 나타난다.

주제어 박옥남, 금희, 장손, 슈뢰딩거의 상자,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이주, 고향, 가족, 집, 조선족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8363)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목차〉

1. 서론
2. 박옥남·금희 연구와 이론적 배경
3. 박옥남과 금희 작품에 나타난 ‘이주’ 비교
 - 1) 탈향과 귀환
 - 2) 통혼의식 변화와 분거가족
 - 3) 이주민의 임시거처와 집을 꿈꾸는 사람들
4. 박옥남과 금희 작품의 문학적 의미
5. 결론

1. 서론

재외동포 중에서 이주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조선족은 1세대, 2세대를 거쳐 3세대와 4세대로 이어오고 있다. 조선족 1세대가 중국에 처음 정착을 시도했던 한인들이라면 조선족 2세대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에서 3D업종에 종사한 사람들로 조선족의 주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2세대에 비해서 조선족 3세대는 대부분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았고, 유학도 하여 지식인으로서 직업에 종사할 기회가 있는 세대이다.¹⁾ 한국의 민족문화를 유지, 계승해 온 조선족 1세대와 2세대에 비해 3세대와 4세대로 갈수록 조선족의 정체성은 혼란을 보인다. 최우길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 2세대와 3세대로 한국에 온 조선족의 부류를 돈 벌러 간 사람들, 국제결혼한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유학생들로 나눈 바 있다.²⁾ 이와 같이 한국에 온 조선족 유형은 조선족 작가인 박옥남과 금희 작품에 형상화된 바 있다.

박옥남과 금희는 우선 큰 범주에서 조선족 3세대에 속하는 작가이다. 박옥남과 금희는 같은 조선족 3세대의 범주에 있지만 시대적인 간극이 크게 나타난다.

1) 예동근 외, 『조선족 3세대의 서울 이야기』, 백산서당, 2011, pp.8-9 참조.

2) 최우길, 「중국 조선족 여류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한국 -허련순과 리혜선의 글을 중심으로」, 『중국 조선족 연구』,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5, pp.215-235.

박옥남은 1963년생으로 조선족 2세대와 3세대 사이에 위치한 작가로 문화혁명이 끝나고 중국의 개혁개방과 2세대의 코리아드림을 경험한 세대이다. 이에 비해서 금희는 1979년생으로 70후 세대에 속하는 작가로 조선족 3세대의 마지막이라 볼 수 있는 70후 세대와 80후 세대 사이에 위치한다. 3세대와 4세대 사이에 위치한 금희는 한국어 창작과 중국어 창작을 선택하는 80후 세대에 걸쳐진 세대인 것이다.

예동근에 따르면 50년대, 60년대 출생자들이 문화혁명을 겪은 마오쩌둥(毛澤東)의 세대였다면 70년대 출생자인 70후(後) 세대는 문화혁명 종결과 함께 개혁개방이 시작되는 덩샤오핑(鄧小平)시대에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것만으로도 사회적 인재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비해서 80후 세대와 90후 세대는 고학력자의 증가로 극심한 경쟁과 실업자가 증가한 세대라고 한다.³⁾

박옥남과 금희 작가는 같은 조선족 3세대에 속하지만 박옥남은 2세대와 3세대 사이, 금희는 3세대와 4세대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두 작가 모두 조선족의 이주와 정체성 문제를 주제로 작품을 창작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작가의 작품에 재현된 조선족의 이주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박옥남의 작품에 나타난 이주는 '코리아드림'이라고 하는 2세대의 한국열풍이 야기한 조선족마을의 한국 이주를 배경으로 한다. 금희 작품에서는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농촌에서 도시, 한국, 외국 등으로 이동하는 세계화 시대 다양한 이주 공간이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박옥남과 금희 두 작가의 작품에 재현된 조선족의 세대 간 이주 양상과 인식을 근간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작품에 나타난 '고향', '가족', '집'을 중심으로 작품에 재현된 이주를 비교할 것이다. 분석 작품으로 박옥남의 작품은 단편소설집 『장손』(연변인민출판사, 2011)에 수록된 작품들⁴⁾을 대상으

3) 예동근 외, 앞의 책, pp.28-29 참조

4) 박옥남의 단편소설집 『장손』(연변인민출판사, 2011)에 수록된 단편소설들은 다음과 같다. 「오가툼 일화」(1986), 「우리 동네」(1991), 「울케」(1999), 「동지」(2005), 「목욕탕에 온 여자들」(2006), 「마이허」(2006), 「세뚜리밥집」(2007), 「썸디이」(2007), 「찐구」(2008), 「내 이름은 개똥녀」(2008), 「장손」(2008), 「아파트」(2009), 「계명우리」(2009), 「어머니의 이야기」(2009), 「작은 진의 이야기」(2009), 「15년전의 일기」(2010), 「타향살이」(2010),

로 한다. 금희 작품은 소설집 『슈뢰딩거의 상자』(료녕민족출판사, 2010)⁵⁾, 『세상에 없는 나의 집』(창비, 2015)에 수록된 작품⁶⁾들을 대상으로 작품에 나타난 ‘고향’, ‘가족’, ‘집’을 분석할 것이다.

2. 박옥남 · 금희 연구와 이론적 배경

박옥남은 1963년 중국 흑룡강성 출신으로 상즈시 소재 상지조선족중학교에서 일본어교사로 근무하면서 소설을 써왔으며 2018년 교사를 퇴임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박옥남은 2005년 「마이허」로 제7회 재외동포재단 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 「등지」로 『도라지』 장락주문학상 수상, 2006년 조선족 어머니 수필상 대상, 2007년 「목욕탕에 온 여자들」로 제1회 김학철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7년 체험수기 「붉은 넥타이」로 제9회 재외동포재단 문학상 대상을 받았다. 2009년 「장손」으로 『연변문학』 운동주문학상 등을 수상하면서 조선족 문단의 중견작가로 활동하였다.

금희는 1979년 중국 길림성 작은 조선족 마을에서 태어나 연길사범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 장춘에 정착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2002년 한국에 2년 반 머물며 여러 가지 일을 했고 2006년 텐진에서 살던 때 『연변문학』 소설 공모에 응모하면서 작품 창작을 시작하였다. 단편소설 「개불」로 2007년 운동주문학상을 수상하고, 2013년 첫 소설집 『슈뢰딩거의 상자』를 중국에서 출간했다. 국내 작품 활동은 2014년 봄 계간 『창작과 비평』에 단편 「옥화」를 발표하면서 시작하였고, 2015년 소설집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을 국내에서 발표한 후 2016년 백

「집으로 가는 길」(2011), 「장례」(2011) 이렇게 총19편이다.

- 5) 금희 소설집 『슈뢰딩거의 상자』(료녕민족출판사, 2013)에는 중편소설 「빠스정류장에 편 아이리스」, 「제비야 제비야」와 단편소설 「파란 리봉의 모자를 쓴 소녀」, 「슈뢰딩거의 상자」, 「아리랑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깨어진 닭알처럼」, 「우주를 떠다니는 방」, 「계단없는 오피스텔」로 중편소설 2편, 단편소설 6편이 수록되었다.
- 6) 금희 단편소설집 『세상에 없는 나의 집』(창비, 2015)에는 「세상에 없는 나의 집」, 「봉인된 노래」, 「옥화」, 「월광무」, 「쓰레기통 위의 쥐」, 「돌도끼」, 「노마드」 이렇게 총7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었다.

신에문학상과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금희 작품은 국내 문단과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금희 작가는 2020년 중편소설 『천진시절』을 국내에서 출간하고, 계간 『창작과 비평』에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⁷⁾ 인터넷에 단편소설들을 게재하고 있다.⁸⁾

금희 연구는 크게 금희 작품에 나타난 이주 연구와 정체성 분석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이주와 관련한 연구는 조선족의 이주에 관한 인식 연구⁹⁾, 이주의 여성화 연구¹⁰⁾, 모빌리티 연구¹¹⁾, 조선족공동체 이주 연구¹²⁾가 있다. 금희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 분석 연구는 소수자 관점 정체성 연구¹³⁾, 인정투쟁 관점 연구¹⁴⁾, 장소의 정체성 관점 연구¹⁵⁾, 배금주의 분석과 정체성 부재¹⁶⁾의 관점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금희의 작품은 국내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를 진

- 7) 금희 신작 「무한오리부위집」(『창작과 비평』, 2020, 겨울호)은 코로나시대 집, 공간의 문제를 다루며 현대인의 무장소성을 제기한 작품이다.
- 8) 인터넷에 발표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이원혼(二元婚)」, 「빼앗긴 것들」, 「신사들의 별장」, 「상냥한 친구들」, 「붉은 닻」, 「사거리의 불빛」, 「불타는 수용소」, 「바람구멍」 등이다. 조글로 조선족사이버박물관
<http://www.zoglo.net/search/result/%EA%B8%88%ED%9D%AC/>
- 9) 최병우, 「김금희 소설에 나타난 조선족 이주에 관한 인식」, 『한중인문학연구』 제61권, 한중인문학회, 2018, pp.149-172.
- 10) 소영현, 「징후로서의 여성/혐오와 디아스포라 젠더의 기하학 - 이주의 여성화, 이주노동의 가정주부화」, 『대중서사연구』 제23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7, pp.85-117.
- 11) 황지선, 「디아스포라 주체의 모빌리티와 행복의 젠더화 - 금희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pp.223-251.
- 12) 천춘화, 「디아스포라 노마드와 모빌리티의 정치학, -금희 소설의 조선족 서사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pp.95-121.
- 13) 오창은, 「근대 세계체제의 확장과 약소자의 정체성—중국 조선족 작가 금희의 소설 세계」,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0호, 국제한인문학회, 2021, pp.67-96.
- 14) 차성연, 「인정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본 중국조선족소설사 시론(試論)- 금희 소설의 소설사적 맥락과 쟁점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76권, 한중인문학회, 2022, pp.47-70.
- 15) 최효예, 「금희 소설 연구 -조선족의 이주와 정체성 변화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 16) 엄학준, 「조선족 소설에서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재현양상 및 방향성 연구 - 금희의 『세상에 없는 나의 집』과 『천진 시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제45집,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3, pp.131-154.

행하고 있고, 조선족공동체 관점에서 조선족 학자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와 비교했을 때 박옥남 연구는 작품 연구와 교육 관점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박옥남의 작품 연구로 최병우는 박옥남 작품에 나타난 조선족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탈북여성 문제를 다룬 미발표작 「해심이」를 소개하면서 조선족문학의 저변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¹⁷⁾ 교육 관점 연구로 박갑수는 박옥남의 작품 「마이허」를 중심으로 재외동포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¹⁸⁾ 조수진은 한국 대학생 대상 이주민 이해 교육으로 「마이허」와 「내 이름은 개똥녀」를 중심으로 조선족의 문화정체성과 이중정체성 이해를 위한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다.¹⁹⁾

조선족 학자의 연구로 김춘선은 『도라지』에 발표한 박옥남의 「고향」을 중심으로 조선족마을의 고향 풍경과 민족의식을 분석하였다.²⁰⁾ 오상순은 『장손』에 수록된 전체 작품을 대상으로 조선족의 정체성 형상화를 주제 측면에서 조선족 공동체의 축소, 통혼, 한족과 조선족을 대비하여 사라져가는 조선족마을의 정체성 위기로 분석하였다.²¹⁾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박옥남의 작품에서는 조선족의 한국 이주로 인한 농촌공동체의 해체와 조선족 정체성의 위기라는 주제의식을 찾을 수 있다.

최병우는 초국가주의 관점에서 국가를 초월하여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는 이주의 보편적인 현상을 금희 작품에 형상화된 조선족의 이주 인식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 연구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박옥남의 작품에 제시

17) 최병우, 「박옥남 소설에 나타난 조선족 정체성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59집, 2018.

18) 박갑수, 「소설 “마이허”와 재외동포 교육의 성격」, 『재외동포 교육과 한국어교육』, 역락, 2013, pp.51-74.

19) 조수진, 「한국 대학생의 이주민 이해를 위한 교육 방안 연구 - 박옥남 소설에 나타난 조선족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6호, 국제한인문학회, 2023, pp.157-192.

20) 김춘선, 「박옥남 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한중언어문화연구』 제49집,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18, pp.67-86.

김춘선, 『개혁개방 후 조선족 문학의 변화 양상 연구』, 한국학술정보, 2018, pp.188-217.

21) 오상순, 「민족 정체성 위기와 소설적 대응 양상-박옥남 소설의 경우」, 『조선족 정체성의 문학적 형상화』, 태학사, 2013, pp.277-305.

된 농촌공동체의 해체와 조선족 정체성의 위기라는 주제를 금희 작품과 비교하여 이주의 흐름을 고찰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주의 측면에서 개혁개방 시기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조선족의 한국 이주가 세계화 시대 이주의 보편화 현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린다 메고월은 여성주의 젠더 관점에서 장소의 정체성을 고찰했으며 젠더 역할의 변화로 가정이 생산의 주체에서 소비 주체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도시 이주로 나타난 자본을 통한 소비 욕망을 고찰하였다. 또한 많은 여성 가사노동자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거나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과정에서 중산층 가정의 노동력이 되면서 자신들의 삶에서는 모성과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²²⁾ 이렇게 여성 혹은 남성의 젠더 관점으로 이 글에서는 박옥남과 금희 작품에 나타난 이주 현상을 고향이라는 공간의 의미와 도시와 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과 집의 관계로 분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박옥남과 금희 작품에 나타난 '고향'을 시작점으로 이주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주의 개념으로 연쇄 이주는 이주자들이 가족구성원과 친구들의 이주를 권장하고 용이하게 하는 과정으로 때로는 그 결과로 어떤 한 소지역에서 특정의 목적지로 (거의) 모든 개인들이 이주하기도 한다. 순환 이주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규제되거나 혹은 규제되지 않은 이동성의 패턴을 말한다. 이는 경제적인 동기가 부여되고 일시적이며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귀환 이주는 이주자가 기원지 국가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며 본래의 목적이 완수되었거나 혹은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²³⁾

박옥남과 금희 작품에는 연쇄 이주와 순환 이주, 귀환 이주의 양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의 한국과 중국 도시로 이주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금희 작품에는 최근 이주가 초국가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22) 린다 맥도웰 지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 2010, 제3장, p.157 참조.

23) 데이비드 바트럼 외 지음, 이영민·이현욱 외 옮김, 『개념으로 읽는 국제 이주와 다문화 사회』, 푸른길, 2016, pp.47-57, p.173.

데 초국가주의는 이민자들이, 특히 최근 수십 년동안, 정착국에서의 통합을 이루어 가면서도 기원국과 연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향을 말한다.²⁴⁾

다음으로 이 글에서는 박옥남과 금희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의 가족 형성으로 인한 문화변용을 비교해 볼 것이다. 문화변용은 상이한 집단이 서로 접촉하면서 각 집단의 문화적 유형이 변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며, 문화변용으로 인해 때로는 한 집단이 고유하게 지녀 온 문화적 독특성이 약해지기도 한다.²⁵⁾

마지막으로 이 글은 두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집’으로 상징되는 거주 공간을 분석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박옥남 작품에 나타난 이주민 인물의 ‘집’을 비교하고 금희 작품에 나타난 ‘집’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정체성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박옥남과 금희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고향, 가족, 집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조선족의 ‘이주’가 작품에 재현된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박옥남과 금희 작품에 나타난 ‘이주’ 비교

1) 탈향과 귀환

박옥남 작품에는 개혁개방이 시작되는 시기 농촌공동체를 이루던 조선족마을에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여성들이 도시로 떠나게 되는 과정이 재현된다. 「오가튼 일화」는 호도거리 영농에서 은행과 합작회사, 영화 상영 등으로 농촌마을에 ‘자본’이 유입되면서 농업보다 식당과 같은 상업에 종사해서 돈을 쥐게 된 여성이 경제력을 지닌 채 시골마을을 떠나게 되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며 고향 이탈 현상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다.

「목욕탕에 온 여자들」에는 한국바람으로 돈을 쥐게 된 조선족세대를 이전 세대와 견주는 작중화자의 비판적 시각이 보인다. 이 작품에는 인민공사 합작노동에 만출근을 하면서 가축도 기르고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노동의 연장에서 선

24) 앞의 책, p.200.

25) 앞의 책, p.21.

달 그믐날 저녁 '오지독' 목욕을 하던 어머니 세대와 달리 한국 바람으로 돈을 벌게 된 조선족들이 목욕탕에서 한족에게 돈을 주며 때를 밀고 머리도 땀는 등 소비를 지향하는 모습이 서술된다. 심지어 한국에 가서 씨받이를 해서 동네 건물과 집, 자동차까지 장만했다는 맞은 편 사는 여인을 부러워하는 둘째언니를 대하는 작중화자는 '노동이 없는 부에 대한 혐오'라 하며 "엄마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었다", "저마다 하나같이 돈 버는 재미에 미쳐 무척이나 즐거워하고 있었다"라면서 물질주의가 팽배해진 현 세태를 비판한다.

이와 함께 중국 내 한국회사가 생기면서 한국인 투자자의 직원으로 일하기 위해 도시로 가는 노동자가 생기게 되는데 「15년 전의 일기」에는 산동의 한국인 투자자와 도시로 돈 벌러 온 조선족 직원이 등장한다. 작품에서는 중국 지역에 진출한 한국인 회사가 등장하며 한국 기업이 많은 산동 지역으로 흑룡강이나 연변 지역 조선족이 일하러 가서 한국인 투자자와 한족 현지 대표, 직원들 사이 언어적 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조선족 직원이 담당하지만 문화적으로 미묘한 갈등을 작품 이면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마을에 자본주의가 도입되어 농촌마을의 여성들이 도시로 나가게 되고 한국회사의 투자 증가로 조선족들은 중국 대도시에 가서 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 가서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물질주의 세대의 가치관은 결과적으로 조선족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연쇄 이주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조선족마을 사람들이 한국으로 연쇄 이주를 하는 모습은 「우리 동네」에 구체적으로 재현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제적 이주 원인 이면에 함의된 정서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동네」에서는 '초청장'을 기다리며 한국 출국열이 한창인 조선족 마을 풍경이 배경으로 나타난다. 마을 사람들의 함경도 사투리로 표현되는 토속적인 팔가자촌 마을에 황성기를 통해 들리는 "얼마나 멀고 먼지 그리운 서울은 바다가 길을 막아 가고파도 못 갑니다"라는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1973)으로 시작해 〈황성엿터〉와 같은 노래로 마무리되는 작품 전개는 그 당시 조선족사회에서 유행하는 한국 노래의 인기와 옛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알 수 있게 한다. 한국에 관한 감성

적인 고향의 정서를 배경으로 작품에서는 자본이 유입된 마을에 한족장사꾼들이 와서 근जू질거리를 팔고 마을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풍경이 한국 이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박옥남 작품에 나타난 탈향 현상과 비교했을 때 금희 작품에 나타난 ‘고향’은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귀의 장소로 표현된다. 박옥남의 작품에서 조선족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연쇄 이주의 과정이 나타난다면 금희 작품에서는 고향을 떠난 인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환 이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순환 이주에서 국외로의 이주가 경제적 목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반해 귀환 이주는 가족 또는 다른 비경제적인 사항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귀환 이주에서 ‘혁신’은 이주자가 정착국의 일부 가치와 관습을 수용하고, 기원국으로 돌아가서 ‘고향의 변화를 이끌어 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실패’는 정착국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와 자본의 축적이 어려워 기한 없이 정착국에서 생활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도 발생한다.²⁶⁾

금희 작품에서 「제비야 제비야」의 명이 막내 삼촌은 귀환 이주의 ‘혁신’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제비야 제비야」의 명이 막내 삼촌은 한국으로 출국해 번 돈으로 고향 마을의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꾸고 동네 길도 수리하면서 고향을 발전시킨다. 이에 비해 「노마드」에서 박철의 귀환은 ‘노마드’ 인물의 아이러니한 세계관과 고향의 낭만성에 관한 선택을 함의한다. 「노마드」의 박철은 자신의 꿈을 위해 한국으로 떠나서 돈을 벌어 고향에 돌아왔지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자신의 원래 꿈을 이룬 광수를 부러워한다. 광수는 고향에서 한국 슈퍼를 운영하면서 아파트와 결혼, 아이와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결국 박철은 아파트 대신 시골의 땅을 선택하여 한국에서 만난 수미로 추정되는 여자와 가족을 형성하고 싶은 ‘노마드’로서 정주를 꿈꾸게 된다.

수미인지 수미가 아닌지 모르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결혼했던 아이인지 아이가 있는 여자인지도 모르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박철이는 덜덜 떨리는 지프차의 핸들을

26) 데이비드 바트럼 외 지음, 앞의 책, p.174 참조.

겪었다. 정처없이 풀밭만 찾아다니던 유목민들처럼 끝없이 떠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던 노마드 하나가 돌아왔다는 것, 그녀도 그만 텐트를 내려놓고 누군가와 집이라도 짓고 싶어한다는 것, 그것보다 박철에게 더 중요한 일은 지금 없었다.²⁷⁾

또한 금희 작품에서는 고향마을인 시골과 이주 장소인 도시가 이분법으로 대비되는 작품들이 보인다. 「쓰레기통 위의 쥐」에서 ‘시골’은 가난하지만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량씨 가족의 공간이고, ‘도시’는 물질의 행복을 추구하는 동생 광다 가족의 공간이다. 결국 량씨 아들 밍이는 아버지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더러운 쓰레기통 위에 있는 쥐를 보면서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에서처럼 맑은 웃음을 찾게 된다.

이상과 같이 박옥남 작품에 나타난 고향은 조선족마을에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사람들은 한국과 도시로 이주하여 돈을 벌기 위해 탈향을 하는 연쇄 이주의 양상을 보인다. 표면의 이주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문제와 함께 작품 이면에는 함경도 사투리의 토속적 표현과 한국의 옛노래로 떠난 고향을 추억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인물들을 통해 한국을 옛고향으로 인식하는 마을 사람들의 정서를 유추하게 한다. 이에 비해 금희 작품에서는 한국에 이주했다가 고향으로 귀환한 인물이 중국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와서 고향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한국에서 귀환한 인물이 농촌에 정착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금희 작품에서 고향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경제적 순환 이주의 양상을 보이면서도 인물이 다시 돌아오는 귀환 이주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금희 작품에서 고향은 도시로 떠난 인물들에게 위안을 주는 낭만성을 상징하는 장소의 의미를 지닌다.

2) 통혼의식 변화와 분거가족

박옥남의 작품에서는 조선족마을 사람들이 한국으로 연쇄 이주하여 가족이 해체되고 마을에 남은 조선족들이 한족과 결혼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조선족의

27) 금희, 「노마드」,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창비, 2015, p.272.

통혼의식 변화는 조선족과 한족이 결혼하게 되면서 조선족으로서 정체성이 약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박옥남의 「마이허」와 「장손」은 조선족이 떠난 자리를 메우는 한족사람들로 인해 조선족마을이 한족마을로 변모되고, 고향에 남은 조선족과 한족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조선족문화가 한족문화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허」는 ‘개미강’이라는 마이허를 가운데 두고 상수리마을과 물남마을의 문화 차이를 통해 한족과 조선족의 문화를 대비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조선족이 조선족과 통혼하여 조선족의 문화를 유지해온 현상을 조선족 마을과 한족 마을의 문화와 대비해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조선족마을인 물남마을의 신옥과 한족마을인 상수리마을의 쑤영감 막내아들의 연애는 조선족의 통혼의식 때문에 파국이 되어 마을의 전설이 됐지만 시간이 흘러 귀식총각과 한족처녀가 결혼하게 되면서 물남마을은 한족의 결혼문화와 자연스레 섞이게 된다. 이러한 결혼 배경에는 「올케」에서 조선족 여자들이 한국 이주를 위해 위장 결혼까지 해서 마을을 떠나는 상황에서 마을에 남은 조선족 남자들은 결혼할 조선족 여자가 고양이뿔만큼 찾기 어려워져 어렵게 한족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족은 조선족과 통혼으로 조선족의 정체성을 지켜왔으나 조선족마을의 한국 바람으로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연쇄 이주하면서 마을의 빈자리를 한족들이 채우기 시작하고 조선족과 한족의 결혼도 빈번해져 조선족의 정체성도 한족의 문화와 섞여 모호해지게 되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선족의 통혼의식 변화는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문화가 약화되면서 주류민족인 한족문화에 영향을 받는 문화변용으로 나타난다. 그 현상을 보여주는 박옥남의 「장손」은 조선족 문화보다는 한족 문화에 익숙하게 자란 밀양 박씨 마지막 명중 장손의 죽음을 끝으로 조선족들이 모두 한국으로 떠나서 장례도 한족식 장례로 치르게 되는 풍경을 담고 있다.

죽을 사람은 다 죽고 떠날 사람은 이래저래 다 떠나버린 마을. 그 마을 한복판에 큰아버지도 없고 큰어머니도 없고 이젠 유일한 살붙이었던 사촌형님마저 살아있지

않는 나의 큰집이 멋지게 남아있다.²⁸⁾

조선족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마을에 남은 큰집에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한족식으로 살던 장손마저 죽고 나자 마을에 '사람'은 없고 '집'만 남아 있을 뿐이다. 서술자 '나'는 마지막 남은 조선족의 흔적으로 설날 아침 차례상에 모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가방에 챙겨 넣고 집으로 떠난다. 이렇듯 「장손」은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떠나면서 조선족들이 사라져버린 마을의 모습을 한족과 조선족의 장례 문화 대비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장손'의 죽음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조선족 문화가 주류문화인 한족 문화와 섞이면서 조선족 가족의 정체성이 해체되는 현상을 작품을 통해 찾을 수 있다.

금희의 「우주를 떠다니는 방」은 마흔 다섯 살 상철의 회상으로 서술되는데 아버지가 관내에 돈 벌러 가는 동안 부부가 각기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이혼으로 이어져 엄마가 한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연을 담고 있다. 결국 아버지가 죽고 '다른 대부분의 조선족아줌마들이 하던 일을 핑계거리로 삼는' 박여사를 비난하던 상철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자신이 경멸하던 '남자'가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슈뢰딩거의 상자」에서도 X시, x향, x촌을 배경으로 남편과 아이, 아내가 따로 떨어져 사는 분거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에서 '나'의 가족인 남편과 아이는 x촌에 살고 있고, '나'는 X시에 살며 사무실에서 일한다. 핸드폰과 전화선, 은행계좌가 가족과 나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현실에서 '나'가 느끼는 공간은 코펜하겐이 실험한 평행우주 이론과 슈뢰딩거가 실험한 상자 안 고양이와 같이 삶과 죽음의 시공간의 동시성으로 인식된다. 슈뢰딩거의 고양이 같은 '상자'에서 '거울'로, '거울'에서 '가족'이 나에게 투영되는 과정에서 x촌의 남편과 X시 단골오피 사이 '거울 속 여자'로 상징되는 '나'는 가족과 시공간을 공유하지 못한 채 X시 단골오피와 시간을 보낸다. 그렇지만 '나'는 '그림'과 '거울'을 매개체로 가족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28) 박옥남, 「장손」, 『장손』, 2011, p.230.

이러한 ‘그림’과 ‘거울’은 「파란 리봉의 모자를 쓴 소녀」를 통해 가정의 본질을 포착하는 매개체가 됨을 알 수 있다. 「슈뢰딩거의 상자」의 ‘나’와 달리 이 작품의 ‘여자’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집이 있는 중산층 여성이다. 이 작품에서는 여자가 가정주부에서 ‘그림 속의 여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시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화가의 시점에서 그림의 시점, 여자의 시점, 다시 그림 시점, 화가의 시점, 다시 여자의 시점을 거치면서 결국 여자는 ‘파랑 리봉의 모자를 쓰고 있는 그림 속 소녀’로 남게 된다.

반면 「깨어진 닭알처럼」에서는 연애만 하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유행과 패션을 따라가며 철학을 공부하면서 주얼리 가게를 운영하는 도시의 미혼 여성이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는 ‘지진’을 배경으로 가부장 가족의 해체를 암시하듯 도시의 공간에서 소비 주체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²⁹⁾

이상과 같이 박옥남의 작품들은 조선족마을의 자본주의 도입과 한국의 연쇄이주가 조선족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는 필연적인 과정을 연작처럼 보여주고 있다. 박옥남의 작품에서 결혼은 가족을 이루는 방식으로 조선족의 통혼의식이 한족과 결혼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조선족이 주류문화인 한족문화에 동화되어 조선족 문화가 약화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와 달리 금희 작품에서 ‘가족’은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취업 문제로 중국 관내와 도시로 이주하는 분거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금희 작품에서 도시는 여성들의 이주 공간으로 나타나며 자본과 소비를 근간으로 가족이 생산에서 소비의 주체가 되는 현실을 보여주며 가부장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의 해체를 내포하기도 한다.

3) 이주민의 임시거처와 집을 꿈꾸는 사람들

박옥남의 작품 중에서 「내 이름은 개똥녀」, 「타향살이」는 한국을 배경으로

29) 금희가 인터넷에 발표한 소설 「이원혼(二元婚)」에는 미래의 결혼제도에 관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품에는 미래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고집하는 사람과 이원혼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상상이 담겨 있다.

조글로 사이트 <http://www.zoglo.net/search/result/%EA%B8%88%ED%9D%AC/>

한국에 이주한 조선족 이주민들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작품에서 조선족들이 '이주민'으로 한국에 와서 머무는 곳은 지하방이나 임시 거처로 나타난다. 「내 이름은 개똥녀」에서 '나'의 남편은 인덕원 지하방에 기거하고, 「타향살이」의 인물들은 회사기숙사와 같은 임시거처에서 돈을 벌기 위해 숙식한다.

「내 이름은 개똥녀」에 등장하는 물남마을 동창들은 한국에서 조선족의 여러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용접일을 하는 철수, 광식이, 병자 보모 영순, 치매 노인 보모일을 하는 춘화, 씨반이 진화, 함바식당에서 일하는 동녀는 모두 물남마을 동창들이다. 한국에서 힘든 노동을 하는 이들의 희망은 집을 사는 것이다. 동창들 중에서 병달은 혼자서라도 고향에 돌아가 초가집을 아담한 기와집으로 바꾸고 소 수십 마리 농사도 꿈꾼다.

박옥남의 「타향살이」에서도 고향을 떠나 한국의 회사기숙사에서 불법체류자 생활을 하는 '집'이 없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찾아온 흑룡강성 출신의 조선족 라북 아저씨를 비롯하여 한족인 양양, 상호, 봉호는 건설 현장 기숙사에서 한 식구로 생활한다. 철거일을 하는 라북 아저씨와 용역회사 석면작업을 하는 봉호, 상호, 양양은 건설현장 인부로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상호가 두부를 사러 근처 마트에 나갔다가 단속경찰에 걸려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회사 기숙사에서 그냥 내쫓겨도 아는 전화번호는 한국인 구과장 번호뿐이다. 그들은 다시 그 회사로 출근하거나 행방이 묘연한 라북아저씨와 같이 집으로 아니면 어디론가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와 비교했을 때 금희 작품에는 집이 없거나 집이 있어도 화목하지 않은 가족들이 등장한다. 「빠스정류장에 핀 아이리스」에는 시골 버스정류장에 아이리스처럼 서 있는 '샹'이 등장한다. 시골의 불우한 가정에서 도시 이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샹'은 도시 농민공³⁰⁾의 삶이 예상되는 인물이다. 이 작품에서 '버스정류장'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며 솔밭꽃이 도시에

30) 중국의 엄격한 호구제도는 신분상 농민이지만 도시에 나가 돈을 버는 호구가 불안정한 수많은 '농민공'을 양산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농민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기숙사, 지하셋집 등에서 생활하면서 번 돈을 대부분 고향의 가족들에게 송금한다.

서 ‘아이리스’라고 불리는 듯이 ‘나’는 버스정류장에 있는 ‘상’의 달라진 세련된 모습을 떠올린다. 정류장에 있는 ‘상’과 달리 나의 가족은 농촌과 도시에서 서로 다른 집을 꿈꾼다. 농촌에 살고 싶은 남편은 조선식 흙집을 지으며 미래 근사한 초가집을 꿈꾼다. 그렇지만 ‘나’와 아들은 도시 아파트에 살면서 과거 고향 초가집을 추억할 뿐이고, 마을은 개발로 인해 한족식 집이 근대식 집으로 변화하는 도시화가 진행된다.

「제비야 제비야」에서 두 마리 귀제비 태몽으로 태어난 나의 ‘오빠’와 ‘막내 삼촌’은 자라서 ‘집이 없는 사람’과 ‘집을 증식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20만 원이라는 거액을 사기치고 날리는 ‘오빠’와 달리 ‘명이 막내 삼촌’은 한국으로 출국해 번 돈으로 신형 벤츠와 아파트 세 채를 사고, 초가집에 사는 할머니께 기와집을 지어드리고 동네 길도 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막내 삼촌 덕분에 고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가족의 불화는 ‘나’에게 제비가 우리집에 다시는 날아들지 않길 바라게 한다.

또한 「우주를 떠다니는 방」에서 아버지의 자녀인 누나 한의 신혼집은 3층집이고, 남자의 자녀 상철이 기거했던 곳은 중학교 기숙사이다. 상철은 ‘한’이네 집 ‘열다섯평 골방’에서 고립을 느끼며 살아간다. 방문만 열면 한이와 박여사, 조카도 볼 수 있지만 방문이 닫힌 채 상철은 우주 속을 날아다니듯 방에서 혼자 떠다니며 양과덩이같이 벗겨지는 정체성의 아픔을 느낀다. 「계단없는 오피스텔」에서도 가장 높은 20층에 있는 ‘오피스텔’은 고립된 장소로 세상의 시간을 공유하지 못하는 ‘남자’가 기거하는 혼자만의 공간이다. 핸드폰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소통의 창구가 되었던 ‘남자’는 집주인이 철문을 열면서 세월을 인지하게 된다.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은 조선족 ‘나’, 한족 ‘닝’, 한국인 ‘연주’를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정체성과 허무, 불안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중국에 있는 ‘나’는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를 하고 있고, ‘닝’은 도서관 직원이다. ‘나’와 ‘닝’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집을 마련하는데 ‘닝’은 결혼할 때 시부모가 사준 아파트가 있고, ‘나’는 언젠가 값을 날을 기대하면서 남편과 대출금으로 집을 계약한다. 자신의 집이 있는 ‘나’를 ‘닝’이 부러워하고 ‘나’는 반대로 ‘닝’을 부러워

한다. '나'는 중국식의 '모피집'(기초 공사만 해놓은 주택 건물)을 조선식 한옥인 테리어로 설계한다. 이와 비교했을 때 '나의 아들 준표와 같은 어린이집 사랑방에 다니는 딸을 둔 한국인 연주는 중국에 유학 와서 애를 가지면서 학업을 그만두고 학업이 끝나가는 남편을 기다린다.

①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나는 때로 차라리 그들처럼 한 가지 말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것, 만약 그랬더라면 나는 그 둘 중의 한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준표의 학교 문제 따위를 가지고 머리를 썩일 일은 없었을 것이었다.

② 누구랑 다를 바 없이 지낸 평범한 학창시절, 전공보다 점수 때문에 선택했을 모모대학의 중국과, 부모님의 주선으로 차지하게 된 대학 도서관 실무자 자리, 매일 같이 이어지는 바코드 숫자들과의 무의미한 씨름, 다만 진급을 위해 계속해야 하는 지루한 연구생 공부…… 나는 아무도 대신 정립해줄 수 없는 나만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너 또한 아무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녀만의 허무를 가지고 있었다.

③ 확실한 비전이 있어서라기보다 확실한 무엇이 없었던 탓으로 주위의 풍문을 따라 유학 온 연주, 애를 가지면서 학업을 그만두는 바람에 중국 유학의 의미는 바래기 시작했고, 학업이 끝나가는 남편의 막연한 행복은 그녀를 더욱 혼미스럽게 했을 것이다.³¹⁾

①에서는 조선족과 한족, 한국인 사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나'의 고민이 언급되고 있다. ②는 자신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단조로운 일상의 허무를 느끼는 '나'의 고민이 나오고, ③에서 연주는 확실한 무엇이 없이 막연한 희망으로 여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나'와 '너', '연주'는 모두 현실 속 집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기 세계'³²⁾를 찾기 위한 삶을 살고 싶은 공통점이 있다. 결국 이주된 '나'와 정주민 '너', 거주자³³⁾의 위치에 있는 '연주' 모두 아무도

31) 금희,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창비, 2015, p.20, p.29, p.31.

32) 작품에는 너의 책상 유리 밑에 있는 다음과 같은 헤겔의 말이 인용된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슬픈 일은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세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금희, 같은 책, 2015, p.31.

대신 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나’는 집에 걸린 그림 마그리뜨의 〈인간의 아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명한 한 가지를 찾게 된다.

한 가지는 분명하잖니? 다른 사람들이 당연시하던 것대로 무작정 그리지 않았다는 거.³⁴⁾

이상과 같이 박옥남의 작품에서 한국에 노동자로 이주한 조선족은 임시거처에 머문다. 박옥남의 작품이 한국 이주와 가족의 해체로 불안정한 ‘집’의 거주 문제를 다루는 것과 다르게 금희 작품에서는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이주를 선택하는 인물들과 집을 꿈꾸는 인물이 나타난다. 금희 작품에서 정류장, 상자, 방, 오피스텔, 집 등의 공간은 인물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재현되고 있다.

4. 박옥남과 금희 작품의 문학적 의미

박옥남 단편집 『장손』(연변인민출판사, 2011)의 핵심주제는 조선족의 한국 이주가 야기하는 조선족마을의 해체 문제이다. 조선족마을의 해체와 변화는 고향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사라지게 한다. 수록 작품 중에서 「오가툼 일화」, 「목욕탕에 온 여자들」, 「15년 전의 일기」는 개혁·개방시기 조선족마을의 자본주의 도입으로 시작된 조선족의 탈향 현상을 보여준다. 마을을 떠난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연쇄 이주하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마을 전체가 해체되는 현상이 초래된다. 이처럼 단편집 『장손』에는 조선족마을의 해체과정이 연작과 같은 연결고리로 각 작품에 등장한다.

금희 중단편집 『슈뢰딩거의 상자』(료녕민족출판사, 2013), 『세상에 없는 나의 집』(창비, 2015)에는 농촌 마을에서 중국 대도시로 이주하여 농민공이 되는

33) 거주자(Denizens)는 오랜 기간 동안 ‘목적(정착)’국에 거주하고 있는, 귀화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민자를 의미한다.

데이비드 바트럼 외 지음, 앞의 책, 2016, p.69.

34) 금희, 앞의 책, 2015, p.32.

‘상과 같은 인물(「버스정류장에 핀 아이리스」)과 농촌마을과 도시를 사이에 두고 따로 사는 분거가족들(「제비아 제비아」, 「슈뢰딩거의 상자」 등)이나 「노마드」의 ‘박철’과 같이 고향에 귀환한 인물이 등장한다. 금희 「세상에 없는 작은 집」은 한족과 조선족, 한국인 유학생 세 인물을 중심으로 정주민과 이주민, 거주자의 위치에서 삶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박옥남과 금희 작품은 출판된 시기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조선족의 이주 양상과 이주에 관한 인식은 차이를 보인다. 두 작가가 조선족 3세대에 속하지만 작가의 출생시기가 16년의 간극을 보이는 원인도 있다. 박옥남은 조선족 3세대의 시작점에 위치한 작가로 민족 언어와 민족 문화를 유지하고 계승하면서 한국을 모국으로 인식하는 조선족 1세대와 2세대의 정서와 코리아드림의 경험들을 작품을 통해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동네」를 비롯한 박옥남의 여러 작품에서는 고향의 정서로 한국의 옛노래가 등장하며 토속적인 한국어가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개혁개방 시기 조선족마을의 자본주의 도입과 한국 바람은 코리아드림으로 이어져 마을 사람들이 한국으로 연쇄 이주하는 양상으로 작품에 재현된다. 이렇게 조선족이 한국으로 연쇄 이주하는 현상은 「내 이름은 개똥녀」에서 ‘나’가 할아버지의 고향이라는 기대감으로 한국에 오는 것과 같은 ‘뿌리 찾기’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박옥남의 작품은 코리아드림을 경험한 2세대의 한국 이주 경험에서 조선족 3세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했을 때 금희는 조선족 3세대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70후 세대 끝부분에 있는 작가로 조선족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연결 지점에 위치한다. 개혁개방 시기 사회적 인재로 대우받았던 조선족 3세대에 비해서 조선족 4세대는 언어와 사회문화적으로 정체성이 모호한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금희 작품에는 중국에서 농민공 문제나 고향을 혁신하는 농촌의 개발 문제, 중국의 관내 이주, 소수민족으로서 정체성의 문제가 재현되고 있다. 작품에 재현된 이주의 양상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환 이주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는 보편성의 문제로 이주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결론

박옥남과 금희는 조선족 3세대에 속하는 작가로 박옥남은 조선족 2세대와 3세대 사이에 위치한 작가이고, 금희는 3세대와 4세대 사이에 위치한 작가로 두 작가의 경험한 시대적 간극은 크게 나타난다. 박옥남은 문화혁명과 중국의 개혁개방, 2세대의 코리안드림을 경험한 작가이고, 금희는 3세대와 4세대 사이, 문혁 종결과 함께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고학력자가 증가하는 70후 세대와 한국어 창작과 중국어 창작을 선택하는 80후 세대에 걸쳐진 작가이다.

박옥남은 2세대와 3세대 사이, 금희는 3세대와 4세대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두 작가 모두 조선족의 이주와 정체성 문제를 주제로 작품을 창작했다. 이 글에서는 박옥남과 금희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고향과 가족, 집을 비교 분석하여 두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이주’를 고찰하였다.

먼저 박옥남과 금희 작품에 나타난 ‘고향’은 농촌이고, 고향을 떠나 이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박옥남의 작품에서 고향은 조선족마을로 나타나는 조선족공동체의 모습인데 비해서 금희 작품에 나타난 고향은 시골 고향의 모습이다. 박옥남 작품에서 고향은 조선족마을에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마을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하는 연쇄 이주의 양상을 보인다. 이에 비해서 금희 작품은 한국에 이주한 인물이 귀환하여 고향을 발전시키거나 농촌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환 이주로 나타난다. 또한 금희 작품에서 고향은 도시로 떠난 인물들에게 위안을 주는 낭만성을 상징하는 장소의 의미를 지닌다.

다음으로 박옥남과 금희 작품에 나타난 ‘가족’은 박옥남의 작품에서 마을 사람들의 연쇄 이주로 조선족의 통혼의식이 변화하고, 조선족이 주류문화인 한족 문화에 동화되어 조선족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현상으로 재현된다. 이와 달리 금희 작품에서 ‘가족’은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취업 문제로 중국 관내와 도시로 이주하는 분거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두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집’으로 상징되는 거주 공간은 ‘정체성’을 상징한다. 박옥남의 작품에서 한국에 이주한 이주민은 한국에서 임시거처에

기속하지만 자신의 '집'을 갖고자 하는 소망을 보인다. 금희 작품에서는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이주를 선택하는 인물들과 집을 꾸꾸는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금희 작품에는 '정류장', '방', '오피스텔', '집' 등이 인물의 정체성을 상징하며 작품에 재현된다.

그러므로 박옥남 작품에 나타난 이주는 조선족마을 공동체의 해체 과정으로 나타난다. 조선족마을의 해체과정으로 개혁개방 시기 조선족마을의 자본주의 도입은 고향의 탈향 현상으로 이어져 마을 사람들이 한국으로 연쇄 이주하는 양상으로 작품에 재현된다. 연쇄 이주하는 사람들로 인해 조선족마을에서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 조선족들은 조선족의 통혼의식을 깨게 되고 조선족과 한족의 결혼이 증가한다. 그 결과 조선족문화가 한족문화에 동화되면서 조선족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박옥남의 작품에서 '집'은 한국 이주와 가족의 해체로 불완전한 거주 문제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서 금희 작품에 나타난 이주는 공간의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어 나타난다. 금희 작품에서 농촌은 유년 시절과 전통, 남성의 낭만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나타나며, 작품에서 남성 인물들이 고향에 다시 귀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도시는 여성들의 이주 공간으로 자본과 소비를 근간으로 가족이 생산에서 소비의 주체가 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금희 작품에서 도시의 공간을 상징하는 집은 아파트, 주택, 방, 오피스텔로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금희 작품에서 공간의 의미는 인물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며 작품에 재현된다.

◆ 참고문헌

1. 자료

- 금희, 『슈뢰딩거의 상자』, 료녕민족출판사, 2013.
 ____,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창비, 2015.
 ____, 「무한오리부위집」, 『창작과 비평』, 2020, 겨울호.
 ____, 「이원혼(二元婚)」, 조글로 조선족사이버박물관
<http://www.zoglo.net/search/result/%EA%B8%88%ED%9D%AC/>
 박옥남 『장손』, 연변인민출판사, 2011.

2. 단행본

- 박갑수, 「소설 “마이허”와 재외동포 교육의 성격」, 『재외동포 교육과 한국어교육』, 역락, 2013, pp.51-74.
- 예동근 외, 『조선족 3세대의 서울 이야기』, 백산서당, 2011, pp.8-9.
- 최우길, 「중국 조선족 여류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한국 -허련순과 리혜선의 글을 중심으로」, 『중국 조선족 연구』,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화연구소, 2005, pp.215-235.
- 데이비드 바트럼 외 지음, 이영민·이현옥 외 옮김, 『개념으로 읽는 국제 이주와 다문화 사회』, 푸른길, 2016, pp.47-57, p.173.
- 린다 맥도웰 지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 2010, 제3장, p.157.

3. 논문

- 김춘선, 「박옥남 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한중언어문화연구』 제49집, 한국중국어인어문화학회, 2018, pp.67-86.
- 소영현, 「징후로서의 여성/힘오와 디아스포라 젠더의 기하학 -이주의 여성화, 이주노동의 가정주부화」, 『대중서사연구』 제23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7, pp.85-117.
- 엄학준, 「조선족 소설에서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재현양상 및 방향성 연구 - 김희의 『세상에 없는 나의 집』과 『천진 시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제45집,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3, pp.131-154.
- 오상순, 「민족 정체성 위기와 소설적 대응 양상-박옥남 소설의 경우」, 『조선족 정체성의 문학적 형상화』, 태학사, 2013, pp.277-305.
- 오창은, 「근대 세계체제의 확장과 약소자의 정체성- 중국 조선족 작가 김희의 소설 세계」,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0호, 국제한인문화회, 2021, pp.67-96.
- 조수진, 「한국 대학생의 이주민 이해를 위한 교육 방안 연구 - 박옥남 소설에 나타난 조선족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6호, 국제한인문화회, 2023, pp.157-192.
- 차성연, 「“인정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본 중국조선족소설사 시론(試論)- 김희 소설의 소설사적 맥락과 쟁점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76권, 한중인문학회, 2022, pp.47-70.
- 천춘화, 「디아스포라 노마드와 모빌리티의 정치학, -김희 소설의 조선족 서사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pp.95-121.
- 최병우, 「김김희 소설에 나타난 조선족 이주에 관한 인식」, 『한중인문학연구』 제61권, 한중인문학회, 2018, pp.149-172.
- _____, 「박옥남 소설에 나타난 조선족 정체성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59집, 한중인문학회, 2018, pp.269-296.
- 최효예, 「김희 소설 연구 -조선족의 이주와 정체성 변화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황지선, 「디아스포라 주체의 모빌리티와 행복의 젠더화 -금희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pp.223-251.

논문접수일	2023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08일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migration' of Joseonjok
In the novels of Park Ok-nam and Geum-hee
-Focusing on 'hometown', 'family', and 'home'-

Cho, Sujin

Park Ok-nam and Geum-hee are writers belonging to the third generation of the Joseonjok. Park Ok-nam was between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and Geum Hee was on the borderline between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Both artists created works with the theme of migration and identity issues of Joseonjok. In this article,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migration' of Joseonjok in the works of Park Ok-nam and Geum-hee, focusing on the hometown, family, and home.

In Park Ok-nam's work, 'hometown' shows the pattern of chain migration, to move to Korea and capitalism was introduced to Joseonjok villages. In contrast, in Geumhee's work, there is a return migration of people moving to Korea and the hometown they return to has the meaning of a place symbolizing romanticism. Next, the change in the intermarriage consciousness of Joseonjok in Park Ok-nam's work shows the phenomenon in which the identity of the Joseonjok becomes ambiguous as Joseonjok assimilate into the Han Chinese culture. In contrast, 'family' in Geumhee's works appears in the form of separated families migrating to Chinese jurisdictions and cities due to unfavorable family circumstances or employment problems. Lastly, this article examines the temporary residence of immigrants in Park Ok-nam's works and the 'identity' of the characters in Geum-hee's works. If the migration shown in Park Ok-nam's works appears as a process of disintegration of Joseonjok village community, the migration shown in Geum-hee's works is contrasted between rural and urban spaces, and appears as a symbol of the characters' identities.

Keyword Park Ok-nam, Geum-hee, *Eldest son*, *Schrödinger's box*, *My house that is not in the world*, migration, hometown, family, home, Joseonjok

戊午(1798)燕行, 夢想과 理想의 노정*

김 호 **

국문요약

1798년의 무오 연행사는 정기적인 동지 사절이었지만, 뜻밖의 임무를 떠맡게 되었다. 1798년 11월 중국의 산둥에서 황해도에 표류해 온 청나라 어부들의 송환 임무였다. 정조는 청의 표류민 가운데 나이가 많은 어부를 무오 연행 편에 북경으로 보내고자 했다. 조선 왕의 양로 의지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다. 팔십 고령의 어부가 중도에 사망하면서 계획은 틀어졌지만, 정조는 양로의 마음이 건륭제와 통한다는 자문을 북경 예부에 보내, 조선의 '의리'를 청에 알릴 수 있었다. 한편, 1799년 1월 건륭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무오 연행사는 청 황실의 상례(喪禮)에 참여하게 되었다. 조선을 대표하여 청에 파견된 이상, 중화의 가치를 체득한 조선의 의리를 증명해야 했다. 정조는 '의리'라는 단어가 공허한 듯 보이지만 천하의 밝은 빛이라고 주장했다. 18세기 조선은 예의지방을 천명하고, 주변국들과 인의(仁義)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주제어 무오연행, 仁義의 네트워크, 乾隆帝, 正祖, 김면주, 서유문

<목차>

1. 머리말
2. 김면주의 연행시와 '몽상이역(夢想異域)'
3. '인의(仁義)의 네트워크'와 표류민 환송
4. 건륭제의 죽음과 '불인지심(不忍之心)'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과제로 수행한 연구임 (AKSR2021-J03).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교수

1. 머리말

예(禮)는 규범[體]이자 실천[履]이다. 마음에서 통제하는 것을 규범이라고 하고 이행하는 것을 실천이라 한다. 예라고 하면서 규범으로 삼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가 아니다. 예는 매우 정·미·엄·밀(精微嚴密)하니 하늘에 견주어 보면 천리(天理)에 부합하고 사람에게 물어보면 인정(人情)에 부합한다. 속된 선비나 천박한 유자의 좁은 지혜와 사심으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¹⁾

1799년 건륭제가 사망하자 청나라는 황제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를 조선에 보내왔다. 조선의 왕은 청의 황제를 위해 부모의 상복을 입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조정의 신하들 사이에 논란이 분분했다. 누구는 무복(無服), 즉 오랑캐의 황제가 죽었는데 굳이 상복을 입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호기를 부렸다. 현실성 없는 주장에 대해 정조는 기개는 칭송할 만하지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또 혹자는 참최복을 입되 색깔을 살짝 변형하여 준주의 대의를 살려보자고 주장했다. 정조는 부모의 상복인 참최를 입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입지 않을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서 천리에 부합하는 ‘예(禮)의 실천’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리고 「사대예설」이라는 논고를 통해 자신의 의리를 천명했다.²⁾

주자께서 “꾸밈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질이 어렵고, 작은 절차가 어려운 게 아니라 큰 대목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는가? 세상의 모든 군자는 옛것을 답습하여 따르는 것에 구구하게 얽매이지 말고 제도를 개정하는 것에 다투지 말며, 춘왕 일통(春王一統)의 대의를 내걸고 비풍삼장(匪風三章)의 뜻을 강구해 보라. 어지러움이 극에 달하면 다스림을 생각하는 법이다. 양을 복돋고 음을 억제하여 하루 만에 천하가

1) 『홍재전서』 권54 「사대예설(事大禮說)-기미년(1799)」

2) 당시 상복 문제를 둘러싼 정조와 조정 대신들의 다양한 논쟁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잘 정리되어 있다(김지영, 『정조의 예치』, 휴머니스트, 2020, pp. 243-295). 건륭제의 외번(外蕃) 외교에 대해서는 구범진, 『1780년, 열하로 간 정조의 사신들』, 21세기북스, 2021; 조선의 중화론과 관련한 기왕의 논의는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노대환,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인(仁)으로 돌아간다면 복색을 바꾸는 일은 순간에 불과하니, 주자가 말한 실질이며 큰 대목이다[朱子所謂實而大者也]. 이것이 어찌 규범[體]과 실천[履]의 근본이 아니겠느냐.³⁾

원칙상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시중(時中)’을 찾는 일이야말로 정조가 추구했던 예의 본질과 실천이었다.

근래 거자오광 교수는 ‘주변으로부터 중국’을 보려는 흥미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필담 속에서 ‘중국’을 발견하거나,⁴⁾ 조선의 연행록에 그려지는 ‘중국’을 탐구했다. 여기서 조선인의 상상이역은 무엇보다 중요하다.⁵⁾ 거자오광은 한편으로는 청나라에 대한 조선인의 몽상에 가까운 고집스런 상상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동아시아 문명의 공통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지 질문한 바 있다.⁶⁾

본고는 건륭제의 죽음을 목도했던 조선의 무오 연행사 일행과 이들의 중국 방문을 둘러싼 전후의 다양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정조 치세의 조선이 상상했던 ‘인의(仁義)의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야기는 무오 연행에 부사로 참여했던 김면주(金勉柱)의 일화로부터 시작된다. 연행을 떠나는 그에게 많은 친구들은 시와 글을 보내 오랑캐의 땅에서 복수설치의 의리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⁷⁾ 자신의 연행 시문들이 귀국한 후 조선의 식자층에 공개될 것을 잘

3) 『홍재전서』 권54 「사대예설(事大禮說)-기미년(1799)」

4) 復旦大學文史研究院, 『朝鮮通信使文獻選編』, 復旦大學出版社, 2015.

5) 거자오광(이연승 역), 『이역을 상상하다』, 그물, 2019.

6) 거자오광은 17세기 중엽 이후 조선과 일본 양국 모두 ‘이적에서 중화’가 되었다는 자존감의 고양이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확실히 두 나라는 각자 문명국이 되었다는 자존의식과 함께 중국을 유일한 문명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중화로 선언했다. 따라서 ‘각자의 길을 갔다’는 거자오광의 주장은 당시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한 듯 하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조선과 일본의 학인들이 가진 ‘자존감의 근거’는 완전히 달랐다. 조선은 ‘화하’의 가치를 중국(청)은 잃어 버렸지만 조선은 유지하고 있다는 의식을 기초로 조선이 유일한 중화의 계승자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일본의 자존감은 중화의 계승이 아닌 일본 고유의 문화를 강조하는 ‘자문화중심주의’였다(김호, 「The Hopes and Imaginations of the People of Joseon: A Review of Ge Zhaoguang’s Imagining a Foreign Plac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24-1, 2021).

알았던 김면주는 의례히 청을 상상했다. 그의 여행시는 비린내 나는 오랑개와 화하(華夏)를 이은 조선을 대조하는 상투적인 표현들로 가득했다.

2. 김면주의 여행시와 ‘몽상이역(夢想異域)’

1798년 6월 21일자 『일성록』에는 김이소(金履素)를 동지 여행의 정사(正使)로, 그리고 김면주를 부사(副使)로 차정했다는 기록이 보인다.⁸⁾ 호조참판이었던 김면주는 1798년 동지사행의 부사로 임명되자, 상소를 올려 국경을 나가기 전에 자신의 선영을 살피러 갈 수 있도록 허락을 요구했고, 정조는 요청대로 성묘하라는 비답을 내렸다.⁹⁾

1798년 10월 19일 정조는 익선관에 곤룡포를 갖춘 채 가마를 타고 영청문과 명정문을 거쳐 홍화문으로 나갔다. 동지사 일행을 창경궁 문 앞에서 맞이한 것이다. 동지정사 이조원, 부사 김면주 그리고 서장관 서유문 등이 어가 앞에 도열했다.¹⁰⁾ 예를 마친 동지사 일행은 중국을 향해 무사히 국경을 넘는가 했는데, 돌연 1798년 11월 8일 김면주가 한 편의 장계를 정조에게 올렸다. 김면주는 국가의 명을 받고 중국으로 향하는 외교 사절 일행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은 황해병사 이격의 태도를 불량하다고 비판하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번거롭게 보고한 일이 문제이지만 사체(事體)의 중요함을 생각해보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¹¹⁾ 비변사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로 문제를 일으킨 김면주 역시 추고해야 한다는 논란마저 일었다.

당시 정조는 황해병사의 사안은 조정의 체모와 관계된 것인데 김면주의 장계를 둘러싼 조정 대신들의 논의가 애매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¹²⁾ 원칙에 비추어 잘못된 일이라면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지적하고 수정해

7) 김면주의 무오 여행 관련 시문에 관한 연구는 김동건, 「김면주의 『燕行詩軸』 연구 - 『燕行驢章』·『戊午燕行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계사학』25, 2023 참조.

8) 『일성록』 정조 22년 무오(1798) 6월 21일(계축)

9) 『일성록』 정조 22년 무오(1798) 8월 19일(경술)

10) 『일성록』 정조 22년 무오(1798) 10월 19일(기유)

11) 『일성록』 정조 22년 무오(1798) 11월 8일(정묘)

야 한다는 것이 정조의 입장이었다. 김면주는 정조의 이러한 뜻을 헤아려 ‘의리 [원칙]에 합당’한 자신의 행사(行事)를 어필했던 것이다.

김면주와 함께 동지사행에 참여했던 서장관 서유문은 저간의 사정을 조금 다르게 기억했다. 말하자면 이전에 북병사를 지냈던 이격은 안변부사로 근무했던 김면주보다 상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행사로 중국에 가는 부사 김면주가 황해병사 이격보다 상관이었는데, 이격이 이전의 인연을 들먹이며 김면주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자 김면주가 화가 나서 장계를 올렸다는 것이다. 김면주는 이격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면서 병방의 비장(裨將)을 징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격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면서 끝까지 버텼고, 결국 장계를 올려 이격의 무례를 문체 삼게 되었다는 것이다.¹³⁾

김면주가 조정의 체모를 강조하고 병사 이격의 비례(非禮)를 왕에게 극구 보고했던 이유는 중국의 사행으로 가는 자신이 얼마나 의리에 밝은 인물인지를 보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정조는 조선이 예의지국이라는 사실을 청에 증명하기 바랐다. 현존하는 상당수의 연행시축이나 연행록의 내용이 천편일률로 청을 오랑캐로 비하하고 조선을 유일한 의리의 국가라는 식으로 서술된 데는 그만큼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

김면주가 무오 연행에서 남긴 『시축(詩軸)』이나 친구나 동료의 송별시에도 그러한 표현과 태도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¹⁴⁾ 김면주는 수십 편의 연행시축을 남긴 바 있는데 이 가운데 몇 편을 살펴보면 그의 화이관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용만관(龍灣館)에서 읊다」는 시를 보자.

이제 만하(灣河)를 건너면 우리 땅이 아니니,
연경의 시장에서 들리는 오랑캐 노래 어찌 감당하랴.
당장의 걱정은 북쪽 관산(關山)의 길로 곧장 떠나면,
눈과 얼음이 쌓여 흠을 볼 수 없음이라.¹⁵⁾

12) 『일성록』 정조 22년 무오(1798) 11월 23일(임오)

13) 『무오연행록』 권1 1798년 10월 25일

14) 김면주의 연행을 축하하는 친구들의 송별시는 박종훈, 「김면주 관련 『燕行驢章』에 보이는 명·청 인식」 『한국문화와 예술』30, 2019 참조.

한겨울 추위를 무릎 쓰고 중국의 북경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혹 병사하거나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없었기에 동지사 연행에 발탁된 김면주는 집안 걱정과 함께 자신의 안위를 헤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심경에 부합하듯 북경은 오직 비란내 나는 지역이요 오랑캐의 노래가 들려올 뿐이었다. 만하를 건너면 더 이상 조선이 아니었다. 화(華)인 조선과 이(夷) 청나라를 구별하는 ‘경계’에 도달하자 김면주는 스스로 의리의 조선 사람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조선과 청의 접경인 책문에 도달해도 이러한 심상은 변함이 없었다. 오랑캐 풍속에 젖은 이들과는 만나도 할 말이 없었다. 조선이 존송하던 명나라의 흔적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으니,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다.

책문(柵門) 가게에서 사람을 만나도 말할 일이 없고,
오랑캐 풍속이 가득하니 휘장을 걷을 일도 없구나.
꿈속에 옛 명나라는 하늘과 함께 멀어졌으니,
겨울 속의 쇠한 나그네는 날마다 잘못되었음을 알겠네.¹⁵⁾

조선을 떠나올 때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은 세상에 태어난 이상 북경을 한번 다녀와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연행을 칭송해 마지않았다. 과연 연행을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 김면주에게 오랑캐의 풍속이 가득한 곳을 다녀오는 이번 행차는 장쾌하기보다 ‘문명[華夏]의 소멸’을 확인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로 인해 머리가 하얗게 세고 말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다.

저녁 무렵 여양(閔陽)에서 말먹이자 황혼이 밀려오니,
지루한 먼 길은 도리어 희미해지네.
발두둑 사이의 민둥나무 사람처럼 서 있고,
숲속에 깃들은 새는 나그네 곁에서 나는구나.

15) 『燕行詩軸』 「灣館偶吟」 “已忘吾身況恤家 此心斷斷更無他 頭邊白日瞻天遠 夢裏紅雲入夜多 若渡灣河非我土 那堪燕市聽蠻調 正愁直北關山路 冰雪成堆不見沙”

16) 『燕行詩軸』 「柵門次杜工部韻」 “清膠一斗力猶微 却怕塞雲凍不飛 柵肆逢人開口少 胡風撲面捲幃稀 夢中舊國天俱遠 鏡裏衰客日覺非 百苦千艱雖已飽 王程有限敢言歸”

바람 거세고 파도 소리 들려오니 바다가 가깝고,
달 지고 서리에 이미 옷에 젖어 드네.
여러 군자들은 이 유람이 장쾌하다 마시게,
내년 봄 하얗게 센 머리로 돌아움이 부끄러우니.¹⁷⁾

김면주는 의무려산의 한 줄기가 서남쪽으로 내려와 솟은 석산의 역참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석산이란 13개의 돌산이 나무하나, 풀 한포기 없이 하늘을 향해 열지어 치솟은 곳이었다. 석산참(石山站)이 중국 발음으로는 ‘십삼산’처럼 들리므로 조선인들은 13개의 산봉우리라는 십삼산으로 부르기도 했던 지역이다.¹⁸⁾ 이곳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이를 모두 검게 물들인 오랑캐의 풍속에 젖었으니, 김면주는 이역에서 걱정만하다가 날이 새고 머리는 하얗게 셀 지경이었다.¹⁹⁾

그나마 사행 길에 만난 반가운 동네가 있었으니 고려촌이었다. 고려촌은 심양 근처에 있었다. 청나라에 잡혀 간 조선인들을 이주시켜 살도록 한 곳이다. 그곳의 풍속은 조선을 숭상하여 논농사에 시루떡을 만들어 먹는데, 조선의 사신이 그곳을 지날 때면 반드시 모여들어 구경할 뿐더러 떡을 선물하면서 조선의 물산을 원했다.²⁰⁾ 김면주는 고려촌을 지나면서 아직 화하(華夏)의 유풍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곳은 기자의 풍속이 유지되고 있었다.²¹⁾

북경에 도착한 김면주는 청 황제의 태화전(太和殿)을 보고 그 웅장함에 놀라고, 세상 각지의 사신들이 보물을 가지고 모여들자, 확실히 청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깨달았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비린내와 먼지로 중천에 해가 떠도 오히려 날이 어둡고, 황제

17) 『燕行詩軸』 「石山站」 “晡秣間陽奄夕暉 支離長路轉依微 田間禿樹如人立 林畔歸禽傍客飛 風急潮聲疑近海 月沈霜氣已侵衣 諸君休道茲遊壯 堪愧明春皓首歸”

18) 『(국역)계산기정』 권2 「도만십삼산」

19) 『燕行詩軸』 「除夕次昌黎韻」 “旅館蕭條淹節旆 隣鷄拍翼北風號 一生醉夢何曾到 萬事皇天自在高 同行謾道思家語 異域纒驚漆齒曹 寒枕不成終夜睡 霜華白盡鬢 [鬚髮] 邊毛”

20) 『임하필기』 권25 「고려촌(高麗村)」

21) 『燕行詩軸』 「高麗村」 “水田連溝洫 上有高麗村 重葺開蝸屋 踈籬掩板門 秦服雖已改 箕俗尙能言 自成朱眞 [陳] 好 羞瞻使者轅”

의 보좌는 구름 속에 공허한 듯하다[腥塵蔽日晴猶暗].’고 비꼬았다. 청나라가 세상을 호령하자, 중화 조선의 지식인 김면주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소회를 밝혔다. 그의 연행 시축은 귀국 후 많은 동료와 친구들에게 공개될 것이었다. 정조 역시 연행사로 중국을 다녀온 이들의 보고서와 기행시의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²²⁾ 김면주는 자신의 뚜렷한 화이관이 조정에 전달되기를 희망했다.²³⁾

오랑캐의 땅에서 눈물짓던 김면주는 한시라도 청의 경계를 벗어나고자 했다. 계절 또한 겨울이 지나 희망찬 봄이 오고 있었다. 조양문을 나서 귀국길에 오르자 시·공간이 전환이 일어났다. 50여 일의 북경 체류는 매서운 겨울이요, 질병의 고통뿐이었다. 한걸음에 조선으로 달려가 문명의 봄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 김면주의 꿈속에 정조께서 계신 궁궐이 보였다.

차가운 객관 외로운 등불 아래 50일을 머무르니,
오늘 아침 성을 나서니 이미 따스한 봄이구나.
세장의 새가 처음으로 날개 편 듯 상쾌하니,
고질병이 갑자기 몸에서 떠남을 알겠구나.
열은 안개 가벼운 바람 부는 미륵원이요,
긴 다리 성긴 벼들 늘어진 백하 나루라네.
수레 멈추고 밤에는 통주(通州)의 객관에서 묵으니,
꿈속에서 먼저 돌아가 궁궐에 절하였네.²⁴⁾

이상 김면주의 ‘상투적’인 시상에서, 연암 박지원이 비판했던 하사(下士)의 몽상이 발견된다. 그는 조선의 인의(仁義)를 강조하는 시를 읊고 이를 연행의 감상으로 삼을 뿐이었다. 사실 김면주가 북경을 빨리 떠나고 싶었던 이유는 단지

22) 『日省錄凡例』 「狀啓類」 “冬至正使某 副使某以自燕離發先馳啓[先來狀啓例]” 정조는 일성록에 연행사의 장계를 자세하게 수록하여 관심을 표했은 뿐 아니라, 주지하듯이 민간에서 작성되는 연행관련 기록(열하일기 포함)의 사회적 영향력을 주시하고 있었다.

23) 『燕行詩軸』 「太和殿」 “九門金鎖壯皇居 殿閣崇深夜海如 玉帛萬區來后牧 山河一統集車書 腥塵蔽日晴猶暗 寶座入雲望若虛 花石崗頭春草綠 長教志士淚盈裾”

24) 『燕行詩軸』 「發行出朝陽門」 “寒館孤燈淹五旬 今朝出郭已暄春 快如籠鳥初搏翮 喜覺沈痾忽祛身 澹靄輕風彌勒院 長橋疎柳白河津 停驂夜宿通州館 夢裏先歸”

중국이 오랑캐의 지경이요, 비린내가 진동하는 참기 어려운 곳이어서만은 아니었다. 무오년의 연행은 국경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많은 일이 발생했을 뿐더러 북경에 도착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닥쳤기 때문이었다.

3. ‘인의(仁義)의 네트워크’와 표류민 환송

무오(1798) 연행의 임무는 동지 사행을 충실히 이행하면 그만이었지만, 당시 연행사 일행에게 중국의 산둥에서 조선의 황해도에 표류한 중국인들을 무사히 돌려보내야 하는 임무가 추가로 주어졌다. 사건은 1798년 10월 24일 중국인 선원들이 황해도에 표류하면서 시작되었다. 11월 7일 황해감사 이의준은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렸다.

황해도 수사 신대영이 이달 3일 진시에 성첩(成貼)한 등보에 의하면 ‘해주 판관 정술인이 보고하여 연평도에 표류해 온 청나라 사람을 지방관과 함께 문정(問情)하겠다고 한 일로 인하여, 황해 감영의 군관 이제중과 역학 김운희를 즉시 정하여 보냈습니다. 이제중, 김운희 등이 이달 3일 술시에 만들어 보낸 수본(手本)을 보면, 황당선(荒唐船)이 연평도 앞 포구에 정박해 있었는데, 이 배는 돛 두 개가 달린 죽선(竹船)으로 길이는 5파이고 너비는 2파이며, (중략) 사람은 15명인데 모두 머리를 밀었습니다. 입은 북색은 청색이거나 흑색, 백색이며, 흑자는 양털 갓을 입고, 3승포로 만든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²⁵⁾

조선은 외국에서 조선으로 표류해 오는 자들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問情]를 실시했는데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군졸과 역관들을 이끌고 표류민들이 조선에 도착하게 된 경위는 물론 해당 선박의 크기와 운송 물건의 종류와 용도 등을 자세하게 묻도록 했다. 나아가 선원들의 고향과 나이 그리고 사망자와 생존자는 모두 몇 명인지 보고하도록 했다. 황해도 연평도에 청나라의 죽선이 표류해 오자, 해주판관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15명의 청나라 사람들을 문정하

25) 이하 표류민의 북경 송환 관련 인용문은 『일성록』 정조 22년 무오(1798) 11월 7일(병인) 참조.

고 그 내용을 등보(騰報)했다. 보고서에는 청나라 인들을 심문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있다. 해주판관은 역관을 대동하여 표류민들에게 질문했다.

“너희들이 바다에서 표류하여 거의 죽다 살아났으니 불쌍하면서도 다행한 일이다. 다치거나 병든 자는 없는가? 또 같이 배를 탄자들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자가 하나도 없는가?” 대답하기를 “저희들이 여러 날 표류했는데도 빠져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으니 하늘이 도우신 것입니다. 귀국의 경내에 들어온 후 연이어 두터운 홀전(恤典)을 입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저희 15명의 죽을 뻔한 목숨을 살려 주셨으니 은혜를 갚고자 하여도 하늘같이 높고 땅처럼 두터위 무수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한 마음을 이루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15명의 청나라 선원들은 산둥성 영성현 사람들로 생선을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이었다. 이해 10월 11일 외상값을 받아 돌아가던 중 13일에 풍랑을 만나 바다에 표류하다가 24일 황해도 연평도 부근에 좌초했던 것이다. 조사는 며칠간 이어졌고, 15인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거주처를 밝히도록 하자, 모두 영성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17세의 청년부터 80세 고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부들이 배에 타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키와 돛대가 모두 부서진 상태로 10여일 넘게 바다에 표류하면서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다. 도대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15인의 음식과 식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의 대답은 간단했다. 키가 부서진 후 배가 침몰할지 사람이 죽을지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배 안에서 혼절하여 또 동서남북을 알지 못하다가 천우신조로 다행히 귀국의 경내에 정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귀가하려고 사두었던 쌀 2되로 연명하다가 16일에 이마저도 모두 떨어졌는데, 이후에 물에 빠져 죽지도 굶어 죽지도 않았으니 자신들도 기이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이었다.

이후 문정은 이들 15인의 선원들이 한인(漢人)인지, 만주인인지 여부, 그리고 선박은 관선(官船)인지, 사선인지를 조사했다. 또한 배 안의 물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청나라 선원들은 자신들의 선주는 왕육례라는 사람이고 배 안의 물건은 모두 그의 소유라고 답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산둥성 영성현에서 황도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현재 영성현의 지방관[知縣]은 누구인지 물었다. 선원들은 전 지현의 성이 이씨, 현 지현의 성이 주씨(周氏)라는 사실을 알 뿐 구체적인 이름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배 안의 물건들이 무엇인지, 특히 생선 외상값을 돌려 받았다면 돈은 어디 있는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던 것인지 물었다. 이들은 돈을 공동으로 벌어서 공동으로 나누어 그물을 사거나 곡식을 구입한다고 답했다.

흥미롭게도, 표류한 선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80세의 양재명(楊才明)의 옷솜에 ‘황은흙사(皇恩欽賜)’라는 글자, 그리고 뒤에는 ‘수(壽)’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문양의 의미를 문정하자, 선원들은 “나이가 70세 이상이 되어 조정에서 은혜롭게도 이 옷을 하사하여 노년을 표시하게 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선원 가운데 왕육례도 나이가 이미 70세를 넘었는데 어찌 이런 표시가 없는가라고 물었고, 왕육례는 70세였을 당시 관동지방에 가 있는 바람에 기록에서 누락되어 문장을 하사받지 못했다는 답변이었다.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서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장수를 기원하는 ‘수(壽)자’와 황제의 은혜로운 하사라는 ‘황은흙사’의 문장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문정관이 배를 수리하여 수로로 귀국할 것인지를 묻자 청의 선원들은 바다를 떠다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터라 아직도 바다를 보면 마음이 떨린다고 답하고, 배를 타는 대신에 육로를 통해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배와 다른 물건들은 필요없으니 몸은 무사하게 육로를 통해 귀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해주관관의 첩보에는 이들 청나라 선원들에게 아침저녁으로 대미 1되, 반찬 거리, 땀감과 기름 등을 후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감색(監色)을 정해 공궤(供饋)를 신칙하고 잡인들의 출입을 금하는 등 신중하게 돌보고 있다는 보고가 함께 수록되었다. 당시 청나라 선원들의 옷이 모두 얇은데 조선의 기후는 점점 겨울로 접어들자 추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솜옷을 지어 공급하자는 의견을 붙이기도 했다. 특히 양재명, 왕육례 두 노인인 나이가 이미 칠팔십의 노쇠한 자들로 비록 가죽 따위를 걸치고 있지만 옷이 얇아 병이 날까 우려된다는 보고였다. 전례에 따라 15명이 입을 저고리와 버선, 방한모[揮項] 등을 황해감사

와 상의하여 지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황해감사 이의준은 표류민의 관리는 무신년(1788)의 전례를 따르기는 하겠지만, 노쇠한 노인들이 있는데다 육로로 귀국을 원하는 등 중대한 문제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왕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보고했다. 알려진 대로 정조는 자신의 치세 동안 조선에 도착한 표류민들을 잘 대접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²⁶⁾

황해감사 이의준은 왕의 의사를 조심스레 물었고, 정조의 답변은 분명했다. 정조는 연로한 선원들의 건강이 염려되므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도록 했다. 동시에 황해감영에서 표류민들을 하루 이틀 쉬게한 후 바로 평안도로 보내 무오연행사와 함께 중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무오연행사의 서장관이었던 서유문의 『무오연행록』에는 저간의 사정이 자세하다.

이날 밤에 비변사의 공문이 내려오니, ‘대국에서 표류한 사람이 있으니, 사행 편에 데리고 가라.’ 한 일이라. 대국 산동성 등주부 영성현 사람 양재명은 나이 80이요, 왕육례는 71이요, 석진공은 61이라. 그 나머지 무리는 합하여 열두 사람이니, 어선을 탔다가 표류하여 황주(黃州)의 연평도에 이르니, 황해감사 이의준이 장계하여 아뢰거늘, 하교하시어 이르시길, “대국 사람이 표류하면 불쌍히 여기는 바가 마땅히 상례에 빼어날지라. 하물며 이번 표류한 사람의 무리 중에 또한 80세가 지난 자가 있으니, 자원하여 육로로 가기를 청한즉, 길이 더욱 먼 지라 잘 들여보낼 방도를 생각해야만 하니, 의복을 지어 입히고 한 이틀 쉬기를 기다려, 가는 선전관으로 하여금 평안 감사에게 맡겨 사행에 붙여 보내되, 길에서 접대하기를 우리나라 지경에서 하던 대로 하고, 내년 선래(先來)의 장계에 무사히 들어간 연유를 아뢰고, 비국(備局)을 통해 부쳐 양도(兩道: 황해·평안) 감사와 세 사신에게 분부하여 표류인이 만일 도강 전에 도착하지 못하면 선전관이 이들을 사행 이르는 곳에 전하라.”고 하셨더라.²⁷⁾

15인의 청나라 어부들은 정조의 특명으로 무오 연행사와 함께 귀국길에 오르

26) 김호, 『정조의 제주통치론』, 제주학연구원, 2020.

27) 『무오연행록』 권1 무오년(1798) 11월 10일

게 되었다. 서유문은 11월 20일 일기에 국경 부근에서 만난 한 중국인의 이야기를 수록해 두었다. 요약하자면, 정조의 표류민 정책에 대해 중국인들조차 모두 탄복했다는 내용이다. 강씨라고 자신을 소개한 중국인은 산둥 등주부 사람이었는데 서유문이 등주부 영성현까지의 거리를 묻자, 어떻게 조선인이 산동의 지명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서유문은 조선의 국왕께서 양제명 등 15인의 산둥 표류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하며, 자신이 임무를 맡았다고 답했다. 중국인 강씨는 자신이 비록 등주 사람이지만 양제명을 잘 모른다고 말하고, 조선의 국왕이 대국에서 표류한 사람을 항상 극진하게 마음을 쓰고 있어 평상시에도 감격하는 바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치사(致謝)하는 모양을 했다.²⁸⁾ 서유문은 조선이 예의지국이라는 사실을 중국 사람 모두가 알고 감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조의 바리는바 인의지방(仁義之邦)으로서 조선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어쨌든 당시 표류민 송환은 어부들을 국경의 봉성이 아닌 수도 북경까지 데리고 가리는 정조의 어명으로 인해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다. 정조는 중국의 표류민을 전례대로 국경 근처의 봉성에 송환하는데 머물지 않고, 황도 북경까지 보내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황제가 노인들을 우대하는 데 대한 조선의 '시의적절한 대응[時中]'으로 생각했다. 중화의 문명을 계승하고 있다는 조선의 자부심은 노년의 어부를 북경에 모셔가는 의리의 실천을 자극하고 있었다.

전례없는 새로운 방식의 표류민 송환 계획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무엇보다 중국 국경을 수비하는 봉성장이 정조의 뜻에 반대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무오 연행사와 의주부윤 이기양조차 전례를 내세워 표류민의 봉성 송환을 주장했다. 두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표류민의 북경 송환을 끝까지 관철하고 싶어했다. 건륭제의 죽음에 조선의 왕이 참취복을 입어 예를 표했던 만큼, 조선에 표류한 청국의 노인을 수도에 모시고 가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예의 실천이었다. 한마디로 정조의 '지극한 의리'에 잘 부합하는 일이었다. 비변사의 관리들은 무오 사행 편에 '표류민을 직접 북경까지 송환'하려는 조선 왕의 뜻

28) 『무오연행록』 권1 무오년(1798) 11월 20일

을 담은 자문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자관을 차출하여 북경에까지 영솔하여 넘겨주려던 것이 성상의 뜻인데 만약 봉성장이 곡절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억지로 전례에 따라 표류민들을 봉성에 남겨 둔다면 일의 체모 상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다시금 봉성과 성경[瀋陽]에서 비록 전례대로 표류민을 남겨 두려해도 특별히 고령자를 우대하고 조정[정조]에서 황제의 사은을 받은 자를 높이는 뜻으로 직접 북경까지 영솔하겠다는 내용의 자문을 다시 지어 금군 기발을 정하여 재자관에게 내려보내소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선 압록강을 건너지 말고 남아서 다시 지은 자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라는 내용으로 별재 자관과 의주 부윤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²⁹⁾

의주부윤 이기양이 북경 송환의 의지를 모를 리 없는데도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봉성장의 ‘전례 묵수와 반대’를 핑계 삼자, 정조는 곧바로 이기양을 황해도에 유배하도록 명령했다. 동시에 이기양에게 백의종사를 주문할 정도로 정조는 당시 ‘표류민의 북경 영솔’에 집착했다. 아울러 무오 연행사에 대해서도 죄를 물었다. 수역과 자관(咨官)을 돌아오는 즉시 잡아들이도록 분부했던 것이다. 정조는 어떤 경우에도 산동의 표류민들을 북경까지 데려다 줄 생각이었다. 정조는 산동의 어부들이 떠나면 내지(內地)로 가는 것을 꺼려 성경(盛京)에 남는다고 요청해도 절대 허락하지 말도록 명령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어쩔 수 없이 표류민들을 성경에 남겨두더라도 연행사는 반드시 정조의 자문[청의 표류 노인을 북경까지 직접 영솔하려했다는 조선 국왕의 뜻]을 가지고 북경의 예부(禮部)에 바치도록 했다.³⁰⁾

정조는 조선이 얼마나 ‘양로(養老)의 예’를 중시하는지 청 조정에 알리고 싶어 했다. 조선이 오락개로 비하했던 청에 비해 노인 공경의 실천이 부족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정조는 ‘전례 없던’ 표류민 송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했다. 안타깝게도 정조의 뜻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³¹⁾ 노인들의

29) 『일성록』 정조 22년 무오(1798) 11월 27일.

30) 상동.

31) 이하 서술은 선전관 윤민동의 장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일성록』 정조 23년 기미(1799) 2월 28일).

일은 한치앞을 알 수 없다 했던 정조의 걱정대로, 1798년 12월 16일 80세의 양재명은 요양주(遼陽州) 대고령(大高嶺)에서 병사하고 말았다.

표류민 송환의 책임을 맡았던 선전관 윤민동은 양재명의 죽음을 조선과 청나라 양측에 모두 보고했다. 먼저 황해도 의주에 관문을 보내는 동시에 청의 요양주 지방관에게도 보고했다. 이에 12월 19일 요양의 지주(知州) 극성액(克成額)이 직접 현장으로 나와 양재명의 시신을 검토했다. 당시 윤민동은 극성액에게 양재명의 시신을 산동의 고향 영성현까지 운반하여 조선에서 노인을 우대할 뿐더러 노인에게 베푸는 청 황제의 은혜를 높이 받들고자 한 정조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 지주 극성액은 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심양의 의견을 물어본 후 답해주겠다고 말했다. 11월 27일 요양 지주 극성액은 양재명의 시신을 조선의 관리들이 산동까지 운반하는 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극성액은 요양의 향약(鄉約) 장영(張英)에게 명하여 양재명의 시신을 매장하고 그의 친척들이 찾아와 운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남은 14명의 표류민을 영송관(迎送官) 오성악(五成鄂) 등으로 하여금 조선의 선전관 윤민동과 협동하여 심양으로 호송하도록 명령했다.

결국 15인의 표류 어민을 어떻게든 북경까지 데리고 가려던 정조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선전관 윤민동은 사망한 양재명을 제외한 14인의 표류민을 데리고 청 석령(靑石嶺), 두관참(頭關站), 고려총(高麗叢), 난니보(爛泥堡), 고가자(古家子)를 거치는 2박 3일의 여정 끝에 29일 심양에 도착했다. 그리고 곧바로 심양의 예부에 자문(咨文)을 올려 정조의 깊은 뜻을 알렸다.

이에 대해 심양의 예부는 전례를 들어 중국의 표류민을 봉성에서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14인의 표류민을 본성에 넘기고 북경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선전관 윤민동은 정조의 뜻이 북경으로 표류민을 송환하는 것이었으므로, 한번 더 역관을 통해 심양의 예부에 북경 영술의 허락을 요청했다. 불행히 양재명이 중도에서 죽었지만, 왕육례와 석진공 등 다른 노인이 있으므로 양로의 도리로 볼 때 일반적인 전례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심지어 조선의 선전관이 표류민을 직접 북경까지 영술하겠다는 내용의 자문을 북경의 예부에 보냈으므로 그렇게 해달라고도 부탁했다.

심양 예부의 관리 부성(傅成)은 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난처해하다가, 오랜 논의 끝에 내린 결정 사항을 보내왔다. 자신들은 전례를 따를 수밖에 없으며, 죽은 양재명 이외에 다른 노인들은 황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므로 14명을 심양에 두고 가도록 한 것이다. 다만 조선 국왕의 뜻이 연로한 표류민을 직접 북경에 호송하고자 했다는 취지의 자문을 북경 예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회답을 알려주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더 이상 북경 영술을 고집할 수 없었던 윤민동은 표류민 14인을 심양에 넘겨주었다.

윤민동은 청의 표류민들에게 조선 국왕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여비를 지급했다. 심양에서 산둥성 등주부 영성현까지 노정이 3,300리인데, 노인들이 포함되어 빠른 이동이 불가하므로 하루에 50리를 갈 수 있다고 계산하여, 60일 간의 여비를 모두 지급했던 것이다. 일인당 은 9냥 3전씩 주어 부족함이 없도록 한데다 혹시 도중에 지체될까 염려하여 은 7전씩을 각각 더 지급했다. 윤민동은 표류민들이 거처하던 객점을 직접 방문하여 여비로 주는 은과 구급약을 일일이 확인하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조선 국왕의 뜻을 전했다.

청의 표류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동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이들은 두 손을 맞잡고 '조선 국왕의 성스러운 덕과 융숭한 은혜는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터워서 죽어서도 갚기 어렵습니다. 그저 고향에 돌아가 날마다 향을 피우고 하늘에 축수할 뿐입니다.'라고 축원했다. 윤민동은 심양 사람들이 당시의 광경을 보고 모두 감동했다는 내용의 장계를 보고했다.

1798년 12월 17일 북경에 도착한 윤민동은 무오 연행사와 함께 머물다가 1799년 2월 7일 북경 예부로부터 회답 자문 6통을 받은 후, 8일 무오 연행사 일행과 함께 북경을 출발해 귀국길에 올랐다.³²⁾

정조는 청과의 관계에서 '인의의 토대'를 강하게 천명했다. 1799년 뜻하지 않은 건륭제의 죽음으로 조선 국왕의 상복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많은 신하들이 오랑캐 청의 황제를 위해 상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거나, 입더라도 부모상에 입는 참죄는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조는 오히려 참죄복을 입어 조선

32) 『정조실록』 정조 23년(1799) 2월 28일.

이 얼마나 의리에 충실한 나라인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의 원칙과 실천을 둘러싸고 정조는 주자가 말한 ‘실질의 큰 대목[實而大]’을 모색했다. 오랑캐의 방도로 오랑캐를 대한다면[以夷制夷], 이미 오랑캐를 자처한 꼴이었기 때문이다.

4. 건륭제의 죽음과 ‘불인지심(不忍之心)’

황제의 은혜가 수놓아진 옷을 입은 청나라 어부에 대한 조선의 극진한 예우야 말로,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조선을 다스리는 정조의 예의가 어떠한지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물론 정조의 계획은 고령의 어부 양재명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전례를 고집했던 심양 예부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정조의 양로 정신이 담긴 자문을 무오 연행 편에 북경 예부에 들여보낼 수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무오 연행을 전후로 한 우여곡절은 표류민의 북경 영술로 그치지 않았다. 1798년부터 이듬해 봄까지 ‘호역(胡疫)’으로 불리던 역병이 중국으로부터 평안도를 거쳐 조선에까지 전파되었다. 역병의 여파인지 확실치 않지만 청의 황제 건륭제가 급서(急逝)했고 조선의 대신 체제공 또한 역병으로 사망했다.³³⁾ 무오 연행사 일행은 청 황제의 죽음을 조문하는 일을 맞닥뜨렸다. 진정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정조의 상복 문제가 거론된 발단이었다. 중국 황제의 죽음을 현지에서 애도하고, 부음을 조선에 전한 연행사는 무오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1799년 1월 22일, 무오사행의 정사 이조원과 부사 김면주는 청의 태상황제, 즉 건륭제의 붕어와 관련한 전후 사정을 급히 조선에 보고했다.³⁴⁾

건륭제의 사망 두달 전인 1798년 11월 30일 무오 동지사 일행은 심양에 도착했다. 연행사는 북경으로 실어갈 세폐와 방물(方物)을 실을 수레를 심양에서 빌렸다. 미처 충분한 수레를 마련할 수 없자, 연행사 일부는 먼저 북경으로 출발하

33) 김정운, 「1799년 전염병[胡疫]의 대유행과 국가의 위기대응 방식」, 『대구사학』145, 2021.

34) 이하 내용은 『일성록』 정조 23년 기미(1799) 1월 22일(신사)

고 역관을 심양에 남겨두고 수레를 몰아 따라오도록 조치했다.

그런데 북경으로 가던 동지사 일행 가운데 정사 이조원이 12월 6일 쌍양점(雙陽店)에서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다. 신병이 심해지는 바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이조원을 남겨둔 채, 부사 김면주와 서장관 서유문은 표문(表文)과 자문(咨文)등을 받들고 12월 11일 산해관에 도착했다. 정사 이조원이 신병으로 몸조리가 끝난 후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후, 동지사 일행은 12월 19일 드디어 북경에 도착했다. 이들은 곧바로 북경의 예부로 나아가 표문과 자문을 바쳤다. 예부 시랑(侍郎) 완원(阮源)이 낭관을 거느리고 공경히 조선의 공문서를 받았으며, 조선의 동지사 일행은 남소관(南小館)에 묵었다. 얼마 후 청 조정으로부터 조선 사신 일행이 북경에 도착했다면, 섬라(暹羅 타이)의 사신들과 함께 양심전(養心殿)에서 건륭제를 알현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12월 20일 아침부터 조선의 무오 연행사는 태국의 사신들과 함께 자금성 내 융종문(隆宗門) 밖에서 황제의 알현을 위해 대령했다. 해가 뜬 뒤 한참이 지나 서야 중국의 관리가 나타나 예부 상서의 뜻이라며 ‘날씨가 너무 추워 조선 사신과 섬라 사신의 황제 알현을 미룬다.’고 전해왔다. 건륭제를 만나지 못한 연행사 일행은 숙소로 돌아가 알현을 기다렸다. 사실 연행사 일행이 산해관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건륭제가 사망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었다. 소문의 진원지는 산해관에 인삼을 사러 왔던 북경의 장사치들이었다. 상인의 전언이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북경의 소식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다. 청 황실에서는 황제가 죽어도 백일 동안 비밀에 부치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한 소식을 알기 어렵다는 낭설마저 돌았다. 혹자는 황제가 아직 죽지는 않았고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뿐이라고도 했다.

사신 일행이 산해관에 들어간 뒤에 바로 삼(蔘)을 사러 나온 연경의 장사꾼들이 서로 전하는 말을 들으니 ‘태상황(건륭제)이 이미 붕어하였는데 으레 백일 안에는 비밀에 부치고 초상이 났다는 것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사람들은 아직 상세히 알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고, 혹자는 ‘태상황이 12월 초에 찬 음식을 드시고 병환이 한창 심하여 매일 너 돈쫘의 홍삼을 복용하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환이

조금 차도가 있다. 아침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저녁에 조금 덜하고, 밤에 신음을 하다가 낮에 다시 화평해지곤 하는데, 날마다 이와 같지만 점점 전만 못해지고 있다.'고 하여, 전하는 말이 같지 않고 갈수록 와전되었다.³⁵⁾

건륭제의 신병과 관련한 소문이 흉흉한 가운데, 조선의 동지사 일행은 청 황실에서 보내온 철갑상어와 회회국의 포도 등을 선물로 받아 이국의 맛을 음미하고 있었다. 12월 24일, 다행히 정사 이조원의 건강이 회복되어 북경의 연행사 처소에 합류할 수 있었다. 드디어 12월 29일 건륭제가 태묘에 행행할 때 조선의 동지사 일행은 황제의 어가를 영접하라는 통지를 북경 예부로부터 받았다. 이날 태묘에서 궁궐로 돌아가던 건륭제는 중화궁의 수방재(漱芳齋)로 조선의 사신 일행을 불러 들였다. 수방재는 건륭제가 연회를 열던 건물로 중화궁의 동편 건물이었다. 이곳에서 이조원과 김면주 그리고 서유문 등은 노년의 건륭제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당시 건륭제는 '조선의 국왕은 평안한가?'라는 짧은 안부 인사로 자신의 예를 다했다. 이어 연회가 베풀어지고 잡희(雜戲)와 함께 조선의 사신들에게 두 사람당 한 탁자씩 음식이 내려졌다.

29일의 연회는 연말을 축하하는 연종연(年終宴)으로 이어졌다. 12월 30일, 자금성의 태화전, 중화전과 3대 전각으로 알려진 보화전(保和殿)에서 잔치가 베풀어졌다. 연행사 일행은 예부의 명에 따라 새벽에 보화전 동쪽 섬돌에 대기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황제가 전내(殿內)로 나오고 음악과 함께 잡희가 펼쳐졌다. 청의 예부 상서 덕명(德明)이 연행사 일행을 인도하여 건륭제의 어탁(御榻) 앞에 나아가 꿇어앉도록 했다. 건륭제는 손수 어탁 위에 있던 술을 하사했다. 연회가 끝나고 오후에는 청의 광록시(光祿寺)에서 연탁(宴卓) 및 세찬상(歲饌床)이 내려왔다.

무오 연행사 일행은 12월 29일 건륭제가 전각에 앉아 각국의 사절들을 인견했고, 또 정월 초하루에도 북경 사람들로부터 하례를 받았으므로 황제의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1799년 1월 3일 중국의 관리들이 쓰고 있는 모자의 붉은 끈이 떨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길에 왕래하는 모든 이들이 같은 모습

35) 『일성록』 정조 23년 기미(1799) 3월 30일(무자)

이라 의아해서 물으니, 건륭제가 3일 묘시에 봉어했다는 것이었다. 연행사 일행이 더욱 놀란 것은 황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성 안은 평소처럼 안온하고 조금도 놀라거나 동요하는 기색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청나라 사람들은 ‘백세의 노인에게 예사롭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던 것이다.³⁶⁾

무오 연행사 일행에게 건륭제의 사망 소식은 예상치 않은 너무도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 이들은 타국에서 제대로 상복을 갖추지도 못한 채 황제의 상례에 참여해야만 했다. 청 황실은 조선의 동지사 일행에게 황제의 상례 의주(儀註)를 보내왔다. 연행사 일행이 급히 상복을 마련해야 했으므로, 청의 주객사(主客司)에서는 조선과 섬라[태국]의 사신들에게 각각 대포(大布) 한 필씩을 내려 주면서 때맞춰 성복(成服)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1월 4일 저녁, 청의 예부는 조선과 태국의 사신들에게 매일 진시, 오시, 신시에 경운각(景運閣)으로 나아가 반열에 따라 거애(擧哀)하라고 명령했다.

무오 연행사 일행은 5일 새벽, 경운문 밖에서 대기하다가 진시의 곡반(哭班)에 참여했다. 이들은 예부의 인도로 건청궁 혼전(魂殿)에 가서 태국의 사신들과 함께 곡반에 참여했다.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6일 새벽에 연행사 일행은 건청궁에 들어가 세 시각마다 곡반에 참여했다. 그런데 당일 청 조정은 황지(皇旨)와 함께 연행사 일행에게 사슴고기[鹿肉] 3근을 보내왔다. 조선의 연행사는 고기를 하사한 청 조정의 뜻을 소식(素食)의 해제로 받아들였다. 조선의 경우, 부모의 상이나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에 고기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오 연행의 정사와 부사 그리고 서장관은 함께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다. 곡반에 참여하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궐내에서 고기를 먹을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연행사 일행은 주방에 분부하여 밥을 끓이고 소찬을 차리는 것으로 소식의 예의를 다하도록 했다. 그런데 청나라 사람들은 조선의 열구자탕과 비슷한 ‘탕제자’를 끓이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넣어 술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었다. 조선의 사신들이 보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³⁷⁾

36) 서유문의 문견별단 내용이다. 『일성록』 정조 23년 기미(1799) 3월 30일(무자)

이외에 기이한 일은 또 있었다. 청 황실의 상례 의주가 조선과 매우 달라, 얼마 동안 곡반에 참여해야 하는지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었다. 『예기』의 천자는 9일에 성복한다는 구절 역시 청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청의 의주는 성복을 한정된 바 없는데다, 상복을 갖추면 꺾내 곡반에 나아가는데 공경으로부터 말관(末官)까지 동일할뿐, 백성은 꺾하에 모여 곡을 하는 일도 없었다.³⁸⁾ 청 황실의 상례 의주는 만주족과 한족의 풍습이 서로 섞여 있어 기준을 알 수도 없었다. 심지어 정벌 나간 군관이나 병사의 가족들은 상복을 입지도 않았다. 연행사 일행은 청나라가 전쟁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또한 자녀들 가운데 두창을 앓는 자가 있으면 상복을 입지 않았다. 연행사는 전염을 겁낸 이들이 부모의 상중에 상복을 입지 않는 무례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사의 절과 묘당에서 3만 번씩 종을 치는 이유도 전연 알 수 없는 풍속 가운데 하나였다.³⁹⁾ 청과 조선의 풍속이 다를 줄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다를지는 몰랐다. 조선의 예를 따를 수도 그렇다고 청의 의주를 따라 상례에 참여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예의 규범과 실천을 두고 시중(時中)이 절실했다.

당시 무오 연행사가 파악한 청의 상제(喪制)는 며칠 동안 성복한다는 절차가 없는데다, 왕(王)이하 서관(庶官)에 이르기까지 일체 상복을 입어야 하는 자들은 단지 모자 위에 다는 붉은 끈만 떼고 양가죽으로 만든 털가죽 옷을 입을 뿐이었다. 가죽 옷 안에 삼베옷을 입었는데 그 모양이 조선의 두루마기와 유사했다. 다만 아랫단을 꿰매지 않아 상복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그 안에 보통 사람과 같이 푸른색 옷을 입거나 검은색 옷을 입기도 했다. 대포로 만든 상복을 입으면 반차(班次)에 들어가 곡을 하면서 성복이라 할 뿐이었다.⁴⁰⁾

며칠 동안 곡반에 참석했던 조선의 연행사 일행은 조선과 다른 상복과 상제를

37) 『무오연행록』 권3 1799년 1월 6일

38) 『무오연행록』 권3 1799년 1월 4일

39) 『고운당필기』 권6 「清儀註」, 청의 상례 의주는 조선에 전해져 많은 지식인들이 이를 참고하여 청황실의 의례를 비평했다. 유득공은 청의 의주를 보고 만주족과 한족의 의례가 뒤섞여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

40) 서유문의 문견별단, 『일성록』 정조 23년 기미(1799) 3월 30일(무자)

보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조금의 실수나 비례(非禮)가 가져올 후과를 걱정했을 뿐더러 적지 않은 나이에 추위를 무릅쓰고 날마다 곡반에 참여하는 일 자체를 괴로워했다.

무오연행의 정사 이조원을 비롯하여 부사 김면주 등 조선의 사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조선에 돌아가고픈 마음뿐이었지만, 건륭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선인들의 정성과 슬픔이 그 어떤 나라보다 지극해야 한다는 부담감 또한 적지 않았다. 41) 1월 7일 곡반에는 태국 사신들 이외 회자국 사신들이 곡반에 참여해 애도를 표했다. 그런데 이들이 눈물을 찍어 거깃으로 울고 있는데다 저희끼리 웃는 일조차 발생했다. 서융(西戎)을 왜 오랑캐라고 하는지 확실해진 것이다.

회자국[西域] 반열이 우리나라 사신 옆에 있는지라. 삼시 곡반할 적마다 크게 부르짖고 통곡하여 수건을 들어 눈물을 씻으니, 처음에는 진정으로 슬퍼하는가 의심하였더니, 여러 번 살피니 번번이 침을 찍어 눈가에 발라 눈물 나는 체하고 자주 씻는 모양을 하니, 그중 젊은 것은 수건으로 낮을 가리고 웃음을 참는 거동이 있으니, 저희도 간사함을 생각하고 이따금 웃음 반 울음 반이라. 웃음을 참고자 하나 견디지 못하는 형상이 또한 기이한 광경이더라. 42)

거깃으로 애도를 표하는 회자국이나 제대로 된 상례를 몰라 어찌할 줄 모르는 태국 사신들과 달리 조선의 연행사 일행은 정성을 다해 곡반에 참석했다. 지극한 마음으로 애도를 표하고, 스스로 소식을 하는 등 예의 규범과 실천의 시중을 다했다. 조선이 예의지방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야말로 무오 연행사의 중요한 임무였다.

조선 사신들에 대한 청 황실의 대우는 특별했다. 서유문의 보고에 따르면, 5일 곡반에 참석했을 때 건청문 안으로 들어와 참여하도록 했을 뿐더러 슬프고 정신없는 상황에도 황제의 지시로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과 먹을 것들이 조선 사신의 거처에 내려졌다. 이는 모두 특례로 베풀어 준 바로 왕궁과 대신들도 받

41) 여러 날 곡반에 참여했던 서유문은 이역에서 명절을 맞으니 고향 생각이 간절했다고 슬 회했다(『무오연행록』 권3 1799년 1월 15일).

42) 『무오연행록』 권3 1799년 1월 7일

지 못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매양 반사할 때마다 옆에서 보는 이들이 술렁거렸으며, 중국의 관리들이 조선의 사행을 대접하는 일도 달라졌다. 특히 황제가 곶·사슴·노루·돼지·평·물고기 등 허다한 물품을 하사한 날에는 앞뒤로 구경하는 사람들로 꽉 메어 마치 담을 두른 듯 했다. 자광각(紫光閣)에서 상을 하사한 것 역시 특례였다. ‘이러한 일은 태상황 때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중국의 관리들조차 놀라워했다.⁴³⁾

건륭제의 죽음과 이를 애도하는 상례 곡반에 참석하면서, 무오 연행사는 조선이 예의지국이라는 사실을 청은 물론 회자국과 태국 등 타국의 사신들에게 각 인시킬 수 있었다. 경산(景山)으로 빈소를 옮기던 날에도 조선의 연행사 일행은 길 왼편에서 진정으로 곡을 했다. 황제는 몸을 돌려 조선 사신들을 돌아보고 함께 통곡하면서 머리를 숙여 조문을 받았다. 대개 청 황실의 예가 이렇게 특별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조선이 예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대한다’고 하거나, 또 어떤 이는 ‘조선의 사신이 곡을 하자 이를 보고 따라한 것이며, 특히 태상황(건륭제)이 조선을 우대하던 일을 생각하여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⁴⁴⁾ 수개월 후 청 황실은 조선에 건륭제의 부고를 알리는 칙사를 보냈다.

금년(1799년) 1월 3일에 대행태상황제(大行太上皇帝)께서 붕어하셨습니다. 본 예부에서 조선국에 유고를 반포할 것을 갖추어 아뢰고 정사와 부사를 파견할 것을 청하는 문서 1통을 보냈는데, 정사로 장승훈, 부사로 항걸을 파견하라는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또한 예부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국에 유고를 반포할 때 국왕은 소복 차림으로 신하들을 거느리고 공경히 맞이할 것, 음악을 연주하지 말 것, 사신은 객관에 들어 연향을 받지 말 것 등의 사항을 아뢰어 비준을 받았습니다.⁴⁵⁾

건륭제의 죽음에 조선 국왕 정조의 상복이 문제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조는 최종적으로 부모의 상복인 ‘참취’를 입음으로써 청 황실에 대한 조선의

43) 『일성록』 정조 23년 기미(1799) 3월 30일(무자)

44) 『일성록』 정조 23년 기미(1799) 3월 30일(무자)

45) 『일성록』 정조 23년 기미(1799) 4월 2일(경인)

의리를 다했다. 물론 그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다. 정조가 밝혔듯이, 조선은 지성으로 중국을 섬겨 황제의 부음을 들으면 그날 거애(擧哀)하고 조서를 반포하며 슬퍼했다. 성복은 참최복을 입고 여러 신하들과 함께 3일 동안 거애하고 임곡(臨哭)한 다음 복색을 바꾸어 길복(吉服)으로 입었던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명이 사라지고 오랑캐 청에 굴복한 후 상황이 달라졌다. 조선의 상황은 월나라에서 절치부심하면서도 오나라에 날마다 뇌물을 바치는 상황이었다.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르고 정리(情理)와 형적이 달라, 시기로 보면 하지 않아야 할 시기나 처지로 말한다면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복수 운운하면서 청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예를 다해 오랑캐를 섬길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정조는 의리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슬픔을 참고 원통함을 삼키는 현실을 인정하며 ‘예의 규범과 실천 사이의 시중[實而大]을 구했다. 결론은 ‘참최복’을 입어 오랫동안 조선이 의리의 나라였음을 다시 천명하고, 청에 신의(信義)를 다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청의 부당한 간섭이나 의리에 어긋난 처사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다.⁴⁶⁾

5. 맺음말

1798년 11월 무오 연행사 일행은 서울을 출발하여 중국의 북경을 향했다. 정례사행(定例使行)이었던 만큼, 정해진 동지사 업무를 이행하고 귀국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해 11월 중국의 산둥에서 황해도에 표류해온 늙은 어부들의 송환이 문제가 되었다. 정조는 해외로부터 조선에 표착한 노인들에 대한 양로의 도리를 다하고자 무오 연행 편에 이들을 북경까지 보내고자 했다. 80세 고령이었던 양재명이 사망하고 표류민을 직접 북경까지 호송한 전례가 없었던 터에 정조의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정조는 자신의 뜻이 노인을 존송하는 건륭제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자문을 북경 예부에 보냄으로써 ‘의리의 나라 조선’을 청의 조정에 천명했다.

46) 『홍재전서』 권54 「사대예설(事大禮說)-기미년(1799)」

무오 연행사 일행은 1799년 1월 건륭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애도의 의례를 북경의 자금성에 치러야 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졌다. 이들은 청 황실의 상례 의주를 보고 의아해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조선이 예의지방이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했다. 조선을 대표하여 청에 파견된 이상, 청을 오랑캐라고 비하하는 시구(詩句)를 넘어 조선이 중화 문명의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나라임을 알려야 했다. 정조가 바라는 바 ‘하지 않을 수도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의리를 다하려면 평소에 그 의미를 깊이 강구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조는 평소에 ‘의리’라는 말이 비록 공허한 듯 보이지만 천하의 밝은 빛이 된다고 보았다.⁴⁷⁾

내[정조]가 남쪽의 왜국과 교린하고 북쪽의 중국에게 사대하는 일을 소홀한 적이 없었던 것은 바로 충신(忠信)과 독경(篤敬)이 모두 나에게 있는 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섬나라 사신이 온다는 말을 들으면 명이 구원해 준 은혜를 기억하고, 청에 공물을 올리는 사신이 떠날 때가 되면 명이 돌보아 준 은혜를 매번 생각한다.⁴⁸⁾

청의 건륭제가 사망하자, 정조는 충신과 독경의 의리를 발휘하여 참최복을 입기로 결심했다. 청과 조선 간의 현실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렇다고 명의 은혜를 잊거나 존주대의를 저버릴 수 없었다. 오랑캐에 맞서 스스로 오랑캐가 될 수는 없었다. 정조는 청은 물론 일본과의 관계에서 예의지국으로서 조선의 최선책을 모색했다.⁴⁹⁾

조선은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인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⁵⁰⁾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과도 선린을 위한 통신(通信)을 멈추지 않았다. 오늘날 한·중·일 삼국의 거리는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기를 반복하면서 요동치고 있다. 서

47) 『日得錄』訓語5, “春秋大義 雖似空言 其爲光鮮於天下 當如何也”

48) 『일득록(日得錄)』, 훈어(訓語)4, 김조순 병진년(1796) 기록.

49) 岩方久彦, 『19세기 조선의 대일 역사통신 연구』, 경인문화사, 2017.

50) 조선의 예의지국 추구는 명 소멸 이후 중화의 재수립을 두고 華夏의 가치와 구현 방법을 두고 더욱 깊은 고민거리였다. 이는 내·외복(內服)의 심상적 관계를 넘어 독립된 역외촌추의 지향과 맞물려 있었다(김호, 「조선후기 華夷論 再考」, 『한국사연구』162, 2013 참조).

로 각각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인류가 공통의 이상으로 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 200년 전 조선인들은 이역을 향한 몽상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애썼다. 누가 그들을 과거에 집착하는 몽상가로 비난하고, 현실을 망각한 이상주의자로 폄훼할 것인가?⁵¹⁾ ‘인의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지, 당시의 숙제는 지금도 유효하다.

◆ 참고문헌

1. 자료

『고운당필기』
 『무오연행록』
 『燕行詩軸』
 『日省錄』
 『日省錄凡例』
 『입하필기』
 『홍재전서』

2. 단행본

岩方久彦, 『19세기 조선의 대일 역지통신 연구』, 경인문화사, 2017.
 거자오광(이연승 역), 『이역을 상상하다』, 그물, 2019.
 구범진, 『1780년, 열하로 간 정조의 사신들』, 21세기북스, 2021.
 김지영, 『정조의 예치』, 휴머니스트, 2020.
 김호, 『정조의 제주통치론』, 제주학연구원, 2020.
 노대환,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復旦大學文史研究院, 『朝鮮通信使文獻選編』, 復旦大學出版社, 2015.

51) 18세기 후반 다산 정약용은 『尙書』의 재해석을 통해 ‘평천하’의 구상은 주변국들과의 무력 투쟁이 아닌 인의의 관계(네트워크)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설파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고를 준비 중이다. 『尙書古訓』 권3 禹貢, “西藩諸羌之臣服中華 其來久矣 又非舜禹之所威服也”).

3. 논문

- 김동진, 「김면주의 燕行詩軸 연구 - 燕行臚章·戊午燕行錄 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계사학』 25, 청계사학회, 2023.
- 김정운, 「1799년 전염병[胡疫]의 대유행과 국가의 위기대응 방식」, 『대구사학』 145, 대구사학회, 2021.
- 김호, 「조선후기 華夷論 再考」,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2013.
- 김호, 「The Hopes and Imaginations of the People of Joseon: A Review of Ge Zhaoguang's Imagining a Foreign Plac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4-1,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1.
- 박중훈, 「김면주 관련 燕行臚章 에 보이는 명·청 인식」, 『한국문화와 예술』 30, 한국문화과학예술훈연구소, 2019.

논문접수일	2023년 11월 06일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30일

Abstract

In 1798, Joseon's Diplomats to China: Ways between dreams and ideals

Kim, Ho

In 1798, a Joseon diplomatic mission to China was due to return home from a routine assignment. But the Joseon diplomatic corps had an unexpected mission. Firstly, the repatriation of Chinese fishermen who had been shipwrecked in Joseon from Qing China in November 1798. The king Jeongjo asked the diplomats to take the oldest fishermen to Peking. It was an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e king Jeongjo's commitment to the elderly. But when the 80-year-old fisherman died in the middle of the journey, the king Jeongjo's plan went awry. Of course, the king Jeongjo was able to send a official document to the Peking court stating that his respecting for the elderly was shared by the Qianlong Emperor, thereby conveying Joseon's "righteousness" to the Qing imperial court. Secondly, with the sudden death of the Chinese emperor Qianlong in January 1799, the Joseon diplomatic corps was invited to attend the Qing imperial funeral. As they were sent to the Qing dynasty to represent Joseon, they had to prove that Joseon was a civilised country, beyond the poems that denigrated the Qing as uncivilised. King Jeongjo claimed that the two characters[義理], though seemingly empty, were the bright light under Heaven. In the 18th century, the Joseon Dynasty not only practised righteousness itself, but also constantly sought to build a network of righteousness with its neighbours.

Keyword Diplomatic mission, A network of righteousness, Emperor Qianlong, King Jeongjo, Kim-Myeonj, Seo-yumoon

장서각본 <금환기봉(金環奇逢)>과 <정정인(定情人)>의 비교연구

천스링*

국문요약

본고는 한국 고전소설인 장서각본 <금환기봉(金環奇逢)>과 중국 재자가인소설의 대표적 작품인 <정정인(定情人)>을 비교 분석한 연구물이다. 장서각본 <금환기봉>은 학계에 보고된 바 있는 여성영웅소설 <김희경전>의 이본이다. 지금까지 <금환기봉>의 관련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소설에 관한 사항들이 확실히 규명된 적이 없었다. 그 소설은 <김희경전>의 여러 이본과는 달리 여성영웅소설의 전형적인 이야기를 담으면서 남녀주인공의 결연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 결연담은 중국의 재자가인소설인 <정정인>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작품의 유사성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영향 관계를 검토했다. 그리고 서사 전개와 인물 설정에 있어서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에, 두 작품의 차이점도 보인다. 특히 <금환기봉>에서 남녀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금환기봉>은 <정정인>과의 관련 속에서 조선의 서사 전통에 맞게 창작된 작품이라고 판단하였다.

<금환기봉>과 <정정인>의 비교연구 결과는 문화의 전파와 수용 그리고 독자적 변용한 일양상을 살피는데,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논문을 통해 중국 재자가인소설인 <정정인>이 소개되어 연구의 지평이 다소 넓어졌다는 점도 가치가 있다.

주제어 장서각본<금환기봉>, <정정인>, 결연담, 유사성, 차이점, 영향관계

<목차>

1. 서론
2. <금환기봉>과 <정정인>의 서사적 유사성
3. <금환기봉>의 독자적 특징과 의미
4. 결론

*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문학과 박사과정

1. 서론

본고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금환기봉(金環奇逢)>과 중국재자가인소설의 하나인 <정정인(定情人)>을 비교연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장서각본 <금환기봉>은 <김희경전>의 이본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가장 보존상태에 있어서 양호한 완질본이다. <김희경전>은 주로 남주인공인 김희경과 여주인공인 장설빙의 입신양명한 과정을 다룬 여성영웅소설로 알려졌는데, 전체적인 서사를 세심히 살펴보면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김희경과 여러 여성의 결연담이다.²⁾ 창작 당대의 대중적 인기를 보여주듯 이 작품은 다양한 이본이 현전하는데, 그러한 까닭에 이본 연구는 이 작품의 연구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밖에도 남녀의 결연담과 여성의 영웅담이 결합되어 있다는 서사적 특징에 주목하거나,³⁾ 창작방식의 측면에서 중국의 재자가인소설이나 한국 고전소설

-
- 1) 본고에서는 장서각본 <금환기봉>과 춘풍문예출판사에서 1985년에 출판한 <정정인>을 텍스트로 삼아 분석했다. (임치균 외 교주, 『금환기봉·정수정전·홍백화전(교주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李落·苗壯 校注, 『明末清初小説第一函——〈定情人〉』, 沈陽: 春風文藝出版社, 1985.)
 - 2) 지금까지 학계에서 밝혀진 이본은 28종에 이른다.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그 가운데 한중연본 <장시효형록>, 활자본A <녀중호결>, 활자본B <녀중호결>의 제목은 여주인공인 장설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장서각본 <금환기봉>·김동욱본 <금환기봉>, 그리고 <김희경전>, <김상서전> 등의 제목은 남주인공의 이름을 따거나 남주인공과 다른 여성과의 결연담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 3) <김희경전> 이본 연구의 선편을 잡은 김만은은 총 19종의 이본을 대상으로 하여 그 형태적 특징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김만은, 「〈김희경전〉의 서술구조 변용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이를 바탕으로 정준식은 21종의 이본을 살피면서 서사의 생략과 변개 유무 등에 따라 작품을 ‘정명기본 계열-국중본 계열-성대본 계열’로 나누어 작품의 계통을 각각 밝혔다.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제 53집, 어문연구학회, 2007) 이후 강승목은 숙대본 2종을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한 후 총 24종의 이본을 대상으로 작품의 줄거리와 유통 방식을 따라 24종의 이본들을 한중연본 유형과 성균관대본 유형으로 나누었다. (강승목, 「〈김희경전〉 異本의 존재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정준식은 다시 강승목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중연본 <금환기봉>과 숙대본A <김희경전>의 서사 내용을 비교하여 9종의 장면에서 차이를 분석하여 숙대본A <김희경전>은 한중연본 유형에 담을 수 없다고 하여 특별히 숙대본A <김희경전>의 독자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완질본인 숙대본A <김희경전>을 중심 자료

인 <홍백화전>, <창선감의록> 등의 영향 관계가 논의되기도 했다.⁴⁾ 그러나 <김희경전>이 중국소설의 영향을 받았다는 선행연구의 추정에서도, 정작 직접적인 서사적 관련성을 보이는 작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는 없다. 그런데 중국의 재자가인소설의 하나인 <정정인(定情人)>은 <김희경전>의 여러 이본 가운데서도 <금환기봉>과 서사적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 그 이유는 <김희경전>의 여타의 이본들은 남녀와의 결연과 함께 여성 영웅의 모습을 비중 있게 그리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금환기봉>은 남녀주인공의 결연에 주요한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금환기봉>과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한 <정정인>과의 비교연구는 <금환기봉>의 창작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에 창작된 <정정인>은 <옥교리(玉嬌梨)>, <평산냉연(平山冷燕)>과 함께 중국재자가인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중국 소설사에서 그 의의와 위상을 간과할 수 없는 작품이다.⁵⁾ 또한 세 작품의 서문 비교를 통해 <정정인>은 <옥교리>보다 뒤에 창작되었지만 <평산냉연>보다는 앞선 시기에 창작된 소설임이 밝혀지기도 했다⁶⁾. 또한 한국고전소설과 중국 재자가인소설의 관련성은 이미 여러 연구자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⁷⁾ 이러한 사실은 <정정인>이 <옥교리>

로 삼고 김동욱본 A · B · D · E · F를 보조자료로 대비하면서 정본(定本)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김희경전> 연구의 기초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준식, 「숙대본 A <김희경전>의 이본적 가치」, 『한국문학논업』 제68집, 2014.)

- 4) 정준식,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제31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pp.180-186.
- 5) 齊裕焜, 『中國古代小說演變史』, 蘭州: 敦煌文藝出版社, 1990, pp.391-392.
林辰, 『明末清初小說述錄』, 沈陽: 春風文藝出版社, 1988, p.275.
- 6) 邱江寧, 「才子佳人小說研究——從陌生化角度探討其興盛衰落的原因」, 上海: 復旦大學博士論文, 2004.
- 7) 박영희, 「17세기 재자가인소설의 수용과 영향: <호구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4집, 1998.
송성욱, 「한중 고전소설의 친소관계」, 『인문과학논총』 제5집,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송성욱, 「17세기 중국소설의 번역과 우리소설의 관계: <옥교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및 <평산냉연>과 같이 조선에 유입되어 커다란 인기를 얻으며 널리 향유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게다가 각각 1774년과 1762년에 발간되었던 윤덕희(尹德熙, 1685~1766)의 『자학세월(字學歲月)』과 『소설경람자(小說經覽者)』에는 <정정인>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미루어보면⁸⁾ <정정인>은 늦어도 18세기 중반에 조선에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조선의 문인들도 <정정인>을 향유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정인>이 한국고전소설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도 과하지 않다. 이에 필자가 주목한 작품이 바로 <금환기봉>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먼저 서사 전개 양상과 인물 설정을 중심으로 두 작품의 서사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이 서사 비교를 통하여 두 작품이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두 작품의 관련성 외에 <금환기봉>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작품의 관련성과 함께 그 속에서 독자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한국고전소설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금환기봉>과 <정정인>의 서사적 유사성

<정정인>은 남주인공 쌍성과 여주인공 강예주의 결연을 다룬 작품이지만, <금환기봉>은 남주인공 김희경과 여주인공 장선빙⁹⁾의 결연담과 남녀주인공의 영웅담도 포괄된 작품이다. 그래서 두 작품을 얼핏 보면 이질적인 서사로 구성된 작품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두 소설의 남녀주인공의 결연담을 비교하여

최수경, 「재자가인류소설 유형 연구」, 『중국소설논총』 제11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00.

8) 윤덕희는 『자학세월(字學歲月)』과 『소설경람자(小說經覽者)』 두 책에서 중국의 재자가인소설들을 기록한다. 『자학세월(字學歲月)』에서 <醒風流>, <定情人>, <驚夢啼>, <畫圖緣>, 등 10종의 재자가인소설을 실리고 그후에 『소설경람자(小說經覽者)』에서 <定情人>을 포함한 총 29종의 소설을 정리하였다.

9) 일반적으로 <김희경전>의 여주인공의 이름이 '장설빙'이라고 했으나, <금환기봉>에서는 '장선빙'으로 표시된다. 본고는 <금환기봉>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 해당 인물의 명칭은 장선빙으로 통일하였다.

살펴보면 전개 과정에서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인다. 먼저 <정정인>과 <금환기봉>의 남녀주인공의 결연과정을 중심으로 두 작품의 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두 작품의 서사 전개 비교

<정정인>	<금환기봉>
①남주인공 쌍성에 대한 소개	㉑남주인공 김희경에 대한 소개
②남주인공이 아내감을 찾기 위하여 절강성으로 간다	㉒남주인공이 아내감을 찾기 위하여 경성으로 간다
③여주인공 장예주에 대한 소개	㉓여주인공 장선빙에 대한 소개
④남녀주인공의 만남	㉔남녀주인공의 만남
⑤편지를 통한 마음의 전달	㉕시비를 통한 남녀주인공의 결연
⑥남주인공의 상사병	㉖남주인공에게 공명을 얻으라는 여주인공의 격려
⑦시비를 통한 남녀주인공의 결연	㉗여주인공의 고난
⑧남주인공에게 공명을 얻으라는 여주인공의 격려	㉘고난에 따른 여주인공의 투신
⑨여주인공의 고난	㉙신인과 지인에 의한 여주인공의 구조
⑩고난에 따른 여주인공의 투신	㉚여주인공의 죽음을 확신
⑪신인과 지인에 의한 여주인공의 구조	㉛남주인공의 상사병
⑫주인공이 과거를 통하여 출세	*㉜남주인공과 최소저의 결연
⑬주인공이 사신 파견	㉝주인공이 과거를 통하여 출세
⑭주인공이 입궁과 귀국	㉞주인공이 사신 파견
⑮여주인공의 죽음을 확신	㉟주인공이 입궁과 귀국
⑯남녀주인공 결연의 두 번째 위기 (남주인공과 시비의 결연)	㊱남녀주인공 결연의 두 번째 위기 (주인공과 공주의 결연)
⑰여주인공 신분의 밝힘과 남녀주인공의 재회	㊲여주인공의 신분의 밝힘과 남녀주인공의 재회
⑱남녀주인공의 결혼	㊳편지를 통한 마음의 전달
⑳행복한 결말	㊴남녀주인공의 결혼
	*㊵남주인공과 다른 세 명 여자의 결연
	㊶남주인공과 시비의 결연
	㊷행복한 결말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정인>의 ①~④와 <금환기봉>의 ㉑~㉔에는

남녀주인공의 이름이 소개되는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의 서사 전개 과정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정정인>의 남녀주인공의 이름이 각각 쌍성과 강예주로 나오고, <금환기봉>의 남녀주인공의 이름이 김희경과 장선빙으로 다르게 나왔지만, 두 작품의 남주인공이 동일하게 아내가 될 사람을 찾기 위하여 집을 나서고 큰 지역으로 간다. <정정인>의 쌍성은 절강성으로 가고, <금환기봉>의 김희경은 경성으로 간 것을 통하여, 두 작품의 남주인공의 이름과 들린 장소의 구체적인 명칭 등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취하는 행동이 똑같고 서사 전개의 유사성도 보인다. 또한 ⑦~⑪과 ㉔~㉑의 서사 전개 과정도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타의 작품과는 달리, 남녀주인공의 결연은 부모의 허락 받고 진행한 것이 아니고 두 작품의 시비의 도움으로 남녀주인공이 몰래 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두 작품의 시비는 남녀주인공의 결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통점도 보인다. 결연과 난관의 극복과정도 비슷하다. 두 작품의 여주인공은 남주인공과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연했지만,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한다. 그래서 여주인공은 남주인공에게 공명을 얻으라고 격려한다. 이런 점도 두 작품에서 보인다. 또는 <정정인>에서 여주인공 강예주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혼인해야 하는 처지로 인해 고난을 겪었는데, <금환기봉>에서는 장선빙은 의지할 곳도 없이 방황하는 혈혈단신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각 작품에는 고난의 과정이 다르게 보여도 여주인공이 고난에 직면한다는 서사 전개는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이러한 시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작가는 여주인공들이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제3자가 여주인공을 구해주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쌍성의 서동인 청운(靑雲)과 야학(野鶴)은 꿈에서 금갑신장(金甲神將)의 지시대로 여주인공을 구하게 된다. <금환기봉>에서는 이참정(李參政)은 신인이 준 "환혼주(還魂酒)"로 사망한 장선빙을 되살린다. 이런 서술 내용을 통하여 두 작품에서 투신한 여주인공을 구해준 인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은 마침내 신과 지인에 의해 구조가 되어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점은 비슷하다.

이어서 ⑫~⑭와 ㉒~㉑의 서사 전개를 살펴보자. 이 부분은 두 작품에서 주인공의 입신양명하는 과정을 담았다. 두 작품의 주인공이 과거를 통하여 출세한

이후에 사신의 자격으로 먼 지역에 가서 공을 세우고 귀환한다는 점은 완전히 똑같다. 다만, 중국소설인 <정정인>은 문장의 역량을 더 증시한 시대적 성향으로 인해 주인공도 문신으로 등장하고, <금환기봉>에는 주인공이 무신으로 나타난 점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금의환향(錦衣還鄉)한 것은 공통적이다. 게다가 ⑩~⑪과 ⑫~⑬의 경우는, 보통 남녀주인공의 갈등이 한 번에 해결되어 서사가 끝나는 기존의 전개 방식과는 달리, <정정인>과 <금환기봉>은 남녀주인공이 돌연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된다는 공통된 부분이 보인다. 그 일을 계기로 여주인공의 신분이 밝혀지고 남녀주인공과 재회한다는 것도 유사하다. 그 후에 ⑭과 ⑮를 통하여 남녀주인공이 결혼하여, ⑯와 ⑰처럼 행복한 결말로 이야기는 끝나게 된다.

한편, ⑤와 ⑥의 내용은 남녀주인공이 편지를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공통점이 있다. ⑦과 ⑧에는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에 대한 그리움으로 상상병까지 걸린 것, 또한 ⑨와 ⑩에는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을 투신하여 죽은 것을 확신한 장면들, ⑪와 ⑫에는 남주인공과 시비가 결연한 점 등에도 두 소설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해당 서사의 등장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서사적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금환기봉> 중 ①의 김희경과 최소저와의 결연, ①의 김희경과 다른 소저와의 혼인하는 등 <정정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 후기 한국 고소설의 서사적 특성과 재미, 통속성 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두 작품의 서사 전개 과정은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작품에서 비슷한 서사 부분이 있는 것만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위의 표로 정리하여 살펴본 결과 <정정인>과 <금환기봉>의 서사 진행 과정이 매우 유사하며 해당 서사 구성은 대부분 갖춰졌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미루어 <금환기봉>은 <정정인>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은 작품인 것을 증명할 최소한의 근거를 갖춘 것이다. 소설은 서사 단락이나 플롯이 중요한 장르인 동시에 표현의 문학이기도 하다. 다음에 앞서 정리한 서사 구성을 토대로 주요 인물 설정과 특징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두 작품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자 한다.

우선 두 작품에서 남주인공이 신부를 구하기 위해 다짐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중략)...홀연히 한 현직 관료는 중매쟁이를 시켜 혼사를 논하러 쌍성의 집으로 찾아온다. 쌍부인은 마음에 차서 매우 기뻐하여 혼사가 반드시 성사될 거라고 여겼지만 쌍성이 일관되게 혼사를 거절할 줄을 생각하지 못했다. 쌍부인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직접 아들과 두 번이나 설득해도 아들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쌍부인은 어쩔 수 없이 쌍성의 제일 친한 친구인 방양(龐襄)에게 부탁을 했는데...(중략)...쌍성이 친구에게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를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평생 외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알려준다...(중략)...시간 좀 지나자 쌍부인은 안심할 수 없어 다시 쌍성과 (혼사를)논한다. "사람이 사는데 세상에서는 오직 결혼과 관직이 가장 긴요한 것이다. 공명이 빨리 이루어지든 늦게 이루어지든 아직은 상관없다. 다만 이때 가정을 이뤄야 한다." 쌍성은, "이 쌍류현 내에서 제가 원하는 배필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부에서도 그런 짝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만 발길이 가는 대로 떠나다가 혹시나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생겨서 뜻밖에 만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라고 말씀드린다...(중략)...논의가 끝나고 시동인 청운(靑雲)과 야학(野鶴)에게 거문고, 칼, 책, 상자 중에 고르게 하여 짐들을 꾸리고 문밖을 나서며 떠났다.¹⁰⁾

희경이 늑히 심오 세의 다다르며 테도 언건하야 둥인 중 썩혀나니 평장 부뷔 심을 불너 널오되:"네 임의 장성하여시니 실가를 밧비 경홀거시오되 본뒤 하람은 적은 썩히라. 인물이 쇼쇼히니 너와 궂튼 빵이 업슬지라. 경성의 너의 외숙 석티위 잇시니 올너가 츠져 우리 고독하물 전하고 너의 빅필을 구하면 장안은 변화지지라. 너의 빵이 잇시리니 명문디가의 숙녀를 구하야"...(중략)...싱의 위인이 본뒤 활여하고 썩이 쇼활하여 텃지기도와 만물 영기를 품슈하여시미 미양 즈탄하되 : "너 비록 말세의 나시나 오히려 고인의 유품이 이시니 하시의 월중단계를 썩겨 옥계의 칩의를 부치며

10) 李落·苗壯 校注, 앞의 책, pp.1-8. "到了十五歲上...(중략)...忽一個現任的顯宦 央緝紳媒人來議親 雙夫人滿心歡喜 以為必成 不料雙星也一例辭了 雙夫人甚是著急 自與兒子說了兩番 見兒子不聽 只得央了他一個最相好的朋友 叫做龐襄...(중략)...與兄說吧 小弟若不遇定情之人 情願一世孤單...(중략)...過了些時 雙夫人終放心不下 因又與雙星說道 人生在世 惟婚宦二事最為要緊 功名尚不妨遲早 惟此室家 雙星道 這雙流縣裏 料想求不出 這成都府中 懸斷也未便有 孩兒祇得信步而去 或者天緣有在 突然相遇...(중략)...說完 使書童靑雲野鶴 挑了琴劍書箱 鋪程行李 出門而去"

규방의 숙녀를 구하야 고당의 쾌락을 풀고 부모기 효를 일위면 너의 지풍을 욕되지 아니리라”. 하고 또 날오티: “이곳이 협소하미 숙녀 업슬지라. 이놈 부모의 말씀을 드르미 이 곳 평성 원흔 비라” 복지 디왈: “쇼지 지용이 둔박하오니 엇지 숙녀를 바라리 잇고마는 실가를 위하미오, 공명을 일터 아니미 올스오니 명교를 봉행하리이다” 평장이 디열하야 즉시 일봉 셔출을 차려 주니 싱이 즉시 힝니를 수습하여 부모기 하직하고 길홀 썸나 경스로 향홀신.¹¹⁾

위의 인용문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을 설명하겠다. 한국 고전소설 중 특히 영웅소설에서 남녀주인공의 결연은 남성이 처음부터 여성과의 만남을 의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환기봉>처럼 배필을 찾기 위하여 주인공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은 보기 드문 부분이다. 이러한 남주인공의 모습은 본고의 연구대상인 <정정인>에도 나타난다.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 두 작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두 작품의 남주인공은 모두 15살이 되어 결혼을 생각하며, 이들의 부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주인공의 부모는 혼사 문제를 해결한 뒤 아들의 입신양명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정정인>의 쌍성은 중매를 통해 혼인하라는 모친의 의견과는 달리 자신과 잘 맞는 정정지인(定情之人)¹²⁾을 찾고자 하며, 고향에서 짝을 만날 수 없다면 더 큰 지역인 절강성으로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한편, <금환기봉>에서 김희경의 부모인 김정 부부가 아들 김희경에게 혼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들은 고향인 하남은 작은 땅으로 인물이 없으니 경성에 가서 배필을 찾으라고 아들에게 명한다. 그리고 아들은 평상시에 규방의 숙녀를 얻어 금슬(琴瑟)을 이루고 부모께 효도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래서 김희경은 부모의 명령에 따라 배필을 찾기 위해 경성으로 떠난다. 이러한 모습은 자녀의 혼사에는 부모의 허락이 절대적인

11) 임치균 외 교주, 앞의 책, pp.13-14.

12) 李落·苗壯 校注, 앞의 책, p4, “雙星道 有女如玉 怎說不美 美固美矣 但可惜眉目間無詠雪的才情 吟風的韻度 故少遜一籌 不足定人之情耳”(번역: 쌍성은 어떤 여자는 옥같이 생겼는데 어찌 아름답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니? 예쁘기는 했는데, 눈썹 사이에 눈을 읊은 재능과 바람을 읊은 기품이 없어서 아쉽다. 그래서 남보다 부족해서 마음을 정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글을 통하여 쌍성은 배필의 조건으로는 외모와 재주가 모두 갖춘 것임을 알 수 있다.)

영향을 미쳤던 당대 조선의 집안 풍습을 반영한 것이다. <정정인>의 쌍성이 아내를 선택함은 부모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더욱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나, 두 작품의 남주인공은 혼사를 중시하면서도 좋은 짝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고 두 작품의 남주인공은 우연히 여주인공을 만난 다음에, 부모의 허락없이 먼저 언약한 것도 어느 정도 두 작품의 영향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한국고전소설에서 남녀주인공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로 결연한 것은 상대적으로 드문 양상이다. 이에 대하여 <금환기봉>은 <정정인>의 영향도 받은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인용 대목을 통해 두 작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의 인물형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아래는 남주인공들과 혼인을 약속하였으나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여성 인물들이 자진하려는 상황을 묘사한 대목이다.

그런데 예주 소저는 낮에 이미 옷을 단단히 묶고 비녀와 귀고리, 수식, 금은 등을 다 허리춤에 매었다. 마침내 하얀 천 한 폭을 들어 그 위에 자신의 뜻을 전하는 글을 적었다. “저는 절강 소흥부 태사 강장의 딸 예주이며 촉 지역에 사는 쌍성의 아내입니다. 저의 재주와 명성을 드러나게 되어 간사한 모략에 의해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준 정을 배신할 수 없으니 기꺼이 강물에 들어가 빠져 죽길 바랍니다. 만약 어진 이나 덕 있는 분이 저를 건져 시체와 뼈를 건어 묻어주고 무덤에 제 이름을 남겨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다 드리고자 하며, 죽어서도 그 은혜를 감사함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소저가 글을 다 적은 후에 하얀 천을 가슴에 꿰매었다. 이경까지 기다리다가 주변이 조용해지자 살며시 창가에다가 창문을 밀어 열었다. 온 하늘이 별들로 가득하고 노란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만을 보았다. 소저는 물을 마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오늘 나 강예주는 남편인 쌍성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요.” 말이 끝나자 몸을 뛰치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다.¹³⁾

13) 李落·苗壯 校注, 위의 책, p113. “卻說那蕊珠小姐日間已將衣服緊緊束好 又將簪珥首飾金銀等物俱束在腰間 遂取了一幅白布 上寫道 身系浙江紹興府太師江章之女 名蕊珠 系蜀中雙星之妻 因擅才名 奸謀囑選入宮 夫情難背 願入河流 如遇仁人長者 收屍瘞骨 墓上留名 身邊攜物相贈 冥冥中報感無盡 小姐寫完 將這幅白布縫在胸前 守至二更 四下寂然 便輕輕走近窗口 推開窗扇 祇見滿天星鬥 黃水泛流 小姐朝著水面流淚 低低說道 今日我江蕊珠不負良人雙星也 說罷 躡身望水中一跳 跳便跳在水裏”

영춘이 망극하여 왈:"이 곳이 인기 업고 오릭 머므지 못홀지라 다른 곳의 마을을 쳐져 밥을 어더먹고 밤을 쉬워 명일 다시 츠즈미 올홀가 호느이다. 쇼계 처연 왈:"아직 몸이 곤하니 잠간 쉬여 가즈." 호고 강변의 큰 바회를 의지하여 안겨늘 영춘 설날이 흥가지로 안져더니 문득 스틱 가온디로 붓을 넘어 바회 위회 크게 써 굴오디:"청주인 당시 쇼녀 선빙은 병진 추칠월 망일의 불효무신을 무릅셔 이 물의 싸져 죽느니 텃지일월과 후토신령은 밝히 슬피쇼셔"빌기를 다호고 붓을 더지고 녹슴의 비여 좁고 옥슈로 운빈을 만지며 텃닐를 바라 수항누를 흘니고 천연이 강중의 쉼여드니, 슬피다! 옥경이 써러지고 명귀 잠긴지라. 수운이 이러느며 비풍이 디작호고 틀결이 하늘의 다 핫는데 프른 나슴이 드러나 번드기다가 이육고 간디 업느지라.¹⁴⁾

<정정인>에서 강예주는 쌍성과 혼인을 약속했지만 고관대작인 혁염(赫炎)의 음모로 황제의 후궁인 귀인으로 간택되어 궁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쌍성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던 강예주는 황궁으로 가는 길에 강물에 투신한다. 이때 물에 빠진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얀 비단에 자신의 신분을 적고 자신의 시체가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기원하는 글을 천에 쓴다. 그 천을 가슴에 집고 나서 강예주가 강물을 바라보며 슬프게 눈물을 흘리는 부분은 그의 복잡한 심리상태를 잘 보여주기도 한다. 한편, <금환기봉>의 외삼촌과 부친의 연이은 죽음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진 장선빙은 자신과 혼인을 약속한 김희경을 찾으러 다녔지만 끝내 그를 만나지 못하자 삶을 포기한다. 그런데 이때 장선빙은 벽에 짧은 유언과 자신의 신분을 적은 뒤 강예주처럼 천지신명과 후토신령께 누군가 자기의 시체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더불어 이때 장선빙 또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속에 의지하고 싶은 남자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실망에서 죽음을 결심하면서도 만감이 교차하는 두 여성의 모습은 매우 유사하다.

한편 두 작품에서는 여주인공의 시비(侍婢)로 설정된 인물들은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음은 이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대목을 인용한 것이다.

14) 임치균 외 교주, 앞의 책, pp.49-50.

시비인 채운이 오히려 참지 못하여 소저에게 누누이 말하기를, “아가씨는 올해 17세가 되어 가정을 이루셔야 할 나이입니다. 재상 집안의 귀한 소저로서 아름답고 재주가 많고 귀중하게 여겨 쉽게 혼사를 약속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시집을 가지 않을 아가씨는 없습니다...(중략)...쌍공자님의 행동거지를 보니 참으로 젊고 풍채 있는 재자입니다...(중략)...노야와 부인께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시니 아가씨는 필시 스스로 마음을 정해야겠지요. 일찌감치 인연의 빨간 실을 맺어야 하시는데 여자 애같이 수줍은 태도를 취해 마침내 중신대사를 그르치면 안 됩니다. 쌍공자님 같은 재능이 뛰어난 낭군을 놓치면 다시 쌍공자님과 같은 낭군을 구하길 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 소저는 채운이 한 번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어린 말을 다 하고 전혀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자신과 잘 맞는다고 여겨 펍 좋아하였다.¹⁵⁾

춘이 혼연이 되왈: “쇼비 금일 석시의 츠를 스오다가 우연이 혼 쇼년 셔싱을 만나니 옥면녕풍이로되 인중농이오, 지상선이라. 그 흥중의 반드시 경턴위지홀 지략이 잇서 니 음양순샤시홀 지도를 품어시니 불구의 농년을 맞들고 봉낙을 붓자버 몸을 괴린각의 머뜨를 거시오, 일흠이 독벽의 오르리니 비필 되는 스람의 복을 가히 알지라...(중략)...그러나 쇼제 아니면 그 쇼년의 쌍이 업슬거시오. 그 쇼년이 아니면 쇼대의 짝이 업살지라. 이러므로 간담을 기우려 쇼녀의 지조를 허도히 아니코져 흐며...(중략)...쇼비 분의를 다하여 그 듀인을 뵈옵고 왓느니 이런 기회를 가히 버리지 못하리니 브라컨디 쇼저는 닉이 슬피쇼셔.” 쇼데 이 말을 드르미 영춘의 지인지감이 잇시를 항복흐나 답흐미 불가하여 침음흐기를 오리흐다가.....¹⁶⁾

시비는 한국과 중국의 고전소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인물군으로 주로 여 주인공을 가까이서 모시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정정인〉에는 강예주의 시비로 등장하는 채운은 자신이 마음에 둔 쌍성을 부친이 양자로 삼으려 하자 상심에 빠진 강예주의 마음을 알고 강예주의 상황과 처지를

15) 李落·苗壯 校注, 앞의 책, p31. “轉是彩雲侍兒忍耐不住 屢屢向小姐說道 小姐今年十七年已及笄 雖是宰相人家千金小姐 又美貌多才 自應貴重 不輕許人 然亦未有不嫁者...(중략)...我看這雙公子行藏舉止 實是一個少年的風流才子...(중략)...老爺夫人既沒主意 小姐須要自家拿出主意來 早作紅絲之系 卻作不得兒女之態 誤了終身大事 若錯過了雙公子這樣的才郎 再期求一個如雙公子的才郎 便難了 蕊珠小姐見彩雲一口直說出肝膽肺腑之言 略不忌避 心下以爲相合 甚是喜他”

16) 임치균 외 교주, 앞의 책, pp.26-27.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부친의 마음을 돌려 쌍성과 혼인하라고 적극적으로 충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채운은 쌍성의 인물됨을 적극적으로 분석하며 강예주에게 쌍성보다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없을 거라며 쌍성과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한다. 그리고 강예주는 채운으로 인해 쌍성과 혼인할 마음을 굳게 한다. 한편, <금환기봉>에서 장선빙의 시비로 등장하는 영춘은 장선빙이 유연히 주점에서 본 김희경을 마음에 두자 김희경의 인물됨을 스스로 판단한 뒤 장선빙에게 직접 김희경을 소개하는 적극성을 보인다. 더불어 이때 영춘은 <정정인>의 채운과 같이 두 사람이 천생배필이라 말하여 적극적으로 둘의 결연을 권하며 김희경을 놓치지 말라고 충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영춘의 말을 들은 장선빙은 그녀의 지인지감(知人之鑑)에 탄복하며 마침내 김희경을 만나기로 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두 작품에서 주인공 남녀의 결연에 시비들이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두 작품에 등장하는 시비 채운과 영춘은 여주인공의 심리를 꿰뚫어 볼 뿐 아니라, 이들을 대신하여 혼인 상대자로서 남주인공을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여주인공을 설득하여 자신의 혼사만 우선 고려하고 좋은 배필감을 놓치지 말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내왔던 자매와 같은 존재인 시비들의 주체적 판단으로 여주인공들도 자신의 혼사에 적극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이른다. 이를 바탕으로 두 작품에서 시비의 조언이나 판단은 여주인공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은 <정정인>과 <금환기봉>은 인물의 설정에도 반영되어 두 소설의 유사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시비가 주인공에게 바치는 헌신도 유사하다. 채운과 영춘은 남녀주인공의 본격적인 만남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여 남녀주인공의 만날 장소까지도 직접 고려하여 최선을 다하며 평생의 수호자로 자처하기도 한다.

(강예주)서글퍼 울며 말하였다. "강예주요, 너는 참 팔자가 사납고 인연이 없구나. 하늘이여, 하늘이여, 너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운명을 타고났구나, 높은 벼슬아치의 딸로 태어나 팔자가 이렇게까지 사납더냐?...<중략>...살아서 무엇하겠는가?"...<중략>...채운이 옆에서 위로하였다. "아가씨는 너무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일은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 가인인 아가씨와 천생재자인 쌍공자님은 마침내 만나서 부부가 되었으니 그 가운데 하늘의 의지가 없었으면 결코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 풍파가 일어난다는 것은 소위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지 않는다고 어찌 아십니까? 아가씨께서 참으시길 바랍니다.”¹⁷⁾

쇼제 처연 왈: "...(중략)...저기 불효를 면할지라. 만시 마음의 불관하니 출아리 세상을 바려 혼백이 부모의 뒤를 좇듯 지하의 즐기고져 하노라."...(중략)...춘이 정금덕 왈: "쇼제 그 스이의 형초 각덤 언약을 이겨나니잇가?"...(중략)...춘이 왈: "쇼제 엇지 이러듯 조박야오신닛가? 김낭의 은정이 고산이 경홀지라. 허믈며 수순년이 지닝시니 반드시 발서 계화를 썩거 영귀희미 극홀지라. 또한 쇼져를 생각해 정이 잘못 갑호리니 이 썩을 인하여 인연을 일워 부귀를 누리스 부모의 제스를 이으면 엇지 회아니리가?"¹⁸⁾

〈정정인〉의 채운은 강예주가 혁염(赫炎)의 모략으로 황제의 귀인(貴人)으로 간택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가 자살을 시도하려는 마음을 눈치채고 소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채운은 쌍성의 약속을 잊지 말고, 그가 입신양명만 기다리라고 강예주를 북돋아준다. 〈금환기봉〉의 영춘도 장선빙이 아버지와 외숙의 별세로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포자기하여 자진하려는 것을 알아채고 채운처럼 비슷한 말로 여주인공을 위로하고 격려해준다. 이러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두 작품의 여주인공이 현실적인 고난을 겪고 좌절하여 완전히 포기하고 있을 때, 시비가 여주인공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공통된 모습을 보인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시종일관 여주인공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기도 한다. 또는 〈정정인〉과 〈금환기봉〉의 여주인공들은 채운과 영춘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이들을 남주인공의 첩이 되게 해준다.

17) 李落·苗壯 校注, 앞의 책, pp.29-31. "哀哀痛哭道 江蕊珠 你好命苦耶 你好無緣耶 蒼天 蒼天 你既是這等命苦 你就不該生到公卿人家來做女兒了如此命苦...(중략)...還要活他做甚...(중략)...彩雲因在旁勸慰道 小姐不必過傷 天下事最難測度 小姐一個絕代佳人 雙公子一個天生才子 既恰恰相逢 結爲夫婦 此中若無天念 決不至此 今忽道此風波者 所謂好事多磨也 焉知苦盡不復甘來 望小姐耐之"

18) 임치균 외 교주, 앞의 책, pp.47-4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환기봉>은 <정정인>과의 인물 설정과 비교되는 사건에도 비슷한 부분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결과는 <금환기봉>은 중국 재자가인 소설인 <정정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한층 더 명백히 보여준다.

3. <금환기봉>의 독자적 특징과 의미

<금환기봉>과 <정정인>은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서사 전개와 인물 설정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작품 유형의 차이로 인해 작품마다 고유한 특징도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금환기봉>과 <정정인>의 서사적 차이를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작중 주인공들의 출생담과 관련된 태몽이며, 둘째는 남녀의 결연 양상이고, 셋째는 여주인공의 인물형상, 넷째는 두 작품의 결말이다. 우선 두 작품에서 초반부에 묘사된 출생담과 태몽을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화설, 선년에 사천 성도부 쌍류현에 한 관료 집안의 자제가 있었는데 성이 쌍(雙)이었다. 어머니 문부인은 꿈에서 태백성이 하강함을 보고 아이를 잉태하였다. 이에 그 아이를 쌍성(雙星)이라고 부르고 자는 불야(不夜)라고 한다.¹⁹⁾

화설, 디원 정년 간의 하룻 벽도촌의 한 사름이 이시니 성은 김이어, 명은 정이오. 자는 문명이니 교목세신이며 명문거족이라. 일자 효렴의 셋히여 벼슬이 평장군 병부상서의 니르러더니 순데도의 이르러 벼슬을 바리고 고향의 도라와 친히 밧길기와 고기 낙시를 일습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나히 오십의 니르도록 일점혈륙이 업스미쥬야 설위히더니 일일은 부인 석시로 더브러 옥화담이란 절의 가 두로 구경히더니 일처의 다르니 칩운이 어린 곳의 일위 금불이 단정이 안젓거늘 바라보니 괴상이 엄정석석하여 보는 자로 흐여금 마암을 송구케 흐느니라...(중략)...하고 밧기를 다흔 후의 도라왔더니 이날 밤의 한 괴몽을 어드니 한 선동이 청의를 입고 쥬리를 쓰어 공의 압히 나아와 절하여 갈오디: "소즈는 텨상 문창성 이러니 옥제괴 득죄하여 인간의 너치시니 갈 바를 이지 못흐옵더니 옥화담 브체 지시흐업기로 이리 왔스오니 다인은 어엿비 너기쇼셔"...(중략)...그달부터 텨괴 잇서 십숙이 칩미 이항이 만실히더니 밧

19) 李落·苗壯 校注, 앞의 책, pp.1-2. "話說先年 四川成都府雙流縣 有一個宦家子弟 姓雙 因母親文夫人夢太白投懷而生 遂取名叫做雙星 表字不夜"

순산하듯 일기 옥동이라. 남전의 빅옥을 다듬은 닛 괴운이 싸혀나 진짓 썸의 보던 선동이라... (중략)...희경이 점점즈라미 그피 늠늠하고 골격이 비범하여 완연이 이적선의 풍편와 반약의 미식을 가져시며²⁰⁾

〈정정인〉에서 쌍부인은 꿈에서 태백(太白)이란 별이 자신에게 하강하겠다고 일러줬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 세월이 지나서 쌍부인은 임신하게 되어 순산하였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쌍성(雙星)이라고 지어줬다. 〈정정인〉에서 쌍성은 태백성이 쌍부인 품에 들어와서 낳은 아이로 태어났다고 간략하게 서술되는 반면에, 〈금환기봉〉에서는 보다 자세히 묘사하였다. 김평장 부부는 나이가 많지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직접 절에 가고 아이를 갖도록 기원한다. 그리한 뒤에 태몽을 꾸고 아이를 잉태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한 것을 통하여 〈정정인〉의 주인공의 출생담보다는 더욱 섬세하게 그려낸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고전소설 특히 영웅소설에서는 주인공의 부모가 고령인 명문거족이지만 슬하에 대를 이을 혈육이 없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혹은 중개자의 권유로 기자처를 가서 기도한 다음에 초월적 존재의 감응을 받아 태몽을 꾸게 된다. 그리하여 주인공의 탄생을 예고하는 전형적인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된다.²¹⁾

그리고 두 소설에서 태몽이 하는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정인〉인 경우, 쌍부인이 태백성이 자신에게 하강하여 잉태한 일을 꾸고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쌍성(雙星)이라고 지어줬다. 〈금환기봉〉에는 김정 부부의 꿈에서 한 소자가 나타난다. 그는 원래 신선이었는데, 옥황상제께 죄를 지어 인간 세상으로 적강을 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보다 자세하게 서술한다. 주인공이 천상계의 존재로 적강한 것은 두 작품에서 비슷하게 나왔지만, 〈정정인〉의 태몽에서는 한마디만 간략하게 서술된 반면에, 〈금환기봉〉에서는 그 적강 대상의 묘사는 매우 자세한 편이다. 또한 한국고전소설의 태몽은 주인공의 앞으로의 운명과 삶을 암시하고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자 모티프가 된다. 그러나 재자가인소설

20) 임치균 외 교주, 앞의 책, pp.12-13.

21) 전성탁, 「고전소설에 나타난 주인공의 탄생에 따르는 기자기도 및 태몽에 관한 고찰」, 『춘천교육대학 논문집』 제14집, 춘천교육대학, 1974.

인 <정정인>의 태몽은 주인공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만 역할을 수행한다. 쌍부인은 태백성을 꾸고 남주인공을 쌍성이라고 한다. 또한 석부인은 꿈에서 명주를 하나 받기 때문에 여주인공을 예주라고 부른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이런 차이점을 보이는 까닭은 두 작품의 소설 장르에 따른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두 작품에서 남녀의 결연 양상을 분석하겠다. 해당 대목을 아래에 인용한다.

다음 날 밤에 이르러 예주 소저는 질투한 마음이 다 사라져서 당장 쌍성에게 채운과의 혼약을 지키라고 펴박하였다...(중략)...쌍성이 규중에서 사흘 동안 즐긴 후에 다시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둘을 데리고 시어머님을 뵈게 하였다. 쌍부인이 아들과 두 며느리가 물고기와 물처럼 완만하고 화기에애한 것을 보고 어찌 좋아하지 않으랴? 22)

이춤정의 스당을 가 피셔오리 당부인과 니부인의 보은함과 소세필 니영의 음덕으로 하늘이 슬피심이라. 이러므로 승상이 고흥을 만히 하다가 나라의 덕공을 세우고 오부인과 이첩을 취하여 관저지락을 누리며 인지지경을 즐겨 존당부모를 효봉하여 일야 화락으로 지너기를 스십여 년의 자손이 번성하야23)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정정인>에서는 쌍성의 처첩은 둘로 강예주와 그의 시비인 채운이다. 대부분의 중국 재자가인소설에는 남주인공이 여주인공과 결연한다. 물론 <정정인>이나 <옥교리> 등과 같은 대표적인 작품에도 첩이 등장하기는 한다. 그러나 <정정인>의 첩은 여주인공의 시비이다. 여주인공은 시비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첩으로 자신의 남편과 혼례를 치르는 방향으로 작가가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금환기봉>에는 김희경과 장선빙의 결연뿐만 아니라, 최소저, 영월공주, 이소저, 애월공주 그리고 장선빙과 이소저의 시비인 영춘과 설낭과의 결연까지 담고 있다. 이런 남녀의 결연 양상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두 작품

22) 李落·苗壯 校注, 앞의 책, p.152. "到了次夜 蕊珠小姐了無妒意 立逼雙郎與彩雲踐約...(중략)...雙星閨中快樂 過了三朝 然後重率大小兩個媳婦 拜見婆婆 雙夫人見他一夫二婦 美美滿滿 如魚水和諧 怎麼不喜"

23) 임치균 외 교주, 앞의 책, p.206.

의 양식적 특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한국고전소설은 남주인공이 여러 여인과 결연하는 전거는 흔히 보인다. <금환기봉>은 남주인공이 많은 여자와 결연하는 것은 남주인공의 영웅성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특징은 <정정인>에는 없다. 왜냐하면 <정정인>은 재자가인소설로서 남주인공이 한 여자를 사랑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비와 결연하므로²⁴⁾ 영웅성 부각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통하여 <금환기봉>은 한국고전소설의 전통이란 범위 안에서 적절히 변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대목을 살펴면서 여주인공의 인물 형상의 차이점을 설명하겠다.

한편 예주 소저는 부모님 앞에서 울지 못하였는데, 지금 부모님과 이별하자 눈물이 나고 애간장이 났다. 또한 이번 생에 쌍성과 인연이 맺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다 흐르고 없어진 눈물에 이어 피가 나와 밤낮없이 슬프게 울부짖었다...(중략)... 부인이 말하였다. "넌 아직 모르는데 너의 그 공자님이 떠나간 후에 혁공자란 이가 혼인을 청하러 왔다. 구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앙심을 품고 있었지. 마침 어린 여자를 채택할 때가 되니, 내시에게 청탁하여 죄명을 씻우고 강제로 아가씨를 간택하여 궁궐에 보냈네."²⁵⁾

쇼계 쯔 빅스 왈: "고고일신이 두어 시비로 더브러 회포를 날오고져호와 몸이 강포의 욕을 볼가 두려 탁주 외숙을 츠져 의지코져호운직 말서 기세하고 가신이 탕진하여 종적을 모르미 일신이 의지할 곳이 업는지라. 세 브득이하여 외람흔 의스를 너여 유모 시비를 다리고 의복을 밧고와 음양을 감초읍고 천신만고하여 겨유 이곳의 니르니 적막산중의 흥 조각 필적 쉰이라. 가친 얼굴이 구원의 막혀시니 텃지간 망극흥미 조희 쇼져썩이라...(중략)...쇼져와 영춘이 흥가지로 하름을 저나 영천으로 향홀 식 빅여 일만의 경유 지경의 니르러시나 스는 곳을 모르미 습인이 각각 훗터져 놀이

24) 한 남자가 두 여자와 결혼하는 <옥교리>와 같은 작품도 있지만, 대개 재자가인소설은 남녀가 상호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남주인공의 첩이 되는 시비는 여주인공의 심복을 역하는 시비이다.(蘇建新, 「才子佳人小說演變史研究」, 福建師範大學博士學位, 2005.)

25) 李落·苗壯 校注, 앞의 책, pp.110-111. "卻說蕊珠小姐在父母面前 不敢啼哭 今見父母別後 一時淚出痛腸 又想起雙星今世無緣 便淚盡繼血 日夜悲啼...(중략)...夫人道 你還不知 自你公子去後 有一個赫公子又來求親 因求親不遂 一心懷恨 又適值點選幼女 遂囑托太監 坐名勒逼將小姐點進宮去了"

못도록 츠즈되 아모도 알니 업는지라. 홀 일 업셔 겨유 집을 어더 밤을 머물고 이튼 날 저므도록 츠즈되 알 슴이 업스니 이리 츠기를 십여 일이로되 종시 형영이 업는 지라...(중략)...이후 학신 조회 후 부종의 와서 느지면 현서를 넘고 밤이면 후정의 턱 양점 쓰기를 닢이니 본디 만권경눈을 비화 쏘흔 녀력과 용뎡이 잇는 고로 불과 일숙 이 못흐야 글 물니와 칼 쓰는 직피 관속흐고 병법은 즉시 여상과 한시 제갈무휘 다시 슬러온 듯 금술은 초피왕의 만인적을 웃는지라.²⁶⁾

두 작품의 여주인공은 모두 이름답고 재주 많은 존재로 등장한다. 그러나 강예주와 장선빙은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우선 두 사람이 겪은 고난을 살펴보자. 재자가인소설의 여주인공이 직면한 고난은 일반적으로 반동 인물의 등장으로 시작된다.²⁷⁾ <정정인>의 반동인물은 혁염(赫炎)이란 인물로 고관대작(高官大爵)의 후예이다. 그는 아름다운 강예주와 결혼하고 싶지만 거절당하여 좌절되자 강장의 가문에 사무친 원한(怨恨)을 억누를 수 없어서 복수를 결의하게 된다. 그 후에 혁염은 강예주를 귀인으로 황궁에 보내는 음모를 꾸미자 강예주는 시련을 겪게 된다. 집에 떠난 강예주는 의지할 곳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만 나온다.

반면에 <금환기봉>의 여주인공이 겪은 시련들도 소설 장르에 따른 차이점이 반영되었다. 강예주와 겪은 고난과는 다르게 3가지로 묘사된다. 즉, 외숙과 부친의 연이은 죽음, 그리고 김희경의 행방불명이다. 한국고전소설은 주인공이 고난을 수차례 겪도록 설정한 것은 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환기봉>에서 장선빙이 몇 차례의 고난을 겪은 부분을 묘사한 것은 한국고전소설의 전통과 방식에 따라 그녀의 영웅적인 형상을 부각시키려는 작가의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장한 장선빙은 고난을 이겨내어 그 정체를 모르는 김희경과 함께 과거에 합격하고 그 후에 남녀주인공은 다른 면모나 신분으로 재회하여 친밀하게 교우한 과정은 <정정인>의 서사 전개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금환기봉>처럼 여주인공이 남장하고 몰래 남주인공과 다른 신분으로 지낸 것도 한국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26) 임치균 외 교주, 앞의 책, pp.44-93.

27) 劉世德, 『中國古代小說百科全書』,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6, p.23.

흔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이다. 이후에 남장한 장선빙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여 무술을 익힌다. 또한 외국에 가서 반군을 소탕하여 큰 전공을 세운다. 장선빙은 비록 여성이지만, 강예주와 달리 영웅적인 형상이 그려졌다. 이는 바로 당대 고전소설을 향유한 이들의 취향에 따라서 여성 인물에게 영웅성을 부여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두 작품의 결말을 살펴하겠다.

오래 전부터 강부인은 야학의 소식을 통보받았다. 오늘에서야 어머니와 자식이 만나게 되니 그 즐거움이 매우 컸다. 또한 쌍성과 쌍부인이 같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미래를 위한)장기적인 계획인 줄 알게 되어 더욱 기쁘기 그지없다. 이로부터 두 집안이 합하여 일가를 이루고 가족들이 한곳에 모이니 기쁨이 무궁무진하다. 훗날에 쌍성의 관직이 사랑에 이르게 되자 부친의 학풍에 누가 되지 않게 하였다. 또한 형제인 쌍진을 격려하자 그는 진사가 되었다. 예주와 채운은 각각 아들 한 명을 낳았는데 이들도 모두 등과하였다. 강장 부부는 쌍성을 사위로 삼고 자신들의 임종을 맞이한다. 또한 쌍성이 아들 하나를 강씨의 양자로 들여보내 강씨의 제사를 잇게 해주었다. 쌍성은 의리와 은혜가 이지러지지 않아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겨진다.²⁸⁾

화설, 평장부부 팔십오 세의 병 업시 즐흐니...(중략)...츠시의 쇼츨정 부인이 망흐니 승상이며 양부인이 곱음흐여 친부모 갖치 범스를 치상흐야 선산의 장홀식 인인이 불승감창흐더라. 일월이 여류흐여 승상의 나히 칠십이 되어논지라...(중략)...일일은 야식이 청청흐고 월식이 명낭흐니 부미 시흥을 썩여 오부인과 첩을 거느려 망월누의 올라 완경흐더니 밤이 숨경이라...(중략)...한선관이 고릭를 타고 지나가며 읍흐고 일오디:“이의 와 넷날 벗을 만나니 나는 길이 밧버 정회를 피지 못흐거니와 이제 옥데 쇼명이 이르러 올거시니 그디는 힝니를 슈이 출허리”하고 가니 모다 고이히 너기더니 이육고 선관 일인이 선녀 칠인으로 학을 타고 느려와 상대 명을 전하며 지촉흐니 부미 몸이 즈연 니러느 학을 타니 오부인과 첩이 쏘흔 학을 타고 구름을 멩에흐야 상턴흐니 향연이 익이흐고 옥저 쇼리 반공의 낭낭흐더라. 일가 스름이 다 모로더니

28) 李落·苗壯 校注, 앞의 책, p.153. "江夫人久已有野鶴報知 今日母子重逢 其樂非常 又見雙星同雙夫人俱來 知是長久之計 更加歡喜 從此兩家合作一家 骨肉團圓 快樂無窮 後來雙星的官 也做到侍郎 無忝父親書香一脈 又勉勵兄弟雙辰 也成了進士 蕊珠與彩雲 各生一子 俱登科甲 江閣老夫妻 俱是雙星做了半子送終 又以一子繼了江姓 雙星恩義無虧 故至今相傳 以為佳話"

이들날 화선하여 상턴호를 알고 구남칠네 우러러 비례하고 망극호를 이기지 못하더라. 이루 즈즈손손이 공후지락을 디디로 누리니라.²⁹⁾

결말 부분에서는 두 소설의 남주인공은 처첩과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무난한 가정을 꾸린다는 유사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작품의 결말에서는 주인공의 임종을 언급하는 대목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가 보인다. <정정인>은 쌍성 부부의 임종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그가 보인 충의와 강예주와의 사랑 이야기가 후대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널리 회자된다고 마무리 짓는다. 그러나 <금환기봉>의 김희경은 처첩들과 지나간 세월의 일을 떠올리고 담소하는 동안에 선관(仙官)의 부름을 맞아 백일승천(白日昇天)한다. 김희경과 그의 처첩은 처음부터 천상계에서 예정한 운명적 관계로 맺어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서로 결연하고 나라를 위하여 공업을 세우는 등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후에 천상계로 회귀하도록 해준 것이다. 이러한 설정은 작가가 조선의 고전소설에 흔히 보이는 결말구조에 맞게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는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금환기봉>과 <정정인>의 서사적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금환기봉>은 <정정인>의 서사 전개나 인물 설정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점이 있지만 각 작품의 장르와 형식에 따른 차이점도 보인다. 다시 말하면, <금환기봉>은 중국 재자가인소설인 <정정인>의 특징을 수용하면서 한국고전소설의 전통과 형식까지 아우른 것이다.

4. 결론

<금환기봉>은 <김희경전>의 이본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작품이다. 이 작품은 <김희경전>의 다른 이본과 달리, 남녀주인공의 결연과정이 더 중요한 서사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김희경전>이 중국의 재자가인소설의 영향 안에 창작된 것이라 추정은 하고 있었으나, 그와 관련하여 중국의 특정

29) 임치균 외 교주, 앞의 책, pp.212-213.

작품과의 비교연구는 진행된 바 없었다. 한편, <정정인>은 <평산냉연>보다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재자가인소설로 알려진 작품이나 그간 한국 고전문학계에서는 그리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김희경전>의 이본으로 알려진 <금환기봉>과 서사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 작품의 유사성을 확인함으로써 <금환기봉>이 <정정인>의 영향 아래 창작되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2장에서는 두 작품 남녀주인공의 결연담을 중심으로 <정정인>과 <금환기봉>의 유사성을 확인했다. 특히 두 작품의 서사 전개와 인물 설정에 있어서는 밀접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살펴본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적잖게 보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금환기봉>을 창작함에 있어 중국의 재자가인소설인 <정정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3장에서는 <금환기봉>과 <정정인>의 차이점을 다루었다. <금환기봉>은 여성 영웅소설인 <김희경전>의 이본답게 영웅담도 포괄하는 소설이다. 따라서 두 작품은 소설 유형의 차이에 따른 서사적 차이를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4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두 작품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과를 바탕으로 <금환기봉>이 <정정인>과 상당한 친연성을 보이면서도 당대 조선 향유층의 취향에 맞추어 서사적 변모를 도모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금환기봉>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주인공의 기이한 만남에 중점을 둔 작품이다. 또한 <금환기봉>은 선행 연구를 통해 선본으로 비정된 숙대본A에 비하여 남녀주인공 즉 김희경과 장선빙의 결연담이 더욱 자세하고 영웅담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설정하였다. 이러한 서사 구성은 <정정인>의 영향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까닭에 <금환기봉>은 <김희경전>의 이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정인>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더불어 여타의 한국 고소설에 비해 당대 조선에 유입된 중국 고전소설의 영향을 앞서 받은 작품으로 <금환기봉>이 창작된 후 여기에 당대에 유행하던 영웅담이 추가되어 <김희경전>의 이본들이 탄생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가능성은 선행 연구와 달리 <금환기봉>이 <김희경전>의 선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금환기봉>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제고되는 가운데 중

국 재자가인소설인 <정정인>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정정인>은 중국의 대표적인 재자가인소설로 <옥교리>, <평산냉연>, <호구전>과 같이 중국고전소설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반면에, 한국고전소설계에서는 그 소설의 존재를 언급하거나 부분적으로 다룰 뿐 자세히 다루진 적이 많지 않았다. 18세기 조선의 문헌에 이 작품이 언급된 것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되거나 향유층에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는데, 한국고전소설과 <정정인>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임치균 외 교주, 『금환기봉·정수정전·홍백화전(교주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異本)과 원전(原典)』, 국학자료원, 2022
-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 李落·苗壯 校注, 『明末清初小説第一函——〈定情人〉』, 沈陽: 春風文藝出版社, 1985.
- 林辰, 『明末清初小説述錄』, 沈陽: 春風文藝出版社, 1988.
- 劉世德, 『中國古代小説百科全書』,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6.
- 齊裕焜, 『中國古代小説演變史』, 蘭州: 敦煌文藝出版社, 1990.

2. 논문

- 김만은, 「〈김희경전〉의 서술구조 변용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강승묵, 「〈김희경전〉 異本의 존재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박영희, 「17세기 재자가인소설의 수용과 영향: 〈호구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4집, 1998, pp.181-203.
- 송성욱, 「한중 고전소설의 친소관계」, 『인문과학논총』 제5집,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pp.81-98.
- _____, 「17세기 중국소설의 번역과 우리소설의 관계: 〈옥교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pp.70-93.
- 임치균, 「英雄小説 연구: 誕生과 鬭爭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전성탁, 「고전소설에 나타난 주인공의 탄생에 따르는 기자기도 및 태몽에 관한 고찰」, 『춘천교육대학 논문집』 제14집, 춘천교육대학, 1974, pp.117-132.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제53집, 어문연구학회, 2007, pp.237-278.

_____, 「〈김희경전〉의 창작방법과 창작시기」, 『한국민족문화』 제31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pp.173-203.

_____, 「숙대본 A 〈김희경전〉의 이본적 가치」, 『한국문학논업』 제68집, 2014, pp.1-23.

최수경, 「재자가인류소설 유형 연구」, 『중국소설논총』 제11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00, pp.183-224.

李落·苗壯, 「〈定情人〉校後記」, 『遼寧師院學報』第1期, 1982, pp.55-58.

劉瑞紅, 「明末清初才子佳人小說“女強男弱”現象研究」, 河北師範大學碩士論文, 2009.

邱江寧, 「才子佳人小說研究——從陌生化角度探討其興盛衰落的原因」, 復旦大學博士論文, 2004.

蘇建新, 「才子佳人小說演變史研究」, 福建師範大學博士學位, 2005.

논문접수일	2023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08일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Jangseogak-bon 〈Geumhwangibong〉
and 〈Dingqingren〉

Chen, Siling

This paper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n classical novel collection script Jangseogak-bon 〈Geumhwangibong〉 and the representative work of Chinese Genius And Beauty Novels 〈Dingqingren〉. So far,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related to Jangseogak-bon 〈Geumhwangibong〉, and there has been no clear investigation into the novel, this novel tells typical stories of female heroes and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and female protagonists. However, this kind of marriage talk has a considerable similarity to the Chinese Genius And Beauty Novels 〈Dingqingren〉. Therefore, this study reveals the similarity between the two works, and discusses the influence relationship on this basis. And it confirms the similar facts in narrative development and character description.

On the contrary, the difference especially the depiction of the heroine and heroine in 〈Geumhwangibong〉 is worthy of attention, it can be known that 〈Geumhwangibong〉 is a work created according to the narrative tradition of Korean novels on the premise of its relationship with 〈Dingqingre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study of 〈Geumhwangibong〉 and 〈Dingqingren〉 can observe the spread, acceptance and individual transformation of culture, which has the main enlightening significance. In addi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Chinese novel 〈Dingqingren〉, which is valuable in expanding the field of research.

Keyword Jangseogak-bon 〈Geumhwangibong〉, 〈Dingqingren〉, alliance stories, similarity, difference, influence relationship

海子(하이즈)와 한국 근·현대시의 정동적 조우

-보리/밭 이미지라는 공통을 매개하여-

윤종환*

국문요약

하이즈의 시가 2000년대부터 한국에 소개된 이래로 이에 관한 연구는 시인의 중대한 일대기적 사실—자살—과 당대 중국 문단의 역사·정치적 맥락에 의존해 진행되어왔다. 그의 시가 한국의 기형도, 허수경과 나란히 읽히는 비교문학 작업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본고는 시가 작가의 고유한 사적 생산물로 예측되거나 특정 국가의 역사적 산물로 환원되는 소유화(所有化, being property)의 문제를 지적한 후, 시 텍스트에 공통(the common)으로 드러나는 정동(affect)과 그 이미지에 집중하여 하이즈와 한국 근현대시가 조우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분석은 보리(麥, barley) 이미지로부터 시작한다. 시인 하이즈는 중국 당대문학계에서 ‘麥’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는 이에 1:1로 대응하는 보리의 문인은 없지만, 김소월·이상화·김영랑·박두진·서정주·함형수·오장환·김수영·한하운·김남조·정현중·이성복·곽재구·김혜순 등 보리 시의 계보가 형성되어오고 있다. 이들 작품의 공통점은 시에 보리가 주요한 소재로 드러나지만, 시적 주체가 보리에 관한 직접적인 묘사나 진술을 하기보다는, 보리(밭)을 둘러싼 주체와 사물 간의 마주침에서 발생하는 정동이 텍스트의 미적 성취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비교 텍스트에서 보리밭은 삶을 영위하는 노동의 공간, 생명이 약동하는 근원인 동시에 그것의 부재로 하여금 인간의 불안전함과 고통을 환기하는 장소이다. 충만과 결핍의 진자운동 사이에 놓인 주체는 죽음충동(death drive)을 경험하고, 그 이미지는 생(生)과 사(死)의 중간 지대를 살아내는 과정으로 이행된다. 시적 주체는 그러한 이행의 힘을 존재 변용의 잠재력으로 승화해내어 신생(新生)에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시는 소유물로 환원되지 않고 갱생의 운동과 교호한다. 보리의 정동 이미지에 주목한 이 분석은 이후 아시아, 그리고 세계 비교문학 작업으로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기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

주제어 하이즈, 海子, 한국시, 보리, 보리의 계보, 공통, 신생에의 욕망, 정동

*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목차〉

1. 하이즈(海子)의 시와 한국 근·현대시는 어떻게 만나는가
2. 충만과 결핍 사이 진자 운동의 주체와 불안전·불확정성
3. 죽음충동으로부터 신생에로의 욕망
4. 결론 및 의의 — 한·중 시의 공통과 그 경계 횡단의 가능성

1. 하이즈(海子)의 시와 한국 근·현대시는 어떻게 만나는가

이 논문은 중국 당대(当代) 시인 하이즈(海子; hǎizi)의 시와 한국의 근·현대시가 공유하는 보리[麥(地)¹⁾, barley] 이미지라는 공통(the common)에 집중한다. 이 공통이 사회문화적 맥락과 시·공간을 종횡하면서도 정동적(情動的, affective)으로 촉발시키는 이미지와 사유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비교문학, 그 중에서도 연구의 수가 적은 시(詩) 분야²⁾에서 ‘말 걸기’³⁾를 수행한다.

- 1) ‘麥地’는 ‘麦地’로도 표기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문학계에서는 밀(小麥)과 보리(麥)를 구분하고 하이즈의 작품의 ‘麥’를 ‘밀’로 이해하는 가운데 텍스트를 해석하지만, 한국에 소개된 하이즈 텍스트를 비롯해 전문 연구자 정동메이 교수가 번역한 하이즈 시선집에서도 ‘麥’는 ‘보리’로 이해된다. 아직 중국 학계나 한국 학계에서 보리(麥)와 밀(小麥)의 정확한 차이를 설명하는 사례는 없지만, 하이즈의 시에서는 표기는 ‘小麥’가 아닌 ‘麥’인바, 각국의 맥락을 고려하여 밀과 보리로 각각 이해하여 보아도 무리가 없다. 중요한 것은 시의 소재에 쓰인 식물이 보리이나 밀이냐가 아니라 시적 주체가 그것을 마주하고서 무엇을 시로 쓰고자 했는가이며, 본고의 분석도 바로 이에 주목한다.
- 2) 이선이, 「한국 내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78호, 한중인문학회, 2023, pp.195-226.
- 3) ‘말걸기(addressing)’는 비교문학자 나오키 사카이의 존솔로몬이 제시한 개념으로, 낯선 것(타자)과의 대화에서 가장 선행(해야)하는 행위이자 상황이다. 이들은 ‘소통’과 ‘말걸기’를 구분하는데, 장뤼 낭시가 비판해 지적했던 ‘내재주의에 기반한 추상된 공동체 모델에 기반을 둔 동일사회성을 전제로 하는 소통’—달리 말하면, 이질적 타자를 알아가기 위해 그들의 민족적·국가적·역사문화적이 완성/기형성되었다는 공동체를 가정하고 그것을 열쇠구멍으로 진행되는 타자 정위(定位) 기반의 소통—보다도 타자에 대한 이해 불가능을 전제로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발화 위치들의 배정에 선행할뿐더러 자/타가 개별 소유한 정보로 소통하느냐/않느냐의 문제보다도 본질상 수행적이라는 관점에서 ‘말 걸기’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말 걸기’의 연장 선에서 하이즈의 시와 한국의 근현대시가 정동적으로 ‘조우’하는 우연한 만남(serendipity)의 한 행로를 제시한다. Jon

하이즈는 중국의 시사(詩史)에서 1980년대 후기 중국 신시파의 대표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1964년 안후이성 화이닝현에서 태어났다. 1979년에 베이징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해 시를 쓰기 시작했고, 졸업 후에는 중국법정대학 철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며 교수로 강의했다. 그는 1986년 베이징대학 제1회 예술제에서 《5.4문학대상 특별상》을, 1988년 제3회 《시월十月》 문학영예상을 받으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그 외에도 하이즈는 시, 소설, 희곡/시극, 논문 등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그러나 1989년 25살이 되는 해에 산해관 기차 레일에 누워 자살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그가 지난 9년 동안 약 300여 편(200만 자) 이상의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그의 베이징대학 동인이었던 시인 시촨(西川)과 시인 스푼(食指)이 함께 작품을 모아 출판한 시집이 2001년 제3회 《인민문학상》 시부문을 수상했다. 하이즈의 죽음은 문단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고, 문청들 사이 자살 유행을 일으켰을 만큼 문제적이어서 지금까지도 연구의 대상이다. 베이징대학교는 1993년부터 매년 시 축제를 열어 하이즈를 기념한다.

이에 더불어 한국에서 읽히는 하이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는 적은 수지만 하이즈의 시는 최근에까지 한국에 소개되고 있다. 북경사범대학 대학원에서 중국어교육을 전공한 이정교 번역가가 2008년에 한국불교사학회 학회지 『문학/사학/철학』이 기획한 「문학:시(詩); 한국어로 읽는 중국시」 기획 시리즈의 제1번으로 하이즈의 시를 번역해 소개한 바가 있다.⁴⁾ 이때 소개한 시는 2편으로, 각각 「面朝大海 春暖花开」, 「死亡之诗(之三 : 采摘葵花)」⁵⁾이다. 다음 해엔 한국의 한 문예지 《시와 세계》에서 중국의 현대 시를 소개하는 특집을 기획했고, 베이징 중앙민족대학(中央民族大学)에서 중국문학을 공부한 《현대시학》의 김금용 주간이 그 일환으로 하이즈의 시와 시세계를 소개했

Solomon · Naoki Sakai, 『Translation, Biopolitics, Colonial Difference (Traces 4)』, Hong Kong Univ Press, 2006.

4) 이정교, 「문학 : 시(詩) ; 한국어로 읽는 중국시 1」, 『문학/사학/철학』 제13권,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2008, pp.60-65.

5) 이정교는 전자의 시 제목을 한국어로 옮기지 않았고, 후자의 시는 '죽음의 시 3: 해바라기를 따며'로 번역했다.

다.6) 이때 소개한 작품은 「阿尔的太阳」, 「面朝大海 春暖花开」, 「黑夜的献诗」, 「亞洲銅」 총 네편이다.7) 이후, 하이즈 시 전문가인 베이징사범대의 탄우창(譚五昌) 교수가 엮은 하이즈 시선집 『面朝大海, 春暖花开(Miàn cháo dàhǎi, chūnnuǎn huā kāi)』를, 산둥대학교(山东大学) 한국어학과와 정동매(鄭東梅; 정동메이) 교수가 2011년에 글누리 출판사에서 『꽃 피는 화창한 봄날, 바다를 마주하고 서서』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했다. 여기에는 하이즈의 시 56편과, 정동매 교수의 해설, 그리고 연보가 수록돼 있다. 2015년에는 홍콩중문대학(香港中文大學)의 교수 베이다오(北島)가 중국내외 57명의 시인 작품 101편을 선별해 엮은 『給孩子的诗(어린이를 위한 시)』8)가 한국 마음산책 출판사에서 『내일 부터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간됐다. 이때, 마지막 101번째 시가 하이즈의 「面朝大海 春暖花开」이며, 이 시의 한 문장인 “从明天起, 做一个幸福的人”이 한국 번역본의 제목으로 선정된 것이다.

번역이 수반된 연구를 통해 하이즈를 한국문학의 장(場)에 소개하는 작업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 이와 관련한 하이즈 비교문학 학위논문으로는 손은홍9)의 연구가 유일하다. 손은홍의 글은 중국의 하이즈와 한국의 기형도(奇亨度)의 시가 나타내는 ‘죽음 의식’을 비교하고, 시 텍스트에 드러난 죽음에의 사유와 이미지를 밀도있게 분석한 성실한 논문이다. 손은홍은 하이즈가 25세의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기형도가 30세 되는 해 요절한 점을 바탕으로 두 시인 작품에 드리워진 죽음에의 전조적 사유와, 우울과 고통의 언어적 징후가 공통되었다는

6) 김금용, 「자살한 하이즈海子和『하이즈시선海子詩選』을 내준 시환 시인」, 『시와세계』 제26호, 2009, pp.207-221.

7) 김금용은 「阿尔的太阳」을 「그대의 태양」으로, 「面朝大海 春暖花开」을 「꽃피는 봄날 바다를 향해 서면」으로, 「黑夜的献诗」을 「까만 밤의 헌시」로, 「亞洲銅」을 「아시아의 구릿빛 땅」이여」로 번역했다.

8) 원제 「給孩子的诗」에서 어린이/아이를 뜻하는 어휘 ‘孩子’는 ‘háizi’ 즉 ‘하이즈’로 발음되며, 이는 시인 하이즈 ‘海子’의 병음 ‘hǎizi’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어린이를 위한 시’인 동시에 ‘하이즈를 위한 시’라는 의미로 읽히도록 한 베이다오의 재치있는 기획이 돋보인다.

9) 손은홍, 「한중 시인의 죽음의식 비교연구 : 기형도와 하이즈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8.

데서 연구를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생을 마감한 이후에 생기는 신화까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텍스트로부터 시작해 당대 한·중 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읽는 데까지 연구의 가치를 확장해나갔다는 의의가 있는 비교문학 연구이다.

하이즈와 관련한 한국의 학술지 논문(KCI)은 총 10편이며, 그중 5편은 하이즈에 관한 중문학 연구자들의 단독 연구(김태연¹⁰), 오윤숙 2편¹¹), 정성은¹²), 이희현¹³)이고, 5편은 한·중 비교문학 연구(이미옥¹⁴), 오혜영¹⁵), 조평¹⁶), 김수진¹⁷), 정동메이&최성실¹⁸)에 해당한다. 앞의 학위논문을 포함한 선행 논문의 공통점은 첫째, 하이즈의 비극적 죽음(산해관 기차 레일에 누워 자살)과 이에 대

-
- 10) 김태연은 북경대학교 문학동아리-국어 교과서 수록-대중음악의 전파 과정이 핵심적으로 하이즈의 정진 신화화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김태연, 「시인 하이즈(海子)의 정진화」, 『중국문학』 제80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14, pp.103-124.
 - 11) 오윤숙은 1980-90년대 중국에서 자살한 시인들을 분석하면서, 자살이라는 행위가 공산주의 유토피아의 붕괴, 영웅 서사의 정치적·문화적 종말, 당대 시인들의 위기와 좌절, 컬트적 요소, 시적 혁신과 관련 있음을 논하고, 이를 '하이즈-거마이 현상'으로 명명하였다. 오윤숙, 「하이즈-거마이 현상(海子-戈麥現象) 연구」, 『중국현대문학』 제61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2, pp.89-113. 오윤숙, 「하이즈 후기(1987~1989) 단시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역설에 관하여」, 『중국현대문학』 제37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6, pp.179-204.
 - 12) 정성은, 「하이즈 애정시 속 "네 자매"와 자살의 비극성 해독」, 『중국현대문학』 제55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0, pp.35-70.
 - 13) 이희현, 「하이즈 시에 나타난 '육체'와 '밀밭'의 이미지 고찰」, 『중국문학연구』 제51호, 한국중문학회, 2013, pp.141-159.
 - 14) 이미옥, 「기형도와 하이즈 시 비교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57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8, pp.17-37.
 - 15) 오혜영, 「기형도와 하이즈 시에 나타난 주체의 '소외' 양상 비교 연구 -라캉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토대로」, 『춘원연구학보』 제18호, 춘원연구학회, 2020, pp.161-180.
 - 16) 조평, 「1980년대 한·중 시의 비판적 현실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 황지우, 박남철과 베이도오(北島), 하이즈(海子) 시를 중심으로 -」,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5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pp.321-354.
 - 17) 김수진, 「하이즈(海子) 시의 시적 상상력과 자아 이미지」, 『비교문화연구』 제33권,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비교문화연구소, 2013, pp.33-52.
 - 18) 정동메이·최성실, 「허수경과 하이즈(海子)시 비교연구- 도시와 육체의 시적 표상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51권,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pp.187-223.

한 시인의 사유가 그의 작품 세계의 기저/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전제에서 텍스트 읽기가 수행된다는 점이다. 하이즈에 관한 단독 연구의 주제가 그 인식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리하여 비교문학 연구도 한국의 요절 시인 이상과 기형도, 하이즈와 같은 년도에 출생했고 최근 세상을 떠난 허수경과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작업이 전부이다. 하이즈의 죽음과 시 사이 관계에 대한 중국 문단의 평가도 1990년대부터 누적되어 왔고¹⁹⁾, ‘죽음’은 자연의 순리이자 시공을 막론한 인간의 보편적 주제라는 점에서 공통의 연구 주제가 되는 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둘째로, 하이즈의 문예 활동시기인 1980년대와 한국의 1980년대의 문화사적·사회정치적 유사성을 밝힘으로써 텍스트 비교 분석의 논리를 보충한다는 점이다. 본고의 읽기 방법론과 결이 다르기에 각국의 당대 맥락을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으나,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쳐 1970년대 후반 천안문 사태→70년대 말 몽룡시 등장²⁰⁾→80년대 초 몽룡시 쇠퇴→80년대 중반 “시인은 실제적인 것을 노래해야 한다”는 신시파(‘제3세대 문학파’)의 등장 순으로 새로운 시에 대한 강렬한 욕구 분출이 전개됐다. 80년대 중국문단에서는 시 자체와 언어에 집중하며 개개인의 생명 의식과 공동체에 집중하는 창작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는 박정희 시대와 군부독재 시기를 거쳐 6월 민주 항쟁에 이르기까지, 정치사회적으로 대대적인 혁명과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이때 한국 문단 역시 노동, 인권, 참여, 자유, 민주라는 의식은 물론 언어적 혁신, 개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시적언어의 실험으로 이어지던 곳이었다. 이러한 유

19) 하이즈의 죽음을 1) 그의 고집스럽고 폐쇄적인 성격, 2) “천재는 단명한다”는 유서의 문장과 고훈과 윌덜린을 존경하고 일찍이 죽은 작가를 동경해온 일대기적 사실, 3) 당대 중국 시단의 맹렬한 하이즈 비판, 4) 존경하던 시인 상중민(尚忠敏)에게 ‘하이즈는 나의 적’이라고 평가 받은 사건, 5) 사랑하는 연인과의 문제, 6) 가난한 농촌 출신의 삶의 배경, 7) 시를 너무 열심히 써 생긴 뇌손상 등에서 찾는 중국 내의 여러 답문이 있고, 이는 다음에 정리되어 있다. 崔卫平, 『不死的海子』, 中国文联出版社, 1999.

20) “몽룡시는 문혁 이후, 중국 이데올로기의 결과물로 그들의 사상에 예술에 대한 반기에서 비롯되며 ‘당’에 대한 실망과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등이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춰진 방식’으로 존재하는 시이다.” 홍자성(박정희 역), 『중국당대문학사 1949-현재』, 비봉출판사, 2000, p.221.

사성을 매개로 시를 읽는 것은 창작 배경과 작가의 환경을 관련지어 읽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중국의 시를 비교해 읽는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로 던져볼 수 있다.

첫째, 그렇다면 하이즈 시의 매력과 의미는 시인의 죽음이라는 일대기적 사실에 기대어서만 세계와 호응할 수 있는가. 하이즈처럼 요절했거나, 자살하여 신화화되었다거나, 이미 생을 마감한 시인과의 작품 비교만이 하이즈 시를 넓게 읽는 가치와 정당성을 부여하는가. 둘째, 하이즈의 시는 당대 중국의 문화·사회정치·역사적으로 유사한 구조에 있는 한국의 시대를 고려해 비교되어야 ‘잘 읽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한중의 문학적 교류라는 것은 각 작품이 반영하는 ‘고유한’ 역사적 맥락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인가. 셋째, 하이즈의 시는 다른 한 시인 혹은 두 시인의 작품과 비교하는 것처럼 ‘시인 대 시인’의 범주에서 분석되어야만 하는가. 시인 대 시인/작품 대 작품이라는 등가(等價)의 교환경제 논리로 비교문학을 수행하는 것만이 방법인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에 생산수단의 구조적 수용이 장소의 체계적 수용과 결합하여 사적 소유의 논리를 민족국가, 나아가 국민화된 언어처럼 생정치화된 통제로까지 코뮌적 거시공간성 체제에 이증으로 각인하는 방식²¹⁾을 비판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 문학 연구에 있어서 작가는 물론 국가·역사·문화는 텍스트 읽기를 통해 그 의미망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확장되는 ‘운동’ 과정으로서 소통된다. 제한된 분량 안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표상과 재현체계에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텍스트가 마주치게 되는 조건들이 ‘한’ 텍스트라는 바로 그 개념에 의해 제공되는 단일화된 표식 아래 한데 뭉쳐졌을지라도, 동시에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꼬인 담론적 실타래 사이에서 획득한 위계 관계를 재배열할 수 있는 역사적인 변수이 곧 텍스트²²⁾라는 사실과 그 지속적인 운동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본고는 작

21) Jon Solomon·Naoki Sakai, 「Addressing the Multitude of Foreigners, Echoing Foucault」, 앞의 책.

22) 폴 윌먼은 영국의 영화비평가지만, 비교문화 연구 층위에서 영화-텍스트를 다루기 때문에 그의 이론적 배경을 비교의 방법론의 한 꼭지로 참조할 수 있다. 폴 윌먼(김소영 편

가의 일대기적 사실 및 당대 역사 중심으로 비교되어 온 방식과는 다르게 한·중 간의 시적(詩的) 교통(交通)을 꾀한다. 이는 장륙 낭시가 무위(無爲)의 공동체에서 주장한, 명징한 실체가 가시화되지 않을지라도 상호작용—나눔의 관계론으로 타자와 만난 후, 공통물을 만드는 정동적 장(場)에 주목하는 데로 나아간다.

우선 그 출발은 하이즈가 보리(밭)에 관한 시를 많이 남겼으며, 중국문학사에서 그가 ‘보리(밭)의 시인’으로 오랜 기간 널리 평가된 문학적 사실²³⁾에서 비롯한다. 하이즈에게 보리(밭, 종자)가 생명, 민족, 고향, 국가, 죽음, 역사 등의 의미를 운반하는 중요 소재이자 이미지였음은 텍스트뿐 아니라 선행 연구들도 증명한다. 한국에서는 그에 대응할만한 보리의 시인은 따로 없지만, 흥미롭게도 한국시에는 ‘보리 이미지’로 일련의 계보가 형성돼오고 있다. 그 계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필자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김소월(「밭고랑 위에서」), ▲이상화(「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김영랑(「오월」), ▲박두진(「어서 너는 오너라」), ▲서정주(「문둥이」, 「맥하」), ▲함형수(「해바라기의 비명」), ▲오장환(「산협의 노래」), ▲김수영(「동맥」), ▲한하운(『보리피리』), ▲김남조(「생명」), ▲이성복(「절레꽃을 따먹다 엉겁결에 당한」, 「애가」), ▲곽재구(「구두 한 켤레의

지), 「한국영화를 통한 우회」, 『트랜스:아시아 영상문화』, 현실문화연구, 2006, p.573.

- 23) 중국 현대문학 비평·연구사에서 하이즈의 보리/보리밭/보리 종자/밀/밀밭/밀알에 관한 분석은 많다. 중국학술지인용색인(CKNI)에서 핵심 키워드로 검색해도 ‘보리’를 주로 다루거나 하이즈 시 연구를 리뷰하며 키워드로 삼입한 연구는 100여 건에 달한다. 본 저자 검토한 하이즈 ‘보리’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譚五昌, 『海子論』, 北京: 北京大學中文系, 1997. 郭宝亮, 『飛升與沈降——論海子詩歌的意象構成及其內在張力』, 新強: 新強師範大學學報, 1998. 崔卫平, 『不死的海子』,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1999. 高波, 『解讀海子』, 雲南: 雲南人民出版社, 2003. 邵敏, 「落地的麦子不死——海子诗歌“麦地”意象再认识」, 『语文学刊(高教版)』, 2005, pp.50-51. 杨小兰, 「从“麦地”到“太阳”」, 华中科技大学, 2006. 谢伶俐, 「海子诗歌中的“麦子”意象解读」, 『鸡西大学学报』, 2009. 刘建杰, 「海子诗歌的麦子意象」, 『语文教学通讯』, 2011, pp.89-91. 高菁菁, 「别样的才情与朴素的诗意——品读海子诗歌中的“麦”意象」, 『扬子江评论』, 2012, pp.46-47. 赵秀芝, 「从“麦子”到“石头”看死亡哲学」, 上海外国语大学, 2012. 赵蕊, 「海子抒情短诗中的麦地意象群研究」, 西南大学, 2013. 余慧琴, 「论海子诗歌中麦子/麦地意象」, 『汕头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4, pp.37-45+95-96. 霍海宏, 「麦地之子」, 西南大学, 2014. 白淑清, 「海子诗歌意象系统研究」, 河北师范大学, 2014. 鲁斐斐, 「救赎与异化——论海子诗歌中的麦子意象」, 『哈尔滨师范大学社会科学学报』, 2015, pp.117-120.

시」), ▲김혜순(「돼지는 말한다」)의 시와 ▲정현중 시인의 시론(「꿈꾸는 자의 내면일기」) 모두에서, ‘보리’는 시의 소재로 등장하거나 각 시의 분위기와 심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물-이미지로 행위한다. 한국에서조차 정리가 되어 있지 않던 ‘보리’의 네트워크가 우연히 발견(Serendipity)되고, 그 계보와 하이즈의 맥이 이어지는 것은 하이즈 때문만도, 한국의 시사때문만도 아닌, 이 두 대상 간의 마주침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이즈와 한국의 근·현대시가 만나는 방식이 단순 ‘보리’라는 소재가 겹쳐서가 아니라, 보리가 시 텍스트에 잔존함으로써 자아내거나 촉발하는 정동(情動, affect)²⁴⁾이 하나의 공통(the common)으로서 양자간 만난다는 점이다. 공통은 “물질적 세계의 공통적인 부, 공기, 물 땅의 결실을 비롯한 자연이 주는 모든 것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지식, 언어, 코드, 정보, 정동 등 사회적 상호작용 및 새로운 사회적 생산을 가능케 하는 인공적인 산물까지를 지시”하는 개념이다.²⁵⁾ 언어는 정동(affect)과 같이 공통적인 요소이며, 만약 언어와 정동을

24) 정동(affect)은 이 세계가 단일 과정으로 파악되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감각적으로 체험된다고 할 때, 신체 능력과 감각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존재 능력 혹은 행동능력의 영속적 변이’로 정동을 규정할 질 들뢰즈와 이를 마주침에 의한 사건으로 전유한 브라이언 마수미의 방식을 따르면, 정동은 주체와 대상이라는 개별자들이 아닌 관계론적 차원에서 하나의 신체가 신체 외부의 다른 존재와 마주치는 가운데 발생하는 존재의 변이이다. 시(詩)에서의 정동은 시적 대상과 시적 주체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정동 이론』, 갈무리, 2016. 조강석, 「1960년대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시민적 윤리와 대중적 욕망의 교환」, 『현대문학의 연구』 제50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pp.7-37 참고.

25) 네그리의 ‘공통체’ 개념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중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 그리하여 자본주의의 대안이 사회주의이거나 사회주의의 대안이 자본주의인 것처럼 이항대립되지 않는 ‘공통’에 집중함으로써, 이 공통이 형성되고 변이되는 생성의 힘과 운동의 과정, 그리고 이항대립 구조에 포착되지 않는 다중(多重)을 통해 대안 근대를 사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 개념 역시 민간/국가가 공통적인 것들의 ‘소유’ 주체로 호명되는 것에 대한 비판 위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 사유 구조의 틀을 문학에서 재전유한다. 사적인 것은 ‘소유’/‘사유재산’에 직결되며, 이 경우 소유 가능한 주체의 위치가 문제시된다. 예를 들어, 하이즈는 중국의 시인이지만, 그것이 세계와 호흡하는 가운데 하이즈를 중국 문학의 ‘소유’ 대상으로 환원시킨다면, 중국어와 중국역사, 문화를 본질적으로 경험한/체화한 주체에게로 텍스트의 생성적 힘이 귀속된다. 이는 한국시를 비교문학의 층위에서 분석하

사적 소유나 공적 권위에 종속시킨다면 그것이 지닌 표현, 창조, 소통의 힘을 잃게 된다.²⁶⁾ 만약 하이즈의 시와 한국 근현대시를 개별 작품이 지닌 역사적 층위—사적이고 특수한 것—에 환원시키거나, 죽음이나 소재와 같이 ‘표상된’ 공적 사실로 환원시킨다면, 각각의 층위에서 개별적인 텍스트 읽기와 분석은 가능할지라도,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공통적인 것의 생성적 힘과 의미는 감산될 것이다. 특히, 언어와 이를 둘러싼 이미지와 정동은 끊임없이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텍스트 간 마주침(encounter)이 주체성 그 자체로서 생성(becoming)을 촉진하는 양태를 읽을 필요가 있다. 공통적이지만 관계적으로 생성 중인 ‘정동’의 장(場)에 독자가 삼투함으로써, 비교문학은 단순히 역사주의나 소재주의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생산해낼 수 있다. 그리하여 본고는 공통적인 것의 효과를 극화하는 차원에서, 산동대학교 한국어학과 정동메이 교수가 한국어로 번역한 『꽃피는 화창한 봄날, 바다를 마주하고 서서』(글누리, 2011)를 한국 근·현대시와의 공동을 비교하는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2. 총만과 결핍 사이 진자 운동의 주체와 불완전·불확정성

하이즈는 시 제목을 「보리밭」이라고 쓰며 그 체재(題材)인 보리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정작 보리에 관한 직접적인 서술에 집중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보리밭을 노래”하는 “너희들과 달리”, ‘달’에 천착한다. 하이즈에게 달은 “어둠 속에서 춤추는 심장(「구릿빛 아시아」)”이며, “달이 지나면, 문을연다

는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서 마치 ‘공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보편적 소재 ‘보리’, ‘죽음’으로 작품 읽기의 의미를 환원시킨다면,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서로 길항하고 있는 그 내부의 힘과 운동보다는 특정 기표가 우위에 설으로써 그것을 관할하는 주체의 일부면만이 균주처럼 텍스트 위에 군림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어도 비교문학이라는 ‘마주침’의 작업에서는 특정 국가나 작가의 역사적·문화적 사실로 환원되지도 않고, 소재주의·주체주의로도 바로 환원되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 긴장하고 양측에 저항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견안하며 운동하는 텍스트의 생성적 힘인 ‘공통적인 것’에 집중하는 바이다.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정남영·윤영광 역), 『공통체』, 사월의 책, 2014, pp.16-17.

26)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앞의 책, pp.17-18.

/어떤 꽃은 높은 나무에 피어 있고/어떤 열매는 깊은 땅속에 맺혀 있다(「신부」)에서처럼 꽃, 나무, 열매, 땅의 생명과 그것이 태동하는 세계를 여는 문(門)이다. 시적 주체는 ‘심장’처럼 그것을 생동하는 사물로 활유(活喻)하거나, 세계와의 마주침을 보다 넓은 차원에서 가능케 하는 선행조건으로 사유한다. 그리하여 ‘달’이 부각되는 밤은 하이즈 시의 시적 주체가 보리를 마주하고 정동적 사유를 전개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보리를 먹고 자랐다/달빛 아래 큰 그릇을 들고 서 있다/그릇에 비친 달과/보리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너희들과 달리/보리밭을 노래할 제/나는 달을 노래하련다//

달빛 아래/밤새도록 보리를 심는 아버지의/몸에 황금빛이 흐른다//

달빛 아래/새 열두 마리가/보리밭을 날아 지났다/어떤 새는 보리알을 물고 가고/
어떤 새는 바람을 맞받아 날아오르면서, 완강히 부인한다//

보리밭을 지키다가 밭머리에서 잠들었다/달이 우물을 비추듯이 내 몸을 비춘다/
고향의 바람/고향의 구름/날개를 접고/내 어깨에 잠들었다//

보리의 물결—천국의 탁자가/무연한 들판에 놓여있다/보리밭 한 폐기//

수확의 계절/보리의 물결과 달빛/날카로운 낫을 씻고 있다//

달은 알고 있다/때론 내가 흙보다 힘들다는 걸/수줍은 애인이/눈앞에 아른거린다
/보리밭//

우리는 보리밭의 연인/보리를 수확하던 그날 원수와/화해를 했다/우리는 일을 끝
낸 후/눈을 감고, 숙명을/불명 없이 받아들였다//

아내들은 흥분하여/흰 앞치마에/손을 닦아낸다//

이즈음 달빛이 대지를 두루 비추고 있다/우리는 각자/나일강, 바빌론, 그리고 황
하의/아이를 데리고, 강 양안에서/별떼가 춤추는 섬과 평원에서/손을 씻고/식사 준
비를 했다//

너희를 이렇게 품을 수 있게 해 다오/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 다오/달은 슬프지가
않다/달빛 아래/서있는 두 사람/가난뱅이와 부자//

뉴욕과 예루살렘/그리고 나/우리 셋은/꿈에 도시 외곽의 보리밭을 보았다/백양
나무에 둘러싸인/싱싱한 보리밭/싱싱한 보리/나를 키워준 보리

— 하이즈, 「보리밭」 전문 (강조는 인용자)

하이즈는 달을 사물에 비유하여 그 활물성(活物性)을 암시하지만, 지나친 상징으로 달을 투항시키지 않는다. 달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달은 밤중에 시적 주체를 둘러싼 세계를 다각로도 비추며 노동의 장(場)을 구조화하는데, 시적 주체는 “달빛 아래”에서 “보리를 심는 아버지”와 그곳을 날아 지나는 “열 두 마리”의 새를 동시에 봄으로써 ‘보리’에 관한 관념과 정서가 변이됨을 느낀다. 우선 주체는 힘들게 보리를 수확하는 아버지와 “보리알을 물고”가거나 그것을 물고 도망가는 것을 “완강히 부인”하는 “새”를 대조적으로 보고, 새를 쫓는 역할을 하며 밤새 “보리밭을 지키”고 있다. ‘자기 것’으로서의 보리밭을 응시하느라 피곤해진 그는 “밭머리에서” 잠들게 되는데, 달은 ‘나의 몸을 “우물을 비추듯이” 비춘다. 즉, 달이 주체를 비추고 주체가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물 깊이만큼으로 신체 변이를 경험한다.

그는 “꿈”에 침전하면서 “고향”에서의 기억을 길어올린다. 그리고 “수확의 계절”에 “날카로운 낫”으로 노동을 하느라 “흙보다 힘든” 자신과 “일을 끝낸 후/눈을 감고, 숙명/불평 없이 받아들”였던 “수줍은 애인”과의 만남이, “보리밭”에서 가능했음을 인식한다. 보리는 “싱싱”하게 살아있음으로 “나를 키워” 사랑을 경험케 했고, “보리를 수확하던 그날”에 “원수와/화해”한 것은 ‘보리’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처음엔 보리를 수확하는 아버지와 보리알을 빼앗아 가는 새가 대조적으로 보였지만, 결국 모두 보리로부터 빛을 저 살아가는 존재임이 인식됐기 때문이다. 주체는 이들 존재를 ‘나’와 ‘원수’처럼 이항대립시킨 것이 곧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 인위(人爲)이고, 사랑의 힘은 보리의 생(生)에 있음을 자각한다. 따라서 “숙명”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보리’라는 대지(大地)로부터 생명이 기원한 것임을, 그 자연적 힘을 수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주체는 “이즈음”이라는 어휘를 통해 상황의 질적 변화를 예고한다. 그리고 “달빛이 대지를 두루 비추”고 있음을 본다. 보리밭에서 노동하는 인간과 그 보리밭에서 보리알을 조금씩 빼어 나르는 새가 공존하는 상황 앞에서 달은 “슬프지가 않다.” 그것이 자연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생리 앞에 겸허해진 주체는 보리의 존재에 감사한다. “이렇게 품을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즉 “나를 키워준 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결국 ‘나’도 없기 때문이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념의 변화로 일어난 움직임이다. 주체는 더 나아가 보다 넓은 세계-보편으로 시야를 확장한다.

그리하여 “나일강, 바빌론, 그리고 황하”와 같이 인간의 문명이 기원한 것이 “보리” 곧 “자연”의 속성에 의함이었다고, 자연은 “뉴욕과 예루살렘/그리고 나”가 있는 ‘오늘’의 생명을 지속하는 것임을 인식한다. 하이즈가 “생존에는 통찰이 필요 없다/대지가 스스로 드러낸다(「고향을 재건하다」)”고 언술한 것처럼, 보리로 대유된 자연(自然)은 한자어가 그대로 지시하는바, ‘스스로 그러한’ 생의 역동을 만물에서 지속시킨다.

이로써 시적 주체가 보리에 대한 시를 썼다기보다는, 보리와 관계맺는 행위(노동-수확-삶)로부터 신체가 변용(피로-꿈)되고, 이러한 신체 변용에 따른 관념의 변화(아버지-새의 대조 관계로부터 원수와의 화해와 자연에의 숙명을 받아들이는 의지)를 언어로 승화해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달은 그러한 변이를 가능하게 하는 ‘밤’-‘침묵’의 환유물로서, 주체의 정동적 깊이를 “우물”로 구상(具象)하게 한다. 하이즈에게 침묵의 밤은 “밤이면,/...../깊은 흙 속에, 나무뿌리에 등을 대고/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볼 수 없는 행복/들꽃이 땅속에서/땅위로 타오른다(「감동」)”에서처럼 미세한 약동(躍動)이 지속되는 곳이기도 한데, 흥미로운 것은 밤뿐만 아니라 태양이 비추는 ‘낮’에서도 시적 주체가 보리와 관계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물음/푸른 보리밭에서 뛰놀고 있다/눈빛과 햇빛이/시인이여, **당신은 갯을 힘이 없다**/보리밭과 빛의 정을/소망과/선량함을/**당신은 갯을 힘이 없다**

당신은 갯을 힘이 없다/눈부신 별이/머리 위에서 쓸쓸히 타고 있다

— 하이즈, 「보리밭과 시인」 앞 부분 (강조는 인용자)

나의 사업은 태양처럼 일생을 사는 것/ 예로부터 지금까지 -“태양”-, 무한히 눈부시고/무한히 빛난다/**꿈을 말로 삼는 모든 시인들처럼**/나도 언젠가는 황혼의 신에게 받들려 영원한 태양 속에 들어가겠지

— 하이즈, 「조국(혹은 꿈을 말로 삼아)」 부분 (강조는 인용자)

이 시에서 “눈부신 별”로 유비되는 태양-“햇빛”은 “푸른 보리밭”을 뛰놀며 보리밭과 “정”을 나누고, “소망”과 “선량함”을 촉진하는 행위소이다. 그러나 태양-보리의 관계에 마주선 시인은 그들에게 “갯을 힘이 없”는 존재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응할 만큼 자연을 위해 해줄 게 마땅찮은 ‘빛 진’ 존재임을 환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자연 성장(生長)의 힘을 ‘언어’로 형용하는 것이 불가함에도 할 수밖에 없는 시인의 숙명을 뜻한다. 그리하여 자연에서 소외된 외로움의 정서가 ‘쓸쓸함’에 들어맞다기 보다는, 태양과 보리가 관계 맺는 방식(“정”)대로 자신이 “보리밭”과 관계 맺을 수 없음을 감각한 데서 촉발된 ‘불가피함’의 정동이라 할 수 있다. 이 동요가 ‘보리밭과 시인’이라는 관계맺기의 한 시로 형용된 것이다. 시인은 결국 “태양처럼 일생을 살”기를 바라며, “꿈”을 “말로 삼는” 존재로서 “무한히 빛나”는 불가능을 상상한다. 그래야 시인 자신을 성장시킨 ‘보리밭’도 “무한히” 상호 성장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시에서도 하이즈의 「보리밭」에서처럼 시적 주체가 보리를 수확을 하는 노동의 장(場)에서 촉발된 ‘세계에의 사랑’을 써내려간 작품이 있다.

우리 두 사람은
 키 높이 가득 자란 보리밭, 밭고랑 위에 앉았어라.
일을 필(畢)하고 쉬이는 동안의 기쁨이여.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꽃이 필 때.

오오 빛나는 태양(太陽)은 내려쬐이며
 새 무리들도 즐거운 노래, 노래 불러라.
 오오 은혜(恩惠)여, 살아 있는 몸에는 넘치는 은혜(恩惠)여,
모든 은근스러움이 우리의 맘속을 차지하여라.

세계(世界)의 끝은 어디? 자애(慈愛)의 하늘은 넓게도 덮었는데,
 — 김소월, 「밭고랑 위에서」 전문 (『진달래꽃』, 1925, 강조는 인용자)

이 시의 주체 역시 “일을 필(畢)하고 쉬이는 동안”의 “기쁨”에 관하여 시를 쓰되, 기쁨의 정서를 포착해 재현하는 하지 않는다. 보다 근원적으로 이 기쁨을 촉발시킨 주변의 관계를 다시 보고, 이 마주침으로부터 변이되는 주체의 정동을 내려적이다. 기쁨은, “보리밭”에서 “두 사람”이 ‘휴식’이라는 행위를 하는 동안

감각되는 “빛나는 태양”과 “새 무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은혜”로 변이된다.

은혜(恩惠)는 사전적으로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뜻하며 통상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베푸는 자애로운 사랑’의 의미로 해석되나, 기독교가 본격 전파되기 이전 1920년대 한국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동양의 한자 어원을 따질 필요가 있다. 은혜(恩惠)는 뒤집어서 혜은(惠恩)이라고도 쓰는데, 고대 중국의 어원사전 『說文解字(설문해자)』는 ‘은(恩)자를 ‘혜야(惠也)’라고 풀며, ‘혜(惠)자를 다시 ‘인야(仁也)’로 풀이한다. 이에 인(仁)의 철학자인 맹자의 『滕文公章句(등문공장구)』 상(上)편에 기술된 “분인이재위지혜(分人以財謂之惠), 교인이 선위지충(教人以善謂之忠)”²⁷⁾을 참고하면, ‘혜(惠)’는 재물을 나누는 것, 즉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배움을 의미한다. 또한, ‘은(恩)’이 ‘인(因)자와 ‘심(心)자의 합어로서 ‘원인이 있는 마음’이라 할 때 이는 받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혜 또는 혜은에는 베풀고 받음의 ‘상호작용’의 속성이 내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는 몸”을 구성하는 자연의 생리(生理) 즉 “넘치는” 생에 대한 감(感)은, 삶에 대한 주체의 관념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주체의 신체 변용을 촉진시켜 “은근스러움” 가득한 “마음”으로 다시 응(應)하는 세계에의 사랑을 실천케 한다.

위 시에서 ‘은근(慇懃)’의 의미는 전통 서정의 맥락에서 ‘정취가 깊고 그윽함’ 이라기보다는, ‘야단스럽지 않고 꾸준함’이 적절할 것이다. 은(慇)에 ‘괴로움, 근심’과 ‘간절함’의 뜻이 있고, 근(懃)이 ‘부지런함’을 뜻하는 근(勤)과 마음을 뜻하는 심(心)이 합성된 말이므로, ‘은근스럽다는’ 조어법 상 ‘간절한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부지런히 끈기를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모양새’로 풀어내면 좋다. 지금까지의 연속적 변이를 구조화하면 : ①노동을 마친 후 휴식이 ‘나’를 기쁘게 함→②기쁨의 감각이 두 사람, 밭, 태양, 새의 관계를 보게 함→③자연으로부터의 은혜가 몸에 넘침→④주체가 몸 속에 ‘은근스러움’을 차지하도록 함→⑤은근스러운 마음이 “세상의 끝”과 같은 보다 넓은 곳으로 주체를 향하게 함이다. 주체는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방향을 ⑥자애(慈愛)로 체화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자애가 ‘악의’와 ‘원한에의 복수심’을 다스리는 사무량심(四無量心)의

27) 해석 : 재물을 나누는 것을 ‘시혜’라 하고, 선을 가르치는 것을 ‘충’이라 한다.

한 실천 방법이라는 것²⁸⁾이다. 이는 하이즈의 시 「보리밭」에서 “보리를 수확하던 그날 원수와/화해를 했다/우리는 일을 끝낸 후/눈을 감고, 숙명/불평 없이 받아들였다”고 한 바와 정동적·존재론적으로 정확히 들어맞는 대목이다.

종합해 비교하자면, 하이즈의 「보리밭」과 김소월의 「밭고랑 위에서」는 보리밭에서 노동을 하고 마치는 두 사람, ‘나’가 자연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자신과 세계에 대한 관념이 변하는 과정, 변화된 관념이 다시 주체의 신체와 삶에의 의지를 변용시키는 흐름이 모든 것을 세계관의 확장으로까지 밀고 나아가며 써내려간 시이다. 양국의 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통(the common)’을 공유하는 것이다. 반면에, 생명의 힘으로 넘치는 보리가 오히려 시적 주체에게 고통과 그리움을 느끼게도 한다.

때로 쓸쓸히 홀로 앉아/5월의 보리밭에서 형제들을 떠올린다/조약돌이 널려 있는
 고향의 모래톱/호형 하늘이 간직한 황혼/대지가 품고 있는 슬픈 마을/**때론 쓸쓸히 보리밭에 홀로 앉아** 형제들을 위해/중국시를 읊는다/**눈도 없고 입술도 없다**

— 하이즈, 「5월의 보리밭」 부분 (강조는 인용자)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뻐하다.//혼자라도 가뻐게나 가자/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젓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나비 제비야 깎치 마라/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살찐 젓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팔목이 시도록 매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짚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서움다 답을 하려무나.//**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다리를 절며 하루를 견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잡혔나 보다.//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부분 (『개벽』, 1926.6, 강조는 인용자)

하이즈의 시 「5월의 보리밭」에서 ‘보리밭’은 어떤지 시적 주체가 “홀로 앉아”

28) 하유진, 「분노에서 자비로 — 불교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법」, 『생명연구』 63집,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22, pp.6-7.

있는 곳이자 그의 ‘쓸쓸함’을 증폭시키는 공간이다. 이는 5월의 보리밭이 몇편의 한국 시 : “바람은 넘실 천(千) 이랑 만(萬) 이랑/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보리도 허리통이 부드럽게 드러났다(김영랑, 「오월」)”, “자라는 보리밭고랑을 밟고 서서/다사로이 흙냄새를 보듬은 이 순간/마음은 종달의 환희에 지지 않고//깨끗이 커가는 오월의 깊이 감각할 때/계집스런 우울은 암소의 울음처럼 사라지고(이용악, 「오월」)”에서처럼 충만한 자연과 에너지로 묘사되는 것과는 정동적으로 상이하다. 청맥(靑麥) 주위에 앉은 하이즈의 고독은 “형제들을 떠올”리는 그리움으로 전이된다. 그리움의 정동은 주체에게 “호형 하늘이 간직한 황혼/대지가 품고 있는 슬픈 마을”을 환기하고, “형제들”을 위해 “중국시를 읊는” 행위로 이행된다. 농촌을 그리워하지만 이미 도시화·근대화가 진행되어 과거의 농촌으로 돌아갈 수도 없이 농촌과 도시의 중간지대에 있는 자가 하이즈라 할 때²⁹⁾, 그의 시 읽기가 “눈도 없고 입술도 없”는 자의 행위인 것은 중간적 존재의 미결정적 동요임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밭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며, 그것에 대해 시의 언어로 말하지만 그 정동적 깊이를 차마 모두 말해낼 수 없는 한계에서 진자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상화의 시³⁰⁾에서도 ‘밤’은 보리를 더욱 “싱싱”하게 하는 무언(無言)의 시간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다만, 밤중에도 “삼단 같은 머리”처럼 “잘 자란 보리밭”은 대낮에 주체가 “혼자”임을 인식하게 한다. 이에 주체는 “지심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싶다”며 그리움을 표출하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에도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달라”고 요청한다. “팔목이 시도록 매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며 의지를 표출하지만,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단는” 혼이 “어디로

29) 種鳴,〈中間地帶〉:《不死의海子》, pp.62-64. 정성은, 「하이즈 애정시속 「네 자매」와 자살의 비극성 해독」, 『중국현대문학』 제55호, 중국현대문학학회, 2010, p.65 재인용.

30) 대다수의 한국문학 독자들은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이 시를 ‘일제강점기에 땅을 빼앗긴 현실’에 관한 시라고 배웠고, 식민지 일본제국의 폭력성과 수탈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읽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대 이상화의 문학 활동과 발표 지면 《개벽》의 사회주의·경향성을 바탕으로 이 시를 ‘노동’과 ‘계급’에 대한 시인의 의식이 식민지 시기와 함께 얽혀있는 작품으로 보는 연구가 발표됐으며, 본고는 이 연구가 타당한 분석이라 판단한다. 권유성,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재고 : 잡지 『개벽』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10집, 한국어문학회, 2010, pp.249-271.

가”는지도 모르는 채 독백에만 그치고 만다. 그리하여 주체가 도달하는 곳은 그리운 과거의 공간만도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땅이 부재한 현재의 공간만도 아닌,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의 중간지대이다. 시적 주체는 완전히 “땅”을 빼앗겼다는 결정된 현실과 그리움이 환기하는 노동 공동체의 공간 사이를 “다리를 절며” 걷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현재 완료상태가 아니라 “걷는다”는 지속의 동작이다.

정리하여 비교하면, 하이즈와 이상화의 시 모두에서 주체는 보리밭을 보고 있지만, 보리밭에 대한 정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면서 발생하는 ‘충만’과 ‘결핍’의 정동적 중간지대에서 진자 운동 중인 양태를 써내려간다. 이들 주체가 하이즈 시에서 “눈도 없고 입술도 없”었다면 이상화 시에선 “다리를 절며” 있다는 점에서 모두 ‘불완전’하고 ‘불확정적’인 신체로 관념을 실어 나른다.

3. 죽음충동으로부터 신생에로의 욕망

앞서 비교한 보리(밭)는 생명의 ‘충만’과 불완전하고 불확정적인 ‘결핍’ 사이를 배회하는 불안한 이미지로 제시되었다. 이 불안은 시적 주체가 보리를 마주할 때 느끼는 죽음 충동(death drive)이 정동적으로 우회되고 있음을 표지한다. 그렇다면 죽음충동이 어떻게 시적 주체의 신체와 관념을 변용시키는가가 문제다. 이에, 하이즈와 한국 근·현대시 모두에서 ‘보리’ 이미지가 활력적³¹⁾이고 고무적이지만 않고, 죽음의 전조(前兆)이자 사전 징후로서 섬광처럼 나타난다는 사실이 두드러진다.

31) 한국시사에서 “복사꽃 피고, 살구꽃 피는 곳, 너와 나의 뛰놀며 자라난, 푸른 보리밭에 남풍은 불고(박두진, 「어서 너는 오너라」)”, “온 겨울, 아니 온 사철/내가 바란 것은 오로지 다스한 사랑./한동안 그리움 속에/고운 흙 한줌/내 마음에는 보리이삭이 솟아났노라(오장환, 「산협의 노래」)”, “별거벗고 언 땅에 꽃혀 자라는/초록의 겨울 보리./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추운 몸으로 왔다(김남조, 「생명」)”, “햇빛에는 겨울 보리에 짝이 트고(김수영, 「동맥」)”, “지아비와 지어미의 통곡 견히고/파랗게 싹을 내는 겨울 보리./밟아도 밟아도 고개 들이키는 겨울 보리(이성복, 「애가2」)에서 보듯, 보리의 생명력은 시인들이 사랑한 힘이자, 시인에게 침투한 범신적 속성이었다.

해와 하늘빛이/문둥이는 서러워//보리밭에 달 뜨면/애기 하나 먹고//꽃처럼 붉은 울음을/밤새 울었다.

— 서정주, 「문둥이」 전문 (『시인부락』 창간호, 1936.11)

이 시는 “문둥이”라 낮잡아 불리던 나병(癩病, leprosy) 또는 한센병(Hansen's disease; HD) 환자에 관한 작품이다. “문둥이”는 “해와 하늘빛”이 선명한 낮에 사람들을 피해다닐 수밖에 없어 “서러워”한다.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달” 뜬 밤중인 까닭이다. 이들은 밤에 “애기 하나 먹”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아이 간 빼 먹기’ 괴담과 관련 있다.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센병 환자들이 병 치료에 특효라는 어린 간을 먹기 위해 논밭, 숲, 골목 등에 숨어 있다가 혼자 다니는 어린 아이를 납치한다는 설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이를 고려하면 “문둥이”는 아이를 잡아 먹고 피묻은 존재가 되나, 이내 “꽃처럼 붉은 울음을/밤새 울”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시가 문학적 성취도가 높은 작품이라 할 수는 없다. 문둥이를 타자화하여 그들의 설움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의 윤리적·정치적 미학화에는 실패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주목할 점은 “보리밭”이 증층적으로 환기하는 국면(局面)들이다. 보리밭은 “달”이 떠도 숨을 수 있을 만큼 보리가 무성히 자라난 공간이자, 격리되고 고립된 곳으로부터 탈출한 신체가 존재하는 작은 현실 세계이다. 또한 보리밭은 병자에게 드리워진 신체적·사회적 죽음을 생명과 삶으로 치환하려는 욕망이 숨은 곳이자, 그 욕망의 실패가 진행되는 공간이며, 실패가 진행되는 동안 “울음”이 “밤새” 지속되는 시간을 형성하는 장치다. 언뜻 보기에 보리는 ‘표상된’ 설움과 슬픔에 비해 부차적인 요소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시적 배경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생(生)과 사(死)가 뒤엉킨 역사가 잔존하는 이미지³²⁾로

32) 역사적 사건과 시간의 무의식은 죽었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남는 잔존의 방식으로 현재에 침투하고, 그러한 시대착오적 성격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파토스(pathos)를 촉발시킨다. 서정주의 시에서 보리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에 따르면 이미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파토스 형성(pathos formel)의 조각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독해가 가능해진다. 디디 위베르만의 개념은 다음을 참고.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김병선 역), 『잔존하는 이미지: 바르부르크의

서 출현한다. 이 이미지는 시공간을 횡단하며 시 곳곳에서 ‘보리’의 존재성을 이행하는 가운데 계보화된다.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 달라.

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 함형수, 「해바라기의 비명 — 청년화가 L을 위하여」 전문 (원문 : 『시인부락』 창간호, 1936.11)

보리피리 불며/봄 언덕/고향 그리워/피—르닐리리.//보리피리 불며/꽃 청산(靑山)/어린 때 그리워/피—르닐리리.//보리피리 불며/인환(人寰)의 거리/인간사(人間事) 그리워/피—르닐리리.//보리피리 불며/방랑의 기산하(幾山河)/눈물의 언덕을 지나/피—르닐리리.

— 한하운³³⁾, 「보리피리」 전문 (원문 : 『서울신문』 1953, 강조는 인용자)

한국시사에서 함형수의 시는 통상 ‘해바라기’가 주요 소재로 지목되어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와의 관련성으로 독해되어온 작품이다. 시적 주체에 가까운 죽음으로 표상되는 “무덤” 주위에는 “해바라기”가 “긴 줄거리”를 형성할 만큼 가득하고, 그것이 “태양”같이 화려한 “사랑”을 상징하도록 배치되었다. 작품의 제목도 해바라기인 데다, 고흐와의 상호텍스트성으로 읽힐 수밖에 없기도 한 것은 사실이다.³⁴⁾ 그러나 해바라기 “사이”라는 중간지대에 “보리밭”이

미술사와 유령의 시간』, 새물결, 2022.

33) 이 시를 쓴 시인 한하운(본명 한태영)은 실제로 나병 환자였다. 그는 1920년 함경남도 함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936년 17세가 되던 해에 나병을 진단받아 금강산 등지에서 요양을 했다. 이에 병세가 호전되는 듯하여 일본과 중국에서 공부하며 안정을 찾는가 했지만, 나병이 재발하여 조선에 돌아와 문학 창작과 학업에 전념했다. 서정주의 「문둥이」와 한하운의 「보리피리」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다면, 한하운의 시에서 창작자와 작품 속 시적 주체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거나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34) 중국 시문학사에서 하이즈 역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해바라기’에 천착한 바 있고 보리(밭)와의 관계로 그것이 시로 창작된다는 점에서,

“끝없”이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 중간지대로부터 주체의 의지(“나의 꿈”)가 “노고지리”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기 때문이다. 보리밭은 죽음(“무덤”)과 생동(“사랑”, “꿈”)을 매개하며, 사(死)에서 생(生)에의 욕망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미지로 현존한다.

한하운은 이러한 보리의 ‘잔존’을 “피—르닐리리”라는 청각 이미지로 전유한다. 재미있는 점은 이 시가 서정주의 시와 동일하게 나병 환자에 관련한 작품이지만, 서정주의 시적 주체가 나병 환자의 정서를 대상화하여 압축적으로 묘사했다면 한하운의 시적 주체는 나병 환자 당사자의 정동적 동요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풀어낸다는 점이다. 그 수행(performance)의 방법은 “보리”를 “피리”로 제작하여 주체가 직접 그 음악을 만드는 식이다. 이 “보리피리” 소리는, “방랑의 기산하”처럼 자신의 삶을 위해 거쳐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이에 수반되었던 곁층의 슬픔(“눈물의 언덕”)을 “지나”는 가운데 울린다. 음악은 “고향”, “인환”, “인간사”에 대한 그리움이나 “눈물”니는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며, 그것이 응축된 역사적 시공간을 “지나”는 삶의 진행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한 예술적 승화이다. 즉, 부정적 파토스에서 긍정적 파토스로 이행하는 보리의 이미지가, “피리”라는 사물화 과정을 거쳐 주체가 그것을 연주하는 신체 변용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다.

있지, 너 돼지도 우울하다는 거 아니? 돼지도 표정이 있다는 거?

물컹거리는 **슬픔으로 살찐 물**, 더러운 물, 미끌미끌한 진흙

//내가 로테르담의 쿤스트할레에서 안 배닝이라는 사진가가 일제 식민지 치하 수마트라 할머니들 찍은 사진을 봤거든 그런데 그 사진 속 표정은 딱 두 종류였어

//불안 아니면 슬픔, 그래서 난 걸어가면서 그 주름 얼굴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지
당신은 불안, 당신은 슬픔, 슬픔 다음 불안, 불안, 슬픔, 슬픔.

//나의 내용물, 슬픔과 불안, 일평생 **꿀꿀거리며 퍼먹은 것으로 만든 것**

슬픔과 불안, 그 보리밭 사잇길로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돼지 한 마리 지나가네

하이즈의 시와 한국 근현대시는 정동적 공통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을 너머, 더 정치한 분석을 요청한다고 할 수 있다.

— 김혜순, 「돼지는 말한다」 부문 (원문 : 『피어라 돼지』, 문학과지성사, 2016, 강조는 인용자)

이러한 시적 변용과 보리 이미지의 이행적 사유는 김혜순의 시 「돼지는 말한다」에서도 유사한 구조로 드러난다. 이 시의 중요한 주체인 “돼지”의 “몸”은 “슬픔”으로 쩌 있다. 한 존재의 신체에 침투해 그 몸을 변용시킨 “슬픔”이 그에게 집약된 정서라기보다는, “일제식민지 치하”라는 과거 시간 “수마트라 할머니”와 그들을 담은 “사진가”의 작업이 “로테르담의 쿤스트할레”라는 이질적 공간에서 ‘나’와 만나 촉발된 정동으로 이행된다. 그래서 주체가 그 “슬픔”과 “불안”에 (결국 이름을 붙일 수 없지만) “이름을 붙여”주는 수행은 “걸어가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때 “보리밭”이 슬픔과 불안이 자장하는 “사잇길”로 펼쳐지며, 그 중간지대에서는 “뉘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눈여겨볼 사안은 “그 보리밭 사잇길로 뉘 부르는 소리 있어”가, 1952년 한국전쟁 피란지에서 만들어져 1970년대에 널리 퍼진 대중 가곡 「보리밭」(작사 박화목, 작곡 윤용하)의 한 구절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뉘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의 변용이라는 점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노래 가사의 “보리밭” 사잇길에서 “멈춘” 주체가 김혜순의 시 “보리밭” 사잇길에서는 ‘지나간다’는 사실이다. 가곡의 보리밭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한 바라면³⁵⁾, 시에서는 “슬픔과 불안”이 자장하는 공간을 주체가 ‘살아감’으로써 그 정동적 이행이 지속된다. 즉, 여기에서도 보리 이미지는 과거와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의 역사와 겹을 정지로부터 지속으로, 고통으로부터 삶에의 의지로 나아가는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보리밭아/다른 사람들은 네가/따뜻하고 아름답다는구나/**나는 너의 괴로운 질문의 중심에서/너에게 화상을 입었다**/나는 태양 아래 서 있다 슬픈 햇빛//보리밭/신비

35) 박화목은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고향 황해도 해주에서 부산으로 내려가, 피란지 부산에서 이 곡의 가사를 썼다. 그 당시 제목은 ‘옛 생각이었으나, 작곡가 윤용하가 곡을 붙임과 동시에 제목을 ‘보리밭’으로 바꾸었다. 가곡 ‘보리밭’은 박화목의 고향에의 그리움과 향수, 향토 정서에 대한 회귀의 노래이다.

한 질문자여//피로운 얼굴로 당신 앞에 서면/가진 게 없다고 구박하진 않겠지/빈털터리라고 비난하진 않겠지//보리밭아, 인류의 고통은/그가 내뿜은 시와 빛이다!

— 하이즈, 「보리밭과 시인」 뒷부분 (강조는 인용자)

내가 만난 여인은/물속의 여인/보리밭에서/내 뺨을 잘 치워 주오/갈대꽃 같은 뺨들을/거문고 상자에 담아 가져와 주오//내가 만난/순결한 여인, 강의/여인/보리밭에 손을 내밀어 주오//내가 희망을 잃고/보릿단에 앉아 집으로 돌아갈 때/어수선하게 널려 있는 내 뺨들을 잘 거두어/저 암홍색 작은 나무상자에 담아 가져와 주오/당신들의 풍성한 혼수를 가져오듯이

— 하이즈, 「〈진혼곡〉에 담긴 모차르트의 말」 전문 (강조는 인용자)

시인 하이즈에게도 보리밭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는 달리 마냥 “따뜻하고 아름답”다운 정서만을 촉발시키지 않는다. ‘나’는 그 “질문”에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중심”에 있고, 그 영향으로 “화상을 입었다”. 그만큼 보리는 태양광의 강렬한 온도를 흡수해 주체에게 전이었다는 것이고, 그 전이는 삶에의 질문이다. ‘나’가 “피로운 얼굴로 당신 앞에 서” 보리를 “질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리는 마냥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인 “인류”를 대비시키는 대상이다. 주목할 점은 보리와 시적 주체의 만남 사이에 벌어지는 “고통”의 정동이, “그가 내뿜은 시와 빛”으로 변이된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보리는 고통으로부터 시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유하도록 한다. 인용한 후자의 시에서도 주체는 “어수선하게 널려 있는 내 뺨”로 드러나며, 이는 그의 죽음 충동(death drive)이 보리밭을 둘러싸고 있음을 표지한다. 그러나 분해되어 있는 그의 뺨를 “잘 거두어” “풍성한 혼수”와 같이 집을 장만해 재구성하는 힘 역시 바로 그 “보리밭”에서부터이다. 달리 말하면, 보리밭은 “희망을 잃고” 주체의 상징적 죽음이 진행되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그 죽음이 신생에도 약속하는 곳인 것이다. 진혼곡(鎮魂曲)이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곡임과 동시에 음악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에서 끊임없이 죽음의 의미가 재생산되는 음악임을 고려하면, “강의 여인”이 “보리”와 손잡고, “거문고 상자”에 죽음을 담아 “혼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지속적 이행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이행의 사유를 논리적으로 풀어낸 텍스트가 있으니, 정현중 시인의 「꿈 꾸

는 자의 내면 일기」이다. 정현중은 “쌀을 생각한다. 혹은보리. 이 보리의 꿈은 썩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이 생보리의 꿈은 죽는 것이다. 죽어서, 즉 썩어서 술이 되는 일이다.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보리의 무덤은 술이고 술의 무덤은 사람 뱃속이고 사람의 무덤은 시간이고 시간의 무덤은 영원이고..... 이것이 죽음에 이르고 그리하여 영원에 이르는 길인데, 보리는 썩어서 술이 되지 않고는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살아갈 수 없다”고 술회했다.³⁶⁾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 보리의 존재성과 그 이행은 죽음에서 신생애로의 욕망이 변증법적으로 지속됨과 맞닿는다. 그리하여 시는 끊임없이 그 의미가 재구성되는 힘을 우리에게 증명한다. 하이즈 역시 “새로운 하루를 무한히 사랑(「행복한 하루」)하며 새로운을 추구했고, 그 방법은 “내일, 내일 일어나면 새 사람이 되(「북쪽을 바라보며」)”는 갱생(更生)이었다. 이처럼 보리 이미지는 신생애의 변증법을 거듭하는 영원한 “질문자(하이즈, 「〈진혼곡〉에 담긴 모차르트의 말)”로 세계를 살아낼 것이다. 시적 의미가 차단되지 않는 한 그 대답의 완성은 유보되기 때문이다.

4. 결론 및 의의 — 한·중 시의 공통과 그 경계 횡단의 가능성

지금까지 중국 당대 시인 하이즈와 한국 근현대시가 ‘보리’를 매개해 정동적으로 만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하이즈 시와 한국시에서 보리밭은 인간이 삶을 지속하는 노동의 공간이자, 생명이 약동하는 충만함의 근원지이었다. 동시에 인간이 살아가며 빛을 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이 인식되는 정동적 장(場)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시적 주체들은 그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원수와 화해하거나 자애를 실천하기도 하고, 그 충만함이 환기하는 부재와 결핍에 정동되어 불완전한 존재의 고통과 비애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양측의 시 모두에서 보리(밭) 주위에는 죽음과 고통의 자기장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시적 주체는 생(生)과 사(死)

36) 정현중은 이것을 문학에 대입해 “문학은 그것을 통해서 과거를 아는 단순한 역사나 사회사가 아니다. 문학은 예컨대 어떤 한정집단이나 계급의 진실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인간)의 진실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했다. 정현중, 『거지와 광인』, 나남, 1985, pp.225-226.

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지속하며 죽음충동을 신생애의 의지로 승화시킨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보리라는 표상에 대한 해석적 접근에 의함이 아니라, 보리와 세계를 마주한 주체 사이의 중간지대, 곧 시적 이미지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주지하듯 정동을 매개해 수행되는 비교 문학 읽기는 ‘공통적인 것(the common)’을 통해 한·중 시문학의 네트워크를 근본주의적 관점이 아닌 개방과 탈중심화의 관점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이다. 근본주의는 표상이라는 “습성과 관행을 강렬한 검사와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며 삶에서 끊임없이 행동하는 신체와 그러한 신체의 생산성을 허용하지 않는다.³⁷⁾ 달리 말해 문학 텍스트에 드러난 기호에 강박적으로 집중하고 그것을 특정 국가와 역사의 소유물로 환원하는 작업은, 그 텍스트 내부에서 시적 주체가 마주하는 타자, 사물, 환경, 공간 사이 발생하는 ‘잠재된 광장’을 폐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텍스트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구심적 운동³⁸⁾을 사전에 차단하고 만다. 따라서, 하이즈의 시는 중국에서 기념하고 오래 기억될 시이지만 오로지 중국의 역사적 소유물로 귀속되지 않으며, 보리를 제재로 한 한국의 근현대시는 한국에서 그 계보를 형성해오고 있지만 한국의 역사적 소유물로 귀속되지 않는다. 또한, 보편적 표상으로 그 비교 기준이 환원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둘의 만남은 시 텍스트의 이미지와 정동이라는 공통에 의하여 끊임없이 상호침투하고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본고의 비교문학 작업은 이후 한중인문학에서도 그 수가 미흡한 시 읽기에 작은 보탬이 되며,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보리가 한국과 중국에만 국한된 소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인도의 시인 마하트마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1948)는 1930년 4월 6일 제2차 비폭력저항운동의 현장에서 “삶은 죽음에서 생긴다. 보리가 싹 트기 위해서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바 있는데, 이는 보리의 이미지와 이에 수반되는 정동이 한국과 중국을 넘어 아시아에서도 공통으로 드러남을 증명한다. 하이즈가 「구리빛 아시아」에서, 김소월이 「밭고랑 위에서」에서 추구한 것처럼, 그 공

37)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앞의 책, p.67.

38) 조강석, 「시 이미지 연구 방법론 : 시 텍스트의 '내부로부터 외부로의 전개'를 위하여」, 한국시학연구 42호, 한국시학회, 2015, pp.265-306.

통은 세계관의 확장과 더불어 중횡하는 범위를 넓혀갈 것이 분명하다. 본고는 추후 이 작업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보편에까지 확장해가는 비교문학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로 문학 비교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는 데에는 선행 연구자들의 덕이 컸으며, 무엇보다 한국시와 하이즈의 시덕분이다. 더불어 한국에 하이즈의 시를 소개해준 정동메이 교수를 비롯해 한중 번역가와 문인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동시대 비교문학 연구자, 중국어 모국어 화자 연구자 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보다 진전된 학술활동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1. 자료

하이즈(정동메 역), 『꽃 피는 화창한 봄날, 바다를 마주하고 서서』, 글누림, 2011.
海子, 『海子诗全集』, 作家出版社, 2020.

2. 단행본

김소영 편저, 『트랜스:아시아 영상문화』, 현실문화연구, 2006.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정동 이론』, 갈무리, 2016.
베이다오(권남희, 박광자, 최용만, 서창렬, 이상원, 정창, 백선희, 이승수 역), 『내일부터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산책, 2015.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정남영·윤영광 역), 『공통체』, 사월의 책, 2014.
정현중, 『거지와 광인』, 나남, 1985.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김병선 역), 『잔존하는 이미지:바르부르크의 미술사와 유령의 시간』, 새물결, 2022.
홍자성(박정희 역), 『중국당대문학사 1949-현재』, 비봉출판사, 2000.
崔卫平, 『不死的海子』, 中国文联出版社, 1999.
高波, 『解讀海子』, 雲南:雲南人民出版社, 2003.
郭宝亮, 『飛升與沈降——論海子詩歌的意象構成及其內在張力』, 新強:新強師範大學學報, 1998.
譚五昌, 『海子論』, 北京:北京大學中文系, 1997.
Jon Solomon·Naoki Sakai, 『Translation, Biopolitics, Colonial Difference

(Traces 4)』, Hong Kong Univ Press, 2006.

3. 논문

- 권유성,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재고 : 잡지 『개벽』을 중심으로」, 『어문학』 제110집, 한국어문학회, 2010, pp.249-271.
- 김금용, 「자살한 하이즈海子와 『하이즈시선海子詩選』을 내준 시환 시인」, 『시와세계』 제26호, 2009, pp.207-221.
- 김수진, 「하이즈(海子) 시의 시적 상상력과 자아 이미지」, 『비교문화연구』 제33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3, pp.33-52.
- 김태연, 「시인 하이즈(海子)의 정전화」, 『중국문학』 제80권, 한국중국어문학회, 2014, pp.103-124.
- 손은홍, 「한중 시인의 죽음의식 비교연구 : 기형도와 하이즈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8.
- 오윤숙, 「하이즈-거마이 현상(海子-戈麥現象) 연구」, 『중국현대문학』 제61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2, pp.89-113.
- 오윤숙, 「하이즈 후기(1987~1989) 단시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역설에 관하여」, 『중국현대문학』 제37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6, pp.179-204.
- 오혜영, 「기형도와 하이즈 시에 나타난 주체의 ‘소외’ 양상 비교 연구 -라캉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토대로」, 『춘원연구학보』 제18호, 춘원연구학회, 2020, pp.161-180.
- 이미옥, 「기형도와 하이즈 시 비교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57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8, pp.17-37.
- 이선이, 「한국 내 한중현대문학 비교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78호, 한중인문학회, 2023, pp.195-226.
- 이정교, 「문학 : 시(詩) ; 한국어로 읽는 중국시 1」, 『문학/사학/철학』 제13권,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2008, pp.60-65.
- 이희현, 「하이즈 시에 나타난 ‘육체’와 ‘밀밭’의 이미지 고찰」, 『중국문학연구』 제51호, 한국중국문학학회, 2013, pp.141-159.
- 정동메이·최성실, 「허수경과 하이즈(海子)시 비교연구- 도시와 육체의 시적 표상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51권,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pp.187-223.
- 정성은, 「하이즈 애정시 속 "네 자매"와 자살의 비극성 해독」, 『중국현대문학』 제55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0, pp.35-70.
- 조강석, 「1960년대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시민적 윤리와 대중적 욕망의 교환」, 『현대문학의 연구』 제50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pp.7-37.
- 조강석, 「시 이미지 연구 방법론 : 시 텍스트의 '내부로부터 외부로의 전개'를 위하여」, 한국시학연구 42호, 한국시학회, 2015, pp.265-306.

- 조평, 「1980년대 한·중 시의 비판적 현실인식에 대한 비교연구 — 황지우, 박남철과 베이도오(北島), 하이즈(海子) 시를 중심으로 —」,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5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pp.321-354.
- 하유진, 「분노에서 자비로 — 불교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법」, 『생명연구』 63집,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22, pp.1-17.
- 白淑清, 「海子诗歌意象系统研究」, 河北师范大学, 2014.
- 高菁菁, 「别样的才情与朴素的诗意——品读海子诗歌中的“麦”意象」, 『扬子江评论』, 2012, p46-47.
- 霍海宏, 「麦地之子」, 西南大学, 2014.
- 刘建杰, 「海子诗歌的麦子意象」, 『语文教学通讯』, 2011, p89-91.
- 鲁斐斐, 「救赎与异化——论海子诗歌中的麦子意象」, 『哈尔滨师范大学社会科学学报』, 2015, p117-120.
- 杨小兰, 「从“麦地”到“太阳”」, 华中科技大学, 2006.
- 余慧琴, 「论海子诗歌中麦子/麦地意象」, 『汕头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4, p37-45+95-96.
- 赵蕊, 「海子抒情短诗中的麦地意象群研究」, 西南大学, 2013.
- 赵秀芝, 「从“麦子”到“石头”看死亡哲学」, 上海外国语大学, 2012.

논문 접수 일	2023년 10월 26일
심사 완료 일	2023년 11월 27일
게재 확정 일	2023년 12월 08일

Abstract

The Poetic Encounter between Poetry of Haizi
and Korean Modern Poems

-How the Affect of Barley Images as 'the Common' Keeps the Poems Alive-

Yoon, Jong Hwan

Since the poetry of Haizi(海子;hǎizi) has been introduced to Korea in the 2000s, researches on his poems so far have been proceeded mainly relying on the poet's biographical facts -Haizi suicided when he was age of 25- and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 of the China that time. However, on top of pointing out the problem on poems as a property, which are subordinated to the author's private product or reduced to the historical product of specific nation/country, this paper analyzes the way in which Haizi and Korean modern poetry encounter by focusing on the affect-images revealed as common to the each texts.

The first step is digging into the images of barley. Poet Haizi is well-known for the author of '麥(barley)' in the history of Chinese modern literature. Although there is no writer specialized in barley in Korea who responses 1:1 to Haizi, the poetic genealogy of barley have being constituted, including more than 15 monumental poets' works. What all these works have in common is that barley is revealed as a major subject in each poems, but not by the poetic subject directly describing or making statements about barley, rather the affect arisen from the encounter between the subject and things surrounding barley field leads to the aesthetic achievement of the text.

In these texts, the barley field is a topos for work, a source of life, and a place where its absence evokes human imperfections and pain. The subject, being faced of barley between the pendulum movement of fullness and deprivation, experiences a death drive, and the images are transferred to the process of living in the middle of life and death. The poetic subject sublimates the power of such transition into the potential for existence transformation and moves toward pursuing a desire for re-birth dialectically. Thus, the poetry is not subjugated to possession of neither the author

or history of a country and may be continued the movement of re-generation.

Keyword Haizi, Korean Modern Poems, Barley, Genealogy of Barley, the Common,
Desire for Re-birth, Re-generation, Affect

중국 민간문학(民間文學) 연구의 존재 방식과 최근 동향

NI SEN*

국문요약

본 논문은 중국 내 민간문학 연구의 현대적 위치와 진행 방식에 대해 탐색하고, 최근 10년간의 중국 민간문학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핵심 이슈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사적으로 중국 민간문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국가적인 학문 체계 내에서 소속과 지위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들은 민간문학 분야에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분야의 존재 자체에 위기를 가져왔다. 21세기에 들어서도 학문 분류의 문제가 민간문학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문학 분야가 한정적인 학술지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용상 다소 특정한 주제에 한정한다는 점은, 이 분야의 연구와 발전이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0년대 이후로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민간문학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의 주요 관심사와 논의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민간문학은 ‘문학성으로의 회귀’ 경향과 텍스트 연구가 다시 대두된다. (2) 최근 연구들은 중국의 다양한 민족들 사이의 민간문학도 이 다양성 속에서 풍부한 ‘중화 민족의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 새로운 시대의 민간문학 연구는 인터넷에서 창조된 새로운 민간문학과 도시민 간에 유전되고 있는 민간문학 등 다양한 형태와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4) 최근 중국의 민간문학 연구 분야에서는 기존의 민간문학이 지닌 고유한 담론과 표현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2018년에 『중국민간문학대계』 출판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중화 우수 전통 문화 전승 발전’ 사업 중 하나의 구성부분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민간문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로서 민간문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로서는 『중국민간문학대계』는 중국의 민간문학 연구자들이 학습하고, 민간문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중국, 민간문학, 중국민간문학대계, 문학성, 연구 동향

〈목차〉

1. 들어가며
2. 중국 민간문학 연구의 제도적 기반
3. 최근 중국 민간문학의 연구 동향
4. 『중국민간문학대계』 출판사업의 의미
5. 나가며

1. 들어가며

구비문학(oral literature), 또는 민속문학(folk literature)에 해당하는 용어로 중국에서는 민간문학(民間文學)을 사용한다. ‘민간문학’이라는 학문적 개념은 원래 윌리엄 존 톰스(William John Thoms)가 처음으로 제시한 ‘포크로어(folklore)’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는데, 중국의 학자인 梅光迪가 이 개념을 중국에 소개하면서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¹⁾ 서양 학계에서는 민간문학이 민속학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서로 밀접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민간문학은 오랜 시간 동안 민속학의 핵심 연구 주제로 여겨졌다. 반면 중국의 민간문학은 서양과는 상반된 길을 걸으며, 독특한 발전을 이룩했다. 중국에서 민간문학은 처음부터 문학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는 서양의 민속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이론이 중국으로 들어와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때문에 민간문학 연구자들은 기존보다 훨씬 개방적인 시각으로 연구 대상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민간문학은 이제 단순히 ‘살아있는 문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창작과 표현, 그리고 비평을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발전했다. 이는 삶의 한 형태로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전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1) 梅光迪에 의하면 민간문학은 구어체 언어, 즉 spoken language로 간주될 수 있다.

‘민간문학’은 민간문학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²⁾

현대에는 민간문학이 일상과 생산 활동 속에서 사람들이 창작, 전승, 전파, 공유하는 구전 전통과 언어 예술로 이해된다. 이에선 신화, 사시(史詩), 전설, 민담, 민요, 속담, 수수께끼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입으로 전해지는 방식으로 현대에 이르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민간문학은 중화 문명의 정신적 기원으로 간주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식된다. 이는 중국의 다양한 민족들의 기원, 역사, 발전 그리고 업적을 기록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랜 세월이 걸쳐 누적된 인간의 생산 및 생활 경험과 지혜가 구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민간문학은 시대와 민족에 따라 다양한 삶의 전통, 사회 풍속,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다. 이러한 민간문학은 각 민족들의 독특한 사고방식, 철학, 미적 특성 등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민간문학은 중국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지 중 하나로 간주된다. 중국에서 ‘민간문학’이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포크로어(folklore)’와 유사한 의미로 정의되었으나, 실제로는 ‘포크로어’나 ‘구비문학’과 같은 개념들보다 더 깊은 본토적 의미와 감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민간문학을 구체적인 개념화보다는, 민간문학이 지녀야 할 기능과 성격을 기반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본문에서 언급된 ‘민간문학’은 중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鍾敬文의 정의를 따른다. 즉 민간문학은 “노동하는 인민들의 구술 창작물로서, 널리 대중 사이에 전해지며 주로 인민 대중의 생활과 사상 감정을 반영한다. 이는 인민들의 심미적 관념과 예술적 취향을 표현하며, 자체적인 예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³⁾

한국 학술계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중국 민간문학에 관한 개괄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논의는 주로 중국 본토의 민간문학 연구 성과를 한국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張景忠⁴⁾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만족(滿族)의 민간문학과 민속

2) 王軒, 「破繭化蝶歷滄桑——簡述20世紀以來中國民間文學概念的發展歷程」, 『文化產業』 第9期, 2022, pp.78.

3) 鍾敬文, 『民間文學概論』, 上海文藝出版社, 1980, p.1.

과의 관계를 탐구하며, ‘민간문학’이라는 개념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그의 연구는 민족의 다양한 풍속과 민간문학이 민족과 민속의 복잡한 관계 및 민속심리를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해 논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민간문학과 민속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민간문학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로는 발전하지 못했다. 김효민은 중국 민간문학 연구의 대가인 鍾敬文과 張振犁의 연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중국 민간문학의 형성 과정과 주요 양식들을 소개했다.⁵⁾ 이 논문은 중국 근대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민간문화와 사상의 발전 경향, 청나라 말기의 문학개혁과 민간문학의 활동 등 내용을 다룬다. 신화, 전설, 민간 가요, 서사시, 설창(說唱), 희곡, 속담, 수수께끼 등 다양한 민간문학을 탐구하며, 특히 근대 이후 민간 문예학의 창설와 관련된 주제들을 포함한다. 조현설⁶⁾의 연구는 한국 학자의 관점에서 중국 ‘민간문학 연구’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그는 21세기 중국 민간문학계의 위기를 분석하고, 민간문학의 존재 조건 변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그의 연구는 중국 민간문학 연구의 비자율성과 중화주의적 시각의 한계를 강조하며, 강화(講話)와 민간문학 연구의 상호관계, 한족과 소수민족 민간문학 간의 분열 등 문제를 다룬다. 또한, 이 연구는 중국 민간문학 연구가 현실과 동떨어진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 민간문학’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소개하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중국 민간문학 연구에 영향을 끼친 제도적이나 정치적 조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부족하다. 또한, 대부분이 오래된 연구로 최근 20년 간 중국 본토 민간문학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체계적인 연구 방향과 방법론의 부재로 인해 중국 민간문학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제한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 중국 민간문학에 대한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연구

4) 張景忠·리화, 「민족민간문학과 민속」, 『비교민속학』 제15집, 비교민속학회, 1998, pp.483-492.

5) 鍾敬文·張振犁·金曉民, 「민간문학의 흥성과 발전」, 『중국어논문역총간』 제16집, 중국어 논문역학회, 2005 pp.369-399.

6) 조현설, 「중국 민간문학 연구의 현단계」, 『구비문학연구』 제1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2, pp.165-185.

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중국 내 민간문학 연구의 현대적 위치와 진행 방식에 대해 탐색하고, 최근 10년간의 중국 민간문학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핵심 이슈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민간문학 연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즉 제도적인 측면을 중점으로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민간문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중국의 학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상세히 분석한다. 또한, 중국에서 민간문학에 관련된 학술 연구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발전되고 있는데 관련된 학술지, 잡지, 학술 대회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 공간을 살펴볼 것이다. 3장은 2010년대 이후 중국 민간문학 연구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현대 중국 민간문학 연구의 ‘사유구조’를 탐구하고자 한다.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구비문학 분야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중국발 연구가 어떻게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민간문학대계’라는 편찬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는 민간문학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중국민간문학대계’ 편찬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자들, 정부 기관, 언론 매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과 논평을 다루며, 시범적으로 이미 출판된 첫 번째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중국민간문학대계’ 사업의 실행 목표,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중국 민간문학 연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려 한다.

2. 중국 민간문학 연구의 제도적 기반

역사적으로 중국 민간문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국가적인 학문 체계 내에서 소속과 지위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들은 민간문학 분야에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분야의 존재 자체에 위기를 가져왔다. 이처럼 중국 민간문학은 국가의 학문 정책과 사회적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그 자체로 중국 문화의 다양성과 역사적 성취를 반영하는 중요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학문 발전과 더불어 민간문학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현대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민간문학의 이러한 역동적인 발전 과정은 학문의 건설과 중국 사회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중국 건국 이전에, 민간문학과 민속학이 새로운 학문으로서 중국에서 발전하면서 학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그 당시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적인 학문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1918년, 북경대학교가 민요를 수집하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민간문학이 현대 학계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민간문학 연구자들 대부분은 이를 자신의 전문 분야의 부수적인 산물로 여겼다.⁷⁾ 그러나 1949년 신중국(新中國) 건립된 이후, 민간문학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공식적으로 대학의 학문 체계에 편입되었다. 1952년 중국교육부는 민간문학을 대학 국문과의 한 과목으로 지정했고, 일부 대학들은 민간문학 연구소를 설립하여 민간문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나섰다. 그러나 문화대혁명(1966-1976) 기간 동안 민간문학의 교육 및 연구 기관은 폐지되었고, 학문 연구와 학과 건설은 기본적으로 정체 상태에 빠졌다.⁸⁾ 문화대혁명 시기가 끝난 후, 중국 정부는 전통 문화와 학문 연구에 대해 점차 관대한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으며, 민간문학과 민속학 학문 분야도 이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얻었다. 1977년, 민간문학 전공이 공식적으로 국가 교육 체제에 편입되어 ‘중국어언어문학’이라는 ‘1급 학문’ 하의 ‘2급 학문’으로 분류되었다. 북경대학교, 북경사범대학교 등의 대학에서는 민간문학의 석사와 박사 과정을 개설하여 민간문학이 전반적으로 부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시점에서 ‘민속학’ 역시 ‘민간문학’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주목을 받고 학문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전까지는 ‘민간문학’에 포함된 하나의 연구 분야로 여겨졌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민속학의 학문적 지위가 점차 상승하기 시작한다. 1997년 6월, 중국 국무원 학위위원회는 개정된 『석박사 학

7) 葉濤, 「新時期中國民俗學論綱」, 『江蘇社會科學』第3期, 2000, p.59.

8) 鐘敬文, 『民間文學概論』, 上海文藝出版社, 1980, 前言.

위 수여 및 교육의 학문과 전공 목록』을 발표했고,⁹⁾ 여기서 민속학은 ‘사회학’이라는 1급 학문 하의 2급 학문분야로 자리잡았고, ‘민간문학’은 ‘민속학’ 하의 3급 학문분야로 학문적 지위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민간문학 연구의 독립성이 상실되어 학문 발전이 다시 침체되었다.

21세기 초반, 전 세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내에서도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열기가 전국적으로 뜨겁게 일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국가 학문 분류 체계가 조정되었다. 2009년에 발표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학문 분류와 코드』에서 ‘중국 민간문학’은 ‘문학’이라는 1급 학문 아래의 2급 학문으로 공식적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2011년 중국 교육부에서 새롭게 개정된 『학위 수여와 인재 양성 학문 목록』에서는 민간문학의 학문 소속과 등급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중국 교육부가 2012년에 발표한 『일반 고등 교육 기관 학사 전공 목록(2012)』에서도 민간문학은 여전히 학사 전공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교육부의 학문 분류 체계와 학사 전공 설정에서 민간문학 학문이 독립적인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¹⁰⁾ 이처럼, 중국의 민간문학 학문 분야는 국가 학문 분류 체계 내에서 항상 불안정한 상태와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이러한 학문 분류의 문제가 민간문학의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문학이 중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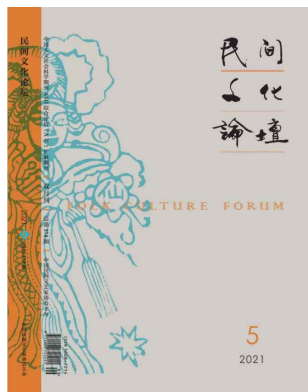
중국 내에서 민간문학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지식의 확산을 책임지는 학술지들을 들여다보면, 중국 민간문학의 발전을 지체하는 또 다른 요인을 발견할

9) 현재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학문 분류 체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국가 품질 기술 감독국이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학문 분류와 코드』이다. 두 번째는 국무원 학위 위원회와 교육부가 발행한 『학위 수여와 인재 양성 학문 목록』이다. 이 중에서 후자가 학문 건설과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국가에서 학문 관리, 학위 수여와 인재 양성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본적인 규칙으로, 인재 양성과 학문 건설 분야에서 지침을 제시하고 규범을 설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10) 黃永林, 「中國民間文學、民俗學學科歸屬及地位的歷史與現狀」, 『華中師範大學學報』第52期, 2013, pp.100-102.

수 있다. 현재 민간문학과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는 학술지들을 살펴보면, 민간문학 연구의 전문 학술지인 『민간문화논단』(民間文化論壇)을 비롯하여, 『중앙민족대학학보』(中央民族大學學報), 『중남민족대학학보』(中南民族大學學報), 『서남민족대학학보』(西南民族大學學報), 『운남민족대학학보』(雲南民族大學學報), 『광서민족대학학보』(廣西民族大學學報)와 같은 각 지역 민족 전문 대학들이 발행한 학술지, 그리고 『민족문학연구』(民族文學研究), 『문학연구』(文學研究)와 같은 문학 연구 학술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민간문화논단』(民間文化論壇)은 민간문학 분야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유일한 전문 학술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 학술지는 민간문학의 다양한 측면과 연구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계와 일반 대중 사이에서 민간문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민간문화논단』은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中國文學藝術界聯合會)가 감독하고 중국민간문예가협회(中國民間文藝家協會)가 주관하는 유일한 국가 차원의 민간문화 학술 연구 종합지이다. 이 잡지는 민간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며, 1982년에는 초기 명칭인 ‘민간문학논단’(民間文學論壇)으로 창간되었다. 『민간문화논단』은 ‘민간문학’, ‘민속연구’, ‘민간예술’, ‘문화유산’, ‘학술평론’, ‘학술대담’, ‘학술동향’ 등 섹션이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민간문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학술지 『민간문화논단』(民間文化論壇)

『민간문화논단』이 민간문학 분야의 유일한 전문 학술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학술지 평가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 중국 내에는 주요한 세 가지 학술지 평가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첫 번째는 북경대학교 도서관이 주도하고, 3년마다 발표하는 『중국어 핵심 학술지 총괄』(中文核心期刊要目總覽)이다. 두 번째는 남경대학교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2년마다 발표하는 『중국어 사회과학 인용색인』(CSSCI)이다. 세 번째는 중국사회과학 평가연구원이 주도하고, 4년마다 발표하는 『중국인문 사회과학학술지AMI종합평가』(中國人文社會科學期刊AMI綜合評價報告)이다. 이들 평가 체계는 중국 내외의 학술지에 대한 수준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그들의 학문적 가치와 영향력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며, 학계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민족문학연구』는 2022년에 AMI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학술지’나 ‘CSSCI’ 목록에 아직 포함되지 않아 인문사회 연구 분야에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로 인해 해당 학술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는 민간문학 분야의 연구와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해당 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중국 중앙민족업무회의가 2023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시진핑 주석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요한 연설을 하였다. 회의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민족 업무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중화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의 특색을 가진 민족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향을 고수하며, 중화민족의 공동 정신적 고향을 구축하며, 각 민족 간의 교류와 소통, 융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¹¹⁾ 이러한 중국 각 민족에 관한 중앙 회의가 열렸고 중국 공산당의 민족 정책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음에 따라 『민족논단』(民族論壇)을 비롯한 많은 학술지는 투고 안내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논문이 중국 민족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될 것을 요구한다.

11) 중국 당건망(黨建網) 보도

<https://baijiahao.baidu.com/s?id=1781412282449382711&wfr=spider&for=pc>

결국, 민족 공동체 의식이 강조됨에 따라, 이 개념을 반영하거나 이해를 증진시키는 민간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현재 이데올로기가 연구 방향을 주도함으로써,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은 민간문학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나 일반 대중들이 소위 ‘공동체’라는 렌즈를 통해 작품을 해석하게 되면, 특정 이데올로기에 맞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이데올로기를 드러낸 연구들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거부당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중국 민간문학 연구의 문화적, 국제적 통용성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다양성과 학문적 열림이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요컨대 민간문학 분야가 한정적인 학술지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용상 다소 특정한 주제에 한정한다는 점은, 이 분야의 연구와 발전이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민간문학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으며, 이는 중국 민간문학의 전반적인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구 목적이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민간문학 잡지들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들은 민간문학을 새롭게 탐색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민간문예연구회(中國民間文藝研究會)가 주관하는 『민간문예집간』(民間文藝集刊)과 『민간문학』(民間文學)이라는 잡지는 중국 각 민족의 민간문학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민간문학』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민간문학 전문 잡지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잡지들은 민간문학의 보급(普及)과 교육에 크게 기여하며 이론적인 연구에 필요한 텍스트를 제공하였다.

게다가, 중국 내에서 민간문학 연구와 교류는 다양한 학술대회의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간문학과 관련된 상위 분야인 민속학 또는 문학 분야의 학술대회인 ‘중국민속학연회’(中國民俗學年會)와 ‘중국소수민족문학연회’(中國少數民族文學年會)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문학에 초점을 맞춘 전문적인 학술대회들이 새로운 현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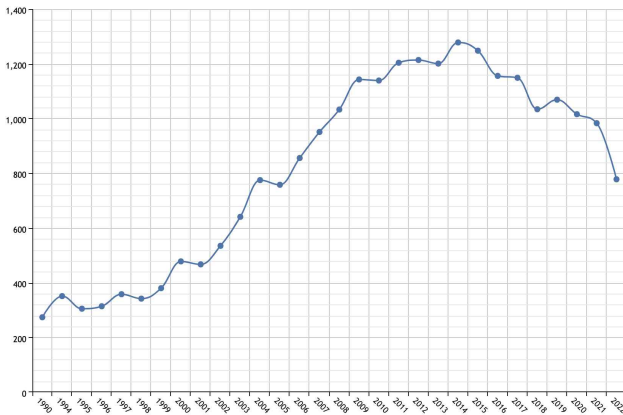
를 들면, 2022년 10월에는 북경대학교가 주최하여 ‘동서양민간문학논단’(東西方民間文學論壇)을 개최하였고, 2022년 12월에는 화동사범대학(華東師範大學) 국제한어문화학과에서 ‘새로운 시대의 중국 민간문학 학문적 발전’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러한 자리들은 민간문학의 본질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민간문학 철학’, ‘본질로 회귀하는 민간문학의 패러다임’, ‘민간문학의 학문적 경로와 발전 방향’ 등의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연구자들은 민간문학의 개념과 기본적 특성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문학적 성격을 바탕으로 한 학문 구축, 학문 분류, 학문적 경로 선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학술대회들은 민간문학 분야의 연구와 이해를 촉진시키며, 해당 분야의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민간문학 연구는 다양한 제도적 장벽 때문에 제한적인 발전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과 문학 애호가들, 그리고 일반 대중 사이에서 민간문학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 밖에서 민간문학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존의 제한들을 극복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민간문학 작품들 자체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부상은, 민간문학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최근 중국 민간문학의 연구 동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제도적 요인들이 중국 민간문학의 연구 발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즉, 중국의 민간문학 연구는 제도적 및 이데올로기적 제약 속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학문적으로 주변화된 민간문학 연구는 국가 학문 분류 체계 내에서 적합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와 발전에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자들의 동기 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민간문학 연구의 깊이와 범위를 제한한다. 더욱이, 관련 학술지는 학술지 평가 체계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

고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이 부족한 현 상황은 민간문학 연구의 영향력을 크게 저하시키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 민간문학의 국제적 통용성과 문화적 깊이를 약화시킨다. 중국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이자 학술 전자자료 통합 업체인 ‘지망(知網)’의 통계에 따르면, ‘민간문학’과 관련된 학술 논문 및 학위 논문의 수는 1990년대부터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대략 2014년을 기점으로 2023년 현재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문학 분야의 연구 동향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으며, 연구 활동의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놀랍게도, 지난해인 2022년에 발표된 민간문학 관련 논문의 총량은 2005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써 중국 내에서 민간문학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1990-2022년 중국 '민간문학'과 관련된 연구 논문 수

비록 중국 민간문학 연구 분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라 하더라도, 여전히 민간문학 연구자들은 힘을 합쳐 꾸준히 연구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다. 그들은 기존의 연구 방법과 시각에서 벗어나, 이전 세대와는 다른 혁신적인 연구 주제와 접근법을 선보이며 민간문학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민간문학 연구의 미래는 불투명한 측면도 있으나, 새로운 가능성과

통찰력을 발굴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대 이후로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민간문학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의 주요 관심사와 논의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1) 민간문학의 ‘문학성’

중국에서 민간문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민간문학의 문학적 특성에 대한 고찰로 표현된다.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민간문학 연구에서 텍스트 분석과 현지 연구 사이에는 구분이 존재한다. 중국 학계에서 말하는 ‘민간문학’은 문학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순수한 문학으로만은 정의되지 않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인식된다. 구체적으로, 민간문학에 포함되는 신화, 전설, 민요, 사시(史詩) 등은 강한 문학적 성격을 띄고, 반면에 신념, 풍습, 속담 등은 문화적 측면이 두드러진다. 21세기 초반으로 넘어오면서 민간문학 학자들은 이러한 분야 간 구분이 민간문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탐구하였고, 과도한 현장 조사에 의존하여 텍스트 연구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연구자들이 ‘텍스트 중심으로 회귀’¹²⁾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최근 중국 민간문학 연구는 민간문학 텍스트의 구조와 형성, 그리고 민간문학이 지닌 독특한 문헌적 시각에 주목하여 논의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문학 연구가 문학 연구로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많은 중국 학자들이 민간문학 연구가 문학성을 추구하는 데 나아가 현재는 신속 문화연구의 틀에서 민간문학생활 연구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³⁾ 이들

12) 李國太, 「“回歸”文本: 民歌研究的一種路徑——從通江民間文學三套集成整理再版引出的話題」, 『大西南文學論壇』, 2022, pp.11-28.

朱佳藝·劉宗迪, 「是“危機”也是“契機”——《超越文本, 回歸文學——對民間文學研究中實證主義傾向的反思》問答、評議與討論」, 『民族藝術』第2期, 2016, pp.133-138.

毛巧暉, 「2022民間文學研究: 回歸文學及其當代價值的探求」, 『中國文藝評論』第2期, 2023, pp.51-62.

13) 萬建中, 「從文學文本到文學生活: 現代民間文學學術轉嚮」, 『西北民族研究』第4期, 2018, pp.134-141.

연구자들은 이것이 중국 민간문학 학문의 발전과 학문적 연구가 꾸준히 깊어지는 과정에서 현대 민간문학 학문 역사의 독특성과 독창적인 학문적 추구가 두드러지게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민간문학은 ‘문학성으로의 회귀’ 경향과 텍스트 연구가 다시 대두된다.¹⁴⁾ 사실 이것은 1980년대 민간 연구의 흐름과 주요 관심사항이 매우 유사하다. 그 당시, 중국 연구자들은 민간문학이 상류문학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학문적 지위를 갖기를 원했다. 학문적 지위의 확립은 민간문학의 문학적 가치 인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민간문학의 문학성을 세우고, 민간문학의 문학적 특성을 정제하는 것이 민간문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선행 조건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간문학은 현장에서 벗어나 생활 맥락에서 해방되고, 민간문학의 문학성을 명확히 강화하게 된다.¹⁵⁾ 『중국 민간 이야기 집성』, 『중국 가요 집성』, 『중국 속담 집성』으로 구성된 『중국 민간문학 집성』 사업이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 기반의 연구가 많이 창출되었다.

(2) 민간문학의 ‘민족성’

중국의 민간문학 연구는 한족 민간문학과 소수민족 민간문학을 별개의 카테고리 구분하고, 전자를 더 우월하게 여기는 중화주의적 시각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예전부터 받고 있었다.¹⁶⁾ 이러한 접근법은 중국 내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소수민족들의 문학적 가치와 그들이 지닌 문화적

王欣·郝蘇民, 「由文學到文化:民間文學本體反思」, 『西北民族研究』 第3期, 2015, pp.113-122.

萬建中, 「“民間文學誌”概念的提出及其學術意義」, 『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7期, 2015, pp.28-35.

戶曉輝, 「民間文學:轉向文本實踐的研究」, 『中國社會科學』 第8期, 2014, pp.167-182.

14) 高有鵬, 劉璨, 「民間文學的文學性問題——劉錫誠《民間文藝學的詩學傳統》的理論特色」, 『西北民族研究』 第4期, 2018, pp.156-161.

劉蕊, 「試論敦煌變文的文學性」,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陳泳超, 「倡立民間文學的“文本學”」, 『民族文學研究』 第5期, 2013, pp.115-127.

15) 萬建中, 위의 글, p.137.

16) 조현설, 위의 논문, pp.165-185.

풍요로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다문화주의와 상호 존중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다양한 민족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접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은 최근에만 시작된 것이 아니다. 20세기 50년대 초반부터 중국 내에서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비판해왔다. 당시 중국의 유명 문학 이론가이자 비평가인 何其芳은 중국 문학의 민족성에 이른 시기에 주목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까지의 중국 문학사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는 중국어로 쓰여진 문학사에 불과하며, 이는 대체로 한족 문화와 소수 민족 작가들이 중국어로 쓴 문학을 포함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 문학사는 다양한 민족들의 문학적 업적과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¹⁷⁾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에서 중국의 민간문학 연구 대상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소수 민족들의 사회와 역사에 대한 조사를 활발히 진행하며, 이들 민족의 문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또한 소수 민족 문학사의 편찬 작업이 국가 차원에서 사회주의 문화 건설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최근 연구들은 중화 민족이 여러 민족들의 조화로운 통합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다양한 민족들 사이의 민간문학도 이 다양성 속에서 풍부한 ‘중화 민족의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⁸⁾ 이는 민간문학이 단순히 한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

17) 何其芳, 「少數民族文學史編寫中的問題文學評論」, 『文學評論』 第5期, 1961, pp.66-87.

18) 楊傑宏, 「跨界與融合：中國少數民族民間文學2022年度研究報告」, 『貴州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期, 2023, pp.130-147.

蘇培, 「民間文學中的中華民族共同性——以黑龍江世居少數民族民間文學為例」, 『黑龍江民族叢刊』 第1期, 2023, pp.23-28.

楊金戈, 「中國少數民族民間文學發展思考——以鄂倫春族民間文學為例」, 『黑龍江民族叢刊』 第4期, 2022, pp.130-137.

巴莫曲布嫫, 「走向新時代的中國少數民族民間文學(上)——從事實清理到學科建設(1995~2019年)」, 『中外文化交流』 第5期, 2022, pp.89-96.

巴莫曲布嫫, 「走向新時代的中國少數民族民間文學(上)——從事實清理到學科建設(1995~2019年)」, 『中外文化交流』 第6期, 2022, pp.83-88.

毛巧暉, 「少數民族民間文藝研究與多民族文學格局的建構(1949-1966)」, 『中外文化交流』 第3期, 2021, pp.23-30.

족들과 그들의 문화를 아우르는 중요한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민간문학의 ‘시대성’

최근에는 많은 연구가 정보화 시대의 배경에서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민간문학의 접근 방법, 의미 및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전에는 민간문학의 시선이 과거에만 머물며, 민간문학이 대중문화의 시대성을 갖는 것을 간과했다. 최근의 연구는 시선을 현대의 민간문학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적 민간문학은 기존의 ‘구전(口傳)’이라는 전승 방식과는 다르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민간문학 연구는 인터넷에서 창조된 새로운 민간문학¹⁹⁾과 도시민 간에 유전되고 있는 민간문학²⁰⁾ 등 다양한 형태와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 중국 민간문학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유되고 전승되는 형태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²¹⁾ 예를 들어, 중국 간쑤성(甘肅省)에서 지역 문화 종사자들이 창작한 『戰瘟神寶卷』(전염병과 싸우는 신

劉亞娟, 「中國共產黨黨藝思想與少數民族文學理論研究史概觀」, 『民族文學研究』 第39期, 2021, pp.15-24.

樊義紅, 「文學的民族認同特性及其文學性生成」, 南開大學博士學位論文, 2012.

19) 高艷芳, 「網絡民間文學：民間文學的當代繼承與發展」, 『雲南社會科學』 第4期, 2019, pp.172-177.

王曉琳, 「信息化時代民間文學的當代重構」, 『新紀實』 第34期, 2021, pp.25-28.

劉潔絮, 「民間文學的當代傳承特征分析」, 『廣東蠶業』 第4期, 2019, pp.132-134.

20) 王娟, 「當代民眾生活中的民間文學——兼談民間文學與作家文學的關係」, 『民俗研究』 第2期, 2016, pp.90-98.

高誌明, 「民間文學當代傳承的特征」, 『大理大學學報』 第2期, 2019, pp.53-58.

鄭土有, 「都市民間文學的新業態——關於“上海故事匯”」, 『民族藝術』 第2期, 2019, pp.25-31.

羅治佳, 「民間文學視野下城市新民謠」, 青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8.

21) 徐忱卓, 「新冠肺炎疫情期間公益宣傳片的民間創作現象分析」, 『新聞文化建設』 第10期, 2022, pp.21-22.

王琳, 「新冠肺炎疫情的民間文學新書寫」, 『西華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期, 2021, pp.70-74.

王天舒, 「神醫敘事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碩士學位論文, 2021.

들의 보권)을 연구하는 바가 있다.²²⁾ 이 보권은 『하서보권』(河西寶卷)를 비롯한 전통적인 민간문학 작품의 특징을 살려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 즉, 이 텍스트는 민간적이고 전통적인 예술 방식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생명이 최우선이며, 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단합해야 한다. 의사 선생님은 생사를 불구하고 환자를 구하며, 우리는 과학적인 접근법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같은 운명을 공유하며 역병의 신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²³⁾ 이러한 민간문학 텍스트는 기존의 민간문학을 활용해서 형식과 내용을 변형하면서, 코로나와의 싸움과 관련하여 인민과 국가 간의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요컨대 민간문학은 새로운 시대에서도 당대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는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다른 학문 분야도 새로운 기술과 연구방법을 통해서 민간문학 연구에 새로운 접근법과 시각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민속 문학 텍스트에 대한 데이터를 구성, 수집 및 개발한 연구²⁴⁾가 있는가 하면, NER 기술을 활용하여 민속문학 텍스트의 핵심 단어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정보 검색, 텍스트 자동 요약, 질문 답변 등 다양한 자연 언어 처리 작업에서 민속문학 보존 및 보급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연구도 있다.²⁵⁾ 현대 사회에서 민간문학의 재생산과 재활용, 민간문학 자원이 변용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 현상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²⁶⁾

22) 崔若男, 「疫情時代的民間文學」, 『中國社會科學報』, 2022, p.6.

23) 원문: 生命至上是根本, 舉國同心渡時艱, 舍生忘死醫者誌, 尊重科學路徑明, 命運與共同生, 力斬瘟神奏凱旋. 崔若男, 위의 글.

24) 陶慧丹·段亮·王笏輝·嶽昆, 「基於BERT的民間文學文本預訓練模型」, 『計算機技術與發展』第11期, 2022, pp.164-170.

25) 黃健鈺·王笏輝·段亮·冉苒, 「民間文學文本命名實體識別方法」, 『軟件導刊』第10期, 2023, pp.65-72.

26) 徐金龍, 「跨媒介敘事: 民間故事資源的轉化策略」, 『華中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5期, 2022, pp.23-31.

(4) 민간문학의 ‘중국성’

최근 중국의 민간문학 연구는 중국 기존의 민간문학이 지닌 고유한 담론과 표현에 대해 재조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채풍(采風)’이나 ‘풍속(風俗)’과 같은 중국 본토의 특색을 반영하는 다양한 담론들이 되돌아보며, 중국과 서양 간의 문화적 교류에서 보이는 상호작용과 차이점이 민간문학 연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는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²⁷⁾

근대 중국 민간문학이 활발해진 배경에는 서양 학문의 도입이 큰 역할을 했지만, 사실상 오랜 시간 전부터 민간문학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노력들이 존재했다. 민간문학이 번성하기 시작한 시기를 되돌아보면, 중국 민간문학이 그 시작부터 중국의 전통적인 학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민간문학 연구는 중국 문화의 깊은 층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이 중국 민간문학의 지식 생성에 있어 중요한 문화적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강조해 왔다.²⁸⁾

4. 『중국민간문학대계』 출판사업의 의미

민간문학의 기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민간문학 연구에 있

- 27) 祝鵬程, 「作為社會主義文藝生產機製的采風」, 『文學評論』 第5期, 2022, pp.108-116.
 祝鵬程, 「采風：一種文明生成方式的古今流變」, 『民俗研究』 第5期, 2022, pp.17-28.
 毛巧暉, 「記錄與保管：民間文學類非物質文化遺產保護探蹟」,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期, 2022, pp.82-90.
 毛巧暉, 「采風與搜集的交融與變奏：以新中國初期「忠實記錄、慎重整理」討論為中心」, 『民俗研究』 第5期, 2022, pp.5-16.
- 28) 劉錫誠, 「關於中國特色的民間文藝學」, 『貴州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期, 2019, pp.97-112.
 劉錫誠, 「21世紀：民間文學研究的當代使命——關於中國特色的民間文藝學」, 『民間文化論壇』 第1期, 2013, pp.25-32.
 李小玲, 「反本溯源：對中國民間文學概念及理論的反思」, 『探索與爭鳴』 第10期, 2017, pp.155-159.
 秦選涵, 「論中國民間文學學科的審美理想與實踐邏輯」, 『貴州社會科學』 第7期, 2023, pp.57-63.

어서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은 민간문학의 다양한 요소와 측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또한, 이렇게 정리된 자료들은 민간문학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더욱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민간문학의 수집, 정리, 연구에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980년대 중반, 중국 문화부, 국가 민족 위원회, 중국 민간 문예가 협회가 공동으로 ‘중국민간문학삼대집성’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중국 전 지역의 민간문학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009년에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 민담 집성』, 『중국 민요 집성』, 『중국 속담 집성』 총 3개 시리즈가 각각 90권으로 완성되어 출판되었다. 그러나 편찬 과정에서 수집된 많은 텍스트 대다수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단지 일부만이 출판되었을 뿐이다. 더불어, 민간, 민요, 각 민족의 영웅 사시 같은 중요한 부분들도 빠져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문학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여준다.²⁹⁾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민간문학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국 민간문학 연구를 발전시키는 기초 작업으로서, 2018년에 『중국민간문학대계』³⁰⁾ 출판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되었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 전승 발전’ 사업 중 하나의 구성부분으로 선정되었다. 『대계』는 중국문학예술계 연합회와 중국민간문예가협회에 의해 추진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이성적인 태도로 민간의 구전 문학 작품과 이론적인 분야의 원작 문헌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대계』 문고를 편찬하여 출판하고, 중국의 구전 문학 유산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며, 중국 민간문학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사회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자 한다.

『대계』의 출판사업을 이끌고 있는 중국민간문예가협회의 잡지에서는 『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29) 중국작가망(中國作家網) 보도

<http://www.chinawriter.com.cn/n1/2017/0224/c403994-2910431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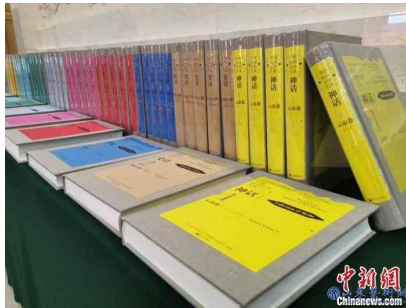
30) 편의상 『중국민간문학대계』는 이하 『대계』로 명한다.

이 출판 사업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19차 당 대회의 정신을 심도있게 수행한다.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장려하고 우수한 민속 문화의 발전과 지식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임무이다. 그리고 일반 대중, 젊은 세대, 중국 민속 문화 애호가를 대상으로 삼았다. 위대한 민족과 위대한 시대에 걸맞은 뛰어난 민속 문학 작품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여 출판하겠다. 민간문학의 본질을 추출하고 군더더기를 제거하여 자원을 활성화하고 현 세대에 봉사한다.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³¹⁾

이렇게 보면 『대계』 사업의 목표는 민간문학을 활용하여 대중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이 사업은 민간문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로서 민간문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이념과 중국의 독특한 문화적 색채를 결합하여, 더 폭넓은 대중에게 중국의 민간문학을 알리고 이해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민간문학은 중국 이데올로기적 고양과 문화적 정체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계』의 구성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제1호 출판에 관한 기사에 따르면, 『대계』는 중국의 각 성과 시, 자치구 등 행정 구역별로 구성되며, 민간문학 작품과 연구 결과를 장르별로 분류하여 수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계는 신화, 사시, 전설, 민담, 민요, 가요, 장시(長詩), 민간소극, 속담, 민간문학 이론, 12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000권을 출판할 계획이다. 이렇게 볼 때, 『대계』는 중국 역사상의 민간문학을 기록한 데 있어서 내용, 장르, 형식이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문헌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대계』는 민간문학의 현장조사의 성과와 현대적 연구 수준을 충분히 보여준다. 현재로서 『대계』는 중국의 민간문학 연구자들이 학습하고,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귀중한 자료집은 민간문학의 깊이와 풍부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중국 문화와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대계』를 바탕으로 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민간문학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31) 「中國民間文學大系出版工程」, 『民藝』第5期, 2022, p.161.



〈그림 3〉 2019년 『중국민간문학대계』 시범
출판 시리즈

사실 중국에서 민간문학 수집 및 정리 작업을 ‘사업화’하는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2000년대 중반, 중국 정부는 ‘무형문화재 보호 사업’을 시작으로 민간문학에 대한 정리와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2003년 초, 중국 문화부는 중국 민간문화 보호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무형문화재 조사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민간문학 명단과 전승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민간문학 분야의 보호 작업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 발표된 4차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작품 중, 민간문학은 155개 항목을 차지했고, 민간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전승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77명이었다.³²⁾ 또한, 중국 민간문예가협회가 주최하는 ‘민간문화유산구조(救助)’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중국 민담 전서』와 같은 대형 시리즈를 편찬 및 출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민간문학에 대한 보호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앞에 살펴본 ‘무형문화재 보호 사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대계』의 편찬 사업과 위에 언급한 ‘무형문화재 보호 사업’이나 ‘민간문화유산구조’ 사업은 모두 중국의 민간문학을 보존하고 분석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료집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 목적과 의의 등 측면에서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대계』는 중국 민간문학의 광범위한 텍

32) 李榮啟, 「論民間文學類非物質文化遺產的保護」, 『藝術百家』 第1期, 2018, pp.215-221.

스트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 작업은 특히 문학적 가치와 예술적 형식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 민간문학의 독특성과 그 발전을 철저히 조명한다. 그 결과, 이것은 중국 민간문학의 깊이 있는 연구와 이해에 필수적인 자료가 되었다. 반면에, 『중국 민담 전서』 같은 시리즈는 무형문화재보호사업의 일환으로 편찬된 작업이다. 이는 중국 민간문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전통 문화의 다양성과 부유함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전자는 중국 민간문학의 연구와 이해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방식을 보여주며, 후자는 중국의 다양한 지역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노력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작업 모두 중국 민간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민간문학대계』와 『한국구비문학대계』를 비교했을 때 편찬의 배경 및 의도, 그리고 구성방식에 큰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구비문학대계』가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고, 쉽게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고 학문적 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인문학의 중요한 시사점과 연결된다. 디지털 인문학은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 방법론에 정보기술을 결합한 학문 분야로,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인문학적 연구를 심화하고 확장한다. 온라인으로 『한국구비문학대계』를 접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복잡한 데이터 분석, 시각화, 텍스트 검색, 특정 주제에 대한 양적 및 질적 분석 등 다양한 디지털 연구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전통적인 민간문학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며, 민간문학 연구의 방법론을 현대화하고,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온라인 접근성은 연구의 가능성을 더욱 넓혀주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향후 중국 『중국민간문학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5. 나가며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중국 민간문학 연구의 현재 상황과 직면한 도전에 대해 이해하였다. 중국의 민간문학 연구는 많은 이슈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한 예로, 『중국민간문학대계』의 출판이 있다. 이는 민간문학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재조명하는 한편, 동시에 그 학문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대계』는 중국의 풍부한 민간 이야기와 전설, 노래 등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민간문학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민간문학 연구가 그 독특한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한편, 한중 민간문학 연구의 협력은 두 국가의 문학과 문화 이해를 깊게 하고, 문학 연구의 방향을 공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로, 『중국민간문학대계』 출판 사업은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연구자들이 중국 민간문학 텍스트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민간문학을 서로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양국 간 학술적 교류의 확장을 촉진한다. 둘째로, 한중 양국의 민간문학 연구자들 간의 협력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화적 공동체의 미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각각의 문화적 특색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지역적인 문화적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문학에 대한 연구는 국경을 초월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들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민간문학 연구가 전통적 경계를 넘어서며 더욱 다양하고 포괄적인 시각을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들은 한중 민간문학, 또는 구비문학 연구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鐘敬文, 『民間文學概論』, 上海文藝出版社, 1980.

2. 논문

조현철, 「중국 민간문학 연구의 현단계」, 『구비문학연구』 제15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2, pp.165-185.

「中國民間文學大系出版工程」, 『民藝』 第5期, 2022, p.161.

何其芳, 「少數民族文學史編寫中的問題文學評論」, 『文學評論』 第5期, 1961, pp.66-87.

劉亞娟, 「中國共產黨文藝思想與少數民族文學理論研究史概觀」, 『民族文學研究』 第39期, 2021, pp.15-24.

劉潔絮, 「民間文學的當代傳承特征分析」, 『廣東蠶業』 第4期, 2019, pp.132-134.

劉蕊, 「試論敦煌變文的文學性」,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陳泳超, 「倡立民間文學的“文本學”」, 『民族文學研究』 第5期, 2013, pp.115-127.

劉錫誠, 「21世紀:民間文學研究的當代使命——關於中國特色的民間文藝學」, 『民間文化論壇』 第1期, 2013, pp.25-32.

——, 「關於中國特色的民間文藝學」, 『貴州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期, 2019, pp.97-112.

崔若男, 「疫情時代的民間文學」, 『中國社會科學報』, 2022, p.6.

巴莫曲布嫻, 「走向新時代的中國少數民族民間文學(上)——從事實清理到學科建設(1995~2019年)」, 『中外文化交流』 第5期, 2022, pp.89-96.

——, 「走向新時代的中國少數民族民間文學(上)——從事實清理到學科建設(1995~2019年)」, 『中外文化交流』 第6期, 2022, pp.83-88.

張景忠·리화, 「민족민간문학과 민속」, 『비교민속학』 제15집, 비교민속학회, 1998, pp.483-492.

徐忱卓, 「新冠肺炎疫情期間公益宣傳片的民間創作現象分析」, 『新聞文化建設』 第10期, 2022, pp.21-22.

徐金龍, 「跨媒介敘事:民間故事資源的轉化策略」, 『華中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5期, 2022, pp.23-31.

戶曉輝, 「民間文學:轉向文本實踐的研究」, 『中國社會科學』 第8期, 2014, pp.167-182.

朱佳藝·劉宗迪, 「是“危機”也是“契機”——《超越文本,回歸文學——對民間文學研究中實證主義傾向的反思》問答、評議與討論」, 『民族藝術』 第2期, 2016, pp.133-138.

李國太, 「“回歸”文本:民歌研究的一種路徑——從通江民間文學三套集成整理再版引出

- 的話題」,『大西南文學論壇』,2022, pp.11-28.
- 李小玲,「反本溯源:對中國民間文學概念及理論的反思」,『探索與爭鳴』第10期,2017, pp.155-159.
- 李榮啟,「論民間文學類非物質文化遺產的保護」,『藝術百家』第1期,2018, pp.215-221.
- 楊傑宏,「跨界與融合:中國少數民族民間文學2022年度研究報告」,『貴州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4期,2023, pp.130-147.
- 楊金戈,「中國少數民族民間文學發展思考——以鄂倫春族民間文學為例」,『黑龍江民族叢刊』第4期,2022, pp.130-137.
- 樊義紅,「文學的民族認同特性及其文學性生成」,南開大學博士學位論文,2012.
- 毛巧暉,「2022民間文學研究:回歸文學及其當代價值的探求」,『中國文藝評論』第2期,2023, pp.51-62.
- ,「少數民族民間文藝研究與多民族文學格局的建構(1949—1966)」,『中外文化交流』第3期,2021, pp.23-30.
- ,「記錄與保管:民間文學類非物質文化遺產保護探蹟」,『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3期,2022, pp.82-90.
- ,「采風與搜集的交融與變奏:以新中國初期「忠實記錄、慎重整理」討論為中心」,『民俗研究』第5期,2022, pp.5-16.
- 王天舒,「神醫敘事研究」,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碩士學位論文,2021.
- 王娟,「當代民眾生活中的民間文學——兼談民間文學與作家文學的關係」,『民俗研究』第2期,2016, pp.90-98.
- 王曉琳,「信息化時代民間文學的當代重構」,『新紀實』第34期,2021, pp.25-28.
- 王欣,郝蘇民,「由文學到文化:民間文學本體反思」,『西北民族研究』第3期,2015, pp.113-122.
- 王琳,「新冠肺炎疫情的民間文學新書寫」,『西華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期,2021, pp.70-74.
- 王軒,「破繭化蝶歷滄桑——簡述20世紀以來中國民間文學概念的發展歷程」,『文化產業』第9期,2022, pp.78-80.
- 祝鵬程,「作為社會主義文藝生產機制的采風」,『文學評論』第5期,2022, pp.108-116.
- ,「采風:一種文明生成方式的古今流變」,『民俗研究』第5期,2022, pp.17-28.
- 秦選涵,「論中國民間文學學科的審美理想與實踐邏輯」,『貴州社會科學』第7期,2023, pp.57-63.
- 羅治佳,「民間文學視野下城市新民謠」,青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18.
- 萬建中,「“民間文學誌”概念的提出及其學術意義」,『雲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47期,2015, pp.28-35.
- ,「從文學文本到文學生活:現代民間文學學術轉嚮」,『西北民族研究』第4期,

2018, pp.134-141.

葉濤, 「新時期中國民俗學論綱」, 『江蘇社會科學』 第3期, 2000, pp.58-66.

蘇培, 「民間文學中的中華民族共同性——以黑龍江世居少數民族民間文學為例」, 『黑龍江民族叢刊』 第1期, 2023, pp.23-28.

鄭土有, 「都市民間文學的新業態——關於“上海故事匯”」, 『民族藝術』 第2期, 2019, pp.25-31.

鍾敬文·張振犁·金曉民, 「민간문학의 흥성과 발전」,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6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5 pp.369-399.

陶慧丹·段亮·王笏輝·崑崙, 「基於BERT的民間文學文本預訓練模型」, 『計算機技術與發展』 第11期, 2022, pp.164-170.

高有鵬·劉璨, 「民間文學的文學性問題——劉錫誠《民間文藝學的詩學傳統》的理論特色」, 『西北民族研究』 第4期, 2018, pp.156-161.

高艷芳, 「網絡民間文學：民間文學的當代繼承與發展」, 『雲南社會科學』 第4期, 2019, pp.172-177.

高誌明, 「民間文學當代傳承的特征」, 『大理大學學報』 第2期, 2019, pp.53-58.

黃健鈺·王笏輝·段亮·冉苒, 「民間文學文本命名實體識別方法」, 『軟件導刊』 第10期, 2023, pp.65-72.

黃永林, 「中國民間文學、民俗學學科歸屬及地位的歷史與現狀」, 『華中師範大學學報』 第52期, 2013, pp.100-106.

3. 인터넷 자료

중국 당건망(黨建網) 보도

<https://baijiahao.baidu.com/s?id=1781412282449382711&wfr=spider&for=pc>

중국작가망(中國作家網) 보도

<http://www.chinawriter.com.cn/n1/2017/0224/c403994-29104311.html>

논문 접수 일	2023년 11월 09일
심사 완료 일	2023년 11월 27일
게재 확정 일	2023년 12월 08일

Abstract

The Identity and New Trends of Chinese Folk Literature Research

Ni, Sen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modern status and progress of folk literature research in China and review key issues that have been attracting attention in Chinese folk literature research over the past 10 years. Historically, the academic field of Chinese folk literature has continuously changed its affiliation and status within the national academic system. While these institutional changes provided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in the field of folk literature, they also brought crises to the very existence of this field on several occasions. Even in the 21st century, the problem of academic classification continues to be a limiting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folk literature.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field of folk literature is mainly covered in a limited number of academic journals and that the content is limited to somewhat specific topics suggests tha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is field may be relatively limited compared to other academic fields.

Looking at folk literature research conducted in China since the 2010s, the main interests and discussion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four aspects. (1) In recent years, the trend of 'return to its literary nature' and text research have emerged again in China's folk literature. (2) Recent studies point out that folk literature among various ethnic groups in China also contains rich 'commonality of the Chinese people' amidst this diversity. (3) Studies explore various forms and methods, such as new folk literature created on the Internet and folk literature passed down among urban residents. (4) Recently, many research has focused on precise analysis of the unique discourse and expressions of existing folk literature.

In 2018, the publication project of 『Chinese Folk Literature』 officially began, and it was selected as a component part of the 'Development of Chinese Excellent Traditional Culture Transmission' project. This project emphasizes the value and importance of folk literature and suggests ways to utilize folk literature as a tool to reflect China's culture and social values. Currently, 『Chinese Folk Literature』 has a firm position as an important reference material for Chinese folk literature researchers

to study, inherit and develop folk culture.

Keyword China, Folk Literature, 『Chinese Folk Literature』, Literature, Research
Review

청학서 만·한 대역에 보이는 음절 대칭과 비대칭

소뢰* · 임다영**

국문요약

청학서의 만·한 대역 자료를 분석하면 한국어와 만주어의 음운 체계 차이로 인해 두 언어의 음절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두 문자 사이에 이른바 ‘음절대칭’, 즉 피전사 대상인 만주 문자의 음절과 전사 문자인 한글의 음절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VS 음절과 Ci'yV, Cu'wV, Cio'wV 등의 3종의 음절 조합에 한하여 음절대칭에 어긋나는 ‘음절비대칭’ 현상이 보이는데, Cu'wV의 경우 음절비대칭과 음절대칭이 동시에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여진어 발음과 한글 전사 원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음절비대칭 현상에 관한 다음의 사실을 밝혔다. 첫째, 만문 VS 음절의 자형은 1음절을 적은 것이지만 그 실제 발음이 2음절에 가깝기 때문에, 이 음절을 전사할 때 2음절로 처리하였다. 둘째, Ci'yV와 Cio'wV는 2음절을 나타내지만 실제 발음이 반모음을 포함한 1음절에 해당하므로 1음절 한글로 처리하였다. 셋째, 청대 만주어의 Cu'wV 음절 조합이 [Cu'wV]와 [CwV]라는 두 개의 변이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글 전사 결과도 2음절 또는 1음절의 두 종류로 나타난다. 위의 고찰을 통해 여진어에서 청대 만주어를 거쳐 현대 만주어에 이르기까지 만주어의 음운 변화의 특징을 규명하고, 역사언어학 연구에서 한글 전사 자료가 가진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주제어 음절대칭, 음절비대칭, 청학서, 한글 전사, 여진어

〈목차〉

1. 서론
2. 청학서에 보이는 음절대칭
3. 청학서에 보이는 음절비대칭
4. 음절비대칭의 특수한 예
5. 결론

* 북경어언대학 국제중문교육실천및연구기지 조리연구원, 제1저자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교신저자.

1. 서론

조선시대 사역원에서 간행한 역학서는 각종 언어 및 문자 접촉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대한 보고이다. 이들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편찬·간행한 문헌으로서 매우 엄격한 규범성과 체계성을 띠고 있으므로 사역원 역학서는 일종의 번역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각종 역학서의 대역 자료를 살펴보면 한(漢)·몽(蒙)·만(淸)·일(倭)의 4종 문자를 한글로 전사할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음절대칭’이다. 본 연구에서의 ‘음절대칭’은 한 문자가 다른 문자를 전사할 때, 전사 문자 한 자(字)가 나타내는 음절의 수가 피전사 문자 한 자(字)가 나타내는 음절의 수와 동일하며, 전사 문자와 피전사 문자가 서로 일대일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두 문자가 나타내는 음절의 개수가 서로 다르거나, 그 수가 같더라도 서로 일대일 대응 관계에 놓이지 않은 경우를 ‘음절비대칭’이라고 한다.

청학서를 살펴보면 피전사 문자인 만문의 음절과 전사 문자인 한글의 음절이 일대일 대응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음절대칭은 청학서에 매우 규칙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한청문감(漢淸文鑑)》을 분석하면 500여 개의 음절 및 음절 조합이 있는데, 이 가운데 4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음절대칭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절비대칭 현상을 보이는 네 종류의 음절 및 이중음절 조합은 다시 두 부류로 나뉘는데, VS는 만문 1음절에 한글 2음절이 대응하는 예외이고, Ci'yV와 Cu'wV(Cu'wV 포함) 및 Cio'wV는 만문 2음절에 한글 1음절이 대응하는 예외이다.

이렇듯 ‘음절비대칭’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小兒論》, 《八歲兒》, 《三譯總解》, 《淸語老乞大》, 《同文類解》, 《漢淸文鑑》¹⁾ 등 현전하는 6종의 청학서를 고찰 대상으로 삼아, 이른바 음절비대칭의 원인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만주어와 만문의 음

1) 《淸語老乞大》(駒澤大學, 濯足文庫 소장)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규장각 소장본을 이용했다.

절 인식이 일치하는지 조사하고, 나아가 Vʃ, Ci'yV, Cu'wV(Cü'wV 포함), Cio'wV의 실제 발음을 살펴본 뒤, 여진 문자 자료와의 대비 분석을 통해 Cu'wV 음절 조합에 다양한 변이음이 존재하는 심층적인 원인을 해명하고자 한다.

2. 청학서에 보이는 음절대칭

1) 음절 구분과 음절대칭

고대 그리스인들은 음절을 한 개의 모음, 또는 하나의 모음과 하나 이상의 자음이 뭉쳐져 이루어진 음성 단위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요점만을 간추린 설명이다. 즉 모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음절 구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언어는 말(語)과 글(文), 즉 음성 체계와 문자 체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자는 음성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대개 음성과 문자는 대응 관계에 놓여 있다. 중국어(漢語),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의 문자와 음절의 대응 관계를 차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자는 표의문자이고 하나의 자절(字節)이 한 음절을 나타낸다. 만문(滿文)과 몽문(蒙文)은 음소표음문자이고 하나의 어절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음절에 대응한다. 일본 문자는 음절표음문자이며 한 개의 가나(假名)가 한 음절에 대응한다. 일본어의 요음(拗音)과 축음(促音)은 자절 반 개에 해당하는데, 단독으로는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앞에 오는 자절에 붙어서 한 음절을 이룬다. 한글은 음소표음문자인데, 초성, 중성, 종성의 각 자모가 합쳐져 한 자(字)가 되고, 하나 이상의 자가 모여 한 단어가 된다. 여기서 한 자(字)는 한 음절을 나타낸다. 즉,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음절에 대한 이해 및 음절 구분에 대한 인식이 각각의 문자 기록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언어는 서로 다른 음성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절 구분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C_1VC_2 의 구조를 가진 음절을 다수의 언어에서는 한 음절로 간주하는데, 서양의 여러 언어와 만주어 몽골어 한국어 등이 모두 그렇다. 그러나 중국어와 일본어는 C_2 의 종류에 따라 C_1VC_2 음절을 한 음절로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²⁾ 또 다른 예로 $C_1C_2VC_3C_4$ 형은 서양

언어에서는 비교적 흔히 볼 수 있으며, 한 음절로 인식되는 음절 구조이지만 중국어,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 한국어 등의 동아시아 언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조이다. $C_1C_2VC_3C_4$ 가 만주어와 몽골어에서는 $C_1VC_2VC_3C_4$ 의 2음절이 되고, 중국어와 일본어에서는 $C_1VC_2VC_3VC_4V$ 의 4음절로 바뀌며, 한국어에서는 위의 두 가지 음절 구조 외에 $C_1VC_2VC_3VC_4$ 와 같이 변하기도 한다.

복모음에 대한 인식도 음절 구분 차이의 주요한 지표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어에서는 [əu]나 [iu]와 같은 V와 u의 조합을 한 음절로 인식하며, 이들을 V_u 계 이중모음으로 분류한다. 몽골어와 만주어도 마찬가지로 한 음절로 인식하는데, V_w 계의 이중모음으로 간주한다. 이와는 달리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V_u 를 V와 u의 두 음절로 받아들인다. 또 다른 예로 [ai]나 [əi] 등의 V와 i의 모음 조합을 중국어에서는 한 음절로 간주하며, V_i 계 이중모음으로 분류한다. 몽골어, 만주어, 근대 한국어에서는 이 조합을 한 음절로 인식하지만 V_j 계 이중모음으로 본다.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V와 i의 두 음절로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ia]와 [io] 등의 i와 V의 조합을 중국어에서는 한 개의 음절인 iV 계 이중모음으로 인식한다.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도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한 음절, jV 계 이중모음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몽골어와 만주어의 표기법에서는 i와 V의 조합을 한 어절이면서 2음절인 $-i'jV^3$ 로 쓴다.

음절을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는 다른 언어의 음절을 구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중국어 모음 중 $-o/-u$ 계 이중모음에 속하는 [ao], [əu], [iu] 등을 한 음절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이들을 두 개의 음절로 간주한다. 한국어 모음 체계에는 $-o/-u$ 계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 모어 화자는 중국어를 전사할 때, [ao], [əu], [iu] 등을 ‘아오, 어우, 이우’처럼 적는다. 그러나 사역원 간행 한학서에서는 한자와 한글 간의 대응 관계 및 두 언어의 음절 간 대응 관계를 지키기 위해 ㄱ, ㅋ, ㆁ 등과 같은 자모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아래 <표 1>의 ①에서 구체

2) 구체적으로는 C_2 가 [n] 또는 [ŋ]일 경우, 한 음절로 간주하지만 C_2 가 장애음(파열음, 마찰음)이라면 C_2 에 모음([ə], [i] 등)을 추가하여 두 음절로 읽는다.

3) '는 어절 내의 음절 구분 기호를 나타낸다.

적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사역원 역학서에 보이는 음절대칭의 예

분류	표기대상	역학서 표기	역학서 출처	기타표기	기타표기 출처
① 漢學	少[ɣao]	샬/쇼	老乞大諺解	사오	外來語標記法(1986)
	買[mai]	매/매		마이	中國語第一輯(1940)
② 蒙學	deguu	더구	蒙語類解	더구우	方言類釋(1778)
③ 倭學	申 ^{もウ} (mo'u)	무	捷解新語	모오	外來語表記法統一案(1941)
④ 淸學	moo	모	淸語老乞大	모오	方言類釋(1778)

몽학서의 예를 살펴보자. 몽골어에도 중국어와 유사한 ‘ao, eu, oo, uu’ 등의 -o/-u계 이중모음이 있다. 이 모음들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오, 어우, 오오, 우우’와 같이 2개의 음절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몽학서에서는 -o/-u계 이중모음을 ‘고, 구, 𑖘, 𑖙’로 적어, 마치 한 음절처럼 표기했다. 〈표 1〉의 ②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놓았다. 다음으로 일한 대음의 예를 살펴보자. 일본어의 장음 ‘おう, うう’는 두 개 자절이지만, [o:], [u:]처럼 읽고 한 개의 음절로 간주한다. 지금은 일본어의 장음을 ‘오우, 우우’로 쓰기도 하지만 왜학서에서는 -o/-u계 이중모음을 ‘𑖘, 𑖙’로 표기해 놓았다.⁴⁾ 마지막으로 청학서에서는 만주어의 o계 이중모음, 즉 ‘ao, eo, io, oo’ 등을 ‘고, 고, 고, 𑖘’와 같이 단음절로 표기했다. 〈표 1〉의 ④에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놓았다.

한국어의 음절 구분 방식은 중국어,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의 그것과 달랐으나, 역학서 간행에 관여했던 인물들은 각 언어가 가진 음절 구분 방식의 특징을 고려한 ‘음절대칭’ 대역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역학서만의 독특한 한글 전사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한글은 자유자재로 변환하여 쓸 수 있는 문자이다. 역학서의 한글 자모 활용 방식은 이러한 한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 음성 체계에 없는 음소를 표기할 때, 한글 자모를 개조하거나 새로

4) 〈표 1〉의 ③을 참고할 것.

만들어서 해당 음을 나타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⁵⁾ 한국어에 없는 음절 구조를 표기할 때, 철자법을 바꾸어 외국어 음성 체계에만 존재하는 음절을 나타내기도 한다.⁶⁾ 이러한 한글의 가변성은 다른 문자를 전사할 때, 음절대칭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만주어와 국어의 음성체계 비교와 문자 대역

만문의 자형을 기준으로 할 때, 만주어의 모음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가 기본모음으로, 만문 자모 음절표인 <십이자두(十二字頭)> 중 ‘제1자두(第一字頭)’에 실려 있는 여섯 개의 단모음, 즉 ‘a, e, i, o, u, ü’이다. 둘째는 중국어 및 기타 차용어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외자(外字)’⁷⁾에 포함된 세 개의 모음, 즉 y[ɥ], y[ɥ], ioi[y]이다. 셋째는 하강이중모음이다. ‘제2자두(第二字頭)’에 들어가 있는 ‘ai, ei, ii, oi, ui, üi’ 등의 -y계 이중모음과 ‘제10자두(第十字頭)’에 실려 있는 ‘ao, eo, io, oo, uo, üo’ 등의 -w계 이중모음⁸⁾ 여기에 속한다. 넷째는 《清文啓蒙》에서 ‘절운(切韻)’으로 분류되는 상승이중모음으로, 두 개의 자절(字節)이 모여 이루어진 ‘ya, wa, iowa’ 등 합성자이다. ‘Ci’yV, Cu’wV, Cio’wV’ 등의 세 종류의 음절 구조를 포함하며, 이들은 각각 y-, w-, u-계 상승이중모음을 가리킨다. 음성체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만주어에는 단모음 8개 (외자 y[ɥ], y[ɥ] 포함), -y계 이중모음 7개 (장음 합성자 ooi 포함), -w계 이중모음 4개 (용례가 없는 uo와 üo 제외), y-계 이중모음 9개 (삼중모음 yai, yei, yao 포함), w-계 이중모음 4개 (삼중모음 wai, wei 포함), u-계 이중모음 5개 (삼중모음 iowai, iowei와 다음자 ioi⁹⁾ [ui]/[y] 포함) 등 총 37개의 모음이

5) 상기 <표 1>의 ①에서 ‘ㅅ’의 오른쪽을 길게 늘인 ‘ㅅ’으로 중국어의 정치음을 표기한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6) <표 1>의 ①②③④의 예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7) 《國朝耆獻類征·達海傳》에는 ‘국서와 한자의 대응(對音)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십이자두에 포함시키지 않고, 외자(外字)에 더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8) 여섯 개 모음 가운데 uo와 üo는 실제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청학서에도 이에 대응하는 한글 표기가 보이지 않는다.

9) 일반적으로 만문 ioi는 한자어에 나타나는 단모음 [y]를 표기하기 위해 만든 외자로 간주

존재한다.

〈표 2〉 만주어와 국어의 모음체계 비교와 문자 대역

	단 모 음								w-계 이중모음					
만문	a		e		i	o	u	ū	y[ɿ]	y[ɨ]	wa	we	wai	wei
국문	ㅏ	ㅓ	ㅕ	ㅗ	ㅛ	ㅜ					ㅘ	ㅙ	ㅚ	ㅜ
한글전사	ㅏ		ㅓ/ㅕ		ㅗ	ㅛ/ㅜ	ㅜ	ㅣ/ㅟ	ㅡ		ㅘ/ㅘ/ㅘ와	ㅙ	ㅚ/ㅚ	ㅜ
	-y계 이중모음								-w계 이중모음					
만문	ai		ei		ii	oi	ui	ūi	ooi	ao	eo	io	oo	
국문	ㅘ	ㅙ	ㅚ	ㅛ		ㅜ	ㅜ							
한글전사	ㅘ		ㅚ/ㅛ		ㅣ/ㅣ	ㅜ	ㅜ/ㅜ	ㅜ	ㅜ	ㅘ/ㅘ	ㅙ/ㅙ/ㅙ/ㅙ	ㅚ/ㅚ	ㅜ	
	y-계 이중모음								ɥ-계 이중모음					
만문	ya	ye	yo	yu	yū	yai	yei	yao	yoo	iowa	iowe	iowai	iowei	ioi
국문	ㅙ	ㅚ	ㅛ	ㅜ		ㅜ	ㅜ			ㅘ	ㅙ	ㅚ	ㅜ	ㅜ
한글전사	ㅙ	ㅚ	ㅛ	ㅜ		ㅜ	ㅜ	ㅛ	ㅜ	ㅘ/ㅘ	ㅙ	ㅚ	ㅜ	ㅜ/ㅜ/ㅜ

근대국어와 만주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즉, 만주어의 ū 및 이 모음에서 파생된 이중모음, -w계 이중모음, 그리고 외자 y[ɿ], y[ɨ], ioi[y] 등과 같은 모음이 근대국어의 모음¹⁰⁾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주어의 양성후음 g⁺[q], k⁺[qʰ], h⁺[χ], 순치음 f, 권설음 š, j, c, ž, 접근음 l 등과 같은 자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만주어에는 한국어의 된소리에 해당하는 음이 없다. 이렇듯 두 언어의 음성체계는 매우 다르지만, 〈표 2〉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학서의 한글 전사 표기에서는 만주어와 우리말이 거의 대부분 일대일 대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된다. 그러나 ioi의 실제 용례를 보면 hionghioi와 같은 만주어 고유어에 쓰이기도 하며, 그 발음은 이중모음 [ɥi]에 더 가깝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oi를 ɥ-계 이중모음으로 분류한다.

10) 전광현(1997)를 참조.

〈표 3〉 만주어와 국어의 자음체계 비교와 문자 대역

		자 음												
만문		g ⁺	ḡ/g'	k ⁺	k̄/k'	h ⁺	h̄/h'	d	t	n	b	p	f	m
국문			ㄱ		ㅋ		ㅎ	ㄷ	ㅌ	ㄴ	ㅂ	ㅍ		ㅁ
한글전사		ㄱ	ㄱ/ᄀ	ㅋ	ㅋ/ᄂ	ㅎ	ㅎ/ᄃ	ㄷ	ㅌ	ㄴ	ㅂ	ㅍ	ㅍ/ᄄ	ㅁ
만문		s	ᄃ	j	c	dz	ts	ʒ	r	l				
국문		ㅅ				ㅈ	ㅊ		ㄹ		ㅅ	ㅆ	ㅈ	ㅊ
한글전사		ㅅ/ㅅᄀ	ㅅ	지/지ᄀ	치/치ᄀ	ㅈ	ㅊ	ㄹ	ㄹ	ㄹ/ᄅ				
		받 침												
만문		n	ŋ	m	l	r	k	t	b	s	ʃ			
국문		ㄴ	ㅇ	ㅁ	ㄹ		ㄱ	ㄷ	ㅂ	ㅅ				
한글전사		ㄴ	ㅇ	ㅁ	ㄹ	ㄹ/ᄆ	ㄱ/ᄇ	ㄷ	ㅂ	ㅅ	ㅅᄀ/ㅅᄁ			

각종 청학서는 거의 대부분 엄격하고 정돈된 음절대칭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상기 〈표 2〉의 내용 중 앞의 세 유형, 즉 단모음, 외자, 하강이중모음의 예들은 만문 모음과 한글 표기의 음절대칭 현상을 잘 보여준다. 즉, 만문과 한글이 한 자(字) 대 한 자(字), 한 음절 대 한 음절의 대응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표 2〉를 살펴보면 ‘e, u, y[ɥ], ioi[y], ei, ui, ao, eo, io’ 등에 대한 한글 표기가 두 개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청학서의 대역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e, ei, eo, io’ 등은 동일 문헌 속에서까지 복수의 중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는 상기 네 개 모음이 가진 여러 변이음을 구별해 적기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만문 e는 거의 대부분 ‘ㄷ’로 전사되었다. 그러나 ‘de’나 ‘se’를 포함하는 허사와 중국어 차용어의 모음 e는 ‘ㄷ’가 아닌 ‘ㅍ’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변이음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함이다.

‘e, ei, eo, io’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모음의 한글 표기가 복수로 나타나는 것은 문헌 유형에 따라 전사 규칙이 달랐기 때문이다. 즉 독서류 청학서에서 ‘u, ui, y[ɥ], ao, eo, io’ 등을 각각 ‘ㅍ, ㅍ, |, ㅍ, ㅍ, ㅍ’라고 표기한 것과 달리 사전류 청학서에서는 각각 ‘ㅍ, ㅍ, |, ㅍ, ㅍ, ㅍ’로 전사한 것이다. 이처럼 ‘e, u, y[ɥ], ioi[y], ei, ui, ao, eo, io’에 대한 한글 표기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는 않지만 만문 한 자절과 한글 한 자절이 나타내는 음절은 변함없이 일대일 대응 관계를 유지한다.

그 외에도 만문에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CVCC와 같은 구조의 음절도 존재한다. bokirshūn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漢清文鑑》에서는 이를 ‘보킵훈’이라고 전사했다. 이 역시 음절대칭의 전사 규칙을 지킨 예라고 할 수 있다.

만·한 대역 자료 중에는 음절대칭에 어긋나는, 즉 음절비대칭에 해당하는 예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주어에서 음절로 인정되지 않는 음절말 자음 -s를 한 음절처럼 나타낸 것, 만문의 두 자절에 해당하는 상승이중모음을 한 음절처럼 표기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청학서의 만·한 대역 자료 가운데 음절비대칭을 보이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우 뿐이다.

3. 청학서에 보이는 음절비대칭

1) Vs 유형에 대한 한글 표기

어떤 언어에서는 C_1VC_2 음절구조가 한 음절로 인식되는데,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와 만주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두 언어의 공통점은 이 뿐이 아니다. 한국어와 만주어의 자음 체계에서는 $ng[ŋ]$ 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이 모음 앞 자음, 즉 C_1 자리에 올 수 있는 반면, 모음 뒤 자음, 즉 C_2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은 한정되어 있다. 먼저 만주어를 살펴보자. 만문 음절표 〈십이자두〉에 따르면 제1자두(C_1V)와 제2자두(-y계 이중모음) 및 제10자두(-w계 이중모음)를 제외한 나머지 자두(字頭)에서 C_2 자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은 ‘-r, -n, -ng, -k, -s, -t, -b, -l, -m’ 등 전부 9개이다.

반면 한국어의 음절말에 올 수 있는 자음은 ‘-k, -ng, -t, -n, -p, -m, -s, -l’ 등 8개이다. 《訓民正音》〈制字解〉에 ‘終聲復用初聲’이라고 하였으며, 〈終聲解〉에 ‘(終聲)ㄱㅇㄴㄷㅂㅅㅈ八字可足用也’라고 해서 종성을 이 여덟 자로 규정한 바 있다. 만주어에서 -r과 -l을 구별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에서는 []과 [r]을 ㄹ[r] 하나로 쓰는 것을 제외하면, 두 언어의 음절말에 올 수 있는 자음은 일치한다. 청학서에서는 만문 ‘-k, -ng, -t, -n, -b, -m, -s, -l’이 한글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ㄹ'에 각각 대응한다. 예를 들어 ishunde라는 단어의 음절 구조는 VC₁'C₂VC₃'C₄V인데, 《三譯總解》에서는 이를 '잇훈더'로 전사했다.

〈표 4〉 청학서에 보이는 VS'šV 유형 만·한 대역 자료¹¹⁾

滿文例	三譯總解	清語老乞大	同文類解	漢清文鑒	漢清文鑒 釋義
① aš'ša-	아샤샤-	아샤샤-	아스°샤-	아°시샤-	動探 음즉이다
② faš'ša-	파샤샤-	파샤샤-	파스°샤-	파°시샤-	奮勉 발분히여 힘쓰다
③ hoš'šo-			호스°쇼-	호°시쇼-	哄誘 쫓오다
④ gū'waš'ša-				귀°시샤-	肉跳 슬 썰니다

그런데 만주어 중에는 VC 구조의 이례적인 음절도 존재한다. 이러한 음절은 만·한 대역 자료에서 음절대칭에 속하지 않는 예외, 즉 VS 유형에 속한다. 《清文啓蒙》〈滿洲外聯字〉에는 aššambi, hoššombi, gūwaššambi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한자로는 '阿詩沙嚙, 豁詩說嚙, 瓜詩沙嚙'라고 주음하고 있다. 즉, '詩'가 각 단어 첫 음절의 š에 대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을 예외로 보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만문에 -š를 포함하는 단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십이지두〉에 포함되지 않으며, '외련자(外連字)'로 간주된다. 둘째, -š는 VS'šV 구조로만 나타나며, -š가 다른 자음 앞에 출현하는 예는 없다. 셋째, -š 뒤에는 모음이 따라오지 않는데, 그 음은 모음 [ɿ]가 있는 것처럼 발음된다. 위에서 살펴본 한자 표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만·한 대역 자료 가운데 만문 1음절에 한글 2음절이 대응하는 유일한 예가 바로 -š에 대한 전사 표기이다. 위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三譯總解》나 《清語老乞大》 등의 독서류 청학서에서는 만문의 -š를 '샤'로 전사했고, 《同文類解》, 《漢清文鑒》과 같은 사전류 청학서에서는 권점을 더한 '스°, 시'로 표기했다. 이 세 종류의 한글 표기는 모두 하나의 독립된 음절이다. 즉 -š를 하나의 음절로 간주한 결과 VS가 2음절로 전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 〈표 4〉에서는 허사 어미를 제외한 동사의 어간만 보였다.

이렇듯 -ʃ를 단독 음절로 표기한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 자음 체계에 -ʃ가 존재하지 않아 이 음을 나타낼 만한 한글 자모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만주어 -ʃ를 하나의 음절로 인식했기 때문에 음절대칭이라는 전사 원칙을 무시하고 이를 단독 음절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글 창제 초기에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국어 권설음을 표기하기 위한 자모, 즉 정치음 ‘ㅅ’ 등을 만들어 썼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첫번째 가능성은 제거된다. 따라서 두번째 원인인 -ʃ가 단독 음절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 음을 한 음절로 표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ʃ의 음성적 특징과 관련하여 《漢淸文鑑》(8:6b)에 수록된 표제어 중 ‘肉跳술이 썰니다’의 예를 참고로 할 수 있다. 이 단어의 만문 표기는 *gūwaššambi* 인데, 주해에는 *gūwacihiyaššambi*를 동의어로 제시해 놓았다. 두 단어는 본래 한 어휘였는데, 음운 변화로 인해 두 개의 단어로 갈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두 단어를 분석하면 *gūwa-*와 *-ššambi*가 완전히 일치하고, 전자의 *-ʃ-*와 후자의 *-cihiya-*(또는 *-ci-man*)가 서로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른 시기에 음절말 자음 -ʃ는 완전한 하나의 음절을 이루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또한 여진문 문헌에는 직접 대응하는 어휘는 나와있지 않지만, *gu wašša-*와 관련이 있는 ‘犯邊’¹²⁾이 수록되어 있다. 이 여진어의 음을 한자로 표기하면 ‘哈沙下刺 者車 [*gaʃaɕiara ɕʂɔŋʌ*]¹³⁾이다. 여기서 者車는 ‘국경(또는 변방)’을 의미하고, 哈沙下刺는 동사 ‘침범하다’를 뜻한다. 그런데 동사의 어근 ‘哈沙下-’의 ‘哈’, ‘沙’, ‘下’는 지금의 만주어 *gūwašša-*의 *gūwa*, *š*, *ša-*와 각각 대응한다. 이 역시 ʃ의 음성적 특징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漢淸文鑑》과 여진문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만문에 보이는 음절말 자음 -ʃ는 여진어 시대에 한 음절을 이루고 있었으며, 음변화로 인해 점차 독립된 음절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으나, 구어에는 여전히 그 음성적 특징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형상 Vʃ는 1음절이지만, 발음의 측면

12) 金啓祿(1984:193).

13) 金光平이 재구한 여진어 발음으로, 金啓祿(1984:193)에 실려있다.

에서 보았을 때, 그 음절구조는 1,5개의 음절을 포함한다고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이중음절 조합 Ci'yV에 대한 한글 표기

《國朝耆獻類徵·達海傳》에 ‘국서와 한자의 대음(對音)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십이자두에 포함시키지 않고, 외자(外字)에 더한다. 만약 제대로 표기되지 못하는 음이 있으면, 두 글자를 이어 붙여서 절음(切音)한다. 절음은 한자 직접 대음보다 더 정확하다.’¹⁴⁾라고 설명해 놓았는데, 여기서 ‘제대로 표기되지 못하는 음(不能盡協者)’은 중국어 가운데 CGV(G=i, u, ü) 음절 구조를 가리키며, ‘두 글자를 이어 붙여서 절음한다.(兩字連寫切音)’는 것은 만문 중 Ci'yV, Cu'wV, Cio'wV와 같은 이중음절 조합을 말한다. 이 세 개의 이중음절 조합을 《淸文啓蒙》에서는 ‘절운청자(切韻淸字)’라고 부른다.

《淸文啓蒙》에서는 한자 주음법의 하나인 절운의 개념을 빌려서, 만문 이중음절 조합(Ci'yV, Cu'wV, Cio'wV)이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즉 만문의 기본 문자만으로는 중국어의 CGV 음절을 표기할 수 없지만, 두 음절을 합치는 방식을 이용하면 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음절 조합은 중국어 차용어 뿐 아니라 만주어 고유어를 표기할 때도 이용되었다. 사실상 소위 만문의 절운법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몽문(蒙文)이나 그 이전의 회골문(回鶻文)의 철자 방법을 계승한 것이다.

《淸文啓蒙·淸字切韻法》에서는 만문 이중음절 조합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인 Ci'yV의 예로 biye[繫]를¹⁵⁾ 들고 있다. 즉, bi[逼]가 상운이고 ye[噓]가 하운인데, ‘(緊聚合念bi[逼], ye[噓]二字, 即成biye[繫]字音聲) 이 두 자를 긴밀히 합쳐서 읽으면 biye[繫]의 음이 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tīyan[天]은 상운 ti[梯]와 하운 yan[烟]을 합쳐서 읽고, liyoo[寮]는 상운 li[哩]에 하운 yoo[么]를 더해

14) 以國書與漢字對音未全者, 於十二字頭正字外, 添加外字. 猶有不能盡協者, 則以兩字連寫切音, 其切音較漢字更爲精當.

15) 괄호 안의 한자는 《淸文啓蒙》에 수록된 만문 예자 오른쪽 옆에 붙어 있는 것이다. 비슷한 발음을 가진 한자를 이용해 만문을 주음한 것이다.

서 읽는다고 했다.

〈표 5〉 음절 조합 관련 만·한 대역 자료

滿文 例	小兒	八歲	三譯	清老	同文	漢清	漢清文鑒 釋義
①niyalma	날마	날마	날마	날마	날마	날마	人 사람
②giyang	강(江)	강(江)	강(江)	강(江)	강(江)	강(江)	(漢字語)
③gūwa- ^① kūwara- ^②	귀- ^①		귀- ^①	귀- ^①	귀라- ^②	귀- ^① 귀라- ^②	狗叫 개죽다 ^① 勾抹 에우치다 ^②
④guwan			관(關)		관(關)	관(關)	(漢字語)
⑤tuwakiya-			튀카-	튀카-	튀카-	튀카-	看守 직희다
⑥tuwa-	투와-	투와-	투와-	투와-	투와-	투와-	看 보다
⑦niowanggiyan	쌍간			쌍간	쌍간	쌍간	綠 초록
⑧Ciowan			환(玄)		환(緜)	환(象)	(漢字語)

Ci'yV 유형은 〈표 5〉의 ① niyalma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만주어 고유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음절 조합이다. 또한 중국어 차용어 가운데 giyang(江 [kiaŋ]) 등과 같이 개음 -i-를 포함한 음절을 표기하는 데에도 자주 쓰인다. 중국어 운모 [ia]는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kiaŋ]은 1음절이다. 그러나 만문에서 [kiaŋ]은 gi와 yang이 이어진 2음절로 표기된다. 즉, 만문 2음절이 중국어 1음절에 대응하는 음절비대칭이 현상이 나타난다.

여진문 문헌에 사람(人)을 뜻하는 여진어의 한자 주음은 ‘捏兒麻’로 나타난다.¹⁶⁾ ‘捏兒麻’의 세 글자는 현대 만문 niyalma(人)의 ‘niya, l, ma’에 각각 대응하는데, 이를 통해 여진어 시대에는 [ja]를 이중모음으로 이루어진 한 음절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만문의 Ci'yV 조합은 자형으로 보면 2음절이지만, 그 실제 발음은 [j-]계 이중모음이 포함된 1음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학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만문 자형을 피전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만문이 중국어 차용어의 본래 발음을 적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16) 金啓祿(1984: 207)

만·한 대역 자료를 살펴보면 만문 Ci'yV 조합을 2음절이 아닌 1음절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의 ①과 ②를 통해 만문 Ci'yV 조합의 모음을 y-계 하강이중모음을 나타내는 중성 'ㅑ'로 표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②의 《漢清文鑑》의 한글 표기이다. 《漢清文鑑》의 범례에는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다.

ㅑ類 나字即니야之二合切音, 讀如나字, 카가하做此.

《漢清文鑑》에서는 다른 역학서에서 사용된 한글 자모를 쓰지 않고, 원래 글자에 'ㅣ'를 첨가한 새로운 형태의 자모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 위의 범례의 설명을 참고로 하면 이 방식은 만문의 이합절음(이중음절 조합을 표기하기 위한 절운법), 즉 만문 -i'y-를 모방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청학서의 편찬자들이 만문의 Ci'yV 조합이 자형상으로는 2음절을 이루고 있지만, 그 실제 발음은 이중모음을 포함한 1음절이라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청학서가 음절대칭이라는 기본 방침을 무시하고 만문 2음절을 1음절로 표기한 이유는 만문 Ci'yV 조합이 자형상으로는 2음절일 뿐 실제로는 1음절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만문을 전사할 때, 자형상의 음절수보다 실제 발음의 음절구조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중음절 조합 Cu'wV에 대한 한글 표기

만문 이중음절 조합 Cu'wV와 관련하여 《清文啓蒙》〈清字切韻法〉에서는 šuwai(擗)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šu(書)가 상운이고 wai(歪)가 하운이며, 두 글자를 합쳐서 읽으면 šuwai(擗)의 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u와 발음이 유사한 ū도 같은 구조인데, ū 앞에는 후두 자음 즉, g, k, h만 올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¹⁷⁾ 《清文啓蒙》〈清字切韻法〉에서는 Cū'wV의 예로 hūwang(慌)을 들고 있는데, 이 단어의 상운과 하운은 각각 hū(乎)와 wang(汪)이다. Cu'wV

17) 즉, Cū'wV에서 C는 g, k, h만 올 수 있다.

(Cu'wV 포함) 음절 조합도 위에서 살펴본 Ci'yV와 마찬가지로 tuwakiya-와 같은 만주어 고유어 뿐 아니라 중국어 차용어 가운데 개음 -u-를 포함하는 음절을 적을 때도 쓰였다. 예를 들면 guwan(關[kuan]) 등이 있다. 중국어 운모 [ua]는 이중모음이므로 [kuan]은 1음절이다. 그러나 만문에서 [kuan]은 gu와 wan이 이어진 2음절로 전사된다. 즉, 여기서도 만문 2음절에 중국어 1음절이 대응되는 이른바 음절비대칭 현상이 관찰된다.

청학서의 한글 전사 표기를 살펴보면 Cu'wV 음절 조합은 ㄱ-계 하강이중모음에 대응한다.¹⁸⁾ 한국어 음성 체계에 존재하는 o/u-계 하강이중모음 및 그 음을 적는 자모는 ‘나, 내, 꺠, 꺡’ 등이 있다. 한글 철자법에서 [wa]나 [waj]와 같은 양성(陽聲) 이중모음의 활음은 비록 그 실제 발음이 [w]이지만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 ‘ㄱ’이 아닌 ‘ㄱ’으로 적어야 한다. 즉, *꺠라든가 *꺡와 같은 글자는 철자법에 어긋나는 표기이다.

그런데 청학서의 한글 전사 표기 중에는 한글 철자법 상 ‘나’나 ‘내’로 적어야 할 것을 ‘꺠’나 ‘꺡’로 표기한 예가 등장한다. 이들은 만문의 이중음절 조합을 한글 1음절로 대응시킨 결과이며 동시에 만문 -u'w- 구조와 같은 중첩된 자형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Cu'wV 음절 조합을 1음절로 전사한 것은 Ci'yV와 마찬가지로 이 음절구조가 자형으로는 2음절을 이루지만 실제로는 1음절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자형상으로 Ci'yV의 음절수는 2개이지만, 실제 발음의 음절구조는 1음절이며, 청학서의 한글 전사는 음절구조를 고려한 표기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표 5>의 ⑥번 예를 보면 특이하게도 Cu'wV를 한글 2음절로 전사해 놓았다. 이 표기는 청학서의 기본 전사 방침인 음절대칭에는 맞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중음절 조합에 대한 한글 전사 표기 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 음절비대칭에 위배되는 예이다. 즉, <표 5>의 ⑥은 예외의 예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 4장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그 외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u와 ū에 대한 한글 표기이다. 만주어에서 u와

18) 상기 <표 5>의 ③, ④, ⑤를 참고할 것.

ū를 확실히 구별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에서는 이 두 모음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일부 청학서에서는 Cu'wV나 Cū'wV를 전사할 때, u와 ū를 동일한 자모로 표기하기도 한다. <표 5>의 ③과 ④를 통해 《三譯總解》에서 guwa와 gūwa를 모두 '귀'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小兒論》《同文類解》《漢清文鑑》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Cu'wV(C=g, k, h)의 한글 표기에는 권점을 추가하고, Cū'wV(C=g, k, h)의 한글 표기에는 어떠한 부호도 더하지 않았다.¹⁹⁾

4) 이중음절 조합 Cio'wV에 대한 한글 표기

《清文啓蒙·清字切韻法》에서는 Cio'wV 음절 조합에 해당하는 예로 niowang(姓汪切)만을 들어 놓았다. Cio'wV는 대부분 중국어 차용어 가운데 -ü[y]- 개음이 포함된 음절을 적을 때 쓰인다. 이 음절 조합이 쓰되 중국어 차용어가 아닌 단어는 niowan(綠)과 giowan(紅銅) 뿐이다.

중국어 차용어 giowanse(絹子[kyan tsɿ])를 살펴보자. 중국어에 [ya]는 이중모음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kyan]은 1음절이다. 그러나 만문에서 [kyan]은 gio와 wan을 이어서 적은 2음절이다. 즉, 여기서도 만문 2음절이 중국어 1음절에 대응하는 음절비대칭 현상이 나타난다.

여진문 문헌에서는 '초록'을 뜻하는 여진어를 한자 嫩江으로 주음하고 있다.²⁰⁾ 嫩과 江은 각각 현대 만문 niowanggiyan²¹⁾에서 niowang과 giyan에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 관계를 바탕으로 하면 여진어 시대에는 [qa]와 [ja]가 각각 이중모음으로 이루어진 1음절로 간주되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두 종류의 음절 조합과 마찬가지로 Cio'wV 역시 자형 상으로는 2음절이지만 그 실제 발음은 ㄱ-계 이중모음을 포함한 1음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학서의 Cio'wV 음절 조합에 대한 한글 전사 표기는 <표 5>의 ⑦과 ⑧에서

19) <표 5>의 ③, ④를 참고할 것.

20) 金啓孫(1984: 246)

21) <표 5>의 ⑦을 참고할 것.

확인할 수 있다. 즉, ㄱ/ㅠ-계 하강이중모음으로 Cio'wV 음절 조합의 모음을 전사한 것이다. 이러한 전사 표기의 특징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한글 자모의 선택. ㄱ/ㅠ-계 이중모음은 한글 창제 초기부터 중국어의 찰구(撮口)를 표기할 때 쓰였다. 그런데 한학서 뿐만 아니라 청학서에서도 이 자모를 사용한 예가 발견된다. 이는 중국어와 만문의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이며, 사실상 만문 Cio'wV 음절 조합이 대부분 중국어 차용어의 발음을 표기할 때 쓰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만문의 철자 구조와 한글이 모두 ‘ㄱ, ㅠ, ㄱ, ㅠ’를 가지고 ü[y]를 대신한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형의 차이. 만문 전사 과정에서 ㄱ-계 자모를 쓸 것인지 ㅠ-계 자모를 쓸 것인지 선택할 때, 모음조화와의 관련성도 없지 않지만, 문헌이나 어휘의 종류에 따라 특정 자모가 선택되는 경향이 더 크다. 구체적으로는 독서류 청학서에서는 주로 ㄱ-계 자모를 쓰고, 사전류 청학서 가운데 《漢清文鑑》에서는 ㅠ-계 자모를 사용하며, 《同文類解》에서는 만주어 고유어를 jo-계 자모로, 차용어를 ju-계 자모로 전사한다.

셋째, 특수 기호의 사용. 여섯 종류의 청학서는 서로 다른 한글 전사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각 문헌의 내용 및 형식 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독서류 청학서에는 만문 원문까지 실려있기 때문에 《小兒論》을 제외한 나머지 독서류 청학서의 한문 전사 표기는 대략의 발음만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유사한 발음이 있더라도 특수 기호를 이용해 구분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사전류 청학서는 만문 원문을 수록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게 발음을 표기하며, 여러 특수 기호를 이용해 발음을 구분한다.

Cio'wV 음절 조합을 전사할 때 추가된 권점은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Cio[Cju]와 Ci'yo[Cjo](C=g, n, m)를 구별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Cio'wV[CuV]와 Cu'wV[CwV](C=š, j, c)를 구별하는 것이다. 만문 자모 io의 실제 발음은 자형과 같은 [jo]가 아니라 [ju]이며, [jo]는 i'yo라고 표기한다. 청학서의 한글 전사 표기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적고 있는데, 즉 Cio[Cju]에는 권점을 추가하고, Ci'yo[Cjo]에는 아무런 기호도 쓰지 않는다. 《漢清文鑑》(例18)

에 Cio'wV[CuV]와 Cu'wV[CwV]의 구별과 관련한 설명이 나온다.

如‘川，泉’之^환，則‘川’以^{츄완}切，‘泉’以^{치유완}切...同音異切者如此，故^환之^{三合}切音者^圈之^清字中^一字。

인용문에 나타난 환([tsh^hjuan])은 한자음 [tsh^huan] 뿐 아니라 [tsh^hyan]과도 대응한다. 따라서 한글 전사 표기에서는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하여 [tsh^hyan]의 왼쪽 위에 권점을 추가한 것이다.

위의 설명을 통해 한글 전사 과정에서 한 글자가 중복 사용되거나, 한글 철자법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만문 Cio'wV 조합은 한글 2음절이 아닌 1음절로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Cio'wV의 음절수는 2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발음상 그 음절구조는 1음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4. 음절비대칭의 특수한 예

만·한 대역 자료는 대부분 피전사 문자와 전사 문자의 음절 수가 일치하는 음절대칭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만문의 이중음절 조합인 Ci'yV, Cu'wV(Cü'wV 포함), Cio'wV를 한글 1음절로 전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 전사의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되는 음절대칭을 어긴 예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²²⁾ 이들이 가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만문의 실제 발음에 기초하여 2음절 만문을 1음절 한글로 전사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예외들 중에는 또 다른 예외가 나타난다.²³⁾ 한글 1음절로 전사되어야 할 만문 Cu'wV 음절 조합이 2음절로 전사된 것이다.

음절비대칭이라는 예외에 대해 주목한 연구자는 많지 않다. 이 현상에 관심을 가진 대표적인 연구자에는 김정수와 성백인, 그리고 일본 학자 이케가미지로

22) <표 5>의 ③, ④, ⑤ 및 <표 6>의 ①, ②, ③, ④, ⑤, ⑥.

23) <표 5>의 ⑥ 및 <표 6>의 ⑦, ⑧, ⑨, ⑩, ⑪, ⑫, ⑬.

(池上二良)를 들 수 있다. 池上(1950)는 만주-퉁구스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에 대비하는 방법을 통해, 만문 Cu'wV 조합에 대한 한글 전사 표기가 1음절만이 아닌 2음절로도 표기되는 이유는 만주어에 나타나는 음성적 차이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같은 현상에 대하여 김정수(1973)는 만주어가 가진 운율의 특징을 그 원인으로 해석했다.

성백인(1984)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Cu'wV의 한글 전사 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Cu'wV 음절 조합이 g, k, h 및 기타 설근음과 결합하면 연속해서 읽기가 쉬워지고, t, d, j 등과 같은 설첨음과 결합하면 발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자(설근음)는 반드시 한 자(字)에 대응하고,²⁴⁾ 후자(설첨음)는 반드시 두 자에 대응한다는²⁵⁾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앞선 연구의 견해는 <표 5>의 ⑥ 및 <표 6>의 ③, ④, ⑤, ⑥과 같은 예외 중의 예외가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 한다. 다시 말해, 만주어의 운율만을 고려하면, 이 예외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들이 만주어의 음성적 특징을 고려하여 만·한 대역 자료에 보이는 현상을 설명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학서의 전사 방침이 만주어 실제 발음의 특징을 많은 부분 참고로 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주어 구어의 발음 습관을 따져 만·한 대역 자료에 보이는 예외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戴光宇(2012)가 수집한 말뭉치 자료에 따르면 현대 만주어 구어 중 Cu'wV 음절 조합은 모든 환경에서 연속해서 발음되며, 끊어 읽는 경우가 없다. 즉, 현대 만주어 구어 자료로는 예외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고대 만주어 자료를 살펴보자.

金啓祿(1984)에 수록된 여진문 한자 주음 표기 자료를 살펴보면, 관련 단어 자료를 13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청대 만문의 음절과 하나씩 대조하면 여진문 한자 주음 표기 가운데 여진문의 발음을 한자 한 자(한 음절)로 주음한 예가 7개

24) <표 5>의 ③, ④ 및 <표 6>의 ①.

25) <표 5>의 ⑤ 및 <표 6>의 ⑦, ⑧, ⑨, ⑩, ⑪, ⑫.

즉 <표 6>의 ①, ②, ③, ④, ⑤, ⑥, ⑦이고, 한자 2~3자로 주음한 예는 총 6개, 즉 <표 6>의 ⑧, ⑨, ⑩, ⑪, ⑫, ⑬인데, 이 가운데 ⑪, ⑫, ⑬의 세 글자는 모두 음절말 자음 [r]을 포함하는 것이다. Cu'wV에 대한 한글 표기를 살펴보면 한 음절로 표기된 예가 6개(<표 6>의 ①, ②, ③, ④, ⑤, ⑥)이고, 두 음절로 표기된 예가 7개(<표 6>의 ⑦, ⑧, ⑨, ⑩, ⑪, ⑫, ⑬)이다. 즉, 한글 1음절로 표기된 것은 모두 한자 1자로 주음되었고, 2~3자의 한자로 표기된 것은 모두 한글 2음절로 표기되었는데, <표 6>의 ⑦만 예외로 확인된다.

<표 6> Cu'wV 음절 구조의 여진문 발음과 한글 전사 표기

漢譯	女真文	漢字註音	金啟孫註音	清代滿文	한글轉寫	漢清文鑒	釋義
① [饒]	尙号	果卜連	go'bu'lien	gu'we'bu-	귀부-	赦 免罪	
② [黃]	帛令	鎖江	so'gian	su'wa'gian	쉬얀	黃 누루다	
③ [守]	兎朶毛	團下孫	tuan'cia'sun	tu'wa'ki'ya-	튀캄-	看守 직희다	
④ [守]	柔杰丈	屯札魯	tun'dza'ru	tu'wa'ki'ya-	튀캄-	看守 직희다	
⑤ [十]	十	擲	dʒua	ju'wan	완	十 열	
⑥ [借]	寺	拙	dʒo	ju'we-	쥬-	債 빚	
⑦ [二]	二	拙	dʒo	ju'we	쥬위	二 둘	
⑧ [看]	七茶天	禿 ^魯 哈刺	tur'ga'ra	tu'wa-	투와-	看 보다	
⑨ [觀]	七屋夫	禿 ^魯 厄卜勒	tur'(g)ə'bu'rə	tu'wa-	투와-	看 보다	
⑩ [火]	戈	脫委	to'wo	tu'wa	투와	火 불	
⑪ [冬]	冬屯	禿厄厄林	tu'wə'ə'ri	tu'we'ri	투위리	冬 겨울	
⑫ [夏]	夏屯	朱阿厄林	dʒu'a'ə'ri	ju'wa'ri	쥬와리	夏 여름	
⑬ [粗]	采甬	麻兒	mua'r	mu'wa	무와	粗實 몸굽다	

여진문은 음절 문자가 아니며, 한 글자가 단음절일 수도 있고, 다음절일 수도 있다. 이외는 달리 한자는 단음절 문자이다. 여진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 주음 원칙은 최대한 한자 한 글자로²⁶⁾ 여진어 1음절을²⁷⁾ 나타내는 것이었다. 따라

26) 이때 발음이 완전히 같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한 유사한 발음의 한자를 써서 여진

서 한자 몇 자를 표기에 썼는지를 알면 피전사 언어의 음절 개수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대 만문에는 tuwa라는 2자절이 있다. tuwa는 ‘觀, 看(보다)’²⁸⁾, ‘守(지키다)’²⁹⁾, ‘火(불)’³⁰⁾를 청대 만주어 어휘에 출현한다. 이 네 단어에 대한 청학서의 한글 전사 표기 자료를 찾으면, ‘보다’와 ‘불’을 의미하는 단어에 포함된 tuwa는 2음절로 적고, ‘지키다’를 의미하는 단어 속 tuwa는 1음절로 표기해 놓았다. 네 단어의 음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보다’를 의미하는 두 단어는 본래 한 단어로서, 그 원형은 ‘禿^禿哈(turka)’였다. 그런데 발음이 빨라지고, 중간 자음이 약화되면서 그 음이 ‘禿^禿厄(tur’e)’로 변했고, 청대로 오면서 이것이 tuwa[tʰu’wa]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tuwa라는 2자절은 18세기까지 2음절로 발음되는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한글 2음절로 이를 전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다음으로 ‘불’을 의미하는 tuwa는 여진문 시대에 2음절인 ‘脫委(to’wo)’로 발음되었다. 《三譯總解》(1774)의 만문 자료는 이를 towa라고 표기했고, 이 단어에 대한 한글 전사 표기는 ‘토파’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 청대 중기에 이 단어가 여전히 2음절로 발음되었으며, 한글 전사 표기는 이 단어의 실제 발음을 고려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키다’를 뜻하는 단어에 포함된 tuwa를 살펴보자. 이 단어는 여진문 시대에 이미 ‘團(tuan)’ 혹은 ‘屯(tun)’과 같은 단음절로 발음했다. 청대 만문은 ‘지키다’를 의미하는 단어를 tuwa라는 2자절을 포함하여 표기하였으나, 실제로 발음할 때에는 전통에 따라 단음절 [twa]로 읽었기 때문에, 청학서에서는 이 단어를 한글 1음절로 전사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하면 만주어 구어의 발음이 점점 빨라지면서 Cu’wV 조합이 단음절화 되고, 만주어 문독(文讀) 역시 만문 표기의 영향을 받아 모든 Cu’wV 음절 조합을 반모음 [w]로 읽게 되면서 만문의 Cu’wV 조합이 현대

어를 표기하였다.

27) 魯 등과 같이 음절말 자음 [r]을 표기하기 위한 한자는 음절을 셀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28) <표 6>의 ⑧, ⑨ 참고.

29) <표 6>의 ③, ④를 참고.

30) <표 6>의 ⑩ 참고.

만주어 구어에서 w-계 상승이중모음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한편 <표 6>에 나열한 13개의 예 가운데 juwe(수사 ‘二’, <표 6>의 ⑦)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6종의 청학서 중 5종에 이 단어가 출현하는데, 예외없이 이를 2음절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청학서의 한글 전사 방침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규칙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현재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v. 借, 빌리다)³¹⁾와 같은 동음이의어와 구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借’와 같은 동사 어간은 여러 접미사와의 조합으로도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짧은 음절로 전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둘째, 당시 청학서 편찬자들이 접했던 중국의 방언에서 실제로 juwe를 1음절인 [tʃwə]가 아닌 2음절인 [tʃu'wə]로 읽었기 때문에 ‘二’를 한글 2음절로 전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만문의 Cu'wV 음절 조합에 대한 한글 전사 표기가 한글 1음절 또는 한글 2음절로 나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u'wV 조합은 18세기 만주어에서 두 종류의 변이음, 즉 [Cu'wV]와 [CwV]로 실현되었는데, 청학서의 편찬자들은 실제 만주어 발음의 음절구조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한글 1음절로 어떤 것은 한글 2음절로 전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각각의 언어는 서로 다른 음운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음운 체계의 차이는 곧 음절 구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어떤 문자를 다른 문자로 전사할 때, 완전히 같거나 유사한 발음은 동일한 음절 수로 전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떤 음이 한쪽 언어에만 있는 등 발음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음절의 수를 줄이거나 늘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본 연구는 사역원 발행 청학서를 주된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여진어 발음 및 한글 전사 표기 등을 함께

31) <표 6>의 ⑥

분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른 언어에 대한 전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음의 사실을 규명하였다.

〈표 7〉 만문 음절수와 음절구조 및 한글 전사 간의 관계

	Vʃ	Ci'yV	Cio'wV	Cu'wV[CwV]	Cu'wV[CuwV]
만문 음절 수	1	2	2	2	2
만주어 음절 구조	1.5	1	1	1	2
대응 한글 수	2	1	1	1	2

첫째, 만문의 표기를 살펴보면 Ci'yV, Cu'wV(Cü'wV 포함), Cio'wV 등과 같은, 이른바 절운(切韻)이라고 일컬어지는 세 가지 이중음절 조합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형상으로는 이중음절이지만 실제 발음을 고려하면 CGV류의 단음절로 간주해야 한다. 즉 자형상 음절수는 2개인데 실제 발음의 음절구조는 1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는 달리 VʃʃV 구조 속의 Vʃ는 자형만을 놓고 보면 단음절이지만 실제 발음은 이중음절인 [Vʃʃ]에 가깝다. 즉 자형상 음절수는 하나인데 그 발음의 음절구조를 살펴보면 1.5개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여진문의 한자 주음 자료나 다수의 만·한 대역 자료가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만주어와 한국어의 음성적 차이를 고려했을 때, 만·한 대역 자료에 음절비대칭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청학서에 보이는 만·한 대역 자료를 살펴보면 음절대칭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청학서 편찬에 관여한 조선의 지식인들이 만주어 음절 구조의 특징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음절대칭에 어긋나는 표기의 예, 즉 음절비대칭에 해당하는 표기는 Vʃ 음절 및 Ci'yV, Cu'wV(Cü'wV 포함), Cio'wV 음절 조합에 대한 한글 표기에 나타난다. 전사자(轉寫者)들은 자형상 이중음절인 Ci'yV, Cu'wV(Cü'wV 포함), Cio'wV와 같은 음절 조합을 단음절로 표기 했는데, 이는 세 개 음절 조합의 실제 음성이 단음절이

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VS는 자형으로는 단음절이지만 실제 음성이 이중음절에 가깝기 때문에 한글 2음절로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학서의 한글 전사 표기는 만문의 음절수가 아닌 만주어 발음의 음절구조를 최대한 고려한 결과이다.

셋째, 그 외 특수한 예외, 즉 만문의 Cu'wV 음절 조합 중 한글 1음절이 아닌 2음절로 표기된 예는 만주어의 실제 발음을 고려한 표기임을 확인하였다. 근대 만주어에서는 Cu'wV를 w-계 이중모음으로도 읽었지만 두 음절, 즉 Cu와 wV로 나누어 읽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말해 이 음절 조합에는 [Cu'wV]와 [CwV]의 두 가지 변이음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Cu'wV 음절 조합이 역사언어학적으로 여진어 시대에서 청대 만주어를 거쳐 지금의 만주어 구어에 이르기까지 [Cu'wV]와 [CwV]의 두 음절이 합쳐져서 [Cwv]로 단일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청학서에 기록된 만·한 대역 자료의 다양한 표기는 이러한 음변화를 반영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만주어의 변화를 연구할 때, 만·한 대역 자료를 보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재확인되었다.

◆ 참고문헌

1. 자료

- 《國朝耆獻類徵》
- 《同文類解》(奎章閣本)
- 《三譯總解》(奎章閣本)
- 《小兒論》(奎章閣本)
- 《清文啓蒙》
- 《清語老乞大》(濯足文庫本)
- 《八歲兒》(奎章閣本)
- 《漢清文鑑》(奎章閣本)
- 《訓民正音》

2. 단행본

- 金啓琮, 『女眞文辭典』, 北京: 文物出版社, 1984.

戴光宇, 『三家子滿語語音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

3. 논문

金貞秀, 「清語老乞大의 한글轉寫法과 그 混亂에 對해서」,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73.

成百仁, 「譯學書에 나타난 訓民正音의 使用: 司譯院 清學書의 滿洲語 한글表記에 對하여」, 『한국문화』 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4, pp.21-63.

전광현, 「근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국립국어연구원, 1997, pp.7-54.

池上二良, 「滿洲語의 諺文文獻에 關する一報告」, 『東洋學報』 2, 東洋協會調查部, 1950, pp.223-244.

논문 접수 일	2023년 10월 17일
심사 완료 일	2023년 11월 29일
게재 확정 일	2023년 12월 08일

Abstract

A Study On the Syllable Symmetry
in Manchu-to-Korean Transliteration in Cheong-hak-seo

Shao, Lei · Lim, Dayong

This paper studies Cheong-hak-seo, and finds that when Korean is transcribed into Manchu, even though the phonetic systems of Manchu and Korean do not perfectly correspond, Korean transliterations of Manchu text maintain a "syllable symmetry", where each syllable in Manchu corresponds to one syllable in Korean transliteration. However, there are four types of syllables or syllable combinations, namely VŠ, Ci'yV, Cu'wV, and Cio'wV, that violate the syllable symmetry rule and exhibit "syllable asymmetry" in transliteration. Interestingly, special cases of syllable symmetry are observed in Cu'wV. Through an investigation of the historical phonetics of Jurchen language and the principles of Korean transliteration, it is found that Manchu syllable VŠ, which is actually closer to a bisyllabic pronunciation, is thus transliterated into two syllables in Korean. On the other hand, Manchu syllable combinations Ci'yV and Cio'wV, although represented by two syllables in written form, are considered monosyllabic with glide consonants in actual pronunciation, resulting in one syllable in Korean transliteration for two syllables in Manchu. As for Cu'wV, which has two variant pronunciations [Cu'wV] and [CwV] in Ching-era Manchu, corresponding Korean transliterations also exhibit variation with either two syllables or one syllable.

Keyword Cheong-hak-seo, Manchu-to-Korean transliteration, Jurchen language, syllable symmetry, syllable asymmetry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필자 정체성 비교 연구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자기 언급 장치를 중심으로*-

맹 강**

국문요약

본고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필자 정체성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나타난 자기 언급 장치를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기 언급 장치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1인칭 대명사를 선호하는 데 비해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생략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논증적 텍스트에서 필자로서의 존재를 명확히 표현하는 데 비해 한국어 모어 화자가 필자로서의 존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고 숨겨진 자아를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차이는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 중국인 한국어 교수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제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필자 정체성, 자기 언급 장치, 논증적 텍스트

* 이 연구는 2023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AKS-2023-R-050). 이 연구는 2023년도 대원외국어대학교 학부 교육 개혁 연구 프로젝트(新教改背景下韩国语语法术语教学研究与实践)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중국 길림대학교 한국어과 부교수

〈목차〉

1. 서론
2. 필자 정체성과 글쓰기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1.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고는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자기 언급 장치를 중심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필자 정체성 구축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주관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필자 정체성은 객관성을 강조하는 학문 목적 쓰기에서 피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학문 목적 쓰기는 필자가 정체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장으로서 필자 정체성을 적절하게 구축할 수 있으면 독자들이 연구의 결과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필자 정체성은 학문 목적 쓰기의 필수 요소이다.¹⁾

필자 정체성을 이루는 언어 표현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자기 언급 장치가 가장 흔한 것이다²⁾. 자기 언급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필자 정체성 구축과

1) Kuo, C. H., "The use of personal pronouns: Role relationships in scientific journal articl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8(2), 1999, pp. 121-138.

Tang, R. & S. John., "The I in identity: Exploring writer identity in student academic writing through the first person pronou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8(4), 1999, pp. S23-S39.

Çandarlı, D., Y. Bayyurt & L. Marti., Authorial presence in L1 and L2 novice academic writing: Cross linguistic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s,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20(2), 2015, pp. 192-202.

2) Tang, R. & S. John, 앞의 논문.

Hyland, K., Humble servants of the discipline? Self-mention in research articles,

연구결과 제시, 그리고 학술적 권위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³⁾. 영어 학문 목적 쓰기에서 자기 언급 장치를 통한 필자 정체성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에서 필자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민정호(2020⁴⁾, 2020⁵⁾, 2022⁶⁾)가 있었고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 찬반 논의에 관한 논증적 텍스트를 연구 자료로 하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필자 정체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자기 언급 장치를 통한 필자 정체성 연구는 주로 영어 쓰기 교육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서양에서 자기 언급 장치를 통한 필자 정체성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Kuo(1999)⁷⁾, Tang & John(1999)⁸⁾, Hyland(2001)⁹⁾, Fløttum, et al.(2006)¹⁰⁾, Çandarlı et al.(2015)¹¹⁾, Chen(2020)¹²⁾ 등이 있다. Kuo(1999)에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0(3), 2001, pp. 207–226.

Hyland, K., Authority and invisibility: Authorial identity in academic writing, *Journal of Pragmatics*, 34(8), 2002, pp. 1091–1112.

Zareva, A., "Self-mention and the projection of multiple identity roles in TESOL graduate student presentations: The influence of the written academic genr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32(2), 2013, pp. 72–83.

3) Dueñas, P. M., "We focus on. . . ': A cross-cultural analysis of self-mentions in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articles",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6(2), 2007, pp. 143–162.

4) 민정호, 「대학원 유학생의 필자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제언」, 『문사회』 21 11(2), 아시아문화연구소, 2020 7, pp. 199–210.

5) 민정호, 「박사 유학생의 필자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제언: 학술적 글쓰기에서 담론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33,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0 4, pp. 298–321.

6) 민정호, 「학위논문의 수사적 맥락에서 대학원 유학생의 필자 정체성 분석-서론에서 입장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제13권 5호,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22, pp. 131–156.

7) Kuo, 앞의 논문.

8) Tang & John, 앞의 논문.

9) Hyland, 앞의 논문.

서는 과학기술 분야 논문에 반영된 인칭 대명사를 살펴봤는데 1인칭 대명사의 사용 빈도가 다른 인칭 대명사보다 훨씬 더 많고 인칭 대명사의 사용은 필자가 자신의 역할과 예상 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를 반영하는 언어적 전략이라고 밝혔다. Tang & John(1999)에서는 싱가포르 대학생들의 학술 논문에 나타난 1인칭 대명사를 살펴봤는데 '단체 대표자'의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주장 가진 자'의 기능을 가장 적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Fløttum, et al.(2006)에서는 경제학, 언어학, 의학 분야의 논문에서 1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학제 간 차이를 반영했다고 했다. Hyland(2001), Çandarlı et al.(2015)에서는 영어 학습자와 영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1인칭 대명사를 비교한 결과, 영어 학습자들의 1인칭 대명사의 사용빈도가 영어 모어 화자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Chen(2020)에서는 중국어와 영어 학술 논문에 나타난 1인칭 대명사를 비교한 결과, 중국어 논문에서 적게 사용되었고 중국의 문화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는 자기 언급 장치를 통한 필자 정체성이 학제 간, 언어 간, 영어 학습자와 영어 모어 화자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필자 정체성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중국에서 자기 언급 장치에 주목한 필자 정체성 연구는 중영 학술 논문의 필자 정체성 비교 연구, 학술 논문에서 영어 학습자나 영어 학습자와 영어 모어 화자의 필자 정체성 비교 연구, 필자 정체성 구축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중영 학술 논문의 필자 정체성 비교 연구로서 柳淑芬(2011)¹³)에서는 중국어

10) Fløttum, K., T. Kinn & T. Dahl., "We now report on. . ." versus "Let us now see how...": Author roles and interaction with readers in research articles, in K. Hyland & M. Bondi(Eds.), *Academic Discourse across Discipline*, Bern: Peter Lang, 2006.

11) Çandarlı et al., 앞의 논문.

12) Chen, R., "Single author self-reference: Identity construction and pragmatic competence",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45, 2020, pp. 1-14.

13) 柳淑芬, 「中英文論文摘要中作者的自稱語與身份構建」, 『當代修辭學』166, 2011, pp. 85-88.

학술 논문의 필자 참여도가 낮고 영어 학술 논문의 필자 참여도가 높다고 밝혔고 李娜·李忠慶(2013)¹⁴, 高霞(2015)¹⁵에서는 증영 학술 논문의 필자 정체성이 학제 간의 차이보다 언어적 차이가 더 크다고 밝혔으며 吳格奇(2013)¹⁶에서는 영어 논문 필자는 '연구자'와 '담화 구축자'로서의 정체성 구축에 주목하는 데 비해 중국어 논문 필자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구축에 주목하였다고 밝혔다. 필자 정체성의 통시적 연구로서 陳菁 외(2019)¹⁷에서는 중국 연구자의 SCI 논문에서 나타난 1인칭 대명사는 통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여 중국 연구자들이 영어 학문 목적 글쓰기의 관습에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고 1인칭 대명사의 사용으로 더욱 명확하고 권위가 있는 필자 정체성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중국인 영어 학습자나 영어 학습자와 영어 모어 화자의 필자 정체성 구축 비교에 주목한 歐陽護華·唐適宜(2006)¹⁸, 阮先玉·龍仕文(2014)¹⁹, 楊欣然(2015)²⁰, 李民·肖雁(2018)²¹, 婁寶翠·王莉(2020)²²에서는 중국인 영어 학습자가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빈도가 낮았고 필자로서의 자아를 감추는 경향이 보였다고 밝혔다.

-
- 14) 李娜·李忠慶, 「學術文章中的“寫作者聲音”——基於語料庫的跨學科和語言的對比研究」,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36(4), 2013, pp. 17-23+40+127.
- 15) 高霞, 「基於中外科學家可比語料庫的第一人稱代詞研究」, 『外語教學』, 36(2), 2015, pp. 30-34.
- 16) 吳格奇, 「學術論文作者自稱與身份構建——一項基於語料庫的英漢對比研究」,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36(3), 2013, pp. 6-11+127.
- 17) 陳菁 외, 「中外學者醫學SCI論文作者身份構建研究——第一人稱代詞視角下的共時對比和歷時演變」, 『中國科技期刊研究』 30(12), 2019, pp. 1352-1359.
- 18) 歐陽護華·唐適宜, 「中國大學生英語議論文寫作中的作者身份」,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29(2), 2006, pp. 49-53.
- 19) 阮先玉·龍仕文, 「英語學術論文中作者身份跨文化對比研究」, 『社會科學家』 10, 2014, pp. 152-155.
- 20) 楊欣然, 「二語學術寫作中的自我指稱與作者身份構建」, 『外語與外語教學』 283, 2015, pp. 50-56.
- 21) 李民·肖雁, 「英語學術語篇互動性研究——以第一人稱代詞及其構建的作者身份為例」, 『西安外國語大學學報』 26(2), 2018, pp. 18-23.
- 22) 婁寶翠·王莉, 「學習者學術英語寫作中自我指稱語與作者身份構建」,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43(1), 2020, pp. 93-99+160.

중국인 영어 학습자의 1인칭 대명사의 사용 발달 과정에 주목한 王月麗·徐宏亮(2019)²³⁾에서는 1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학부 과정과 석사 과정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필자 정체성 구축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사용의 적절성과 복잡성은 계속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어 필자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는 민정호(2020^ㄱ24), 2020^ㄴ25), 2022²⁶⁾)가 있다. 민정호(2020^ㄱ, 2020^ㄴ)에서 대학원생 학문 목적 쓰기에서의 필자 정체성 강화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정호(2022)에서는 학위 논문에서 ‘현황 분석’, ‘문제 제기’, ‘연구의 필요성 도출’ 부분의 필자 정체성 구축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위의 논의를 통해 필자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영어와 중국어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어 필자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한국어 필자 정체성에 주목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논증적 텍스트에서 구축한 필자 정체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필자 정체성과 글쓰기

1) 필자 정체성과 쓰기의 관계

전통적으로 정체성은 개인적이고 정태적인 상태나 사실로 여겨졌다. 그런데 정체성 연구의 발달에 따라 정체성을 더 이상 개인적이고 정태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것으로 보게 됐다.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여겨지고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23) 王月麗·徐宏亮, 「中國英語學習者學術寫作中第一人稱使用發展特征與身份構建研究」, 『外語教育研究前沿』 2(3), 2019, pp. 58-64+92-93.

24) 민정호, 앞의 논문.

25) 민정호, 앞의 논문.

26) 민정호, 앞의 논문.

받아 복잡성과 역동성을 가진다²⁷⁾. 정체성을 개인적이고 정적인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필자 정체성은 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객관성을 요구하는 장르에서 피해야 한다. 그런데 정체성을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필자 정체성은 필자와 독자 간 상호작용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필자 정체성과 글쓰기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필자 정체성은 글쓰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고 드러낸다. "글쓰기는 정체성 구축 행위로서 사람들이 글쓰기를 할 때 사회문화로 이루어진 각종 자아 가능성을 실현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 담화, 자신의 관념, 신앙, 이익에 대한 중박 혹은 도전을 통해 자기의 역할을 한다."²⁸⁾ 즉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정체성을 구축하는 행위로 보고 필자 정체성을 글쓰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느냐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필자 정체성은 학문 목적 쓰기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1인칭 대명사로 예를 들자면, Hyland(2002)²⁹⁾에 의하면 1인칭 대명사는 연구 목적 제시, 연구 과정 설명, 결론 진술, 개인적 이익 제시, 주장 제시 등 다섯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인칭 대명사는 담화 조직, 독자 인도, 태도와 입장 표명, 실험 절차와 방법 진술, 연구의 신뢰도 향상, 연구의 독창성 부각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³⁰⁾ 이처럼 1인칭 대명사가 학문 목적 쓰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1인칭 대명사가 정체성 구축에 중요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27) Bucholtz, M. & K. Hall., "Identity and Interaction: A Sociocultural Linguistic Approach", *Discourse Studies*, 7(4-5), 2005, pp. 585-614.

28) Ivanič, R., *Writing and Identity: The Discoursal Construction of Identity in Academic Writing*,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8, p. 32.

29) Hyland, 앞의 논문.

30) Harwood, N., "Nowhere has anyone attempted... In this article I aim to do just that: A corpus-based study of self-promotional I and we in academic writing across four disciplines", *Journal of Pragmatics*, 37, 2005a, p. 1207.

Harwood, N., I hope to counteract the memory problem, but I made no impact whatsoever: Discussing methods in computing science using I,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4, 2005b, pp. 245-246.

필자 정체성은 독자를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논문 심사 위원은 언어적과 비언어적 특성을 통해 논문 저자의 성별과 학술적 경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판단은 논문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³¹⁾ 그리고 80% 이상의 논문 심사 위원은 지식의 넓이/깊이, 주제 선택, 이론적 배경, 쓰기 관습, 문형 혹은 어휘의 선택, 인용 방식, 원고 양식 등 텍스트적 단서를 통해 논문 저자의 정체성을 추측한다.³²⁾ 이와 같이 독자는 특정 텍스트적 단서를 통해 필자의 정체성을 추측하고 결국은 논문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필자 정체성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면 독자를 설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2) 필자 정체성의 분류

필자 정체성의 분류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다른데 대표적인 연구는 Ivanič(1998)³³⁾, Tang & John(1999)³⁴⁾, Fløttum, et al.(2006)³⁵⁾ 등이 있다. 그 중에서 Tang & John(1999)과 Fløttum, et al.(2006)의 분류가 후속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자기 언급 장치의 필자 정체성 구축에 관한 연구는 거의 다 Tang & John(1999)과 Fløttum, et al.(2006)의 분류를 사용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Matsuda, P. K. & Tardy, C. M., "Voice in academic writing: The rhetorical construction of author identity in blind manuscript review",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6, 2007, pp. 235-249.

32) Tardy, C. & P. K. Matsuda., "The Construction of Author Voice by Editorial Board Members", *Written Communication*, 26(1), 2009, pp. 32-52.

33) Ivanič, 앞의 책.

34) Tang & John, 앞의 논문.

35) Fløttum, et al., 앞의 논문.

〈표 1〉 필자 정체성의 분류

연구자	분류	개념
Tang & John(1999)	단체 대표자(respresentative)	일반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다.
	내용 안내 자(guide through the essay)	독자의 주의를 끌고 독자들이 담화를 이해하는 데 도와주는 것이다.
	담화 구축 자(architect of the essay)	독자에게 연구의 구조와 연구 목적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과정 서술자(recountor of research process)	연구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견해 가진 자(opinion-holder)	기존 정보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장 개진 자(originator)	저자의 새로운 발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Fløttum, et al.(2006)	연구자(researcher)	논문 저자의 전공 정체성을 말한다.
	담화 구축 자(discourse constructor)	잠재적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담화를 구성하고 연구의 절차와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장 개진 자(arguer)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다.
	평가자(evaluator)	개인적 태도를 표현하는 이미지를 가리킨다.

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Fløttum, et al.(2006)에 비하면 Tang & John(1999)의 분류가 더 세분화되어 있다. 일치된 분류는 '주장 개진 자³⁶⁾'이다. 그리고 Fløttum, et al.(2006)에서 언급한 '담화 구축 자'는 Tang & John(1999)에서 언급한 '담화 구축 자'와 '연구 과정 서술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 예를 들면서 '단체 대표자(respresentative)', '내용 안내 자(guide through the essay)', '담화 구축 자(architect of the essay)', '연구 과정 서술자(recountor of research process)', '견해 가진 자(opinion-holder)', '주장 개진 자(originator)', '연구자(researcher)', '평가자(evaluator)'를 살펴보자.

36) Tang & John(1999)에서는 'originator'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Fløttum, et al.(2006)에서는 'arguer'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개념으로 보면 모두 필자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 대표자’는 일반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 Deictic gestures have a pointing function, either actual or metaphoric. For example, we may point to an object in the immediate environment, or we may point behind us to represent past time. (Lazaraton 2004: 84³⁷)(밑줄은 필자³⁸)

예(1)에서 'we'는 전체 언어 사용자를 가리키고 진술된 내용의 보편성을 강조했으며 필자는 이 보편적인 지식의 보고자라는 정체성을 구축했다. '내용 안내자'는 독자의 주의를 끌고 독자들이 담화를 이해하는 데 도와주는 것이다. 다음 예(2)를 살펴보자.

(2) Let us now look at some examples of Jamaican Creole compared to Standard British English. (Tang & John, 1999: S:27)

예(2)에서 'us'를 통해 독자에게 자메이카 크리올어와 표준 영국 영어 비교의 예를 보라고 안내하였다. '담화 구축자'는 독자에게 연구의 구조와 연구 목적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3)을 살펴보자.

(3) In this essay, I will discuss the bastard status of English from the pre-English period (-AD 450) to Middle English (c. 1100-1450). (Tang & John, 1999: S:28)

예(3)에서 'I'를 통해 연구 목적을 제시했다. '연구 과정 서술자'는 연구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4) The data I collected included written texts, transcripts of discussions

37) Lazaraton, A., "Gesture and speech in the vocabulary explanations of one ESL teacher: A microanalytic inquiry", *Language Learning* 54, 2004, pp. 79-117.

38)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밑줄은 모두 필자가 친 것이다.

and notes made as a result of observation. (Tang & John, 1999: S:28)

예(4)에서 'I'를 통해 연구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연구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견해 가진 자'는 기존 정보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 보자.

(5) I think Kushwant Singh has managed to succinctly convey the essence of the English Language with his phrase 'bastard language'. (Tang & John, 1999: S:28)

예(5)에서 'I'를 통해 저자가 기존 정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Kushwant Singh가 'bastard language'라는 구로 영어의 본질을 전달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주장 가진 자'는 저자의 새로운 발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자.

(6) To conclude this consideration of nativelikeness in late L2A,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investigations of the upper limits of attainment in late L2A could profit by targeting an underrepresented group, namely late L2 learners who are L2-dominant. (Birdsong, 2006: 223³⁹⁾)

예(6)에서 'I'를 통해 필자의 새로운 발견을 제시했다. 즉 필자가 해당 연구를 통해 내세우려는 주장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자'는 논문 저자의 전공 정체성을 말한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7) Here I have chosen to look at a series of articles that appear in the journal sections described above, such as *Lingua Franca*. (吳格奇, 2013: 8)

예(7)에서 필자는 'I'를 통해 연구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였다. '평가자'는 개

39) Birdsong, D., "Age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processing: A selective overview", *Language Learning* 56, 2006, pp. 9-49.

인적 태도를 표현하는 이미지를 가리킨다.

(8) I had been struck by the authentic quality of Frank's laugh. (吳格奇, 2013: 10)

예(8)에서 1인칭 대명사 'I'는 정서를 표현하는 동사와 결합하여 사용되어 저자의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였다. 이런 주관적 평가는 비격식적 표현이라 필자와 독자의 사회적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 독자와의 정서적 의사소통을 통해 독자가 자신의 주장을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것이다.⁴⁰⁾

Tang & John(1999)⁴¹⁾와 Fløttum, et al.(2006)⁴²⁾의 필자 정체성 분류는 학술 논문 필자 정체성 구축에 대한 분석에 적용할 수 있지만 찬반 논의에 관한 논증적 텍스트의 필자 정체성 구축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3) 필자 정체성을 구축하는 자기 언급 장치

자기 언급 장치는 필자 자신을 명확히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명확히 필자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필자 정체성을 구축할 때 흔히 사용되는 영어 자기 언급 장치는 1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 추상적 주체(this paper/study 등) 등이 있다.⁴³⁾ 이 중에서 1인칭 대명사의 저자 참여도가 가장 높고 3인칭 대명사는 그 다음이며 추상적 주체는 가장 낮다. 한국어의 경우, 앞서 언급된 세 가지 방법 외에 인칭대명사와 추상적 주체가 생략되고 '-ㄴ/는다고 생각하다/생각되다/사료되다/보다' 등의 표현을 통해 필자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는 필자를 감추는 것으로 추상적 주체보다 참여도가 더 낮은 것이다. 한국어의 자기 언급 장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0) 吳格奇, 앞의 논문, p. 10.

41) Tang & John, 앞의 논문.

42) Fløttum, et al., 앞의 논문.

43) 柳淑芬, 앞의 논문, p. 86.

〈표 2〉 한국어 자기 언급 장치의 참여도

참여도	자기 언급 장치	예시
높다 ↓ 낮다	1인칭 대명사	나, 저 ⁴⁴⁾ , 우리
	3인칭 대명사	필자
	추상적 주체	본고/ 이 글
	생략하기	-ㄴ/는다고 생각하다/생각되다/사료되다/보다...

〈표 2〉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자기 언급 장치는 1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 추상적 주체, 생략하기 등 네 가지가 있다. 1인칭 대명사는 주로 '나, 저, 우리'가 있고 3인칭 대명사는 주로 '필자'가 있으며 추상적 주체는 주로 '본고/이 글'을 가리킨다. 생략하기는 주어가 생략되고 '-ㄴ/는다고 생각하다/생각되다/사료되다/보다'를 통해 필자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중에서 1인칭 대명사의 참여도가 가장 높고 3인칭 대명사는 그 다음이며 추상적 주체와 생략하기는 가장 낮다.

3.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본고는 맹강(2018)⁴⁵⁾에서 수집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논증적 텍스트 73편, 한국어 모어 화자 논증적 텍스트 45편을 연구 자료로 하였다. 맹강(2018)에서 수집한 작문을 사용하기로 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강(2018)은 필자 목소리(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서 쓰기 과제를 설계할 때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고려하였다⁴⁶⁾, 둘째, 요약하기, 분석 및 평가하기 등

44) 보편 독자인 경우, 글쓰기에서 자기 언급을 할 때 '저'보다 '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저'도 포함시켜서 살펴보기로 했다.

45) 맹강,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개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46) 맹강·만천옥,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의 필자 목소리 모형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6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1, pp. 59-93.

학문 목적 쓰기에 필요한 주요 기능들을 포함시켰다⁴⁷⁾, 셋째, 쓰기의 실제성, 쓰기 과제 설계의 원리와 쓰기 수행의 명확한 지시를 제시하였다.⁴⁸⁾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맹강(2018)에서 수집한 논증적 텍스트는 본고의 필자 정체성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맹강(2018)의 논증적 글쓰기 수집 도구는 다음과 같다⁴⁹⁾.

〈표 3〉 쓰기 과제 설계 고려 요소

과제 구성 요소	요구
장르	예상 독자를 설득하는 글
주제	사회적 이슈: 초기 외국어 학습 주제 제시 시 주제와 관련된 짧은 기사문을 같이 제시한다.
독자	보편독자
시간	시험 상황이 아니라서 시간 제한 없다.
분량	800자 내외(워드, 공백 제외)
요약하기, 환언하기, 분석 및 평가하기	자료 인용 시 요약·환언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분석과 평가가 드러나야 한다.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하기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포함한다.
찬반 논의하기	주어진 주제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선택한다.

〈표 3〉에서 보듯이 맹강(2018)의 논증적 글쓰기 수집 도구는 장르, 주제, 독자, 시간, 분량 등 쓰기 과제의 일반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요약하기, 환언하기,

47) 맹강, 「주제별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논거 연구—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0ㄱ, pp. 29-55.

맹강,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어려움과 극복 전략 연구—중국인 한국어 전공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5-2, 국어교육학회, 2020ㄴ, pp. 73-111.

48) 맹강, 앞의 논문.

49) 맹강,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개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 25.

분석 및 평가하기, 찬반 논의하기 등 학문 목적 쓰기의 필수 기능도 포함되었으며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하기와 같은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도 포함되었다.

위와 같은 논증적 글쓰기 수집 도구로 수집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의 글자 수는 총 49,715자이고 평균 글자 수는 680이다⁵⁰⁾.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텍스트의 글자 수는 총 46,837이고 평균 글자 수는 1040이다.

2) 분석 방법

본고의 연구 자료는 찬반 논의에 관한 논증적 텍스트이기 때문에 학술 논문과 다른 점이 많다. 본고의 연구 자료의 경우, 연구 목적, 절차, 방법 등을 제시하는 ‘연구 과정 서술자’나 논문 저자의 전공 정체성을 나타내는 ‘연구자’에 해당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또한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평가자’도 한국어 논증적 글에서 피해야 할 것이므로 ‘평가자’를 한국어 필자 정체성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글의 목적 등을 제시하는 ‘답화 구축자’, 주장을 내세우는 ‘주장 개진자’, 기존 자료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견해 가진자’⁵¹⁾, 독자를 포함한 일반 집단을 나타내는 ‘단체 대표자’⁵²⁾가 본고의 논증적 텍스트에 나타날 것이다. 이 외에 민병곤(2004)⁵³⁾, 조인옥(2014)⁵⁴⁾, 제효봉(2015)⁵⁵⁾, 맹강

50) 익명의 심사 위원이 지적했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분량은 800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는 현실 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고급 학습자라도 800자 내외의 논증적 글을 쓰는 것은 인지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 그래서 분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51) 맹강(2018)의 쓰기 과제에 자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도록 분석과 평가도 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어 ‘견해 가진자’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52) ‘단체 대표자’는 보통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논증적 텍스트에서 독자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필자 정체성 구축에서 중요한 것이다.

53) 민병곤, 「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 : 6, 8, 10학년 학습자의 작문 및 토론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54) 조인옥,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설 텍스트에 나타난 모국어 영향 특성 연구: 중국 산둥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55) 제효봉,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에 나타난 모국어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2022)⁵⁶)에서 밝혔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나 한국어 모어 화자가 논증적 텍스트에서 개인 경험으로 논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개인 경험은 찬반 논의에 관한 논증적 텍스트를 연구 자료로 한 欧阳护华·唐适宜(2006)⁵⁷)에서도 필자 정체성에 포함시켰다. 본고에서도 역시 이를 포함시켜 ‘개인 경험 서술자’로 명명하기로 한다. 본고의 필자 정체성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어 필자 정체성의 분류

필자 정체성 분류	개념
담화 구축자	글의 구조나 목적을 제시하여 독자의 읽기와 이해를 인도한다.
주장 개진자	저자의 주장을 내세운다.
견해 가진자	기존 자료에 대해 평가한다.
단체 대표자	일단 집단을 대표한다.
개인 경험 서술자	개인 경험을 근거로 활용하여 논증한다.

〈표 4〉에 따라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자기 언급 장치인 1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 추상적 주체, 생략하기 등을 추출하여 빈도수와 수행 기능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나서 SPSS 27.0을 이용하여 t 검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기 언급 장치 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4. 연구결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기 언급 장치 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7.0에서 t검정을 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56) 맹강,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개입’을 중심으로』, 태학사, 2022.

57) 欧阳护华·唐适宜, 앞의 논문.

1) 자료 개관

우선 ‘나/저’, ‘우리’, ‘필자’, ‘이 글/본고’, 그리고 생각하는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자기 언급 장치 사용 빈도 통계 결과

자기 언급 장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양측)
나	중국인	1.07	1.549	.000***
	한국인	.24	.645	
저	중국인	.73	1.367	.000***
	한국인	.07	.447	
우리	중국인	.34	.671	.066
	한국인	.16	.424	
필자	중국인	.00	.000	.037*
	한국인	.36	1.111	
본고	중국인	.00	.000	.323
	한국인	.02	.149	
이 글	중국인	.00	.000	.323
	한국인	.04	.298	
생략하기	중국인	1.41	1.794	.000***
	한국인	.51	.920	
총계	중국인	3.55	2.555	.000***
	한국인	1.40	1.558	

(***p<.001, **p<.01, *p<.05)

<표 5>에서 보듯이 총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술통계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자기 언급 장치를 2배 이상이나 많이 사용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의 평균 분량은 680자,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텍스트의 평균 분량은 1040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기 언급 장치를 과다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두 집단의 논증적 텍스트 분량이 같았다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기 언급 장치를 이보다 더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 언급 장치 사용 빈도의 순서를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1인칭 대명사(2.14), 생략하기(1.41)의 순이었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생략하기(0.51), 1인칭 대명사(0.47), 3인칭 대명사(0.36), 추상적 주체(0.06) 순이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1인칭 대명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는 생략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했지만 생략하기, 1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를 대충 골고루 사용했다는 특성을 보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1인칭 대명사를 선호하는 것은 논증적 글을 쓸 때 필자로서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생략하기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은 논증적 글에서 상대적으로 필자로서의 존재를 감추는 경향을 보여 준 것이다.

개별 자기 언급 장치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우리’, ‘본고’, ‘이 글’의 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 ‘저’, ‘필자’, 그리고 생략하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기술통계량을 통해 ‘나’, ‘저’, 생략하기는 모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는 사실 보편 독자를 지향하는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논증적 텍스트에서 사용하면 적절하지 않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많이 나타났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텍스트에도 ‘저’가 나타난 경우가 있었다. 아래에서 개별 자기 언급 장치의 기능별 비교를 살펴보자.

2) 개별 자기 언급 장치 비교

(1) 1인칭 대명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1인칭 대명사 사용이 기능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1인칭대명사의 기능별 비교 통계 결과

자기 언급 장치	기능	구분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양측)
나/저	담화 구축 자	중국인	.11	.458	.045*
		한국인	.00	.000	
	주장 개진 자	중국인	1.32	1.246	.000***
		한국인	.20	.505	
	견해 가진 자	중국인	.07	.304	.058
		한국인	.00	.000	
	개인 경험 서술자	중국인	.30	.908	.154
		한국인	.11	.532	
	단체 대표자	중국인	.03	.164	.159
		한국인	.00	.000	
우리	단체 대표자	중국인	.34	.671	.066
		한국인	.16	.424	

(***p<.001, **p<.01, *p<.05)

〈표 6〉에서 보듯이 ‘나/저’의 경우, 기능별로 볼 때 모든 기능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두 집단 모두 ‘주장 개진 자’와 ‘개인 경험 서술자’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주장을 개진할 때, 흔히 ‘나는 ... -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장 개진 자’ 기능을 많이 사용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개인 경험 서술자’ 기능을 많이 사용한 것은 논증을 구축할 때 개인 경험을 제시해서 독자를 설득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회적 공론의 과정이나 추론을 하지 않는 전제에서 개인적 경험만으로 성공적인 논증을 구축하기가 어렵다⁵⁸⁾. 이렇게 볼 때 개인적 경험 사용은 신중해야 하다. 또한 ‘주장 개진 자’와 ‘담화 구축 자’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리’의 경우, ‘단체 대표자’ 기능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아래에서 예를 들면서 살펴보자.

- 1) 나는 조기 외국어 교육에 반대한다.(주장 개진 자) (KNS00259)

58) 민병곤, 앞의 논문, p. 226.

59) ‘KNS’는 한국어 모어 화자를 가리키며 ‘002’는 연구 참여자 일련번호를 가리킨다.

2) 나는 선생님이 집을 떠난 이후에도 내가 평소에 엄마와는 쓰지 않는 새로운 언어도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언어로 엄마와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신기해했다.(개인 경험 서술자)(KNS036)

3) 또한 외국어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매달 지불해야 한 비용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젊은 부모님에 대한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이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견해 가진 자)(CKL026⁶⁰)

4) 저는 왜 조기 외국어 학습을 찬성하는지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담화 구축자)(CKL045)

5) 만약 나는 내 아이를 조기 외국어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내 아이는 낙후될 수도 있다.(단체 대표자)(CKL010)

6)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모어도 잘못할 때 아이를 외국어학원에 보내면 아이가 외국어를 잘 배우지 못할뿐더러 모어도 잘 할 수 못해지겠다.(단체 대표자)(CKL019)

예문1)에서 '나'를 통해 필자의 주장을 펼쳐 '주장 가진 자'의 정체성을 구축하였다. 예문2)에서 '나'를 통해 필자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여 '개인 경험 서술자'라는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예문3)에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가진 견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표현하여 '견해 가진 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냈다. 예문4)에서 '저'를 통해 조기 외국어 학습에 찬성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밝히고 아래에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언급하면서 논증을 전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즉 담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보여 준 '담화 구축자' 정체성을 구축하였다. 예문5)에서 '나'를 통해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부모의 견해를 표현하였다. 여기서 비록 '나'는 복수 인칭대명사가 아니지만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부모라는 단체를 가리켜서 '단체 대표자' 정체성을 드러냈다. 예문6)에서 복수 인칭대명사 '우리'로 '단체 대표자' 정체성을 구축하였다.

(2) 생략하기

생략하기는 '주장 가진 자'의 기능만 나타났는데 t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60) 'CKL'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가리키며 '026'은 연구 참여자 일련번호를 가리킨다.

〈표 7〉 생략하기의 기능별 비교 통계 결과

자기 언급 장치	기능	구분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양측)
생략하기	주장 개진 자	중국인	1.41	1.794	.000***
		한국인	.51	.92	

(***p<.001, **p<.01, *p<.05)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기 언급 장치를 생략하는 경우, 주로 ‘주장 개진 자’의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언급 장치가 생략되는 경우, 보통 ‘-ㄴ/는다고 생각하다/보다/믿다/사료되다’로 필자의 주장을 나타낸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7)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외국어 조기 교육 열풍에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주장 개진 자)(KNS019)

예문7)에서 ‘-다고 생각하다’로 필자가 조기 외국어 학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주어가 생략했지만 ‘-다고 생각하다’를 통해 주어가 바로 이 글의 필자임을 알 수 있다.

(3) 3인칭 대명사

3인칭대명사의 기능별 비교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3인칭대명사의 기능별 비교 통계 결과

자기 언급 장치	기능	구분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양측)
필자	답화 구축 자	중국인	.00	.000	.160
		한국인	.09	.417	
	주장 개진 자	중국인	.00	.000	.019*
		한국인	.18	.490	

	견해 가진 자	중국인	.00	.000	.323
		한국인	.02	.149	
	개인 경험 서술자	중국인	.00	.000	.044*
		한국인	.09	.288	

(***p<.001, **p<.01, *p<.05)

3인칭대명사 ‘필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텍스트에만 나타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주로 ‘주장 가진 자’와 ‘개인 경험 서술자’ 기능을 사용하였으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비교할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필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보편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소수의 필자의 텍스트에만 나타난 보편적이지 않은 현상이다. 아래에서 ‘필자’를 통해 구축한 필자 정체성을 살펴보자.

8) 필자는 본고를 통해 조기 외국어 학습을 찬성하는 입장을 펼치고자 하며, 필자의 근거는 기존에 찬성을 주장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담화 구축 자)(KNS004)

9) 필자는 위의 이론과 주장들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조기 외국어 교육을 지지하는 입장이다.(견해 가진 자)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의 사례에 비추어보아도 외국어 학습을 일찍 시작할수록 해당 언어에 쉽게 익숙해지는 것 같고, 특히 발음이나 회화능력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개인 경험 서술자)(KNS004)

10)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필자는 조기 외국어 학습에 동의하는 바이다.(주장 가진 자)(KNS005)

예문8)에서 밑줄 친 ‘필자’는 아래에서 어떤 근거를 들 것인지를 말해 주었다. 이를 통해 담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보여 준 ‘담화 구축 자’ 정체성을 드러냈다. 예문9)에서 첫 번째 ‘필자’는 위에 제시된 이론과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것으로 ‘견해 가진 자’라는 정체성을 구축했으며 두 번째 ‘필자’는 개인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것으로 ‘개인 경험 서술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냈다.

예문10)에서 '필자'는 조기 외국어 학습에 찬성한다는 필자의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주장 개진 자'라는 정체성을 구축하였다.

(4) 추상적 주체

추상적 주체는 '본고'와 '이 글' 등 표현으로 나타내며 기능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추상적 주체의 기능별 비교 통계 결과

자기 언급 장치	기능	구분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양측)
본고/ 이 글	담화 구축 자	중국인	.00	.000	.323
		한국인	.02	.149	
	주장 개진 자	중국인	.00	.000	.160
		한국인	.04	.208	

(***p<.001, **p<.01, *p<.05)

'본고'와 '이 글' 등 추상적 주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의 텍스트에만 나타났다. 추상적 주체를 통한 자기 언급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텍스트에도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며 빈도수가 아주 낮은 것이다. 학술적 텍스트에서 '본고', '본 연구' 등 추상적 주체로 필자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찬반 논의에 관한 논증적 글에는 잘 맞지 않는 표현일 수 있다. 아래에서 '본고/이 글'의 예를 살펴보자.

11) 필자는 본고를 통해 조기 외국어 학습을 찬성하는 입장을 펼치고자 하며, 필자의 근거는 기존에 찬성을 주장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주장 개진 자)(KNS004)

12) 이 글에서는 조기 외국어 학습에 대해서 뇌인지 발달 측면과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할 것이다.(담화 구축 자)(KNS027)

예문11)에서 '본고'를 통해 필자의 주장을 밝혀 '주장 개진 자' 정체성을 표현

했으며 예문12)에서 '이 글'을 통해 뇌인지 발달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논증을 전개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 '담화 구축 자' 정체성을 드러냈다.

3) 논의

위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자기 언급 장치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1인칭 대명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데 비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생략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논증적 텍스트에서 필자로서의 존재를 명확히 표현하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는 필자로서의 존재를 감추는 경향을 보여 주고 숨겨진 자아를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 논증적 텍스트의 장르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는 객관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객관적 논증을 구축해야 한다.⁶¹⁾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의 경우, 필자는 공적 존재로 드러나야 하고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담화 관습에서 허용되지 않는다.⁶²⁾ 그래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논증적 텍스트에서 자기 언급을 할 때 생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보다 자기 언급 장치를 덜 사용하여 숨겨진 자아를 드러냈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쓰기 교수자가 중한 논증적 텍스트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필자 정체성 구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와 한국어 학습자는 중한 논증적 텍스트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⁶³⁾ 중한 논증적 텍스트의 차이를 잘 모른다면 중국어

61) 물론 중국어 논증적 텍스트도 객관성을 요구한다. 그런데 중국어 논증적 텍스트는 객관성 외에 예술성도 강조하고 문학적 재주를 중요하게 다룬다는 특성이 있다. 문학적 재주를 중요하게 다루다 보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관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예술성과 문학적 재주에 대한 강조는 주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별도의 문제로 후속연구에서 다루겠다.

62) 민정호, 「학위논문의 수사적 맥락에서 대학원 유학생의 필자 정체성 분석-서론에서 입장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제13권 5호,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22, p. 135.

논증적 텍스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어 논증적 글을 쓸 때 숨겨진 자아를 표현해야 하는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필자로서의 자아를 명확히 표현하였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필자 정체성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음을 알려 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필자 정체성 구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의 특성, 중한 논증적 텍스트의 차이,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등이 있어 필자 정체성 교육에서 단순히 자기 언급 장치를 사용하지 말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의 특성과 중한 논증적 텍스트의 차이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 자기 언급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표현으로 하는지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고에서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자기 언급 장치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필자 정체성 구축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기 언급 장치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1인칭 대명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논증적 텍스트에서 필자로서의 자아를 명확히 드러낸 데 비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숨겨진 자아를 표현하였음을 말해 주었다. 이런 차이의 원인으로는 우선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쓰기 교수가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도 필자 정체성 구축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 필자 정체성 구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향후 필자 정체성 구축이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의 점수에 대한 설명력이 어떠한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필자 정체성 교육 내용 마련 등에 관한 연구

63) 맹강, 앞의 책, pp. 184-185.

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맹강,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개입’을 중심으로』, 태학사, 2022.
Ivanič, R., *Writing and Identity: The Discoursal Construction of Identity in Academic Writing*.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8.

2. 논문

- 맹강,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개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_____, 「주제별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논거 연구-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0 7, pp. 29-55.
- _____,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어려움과 극복 전략 연구-중국인 한국어 전공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5-2, 국어교육학회, 2020 4, pp. 73-111.
- 맹강·만천옥,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의 필자 목소리 모형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2021, pp. 59-93.
- 민병곤, 「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 : 6, 8, 10학년 학습자의 작문 및 토론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민정호, 「대학원 유학생의 필자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제언」, 『인문사회 21』 11(2), 아시아문화연구소, 2020 7, pp. 199-210.
- _____, 「박사 유학생의 필자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제언: 학술적 글쓰기에서 담론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33,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0 4, pp. 298-321.
- _____, 「학위논문의 수사적 맥락에서 대학원 유학생의 필자 정체성 분석-서론에서 입장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제13권 5호,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22, pp. 131-156.
- 제효봉,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텍스트에 나타난 모국어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조인옥,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설 텍스트에 나타난 모국어 영향 특성 연구: 중국 산

- 동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高霞, 「基於中外科學家可比語料庫的第一人稱代詞研究」, 『外語教學』 36(2), 2015, pp. 30-34.
- 李民·肖雁, 「英語學術語篇互動性研究——以第一人稱代詞及其構建的作者身份為例」, 『西安外國語大學學報』 26(2), 2018, pp. 18-23.
- 李娜·李忠慶, 「學術文章中的“寫作者聲音”——基於語料庫的跨學科和語言的對比研究」,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36(4), 2013, pp. 17-23+40+127.
- 柳淑芬, 「中英文論文摘要中作者的自稱語與身份構建」, 『當代修辭學』 166, 2011, pp. 85-88.
- 婁寶翠·王莉, 「學習者學術英語寫作中自我指稱語與作者身份構建」,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43(1), 2020, pp. 93-99+160.
- 歐陽護華·唐適宜, 「中國大學生英語議論文寫作中的作者身份」,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29(2), 2006, pp. 49-53.
- 阮先玉·龍仕文, 「英語學術論文中作者身份跨文化對比研究」, 『社會科學家』 10, 2014, pp. 152-155.
- 王月麗·徐宏亮, 「中國英語學習者學術寫作中第一人稱使用發展特征與身份構建研究」, 『外語教育研究前沿』 2(3), 2019, pp. 58-64+92-93.
- 吳格奇, 「學術論文作者自稱與身份構建——一項基於語料庫的英漢對比研究」,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36(3), 2013, pp. 6-11+127.
- 楊欣然, 「二語學術寫作中的自我指稱與作者身份構建」, 『外語與外語教學』 283, 2015, pp. 50-56.
- 陳菁 외, 「中外學者醫學SCI論文作者身份構建研究——第一人稱代詞視角下的共時對比和歷時演變」, 『中國科技期刊研究』 30(12), 2019, pp. 1352-1359.
- Birdsong, D., "Age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processing: A selective overview", *Language Learning* 56, 2006, pp. 9-49.
- Bucholtz, M. & K. Hall., "Identity and Interaction: A Sociocultural Linguistic Approach", *Discourse Studies*, 7(4-5), 2005, pp. 585-614.
- Çandarlı, D., Y. Bayyurt & L. Marti., Authorial presence in L1 and L2 novice academic writing: Cross linguistic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s,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20(2), 2015, pp. 192-202.
- Chen, R., "Single author self-reference: Identity construction and pragmatic competence",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45, 2020, pp. 1-14.
- Dueñas, P. M., "We focus on...': A cross-cultural analysis of self-mentions in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articles",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6(2), 2007, pp. 143-162.

- Fløttum, K., T. Kinn & T. Dahl, "We now report on. . . ." versus "Let us now see how...": Author roles and interaction with readers in research articles, in K. Hyland & M. Bondi(Eds.), *Academic Discourse across Discipline*, Bern: Peter Lang, 2006.
- Harwood, N., Nowhere has anyone attempted... In this article I aim to do just that: A corpus-based study of self-promotional I and we in academic writing across four disciplines, *Journal of Pragmatics*, 37, 2005a, pp. 1207-1231.
- Harwood, N., I hope to counteract the memory problem, but I made no impact whatsoever: Discussing methods in computing science using I,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4, 2005b, pp. 243-267.
- Hyland, K., Humble servants of the discipline? Self-mention in research articl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0(3), 2001, pp. 207-226.
- Hyland, K., Authority and invisibility: Authorial identity in academic writing, *Journal of Pragmatics*, 34(8), 2002, pp. 1091-1112.
- Kuo, C. H., The use of personal pronouns: Role relationships in scientific journal articl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8(2), 1999, pp. 121-138.
- Lazaraton, A., "Gesture and speech in the vocabulary explanations of one ESL teacher: A microanalytic inquiry", *Language Learning* 54, 2004, pp. 79-117.
- Matsuda, P. K. & Tardy, C. M., "Voice in academic writing: The rhetorical construction of author identity in blind manuscript review",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6, 2007, pp. 235-249.
- Tang, R. & S. John, "The'I'in identity: Exploring writer identity in student academic writing through the first person pronou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8(4), 1999, pp. S23-S39.
- Tardy, C. & P. K. Matsuda., "The Construction of Author Voice by Editorial Board Members", *Written Communication*, 26(1), 2009, pp. 32-52.
- Zareva, A., "Self-mention and the projection of multiple identity roles in TESOL graduate student presentations: The influence of the written academic genr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32(2), 2013, pp. 72-83.

논문 접수 일	2023년 11월 10일
심사 완료 일	2023년 11월 19일
게재 확정 일	2023년 12월 08일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identity between Chinese Korean learners
and Korean native speakers

-Focus on the self mention devices in Korean argumentative texts-

Meng Gang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the identity between Chinese Korean learners and Korean native speakers, and reveal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o this end, a quantitative comparison was made between the self mention devices in argumentative texts of Chinese Korean learners and Korean native speaker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compared to Korean native speakers, Chinese Korean learners used more self mention devices. Moreover, compared to Chinese Korean learners who prefer first person pronouns, Korean native speakers prefer ellipsis. This means that compared to Chinese Korean learners who explicitly express their existence as the author in argumentative texts, Korean native speakers do not explicitly express their existence as the author, but rather expose their hidden selves. This difference stems from the differences in the genres of argumentative articl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as well as the lack of understanding among Chinese Korean professors and learners about the differences in the genres of argumentative articl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Keyword Chinese Korean learners, Korean native speakers, identity, self mention devices, argumentative texts

论朝鲜古代诗话『破闲集』之艺术精神

蒋琴青*

국문요약

고려 중엽 문단 거장인 이인로(李仁老)가 저술한 『파한집(破閑集)』은 한시, 산문, 회화, 음악, 서예 등 예술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파한(破閑)’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당시 문인들의 공통적으로 갈망했던 인격 정신을 보여주며 한가로움과 자유적인 예술 창작과 감상이 당시 문인들의 심미적인 삶을 나타낸다. 『파한집』의 수록한 번잡하고 각종 범주의 내용에서 유가(儒家) 도덕과 예술을 통합하는 예술정신이 보여지면서 자연과 예술이 ‘장학(庄學)’과 ‘현학(女學)’의 영향을 받아 하나로 어우러지는 예술적 정신이 드러난다. 이인로는 장자(莊子)의 예술과 예술 감상력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구체적인 창작 실천에 적용한다. 그리고 위진(魏晉) 현학 사조에서의 인물품평을 이어받아 현학적 시선으로 당시의 인물을 평가하고 예술을 품평한다. 결국, 이인로는 예술정신의 순수한 공간을 자연의 산수에 안착시켜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고려, 이인로, 『파한집』, 유가(儒家), 장학(庄学), 예술정신

〈目象〉

1. 序论
2. 『破閑集』 题解及其艺术精神
3. 道德与艺术相统一的艺术精神
4. 自然与艺术合一的艺术精神
5. 结论

* 延边大学 外国语学院 东方文学专业 博士研究生

1. 序论

朝鲜古代第一部诗话『破闲集』由高丽李仁老所撰。李仁老(1152—1220),初名得玉,字眉叟,号双明斋,高丽时期庆源人。李仁老善书法,亦解绘画,诗、文、赋俱佳,尤工于诗,是高丽中后期著名诗人、诗学家;出身于当时的贵族家庭,早孤,无所依归,由大叔华严僧统廖一抚养,从叔父问学,渔猎三坟五典、诸子百家。李仁老为学有方,在广泛阅读经史子集以拓广视野的同时,他从其中选择重要作家瞻仰其为人、精研其著作,如李仁老的“学苏”与“慕陶”。陶渊明与苏轼通达儒道出处之际的人生态度对李仁老思想体系的建构产生了深刻的影响。在高丽中叶武臣之乱的社会背景之下,李仁老能够因时调动自己的思想理论储备以安顿生命。1170年郑仲夫等武臣叛乱之时,李仁老入佛门避祸,后还俗。高丽明宗十年(1180)李仁老进士科状元及第,后以书状官的身份出使中国。李仁老还曾仿效中国的“竹林七贤”,与当时的名士林椿、李湛之、吴世才、皇甫沆、赵通、咸淳等人放歌纵酒,赋诗相娱,世称“竹林高会”“竹高七贤”“海左七贤”¹⁾;著有『银台集』二十卷、『后集』四卷、『双明斋集』三卷、『破闲集』三卷,著作颇丰,惜多亡佚,现仅『破闲集』和『东文选』中部分诗文传于世。李仁老的『破闲集』在高丽文学艺术领域发挥了重要的作用,高丽中后期文人崔滋在李仁老『破闲集』的基础上续著『补闲集』一书,崔滋的『补闲集』所收内容更为丰富,理论见解也更为成熟,然其思想旨趣偏重儒家;反倒不如『破闲集』充分吸收儒道两家之艺术精神,并将其与朝鲜民族本土传统相结合,从而结出了属于古代朝鲜的文化果实。

『破闲集』于高丽中后期的兴起是诸多因素共同作用的结果。从高丽内部因素来看,高丽前期社会稳步发展,统治阶层大力扶植宗教文化的发展,科举取仕制度的实施使汉文化、汉文学在士大夫阶层得以普及。由于文学创作的日渐成熟,以及书法、绘画等多种文艺形式的并行发展,急需与之相应的文艺理论观念指导实践。再加上高丽中期以来诗歌创作出现种种流弊,“科诗”之

1) 赵钟业,『中韩日诗话比较研究』,台湾:台湾学海出版社,1984, pp.228.

风和浮靡文风蔓延文坛，因此总结前期创作经验和改革当下文风是李仁老所处时代的迫切需求。此外，高丽中后期内忧外患的刺激、士大夫阶层的精神觉醒等都构成了高丽诗话产生的诱因。从外部条件来看，高丽与宋朝始终保持着外交往来，据统计，“整个北宋时期的168年之中，高丽派遣朝宋的使节就多达63次，北宋派往高丽的使节则有24次。”²⁾ 两国的交往中，文化交流是其重要方面。宋代及宋之前中国的历代典籍乃至社会风尚流播朝鲜半岛，对高丽士大夫阶层的精神世界和文艺创作产生了重大的影响，尤其是“中国诗话的传入和唐宋文论的影响，为高丽诗话的产生起到了直接的促媒作用。”³⁾ 『破闲集』正是在这样的历史条件和文化背景之下应运而生。

目前，中国学界对『破闲集』的研究：有『破闲集』诗学批评研究，如张振亭和金海救的「论李仁老诗学批评的逻辑体系」⁴⁾、马东峰和贺广跃的「『破闲集』意象批评研究」⁵⁾；有『破闲集』与中国诗话的渊源和比较的研究，如马金科的「『六一诗话』与高丽诗话『破闲集』之比较」⁶⁾、徐志嘯的「韩国诗话『破闲集』与中国诗话的渊源」⁷⁾和「韩国诗话『破闲集』之中国影响论」⁸⁾；也有『破闲集』对韩国古代诗话和古典文学的影响与比较的研究，如朴哲希和马金科的「从『破闲集』看朝鲜高丽朝中后期的文学生态」⁹⁾、王进明的「从民族文学自觉意识视角看『破闲集』对徐居正的影响

2) 彭林，『中国礼学在古代朝鲜的传播』，桂林：广西师范大学出版社，2020，p.41.

3) 李岩，『中韩文学关系史论』，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3，p.238.

4) 张振亭·金海救，「论李仁老诗学批评的逻辑体系」，『延边大学学报』第5期，2008，pp.62-66.

5) 马东峰·贺广跃，「『破闲集』意象批评研究」，『韩中人文研究』第80辑，2023，pp.213-232.

6) 马金科，「『六一诗话』与高丽诗话『破闲集』之比较」，『延边大学学报』第4期，1992，pp.41-45.

7) 徐志嘯，「韩国诗话『破闲集』与中国诗话的渊源」，『当代韩国』第3期，1998，pp.68-72.

8) 徐志嘯，「韩国诗话『破闲集』之中国影响论」，『中外文化与文论』第5辑，1998，pp.126-136.

9) 朴哲希·马金科，「从『破闲集』看朝鲜高丽朝中后期的文学生态」，『域外汉籍研究集刊』第十八辑，2019，pp.125-139.

」¹⁰⁾、姜夏和尹允镇的「高丽时期诗论『补闲集』与『破闲集』比较」¹¹⁾；还有李佳蔚的「“同源异流”——『破闲集』与『济北诗话』对中国唐宋诗学接受比较研究」¹²⁾将『破闲集』置于东亚诗学体系当中，探讨了这两部作品中体现出的东亚诗学的共性以及各自衍生出的本土特色。韩国学界关于『破闲集』的研究更加全面和深入，代表性成果有文献学方面的考证和文学价值的研究，如郑墀谟「『파한집』 판각에 있어서의 침삭문제와 그 문학사적 의의 - 『파한집』 편찬시기 및 편찬의도의 신고찰을 바탕으로」¹³⁾和「李仁老『破闲集』研究」¹⁴⁾、李英娥「『破闲集』에 나타난眉수의文学观」¹⁵⁾、辛泳周「『파한집(破闲集)』 소재 시의 전고 활용과 형상화에 관한 고찰」¹⁶⁾、李善美「李仁老의文学世界：『破闲集』을 중심으로」¹⁷⁾、薛重焕「『파한집』의수필문학적 성격」¹⁸⁾、崔胜范「诗话随笔考 - 『破闲集』을中心으로」¹⁹⁾、허석도「『破闲集』研究」²⁰⁾；还有将『破闲集』与『补闲集』进行比较的，如金镇

-
- 10) 王进明, 「从民族文学自觉意识视角看『破闲集』对徐居正的影响」第1期, 『延边教育学院学报』, 2015, pp.4-8.
 - 11) 姜夏·尹允镇, 「高丽时期诗论『补闲集』与『破闲集』比较」, 『历史文化研究』第9期, 2017, pp.106-111.
 - 12) 李佳蔚, 「“同源异流”——『破闲集』与『济北诗话』对中国唐宋诗学接受比较研究」,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2020.
 - 13) 郑墀谟, 「『파한집』 판각에 있어서의 침삭문제와 그 문학사적 의의 - 『파한집』 편찬시기 및 편찬의도의 신고찰을 바탕으로-」, 『汉文学报』第10辑, 2004, pp.3-42.
 - 14) 郑墀谟, 「李仁老『破闲集』研究」, 『域外汉籍研究集刊』第十九辑, 2020, pp.85-114.
 - 15) 李英娥, 「『破闲集』에 나타난眉수의文学观」, 庆北大学硕士学位论文, 1982.
 - 16) 辛泳周, 「『파한집(破闲集)』 소재 시의 전고 활용과 형상화에 관한 고찰」, 『东方汉文学』第87辑, 2021, pp.7-33.
 - 17) 李善美, 「李仁老의文学世界：『破闲集』을 중심으로」, 东国大学校硕士学位论文, 1992.
 - 18) 薛重焕, 「『파한집』의수필문학적 성격」, 『안암어문학회』第21辑, 1980, pp.33-54.
 - 19) 崔胜范, 「诗话随笔考 - 『破闲集』을中心으로-」, 『동방시화학회』第3-4合辑, 2001, pp.677-697.
 - 20) 허석도, 「『破闲集』研究」, 岭南大学硕士学位论文, 1987.

英的「『破闲集』·『补闲集』의 诗学의 研究」²¹⁾；有研究『破闲集』与中国诗话渊源的，如梁晶莹「丽末鲜初韩国诗话集中的中国诗学接受情况研究——『破闲集』和『东人诗话』为中心」²²⁾。中、韩两国学界对『破闲集』的研究已经取得了可喜的成果，这些成果主要集中在三个方面，一是诗学思想的研究，二是『破闲集』与中国诗话的渊源，三是『破闲集』对韩国古代诗话和古典文学的影响与比较的研究。目前尚无针对『破闲集』艺术精神进行专题研究的成果，然而『破闲集』广泛探讨诗、文、绘画、音乐、书法等艺术的创作与欣赏，因此，通过对『破闲集』创作旨趣的探讨，挖掘其内涵的艺术精神具有重要的意义。

2. 『破闲集』题解及其艺术精神

有谓“名不正，则言不顺”且“君子于其言，无所苟而已矣”，君子对于他所言说的对象是不可以随便的。本着循名责实的态度来看，何为“闲”？何为“破闲”？又为何命名为“破闲”？对这些问题的进一步追问，于『破闲集』为文宗旨与艺术精神的探讨实有不可忽视的意义。

“破闲”之“闲”，繁体为“閑”，“閑”在此处实为“閒暇”之“閒”的假借。关于“闲”与“閒”的关系，裘锡圭先生指出：“对于‘閒’字的这个引申义，也就是‘闲暇’之‘闲’这个词来说，‘闲’是假借字；相对而言，‘閒’就是本字。”²³⁾因此，理解“破闲”之“闲”需从“閒”着眼。『说文解字』：“閒，隙也。”徐锴曰：“夫门夜闭，闭而见月光，是有閒隙也。”²⁴⁾由此可知，“閒”本义指门有空隙，指向空间方面；“由于词义引申，又用来指时间上有空闲，读音也发生了变化。”²⁵⁾从

21) 金镇英，「『破闲集』·『补闲集』의 诗学의 研究」，『国语国文学会』第4期，1995，pp.85-114.

22) 梁晶莹，「丽末鲜初韩国诗话集中的中国诗学接受情况研究——『破闲集』和『东人诗话』为中心」，亚洲大学博士学位论文，2021.

23) 裘锡圭，『文字学概要』（修订本），北京：商务印书馆，2013，p.174.

24) 许慎撰，徐铉校订，『说文解字』，北京：中华书局，2013，p.249.

25) 裘锡圭，同上，p.174.

文献来看，至晚在春秋战国时期，“閒”已经有了时间上的空闲、闲暇之意，如『楚辞·九歌·湘君』：“交不忠兮怨长，期不信兮告余以不闲。”王逸注“闲，暇也。”²⁶⁾由时间上的空闲、闲暇进一步引申，就有了人的心理情感方面的安闲、自得之意，如『诗经·魏风·十亩之间』：“十亩之间兮，桑者闲闲兮，行与子还兮。”朱熹注：“闲闲，往来者自得之貌。”²⁷⁾由此可知，早在春秋战国时期，“闲”²⁸⁾的储存义²⁹⁾已兼具了时间上的闲暇与情感上的悠闲自在之意，从而李仁老“破闲”之“闲”的使用义也便有了基础。

李仁老承袭北宋欧阳修『六一诗话』所开创的“以资闲谈”的精神，其『破闲集』一书内容繁杂，举凡诗、文、绘画、音乐、书法及文房四宝、天文地理、历史遗物、人物掌故、人伦鉴识、民俗风情、科举制度等等都是其艺术鉴赏的对象。“闲谈”是文人闲暇时的一种活动，而能“闲谈”者必有“闲情”，“闲情”往往具有超功利、无目的的特性，由此便与艺术创作有了关联，此时“闲”便指向了主体的审美意识以及主体所能达到的精神境界，“破闲”之“闲”的使用义即是由时间上的宽裕休息而引起的心理上的自由舒适，并以此为基础而引申开去，这从“闲”之字源发展上也能得到进一步地确认。李仁老以“破闲”为此书的创作旨趣，从而将一种“闲”的精神灌注于全书。关于“破闲”，李仁老之子李世黄于『破闲集』跋中有一段记述：

（李仁老）又谓侪辈曰：“吾所谓‘闲’者，盖功名名遂、悬车绿野、心无外慕者，又遁迹山林、饥食困眠者，然后其‘闲’可得而全矣。然寓目于此，则‘闲’之全可得而‘破’也。若夫汨尘劳役名宦，附炎借热，东骛西驰者，一朝有失，则外貌似闲而中心汹汹，此亦闲为病者也。然寓目于此，则‘闲’之病亦可得‘医’也。若然，则不犹愈于博奕之贤乎？”³⁰⁾

26) 王逸 撰，黄灵庚 点校，『楚辞章句』，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7，p.46.

27) 朱熹 撰，赵长征 点校，『诗集传』，北京：中华书局，2017，p.100.

28) 下文“閒”、“闲”均写作简体“闲”字。

29) “词在储存状态中的意义叫储存义，在使用状态中的意义叫使用义。”详见王宁，『训诂学原理』，中国国际广播出版社，1996，p.37.

30) 李仁老 著，『破闲集』，蔡美花·赵季 编，『韩国诗话全编校注』（一），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2，p.43.

由这段记载来看，李仁老所谓“闲”指向两类人群：一是“功成名遂、悬车绿野、心无外慕者”；二是“遁迹山林、饥食困眠者”。前者是儒林士子追求的人生理想；后者则为山林隐遁之士的心灵归宿。达到这两种境界的人，“其闲可得而全矣”。“闲可得而全”，艺术精神的主体即由此而产生。分而析之：

儒家之“闲”是达志之闲，反过来又要求闲以达志。『礼记·仲尼燕居』与『礼记·孔子闲居』分别记载了孔子“闲居”的生活。『礼记·仲尼燕居』，郑玄注：“善其不倦，燕居犹使三子侍，言及于礼。著其字，言可法也。退朝而处曰‘燕居’。”³¹⁾『礼记·孔子闲居』，郑玄注：“名‘孔子闲居’者，善其倦而不衰，犹使一子侍，为之说『诗』。著其氏，言可法也。退燕避人曰‘闲居’。”³²⁾『论语·述而』也有孔子“燕居”的记载：“子之燕居，申申如也，夭夭如也。”朱熹『论语集注』：“燕居，闲暇无事之时。”³³⁾由此可知，孔子之“燕居”“闲居”不是道家的隐遁无事之闲，而是工作之余的闲暇时光；孔子在“燕居”“闲居”之时衣冠整齐、容貌和乐舒展，从事传道授业的“业余”活动；此“业余”活动彰显出君子“闲居”以达志的精神追求，从而区别于“外貌似闲而中心汹汹”之辈的“闲居为不善”。因此，由孔子所开创的儒家之所谓“闲”实与人的道德修养相关联，儒家之“闲”既可以在功成名就之后得以安顿，也可在人伦日用中得以寄托。

道家之“闲”则是“自然”之闲。这里，“自然”既指向自然界；也指向万物之“自己如此”³⁴⁾，落实于人则呈显为人的心灵世界之本然。冯友兰先生在『中国哲学简史』中阐述“中国的诗歌与艺术”时，指出道家“对于精神自由运动的赞美，对于自然的理想化，使中国的艺术大师们受到深刻的启发。”³⁵⁾『老子』开创了道家“法自然”的传统，而“对于精神自由运动的赞美，对于自然的理想化”，极其至则在『庄子』。『庄子』一书中，“闲”字反复出现，兹略举一例：

31) 阮元 校刻，『十三经注疏』（下），北京：中华书局，1980，p.1613.

32) 上文，p.1616.

33) 朱熹 撰，『四书章句集注』，北京：中华书局，2012，p.93.

34) 徐夏观，『中国艺术精神』，北京：九州出版社，2020，p.262.

35) 冯友兰 著，涂又光 译，『中国哲学简史』，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3，p.23.

“……就蓺泽，处闲旷，钓鱼闲处，无为而已矣。此江海之士，避世之人，闲暇者之所好也……。若夫不刻意而高，无仁义而修，无功名而治，无江海而闲，不导引而寿，无不忘也，无不有也。淡然无极而众美从之。此天地之道，圣人之德也。”³⁶⁾（『庄子·刻意』）李仁老所言“遁迹山林、饥食困眠者”，正是『刻意』篇里的“江海之士，避世之人，闲暇者”。“蓺泽”“闲旷”属于天地自然，为“闲暇者”所好。“闲暇者”“就”“处”“钓鱼”于其中，呈现出来的便是一幅天人合一之境。这种“处江湖之远”便可心远、心闲的境界虽是庄子精神中应有之义，且在后世文人中得到了追捧，然这并非庄子之终极追求。庄子是可以“无江海而闲”的，“陆沉”人间世，以做逍遥游，这才是庄子追求的心灵自然之“闲”。所以，由『庄子』所开创的道家之所谓“闲”既可借托身自然界而得以实现，也可在人的心灵世界得以落实。

通过以上论述，“闲”之内涵在儒道两家艺术精神主体中便得以落实，而儒道兼通也正是李仁老思想体系建构的基础。那么，何谓“破闲”？“破”是突破，艺术精神有赖主体心灵的突破而得以扩充和上升，从而实现延续和超越。鉴赏者“寓目于此”，便可与“此”中两种境界交融混冥，从而当下即可体验“闲”的情调；至于陷溺于世俗琐事、疲役于高位权谋，终日营营以奔逐名利之辈，一朝有失，身“闲”而心愈躁，然其“寓目于此”，亦可医“闲之病”。需加留意的是，破“闲之全”的“闲”是真正的艺术精神，而医“闲之病”的“闲”只是披上了一层艺术精神的外衣，其内里则是不伦不类。

『破闲集』之书名及后跋提点出：本书之艺术精神一方面显示出由孔子所开创出的道德与艺术的统一，另一方面则主要呈显为由庄子所显现出的自然与艺术的合一。

36) 郭庆藩 撰，王孝鱼 点校，『庄子集释』，北京：中华书局，2013，p.476.

3. 道德与艺术相统一的艺术精神

高丽时期儒佛道并存，高丽文宗于公元958年效仿唐朝设立科举取仕，考试内容以儒家经典为主，儒家以“仁”为核心的思想逐渐影响了高丽文人士大夫的精神旨趣。李仁老谈及文房四宝中“墨”的制作之艰时，曾以“仁者之语”称引唐代李绅的〈悯农〉，其文如下：

文房四宝皆儒者所须，唯墨成之最艰。然京师万宝所聚，求之易得，故人人皆不以为贵焉。及仆出守孟城，承都督府符造供御墨五千挺，趁春月首纳之。乘遽到孔岩村，驱民采松烟百斛，聚良工躬自督役，弥两月云毕。凡面目衣裳皆有烟煤之色，移就他所洗浴良苦，然后还城。事后见墨虽一寸，重若千金，不敢忽也。因念世人所受用，如剡藤薪竹、蜀锦吴绫皆类此。古人云〈悯农〉诗：“谁知盘中餐，粒粒皆辛苦。”诚仁者之语也。³⁷⁾

李绅的这首〈悯农〉诗语言质朴无华，却能脍炙人口，就在于它反映出了那个时代整个农民阶层如水深火热般艰难的生活。李仁老因体察墨制作之艰难而产生了“谁知盘中餐，粒粒皆辛苦”的深情悲叹，这种推己及人的同情心展现出的正是“仁者”的胸怀。徐夏观先生在『中国艺术精神』一书中申明孔门是“为人生而艺术”³⁸⁾，“艺术是人生重要修养手段之一；而艺术最高境界的达到，却又有待于人格自身不断的完成。”³⁹⁾人格之完善与艺术境界之提升实乃相辅相成，这也是孔门如此重视诗教的原因之一。『诗经』集中代表了中国先秦时代诗歌艺术的伟大成就，而其中表现出的强烈的道德意识、关注政治与现实的热情以及真诚的人生态度，是儒家以道德为本的艺术精神的彰显。“孔门为人生而艺术的精神，唐以前是通过『诗经』的系统而发展。”⁴⁰⁾早在七百年前，李仁老已经意识到了这一问题：

37) 李仁老，同上，p.4.

38) 徐夏观，同上，p.44.

39) 上文，p.51.

40) 上文，p.63.

自「雅」缺「風」亡，詩人皆推杜子美為獨步。豈唯立語精硬，刮盡天地菁華而已。雖在一飯未嘗忘君，毅然忠義之節，根於中而發於外，句句無非稷契口中流出，讀之足以使儒夫有立志。“玲瓏其聲，其質玉乎？”蓋是也。昨見金相國永夫〈有感〉詩云：“近聞鄰國勢將危，拓地開疆在此時。素髮飄飄霜雪落，丹心耿耿鬼神知。廉頗能飯非無意，去病辭家亦有為。默默此懷無處說，每逢樽酒醉如泥。”其拳拳憂國之誠，老而益壯，凜然與泰華爭高，真可仰也。公平生使酒狂氣，雖王公大人，皆憚之。幼時夢游大內出球庭，有酒瓮數百森列，而兩三瓮始傾。問之，云：“此進士金永夫所飲酒也。”張公三十六爐之錢信矣。⁴¹⁾

孔門重視詩教，孔子以一言概括『詩經』曰：“思無邪”。朱熹『論語集注』引程子語：“思無邪”者，誠也。⁴²⁾“誠者，真實無妄之謂，天理之本然也。”⁴³⁾『詩經』中「雅」、「風」的篇目中那些满怀愤怒、对于统治阶层进行的讽刺与批判的呐喊，那些仰望上苍、在绝望中对于命运无可奈何的哭嚎，都是诗人内心深处最真诚的声音。“思无邪”所代表的“诚”的质量是君子道德修养的起点。诗是艺术，诚乃道德。孔子所谓“兴于『诗』”⁴⁴⁾“诗，可以兴”⁴⁵⁾，都是强调要以诗歌来感发人之意志，引发个体向善求仁的自觉，“这也是古今真正伟大的艺术必备的效果。”⁴⁶⁾在儒家的思想体系中，道德的至善之域是“仁”，仁者的最高境界则是“圣”。然何谓“圣”？杜甫何以有“诗圣”之誉？李仁老给出了他的解释：杜诗“立语精硬，刮尽天地菁华”只是其中一个方面；而更为重要的是，杜甫“虽在一饭未尝忘君，毅然忠义之节”，所以他的诗是“根于中而发于外，句句无非稷契口中流出”。这里，“君”指君王，代表国家。杜甫之所以为“圣”，关键是因为他有一颗博大的同情心，他的心里始终惦念的是黎民百姓、家国天下。杜甫忧国忧民的情怀发言为诗歌，则呈显为沉郁顿挫的风格面貌。“读之足以使儒夫有立志”是说杜诗感发人之意志的作用，“作者纯净真

41) 李仁老，同上，p.17.

42) 朱熹撰，同上，p.54.

43) 上文，p.31.

44) 阮元校刻，同上，p.2487.

45) 阮元校刻，同上，p.2525.

46) 徐夏观，同上，p.57.

挚的感情，感染给读者，使读者一方面从精神的麻痹中苏醒；同时，被苏醒的是感情；但此时的感情不仅是苏醒，而且也随苏醒而得到澄汰，自然把许多杂乱的东西，由作者的作品所发出的感染之力，把它澄汰下去。这样一来，读者的感情自然鼓荡着道德，而与之合而为一。”⁴⁷⁾诗歌具有净化心灵的作用，吟诵杜诗可以使读者的精神得到激励和升华，即使怯懦的人也能藉此唤醒昂扬向上的生命活力。在李仁老看来，杜诗之所以有玲珑之声，乃因杜甫有圣人的美质，此即所谓“道德充实了艺术的内容，艺术助长安定了道德的力量。”⁴⁸⁾道德与诗艺在杜甫这里实现了统一。在李仁老看来，这种传统在高丽金永夫这里得到了继承，因此李仁老以“其拳拳忧国之诚，老而益壮，凛然与泰华争高”来评价金永夫的〈有感〉诗。由『诗』之「风」「雅」到杜诗再到金永夫之诗，皆反映出道德与诗艺相辅相成的作用，这也正是儒家由孔子显现出的道德与艺术的统一。

于儒家而言，以修身为本，从而指向“治国”“平天下”的理想抱负是其基本信念之一，既然艺术与个人的道德修养具有相辅相成的作用，那么以诗文之艺术水平选拔人才以参与治国理政便也是理所当然之事：

睿王尤重儒生，每间岁亲策贤良，先阅所纳卷子，以知其才。举子高孝冲，名士也，作〈四无益〉诗以斥君非。……后复应举，纳卷子春官，其首题曰：“寄语卷中诗赋论，与君相别在明春。汝为秘阁千年宝，我作青云第一人。”果擢龙头，翱翔省闕，谔谔有诤臣风。所至人皆指之曰：“是尝作〈四无益〉诗者。”⁴⁹⁾

高丽睿宗以“才”取儒，即是以诗文水平之高低选拔人才，这显然是意识到了艺术对人格修养的作用。而高孝冲之所以能作且敢作〈四无益〉诗以指斥君王之非，正因其“谔谔有诤臣风”。儒家以文艺修养选才取士，究其本质乃在于道德的“尽善”与艺术的“尽美”在根源处是相通的，即所谓“道通为一”。

47) 上文, p.56.

48) 上文, p.36.

49) 李仁老, 同上, p.28-29.

4. 自然与艺术合一的艺术精神

纵观『破闲集』一书，由儒家所开创的道德与艺术的统一并不是全书之主要精神，『破闲集』全书流淌的乃是庄学、玄学的血液。究其原因有二：其一，“儒家所开创的艺术精神，常须要在仁义道德根源之地，有某种意味的转换。没有此种转换，便可以忽视艺术，不成就艺术。……由道家所开出的艺术精神，则是直上直下的；因此，对儒家而言，或可称庄子所成就的为纯艺术精神。”⁵⁰⁾儒家仁义观的最高要求是成就道德精神而非艺术精神；即便成就了艺术精神，也是以仁义道德为核心的艺术精神，因此儒家“为人生而艺术的精神”并不成就“纯艺术精神”。道家以虚静之心应物，在庄子看来，“仁义之端，是非之涂，樊然殽乱”⁵¹⁾，人世的仁义与是非大都是出自人为的设定，并没有根本的依据。因此，庄子这里安设不下所谓仁义道德、是非分辨，更遑论名利权势，庄子的艺术精神直接由人格生成，他的虚静之心成就的便是“纯艺术精神”。其二，『破闲集』的作者李仁老是高丽“海左七贤”的领袖人物，“海左七贤”是以中国魏晋间的“竹林七贤”为榜样而结社的，而“自竹林名士开始，玄学实以『庄子』为中心。”⁵²⁾因此，『破闲集』主要呈现出来的正是以庄学、玄学为基底的艺术精神。

艺术创作是一种特殊的精神生产活动，好的艺术品要求创作者在进行创作活动时具备一些特殊的品质。李仁老显然已经意识到了这一问题，他在品评诗歌创作中“唱者”与“和者”的不同精神状态时写到：

诗之巧拙不在于迟速先后，然唱者在前，和之者常在于后，唱者优游闲暇而无所迫，和之者未免牵强堕险。是以继人之韵，虽名才往往有所不及，理固然矣。⁵³⁾

在李仁老看来，诗之巧拙的关键不在于创作时间之先后，而在于艺术精

50) 徐夏观，同上，p.173.

51) 郭庆藩 撰，王孝鱼 点校，同上，p.88.

52) 徐夏观，同上，p.262.

53) 李仁老，同上，p.11.

神主体的状态。唱者心无限隔、无挂碍，处于自然状态，能对所见所感之万事万物做美的观照，这是契合艺术之本性的；再发言而为诗，便自然可巧夺天工。和者的精神已为唱者所限，其韵律、题材必须在唱者之域进行，“戴着脚镣跳舞”，虽名才也难免有“牵强堕险”之弊。“优游闲暇而无所迫”即是『庄子』之所谓“游”。“游”字为『庄子』全书之大通之旨。⁵⁴⁾“能游的人，实即艺术精神呈现了出来的人，亦即是艺术化了的人。”⁵⁵⁾“游”在『庄子』一书中主要指向精神的自由解放，这是一种心灵的自然状态，也是创作主体的一种精神境界。通过对诗之“唱者”与“和者”两种不同精神状态及此不同状态下创作出来的作品的描述与对比中可以看出，李仁老眼中艺术精神的主体即是『庄子』所强调的“能游之人”。此外，李仁老还对艺术精神主体做出了正面直接的论述：“夫得道者之辞，优游闲淡而理致深远。”⁵⁶⁾“优游闲淡”是指“得道者”因摆脱了实用与功利的束缚而获得了精神的自由之境，因此便能直观万事万物，把握万事万物之本质，其言辞自然出口便能理致深远。综上，李仁老显然已经意识到一颗能够悠游自在的心灵，即艺术精神的主体。

李仁老不仅诗文修养深厚，于绘画艺术也造诣颇深。因其自身从事相关艺术创作，使得他对于艺术创作的见地颇为深刻：

碧萝老人尝以睡居士所画墨竹小屏赠仆，题白傅诗一句于后云：“管领好风烟，欺凌凡草木。”笔迹尤奇妙。仆尝学之，遇纸素屏障无不挥洒，自以谓得其仿佛。故作诗云：“余波犹及碧琅玕，自恐前身文笑笑。”然仆诚不工，仅得形似耳。堂兄千林堂头以纸屏求之，仆但写一枝，横跨四幅，而不及叶。有一画史见之曰：“此枝节非庸流所能，有东山墨戏风骨。”乃安八九叶于其间，便有萧然气势。昔潘岳得乐广之旨，缉成名笔。郑国之令东里犹润色之。今是竹也，亦雕琢之余，盘薄之巧，相资而成，吻然若出于炉锤之一手，可谓凝神矣。有赞之者曰：“乾坤一气，胡越同心。众妙之极，无迹可寻。”⁵⁷⁾

54) 王叔岷，『庄学管窥』，北京：中华书局，2007，p.181.

55) 徐夏观，同上，p.87.

56) 李仁老，同上，p.21.

57) 李仁老，同上，p.7.

李仁老因感于睡居士所画墨竹小屏和碧萝老人题白居易诗之笔迹，胸中有了强烈的表现冲动，所以“尝学之，遇纸素屏幃无不挥洒”。通过创作实践，李仁老总结到：“今是竹也，亦雕琢之余，盘薄之巧，相资而成，吻然若出于炉锤之一手，可谓凝神矣。”此处对艺术创作的认识均可在『庄子』里找到源头，李仁老又通过自身实践而加以印证。李仁老所谓“雕琢之余”与『庄子·应帝王』“雕琢复朴”⁵⁸⁾之语有着共同的指向，即是强调实践过程，侧重工夫。“盘薄之巧”出自『庄子·田子方』：“宋元君将画图，众史皆至，受揖而立，舐笔和墨，在外者半。有一史后至者，僮僮然不趋，受揖不立，因之舍。公使人视之，则解衣般礴裸。君曰：‘可矣，是真画者也。’”⁶⁰⁾郭象『注』曰：“内足者，神闲而意定。”⁶¹⁾一语中的。『庄子』笔下画史“解衣般礴”的故事为画论家所常引，画史的“后至”“僮僮然不趋，受揖不立”展现出他不受世俗礼法的限制；“解衣般礴”则彰显出他悠游自在的精神状态，这种精神状态正是艺术家的精神之境。由此可知，“盘薄之巧”强调内在修养，侧重本体。“相资而成”则是主张内与外、本体与工夫要交相涵养。若果如此，便能创作出“吻然若出于炉锤之一手”的艺术品。『庄子·大宗师』云：“夫无庄之失其美，据梁之失其力，黄帝之亡其知，皆在炉锤之间耳。”成玄英『疏』云：“故知自然造物，在炉冶之间，则是修学冶锻之义也。”⁶²⁾而李仁老所谓“出于炉锤之一手”正指出了好的艺术作品乃本体与工夫、自然与人为融会贯通的成果。最后，李仁老以“可谓凝神矣”统摄此前论述，“凝神”一语把握住了艺术创作的命脉。然而，这样的见识亦渊源有自，『庄子·达生』篇有一则“佝偻丈人承蜩”的寓言：“仲尼适楚，出于林中，见佝偻者承蜩，犹掇之也。……孔子顾谓弟子曰：‘用志不分，乃凝于神。其佝偻丈人之谓乎！’”⁶³⁾“乃凝于神”之神，是心与蜩的合一，

58) 郭庆藩 撰，王孝鱼 点校，同上，p.278.

59) “解衣般礴”之“般”，李云注曰：“‘般’又作槃。”王孝鱼校云：“赵谏议本般作槃。”『庄子集释』，第636页。按：“槃”为“盘”之异体字；『破闲集』“盘薄之巧”之“薄”当作“礴”。

60) 郭庆藩 撰，王孝鱼 点校，同上，p.635.

61) 上文，p.635.

62) 上文，p.255.

63) 上文，pp.567-569.

手(技巧)与心的合一。三者合为一体,此之谓凝于神。”⁶⁴⁾李仁老将自己画竹时心与竹、手与心三者融合为一的体验以“凝神”加以表述,既反映出他对『庄子』的心领神会,又通过对自身创作实践得以进一步证实。

在人伦鉴识方面,李仁老受“玄学”影响颇深。“竹林名士,在思想上实系以『庄子』为主,并由思辨而落实于生活之上;这可以说是性情的玄学。他们虽形骸脱略,但都流露出深挚的性情。在这种性情中,都含有艺术的性格。”⁶⁵⁾李仁老笔下的人物确有得中国魏晋间“竹林名士”之风神者:

尚书金子仪,肮脏有奇节。尝战艺春官,上梦见有人擢第,名曰“昌”。及开糊封,公在第二人,名晶。上骇异之。立朝劲谔有诤臣风,性嗜酒,醉则起舞,辄唱四海之歌。其所言皆国朝纲纪也。当时语曰:“宁逢虎兕,不逢金公醉。”方出按江南,上临轩戒之曰:“卿文章志节不愧古人,但饮酒多过差耳,三杯之后慎勿属口。”⁶⁶⁾

金子仪“肮脏”却能有“有奇节”,颇有“竹林名士”中嵇康的风度。嵇康曾描述自己:“性喜疏懒,筋弩肉缓,头面常一月十五日不洗,不太闷痒,不能沐也。”⁶⁷⁾『晋书』里则记载:“康早孤,有奇才,远迈不群。身長七尺八寸,美词气,有风仪,而土木形骸,不自藻饰,人以为龙章凤姿,天质自然。”⁶⁸⁾这里,金子仪的“肮脏”和嵇康的“头面常一月十五日不洗”是二人呈现出来的外在之形相,而这样的形相背后蕴藏的本质是“奇节”、是“奇才”。“在形相背后所蕴藏的,是作为一个人存在的本质。”⁶⁹⁾金子仪和嵇康由形相之“肮脏”化为本质之奇,这是由于他们的性情中含有艺术的性格。这种艺术的性格是“庄学在情调上的超越”⁷⁰⁾,庄子确有“化臭腐为神奇”的本领。『庄子』一书中虚构了大

64) 徐夏观, 同上, p.158.

65) 上文, p.183.

66) 李仁老, 同上, pp.18-19.

67) 嵇康 撰, 戴明扬 校注, 『嵇康集校注』, 北京: 中华书局, 2015, p.178.

68) 房玄龄等 著, 中华书局点校本, 『晋书』, 北京: 中华书局, 1974, p.1369.

69) 徐夏观, 同上, p.188.

70) 上文, p.189.

量形体丑陋残缺而德性完备之人，比如兀者王骀、兀者申徒嘉、兀者叔山无趾、恶人哀骀它、闾跂支离无脤、瓮盎大癭等等，这些人形相虽丑陋残缺，但无一不是魅力非凡的奇人。他们的魅力来自于他们的存在本质，也就是庄子所谓的“德”，这种德性的光辉不会因形体的丑陋而受到丝毫的影响，此即“庄学在情调上的超越”。“有这种超越的情调，才可以从形中发现神，乃至忘形以发现神。”⁷¹⁾由此，便可明了金子仪和嵇康的“奇节”“奇才”均是忘其形而其神自然显现的结果。

此外，“竹林名士”皆好放歌纵酒，而“嵇阮”之文章更是光耀千古。嵇康曾评骛阮籍“至性过人，与物无伤，唯饮酒过差耳。”⁷²⁾而金子仪也是“文章志节不愧古人，但饮酒多过差耳。”再如，黄纯益“有奇才……嗜酒少检束”⁷³⁾；朴公袭“居贫嗜酒”⁷⁴⁾，因作诗赢得灵通寺僧人以美酒相酬。那么，古往今来，何以文人墨客皆迷恋于这杯中尤物？究其原因，酒在一定程度上是庄子所谓“心斋”“坐忘”境界的催化剂，酒的酣逸有助于艺术家摆脱世俗事务的缠绕，使艺术家的心灵得到澄澈，这样的心灵是美化、是艺术化的心灵，艺术作品正是经由此种心灵的创作而产生。

儒家重“名教”，老、庄尚“自然”。而在『庄子』这里，“自然”即是“大美”“至美”，『庄子·知北游』云：“天地有大美而不言。……圣人者，原天地之美。”⁷⁵⁾“德将为汝美。”⁷⁶⁾庄子以天地、以德为“大美”“至美”，天地、德在『庄子』这里就是“自然”。而“自然”落实在具体艺术之上又常以“逸”字加以概括，徐夏观先生将唐代画论家张彦远以“自然者为上品之上”与黄休复『益州名画记』所谓“画之逸格，最难其俦”的论调相结合，指出“逸格即是得之自然，可知逸与自然是一而非二。”⁷⁷⁾李仁老在『破闲集』中谈及“逸”，要么指向人物

71) 上文, p.189.

72) 嵇康撰, 戴明扬校注, 同上, p.178.

73) 李仁老, 同上, p.31.

74) 上文, p.32.

75) 郭庆藩撰, 王孝鱼点校, 同上, p.649.

76) 上文, p.651.

77) 徐夏观, 同上, p.317.

性情之逸，要么指向艺术作品之逸，然皆具有美化、艺术化的特征。『破闲集』凡八处谈到“逸”，简彙如下：

(一) 鸡林人金生用笔如神，非草非行，迥出五十七种诸家体势……。毅王末年，大金使人盖益笔势奇逸，清河崔说购得之，常挂壁以赏之。⁷⁸⁾

(二) 琢句之法，唯少陵独尽其妙。……是以古之人，虽有逸材，不敢妄下手，必加炼琢之工，然后足以垂光虹蜺辉映千古。⁷⁹⁾

(三) 至若句锻季炼，朝吟夜讽，捻须难安于一字，弥年只赋于三篇，手作敲推直犯京尹，吟成大瘦行过饭山，意尽西峰钟撞半夜，如此不可缕举。及至苏黄，则使事益精，逸气横出，琢句之妙可以与少陵并驾。⁸⁰⁾

(四) 真乐公资玄，起自相门，虽寓迹簪组，常有紫霞逸想。⁸¹⁾

(五) 夫得道者之辞，优游闲淡而理致深远。虽禅月之高逸，参寥之清婉，岂是过哉？此古人所谓如风吹水，自然成文。⁸²⁾

(六) 文昌公崔致远……。自读书堂至洞口武陵楼几十里，丹崖碧岭，松桧苍苍，风水相激，自然有金石之声。公尝题一绝，醉墨超逸。过者皆指之曰“崔公题诗石”。其诗曰：“狂喷迭石吼重峦，人语难分咫尺间。常恐是非声到耳，故教流水尽笼山。”⁸³⁾

(七) 黄公纯益有奇才……。又和人鹤诗：“踏破径苔松脚健，舞翻庭月雪衣凉。”其俊逸如是，士林皆敬畏之。⁸⁴⁾

(八) 睿王时，有俊才姓郑者……。尝扈从长源亭题诗云：“风送客帆云片片，露凝宫瓦玉鳞鳞。绿杨闭户八九屋，明月倚楼三两人。”其语飘逸出尘皆类此。⁸⁵⁾

以上材料大致可分为两类。第一类为(二)(四)(五)(七)，描写人之逸，“逸材”“逸想”“高逸”“俊逸”是人伦鉴识的观念。在李仁老这里，(二)“逸材”指超群的诗才。(四)“逸想”则指思想从尘俗中得以超越，从而产生超

78) 李仁老，同上，pp.4-5.

79) 上文，p.12.

80) 上文，p.12.

81) 上文，p.19.

82) 上文，p.21.

83) 上文，p.26.

84) 上文，p.31.

85) 上文，pp.40-41.

尘出世的愿念。(五)“禅月之高逸，参寥之清婉”，“禅月”指唐末五代时期前蜀画僧、诗僧兼书法家贯休；“参寥”出自『庄子·大宗师』：“玄冥闻之参寥，参寥闻之疑始。”⁸⁶⁾参寥是庄子构想的人物，这里则代指庄子。这句话当为互文，指贯休、庄子精神境界之“高逸”与“清婉”。“逸即是由拔俗而把握到事物的真致。事物的真致是高出于流俗之上，所以是高逸，是清逸。寄情于事物之真致的人，从尘缚中解放了出来，所以他的生活态度也是高逸、清逸。”⁸⁷⁾又“清”则脱俗；“婉”是柔美，贯休与庄子一佛一道，其人格精神均呈显出相当的柔静高深、超尘脱俗之境。(七)李仁老引黄纯益和人鹤诗“踏破径苔松脚健，舞翻庭月雪衣凉。俊逸如是，士林皆敬畏之。”显然，在李仁老和当时士林眼中，“踏破径苔松脚健，舞翻庭月雪衣凉”是黄纯益日常行径的写照，“俊逸”乃由此生活形态而发显于外的精神气质；而“士林皆敬畏之”，一“皆”字彰显出“俊逸”乃当时高丽文人普遍向往的生活形态以及由此形态而发显于外的精神气质。此“俊逸”是透过黄纯益之诗而把握到的黄纯益的超越世俗的神态，由其诗而见其人格精神。第二类，(一)(三)(六)(八)为艺术作品之逸。其中(一)(六)为草书与笔迹之逸，(一)草书的“笔势奇逸”，“奇”字既可理解为草书迥异于其他字体的规矩、体势等，也含有此篇草书区别其他草书的特质之意；“逸”字则点明这种“奇”是拔俗之奇，因其高出众品之上，因此谓之“奇逸”。(六)“醉墨超逸”指崔致远于石头之上所留笔迹之灵动超脱。(三)(八)二处均为诗之逸。(三)“逸气横出”是李仁老对“苏黄”诗歌的评价。“苏黄”诗歌之“逸气”实为“苏黄”精神本质之“逸气”的发显，这种发显实即庄子由“技”进乎“道”的学道之工夫。『庄子·养生主』“庖丁解牛”寓言中，“庖丁”言：“臣之所好者道也，进乎技矣。”⁸⁸⁾庖丁之所以能达“道”，乃经历了“始臣之解牛之时”，到“三年之后”，直至“方今之时”这样一段时间的历练方才至于道。至于道之后庖丁的解牛才呈现出“莫不中音，合于桑林之舞，乃中经首之会”⁸⁹⁾的

86) 郭庆藩 撰，王孝鱼 点校，同上，p.234.

87) 徐夏观，同上，p.372.

88) 郭庆藩 撰，王孝鱼 点校，同上，p.111.

89) 上文，p.110.

艺术性效果。正如“苏黄”二人日积月累之胸中“逸气”发言为诗之“逸气”。

(八)“飘逸出尘”是对郑知常〈长源亭〉诗的评语。“风送客帆云片片，露凝宫瓦玉鳞鳞。绿杨闭户八九屋，明月倚楼三两人。”“风送客帆”是远景，“露凝宫瓦”乃近景；“绿杨闭户”乃俯视，“明月倚楼”是仰视；一远一近，一俯一仰，空间被无限放大。此中营造出一幅淡然幽远的情境，使李仁老心生“飘逸出尘”之叹。其实，“逸”的生活形态及精神气质又是『庄子』哲学的追求。『庄子』的哲学称为“逸的哲学”，“以他的哲学为基础的魏晋玄学，大家都是‘嗤笑徇务之志，崇盛忘机之谈’的，这可以说都是在追求逸的人生。”⁹⁰⁾李仁老是高丽当时引领文坛的人物，以李仁老为代表的高丽士人向往的也是庄子式的“逸的人生”。

上述庄学、玄学影响下的人伦鉴识实则是以人为中心的。而庄学的艺术精神“只有在自然中方可得到安顿”⁹¹⁾，“自然，尤其是自然的山水，才是庄学精神所不期然而然的归结之地。”⁹²⁾静观自然，沉潜山水，于天地之间寻觅一方可以安顿生命的家园，这也是李仁老“破闲”的关键之所在。兹举李仁老笔下“青鹤洞”为例：

智异山或名头留，始自北朝白头山而起，花峰萼谷绵绵联联，至带方郡，蟠结数千里，环而居者十余州，历旬月可穷其际畔。古老相传云：其间有青鹤洞，路甚狭，才通人行，俯伏经数里许，乃得虚旷之境。四隅皆良田沃壤，宜播植，唯青鹤栖息其中，故以名焉。盖古之遁世者所居，颓垣坏堑犹在荆棘之墟。昔仆与堂兄崔相国有拂衣长往之意，乃相约寻此洞，将以竹笼盛牛犊两三以入，则可以与世俗不相闻矣。遂自华严寺至花开县，便宿神兴寺。所过无非仙境，千岩竞秀，万壑争流，竹篱茅舍，桃杏掩映，殆非人间世也。而所谓青鹤洞者，卒不得寻焉。⁹³⁾

这段文字的写作整体上是模仿陶渊明〈桃花源记〉而来，这一点前人论述

90) 徐夏观，同上，p.396.

91) 上文，p.262.

92) 上文，p.266.

93) 李仁老，同上，pp.8-9.

详备，故此不加赘述。那么，李仁老在此处到底增添了什么新内容？这段文字又是如何体现艺术精神的呢？熟味李仁老笔下的智异山青鹤洞，这里没有了“桃园”“往来种作”的热闹与温馨，更多呈现出一份虚旷与幽静；这里并非人人皆可“怡然自乐”的一处人间世，而是“唯青鹤栖息其中”的仙境。李仁老笔下的青鹤洞从本质上讲更接近庄子所拟构的藐姑射之山。青鹤洞里有青鹤，而鹤乃道教仙兽，暗合于庄子笔下的藐姑射之山有神人。而无论青鹤的世界还是神人的世界都是一种心造之境，是虚旷而清明的造境。“哲学不允许给人以任何满足，艺术则以满足为其本质，不仅可允许其提供满足，并且也是其目标。”⁹⁴⁾李仁老塑造的青鹤洞展现的正是他的理想世界：“四隅皆良田沃壤，宜播植，唯青鹤栖息其中，故以名焉。盖古之遁世者所居，颓垣坏堑犹在荆棘之墟。”这是一个富有画境之美的描述，良田沃壤之上有青鹤轩翥，颓垣坏堑之墟有一遁世者独立其间，参悟天人妙道。在这里，人与自然两情相融，没有了主客之分，人的精神当下即获得了圆满具足。这就是庄子所谓的“物化”境界，此一境界是自然山水的有情化，亦是人格精神的自然化：“千岩竞秀，万壑争流，竹篱茅舍，桃杏掩映，殆非人间世也。”李仁老在观照山水时，将自己的精神融入“千岩”“万壑”之中，因而山水具有了人格化特征，自然山水成了自己生命的有机整体，这是人与自然、自然与艺术相统一的极致。再如，李仁老曾云：“湍州北仰岩寺距皇都不远，山奇水异，窅然有幽奇之致。”⁹⁵⁾山水何以能“奇”且“异”？乃是人将自己的认识与情感投入其中的映射，人若愿将自己的情感倾注于山水，山水亦会有回响，李仁老的情感与山水交融在一起，这“幽奇之致”便是山水的回响。

5. 结论

作为朝鲜古代第一部诗话，『破闲集』以“闲”所内涵的儒、道两家精神特征为基础，探讨了儒家道德与艺术相融通的艺术精神和庄学影响之下自然与

94) 徐夏观，同上，p.94.

95) 李仁老，同上，p.6.

艺术合一的艺术精神。儒家系统和道家系统的本意均着眼于人生，不过，于儒家而言，艺术是人格修养乃至于政治教化的工具，其艺术精神中带有功利性的因素；而庄子之艺术精神直接由人格流出，他所成就的则是超功利的“纯艺术精神”，这两者的本质区别决定了艺术精神的主体必然趋向于庄学。李仁老『破闲集』对高丽时期艺术精神地深入探索与揭示，为其后朝鲜王朝的艺术理论尤其是诗歌理论的发展既奠定了坚实的基础，也指明了前进的方向。

◆ 参考文献

1. 资料

- 房玄龄等 著，中华书局点校本，『晋书』，北京：中华书局，1974。
 郭庆藩 撰，王孝鱼 点校，『庄子集释』，北京：中华书局，2013。
 嵇康 撰，戴明扬 校注，『嵇康集校注』，北京：中华书局，2015。
 李仁老 著，『破闲集』，蔡美花·赵季 编，『韩国诗话全编校注』，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2。
 阮元 校刻，『十三经注疏』，北京：中华书局，1980。
 王逸 撰，黄灵庚 点校，『楚辞章句』，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7。
 许慎 撰，徐铉 校订，『说文解字』，北京：中华书局，2013。
 扬雄 著，韩敬 译注，『法言』，北京：中华书局，2012。
 朱熹 撰，赵长征 点校，『诗集传』，北京：中华书局，2017。
 朱熹 撰，『四书章句集注』，北京：中华书局，2012。

2. 单行本

- 冯友兰 著，涂又光 译，『中国哲学简史』，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3。
 李岩，『中韩文学关系史论』，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3。
 彭林，『中国礼学在古代朝鲜的传播』，桂林：广西师范大学出版社，2020。
 裘锡圭，『文字学概要（修订本）』，北京：商务印书馆，2013。
 王叔岷，『庄学管窥』，北京：中华书局，2007。
 徐复观，『中国艺术精神』，北京：九州出版社，2020。
 赵钟业，『中韩日诗话比较研究』，台湾：台湾学海出版社，1984。

3. 论文

- 崔胜范, 「诗话随笔考-『破闲集』을 中心으로-」, 『동방시화학회』 第3-4合辑, 2001, pp.677-697.
- 李善美, 「李仁老의 文学世界: 『破闲集』을 중심으로」, 东国大学校硕士学位论文, 1992.
- 李英娥, 「『破闲集』에 나타난 眉寸의 文学观」, 庆北大学硕士学位论文, 1982.
- 梁晶莹, 「丽末鲜初韩国诗话集中的中国诗学接受情况研究——『破闲集』和『东人诗话』为中心」, 亚洲大学博士学位论文, 2021.
- 薛重焕, 「『파한집』의 수필문학적 성격」, 『안암어문학회』 第21辑, 1980, pp.33-54.
- 辛泳周, 「『파한집(破闲集)』 소개 시의 진고 활용과 형상화에 관한 고찰」, 『东方汉文学』 第87辑, 2021, pp.7-33.
- 郑堉谟, 「『파한집』 관각에 있어서의 침삭문제와 그 문학사적 의의 - 『파한집』 편찬 시기 및 편찬의도의 신고찰을 바탕으로-」, 『汉文学报』 第10辑, 2004, pp.3-42.
- _____, 「李仁老 『破闲集』 연구」, 『域外汉籍研究集刊』 第十九辑, 2020, pp.85-114.
- 金镇英, 「『破闲集』 · 『补闲集』의 诗学的 研究」, 『国语国文学会』 第4期, 1995, pp.85-114.
- 허석도, 「『破闲集』 연구」, 岭南大学硕士学位论文, 1987.
- 姜夏·尹允镇, 「高丽时期诗论『补闲集』与『破闲集』比较」, 『历史文化研究』 第9期, 2017, pp.106-111.
- 马东峰·贺广跃, 「『破闲集』意象批评研究」, 『韩中人文研究』 第80辑, 2023, pp.213-232.
- 朴哲希·马金科, 「从『破闲集』看朝鲜高丽朝中后期的文学生态」, 『域外汉籍研究集刊』 第十八辑, 2019, pp.125-139.
- 王进明, 「从民族文学自觉意识视角看『破闲集』对徐居正的影响」 第1期, 『延边教育学院学报』, 2015, pp.4-8.
- 徐志嘯, 「韩国诗话『破闲集』与中国诗话的渊源」, 『当代韩国』 第3期, 1998, pp.68-72.
- _____, 「韩国诗话『破闲集』之中国影响论」, 『中外文化与文论』 第5辑, 1998, pp.126-136.
- 张振亨·金海救, 「论李仁老诗学批评的逻辑体系」, 『延边大学学报』 第5期, 2008, pp.62-66.

논문 접수일	2023년 11월 04일
심사 완료일	2023년 11월 29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2월 08일

Abstract

The Artistic Spirit of the Ancient Korean Poetry Monograph
〈Pahanjip(破闲集)〉

Jiang, Qinqing

Lee In-Lo is always a literary giant in Koryo Dynasty of Korea. His "Pahanjip" is a complex book, which covers a wide range of artistic fields such as poetry, literature, painting, music, calligraphy and so on. As the title of "Po Xian" reveals, on the one hand, this book reveals the personality spirit that scholars generally yearned for at that time, and at the same time shows that artistic creation and appreciation in leisure and freedom is an aesthetic life of scholars at that time. In the seemingly complicated and scattered records of the book, on the one hand, it shows the artistic spirit of the unity of Confucian morality and art. On the other hand, it shows the artistic spirit of integrating nature and art under the influence of Zhuangzi and metaphysics. Lee In-Lo absorbed and borrowed from Zhuangzi's views on artistic creation and appreciation. He incorporated his insights into specific creative practices. At the same time, he also inherited the metaphysical atmosphere of the Wei and Jin dynasties to evaluate characters, and appreciated the characters and art of evaluation from a metaphysical perspective. In the end, he settled the pure place of artistic spirit in the natural landscape and realized the integration of human and nature.

Keyword

Koryo, Lee In-Lo, "Pahanjip", Confucianism, "Zhuangxue",
Artistic spirit

借鉴与己化

- 韩国史为题的高丽咏史诗研究* -

郑冬梅** · 尹允镇***

국문요약

한국인들은 신라 시기로부터 영사시(詠史詩)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중국사를 제재(題材)로 하고 그 역사를 읊은 것으로 타산지석으로 이용하려는 의식의 소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 시기에 들어서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국사를 제재로 한 영사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동명왕편(東明王篇)」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민족, 자기 민족의 역사를 제재로 한 영사시가 나타나면서 한국의 영사시는 하나는 민족사를 제재로 하고 있으나 시작(詩作)에서 중국의 역사인물이나 역사사건, 그리고 전고(典故)를 이용하여 시인의 시적 정서나 감정을 표현하는 영사시와 전반 시작(詩作)에 중국 관련 내용이 전혀 없이 제재로부터 서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순수하게 민족사로 일관하는 영사시, 이 두 갈래로 갈린다. 그러나 이것은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아 모두 한국사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사를 제재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영사시의 발전에 있어서 자못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것은 한국의 영사시가 고려 중기에 이르러 완전히 한국화되기 시작했으며 선명한 자국화, 현지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때로부터 영사시란 시체(詩體)는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영사시란 이 한시체(漢詩體)의 동아시아 지역의 “동근다기(同根多枝)”, 즉 중국에서 전파되어 왔고 중국 영사시를 준용하고 있으나 꽃은 한국에서 피는 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고려 중기에 한국 민족사에 기반을 둔 영사시가 대량 나타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고려 중기에 이르러 나타난 한민족 역사의식의 고양과 더불어 민족 역사 담론을 비롯한 민족의 주체 의식, 즉 민족의 역사를 정리하여 정당화하려는 움직임과 자기 민족의 역사에서 민족 자부심과 자국심을 찾아보려는 현실적인 기대와 거기에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해 보려는 의도들이 작용한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으며 또 송나라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문화의 영향 하에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이용하면서 자기화하려는 강렬한 의욕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本论文是山东省社会科学规划研究项目《齐鲁文化有关的高丽汉诗的文学地理学研究(批准号: 23BWWJ01)》的中期成果.

** 山东大学韩国语系副教授、山东大学东北亚研究中心研究员

*** 山东大学韩国语系教授、山东大学东北亚研究中心研究员

주제어 고려, 한국사, 영사시, 준용(准用), 자국화

〈目録〉

1. 序论
2. 借用中国史的韩国史为题的高丽咏史诗
3. 纯用韩国史的高丽咏史诗
4. 高丽诗人写大量咏史诗的原因
5. 结论

1. 序论

咏史诗在中国由来已久，它发轫于秦汉，盛于大唐。学界一般将班固的《咏史》看作其代表性的作品，它和左思的《咏史》八首一道开创了中国咏史诗的先河。韩国诗人从新罗时期开始写咏史诗，代表作品有崔致远的《汴河怀古》、《姑苏台》，朴仁范的《马嵬怀古》、《九成宫怀古》，崔匡裕的《商山路作》、崔承佑的《镜湖》等。但这些咏史诗存在两个问题。其一是这些咏史诗虽大多取材于中国史，而且时常借用中国历史人物或历史事件咏史或怀古，但缺乏借用中国史的鲜明的目的意识；其二是借用的目的不够明显，缺乏为我所用的强烈的历史意识和将其己化的主体意识。在韩国咏史诗的这种传统持续很长一段时期，到朝鲜时期也有不少取材于中国历史的咏史诗。但是，高丽中期有些诗人开始写取材于韩国历史的咏史诗和怀古诗，¹⁾由此，韩国咏史诗开始分为两条路子发展，一路为沿用新罗咏史诗的历史传统继续借用中国史抒发情感的；另一路为取材于韩国史，借用本国历史和历史事件咏史的，从而韩国咏史诗从这个时期开始分化，呈现出鲜明的诗歌素材和题材上的“己化”和本土化的倾向。

1) 有关怀古诗见尹允镇、梁旭的《韩国高丽怀古诗研究》，《东疆学刊》，2022（3）。

韩国诗人从高丽中期开始创作本国史为素材的大量的咏史诗的原因是多方面的，其实这与高丽中期开始高涨的历史文化意识和历史对社会发展中起到的重要作用的认识有密切的关系。他们认为：历史对现实，对未来发展具有很重要的意义，它可以提高民族的自主意识和民族自豪感，培养爱国情操和民族情感，也为治理国家提供不可多得的历史经验和教训。这是到这一时期大量出现自己民族史为素材的咏史诗的直接原因。同时这种自己民族史为素材的咏史诗的大量出现，又为高丽中后期高涨的民族意识和民族历史的话题起到推波助澜的作用，出现了整理自己的历史提高民族自主意识和民族自豪感的良性循环过程。在这里，历史通过他们得到了重铸和必要的整理和扬弃，得到了民族发展的历史逻辑和正当性。那么，高丽文人都写了哪些自己的民族史为素材的咏史诗？这些咏史诗的背后存续着怎样的文化意识？本文就以收录在《东文选》中的咏史诗为中心，围绕着这些问题从借用中国史的以韩国史为素材的高丽咏史诗和完全以韩国史为素材的高丽咏史诗这两个方面进行研究，相信这对于进一步深入研究高丽咏史诗和咏史诗的己化、本土化过程有一定的帮助。

2. 借用中国史的韩国史为题的高丽咏史诗

一般的说，咏史诗有论史、咏史、评史、读史、述古、论古、觅古、感古、怀古等多种类型。这些诗歌有借景抒情、怀人伤己、借古伤今、怀古反思、借古警示等形式，包括广义的咏史、论史、评史、述古、论古的诗歌。

较早开始写韩国史为题的高丽咏史诗的是李奎报（1168—1241）。大家知道，李奎报的《东明王篇》是高丽文学史乃至整个韩国文学史上最具有代表性的咏史诗，是用叙史诗的形式，赞美民族英雄的伟大诗篇，和古今中外的不少民族史诗一道，它在提高民族主体意识和民族自主意识，民族的崛起等方面起到非常重要的作用。在这首诗歌中，他借用中国历史上的三皇五帝证明解慕漱和朱蒙等民族英雄历史的神圣性，体现出王权神授绝对权威主义思想倾向。但在具体的叙述和抒情的时候还是借用黄巾起义等中国历史事件；不少

地方还引用《史记》《汉书》《后汉书》等中国史书里的历史内容，显现出以中国历史人物和历史故事论证自己历史正当性的鲜明意图。这证明《东明王篇》虽然以韩国史为素材，塑造历史人物，但诗歌仍然广泛利用中国历史人物和事件，呈现出继承新罗时期咏史诗传统的痕迹，也充分体现从他国历史向本国历史过渡的过渡期咏史诗的种种特征。

除《东明王篇》外，李奎报还写了取材于韩国史的其他咏史诗，其中较为著名的有《延福亭》。²⁾“延福亭”是高丽的毅宗（1146年—1170年在位）在开城东大门外修建的一个亭子。毅宗修建这个亭子纯粹是为了吃喝玩乐的浮夸奢侈的糜烂生活。为了这种奢侈糜烂的生活他不仅修建了亭子，周边还筑坝建湖，在那里过花天酒地的生活。其结果非常明显，发生“武臣之乱”，不仅高丽社会元气大伤，高丽王朝也开始走下坡路，而且毅宗它本人也痛失国王宝座，驱逐到巨济岛，最终惨死在庆州。这首诗是李奎报在“延福亭”这一历史现场写的。

夏道浑成碧草萎，笙歌散尽鸟相呼，箇（个）中殷鉴分明甚，莫遣遗基扫地无。³⁾

2) 这首诗歌和《东国李相国集》里收录的不一样，《东国李相国集》里的诗题是《过延福亭》，是七言律诗，全文如下：忆昔明皇游幸日，龙舟锦繡髻（仿）江湖。劝欢仙妓回眸笑，被酒词臣倒腋扶。自古穷奢难远驭，几人怀旧发长吁。颓堤不见沧涛拍，夏道浑成碧草萎。罗绮飘将云共散，笙歌散尽鸟相呼，个中殷鉴分明甚，莫遣遗基扫地无。但《东文选》里的诗题是《延福亭》，是七言绝句。从《东文选》收录的《延福亭》来看，这是由《东国李相国集》里的七言律诗改变而来，取了诗歌的后半部分。但也不是全取后半部分的全部四句，而是取了颔联的第二句和颈联的第二句，全取尾联第一和第二句。《东文选》这样截取的原因很可能就是为了诗韵。如果截取后半段四行，绝句的起句和整体诗歌的韵脚出现问题。为了截取后仍然保持一个绝句的韵律形式，徐居正们采取了截取第四行，第六、第七、第八行的特殊的方式，同时也把它的题目改为《延福亭》。由此以来，原来的七律《过延福亭》变成了七绝《延福亭》，但可謂是依然保持了原诗的思想倾向。

3) 本文引用的诗文均出自徐居正等著，民族文化促进会编《东文选》，首尔：民文库，1989年，以下同。这颈联的“箇”在《东国李相国集》里是“箇（个）”，从诗意来看，《东国李相国集》里的是正确的。

这是改编李奎报的七律《过延福亭》的后半部分而成的绝句，原诗《过延福亭》以标准的“过X X地方”的咏史诗典型形式写的。综观《延福亭》和原诗一样整篇充满着一种悲凉之气，保持了《过延福亭》的基本思想倾向。起句是眼见的“延福亭”，它草木丛生，所到之处已经荒凉无比，面目全非。随着时间的推移，它已经失去了昔日的繁华景象，成为草木横生的一片荒凉之地。“武臣之乱”后，已经多年无人问津延福亭，举目之处一片荒废、凄惨之至的惨景；承句是耳朵听到的，延福亭曾经是笙歌燕舞的地方，但“歌声高处怨声高”，昔日的靡靡之音已经散失殆尽，代替它的是到处传来的群鸟的叽叽喳喳声，昔日的欢乐场景已经消失得无影无踪，让人感到一种岁月的无情和无意；转句开始是议论，借用“延福亭”的今昔变化发出肺腑之言，告诫人们要认真想一想延福亭所显现的象征性的历史后果，要重视前车之鉴，不能重蹈覆辙；结句是兴的部分，警示统治者不要忘记曾经在“延福亭”发生的历史教训。这种惨痛的历史教训不会和“延福亭”的衰落而消失，“延福亭”的存在、它的荒凉也许更凸显着它所具有的惨痛的血的教训，人们必须从中吸取历史教训。李奎报是正统、正直的儒学家，他深知历史对现实政治的重要作用，尤其是类似的历史悲剧、历史教训，由统治者的腐化堕落而来的血的教训必须铭刻在心里。所谓的以史为镜、以史为鉴的历史功利主义就是由此而来。显然这完全符合一贯重视历史经验和教训的李奎报的一贯思想。为了更含蓄地表达这种思想，李奎报在转句中借用了中国的语典“殷鉴”。⁴⁾“殷鉴”出自《诗经·大雅》，曰：“殷鉴不远，在夏后之世”，意思就是殷人灭夏，殷人的后代应该牢记这个夏朝的悲剧，应以夏朝的灭亡为戒，谄习和重视治国理家之道。由此可见，在这里李奎报想要表达的仍然是高丽人应该以“延福亭”为戒，吸取前车之鉴，吸取历史教训的问题。因此，尾句里作者强调“延福亭”虽然已经成了废墟，但仍有必要保存下来，因为它仍有以史为镜、以史为鉴的借鉴作用。在韩国很多文人曾用中国历史上的类似案例警示过统治者，告诫他们不能腐化堕落、奢侈糜烂，也不能大兴土木劳民伤财，这是亡党亡国之路。崔致远在《汴

4) 在原诗的开头作者也用唐玄宗、隋炀帝等中国历史上的帝王讲“奢华必亡”的道理。

河怀古》中吟道：“游子停车试问津，隋堤寂寞没遗尘。人心自属升平主，柳色全非大业春。浊浪不留龙舸迹，暮霞空认锦帆新。莫言炀帝曾亡国，今古奢华尽败身。”这是作者在汴河边写的，是望着隋堤提醒统治者不要重蹈隋炀帝覆辙的。其中最后一句“今古奢华尽败身”很有道理，一语道破了亘古不变的一个历史真谛。这是作者在中国借用中国史做的咏史怀古诗，但实际上他是提醒所有帝王的，向他们讲治国之道和理家之道的。金富轼也曾在《结绮宫》中用秦皇和隋帝的大兴土木、鱼肉百姓的腐化行为劝讽规谏统治者；李仁老也在《半月城》中借用隋炀帝的奢华讲述“奢华必亡”的道理；在《过渔阳》中李仁老借用唐玄宗的腐化堕落警示统治者，要廉洁奉公，成为一个万民拥戴的贤明君主。显然，这些都是借用中国历史上腐化堕落的帝王的意象，警示统治者的。李奎报的《延福亭》也是这样。只不过他借用的是中国历史人物，素材则来自韩国史，写韩国史的。从李奎报的诗歌看，这个“延福亭”就像是秦始皇的阿房宫、隋炀帝的隋堤、唐玄宗的骊山华清池，是腐败堕落的象征。在这里李奎报就是借用这个意象，警示统治者以史为鉴，吸取历史的教训，因此，这首诗歌虽然取材于韩国史，但展开抒情的时候仍然借用中国历史文化意象，所以，仍然属于借用中国历史文化内容的以韩国史为题的高丽咏史诗的范畴。

和李奎报一样，任奎的《过延福亭》也是借用“延福亭”警示统治者的。诗歌采用“过X X地方”的最典型的咏史诗的形式，不仅保持了咏史诗体的标准格式，还体现出了鲜明的以史为鉴、以史为镜的功利目的。

谁劝君臣入酒乡，不知祸自在萧墙。酣歌不阙琼楼上，醒血交流辇道傍。
炀帝汴河秋冷落，明皇蜀道雨凄凉。当时此恨无人识，满目溪山泪数行。

任奎(1119—1187)是高丽仁宗、毅宗时期的文臣。诗题中的“延福亭”就是李奎报在上述诗歌中提到的那个亭子，是高丽社会开始走下坡路的一个象征性的意象。在诗歌中，任奎借隋炀帝和唐玄宗的形象，对毅宗修复“延福亭”的行为进行批判。首联讲的不知是谁把君王引入到“酒乡”，这似乎是一个疑问

句，但这个疑问句里已经有了答案。就是说引导帝王进入歪门邪道的不是别人，恰恰就是君王他自己。为了表达这种思想作者在这里借用了中国典故“萧墙之内”，婉转迂回地表述了帝王的错误之道和国家安危之间密不可分的关系。此典出自《论语》，意为一切祸根来自自己的内部，换言之，一切事物的祸害之根在于内部，寓意是帝王的悲剧就是帝王自己造成的。从这个意义上，他们的悲剧结局是咎由自取、罪有应得；紧接着颌联写“武臣之乱”带来的血雨腥风。众所周知，沉重打击高丽社会，使它元气大伤的“武臣之乱”就发生在毅宗年间。当然，我们很难说“延福亭”和“武臣之乱”有直接的因果关系，就说“延福亭”是导致“武臣之乱”的罪魁祸首。但应该看到，它是一个导火线，至少是一个把柄，正因为有了毅宗不以史为镜，不吸取历史教训的腐败行为导致了“武臣之乱”，其中这个“延福亭”肯定起到了火上浇油、推波助澜的作用。在这里，日夜不断的琼楼上的笙歌燕舞的景象和犴道傍的血雨腥风是有直接的因果关系的，它酷似秦皇的阿房宫，是腐化堕落的象征。颈联作者引出隋炀帝和唐玄宗的前车之鉴，曾经繁华无比的汴河开始冷落；逃亡路上的蜀道也凄凉无比。隋炀帝和唐玄宗的这种悲凉的结局就是毅宗的前车之鉴。但毅宗不闻不问、一意孤行，最终他也没有逃脱“奢华尽败身”的历史规律，得到了应有的惩罚。因此，尾联作者发出自己对这段历史的无尽感慨。在任奎看来，一个王朝，包括一个时代，其兴亡盛衰主要在“萧墙之内”，在于内部，在某种意义上就在于君王他自己。君主的清廉与否，君主的勤政与否都和国家的安危息息相关。“酣歌不阙琼楼上”的时候，意味着离犴道傍流淌醒血的时机不远了。这“亡国之欢”和“血雨腥风”事实上就是具有因果关系和历史必然联系性的一个问题的两个侧面。中国历史上的秦始皇、陈后主、隋炀帝，包括唐玄宗已经证明了这一点；毅宗的“延福亭”和“郑仲夫之乱”也证明了这一点。诗歌中的“汴河秋冷落”，“蜀道雨凄凉”句，感情真挚饱满，言简意赅，形象地概括和展现了隋炀帝和唐玄宗历史悲剧的必然性。显然，这是对后来者的一种警示，他告诫人们要以史为鉴、以史为镜，吸取这些惨痛的教训。

任奎的这首诗歌和李奎报的作品一样，它们虽然都取材于韩国史，以“延福亭”为题，但在抒情的时候就像是取材于中国史的咏史诗利用中国典故和中

国的历史人物抒发自己的情感。换言之，任奎的这部作品虽然取材于韩国史，但等到具体抒情的时候则用中国典故或者中国历史人物委婉含蓄的表露出了自己的心胸。取材于韩国史但具体的抒情过程中借用中国典故或历史人物，这是这一时期韩国一些咏史诗的一个特点。这一时期咏史诗中这类诗歌还很多，下面尹绍宗的《栗亭》也是和任奎的作品一样，借用中国历史人物抒发情感的。

社稷坛前旧栗亭，耆老会远草青青。茂陵仁义云云对，汲黯丹心炳日星。

这是高丽后期文臣尹绍宗的七律《栗亭》，诗歌前有一段题解，曰：“先祖种栗于亭因以自号每春秋良辰必以邀耆老置酒亭上”。这就是说，这里曾经是邀请国中元老聚会、吃酒的地方，可以想象得到当年是何等的繁华。可是随着时间的推移，逐步变成草木丛生的荒凉之地。在这里作者面对已经萧条的“栗亭”，触景生情、情景交融、借景发挥，对已逝的无情岁月发出无尽的慨叹。再往下到了转句作者转述中国汉武帝和汲黯的故事，句中的“茂陵”指的是汉武帝的陵墓，在陕西咸阳。汲黯（？—前112），字长儒，河南濮阳人，西汉汉武帝时期名臣。他性格高傲、为人耿直，经常当众提意见，叫人难堪。这里尹绍宗借用的也是汲黯当众羞辱难堪汉武帝的故事。据《史记》记载，有一次，汉武帝想招“文学儒者”，让大家发表意见，但谁也不吱声，唯有汲黯对曰：“陛下内多欲而外施仁义，奈何欲效唐虞之治乎！”⁵⁾ 意思就是说汉武帝心里装满了各种欲望，在表面上却要仿尧舜施仁政，这是不行的，做人要表里相同，内外一致。可见，这是批评汉武帝表里不一的行为的。汉武帝听了自然非常生气，当即结束了早朝。大家都为汲黯捏一把汗，但汲黯却说：“天子置公卿辅弼之臣，宁令从谀承意，陷主于不义乎？”在汲黯看来，君主设各种辅弼之臣不是为了听谄媚之言和阿谀奉承的话，君主设各种大臣的目的就是听取各种不同的意见，甚至是反对的意见，作为臣下应该知道这些道理，必须敢

5) 司马迁：《史记》卷120，列传第六十，《汲黯列传》，许嘉璐主编《二十四史全译》《史记》（第二册），上海：汉语大辞典出版社，2004，p.1438.

言，身在其位，更应如此。尹绍宗非常赞同汲黯的这种观点，认为他是敢于直言、讲实话的忠臣。在这里，汲黯当面指出汉武帝的错误不是因为仇视汉武帝，也不是因为不尊重汉武帝，而是为了履行他作为一个臣子应尽的责任和义务，恰好反映了他的赤胆忠心。对于帝王的不是你也不说，他也不说，大家都不说，就失去了天子设立三公九卿的意义，也会让天子陷于不义之地。作为一个儒学家也是这样，在汲黯看来，一个正直的儒学家应该及时纠正帝王的不是，让他们走正道。这是因为帝王是决策者，他的失策，他的失误不同于凡人，直接和国家的兴旺盛衰联系在一起，非同小可。在这里，尹绍宗提及汲黯的理由就是他也认为，作为一个忠臣、一个儒者，就像汲黯一样敢于真言、直言，时刻规劝和警醒统治者。综观尹绍宗的一生就很像汲黯敢于直言的一生。

除此之外，这类诗歌还有李谷的《扶余怀古》、金搢的《百济怀古》、李混的《西京怀古》、洪侃的《次韵李蒙庵西京怀古》等怀古诗，这些诗歌都是在扶余、平壤等历史的现场，以怀古的形式，抒发逝去岁月的一种感慨的。但和如前所述的那样，在抒情的时候都借用中国历史人物或典故。可见这一时期的有些咏史诗在取材方面有了很多的变化，呈现出鲜明的诗歌素材方面“己化”的现象，但具体的抒情和遣词造句的时候仍然继续沿用新罗以来确立的咏史诗的历史传统，依然显现出和中国文化不可分割的诗歌倾向。

3. 纯用韩国史的高丽咏史诗

如前所述，高丽咏史诗不仅有借用中国文化抒发自己情感的咏史诗，而且还有完全用韩国史抒发自己情感的，这些诗歌堪称是开始彻底“己化”和本土化的高丽咏史诗，尤其是在诗歌题材上的“己化”、本土化倾向非常明显。

李穡是高丽时期最著名的诗人之一，他也非常重视历史，写了不少咏史诗。但他的咏史诗大部分取材于中国史，比如，《燕山歌》《天宝歌过蓟门有感而作》《贞观吟榆林关作》《醉中歌》《鸥夷子歌》《诗酒歌》《读杜诗》《滕王阁图》等都是取材于中国史的作品，其中好多集中在河北燕山地区，这

很可能年少的李穡在中国北京长大有关系，这也从另一个侧面说明了少年时期在中国的生活对他的重大影响。但是李穡也写了取材于自己历史的咏史诗，其中有名的就有《浮碧楼》。

昨过永明寺，暂登浮碧楼。城空月一片，石老云千秋。
麟马去不返，天孙何处游。长啸倚风磴，山青江自流。

浮碧楼位于平壤大同江边，是永明寺的一个附属亭，高丽时期根据它浮在碧水萦绕的清流壁上的情况，取名为“浮碧楼”。南龙翼把李穡的这个《浮碧楼》誉为“前朝各体中压卷之作”。⁶⁾ 诗歌首联的永明寺是三国时期为纪念东明王而建的一个寺院；“麟马”指的是传说中东明王升天时骑的马；天孙就指东明王。可见这是一首咏史怀古诗，是在一片凄惨的历史现场怀念昔日雄伟气象的作品。作品首联是铺垫句，是交代，按时间顺序平铺直叙，写昨天过永明寺，今日游浮碧楼的情形；颔联是承句，描写眼前已经失去昔日风采的平壤都城和浮碧楼萧条的情景，是借物起兴的部分；颈联是转句，转而开始议论评史的部分。在这里诗人的诗情跨越几千年的岁月，在历史和现实的时空跨越中去追寻那曾经骑着麟马潇洒而去的天孙；尾句发出江山依旧，英雄已逝的一种感慨。这首诗歌，这个意境很像吉再的怀古时调《五百年都城》的“山川依旧，不见人杰”的情景。面对依旧山青水绿的平壤都城，在这一古朝鲜的历史现场，作者回顾国家的昔日繁华的同时，结合当前随着元朝的统治以及统治者的腐败而来的每况愈下的高丽现实，发出期盼英雄，重整高丽雄风的迫切愿望。作品的颈联是这首诗歌的关键所在，“何处游”句充分反映了作者的无可奈何的窘态和无限惆怅而来的一种慨叹，凝聚着重整民族雄风、民族崛起的作者远大而殷切的期望；尾联中流逝的江水无意，但作者给它注入了生命和情意。在古典诗歌里，江水经常暗喻时间的无情流逝，寄托着作者对不可追回已经流逝岁月的无尽的惋惜之情。历史就像是无情的江水一去就不复还。作

6) 南龙翼《壶谷诗话》，见蔡美花、赵季主编《韩国诗话全编校注》（3卷）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2，p.2199.

者把这种惆怅和惋惜之情寄托在无情的涛涛江水里，寄托自己的多情和伤感。在这里无色无情的江水，变成了有色有情的诗歌意象，和诗人的惋惜之情相互交融，相得益彰，起到举一反三的艺术效果。

除此之外，朱悦的咏史诗《东都》也是为数不多的取材于新罗都城庆州的诗歌。

万家日蹙入千家，往事渔樵话自夸。黄落鸡林无可吊，楼台空记旧繁华。

大家知道，庆州是新罗的千年古都，是高丽之前在韩国最繁华和最热闹的地方。但是，随着时间的流逝，到了高丽中期它已经完全失去了昔日的繁荣和辉煌。正如这首诗歌所说，万户锐减为千户，昔日的繁荣只留在渔樵们的遥远记忆和美好言谈中。作品起句客观书写交代庆州的大变化，是作品的铺垫部分；承句仍然是交代，那些往年的辉煌只留在渔樵们的遥远记忆中，人们还是津津乐道遥远记忆中的当年的辉煌。其中“话自夸”用词非常形象和得体，完全符合以往的繁荣和为之自豪的渔樵们的神色和情态，他们的那种以当年的辉煌历史为傲的无限的自豪感跃然纸上，非常形象；转句是比喻句，和前一句中的自豪感形成强烈的反差，给每况愈下的庆州都城增添了不少悲剧色彩。这一句来自《鸡林谣》，据《三国史记》新罗末期民间广泛流行一首民谣《鸡林谣》，曰“鸡林黄叶，鹄岭青松”，意思就是说鸡林就像是黄色的树叶，已尽天命，将要灭亡；而高丽就像是青松，旭日东升，日益旺盛。歌词中的“鸡林”是新罗，“鹄岭”则是当时高丽的首都开城。可见这是一首讖谣，是预言每况愈下的新罗现实和如同东升的旭日百废俱兴欣欣向荣的高丽的。结句转写楼台似乎还记得那个繁华景象似的，矗立在那里。显然这句是拟人化的手法，借用默默无闻的楼宇高台抒发作者悲凉心境的。这里所说的“空记”和渔樵们记忆中的繁华景象，前后呼应，相得益彰，在跨越时空的今昔的强烈反差中，加深诗歌的悲凉气氛。结句中的“空记”用的也非常形象，它即把楼台拟人化，而且把空空的楼宇高台相结合，呈现非常完美的艺术共鸣。

昔年鸡贵国，王气歇山河。代远人安在，江流水自波。
 旧墟空草木，遗俗尚弦歌。崔薛无因见，嗟嗟可奈何。

这是印份的五言律诗《东都怀古》，也是在新罗古城吟咏庆州历史的咏史怀古诗。印份（？—？）是高丽睿宗、仁宗、毅宗时期的文人，现存的诗歌不是很多，《东文选》收有他的五言律诗3首，《破闲集》里也传有两首，这是收录在《东文选》中的一首。李仁老誉他的诗歌《雨夜有怀》“雷震海东”；⁷⁾ 徐居正评价他的诗歌《秋夜》“清新雅绝”。⁸⁾ 由此可以推断他当时是一个颇有才华很有名气的文人，在很多人有意无意间尽可能避开写新罗历史的时候，他敢于写这样怀念前代新罗都城的怀古诗，足见一斑他的为人和勇气。

庆州是新罗的千年古都，在韩国人的心目中应该说有一种难以言说的包括怜悯、同情在内的复杂情感的都城。诗歌首联单刀直入，断定庆州的山山水水和昔日的帝王气息已经消失殆尽，从自然风水的角度，直接交代庆州万马奔腾、热火朝天的逝去岁月和凋零、惨淡的现实。这里的“鸡贵国”指的是新罗，来自古代新罗流行的头戴鸡冠的鸡神崇拜，据《三国遗事》天竺国人当年称韩国为“鸡贵国”，在这里可以解释为新罗的别称。但这样的一个地方，千年帝都到了一蹶不振，随着时间的推移地气消失殆尽，成为一个废墟；颔联是作者起兴抒发情感的部分。他站在这堆废墟里呼唤着曾经在这里叱咤风云的历史人物，但是回音只有无情逝水的江水而已，江山无情人有情，在这里人的无限的情感和无情的逝水岁月形成强烈的情感激流，引起作家的无限怀念之情；颈联是眼前的景色，回到现实描写草木丛生的眼见的现实，这里的“弦歌”原来是“絃歌”，在汉语里，“絃”通作“弦”，《集韵·先韵》曰：“絃，八音之丝也，通作弦。”这样一来，这里的“弦歌”可以做“絃歌”解。“弦歌”有多种解释，

7) 李仁老《破闲集》，见蔡美花、赵季主编《韩国诗话全编校注》（1卷）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2，p.33.

8) 徐居正《东人诗话》，见蔡美花、赵季主编《韩国诗话全编校注》（1卷）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2，p.200.

其中最重要的一个是“依琴瑟而咏歌”，其二是“指礼乐教化”。在这里可以按第一“依琴瑟而咏歌”来解，说明新罗时期的辉煌气运现在只留在酒家的音乐里，遥远的辉煌历史跨越逝去的岁月在这里凝固或者说是化作一个酒家的琴瑟中，传承着遥远记忆中一段辉煌的难以忘怀的历史。期间的兴旺盛衰和喜怒哀乐谁能说得清？尾联表现的是作者的惋惜和痛苦之情，在这里再也看不到崔致远、薛聪等一时叱咤风云的英杰，他们如像是逝水一去再也不返，这不仅令人痛苦、令人惋惜；更为重要的是庆州的运气殆尽后再也没有出现崔致远、薛聪之流，重整新罗风采的历史人物。

在艺术上这首诗歌有很多特点，其中最为鲜明的就是“江水”的意象。和李穡的《浮碧楼》一样，这首诗歌也用“江水”的意象，含蓄地表现时间的流逝。江水作为一种常见的客体审美意象，在诗歌中经常起到诗人抒发自己某种情感的客体对象和媒介作用。这里不仅有水的清澈而来的清廉、洁净等意蕴和“上善若水任方圆”包括在内的水一样的性情，也有不断的流逝而来的长相思和系不断的情，更有不可再返回的时间的流逝等多种意象。尤其是江水经常在人们的心目中，比喻成时间的流逝，寄托自己的无限的情思，使它成为一个悲剧色彩浓浓的客体对象。这首诗歌也是如此，昔日的鸡贵国，山川依旧，“英雄豪杰安在”？面对作者的提问，江水不作答，它依旧按照自己的自然性情川流不息、已逝而去。江河和时间一样是流动的，矢向的，它曾经是辉煌新罗历史的见证人，它见证了一个朝代的兴衰，但它就像时间一去不返，依然无情的奔流而去，这就给诗歌增添了无限的历史的沧桑感和悲凉感。时间、历史和现实，还有抒情主人公的永恒的思念之情在这里找到了一个契合点，延续着流水般的永恒。

这首诗歌还有一个鲜明的特点就是诗歌中看不到中国文化相关的内容。换言之，李谷的《扶余怀古》、洪侃的《次韵李蒙庵西京怀古》等诗歌虽然取材于韩国史，但诗歌中还是用中国历史人物或中国故事，展开诗情。但这首诗歌不同，它不仅取材于韩国史，而且抒情过程中几乎没有使用中国文化有关的内容。可以说这是高丽咏史怀古诗中没有利用中国故事的为数不多的咏史怀古诗，这说明这时候开始韩国的咏史怀古诗也开始显示出己化、本土化的

鲜明趋势和特点，咏史诗开始扎根在韩国的历史文化土壤里，生根、发芽、开花、结果。

权近也写了不少取材于韩国史的咏史作品，《王京作古》《开辟上古时代的东夷王》《辰韩》《马韩》《弁韩》《新罗》《耽罗》《大同江》等就是他的著名咏史诗。其中《王京作古》是韩国汉诗中为数不多的取材于高丽历史的作品。

王氏作东藩，维持五百年。衰微终失道，兴废实关天。
惨淡城犹是，繁华国已迁。我来增叹息，乔木带寒烟。

这一时期韩国咏史诗大部分以韩国历史上的“四京”，即庆州、平壤、扶余、开城等各朝都城为中心，在那历史的现场回顾以往辉煌历史的形式展开诗情。这首诗歌就是写开城的。作品首联交代在遥远的东方出现的一个国家，它前后有五百年的光辉历史；但是任何一个国度也不能千秋万代，建邦五百年“道”开始衰弱，气数殆尽，从这里作者深深感受到一个国家的繁荣与昌盛以及没落与衰败，在于“天”的道理。这是作家议论的部分，也就是从高丽的兴旺盛衰得出的一个亘古不变的道理。不可一世的高丽王朝也随着时间的推移一蹶不振，已经退出了历史舞台，但城郭依旧，繁华却已经成为过去；极目之处山川草木都充满着无尽的萧条和悲伤。权近是高丽末朝鲜初的文人，他亲身经历和体验过高丽后期翻天覆地的变化，他本身也在复杂的政治旋涡中几度上下浮沉。1389年，38岁的权近因咨文问题屡次遭到弹劾，后被流放至牛峰、宁海、鸡林狱、金海等地。1390年，结束了流放生活回到忠州阳村，开始了隐居生活。在此期间，他专注于弟子的培养与学术研究，撰写了《入学图说》与《五经浅见录》等经学著作。朝鲜王朝建立后，权近接受太祖李成桂的召唤，重整旗鼓，先后出任了艺文春秋馆太学士、司宪府大司成、议政府赞成事等官职，为朝鲜王朝的文化建设和发展做出了重大贡献。作为高丽的旧臣，现在又作为朝鲜王朝的命官，每当想起旧都开城他肯定陷入复杂的情感洪流中。作为亲眼目睹高丽王朝灭亡的文人来说，也许对开城这一王都有一

个特殊的情愫，但在这首诗歌里，作者极度抑制情感，用非常节制和平常的语言，客观评价兴废关乎天，“繁华国已迁”的历史现实。最后“我来增叹息”的句子高度概括了作者的酸甜苦辣的复杂心境，最终通过乔木婉转地表达这种心情。

和权近的作品一样，李孟昫（1371—1440）的七律《松京怀古》也是吟咏高丽的都城开城的，也是本土化的趋向非常鲜明的诗歌。

五百年来王气终，操鸡转鸭竟何功。英雄一去豪华尽，人物南迁市井空。
上苑烟霞微雨后，诸陵草树夕阳中。秋风客恨知多少，往事悠悠水自东。⁹⁾

李孟昫丽末鲜初文臣，著名学者李穡的孙子。他1385年文科及第，任司宰少监、大司宪、艺文馆大提学等职。这是在韩国少见的写高丽都城开城的怀古诗。¹⁰⁾作品从头开始作者发出议论和慨叹，讲开城五百年的“王气”已尽，消灭三国统一朝鲜半岛的历史功绩也成为过去，这首联中的“鸡”指新罗，这与当年把新罗叫做“鸡林”有关；“鸭”指鸭绿江，实指后高句丽。紧接着颔联抒发江山依旧，但随着英雄的离去，一切的豪华也到了尽头，随着迁都而来的城郭的衰落。这里的“南迁”指李成桂的迁都到首尔的事情。颈联回到现实描写雨后、夕阳中的旧都城面貌；尾联借用秋风、流水发出都城的现实状况给人的无限慨叹。在诗歌中，李孟昫几个意象运用得非常好。比如，鸡鸭等动物意象比喻生动贴切，“烟霞”、“草树”运用得也非常形象含蓄。在这里“上苑”、“烟霞”和“微雨”等几个意象融为一体，进一步鲜明地呈现出都城的凋零、凄凉的气氛；“陵墓”、“草树”、“夕阳”的意象给诗歌增添不少荒芜悲凉的气氛。这首诗中还要值得称道的是尾联中使用的“秋风”和“水”的意象。“风”是古代诗歌中常见的一个自然意象，同样“秋风”更是诗人经常用来表现凄惨的情景，有时和“黄

9) 徐居正等著，民族文化促进会编《东文选》卷十七，首尔：民文库，1989，p.647。李孟昫的主要活动在朝鲜王朝时期，但这首诗歌收录在《东文选》里，本文虽然是讲高丽咏史诗，但整体以《东文选》为中心，因故这首诗歌也在这里论述。

10) 后来朝鲜中期的权翰和女作家安玉瑗写了怀念开城的《松都怀古》。

叶”一道造成“秋风瑟瑟，寒气逼人”的凄凉意象。在瑟瑟的秋风中，忆揪心的往事，这不禁令人寒心，不禁令人深受一片凄凉之感。这种心境和外部自然景色连在一起，起到进一步增强诗歌悲情的作用。尾联中的“水”的意象也是这样。如前所述，“水”在古代诗人的诗作中，往往和流逝的时间、流逝的岁月连在一起，象征着岁月的短暂和人生的短暂；有时还表现逝水年华，一去不返的一种惋惜之情。不仅如此，水有时还可以带有人自己的情绪，可以表现为一种人的情绪。人的思不断的情思和水的川流不息结合在一起，给人以新的意境，李白的“抽刀断水水更流，举杯消愁愁更愁”就有这种意境；有时水还可以表现人的愁情，李煜的“问君能有几多愁，恰似一江春水向东流”就是其典型的例子。在这首诗歌中，李孟昫就是借用这种水的意象，形象含蓄地表达了随着时间的流逝而来的都城往事的一种悲情。

除此之外，尹绍宗还有一首咏史诗，叫《东郊》。

三韩礼乐五百年，苍苍万古扶苏山。攀龙附凤六大师，白日大名天地间。
安得北斗酌沧溟，洗我生晚轮囷肝。东郊痛饮浩浩歌，一眉新月随归鞍。

这是歌咏高丽史的一首诗歌。诗歌首联的“三韩”指的是韩国历史上的马韩、辰韩、弁韩，也可以理解为整个韩国；“扶苏山”为百济的都城；颌联的“六大师”指的是协助王建建立高丽王朝的洪儒、裴玄庆、申崇谦、卜智谦、庾黔弼、崔凝等，比喻他们的建国功勋天久地长、日月同辉。颈联兴句，愿用沧海之水洗涤自己的郁闷的心；尾联用痛饮和浩歌抒发郁闷的心胸。作品转句中的大笔充分反映了作者这一时期的心胸，和尾联中的痛饮前后呼应，充分反映了尹绍宗壮美的诗歌风格。

除这些诗歌之外，高丽后期取材于韩国史的咏史诗和怀古诗还有张镒的《东都怀古》、释达全的《次韵李正言混花山怀古》、李混的《花山怀古》、柳方善的《青鹤洞》、赵浚的《安州怀古》等。综观这些诗歌有的是取材于韩国历史，和上述的诗歌一样，呈现出诗歌开始“己化”和本地化的倾向和中国的咏史诗和怀古诗和东亚汉诗和中国汉诗的“同根多支”的文化特点。

4. 高丽诗人写大量咏史诗的原因

到高丽中期开始大量出现取材于自己民族史的咏史诗的原因是多方面的，而其中最为重要的还是韩国人开始意识到历史在自己的国家发展和树立民族整体性和主体性方面起到的重要作用，高丽时期出现《三国史记》《三国遗事》《帝王韵记》等史书和李奎报的《东明王篇》这一民族史诗的原因并非偶然的，更不是一个孤立的历史现象和文化现象，它和这种正在高涨的民族主体意识和民族崛起的愿望有密切的关系。

大家知道，高丽时期是韩国大量接受中国文化，深受中国文化的影响的历史时期，尤其是高丽中后期开始涌进的宋文化给韩国文化各个方面带来了不少的变化。但这同时又是在中国文化的影响下，包括民族历史民族文化和民族传统受到空前的重视，民族文化和传统逐步体系化的时期。中国文化的大量流入，尤其是宋文化的大量流入，改变了高丽王朝建立初期制定的以佛教为国教的大政方针，朱子学开始得到了广泛的流通市场，韩国社会开始由佛教向儒学转型。同时就韩国来说，这一时期又是在中国文化的影响下，民族意识尤其是民族主体意识开始高涨的历史时期。中国文化的冲击无意中刺激了高丽人的民族意识，尤其是元朝的各种干预助长了他们要争取民族主体性的各种要求。到高丽后期，在逐渐削弱的元朝的统治和支配势力面前，高丽人开始真正思考我是谁？我从何而来？我有怎样的发展历史等形而上，但确立民族主体意识方面的至关重要的各种命题。建立民族主体意识，构建民族整体性成为高丽社会面临的一个重要的现实问题。在这种高涨的民族意识中，民族的历史自然得到了他们的重视。同时他们认为：历史上积累的各种经验和教训也对社会发展和国家治理有所参考。思想意识领域里的这种认识和历史领域里的这种认知反映在文学领域，进一步促进了咏史诗的大量出现；咏史诗中的古为今用、以史为鉴、以史为镜的历史功利主义和对历史的必要的扬弃就是这种整体性的文化复合作用中，得到了前所未有的重视。

高丽人不仅开始审视自己的历史，而且还重视中国史，认为中国史也可以而且是值得借鉴和参考的。这是到这一时期出现大量咏史诗的另一个重要

的原因，这是韩国人利用中国的咏史题材，咏中国历史上的人物和事件，从中获取他山之石的过程，而且也是把它进一步扬弃，利用在自己的历史，一来提高自己的光辉历史而来的民族自信心和民族文化的自信，二来其中也有一些可以借鉴的历史事件。这是高丽人写大量咏史诗的另一个社会历史原因。

经过借用中国史的咏史诗到借用中国史的韩国史为题的咏史诗，再到取材于韩国史并开始出现完全韩国化的咏史诗，这一过程是韩国人在继续吸收中国文化丰富营养的基础上，对历史的糟粕进行进一步的扬弃，确立民族文化和民族历史主体性的过程；就咏史诗的角度来说，这是咏史诗这一诗体的“己化”、本土化，扎根在韩国汉文学中的过程，又是整个东亚汉文学多样化的过程。咏史诗诗体在韩国的普及和落户无疑是中国咏史诗在东亚地区延伸，是中国咏史诗的域外延续，是绽开在异国他乡的一朵绚丽的花朵。它的产生如果没有中国文化的强烈影响是不可能的。同时它又是高丽人活用中国诗体的一种文化举措。高丽人通过中国史，开始认识到了历史对现实的重要影响和作用。历史是现实的镜子，现实是历史的延续，也和未来发展息息相关。因此，要发展必须从历史中寻找发展现实政治和未来发展的各种历史依据。《三国志》为中心的各种史书的编撰不能不说是这种意识的反映。历史领域里的这种意识反映到文学领域，促进了咏史诗的发展和兴盛。

韩国史为题的高丽咏史诗的大量出现意味着咏史诗在题材上这一诗体的“己化”和本土化。虽然高丽中期韩国史为题的咏史诗出现后，还有人继续写中国史为题的咏史诗，甚至在取材于韩国史的咏史诗中仍然借用中国文化有关的内容进行抒情，但这毕竟是一个趋势，诗体的“己化”和本土化进程尤其是诗题上的“己化”趋势是任何人也不能阻挡和改变的。从此，韩国的咏史诗分两头路子发展，越来越多的人开始重视取材于自己民族史的咏史诗，由此同根多支的古代东亚汉文化体系逐步形成。

从文化传播的角度上来说，这是一个借鉴、改革乃至创新的过程。咏史诗的传播和“己化”本土化过程也经历了这样一个过程。高丽人首先借鉴了中国的咏史诗，这是他们发展自己文化的需要。但是任何一个接受者不能囫圇吞枣，原封不动地接受他国文化，即便是信手捏来，既然拿来，它就有了选择。

鲁迅先生所说的“拿来主义”就是这样，它是有选择的扬弃，是基于自己需要的“拿来”，因此，它是一种主体性的活动，适于主体需要的一种活动，是主动的为我所用的。因此，当人们“拿来”他国文化时，他们必然对它进行改造，改造成利于自己的东西。所谓的创新就是基于这种改造基础之上才有可能的。高丽人借用咏史诗的过程也是如此。他们接收咏史诗后，把它进行了一系列的改造，最终创出了适于自己咏史诗的诗歌体裁体系。因此，它虽然基于外国文化基础上的，但仍然具有一种有别于它的各种民族文化特征。

5. 结论

以上我们对取材于韩国史的高丽咏史诗进行了简单的考察。通过考察我们发现，高丽中后期开始出现了大量的以民族史为题的咏史诗。这种咏史诗可以分为仍然利用中国史进行抒情的咏史诗和纯粹用自己历史咏史的咏史诗。高丽时期大量出现这种咏史诗的原因是多方面的，它首先是到高丽中期，经过“武臣之乱”和元朝的统治，人们开始意识到了历史对现实政治的重要影响，以及要发展必须从历史中寻找发展现实政治的各种根据。各种史书的编撰不能不说是这种意识的反映。历史领域里的这种意识反映到文学领域，促进了咏史诗的发展和兴盛。

◆ 参考文献

1. 资料

- 徐居正等著，《东文选》，首尔：民文库，1989。
 《高丽史》，首尔：亚细亚文化社，1983。
 《高丽史节要》，首尔：亚细亚文化社，1972。

2. 单行本

- 孔子等著，骆宾译注，《四书五经》，北京：中国文联出版社，2016。
 李慧淳著，《高丽前期汉文学史》，首尔：梨花女子大学出版社，2004。

闵丙秀著, 《韩国汉诗史》, 首尔: 太学社, 1996.

논문접수일	2023년 11월 07일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08일

Abstract

Reference and Localization

-A Study of Goryeo's Historical poems Based on Korean History-

Zheng, Dongmei · Yin, Yunzhen

Koreans have been writing historical poems since the Silla period, but most of them are based on Chinese history. Koreans began writing historical poems based on their own history in the middle and later stages of Goryeo. The "Saga of King Tongmyong" is the most typical historical poem drawn from one's own national history. However, during this period, the Goryeo's historical poetry, which was based on national history, was still composed of two parts. Firstly, although based on national history, historical poems still utilize Chinese culture or related content when expressing emotions; Secondly, historical poems that fully utilize one's own national history without utilizing any content related to Chinese culture. However, they are all historical poems drawn from Korean history and have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historical poems. It indicates that the style of historical poems in Korea has begun to be localized. From then on, the genre of historical poems settled down in Korea and emerged as a cultural phenomenon with the same roots and numerous branches. There is a reason for the emergence of a large number of historical poems during the Goryeo period, which is related to the rising national consciousness within Korea during this period. It is also a product of the strong influence of Chinese culture (Song culture), borrowing from it, transforming it, and making it personalized.

Keyword

Goryeo, Korean history, Historical poems, Reference, Localization

近代启蒙期韩国杂志对梁启超作品的译介研究*

崔文婷**

국문요약

근대 계몽기 한국에서는 양계초의 작품에 대한 대규모 번역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잡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매체 역할을 해왔다. 근대 계몽기 한국 잡지들이 양계초의 작품을 번역하는 내용을 정리한 결과, 10개 잡지에서 34편의 국한혼용문체 번역문이 발견되었다. 특히 정치 단체 기관지와 학회 잡지에서 번역 작품이 가장 집중되었으며, 주로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과 관련되었다. 번역본의 양상을 연구한 결과, 번역자들이 양계초의 계몽사상과 문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놓았다. 번역 방식은 주로 직역을 사용하고, 역술은 보조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한국 근대 신문에서는 양계초 작품의 초역본이 위주인 사실과 다른 점으로 잡지에서는 대부분 완역본이었다. 많은 번역자들이 번역문에서 번역 의도를 명확히 제시하여, 번역의 도구성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였다.

주제어 근대 계몽기, 한국 잡지, 양계초, 번역, 번역양상

〈目象〉

1. 序论
2. 梁启超作品译介内容介绍
3. 梁启超作品译介特点分析
4. 结论

* 本研究为中国国家社会科学基金重大项目“朝鲜汉字资源文献整理与研究”(项目批准号: 18ZDA306)的研究成果。

** 中国延边大学亚非语言文学专业博士研究生 渭南师范学院韩国语系副教授

1. 序论

梁启超(1873-1929), 字卓如, 号任公, 又号饮冰室主人。作为中国近代史上的学术文化伟人, 梁启超的活动范围异常广泛, 在政治、社会及文化领域近代改革中均发挥了重要作用。而作为近代东亚文化圈的重要角色, 梁启超的影响范围也绝不局限于中国国内, 他的学说曾在19世纪末至20世纪初十余年间被大规模译介至韩国, 在新兴知识分子阶层和市民阶层中掀起强烈反响。

19世纪中叶以来, 外戚、权臣当道导致三政紊乱、民心动摇, 农民阶级反抗蜂起, 外国势力不断扩张, 朝鲜王朝统治危机不断加深。然而1894年由时务开化派主导的‘甲午更张’在政治、经济、文化等多方面开展近代化改革, 尽管最终以失败收场, 却拉开了近代启蒙期的序幕。随着资本主义工商业发展和外国资本大量流入, 国家社会经济结构发生重大变化, 资产阶级和市民阶层不断壮大。在独立协会运动及义兵战争等一系列政治运动的洗礼下, 民族独立运动的深度和广度日益扩大, 为爱国启蒙运动兴起奠定社会基础。

面对日益深重的民族危机, 新兴知识分子阶层认识到必须通过发展民族教育唤醒民众, 通过振兴民族产业实现富强。杂志出版作为近代思想传播和普及的重要途径, 在此时与爱国启蒙运动密切相连。从1896年韩国最初的杂志『大朝鲜独立协会会报』登场以来, 到1910年‘韩日合邦’为止, 十余年间大量近代杂志创刊, 因而这段时间被视作韩国杂志发展的胎动期, 共有40种以上的杂志面世¹⁾。这些杂志多依存于救国团体, 其主创人员多为政治团体成员, 刊发了大量促进国民教育以及产业开发的文章, 在引领时代变化及国民教育上发挥了重要作用, ‘启蒙性’和‘运动性’十分突出²⁾。

作为重要的舆论阵地, 近代启蒙期的韩国杂志不仅发表国内作者的原创作品, 也大量译介来自中国、日本以及西方的著作、文章, 成为吸收和传播新

1) 김근수, 『한국 잡지 개관 및 호별 목차집』,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73, pp.14-15.

2)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pp.28-29.

知识、新思想的重要手段。而在这波澜壮阔的译介活动中，梁启超无疑是被译介作品数量最多、学术范围最广泛的外国作者之一。据笔者统计，从1906年至1909年，至少有10种杂志刊载了梁启超作品40篇，其中以汉文原文形式发表的作品6篇，其余34篇均为韩汉混用文体译文³⁾。这些作品大都最初发表于『时务报』『清议报』或『新民丛报』，创作于梁启超思想最为活跃、社会影响力最强的时期，通过韩国杂志的译介，成为韩国社会教育及新知传播的重要武器，对处于转换时期的韩国思想启蒙、语言文化等起到不可忽视的作用。

中韩两国学界对梁启超作品在韩国的译介早有研究，김주현(2009), 이병기(2013), 허재영(2017)等学者对梁启超的『越南亡国史』『意大利建国三杰传』以及『饮冰室文集』等著作在韩国的译介研究均十分深入，우림걸(2002)更是梳理了梁启超著作译介目录，深刻探究了梁启超作品与韩国开化期文学之间的渊源与影响。诸位学者主要侧重研究梁启超作品单行本的译介情况及特点。而在韩国报刊杂志对梁启超作品译介情况的研究方面，허재영(2016)在调查近代启蒙期韩国学术团体发行的30余种杂志上的译介资料基础上，指出该时期韩国学术杂志围绕梁启超学说开展的译介活动规模最为庞大，译介作品数量最多，而对其作品的大量译介也是中国在西方便学流入韩国过程中发挥桥梁作用的有力证明。손성준(2020)则在考察『少年韩半岛』杂志的政治性的基础上指出，梁启超的作品之所以能够在政治立场各不相同的韩国报刊杂志得以广泛译介、传播，得益于接受主体对于知识的变容和对翻译的工具性认识。尽管一些学者对韩国报刊杂志上的梁启超译介作品有一些梳理和分析，但这些研究或是仅集中于国内外学会创办的杂志，或是围绕个别杂志开展，涵盖杂志种类不够丰富，对译本的内容和特点研究也不够详尽。因此本文将在详细整理近代启蒙期韩国各类杂志中梁启超译介作品资料的基础上，介

3) 为统计近代启蒙期韩国杂志对梁启超作品的译介情况，笔者调查了国史编撰委员会韩国史数据库‘한국근현대잡지자료’<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收录的1906年至1910年刊行的13部主流杂志，以及该数据库未曾收录的『朝阳报』及『少年韩半岛』2部杂志，并在其中10部杂志上查证梁启超作品40篇。其余该时期杂志受资料获取渠道限制，暂未纳入研究范围。

绍其主要内容, 并分析这些作品的译介特点。

2. 梁启超作品译介内容介绍

임상석(2008)将近代启蒙期韩国杂志按创办团体性质划分为政治团体杂志、学会杂志、赴日留学生团体杂志以及商业性杂志四种类型⁴⁾。这些杂志尽管成员背景、政治立场各有不同, 但在发展教育、启发民智等方面均发挥了重要作用。本文将刊载梁启超作品译本的10种杂志按此标准分类并逐一分析不同性质的杂志对梁启超作品的译介倾向、内容及特点。

1) 政治团体杂志上的梁启超作品译本

译介梁启超作品的政治团体杂志主要有『大韩自强会月报』、『朝阳报』以及『大韩协会会报』。这三种杂志均与大韩自强会渊源深厚, 先后发表其汉文原文作品2篇, 译介梁启超教育、经济改革以及西方政治学说等方面的作品16篇。政治团体杂志之所以侧重译介这些领域的学说, 是作为推动社会变革的政治力量, 出于恢复国权、建设独立国家的需求以及对西方知识、经验汲取的迫切性等方面的考虑, 希望通过译介相关学说传播先进思想和理论, 为争取国家独立和现代化进程提供指导和支持。其译介信息详见表1。

〈表1〉政治团体杂志梁启超作品译介信息整理表

原作标题	原作出处	译文标题	译文出处	译者
教育政策私议	『新民丛报』 第8期1902.5.22	教育政策私议	『大韩自强会月报』 第3期1906.9.25 第4期1906.10.25	张志渊
史记货殖列传今义	『时务报』 第35期1897.8.8	理财说 (梁启超今义)	『大韩自强会月报』 第10期1907.4.25 第11期1907.5.25 第12期1907.6.25	金成喜

4) 上文, pp.30-31.

论教育当定宗旨	『新民丛报』 第1期1902.2.8 第2期1902.2.22	教育의 宗旨와 政治의 关系	『大韩自强会月报』 第11期1907.5.25 第12期1907.6.25 第13期1907.7.25	金成喜
灭国新法论	『清议报』 第85期1901.7.16 第86期1901.7.26 第89期1901.8.24	灭国新法论	『朝阳报』 第8期1906.10.25 第9期1906.11.10 第10期1906.11.25 第11期1906.12.10	不详
动物谈	『清议报』 第13期 1899.4.30	动物谈	『朝阳报』 第8期1906.10.25	不详
政治学家第三霍布 士学案Hobbes	『清议报』 第96期1901.11.1 第97期1901.11.11	政治学说英人霍 布士의 学说	『朝阳报』 第8期1906.10.25 第9期1906.11.10 第10期1906.11.25	不详
匈牙利爱国者噶苏 士传	『新民丛报』 第4期1902.3.24 第6期1902.4.22 第7期1902.5.8	噶苏士传	『朝阳报』 第9期1906.11.10 第11期1906.12.10	不详
动物谈	『清议报』 第13期1899.4.30	动物谈	『大韩协会会报』 第1期1908.4.25	大韩子
变法通议自序	『时务报』 第1期1896.8.9	“冰集节略” < 变法通议序>	『大韩协会会报』 第2期1908.5.25	洪福周
学校总论	『时务报』 第5期1896.9.17 第6期1896.9.27	“冰集节略” <学校总论>	『大韩协会会报』 第3期1908.6.25 第4期1908.7.25 第5期1908.8.25 第6期1908.9.25	洪福周
论学会	『时务报』 第10期1896.11.5	“冰集节略” <论学会>	『大韩协会会报』 第8期1908.11.25	洪福周
论师范	『时务报』 第15期1896.12.25	“冰集节略” <论师范>	『大韩协会会报』 第9期1908.12.25	洪福周
论幼学	『时务报』 第16期1897.1.3至 第19期1897.3.3	“冰集节略” <论幼学>	『大韩协会会报』 第10期1909.1.25 第11期1909.2.25	洪福周
国民十大元气论 独立论	『清议报』 第33期1899.12.23	“冰集节略” < 国民十大元气>	『大韩协会会报』 第12期1909.3.25	洪福周

(1) 『大韩自强会月报』의 译介

『大韩自强会月报』创刊于1906年7月31日，是政治团体大韩自强会创办的杂志，提倡通过‘实力养成’和‘文明开化’实现恢复国权和民众启蒙。1907年，随着大韩自强会的被迫解散，该杂志也随之终刊，共发行13期。杂志发表了诸多主张实现近代化和恢复国权的作品，成为重要的爱国启蒙运动舆论阵地⁵⁾。

『大韩自强会月报』先后发表梁启超作品4篇，其中译介作品3篇。

『大韩自强会月报』发表的第一篇梁启超译介作品为〈教育政策私议〉，拉开了近代启蒙期韩国杂志译介梁启超作品的序幕⁶⁾。该文主要探讨中国义务教育普及问题，为当时中国教育改革与发展提供了重要的参考和灵感。『大韩自强会月报』论述栏连载的译本出自著名社会活动家张志渊之手。张志渊在开篇阐述了“今取其教育政策议一篇호야 以贡我当局者采览”的翻译动机，明确其“但其所议者 一 专主诸国而言者故로 或有与我国으로 不无 衲啻齟齬之句易以我国之时状호야 以译述焉호니 盖取其意想言论之真实而已오 非纯用其文字者也⁷⁾”的翻译策略。而实际的翻译工作也的确按照所述策略开展，在删除了原文中不符合韩国国情的官职名、科举等级等文字的基础上，逐句直译了原文第一部分“教育次序议第一”，以及第二部分“学校经费议第二”的全部内容，梁启超绘制的“学校制度表”也被保留，在内容、形式、风格上最大程度地忠实于原文。

5) 한국근현대잡지자료 ‘대한자강회월보 해제’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

6) 近代韩国对梁启超的关注始于1897年。『大朝鲜独立协会会报』第6号刊发了〈清国形势의 可怜〉一文，文末提及“且清国新会에 잇는 人 梁启超氏가 昨年에 时事를 悲憤호야 波兰国 灭亡호 史에 托意호야”。文章还引用了梁启超编写的『波兰亡国史』中对国家自强的强烈呼吁：“鲸吞蚕食诸国以自广大虽出兵力抑亦有权谋焉以此权谋墟人国者非一姓矣波兰国内政不修积弱滋甚家有狐鼠乃欲倚虎狼而自壮乃知择肉而食始相顾失色无可为计谥为至愚不亦宜哉不图自强而欲庇大国之宇下藉他人保护呜呼则是以速其亡而已矣”。此后『皇城新闻』在1898年10月6日、10月11日和10月20日连续在外报栏关注康有为、梁启超等人在戊戌政变中的动向，并于1899年1月13日介绍了梁启超与他所创办的『清议报』。1899年3月17日，『皇城新闻』译介梁启超的〈爱国论〉，这是梁启超作品被近代韩国报纸译介的开始。而『大韩自强会月报』在1902年发表的〈教育政策私议〉则是最早出现在韩国近代杂志的梁启超译介作品。

7) 张志渊，〈教育政策私议〉，『大韩自强会月报』第3期，1906.9.25, p.16.

第二篇被译介的作品〈史记货殖列传今义〉采用在『史记』每段原文后添加按语的方式，用西方经济学的观点、事例对『史记』原文中的古代经济思想加以阐释，对有现实意义的地方加以评论。此文在『大韩自强会月报』上的译本名为〈理财说(梁启超今义)〉，译者金成喜摘取了原文中前八组按语及评论并逐句直译，摘译部分段落形式结构保存完整，且并未添加创作内容。译本题目的变化和摘译的内容折射出译者将梁氏经济思想视作在经济学领域对传统儒家经济思想的批判和重新阐释，其翻译、摄取的重点是西方经济思想指导下的‘理财’策略，体现了对西方经济思想的受容态度。

『大韩自强会月报』译介的第三篇文章为〈论教育当定宗旨〉，译文名为〈教育의 宗旨와 政治의 关系〉。作为维新运动的主要人物，梁启超在中国近代史上最早对现代教育宗旨进行了阐发，提出“教育无宗旨则寸毫不能有成”。文章体现了梁启超此时已逐渐脱离晚清‘中体西用’的教育宗旨，向‘开智新民’的现代教育宗旨转变。金成喜的译本包括创作和翻译两部分，即采用了‘译写’手法，以‘写’为主，以‘译’为辅，‘译’‘写’灵活整合。翻译部分中，译者挑选并逐句直译了原作中对雅典、斯巴达等六国典型教育模式的介绍及利弊分析部分，并基于此对本国教育现状有感而发：“呜呼！我韩之倡新教育论者始萌槩於甲午更张之後而不究实际고 徒存名义야..... 朝野上下가 皆知教育之不得不新호니”⁸⁾。在创作部分中，译者充分强调了本国制定现代教育宗旨的必要性及紧迫性。此外，译者突破原文框架，对比了西方宗教和东方儒教教育宗旨的异同，号召国民团结一心，“结合惟一无二之大团体”，提倡实行国教教育，以实现民族自由平等。

作为大韩自强会的机关报，『大韩自强会月报』发挥了宣扬自强运动的媒体作用，致力于教育发展、产业开发等多项启蒙课题。该报译介的三篇梁启超作品涉及教育、经济等主题，十分契合其办报宗旨。

8) 金成喜, 〈教育의 宗旨와 政治의 关系〉, 『大韩自强会月报』第11期, 1907.5.25, p.22.

(2) 『朝阳报』의 译介

『朝阳报』创刊于1906年6月25日, 每月10日和25日发行, 共计发行12期⁹⁾。『朝阳报』的发行主体并不明确, 所发表文章也全部匿名, 但从张志渊任主编, 李沂、柳瑾等自强会主要成员加入编辑团队以及文章论调来看, 该报与大韩自强会应该有着十分密切的关联¹⁰⁾。『朝阳报』发表大量政论文, 涉及教育、实业等领域, 报道国内外局势, 履行着向民众普及新知的政治使命。『朝阳报』自第8期起, 译介了梁启超四篇作品, 包括一篇寓言和三篇宣扬社会进化论、民权理论的政论文。

『朝阳报』译介的第一篇梁启超作品为〈灭国新法论〉。文章采用‘优胜劣汰’的生物进化论观点, 梳理了近代埃及、波兰、印度、波亚、菲律宾等国家的亡国史。『朝阳报』上的译本开篇阐述了译者的翻译初衷, “清国饮水室主人梁启超先生이眷眷以保全东洋으로立言著论者ㅣ甚多而其灭国新法论이甚悲切慷慨호야足以提警苟安之徒故로余ㅣ译述如左호야俾吾邦之人으로读之以自哀焉라”¹¹⁾。此后在四期连载中逐句直译了原文前15段内容。第11期连载结束时, 文末注有“未完”字样, 由此可以推断杂志原本有全译原文的计划。然而随着『朝阳报』第12期的改版以及随后的终刊, 此文连载最终未能完成。

〈动物谈〉是一部启示录式的著作, 通过四个人的对话形式, 以动物的比喻方式批判中国当时的落后和被列强欺凌的境况, 同时提倡国家自强、民智开发和民众觉醒, 表达了作者的政治抱负和爱国情怀, 对中国社会启蒙运动起到了一定积极促进作用。这篇寓言分别在1906年的『朝阳报』, 1907年『西友』以及1908年的『大韩协会会报』先后三次登上韩国杂志。除『西友』刊载的是汉文原本外, 其余两版均为韩汉混用文体译本。『朝阳报』第8期刊载的〈动物谈〉是目前已知韩国杂志中最早的译本, 采用逐句直译的翻译方法, 旨在宣传“优胜劣汰”“物竞天择”等社会进化论思想。

『朝阳报』第8期同时开启了〈政治学说 英人霍布士의学说〉一文的连

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양보’,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367>

10)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pp.28-29.

11) 〈灭国新法论〉, 『朝阳报』第8期, 1906.10.25, p1.

载。此文由梁启超基于日本中江兆民(Chomin Nakae, 1847-1901)的译著『理学沿革史(1886)』进行翻译和再创作。梁启超在文中系统介绍了霍布斯(Thomas Hobbes, 1588-1679)的民约论并对其进行了客观、全面的评价。不过,向来视翻译为宣传工具的梁启超在译介中大胆修正了日译本里的‘理学’等汉语概念,并在比较西方理论和中国传统思想关系时,对西方文化和中国传统思想持相互检视和综合扬弃的态度¹²⁾。『朝阳报』上的译本开篇写明“近世欧洲四大家의政治学说을支那饮水机主人이辑译한것을本记者가再译하야”,明确了重译的事实以及“政治思想의一路를开导하기为하야本纸에掲載하노라”的翻译初衷¹³⁾。在翻译过程中,译者逐句直译了梁启超在日译本以上另行创作的绪论及论述部分,而日译本中对霍布斯学说的介绍则只有开头一小段文字被保留,可见经过梁启超扬弃、融合后的民权思想更能得到译者的接受和共鸣。

『朝阳报』第9期开始了传记小说〈噶苏士传〉译本连载。此文讲述了匈牙利爱国者科尔沁·伯特兰德·噶苏士(Kossuth Lajos)的一生,描述了他领导匈牙利革命、争取独立的故事。这是梁启超撰写的第一篇西洋史传,也是他关注欧洲政治发展的开始,对其后来的思想和作品产生深远影响。与梁启超其他史传小说曾被多次译介不同,〈匈牙利爱国者噶苏士传〉在韩国报纸、杂志上唯一的译本就是『朝阳报』版本。从翻译的内容来看,译者逐句直译了原文中前三节和第四节的前六段。第3次连载结束后,文章末尾处注明连载“未完”,但同样是由于『朝阳报』第12期的改版和终刊,唯一的〈匈牙利爱国者噶苏士传〉译本连载就此中断。尽管如此,小说中爱国英雄噶苏士在民族主义运动的时势中成为尚武强国的典范,对于增强民族意识,培养爱国精神起到了积极作用。

12) 王志松,『中江兆民的『理学沿革史』与梁启超的〈霍布士学案〉——HISTOIRE DE LA PHILOSOPHIE在中日接受的东亚语境』,『中山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3期,2019, pp.78-88.

13) 〈政治学说 英人霍布士의学说〉,『朝阳报』第8期,1906.10.25, p.9.

(3) 『大韩协会会报』의 译介

大韩协会作为大韩自强会后组织，由尹孝定、张志渊等自强运动人士以及部分天道教人士创建而成，在教育普及、产业开发、生命及财产保护、行政制度改革等方面具有一定启蒙性。『大韩协会会报』作为大韩协会创办的杂志，创刊于1908年4月，每月25日发行，共发行12期，主要发表协会会员的演讲内容以及政论文章，涵盖教育、实业、政治、法律等诸多领域，论调呈改良、稳健特点¹⁴⁾，对韩国近代启蒙期政治经济思想改革产生了重要作用。

『大韩协会会报』主创团队集中了张志渊、洪弼周等深受梁启超影响的爱国人士，先后发表梁启超汉文原作1篇，译介作品7篇，是译介其作品较多的韩国杂志之一。

『大韩协会会报』创刊号发表了梁启超两篇文章，其中〈斯宾塞论日本宪法语〉为汉文原文转载，另一篇为小说栏的〈动物谈〉。同1906年『朝阳报』译本一样，这一版的〈动物谈〉也逐句直译了全文。不同之处是译者‘大韩子’在文末插入创作，发出了“大韩子曰 请为二千万人告¹⁵⁾”的疾呼，使读者感受到其对时局惨淡的悲愤、对国家前途的忧虑以及对未来的希望和抱负。

从第2期到终刊号第12期，『大韩协会会报』连载了协会发起人、著名抗日运动家、爱国启蒙运动家洪弼周译介的“冰集节略”系列作品。“冰集节略”作品大多出自『时务报』上的“变法通议”系列。这些文章写于戊戌变法前夕，是近代中国最为系统、全面地向国民宣传维新变法主张的作品，从理论上深入阐述了维新变法的必要性及作用，是晚清政坛名声最大的宣传作品，也使梁启超得到“舆论之骄子，天纵之文豪”的美誉。

“变法通议”包括〈自序〉在内共14篇文章，洪弼周选取、译述了〈自序〉〈学校总论〉〈论学会〉〈论师范〉〈论幼学〉5篇文章，并另行添加了〈国民十大元气〉一文，将这6篇文章汇集为“冰集节略”。

“冰集节略”第一篇文章为〈变法通议序〉，译自梁启超〈变法通议自

14) 한국근현대잡지자료 ‘대한협회회보 해제’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

15) 大韩子，〈动物谈〉，『大韩协会会报』第1期，1908.4.25，p.57.

序》。梁启超在〈自序〉中提出,‘变’为自然和社会之普遍法则,自然由变而成,社会也由变而生,并就此开始发表一系列鼓吹变法的文章,因此此文具有重要进步意义。洪弼周在正文开始前首先介绍译述“冰集节略”作品的背景,回忆了自己与梁启超在横滨会面的情景,坦言受其影响颇深。梁启超曾鼓励他多译西方书籍,但洪弼周并不擅长西方语言,又考虑到东西方文化差异,因而从梁启超《饮冰室文集》中选取“变法通议”部分作品,加以节略,译述而成这部“冰集节略”。创作背景介绍完毕,洪弼周逐句直译了这篇自序的全部内容。

“冰集节略”系列第二篇文章为〈学校总论〉,着重论述了政府的愚民政策是学校不兴、教育不立的根源所在,且职业教育缺失是国家百业不兴原因之一,并提出应设立新型学校以应时需,呼吁政府解决教育经费问题。译者逐句直译了原文大部分内容,但原文中有针对洋务运动时期新式学堂的教育内容和人才培养模式的批判部分,这部分不符合韩国国情的内容在译文中均被删除。

“冰集节略”系列第三篇文章为〈论学会〉,主要强调了群智的重要性,提出应建立具有中国特色的学会制度,使学会成为推动社会变革和进步的主要力量之一,这一建议在推动中国近代教育和文化的发展方面起到了积极促进作用。同样出于对国内实际情况的考虑,译者洪弼周删除了建设有中国特色的学会制度的相关内容,择要逐句直译了推进社会变革和进步中学会的重要性论述部分,以此强调知识和群众的力量对于国家治理和社会进步的积极意义。

“冰集节略”系列第四篇译文为〈论师范〉,文章提出参考日本寻常师范学校之制建立师范学校,以及将师范学堂设立同小学堂设立相结合的主张,并将这些主张视作中国革旧习、兴智学,促进国家发展的有效措施。洪弼周删除了原文中对中国‘洋学堂’照搬西方教育制度的批评部分,以及建设中国师范学校的具体措施,择要摘译了倡议将师范学堂与小学堂的设立相结合的内容。

“冰集节略”系列第五篇文章为〈论幼学〉。梁启超非常注重儿童教育,在〈论幼学〉一文中详细阐述了儿童教育的内容和方法,提出应开发符合儿童身心发展规律的教育程序。因此,他为八至十二岁的儿童拟定了功课表,提出循

序渐进的教育方式，具有很强的现实意义和启示意义。〈论幼学〉原文篇幅很长，洪弼周选取了原文前半部分进行逐句直译，主要包括对民众文化程度低下的原因剖析、对中国儿童教育现状的批评以及开展儿童教育对启发民智的重要作用等内容，删减了梁启超拟定的儿童功课表以及开展儿童教育的具体措施。

“冰集节略”最后一文为〈国民十大元气〉，发表于『大韩协会会报』终刊号。这篇文章与前五篇作品不同，并非出自『时务报』“变法通议”系列，而是译自『清议报』上的〈国民十大元气论 独立论〉。文章主要阐述了独立对于人和国家的重要性，疾呼只有改变民众的奴性和依赖性，国家才有可能走向强盛。洪弼周逐句全译此文作为“冰集节略”的收官之作，发表在杂志的最后一期，不得不说意味深长。彼时的韩国，即将全面沦陷为殖民地。面对彻底亡国的惨痛局面，洪弼周在此时译介此文，尽管未曾添加创作内容，也可以让读者通过文字感受到译者为了唤醒国人对于独立自主的渴望而发出的无声呐喊。

和其他维新派人士一样，梁启超是一名教育救国论者，也是著名教育思想宣传家，在中国近代教育史上发挥了重要作用。洪弼周所译介的“变法通议”系列作品大都强调兴建学校、培养人才，将教育作为开民智、兴民权的基础，教育救国思想十分集中。

2) 学会杂志上的梁启超作品译本

刊载梁启超作品译本的学会杂志主要有『西友』、『西北学会月报』、『畿湖兴学会月报』、『湖南学报』以及『岭南教育会杂志』。这五种杂志均呈现明显的地域性，致力于地方教育及知识振兴，先后发表梁启超译介作品17篇，另有汉文原文作品4篇。相对于政治团体而言，学会更加注重民智的启蒙与素质提升，侧重选择国家发展亟需关注和改进的教育、宪政、立法等领域的学说进行译介，是为了响应爱国启蒙需求，引进国外先进理论和学术成果，引起社会对这些重要问题的关注，推动理论研究和社会进步。同时学会杂志也更加注重爱国精神的弘扬，希冀通过刊载这些作品加强国民的爱国意识和民族自信。其译

介信息详见表2。

〈表2〉学会杂志梁启超作品译介信息整理表

原作标题	原作出处	译文标题	译文出处	译者
爱国论	『清议报』 第6期1899.2.20 第7期1899.3.2	爱国论	『西友』 第2期1907.1.1	朴殷植
学校总论	『时务报』 第5期1896.9.17 第6期1896.9.27	学校总论	『西友』 第2期1907.1.1 第3期1907.2.1 第4期1907.3.1 第5期1907.4.1	朴殷植
论学会	『时务报』 第10期1896.11.5	论学会	『西友』 第4期1907.3.1	李甲
论师范	『时务报』 第15期1896.12.25	师范养成에 急务	『西友』 第5期1907.4.1	朴殷植
论幼学	『时务报』 第16期1897.1.3至 第19期1897.3.3	论幼学	『西友』 第6期1907.5.1 第7期1907.6.1 第8期1907.7.1 第9期1907.8.1 第10期1907.9.1	朴殷植
论进取冒险	『新民丛报』 第5期1902.4.8	冒险勇进은 青年의 天职	『西友』 第12期1907.11.1	金河琰
论女学	『时务报』 第23期1897.4.12 第25期1897.5.2	女子教育의 急先务	『西友』 第15期1908.2.1	金河琰
呵旁观者文	『清议报』 第36期1900.1.21	呵旁观者文	『西北学会月报』 第2期1908.7.1	东一子
世界最小民主国	『清议报』 第39期1900.3.20	世界最小民主国	『西北学会月报』 第2期1908.7.1	一吁生
论毅力	『新民丛报』 第?期1903	永集译述, 论毅力	『西北学会月报』 第10期1909.3.1 第11期1909.4.1	不详
政治学案第三 霍布士学案 Hobbes	『清议报』 第96期1901.11.1 第97期1901.11.11	政治学说 霍布士学说 第一	『畿湖兴学会月报』第 6期1909.1.25 第7期1909.2.25	李春世

			第8期1909.3.25 第9期1909.4.25 第10期1909.5.25	
教育政策私议	『新民丛报』 第8期1902.5.22	梁氏学说 教育次序议 第一	『湖南学报』 第1期1908.6.25	李沂
立宪法议	『清议报』 第81期1901.6.7	政治学说 立宪法议	『湖南学报』 第2期1908.7.25	李沂
论新民为今日中国 第一急务	『新民丛报』 第1期1902.2.8	晨钟普警	『湖南学报』 第4期1908.10.25	崔东植
论立法权	『新民丛报』 第2期1902.2.22	政治学 立法权论	『湖南学报』 第4期1908.10.25 第5期1908.10.25 第6期1908.11.25 第7期1908.12.25	李沂
政治学学理臆言	『新民丛报』 第15期1902.9.2 第18期1902.10.16	学理臆言	『湖南学报』 第8期1909.1.25 第9期1909.3.25	李沂
新民说 绪论 论新民为今日中国 第一急务	『新民丛报』 第1期1902.2.8	支那梁启超新民 说	『湖南教育会杂志』 第1期1909.4.25	李钟冕

(1) 『西友』의 译介

西友学会是1906年创建的爱国启蒙团体，主要成员为平安道出身的新兴知识分子。该学会致力于教育及知识振兴，引导大众积极参与爱国启蒙运动。『西友』作为其学会杂志，创刊于1906年12月1日，共发行17期，朴殷植任主编¹⁶⁾。『西友』发表了大量追求教育及知识振兴的文章，文体上以韩汉混用文体为主，间或也发表一些汉文作品。据统计，该杂志共发表梁启超作品11篇，其中译文7篇，汉文原作4篇，是发表梁启超作品最多的韩国杂志之一。

〈爱国论〉是梁启超于1899年发表于『清议报』的著名文章。作为阐述具有现代意义的爱国主义内涵和重要性的名篇，〈爱国论〉在韩国同样引起了广泛关注和共鸣，甚至围绕‘爱国’一词派生了‘爱国歌’‘爱国者’‘爱国主义’等近代新词。据统计，〈爱国论〉仅在韩国国内便先后有『皇城新闻(1899)』¹⁷⁾『独

16) 한국근현대잡지자료 ‘서우 해제’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

立新闻(1899)』¹⁸⁾和『西友(1907)』¹⁹⁾三个译本,其中『皇城新闻』和『西友』译本为韩汉混用文体,以摘译、直译为主,而『独立新闻』译本为韩文体,采用了译述的翻译方法。除韩国本土外,在美韩国侨胞报纸『共立新报(1907)』²⁰⁾也曾基于『皇城新闻』译本发表过缩译的韩文译本。诸多版本中,『西友』版〈爱国论〉是唯一发表在杂志上的译本。译者朴殷植完整直译了原文前13段内容,且与『皇城新闻』版本不同的是,他保留了诸如国民权利保护、爱国自强政策以及爱国教育等内容,体现出译者不再对恢复儒家思想统治下的“理想国家体制”抱有期待,转变为支持国家体制的彻底变革。

作为致力于教育和知识振兴的学会杂志,『西友』比『大韩协会会报』更早关注到阐述教育思想的“变法通议”系列。首先,朴殷植逐句直译了〈学校总论〉全文,连载于『西友』第2期至第5期。第4期李甲又发表〈论学会〉译文,略早于洪弼周在『大韩协会会报』上发表的版本。而且洪弼周版为择要摘译,而李甲的版本则逐句直译了原文的全部内容。李甲还在文末添加了创作部分,提出学会为“世界上社会中最广大最善者”,为“规模之最完备者”,为“事业之最紧要者”,为“功效之最盛大者”,因而对国家和民族的繁荣昌盛有着不可替代的作用,并提出“今日吾侪之发起学会即是我韩之发创之初也。果能齐诚协力以扩张进进则来头功效未可限量也。惟我社友各其血心担着此诸般目的也。右所论如或得达则吾侪之志愿已毕矣。念之勉之。이다”的殷切希望²¹⁾。

“变法通议”系列作品〈论师范〉发表于第5期。译者朴殷植对原文做了宏观的摘译和译述,在布局上与原文基本相似,先后论及师范教育的重要性、日本的师范教育制度,并在批判本国教育制度现状的基础上,提出了建设师范教育制度的建议。在文章最后的创作部分,朴殷植介绍了西友学会设立私立

17) 〈余近日에 清议报를 阅览 하다가〉, 『皇城新闻』, 1899.3.17, 1899.3.18.

18) 〈이국론〉, 『独立新闻』 1899.7.27, 1899.7.28.

19) 朴殷植, 〈爱国论〉, 『西友』第2期, 1907.1.1.

20) 〈이국론〉, 『共立新报』, 1907.10.4.

21) 李甲, 〈论学会〉, 『西友』第4期, 1907.3.1, pp.29-30.

师范学校的情况，并向学会社友呼吁“惟我社友는 其 扩张方针을 对 하야 아모 杻륙 同心协助 하며 并力做去 하야 有始有终의 实效를 快奏케 하기로 十分 务望 하노니 呜呼 其念之勉之 어다²²⁾”，表达了期盼振兴师范教育的急切心情。

“变法通议”系列作品〈论幼学〉连载于第6至10期。这一版本的译文不同于『大韩协会会报』上仅有3400字的摘译版，朴殷植逐句直译了包括梁启超设计的儿童功课表在内的全部内容，译文长达15800余字。

『西友』第12期译介的梁启超作品是选自『新民说』的〈论进取冒险〉。这篇文章强调了‘进取冒险’精神的重要性，认为中国缺乏国家内部和民族之间的竞争，丧失了作为‘进化之母’的原动力，提倡保守与进取的调和统一。『西友』上的译文更名为〈冒险勇进은 青年的 天职〉，译者金河琰使用了摘译、译写等多种翻译方法，删除了原文中过于繁多的经典名句和名人事例，甚至还插入了梁启超〈呵旁观者文〉中的部分内容，告诫青年作为国家未来的主人，要有虽千万人而吾往矣的冒险进取精神，肩负起国家未来的责任和使命。这篇文章杂糅了〈论进取冒险〉和〈呵旁观者文〉两篇文章，又融入了大量译者的创作内容，在以直译、全译为主的『西友』译介作品中较为少见。

『西友』发表的最后一篇梁启超作品是“变法通议”系列的〈论女学〉。梁启超在文中提出“欲强国必由女学”，将国家强盛与否与女学兴盛与否联系起来。此惊人之论激发了当时中国社会对女子教育问题的关注，为妇女解放和平等教育做出了积极倡导，对女子教育运动和社会变革产生深远影响。『西友』的译本更名为〈女子教育의 急先务〉，译者仍为金河琰。梁启超在原文中提出“天下积弱之本，则必自妇人不学始”，并从劳动生产、女性发展、儿童教育以及胎教四方面对该观点加以论证。而译者摘译了前三个方面的论证部分，以及原文中美、日等强国大兴女学等内容，边译边写，提出“我国现势의 惨状을 推究하면 其 原因이 女子를 不教함에 在하도다²³⁾”的观点，将女学的

22) 朴殷植, 〈师范养成의 急务〉, 『西友』第5期, 1907.4.1, p.3.

23) 金河琰, 〈女子教育의 急先务〉, 『西友』第15期, 1908.2.1, p.13.

重要性上升至影响国家兴亡的高度。面对本国女学不兴的现实，译者和梁启超一样深感痛心，向全国女性同胞及当局者发出呼吁，号召女性努力修学，勇于追求幸福和社会地位，四次提及女子教育“急先务耳”，以此强调兴办女子教育的重要性和紧迫性。

西友学会作为近代启蒙期政治活动最为活跃的学会之一，十分关注教育与知识振兴。『西友』杂志所译介的梁启超作品围绕着教育、爱国、理想等主题，无不体现着原作者和译者救国图存、追求真理的精神。7篇译文中中有3篇出自『西友』主编朴殷植之手。作为受梁启超作品影响较大的著名爱国启蒙运动家，朴殷植除『西友』外，也曾任『独立新闻』、『皇城新闻』、『大韩自强会月报』、『大韩协会会报』等多份报纸、杂志任职或撰稿，多次译介梁启超文章或著作，对梁启超作品在韩国的译介及受容起到了重要推动作用。

(2) 『西北学会月报』的译介

1908年，西友学会和汉北兴学会合并而成西北学会。该学会以西北地区人士为中心，参与者多为平安道、咸镜道、黄海道等地的新兴知识分子或市民。西北学会从社会进化论认识出发，以恢复国权、保障人权，建立立宪共和国为目标，开展发行学报、启蒙演讲、青年指导等系列启蒙活动，为民族独立运动做出重大贡献²⁴⁾。『西北学会月报』作为西北学会发行的学会杂志，创刊于1908年6月1日，共发行23期²⁵⁾，朴殷植任主编，金河琰为编辑兼发行人，主要发表启蒙运动相关理论文章，涵盖发展教育和民族实业等多种主题。和『西友』相比，该杂志文章种类更加丰富，同时也受到赴日留学生团体的影响，译自中国的作品呈减少趋势，目前现存19期杂志中共有梁启超作品译文3篇。

『西北学会月报』首先在第2期译介了〈呵旁观者文〉。该创作于戊戌变法失败不久的1900年，是梁启超“新文体”代表作之一。文章从“国家之盛衰

2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북학회’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7787>

25) 目前能查询到的『西北学会月报』资料只有1910年1月为止发行的前19期。

兴亡”这一高度出发，比喻生动、议论深刻，将作者对国家命运的忧虑和对国民性的认识表现得淋漓尽致。译文出自笔名为‘东一子’的译者之手，除删除原文中过于繁复的描写部分外，几乎逐句直译全文。此文的译介对于提醒处于内忧外患的韩国民众保持对国家前途的关注并为之奋斗具有积极作用。

同样在第2期，《西北学会月报》还发表了‘一吁生’译介的〈世界最小民主国〉。〈世界最小民主国〉原文发表于《清议报》，后被收录至介绍西方思想和政治制度的《自由书》。梁启超在文中介绍了世界上最小的四个民主国家，认为这些国家虽然面积小、人口少，却具备完备的行政机构和独立主权，以此来强调国家的本质。《西北学会月报》上的译文逐句直译了全文内容，以此向读者介绍梁启超的国家思想。

随后几期的《西北学会月报》暂时停止了对梁启超作品的译介，直至第10期，杂志开辟了“冰集译述”专栏，开启〈论毅力〉一文的连载。这篇文章创作于戊戌变法失败后，被收录至《新民丛报》中的《新民说》文集。在许多维新派人士遭到逮捕、处决或流亡的背景下，梁启超通过此文，提出坚持毅力的重要性。他围绕“有毅力者成，反是者败”这一中心论点，阐述了逆境下保持毅力的必要性。“冰集译述”专栏的译者不详，他摘译了原文前六段内容进行逐句直译，以此号召民众不要被暂时的逆境打倒，继续为争取国家独立而前进。

“冰集译述”专栏的设立表明《西北学会月报》原本应是有持续译介梁启超作品的计划，但后续的几期杂志里，卫生、农林等领域的科普文章和学会运营、学校活动的介绍类文章逐渐增多，“冰集译述”未能持续下去，并就此终结了该杂志对梁启超作品的译介。尽管如此，从《西友》到《西北学会月报》，这两份学会杂志致力于国民启蒙教育，陆续译介了梁启超诸多与教育学和教育体制改革有关的作品，以及近代国家思想方面的学说，主编朴殷植本人也多次亲自参与译介工作。在这两份杂志的推动下，梁启超作品在西北地区新兴知识分子和市民阶层中均产生了重要影响。

(3) 『畿湖兴学会月报』的译介

畿湖兴学会创建于1908年1月,是以畿湖地区人士为核心,以民族自强为目的,从事教育启蒙运动的团体,开展了立足于教育救国论的系列活动,包括促进新教育、爱国主义教育、学校教育、义务教育、师范教育等内容,李容植,尹雄烈、金允植、洪弼周先后担任学会会长。『畿湖兴学会月报』作为该学会的学会杂志,创刊于1908年8月,主要发表恢复国权、兴办教育相关文章,到1909年7月终刊为止共发行12期。杂志发行人兼编辑为金奎东和李海朝,申采浩、张志渊、朴殷植等均多次在该杂志发表作品²⁶⁾。

〈政治学说 霍布士学说 第一〉是『畿湖兴学会月报』译介的唯一一篇梁启超作品,译者为李春世。『朝阳报』曾在1906年发表过此文的摘译译本,约3900字,而李世春版为逐句直译的全译本,约8000字,将经由梁启超扬弃、创新的西方政治哲学更为全面地介绍给广大韩国读者。

(4) 『湖南学报』的译介

1907年7月,全罗南道出身人士在首尔创立湖南学会,目的在于促进湖南地区教育发展,开展主权守护运动。学会支持来自湖南地区的学生就学,并设立法学讲习所和测量学校,积极推动人才培养²⁷⁾。学会杂志『湖南学报』首刊于1908年6月25日,直至1909年3月25日终刊,共发行9期,李沂任编辑兼发行人²⁸⁾。与其他杂志不同的是,李沂在『湖南学报』编辑工作中发挥了绝对核心的作用,大量文章译自他手。『湖南学报』共译介梁启超作品5篇,其中4篇出自李沂,连载贯穿杂志发行始终。

致力于教育运动的『湖南学报』在创刊号发表了李沂译介的〈教育政策私议 教育次序议 第一〉,并将其命名为〈梁氏学说 教育次序议 第一〉。作为呼吁普及义务教育、推广现代教育体系的重要作品,张志渊曾经在『大韩自

26) 한국근현대잡지자료 '기호홍학회월보 해제'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

27) 두피디아 '호남학회' https://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WT.ac=search

28) 한국근현대잡지자료 '호남학보 해제'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

强会月报』上也译介过此文。对比两篇译文会发现二者相似之处颇多，渊源极深。例如，两个译本的段首语十分相似，且均删除了原作者阐述创作意图的部分，加入译者对梁启超及其作品的评价以及翻译初衷。同时，两个译本在遣词造句方面基本一致，对原文的增删处理也相同。不过李沂的译介只包括“教育次序议第一”，不包括“学校经费议 第二”部分，比张志渊版少了近3000字。

从『湖南学报』第2期起，李沂开辟了“政治学说”专栏，陆续译介了梁启超的〈立宪法议〉〈论立法权〉以及〈政治学学理摭言〉三篇文章。李沂在专栏开设之始便阐明了翻译动机，并直言“今立宪诸国은则其民이皆有选举权议法权호야莫不得与於政治라。故로君不敢以非法으로虐其民호고民不敢以非法으로犯其君호야文明之基와富强之业이未有不起于是者矣로되²⁹⁾”，以此强调立宪政体的确立、选举权立法权的保障对于建立文明富强国度的重要意义。然而李沂认为现有政治学说普遍适用于西方而非东方，适用于古时而非今时，“独梁启超氏所述이颇为完备라³⁰⁾”，因此他在原书基础上略作修整进行翻译创作。

近代中国先进知识分子一直以来追求实行立宪政体这一政治目标。作为明确提出宪政目标并筹谋实施方案的第一人，梁启超于1901年发表了〈立宪法议〉，强调在中国要限制统治者权力，必须强调民权。梁启超还具体规划了制定宪法和实施宪法的步骤，力图建立行之有效的宪政³¹⁾。李沂除删除原文中个别英文单词外，逐句直译了全文内容，作为“政治学说”专栏的第一篇作品。

“政治学说”系列第二篇文章译自〈论立法权〉，此文充分体现了梁启超的法律思想，强调立法权必须属于全体人民，主张人民应通过普选参与到法律制定和修改中，以确保法律的合理性和公正性。这些思想不仅是中国法制近现代史中不可忽视的历史文化遗产，也经『湖南学报』的译介，对韩国法制现代化起到一定的积极作用。

“政治学说”系列第三篇文章为〈学理摭言〉。原文〈政治学学理摭言〉包

29) 李沂, 〈政治学说 立宪法议〉, 『湖南学报』第2期, 1908.7.25, p.29.

30) 上文, p.29.

31) 耿云志, 『重读梁启超的〈立宪法议〉』, 『广东社会科学』第1期, 2014, pp.115-119.

括“君主无责任义”和“最大多数最大幸福义”两部分。“君主无责任义”体现了梁启超对君主制度的独特理解，而“最大多数最大幸福义”则主要从政治学角度探讨梁启超治国思想中关于‘群治’理念的核心与实践意义。李沂逐句直译了原文导语部分以及“君主无责任义”前七段内容，并在文末注明“以下次号”，看似是有继续连载的计划。但随着『湖南学报』第9期的停刊，“政治学说”连载就此结束。

『湖南学报』译介的梁启超作品虽大多出自李沂，但从第1期开始连载的崔东植作品〈晨钟普警〉中，也可以追寻到梁启超作品的踪迹。综观〈晨钟普警〉一文，主要阐述了教育的重要意义，将教育视作启发民智、振兴国家的重要手段。其中发表于『湖南学报』第4期的主要内容便是译述自梁启超『新民说』第二节〈论新民为今日中国第一急务〉。崔东植在梁启超所树立的关于‘内治’和‘外交’为新民第一急务的框架内，结合本国实际增加创作内容，表达了对国家政治和外交问题的担忧，指出政治问题的解决应该倚重民众，强调教育和学问的重要性，以及培养民众的德智力量，以应对外部压力困扰的建议。

『湖南学报』和李沂通过译介“政治学说”系列作品，试图加深读者对现代政治学说的理解，呼吁韩国民众充分认识并运用政治、法律学理，对促进韩国近代政治制度及宪法改革具有一定意义。

(5) 『嶠南教育会杂志』的译介

嶠南教育会创建于1908年，主要参与者为庆尚道出身的新兴知识分子，是以实现教育普及、国权恢复、产业发展、人权保护为目的的爱国文化团体，同时也致力于韩文、国史、自然科学知识普及。嶠南教育会在反抗殖民侵略、促进民族团结、爱国主义思想宣传方面做出了重要贡献。『嶠南教育会杂志』作为嶠南教育会所创办的学术杂志，1909年4月创刊，发行人兼编辑为朴晶东，终刊于1910年5月，共发行12期³²⁾。杂志主要发表地理学、教育学、史

32) 한국근현대잡지자료 '교남교육회잡지 해제'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

学、法学等学术领域的文章，并提出了一系列涉及破除地域保守性、摆脱落后面貌、应对时代发展的主张³³⁾，对启蒙运动具有重要意义。

『嶠南教育会杂志』创刊号的杂文栏发表了〈支那梁启超新民说〉一文。这篇文章译自梁启超『新民说』前两节，即〈绪论〉及〈论新民为今日中国第一急务〉。梁启超在文中提出“新民为今日第一急务”这一极富前瞻性的口号，强调建立现代化国家需改变的是国人的思想观念和行为习惯，树立独立、自由和爱国意识。译者李钟冕逐句直译了这两节原文，并未插入创作内容。从译文命名为〈支那梁启超新民说〉以及译文最后标有“未完”字样这两点来看，杂志应是有连载『新民说』的计划。然而目前『嶠南教育会杂志』完整版本难以被检索，且从可以查证的1至12期目录来看，『新民说』连载从第二期开始中断了。

3) 赴日留学生团体杂志上的梁启超作品译本

刊载梁启超作品译本的赴日留学生团体杂志主要是『太极学报』。『太极学报』为在日韩国留学生团体太极学会所创办。该学会1905年在东京成立，致力于在日韩国留学生亲睦活动，同时也是当时最为活跃的启蒙团体。太极学会不仅发行了『太极学报』，还设立了太极学校，给韩国国内的启蒙运动带来积极影响。『太极学报』创刊于1906年8月24日，直至1908年12月24日终刊，共发行27期，是近代启蒙期韩国存续时间最长的杂志。杂志每期发行量达一千以上，不仅在韩国国内，也发行至美国等地，发表大量宣扬实力养成论和社会进化论的启蒙作品³⁴⁾。

事实上相对于韩国国内杂志而言，在日留学生团体杂志所受到的言论制约更为严苛，较少发表政治倾向明显的作品，而是更多关注学术研究和新文学。『太极学报』译介的〈论自由〉和〈无名之英雄〉不仅鼓舞和弘扬了民族自信，还宣传了自由、民主、宪政等普世价值，与当时的日本社会有所共鸣，

33)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p.62.

34) 한국근현대잡지자료 '태극학보 해제'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

体现了留学生团体对国家发展和文化交流的关注和重视。译介作品信息详见表3。

〈表3〉赴日留学生团体杂志梁启超作品译介信息整理表

原作标题	原作出处	译文标题	译文出处	译者
论自由	『新民丛报』 第7期1902.5.8 第8期1902.5.22	自由论	『太极学报』 第3期1906.10.24	文一平
无名之英雄	『清议报』 第37期1900.2.28	无名의 英雄	『太极学报』 第18期1908.2.24	郑济原

文一平在『太极学报』第3期发表了〈自由论〉。其原文〈论自由〉是梁启超『新民说』系列作品中的第九章。梁启超在文中对美国华人社会自由过度感到忧虑，提出利用专制传统实行‘国家社会主义’的想法。不过他也夸大了自由的崇高地位以及道德的社会作用，但这种夸大在急于挣脱封建思想枷锁束缚的年代是具有积极意义的³⁵⁾。文一平选择性地摘译了原文中发表于『新民丛报』第7期的部分内容，这种“选择”体现在译者舍弃了原文“不自由毋宁死”这个观点上，体现出译者在认同个性独立和思想自由的基础上，并不希望过分夸大自由的作用。在文章最后，译者添加了创作部分，强调‘个人自由’与‘服从’的关系，反对‘伪自由’、‘偏自由’和‘野蛮自由’观念，在主张个性独立和思想自由的同时，强调了保持秩序和遵守法律的重要性。

『太极学报』第18期发表译文〈无名의英雄〉。其原文〈无名之英雄〉译自日本德富苏峰(とくとみそほう, 1863-1957)『静思余录』中〈无名之英雄〉一文。梁启超通过翻译和再创作，在中译本表达了对无名英雄的热切期盼。译者郑济原重译了梁启超的译本，表达了在动荡不安的社会环境中，对于无名英雄期待，希冀社会能够充分重视无名英雄，使具有潜力的英雄能够施展才华。

『太极学报』译介的两篇文章均未明确注明文章为译作，也未注明原作

35) 康雪 编著, 『梁启超新民说』, 北京: 中国文史出版社, 2013, pp.85-86.

者，而且都采用了摘译、译述相结合的‘豪放’的翻译方法，这与韩国国内大部分杂志版权意识明确，多采用全译、逐句直译的翻译方法较为不同。

4) 商业杂志上的梁启超作品译本

除上述三类杂志外，20世纪初还涌现了『少年韩半岛』『少年』『夜雷』等商业性较强的一些杂志。其中1906年11月1日创刊的『少年韩半岛』是韩国近代最早的商业性月刊，也是最早的少年杂志，直至1907年4月终刊，共发行6期，梁在蹇为主编兼发行人，李海朝为编辑³⁶⁾。尽管是少年杂志，旨在普及分科学问及新教育、新文学，政治性相对淡化，但『少年韩半岛』仍发表了诸多主张自由、反专制的作品，这其中便包括〈自由母〉。该作品基本信息见表4。

〈表4〉商业杂志梁启超作品译介信息整理表

原作标题	原作出处	译文标题	译文出处	译者
自由母	新民丛报 第17期1902.10.2 第18期1902.10.16	近世第一女杰 罗兰夫人传	『少年韩半岛』 第1期1906.11.1 第2期1906.12.1 第3期1907.1.1 第4期1907.2.1 第5期1907.3.1 第6期1907.4.1	梁在蹇

从创刊到第6期杂志终刊为止，主编梁在蹇以〈自由母〉为题，译介了梁启超史传小说〈近世第一女杰罗兰夫人传〉。这部小说是一部重译作品，原文有48段³⁷⁾，而梁启超在翻译中大量删减了罗兰夫人成长过程中的轶事等内容，将文章减少至32段，又增加2段论述，在将罗兰夫人塑造造成更为中性化的

36) 두피디아 ‘소년한반도’, https://www.doopedia.co.kr/search/encyber/new_totalSearch.jsp

37) 据송성준(2021)考证，〈近世第一女杰罗兰夫人传〉底本为日本德富芦花(도쿠토미로 카, 1868-1927)于1893年12月至1894年2月连载于『家庭杂志』的〈佛国革命の花〉，后于1898年4月被收录至单行本『世界古今名妇鉴』。

英雄形象的同时，批判了革命的过激性，最终得出‘畏乱(革命)’的结论。

梁启超的译本充分体现了他对于翻译的工具性认识，即把翻译视作警示革命的宣传手段。『少年韩半岛』连载的〈自由母〉便充分利用了翻译的工具性。梁在蹇首先在杂志连载〈教子弟新学〉一文，在文中阐述对于‘自由’的认识，提出自由应在道德和精神层面被加以限制，倡导道德精神上的改革，反对暴力革命，体现了较为保守的革命观³⁸⁾。而每一期〈教子弟新学〉后，均有小说〈自由母〉作为辅助阅读材料。〈自由母〉以逐句直译为主，不过梁在蹇也适当添加了创作内容，例如在开篇处他便仿造原文排比句式写道：“十九世纪以後世界之自由가不可不、母、罗兰夫人이오二十世纪之少年韩半岛가不得不、母、罗兰夫人이오我尹兮尹兮之青年子弟가不得不、母、罗兰夫人也이로다³⁹⁾”。此外，译文也对原文有所改造。例如原文曾提及罗兰夫人扫除宗教迷信，对‘耶稣’‘摩西’‘神甫’‘教会’多有批判，而译者删除了这些直白的批评，只用“荒忽不经之奇迹”一言带过，体现了对待宗教的谨慎态度。

由于『少年韩半岛』只发行到了第六期，所以〈自由母〉的连载并不完整，只译介了有关罗兰夫人的成长、婚姻等法国大革命开始前的内容，但它依然可被视作〈近世第一女杰罗兰夫人传〉在韩国最早的译本。

3. 梁启超作品译介特点分析

1) 对梁启超启蒙思想及文体的正面评价

近代启蒙期的韩国译者在杂志上译介梁启超作品时，大多对其启蒙思想和文体予以正面积积极的评价。这些评价主要出现在文章开篇处，例如张志渊在〈教育政策私议〉文首指出，“梁启超先生은 清人也라. 其 学术言论이 精邃渊博호야 足以为一世之表准而特於教育에 尤惓惓致意者 | 其旨可见也라⁴⁰⁾”，对其学术成就大为赞赏。洪弼周在译介“冰集节略”系列时赞梁启超为“今

38) 손성준, 「국한문체 <라란부인전>, <자유모(自由母)> 에 대하여- 대한제국기 량치차오 수용의 한 단면-」, 『사이间SAI』 제31집,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1, pp.131-160.

39) 梁在蹇, 〈自由母〉, 『少年韩半岛』第1期, 1906.11.1, p.7.

东洋维新派之第一指也”，认为“盖其议论이 宏博辯肆하야 出入古今하고 通贯东西하야 剖析之精细则透入毛孔하고 范围之弘大则包括天壤호되 要皆切中时宜호니 洵可谓经世之指南也라⁴¹⁾”。李沂也坦言，之所以译介梁启超的“政治学说”系列，正是因为当时较为流行的政治学理论普遍“但其为术이 有便於西호고 而不便於东호며 亦有宜於古호고 而不宜於今호야 其论政治学者 非一二手로되 而独梁启超氏所述이 颇为完备라⁴²⁾”。

梁启超的‘觉世’之文之所以能够得到诸多韩国学者的积极评价，首先与近代以来中韩两国‘同病相怜’，同样面对着列强的侵略和蹂躏以及同处于传统文明向近代文明转变的关键阶段息息相关。他的作品大力提倡汲取西方文明、鼓吹爱国启蒙思想，希冀通过开民智、兴民权，实现国家独立富强，引起了韩国知识界的深深共鸣。其次，梁启超所开创的‘新文体’平易畅达、语言丰富，“其文条理明晰，笔锋常带情感，对于读者，别有一种魔力焉”⁴³⁾，也给处于‘言文一致’文体变革时期的韩国学界带来了新鲜养分。

2) 直译为主、译述为辅的译介方式

近代启蒙期韩国杂志上的梁启超作品译介全部采用韩汉混用文体，在翻译上则采用以直译为主的译介方式。韩汉混用文体译本中的直译多为严格的、逐句的翻译。以朴殷植译介的《学校总论》开篇第一句为例：

原文：“吾闻之春秋三世之义 据乱世以力胜 升平世智力互相胜 太平世以智胜⁴⁴⁾”

译文：“吾闻之호니 春秋三世之義에 据乱世에는 以力胜호고 升平世에는 智力이 互相胜호고 太平世에는 以智胜이라⁴⁵⁾”

40) 张志渊, 《教育政策私议》, 『大韩自强会月报』第3期, 1906.9.25, p.16.

41) 洪弼周, 《冰集节略 变法通议序》, 『大韩协会会报』第2期, 1908.5.25, p.25.

42) 李沂, 《政治学说 立宪法议》, 『湖南学报』第2期, 1908.7.25, p.29.

43) 梁启超, 『清代学术概论』, 上海: 商务印书馆, 1923, p.153.

44) 梁启超, 《学校总论》, 『时务报』第5期, 1896.9.17, p.1.

45) 朴殷植, 《学校总论》, 『西友』第2期, 1907.1.1, p.13.

对比可以发现,译文在用词上呈现出对固有词的排斥态度,除助词、词尾外,并未使用任何固有词,在形式上也保留大量汉文词组甚至语序,这类翻译在杂志上的译介作品中极为常见。然而由于这些杂志的受众以汉学知识丰富的知识阶层为主,这种现在读来较为生硬的译本在文化传播上的效果依然显著。

34篇译介作品大多全译了原文内容,或是受到篇幅限制以及译者的主观意识影响,删除了原文中过于繁复的表达或是与韩国国情不符的内容。这种有意识的摘译通常相对完整地保留了原文的篇章结构。部分译者会在文章开头或末尾处阐述翻译动机,但并未给原文结构带来影响。然而,仍然有近三分之一的作品采用了译述的方式,对原文的形式和内容加以大刀阔斧的改造,将创作与翻译有机结合起来,不仅在语篇结构顺序上做出较大变动,还增加大量译者的创作内容,极大地改变了原文的面貌。这种译述方式在同时期的韩国报纸上更为常见,与清末民初中国译坛流行的‘豪杰译’也十分相似。

以金河琰〈冒险勇进은青年의天职〉为例,文章主体译自〈论进取冒险〉,却又引述了梁启超在〈呵旁观者文〉中对‘混沌派’的批判,感慨当下人们“饥则食^ㅎ며 饱则游^ㅎ야 户以内은 即 小天地오 门以外는 亦别世界라 争一钱에 身命以捐^ㅎ되 及其国家之兴亡은 漠然不关^ㅎ니 此便同无脑之动物이라 譬如游鱼가 居於将沸之鼎^ㅎ야 误认春江之水暖^ㅎ며 巢燕이 处在半火之堂^ㅎ야 疑为照屋之出日^ㅎ느니 呜呼라 此等人은 蠕蠕然醉生梦死로 数十寒暑를 历度^ㅎ 뿐이니 统计吾二千万同胞中에 此派에 属^ㅎ者 半数以上이니 此可恃耶아⁴⁶⁾”。文章的这种改动突破了原作框架,增加了相似主题的材料,从而实现译文的增值。

3) ‘译以致用’的工具性认知

综观翻译思想史,“为什么翻译?”始终是历代翻译家思考的根本问题。翻译作为跨文化交流活动,具有很强的目的性和工具性。而在经历惨痛亡国史

46) 金河琰,〈冒险勇进은青年의天职〉,『西友』第12期,1907.11.1, p.2.

这一时代背景催化的近代韩国，翻译的目的性和工具性得以更为鲜明地体现。

梁启超本人也十分热衷翻译实践，并且他的翻译活动与政治活动密切配合，将翻译视作革命斗争的工具，即“专欲发表区区政见”⁴⁷⁾。而近代启蒙期的韩国译者们同样将梁启超作品的译介视为开启民智、救亡图存的重要工具，充分发挥译者主体性，做出了‘译以致用’的选择。这种译者主体性和‘译以致用’的工具性认知主要存在于译文开篇的序言或文末的总结中，译者往往在创作这些副文本时阐明翻译的动机与策略。例如金成喜在译介〈论教育当定宗旨〉一文时写道：“呜呼라我韩之倡新教育论者始萌槩於甲午更张之後而不究实际고 徒存名义야 苟如是也则大韩世界는 将不免为虾目之水母니 宁不悲哉야 自古代设教育以来之宗旨와 近世之结果를 兹译于下야 以备教育家之参考而自择焉호노라⁴⁸⁾”，翻译动机极为明确。又如李甲在〈论学会〉译文之后感慨“今日 吾济의 发起호 学会는 即是 我韩에 发创之初라 果能齐诚协力야 扩张进就호면 来头功效를 未可限量이니 惟我社友는 各其 血心担着야 诸般目的을 右 所论과 如히 得达호면 吾济之志愿이 毕矣니 念之勉之 어다 李甲은 识喜⁴⁹⁾”。此外，文一平在译介〈论自由〉时，出于对‘伪自由’、‘偏自由’和‘野蛮自由’观念的反对，舍弃了原文中梁启超“不自由毋宁死”的观点，在主张个性独立和思想自由的同时，强调保持秩序和遵守法律的重要性，这也是译者发挥主体性，将翻译视作观念输出工具的体现。

在梁启超诸多译介至韩国杂志的作品中，类似的‘译以致用’翻译思想在很多文章中都得以体现。译者们基于对救国必先开民智的理解，将梁启超作品的译介活动视为实现思想启蒙和政治宣传的手段和工具，因此在传统的逐句直译译法基础上，本着从需求出发的原则对原文进行一定取舍和再创作的做法十分常见。这种译法在内忧外患的时代背景下具有其合理性，是韩国近代启蒙期杂志翻译活动的重要特征之一。

47) 蒋林，《梁启超“豪杰译”研究》，上海：上海译文出版社，2009，p.72.

48) 金成喜，〈教育的 宗旨와 政治의 关系〉，《大韩自强会月报》第11期，1907.5.25，p.22.

49) 李甲，〈论学会〉，《西友》第4期，1907.3.1，pp.29-30.

4. 结论

从1906年到1909年, 40篇选自『时务报』、『清议报』或『新民丛报』的梁启超作品先后走进10部韩国杂志, 其中6篇文章为汉文原文, 其余34篇均为韩汉混用文体译文。译介梁启超作品的10部杂志根据其创办团体性质可划分为政治团体杂志、学会杂志、赴日留学生团体杂志以及商业性杂志。34篇译文中, 有14篇发表在政治团体杂志, 17篇发表于学会杂志, 特别是在『大韩协会会报』、『西友』、『湖南学报』等刊物上最为集中。这些译文大都出自致力于爱国启蒙运动的社会活动家、新闻工作者之手, 包括张志渊、朴殷植、李沂、洪弼周等知名人士, 所涉内容涵盖西方社会学、经济学、教育学等诸多领域, 希冀通过译介相关学说, 传播先进思想和理论, 宣扬思想启蒙和爱国精神, 为争取国家独立和现代化进程提供指导和支持。

这些杂志在译介梁启超作品时, 大多对其启蒙思想及文体予以正面积极的评价。这种评价源自梁启超作品对西方政治经济学说的积极引进, 满足了韩国民众救国强国的知识需求, 所饱含的爱国启蒙思想引起知识阶层的共鸣。同时, 条理明晰、情感丰富的‘新文体’也给处于文体变革时期的韩国学界带来新风。在译介方法的选择上, 区别于韩国近代报纸以摘译、译述为主的做法, 杂志因其在版面上更为宽裕, 且发行间隔较长, 大多全译原文或是删减个别文字, 翻译以严格、逐句的直译为主, 且呈现出对固有词的严重排斥和对汉文词组、语序予以保留的文体特点。个别作品采用译述的方法, 对原文进行大刀阔斧的改造, 类似于清末民初中国译坛流行的‘豪杰译’。很多译者在译介梁启超作品时会在文中阐明自己的翻译思想, 主要包括翻译动机和策略, 或是有选择地删减、改写原文。这些译者的翻译动机十分明确, 他们将梁启超作品的译介活动视为启发民智、报国救国的‘工具’, 力图实现‘译以致用’。

近代启蒙期的韩国杂志作为新兴传播媒介, 在东方与西方、传统与现代的政治、社会、文化互动中成为重要载体。梁启超作为东亚近代文明圈形成中的重要人物, 其诸多作品以杂志为媒介、以翻译为桥梁, 给近代东亚的精神世界带来了诸多想象。

◆ 参考文献

1. 资料

『大韩自强会月报』 『朝阳报』 『大韩协会会报』 『西友』 『皇城新闻』 『独立新闻』
『共立新报』 『西北学会月报』 『畿湖兴学会月报』 『湖南学报』 『岭南教育会杂志』
『太极学报』 『少年韩半岛』 『时务报』 『清议报』 『新民丛报』

2. 单行本

김근수, 『한국 잡지 개관 및 호별 목차집』,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73.
우림길, 『한국 개화기문학과 양계초』, 박이정, 2002.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蒋林, 『梁启超“豪杰译”研究』, 上海: 上海译文出版社, 2009.
康雪 编著, 『梁启超新民说』, 北京: 中国文史出版社, 2013.
梁启超, 『清代学术概论』, 上海: 商务印书馆, 1923.

3. 论文

김주현, 「〈월남망국사〉와 〈의대리건국3걸전〉의 첫 번역자」,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9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pp.9-41.
손성준, 「대한제국기 잡지의 정치성과 애국운동의 접변 - 『소년한반도』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1집, 한국근대문학회, 2020, pp.203-236.
손성준, 「국한문체 〈라란부인전〉, 〈자유모(自由母)〉에 대하여 - 대한제국기 량치차오 수용의 한 단면-」, 『사이언SAI』 제31집,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1, pp.131-160.
이병기, 「『饮水室自由书』의 국한문체 번역에 대하여」, 『어문론집』 제54집, 중앙어문학회, 2013, pp.351-376.
허재영, 「근대 계몽기 신문-잡지의 번역과 역술 문화」, 『동악어문학』 제66집, 동악어문학회, 2016, pp.165-196.
허재영, 「근대 계몽기 량치차오 『음빙실문집(饮水室文集)』 역술(译述)의 의미」, 『우리말글』 제74집, 우리말글학회, 2017, pp.245-268.
耿云志, 「重读梁启超的〈立宪法议〉」, 『广东社会科学』第1期, 2014, pp.115-119.
王志松, 「中江兆民的『理学沿革史』与梁启超的〈霍布士学案〉——HISTOIRE DE LA PHILOSOPHIE在中日接受的东亚语境」, 『中山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3期, 2019, pp.78-88.

4. 网络资料

한국근현대잡지자료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논문접수일	2023년 10월 26일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08일

Abstract

A Study of the Translation and Introduction of Liang Qichao's Works in
Modern Enlightenment Period Korean Magazines

Cui, Wenting

During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in Korea, magazines played a pivotal role as a medium in the widespread translation and dissemination of Liang Qichao's works. A review of the translations of Liang Qichao's works in Korean magazines from this period has revealed 34 translated works in a mixed Korean-Chinese style across 10 magazines. These translations were predominantly published in political and academic society magazines, with the primary academic fields being sociology, economics, and pedagogy. An investigation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translations reveals that the translators generally conveyed positive evaluations of Liang Qichao's enlightenment thought and writing style. The predominant method of translation was literal, supplemented by interpretative translation. This differs from the excerpt-based translations commonly found in contemporary Korean newspapers; most translations in magazines were complete works. Many translators explicitly expressed their intentions within the translations, reflecting an instrumental understanding of the translation process.

Keyword Modern Enlightenment Period, Korean Magazines, Liang Qichao, Translation, Characteristics of Translation and Introduction

巴什拉物质想象论视角下李沧东短篇小说中的火意象研究

郭锐*

국문요약

불은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기본 원소로서, 인간의 생산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문학 창작에서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중요한 이미지이기도 하다. 이창동의 소설 창작에 있어, 불은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학 이미지로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편 소설집 『소지』에는 「불과 먼지」, 「친기」, 「소지」, 「전리」 등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작품에서 이창동은 불이라는 이미지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외재적 차원에서의 불 이미지를 다양한 유형으로 구현해냈고, 내재적 차원에서의 불 이미지에 복잡한 함의를 부여해 주었다.

먼저, 이창동의 단편 소설 속 불 이미지의 외재적 유형을 보면, 크게 파괴 형태로서의 불과 의식 형태로서의 불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전자는 소각의 불과 분신(焚身)의 불로, 후자는 제전(祭奠)의 불과 화장의 불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불 이미지의 내재적 함의를 프랑스의 문학비평가 바슐라르의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과 먼지」 속의 불 이미지는 투쟁과 저항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는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가 투영된 결과이다. 또한 「소지」와 「친기」 속의 불 이미지는 죽은 자의 혼을 위로하고 산 자를 격려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엠페도클레스 콤플렉스의 특징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전리」 속의 불 이미지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노발리스 콤플렉스와 일맥상통한다.

주제어 이창동, 단편 소설, 불, 이미지, 바슐라르

* 北京大学 朝鲜(韩国)语言文化系 博士研究生

〈目次〉

1. 序论
2. 李沧东短篇小说中火意象的外在类型
3. 李沧东短篇小说中火意象的内蕴情结
4. 结论

1. 序论

韩国作家、导演李沧东于1983年步入文坛，先后出版了小说集『战利品』、『烧纸』、『鹿川很多粪』和长篇小说『执念』等文学作品。李沧东在小说创作中主要关注韩国80年代的政治现实和民主化运动、南北分裂导致的意识形态对立及垄断资本主义和工业化进程所带来的社会问题，被评价为关注历史性创伤的分裂文学作家及注重个体叙事的现实主义作家。¹⁾在李沧东的文学创作中，火意象是频繁出现而值得予以关注的重要意象，特别是在其短篇小说集『烧纸』中，「火与灰」、「祭奠」、「烧纸」和「战利品」四部作品里均出现了对于火意象的书写²⁾，呈现出多样的火意象类型与复杂的隐喻内涵，可见李沧东在小说创作过程中对于火意象的重视。因此，关注李沧东短篇小说中的火意象可以提供借助关键意象实现作品主旨理解的有效路径，有助于实现对于李沧东之文学创作的立体认知。

目前，韩国学界对李沧东小说作品的考察侧重于李沧东之文学创作与电影创作的关系³⁾，聚焦于小说作品本身的研究相对较少，主要涉及地方文学、

1) 박유희, 「의외성의 미학과 진정성의 윤리: 이창동 소설론」,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 36호,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17, p.241.

2) 此外，李沧东小说作品中涉及火意象的作品还有收录于小说集『鹿川很多粪』的中篇小说『天空灯』，但由于该作品作为中篇小说，在篇幅方面与上述四部短篇小说差别较大，因此本文暂不将其纳入研究范畴而主要聚焦于李沧东短篇小说中的火意象。

3) 강승묵, 「영화의 영상 재현을 통한 역사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창윤, 「영화로 제작된 이청준 소설 연구: 죽음 애도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서유진, 「소설의 매체 변용양상 연구: 2000년

分裂文学、家庭叙事等方向⁴⁾，而在中国学界，目前仅有部分研究在作家电影视角下对李沧东的电影作品与文学的关系进行了探究⁵⁾，暂时无对李沧东的文学创作进行论述的专题研究成果。若进一步将视线聚焦于火意象相关研究，则可发现目前中韩学界的相关研究成果主要集中于电影『燃烧』中的火意象分析⁶⁾，而尚未出现对李沧东短篇小说作品中的火意象进行考察的研究尝试。因此，本文拟以「火与灰」、「祭奠」、「烧纸」和「战利品」四篇作品作为研究对象，对李沧东短篇小说中的火意象进行探究。

意象这一文学概念由语表层面的“象”和语里层面的“意”共同构成⁷⁾，本文对于火意象的考察也将在语表之象与语里之意的双重层面展开，首先聚焦于语表层面，考察李沧东作品中火意象的外在表现类型，在此基础上深入至语里层面，探讨李沧东寄寓于火意象之中的内在情思意蕴。在对火意象的语里层面进行考察的过程中，本文拟引入法国文学批评家巴什拉的物质想象论作为理论参考。巴什拉注重通过意象考察文学中主客体交织的特定领域，将人

대에 영화화된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박유희, 「이창동 작가론: 이창동 소설과 영화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제26호, 현대영화연구소, 2017, pp.95-143.

- 4) 이은애, 「한국문학과 로컬리즘 소설 속에 나타난 '강박'의 이미지 - 「녹천에는 땀이 많다」를 중심으로 -」,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8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pp.83-111; 이내관, 「분단소설에 나타난 가족서사의 화해의 논리 - 이창동의 소설을 중심으로 -」,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8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pp.117-143; 이내관, 「이창동 분단소설에 나타난 '아버지'의 의미」, 『비평문학』 제55호, 한국비평문학회, 2015, pp.159-183; 최영자, 「이창동 소설에 나타난 가족분석담론 연구 - 「소지」와 「친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69호, 한국문학회, 2015, pp.223-256.
- 5) 顾琳, 「论李沧东“作家电影”的诗意魅力」, 『电影文学』第1期, 2012, pp.59-60; 代玉菲, 「诗意的“假象”: 作者论视角下的李沧东影像序列解读」, 『东南传播』第5期, 2019, pp.52-55.
- 6) 陈嫣婧, 「作为欲望符号的“燃烧”——从福克纳、村上春树到李沧东」, 『书城』第3期, 2019, pp.119-123; 高慧鑫, 「“燃烧”: 从形象到意象的影像呈现」, 『电影文学』第10期, 2019, pp.155-157; 홍상우, 「문학의 은유에서 영화의 은유로, 영화 《버닝》 연구 - 에이젠슈타인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제65호, 세계문학비교학회, 2018, pp.215-235; 신철하, 「소진된 인간-〈버닝〉의 아펙투스」, 『비평문학』 제76호, 한국비평문학회, 2020, pp.191-210.
- 7) 董学文, 张永刚, 『文学原理』,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1, p.39.

们对某一物质元素产生的各种具有特定心理倾向的想象归纳为“情结”，继而围绕火元素提出了普洛米修斯情结、恩培多克勒情结、诺伐利情结及霍夫曼情结⁸⁾，为本文分析火意象的意蕴内涵提供了解释模式。具体而言，本文将首先对李沧东短篇小说中火意象的外在类型进行归纳梳理，进而结合巴什拉物质想象论中的普洛米修斯情结、恩培多克勒情结、诺伐利情结⁹⁾，以考察火意象蕴含的内在情结，希望本文的探究能够在一定程度上为解读李沧东短篇小说的创作特征与意蕴表达提供新的视角。

2. 李沧东短篇小说中火意象的外在类型

文学中的意象具有一体双向性，是借助语表层面之“象”表达语里层面之“意”的范畴概念。意象概念中的“象”指作家以语言为物质媒介，依据自身体验与理解对生活现象加以艺术概括，最终创造出的具有情感因素和审美感染力的生活图画和具体场景。¹⁰⁾构成意象的外在性具体形象的不同会造成意象中语里意蕴的差异¹¹⁾，意象分析应当以对于语表形象的考察为基础。在李沧东创作的短篇小说中，由火意象衍生的具体场景大致可分为破坏场景与仪式场景两类，据此可将火意象的外在表现类型划分为归属于破坏形式的烧毁和自焚

8) 在四种情结模式中，普洛米修斯情结与不畏强权、敢于斗争、敢于突破禁忌等精神相联系，指与火相关的畏惧、崇敬、抗争、突破等隐喻。恩培多克勒情结指不断变化的火让人产生变化、加快时间乃至使生命告终的欲望，同时火的生命也会与人的命运相联结，在这种生命终结和生命拓展的共存代表着生与死的结合。诺伐利情结适用于与爱情、热情、快感以及性相关的火意象。霍夫曼情结则指酒精所引起的与火相关的想象。应予以说明的是，虽然巴什拉借用特定人名为这四种情结命名，但其目的仍是揭示人类对于火这一基本元素的想象模式，重点在于情结的普遍性而非各情结的特定名称。参见巴什拉，杜小真、顾嘉琛译，《火的精神分析》，长沙：岳麓书社，2005，pp.12-191.

9) 巴什拉所提出的四大情结模式仅代表四种与火相关的典型想象倾向，并不意味着每位作家的作品都具备四种情结，事实上本文研究对象亦未涉及巴什拉火元素想象论中的霍夫曼情结，因此本文将着重于结合前三种情结模式而展开具体分析。

10) 董学文、张永刚，前揭书，2001，p.39.

11) 孙春昱，「语象、意象与散文的艺术形象」，《写作》第5期，2002，p.23.

之火，以及归属于仪式形式的祭奠和火葬之火。

1) 作为破坏形式的烧毁和自焚之火

巴什拉认为，火是一种具有强大破坏性的自然元素，火的燃烧会破坏各类物质，能够造成毁灭性的灾难。¹²⁾李沧东短篇小说中的火意象同样体现出鲜明的破坏性，其破坏对象包括无生命的各类物体及人的生命，本文因此将与破坏性相关的火意象类型分为破坏物体的烧毁之火及导致人自身生命终止的自焚之火。

李沧东在「战利品」中对于火意象的书写可视为烧毁之火的典型代表。「战利品」中的主人公具本守在见证了曾因从事左翼运动而入狱的学长金长寿的死亡后，以告知死讯为由与金长寿大学时期的女友吴美子联系并重逢，此时的吴美子已经嫁给一位富有的美国中年男人，过上了富裕的西式生活。在此前就曾对吴美子暗怀爱慕之意的具本守对如今的吴美子乃至其象征的上层社会充满憧憬和贪求，因而与吴美子一同陷入了欲望的漩涡。在两人亲吻之时，具本守感到整个世界仿佛都在火中燃烧：

嘴里的唾液已经干涸，吴美子嘴里散发出的味道让我有些晕眩。那是一种水果熟透之后发出的香气，又像是世间万物腐败后散发出的味道。我觉得某种庞然大物正缓缓倒在火焰里，火花如夜空中的飞虫一般四处飞溅。整个世界都在燃烧，稍一触碰，就会噼里啪啦地瓦解粉碎。¹³⁾

出现于主人公想象之中的火意象极具破坏性，主人公感到整个世界仿佛都被火焰点燃，一经触碰便会化为灰烬，暗示欲望正以难以抗拒的力量摧毁主人公的理智。然而，在主人公与吴美子肌肤相亲的过程里，在潦倒落魄中凄凉死去的金长寿却频频浮上他的心头，这使主人公在床上突然拿出了金长寿的遗骨，吴美子因这一荒唐之举受到巨大惊吓而匆匆离去，留在房间中的主

12) 巴什拉，杜小真，顾嘉琛译，前掲书，2005，p.8.

13) 李沧东，金冉译，《烧纸》，武汉：武汉大学出版社，2020，p.290.

人公独自凝视着窗外的黑暗，此时火意象再次出现于文中：

商业街笼罩在黑暗中。我久久地俯视着死亡般的黑暗。如同有人正在某个地方死去，有东西散发着腐烂的味道，有只耗子偷偷地啃噬腐朽的家具一样，在灰烬中重生的火星将会逐渐变大，烧掉某些东西……可是在下一个瞬间，我清清楚楚地听到了。

那是足以惊醒世间一切梦魇的巨大的爆炸声。¹⁴⁾

此处的火意象依旧呈现出鲜明的破坏属性，并与后文出现的巨大爆炸形成呼应，象征着主人公欲望迷梦的惊醒。在「战利品」中，火意象所烧毁的是以“世界”或“某些东西”为代表的客体事物，而「祭奠」和「烧纸」中火意象的破坏对象则更具特殊性，即在这两部小说中，火意象烧毁的是牙齿、头发等作品中人物身体的一部分，以「祭奠」中的描写为例：

父亲走后，母亲会像死人一样躺在原地很久。然后缓缓坐起来，把满地的头发捡进烟灰缸里烧掉，伴着头发燃烧时的声音和刺鼻的味道，还有袅袅升入空中的烟雾。¹⁵⁾

在「祭奠」中，主人公的父亲曾经参与左翼活动，因遭人告密而被捕，却最终侥幸活了下来。父亲在生活上十分无能，对于家庭生计漠不关心并终日酗酒，甚至对主人公的母亲施以家暴。然而母亲一直对父亲的暴行逆来顺受，只会在他走出家门后烧掉自己被扯落的头发。对于母亲而言，燃烧头发是她面对暴行的唯一反应，随着自己身体的一部分化为灰烬，母亲似乎也在某种意义上排遣着自身生活中的压抑和痛苦。火意象的破坏性使火具有了成为发泄媒介的可能性，然而作品中的母亲却仅使这种破坏性作用于自身，反映出她面对沉重现实的无可奈何。

与此类似，在「烧纸」中，主人公的丈夫也因从事左翼活动而被捕，并

14)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p.295-296.

15)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p.67.

自此一去不返，在作品中主人公曾将自己的牙齿扔入火中焚毁：

老太太抢过了牙齿。丑陋的牙连根都发黑腐烂了。不过疼痛没有立刻消失。她把这似乎还在隐隐作痛的病根，把这身体的一部分扔进了火堆。¹⁶⁾

「祭奠」和「烧纸」中的女性形象都曾将身体的一部分放入火中烧毁，然而二者间略有区别的是「祭奠」中焚烧的头发是在家暴中被扯落的，而在「烧纸」中主人公扔入火堆的牙齿是她主动要求孙子帮她拔下的。这颗牙齿的疼痛始于三十多年前她丈夫被捕的夜晚，因此主人公主动烧掉牙齿的举动更加明确地象征着对于往日痛苦回忆的告别，作者借助火意象的破坏性凸显了主人公的坚定决心。

在李沧东创作的短篇小说中，火意象的破坏对象不仅涵盖了人体的某些部分，更可以进而扩展至人的生命，即在「火与灰」中出现的自焚之火：

胸腔像被撕裂一样的疼痛和炙热的喜悦充满了我的体内。刚才我分明看到了，逐渐被夜幕吞噬的巨大混凝土桥墩之间，一个浑身燃烧着火焰的人。可是他没有坠落，而是穿透了死亡，正在上升。¹⁷⁾

「火与灰」以80年代韩国大学生自焚抗议的真实事件为创作素材，作品中因而出现了对于自焚之火的书写。在1986年，首尔大学部分学生因反对军事训练而举行抗议活动，其中两名学生在抗议活动中自焚身亡，作品中的主人公因两名学生的死而感到痛惜，同时也不禁怀疑这一自焚举动是否真的具有意义。在作品结尾，主人公看到了自焚学生的幻影，由此确信学生们的自焚并不是生命的徒然消散，而具有对于死亡的超越性。

16)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103.

17)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49.

2) 作为仪式形式的祭奠和火葬之火

在表现出强大破坏性的同时，火元素还具有历史悠久的仪式性质。火在东方原始宗教中是一种重要的祭祀方法，具体体现为以烧香、烧纸为代表的祭奠仪式，而源于埃及、希腊等古老文明的火葬也随着西方文化的传播流入东方并逐渐普及。¹⁸⁾仪式形式之下的火意象虽仍体现出对于祭祀物品或亡躯的焚烧，但其目的已由单纯地对物体进行破坏转移向仪式性目的，因此与上一节中所述的火意象在外在类型层面存在差异性。在李沧东的小说作品中，同样出现了与祭奠和火葬相关的火意象类型。

在「烧纸」和「祭奠」中，李沧东均将与火意象相关的家庭祭奠作为作品中的关键情节，通过家庭叙事反映了韩国社会中的意识形态对立。以「烧纸」为例，作品中的主人公在三十多年来一直身陷丈夫因从事左翼运动而被捕的噩梦之中，她不肯承认丈夫的死并拒绝为丈夫举行祭祀，这一方面是因为她心中仍在一定程度上存有丈夫能够生还的奢望，另一方面则是因为她不想让两个儿子得知自己的父亲是所谓的“赤色分子”。文中她的小姑子多次劝说她，但都遭到了拒绝：

“祭什么祭呀，别胡说了。”

老太太觉得嘴里像着了火，艰难地说了句话。她怀疑小姑子编造空话来骗她。小姑子以前就说过几次，要变更哥哥的户籍，申请把“下落不明”改为“已死亡”，并且为他做祭祀。老太太每次都拒绝了。¹⁹⁾

然而，警察的突然到访使主人公得知自己的二儿子成浩如今也在参与左翼活动，大儿子成国因此与成浩发生争执。事实上，成国早已得知父亲的左翼身份，并在争执中将其脱口而出。主人公试图隐瞒的事实被曝于人前，冲击之下她不禁大声喊叫：“什么爹妈，什么兄弟！混小子们，坐着干吗，劲不够用

18) 胡泽刚，「中外文学中“火”的三重寓意」，《湖北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35卷 第1期，2015，p.80.

19)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p.84-85.

了，还是仇恨不够了？”²⁰⁾在主人公的高声发泄后，成浩开始低声啜泣，意识形态对立引发的家庭矛盾归于沉寂，主人公也终于决定直面丈夫的死，与孙子一起为丈夫进行了祭祀：

公寓后面的空地上，干枯的杂草没过了脚踝。老太太解开箱子，把里面满满的纸张都倾倒出来，她把几张纸堆起来引火，划着火柴凑了上去。

火苗很快烧起来。纸从边缘开始发黑，然后燃烧。²¹⁾

在几十年间，主人公一直回避着丈夫死亡的现实，并对两个儿子隐瞒着真相，而在作品结尾的祭祀场景中，主人公望着纸张在火焰中化为灰烬，在火光中回想自己深埋心底的伤痛往事，意识到这一切“没法再隐瞒，也不能再隐瞒了”²²⁾，由此决定把关于父亲的故事讲述给两个儿子。主人公在长久以来拒绝为丈夫举行祭祀，这种回避与隐瞒导致了家庭关系中的隔阂与分歧，而在作品的结尾部分，家庭祭祀仪式的缺失得到弥补，主人公更在祭祀仪式中回忆起家乡举行祭祀时不仅是为死者祈福，亦是为生者许愿，由此感受到祭祀对于生者的抚慰与勉励意义，决定停止回避与隐瞒，这一转变预示着家庭中矛盾和对立的消弭。与「烧纸」相似，在「祭奠」这一作品中李沧东同样落笔于家庭祭奠情节：

男人取出了袋子最下面的东西，是一个相框。他把相框放在祭祀的匙箸之后时，父亲的脸上浮现出短暂的茫然之色，但很快父亲又开始指挥我们：“点……点……点上香。”男子跪在桌前将香点燃。狭窄的小屋里很快充满了焚香的味道，气氛变得沉重而安静。²³⁾

「祭奠」中主人公的父亲也是曾一名“赤色分子”，他与前妻所生的儿子金

20)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100.

21)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101.

22)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103.

23)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66.

德秀在某天突然来到主人公的家中，要求为自己离世的母亲进行祭祀。金德秀因为父亲抛弃了自己的母亲而心怀怨恨，主人公的姐姐则认为金德秀的母亲当年举报了父亲，两人发生激烈争执，但父亲却打断了二人间的争吵，并带领家人为金德秀的母亲进行了祭奠仪式。随着香火点燃，原本针锋相对的氛围变得沉重而安静，几人回忆起几十年间因父亲左翼身份而生活在社会边缘的经历，因而感慨万千，最终父亲决定随金德秀一同离开。在东方传统文化中，以燃烧香火为代表的祭祀仪式具有唤起家庭记忆、维系家庭关系的重要功能，作品中的人物亦通过祭奠仪式的举行触发了共同回忆的再现，因而实现了家庭氛围的缓和与人物关系的转变，由此完成了主人公一家与金德秀的和解，弥补了空缺的亲情谱系。

在与火意象相关联的祭祀仪式之外，「火与灰」和「战利品」两部作品中还出现了对于火葬仪式的书写，例如在「火与灰」中，主人公的儿子因意外事故早夭而被火化：

我打开从火葬场出来就一直抱在怀里的袋子，最小的一号袋，孩子的骨灰连一半都未填满。孩子的身体烧成了细细的粉末，我和妻子把粉末攥在手里，一点一点撒入江水。细腻的骨灰从我们手中流走，瞬间被汹涌的江水吞噬。²⁴⁾

火葬葬俗与东方“入土为安”的传统观念存在一定差异²⁵⁾，「火与灰」中主人公的妻子也曾因此反对火葬，无法接受“让孩子的身体四下飞散，死后连可以祭拜的坟墓都没有”²⁶⁾，主人公此后也因无处追悼爱子而怅然彷徨。在「战利品」中，主人公的大学学长金长寿在死后同样被火葬：

火葬结束之后，我们带着金长寿的骨灰找到这里。现在我们正轮流躺过江水，把他的骨灰撒入汉滩江……一股股热气喷涌而出，一想到那是金长寿嘴里的呼吸，我便恶心反胃。我失神地抓了一把骨灰抛向空中。但是他的哈气味道并未消散，反

24)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66.

25) 胡泽刚，前掲文，2015，p.81.

26)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43.

而纷纷附着到了我的身上，不停舔舐着我。²⁷⁾

由于火葬仪式的特殊性，作品中的人物无法目睹火葬仪式的进行，因此两部作品对于火葬的描写均侧重于火葬后抛撒骨灰的情节，这使文中对于火意象的直接描写相对有限并呈现出向与火关联密切的灰意象的延伸。但值得注意的是，两部作品中的火葬情节与文中对于其他火意象类型的书写紧密相关，例如在「火与灰」中，作者将主人公儿子的火葬与抗议学生的自焚相联系，而在「战利品」中，火葬仪式带给主人公的关于火与热的体验与主人公对于吴美子的欲望之火也关联密切，并通过插叙手法交替出现于作品之中。此外，「火与灰」和「战利品」两部作品的创作均以李沧东的真实经历为基础，李沧东在现实生活中对于火葬仪式的直接体验亦可在一定程度上为李沧东对于火意象的关注提供解释。

3. 李沧东短篇小说中火意象的内在情结

意象概念中的“意”是复杂而多样的，是内蕴并潜藏于形象之中的思想情感。²⁸⁾巴什拉将与火意象有关的文学想象归纳为特定的情结模式，在此情结模式下观照李沧东短篇小说，可发现作品中的火意象蕴涵着象征反抗意志、结合生死命题及隐喻个体欲望的内在情结意蕴。

1) 普洛米修斯情结：反抗意志的象征

普洛米修斯²⁹⁾是希腊神话中给人类带来火种的神明，他因拒绝向宙斯低头并归还火种而遭受酷刑，巴什拉认为这一盗火者形象源于人类祖先对于火的复杂心理。由于火会对人造成伤害，人类将火规定为一种社会性的禁止物，这使火成为一种受到尊敬和惧怕的事物，但由于这种社会的抑制和禁

27)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p.289-291.

28) 董学文，张永刚，前掲书，2001，p.44.

29) 普洛米修斯又译普罗米修斯，文中沿用『火的精神分析』中出现的译名。

止，个人反而会产生对于火的不服从心理，试图反抗社会限制而点燃火焰。³⁰⁾因此，巴什拉用普洛米修斯情结指代火意象所具有的不畏强权、勇于反抗的象征意义。在李沧东的短篇小说中，「火与灰」将这种抗争寓意表现得最为典型。

李沧东将「火与灰」的故事时间设定为自焚抗议的两名学生因全身烧伤在生死之间徘徊的第五天，通过描写主人公的见闻及相关内心活动，最终对学生自焚抗议行为的反抗意义进行了肯定。在主人公与朋友交谈时，朋友曾提及学生的自焚抗议：

“如果有勇气抛弃自己已经拥有的一切，我们就能改变现状，可是人类做不到啊！如果人类的本性里没有弱点，历史上哪会有统治和屈从呢？我每次读到纳粹集中营的故事都很不理解，为什么在死亡面前那么多的犹太人都反抗？纳粹长官指向毒气室，他们就像去澡堂子一样乖乖排队往里走！你觉得为什么？拧开开关之前不是不想死吗？你看，人类就是这么懦弱。”

“这就是炸酱面小哥的人声哲学吗？”

我故意开了句玩笑，他却依旧脸色沉重地说：“可是现在不是有大学生往自己身上泼了稀释剂点火吗？”³¹⁾

作品中的故事发生于1986年，那时的韩国正处于全斗焕独裁统治之下，作者借人物之口抨击了个体在独裁统治之下的屈从和懦弱，转而言及自焚抗议的学生，表明他们的行为是勇于抛弃生命以改变现状的举动，肯定了他们敢为他人之不敢为的反抗精神。然而，主人公也曾对于学生的自焚之举存在怀疑，尤其是由于主人公早夭的儿子经火葬而化为灰烬，主人公不禁思索这种投身烈火的死亡是否具有意义：

他们是带着超越自身的某种价值坠落的吗？他们的死亡和我孩子的死亡有什么区别吗？我觉得这是他们的一次挣扎，他们燃烧自己的身体，就是要在历史和社会中寻找生命的价值。然而他们要用死亡获取的东西，却被那些卑鄙地活下来的人占

30) 巴什拉，杜小真、顾嘉琛译，前掲书，2020，pp.12-13.

31)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39.

有，自己却化为一把灰烬。³²⁾

作者在该作品中将作为破坏形式存在的自焚之火与作为仪式形式存在的火葬之火并置，借助主人公的内心思索呈现火意象的内蕴意涵。由引文可知，主人公先是肯定了学生们的自焚是“在历史和社会中寻找生命的价值”，但与此同时，他也担忧这种挣扎和反抗换来的成果会被他人盗取，使学生们的斗争和牺牲化为乌有。然而在作品的结尾，主人公通过出租车上的收音机广播得知了自焚学生的死讯，在那一刻他看到了死亡学生的幻影，从而对于对学生自焚抗议的意义产生了确信：

他死时我正在荒凉的江边徘徊。也许我是为了守护他的死亡才去江边的？我望向车窗外。出租车在高架桥的桥墩间穿行，桥上行驶着电车。街道上正在平静地结束一天。头顶上电车怪叫着呼啸而过，公交车挤满了泥塑般面无表情的人，朝某个地方驶去。胸腔像被撕裂一样的疼痛和炙热的喜悦充满了我的体内。刚才我分明看到了，逐渐被夜幕吞噬的巨大混凝土桥墩之间，一个浑身燃烧着火焰的人。可是他并没有坠落，而是穿透了死亡，正在上升。³³⁾

在这段描写中出现的川流不息的车辆和面无表情的众人与本节第一段引文中屈从的人性相联系，而“穿透了死亡”的表述则与第二段引文中“超越自身的价值”相呼应，尽管生者依旧在独裁统治之下面无表情地为生计奔波，投身烈火的死者却因反抗而实现了超越性的生命价值。

正如「火与灰」这一题目所示，火意象和灰意象是作品中的核心意象。主人公对于学生自焚行为意义的怀疑源于其爱子在火中化为灰烬的悲痛经历，他因此对火怀有厌惧之心，担忧抗议学生们的举动无异于飞蛾扑火，最终难免归为虚无。然而在思索之后，他却确信学生们的斗争具有超越死亡的意义。结合普洛米修斯情结观照该作品中的火意象，可发现学生们突破了常规观念下对于火的敬畏与恐惧，借自焚表现自身对于社会现实的反抗，此处的

32)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42.

33)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49.

火意象不再是单纯的自然元素，而如同普洛米修斯盗取的火种一般，是不盲目屈服于既定规则秩序的反抗象征。

2) 恩培多克勒情结：生死命题的结合

恩培多克勒是古希腊著名哲学家，相传他因跳入埃特纳火山口而死，正如恩培多克勒之死所示，火意象常与生命的告终相联系，但另一方面，火焰的燃烧也是一种明亮而温暖的现象，会带给人宁静、舒适及生的希望。巴什拉认为这种对于火元素的双重性遐想决定着一种真正的情结，生与死在这情结中结合起来，并将其称为恩培多克勒情结。³⁴⁾受韩国祭祀传统中烧香、烧纸等与火关联密切的祭奠仪式影响，在李沧东的短篇小说中，火意象与死亡的关联性常常延伸至对于亡者的告慰。与此相应，生者也借助祭奠之火实现矛盾消解并重拾生的希望，生与死的命题重合交叠于火意象之中。

在李沧东的短篇小说中，「烧纸」和「祭奠」两部作品均呈现出火意象中生死命题的结合，首先以「烧纸」为例：

不知从哪儿吹来一阵风，火焰晃动起来，燃烧的纸张被吹到空中。烧剩的白色灰烬被风吸起，又被吹成碎末，四下飞散。

再飘高一点。飞得高高的。她突然意识到自己在如此反反复复。家乡过堂祭的时候，也这样烧纸。为死去的灵魂求冥福，也为自己许愿。都说纸烧得越透，飘得越高越好。看见幻影的不是我，而是嫂子你啊。你还想瞒孩子们瞒你自己到什么时候啊。小姑子的声音在耳畔响起。她觉得眼前豁然开朗。对，现在应当把一切都告诉他们了。让成国和成浩都坐下来，给他们讲关于他们爸爸的故事。³⁵⁾

在「烧纸」中，李沧东点明烧纸的目的是“为死去的灵魂求冥福，也为自己许愿”，即在祭奠之火中寄托对于死者的告慰及生者的愿望。一方面，作品中的主人公为了掩藏其丈夫曾是一名左翼分子的事实，在几十年来从未祭奠过丈夫，这场祭奠是她承认丈夫之死并为丈夫祈福的证明。另一方面，面对着

34) 巴什拉, 杜小真, 顾嘉琛译, 前掲书, 2020, pp.16-19.

35) 李沧东, 金冉译, 前掲书, 2020, pp.102-103.

熊熊燃烧的光焰，主人公决定中止她独自沉溺于苦痛记忆之中的生活，并因而感到“眼前豁然开朗”。在丈夫被捕后，主人公独自带着长子成国艰难度日，还曾因轻信了他人说能够带她去见丈夫的谎言而遭受奸污并生下次子成浩。在几十年间，主人公一直对过去的苦痛经历闭口不谈，而在这场祭奠中，她终于决定将真相告诉两个儿子，并带着孙子一起对着火光许下愿望：

她用裙角擦了擦眼皮，一边不停地把纸张送入火堆，一边跟小孩子说：

“植啊，你也有愿望的话，就许个愿吧。现在许愿，什么愿望都能成的。”

不知道是不是听懂了，小孩子一脸虔诚，默默望着火焰。也许是在祈求让妈妈回到自己身边来吧。孩子紧闭着双唇，映在眸子里的火光熊熊燃烧。³⁶⁾

虽然作品中没有明确写出主人公的愿望，但通过主人公将自丈夫被捕那夜起就开始疼痛的牙拔下并扔入火堆的举动，可以看出她渴望与过往的惨痛经历彻底告别并化解家中因意识形态问题产生的对立矛盾的决心。火焰的明亮燃烧给予了主人公重拾生活希望的力量，她最终告诉孙子“什么愿望都能成的”，流露出对于未来的期盼与祈愿，而孙子眼中熊熊燃烧的火光亦是对这一美好愿景的回应，象征着作品中人物虽饱经波折却仍对未来心怀希望的生之意志。此处的火意象在语表层面具有双重性质，一方面是为亡者祈福、为生者许愿的仪式之火，另一方面也是焚烧主人公病齿的破坏之火，作者通过仪式性与破坏性的结合，在语里层面赋予火意象连接生命与死亡、回忆与憧憬、过往与未来的意蕴内涵。

在「烧纸」中，李沧东在火意象中寄托了告慰死者并激励生者的寓意，与此相似，在「祭奠」这部作品里，生与死的命题同样凝聚于祭奠仪式的火意象之中。「祭奠」中主人公的姐姐和母亲一直对主人公父亲的前妻存在误会，认为当年是她举报了参与左翼运动的主人公父亲和舅舅，但父亲却同意了在家中祭奠前妻，并解开了家人对前妻的误会。在父亲前妻的祭奠仪式上，主人公在香火后的遗照上第一次看到父亲前妻的样貌，感觉她“相框中的模样看起来比我还小，更显稚气”³⁷⁾，消除了误会所带来的仇视成见，主人公

36)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103.

一家人也因逝者而心生同情与伤感。

在祭奠仪式之后，父亲前妻的儿子也放下了因被父亲抛弃而生的怨恨，对主人公露出亲切而宽厚的笑容，这不但使主人公“心里充满了激动和充实感”，更促使主人公萌生出去找寻离家出走的弟弟的强烈冲动：“我想明天就动身去找他。至于房子问题、复学问题、要承担的债务问题，我决定以后再想。”³⁸⁾以火为媒的祭奠仪式驱散了围绕死者而生的误会与怨恨，消除了具有复杂亲情关系的生者之间的矛盾和隔阂，并使主人公产生了找回多年未见的弟弟以进一步弥补亲情谱系空白的愿望。正如巴什拉所言，人类对于火意象的遐想具有生与死的双重性。在「烧纸」和「祭奠」的家庭叙事中，火意象均是连接生者与死者的重要媒介，其中蕴含着对于死者的承认及对于生者的慰藉，反映了火意象与恩培多克勒情结的契合性。

3) 诺伐利情结：个体欲望的隐喻

巴什拉认为，因为人类对于火具有发热和快感的深刻意识，所以火的文学想象与性及爱情密切相关，巴什拉以德国诗人诺伐利³⁹⁾在『亨利·道夫特廷让』中的描写为例：“埃洛发现自己站在入睡的弗莱娅面前，欣喜万分，这时突然响起了震耳欲聋的声音。一颗令人目眩的火星从公主身上迸发出来，流逝到利刃剑上……他迅步来到公主身边，在她鲜嫩的双唇上接了火一般的吻。”在此基础上，巴什拉将这种隐喻欲望、快感、爱情及性的火元素情结称为诺伐利情结⁴⁰⁾，李沧东在「战利品」中对于火意象的书写最具代表性地反映了这一情结类型。

「战利品」这一作品的叙述始于主人公具本守在大学学长金长寿因病逝世后，打电话给金长寿曾经的女友吴美子以告知她这一消息，然而在与吴美子通话的过程中，具本守感受到了自身欲望的蠢蠢欲动：

37) 李沧东, 金冉译, 前掲书, 2020, p.66.

38) 李沧东, 金冉译, 前掲书, 2020, p.76.

39) 诺伐利又译诺瓦利斯, 文中沿用『火的精神分析』中出现的译名。

40) 巴什拉, 杜小真, 顾嘉琛译, 前掲书, 2020, pp.46-47.

这是八月一个炎热的下午。整个城市像座火炉，在我看来，马场洞长途汽车站停车场前的公共电话亭，才是最热的地点……我倏然感受到体内有种欲望蠢蠢欲动，在身体的最深处悄无声息地抬起头渐渐壮大。我意识到那是性欲……我眯着眼睛望着八月酷热蒸腾的街道。像是穷光蛋手里突然手握巨款而尴尬一样，我因为顶着裤子勃起的欲望而不知所措。⁴¹⁾

文中以像火炉一样的炎热下午作为背景，天气的似火酷热与主人公欲望生长时感受到的热度相重合，因此在主人公与吴美子重逢并肌肤相亲之时，主人公也自然地联想到了火意象：

嘴里的唾液已经干涸，吴美子嘴里散发出的味道让我有些晕眩。那是一种水果熟透之后发出的香气，又像是世间万物腐败后散发出的味道。我觉得某种庞然大物正缓缓倒在火焰里，火花如夜空中的飞虫一般四处飞溅。整个世界都在燃烧，稍一触碰，就会噼里啪啦地瓦解粉碎。⁴²⁾

主人公对于吴美子的欲望看似突兀荒诞而不合情理，实则源于主人公对吴美子所享有的西式上层生活的贪念和渴望。文中提到主人公的“对吴美子的不知缘由的性欲”萌生于得知金长寿死讯的那一刻，因左翼分子身份而入狱的金长寿由于身患肝硬化才获得保外就医的机会，最终在病痛折磨之下毫无尊严的死去，与此相对，金长寿的旧日恋人吴美子却因嫁给了富有的美国中年男人而跻身社会上层。两人的生活境遇形成了鲜明对比，目睹这种巨大差距的主人公对吴美子及她所代表的上层生活产生了强烈的向往和渴望，并最终体现为无法抑制的肉体欲望。

「战利品」中象征个体欲望的火意象体现为具有强大破坏性的烧毁之火，暗示着潜藏于个体欲望表象之下的仿殖民创伤。在文中主人公偶遇吴美子和她的美国丈夫时，他连一句英语都无法说出，只能“以一种倾佩的目光，看着这个素不相识的外国人，爱抚一位我熟识的韩国女人”⁴³⁾，主人公在以英

41)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p.249-251.

42)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290.

43) 李沧东，金冉译，前掲书，2020，p.266.

文交流的吴美子夫妇面前的手足无措折射出韩国社会经济发展进程中普通民众的窘迫境遇。由于当时韩国的发展在很大程度上处于美国影响之下，社会中存在以贫富差距悬殊为代表的诸多不合理问题，主人公对于吴美子丈夫的敬佩及对于吴美子的欲望正是这一境况所造成的病态心理。根据巴什拉对于诺伐利情结的理论阐释，火与个体欲望间存在一定的深层同质性，李沧东在「战利品」中着眼于二者间的密切关联，并基于作品中炙热如火的环境背景，赋予火意象以象征个体欲望的隐喻意蕴。

4. 结论

美国学家派因曾言：“火照亮的事物保持着一种永不褪去的颜色。”⁴⁴⁾文学中的火意象同样赋予文学书写以恒久灵光，呈现出文学想象的丰富可能。李沧东在创作过程中对于火意象的关注在一定程度上源于火意象的本原性，火作为在人类文明进程中具有重大作用的基本元素，本身就是文学书写的重要对象，同时亦可溯因于社会背景、风俗传统及个人经历三个方面。

就社会背景而言，李沧东的文学创作主要以80年代的独裁统治及在此之下的民主化运动为背景，与此同时，韩国在垄断资本主义的巨大影响下经历了具有一定扭曲性的工业化发展，这一进程带来了以贫富不均为代表的社会问题，此外，韩国社会中的意识形态对立仍鲜明存在。政治现实的黑暗、社会经济的动荡转型及意识形态的对立使作者心中充满苦闷与压抑，并最终爆发为文学书写中熊熊燃烧的火意象。就风俗传统而言，深受儒家文化影响的韩国具有强烈的祖先崇拜意识，因此高度重视家庭祭奠仪式，而在韩国传统祭祀风俗中火往往是不可或缺的重要元素，这使重视家庭叙事的李沧东在文学创作的过程中也对火意象多有着笔。就个人经历而言，李沧东曾经历儿子的早夭和大学学长的病逝，二人最终均通过火葬形式而消散于世间，两次火葬仪式在作者记忆中留下了深刻印痕，并因而成为其文学书写的重要对象。

44) 派因，梅雪芹、牛瑞华、贾璐等译，陈蓉霞译校，《火之简史》，上海：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2006，p.62.

在此之下，李沧东将火作为其短篇小说中的关键意象，对火意象进行了语表层面和语里层面的双重书写。在语表层面，李沧东短篇小说中火意象的外在类型首先可大致分为破坏形式之下的火意象和仪式形式之下的火意象，其中归属于破坏形式的火意象又可进而细分为烧毁之火和自焚之火，归属于仪式形式的火意象则可细分为祭奠之火和火葬之火。在语里层面，「火与灰」中的火意象承载着鲜明的普罗米修斯情结，是敢于斗争的反抗象征。在「烧纸」和「祭奠」中，火意象则体现出恩培多克勒情结的性质，具有告慰死者并勉励生者的意义。在以「战利品」为代表的作品中，火意象则与诺伐利情结相契合，具有象征个体欲望的意蕴内涵。

值得注意的是，在李沧东创作的短篇小说中，火意象的外在类型与内蕴情结并不是单一对应的，而是呈现出一定的交织性，即作者在创作过程中会对火意象在语表层面和语里层面的不同特质予以结合，因而使作品中的火意象更趋于复杂多样。一方面，在李沧东创作的短篇小说中，相似的火意象外在类型具有承载不同内蕴情结的可能，例如归属于破坏形式的烧毁之火在「火与灰」中体现出象征反抗意志的普罗米修斯情结特质，而在「战利品」则呈现出象征个体欲望的诺伐利情结特质。另一方面，作者在表达特定内蕴情结的过程中亦会对不同的外在类型予以结合，例如在「烧纸」中，作者塑造了兼具破坏形式与仪式形式的火意象，使火意象成为连接生死的重要媒介，增强了火意象与恩培多克勒情结的契合性。由此可知，作品中火意象的不同外在类型与内蕴情结各具特性，又在一定程度上相互交叠、相互增益，反映出李沧东短篇小说中火意象书写的丰富性。

◆ 参考文献

1. 资料

- 李沧东, 金冉译, 『烧纸』, 武汉: 武汉大学出版社, 2020.
 이창동, 『소지』, 문학과지성사, 1987.
 _____, 『전리』, 고려원, 1987.

2. 单行本

- 巴什拉, 杜小真·顾嘉琛译, 『火的精神分析』, 长沙: 岳麓书社, 2005.
董学文·张永刚, 『文学原理』,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1.
派因, 梅雪芹·牛瑞华·贾珺等译, 陈蓉霞译校, 『火之简史』, 上海: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 2006.

3. 论文

- 강승목, 「영화의 영상 재현을 통한 역사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김창윤, 「영화로 제작된 이창준 소설 연구: 죽음 애도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박유희, 「의외성의 미학과 진정성의 윤리: 이창동 소설론」,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36호,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2017, pp.205-247.
박유희, 「이창동 작가는: 이창동 소설과 영화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제26호, 현대영화연구소, 2017, pp.95-143.
서유진, 「소설의 매체 변용양상 연구: 2000년대에 영화화된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신철하, 「소진된 인간-〈버닝〉의 아펙투스」, 『비평문학』 제76호, 한국비평문학회, 2020, pp.191-210.
이내관, 「분단소설에 나타난 가족서사의 화해의 논리 - 이창동의 소설을 중심으로 -」,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8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pp.117-143.
이내관, 「이창동 분단소설에 나타난 '아버지'의 의미」, 『비평문학』 제55호, 한국비평문학회, 2015, pp.159-183.
이은애, 「한국문학과 로컬리즘 소설 속에 나타난 '강북'의 이미지 - 「녹천에는 똥이 많다」를 중심으로 -」,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8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pp.83-111.
최영자, 「이창동 소설에 나타난 가족분석담론 연구 - 「소지」와 「친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69호, 한국문학회, 2015, pp.223-256.
홍상우, 「문학의 은유에서 영화의 은유로, 영화 〈버닝〉 연구 - 에이젠슈타인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제65호, 세계문학비교학회, 2018, pp.215-235.
陈嫣婧, 「作为欲望符号的“燃烧”——从福克纳、村上春树到李沧东」, 『书城』 第3期, 2019, pp.119-123.
代玉菲, 「诗意的“假象”: 作者论视角下的李沧东影像序列解读」, 『东南传播』 第5期, 2019, pp.52-55.
高慧鑫, 「『燃烧』: 从形象到意象的影像呈现」, 『电影文学』 第10期, 2019,

pp.155-157.

顾琳, 「论李沧东“作家电影”的诗意魅力」, 『电影文学』第1期, 2012, pp.59-60.

胡泽刚, 「中外文学中“火”的三重寓意」, 『湖北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35卷 第1期, 2015, pp.79-82.

孙春旻, 「语象、意象与散文的艺术形象」, 『写作』第5期, 2002, pp.22-23.

논문접수일	2023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08일

Abstract

A Study on the Imagery of Fire in Lee Chang-dong's Short St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Bachelard's Theory of Material Imagination

Guo, Rui

Fire, as an indispensable fundamental element in the advancement of human civilization, exerts a profound influence on human production and daily life. Moreover, it serves as a significant symbol that stimulates the creative imagination of literary authors. Within Lee Chang-dong's literary works, fire emerges as the recurrent imagery, offering crucial insights into the underlying themes. Notably, his collection of short stories, *Possession*, comprising works such as *Fire and Dust*, *Sacrifice*, *Possession*, and *Trophy*, places considerable emphasis on the imagery of fire. Consequently, Lee skillfully crafts diverse manifestations of fire on the external dimension while imbuing the internal dimension of this imagery with intricate meanings.

To begin with, the external representations of fire imagery in Lee's short storie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wo distinct forms: fire as a destructive force and fire as a ritualistic element. The former can be further subdivided into the fire of annihilation and the fire of self-immolation, while the latter encompasses the fire of sacrifice and the fire of cremation. Building upon this framework, this paper undertakes an analysis of the inherent meanings of fire imagery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Bachelard. Through this analysis, it becomes evident that in *Fire and Dust*, the imagery of fire symbolizes struggle and resistance, stemming from the Prometheus complex. In *Possession* and *Sacrifice*, the fire imagery serves to console the souls of the departed and inspire the living, thereby reflecting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Empedocles complex. Furthermore, the fire imagery in *Trophy* encapsulates the essence of human desire, aligning with the Novalis complex.

Keyword

Lee Chang-dong, Short Story, Fire, Imagery, Bachelard

论汉语否定提升的性质

李双剑* · 文有美**

국문요약

중국어 부정 인상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는 학계 전반에 적지 않은 이견이 존재한다. 본고는 중국어의 부정 인상은 영어 등 기타 언어의 그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중국어에는 영어 등에서 나타나는 부정 인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중국어의 부정 인상은 기 존재하는 예상을 강하게 부정할 때, 반박의 어기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기능에 대해 본고는 세 가지 논증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의 부정 인상은 사실상 주관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임을 밝힌다. 또한 중국어 부정사의 이동(좌향 또는 우향 이동)이 드러내는 (상호) 주관성은 '주관성 표현 위치의 비대칭 가설'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어의 부정사가 좌측에 위치할 경우 평서문이든 반어문이든 모두 주관성을 드러내고, 부정사가 우측에 위치할 경우, 즉 의문문인 경우 상호 주관성을 드러낸다.

주제어 중국어, 부정 인상, 부정사 이동, 특수 부정, 상호 주관성

〈目録〉

1. 引言
2. 几个重要的基本概念
3. 汉语否定提升的基本性质
4. 汉语否定提升的主观性
5. 结语与余论

* 第一作者, 上海外国语大学国际文化交流学院 讲师

** 通讯作者, 全南大学中语中文学系 副教授

1. 引言

汉语否定提升句的结构一般是“S + Neg + V + S' + VP'”这样的形式。例如：

(1) 血流下来，染红了我的裤子，我不觉得疼，走到了院门外，院门外竟然站了那么多人，他们用指头戳我，用口水吐我。（当代文学大陆作家贾平凹秦腔）

(2) 时光已经到了中午，但他的肚子也不觉得饿。（当代文学大陆作家路遥人生）

众所周知，“否定提升”这个术语其实是从句子生成的角度说的。例如，例句(3) a和(4) a怎么得到的呢？那就是例句(3) b和(4) b分别把否定词not提升到主句中生成的。

(3) a, I do not think that is a good idea. (COCA语料库)

b, I think that is not a good idea.

(4) a, I do not think he sleeps. (COCA语料库)

b, I think he does not sleep.

如果从否定的角度来考虑，我们不妨用术语“提升否定”(raised negation)来表示语言中的这类特殊的否定现象，以便与其他否定的类型区别开来。事实上Quirk等(1972: 789-790)、Quirk & Greenbaum(1973: 345-346)、Quirk等(1985: 1033-1035)所用术语都是“转移否定”(transferred negation)，尽管Quirk等(1985: 1034)在注释中说transferred negation也叫negative raising或negative transportation。徐盛桓(1983)曾经比较了转移否定与其他否定的不同，分析了转移否定本身的特点，也认同把转移否定限制在一个比较小的范围。

我们认为，首先以往学界所提出的无论是“否定词移位”还是“否定词移动”，或者是上文所提出的否定词的“浮动”，这几个术语首先可能给人的感觉是外延太广，不同句法现象中的否定词位置的变化可能也会被包括在内了。其次这几个术语与国际上主流研究所用的术语不对应，交流起来可能会造成不必要的麻烦。所以，对于汉语或外语来说，对于可能是同一类语言现象，最好用一个通用的术语。如果侧重于否定，那么我们觉得“提升否定”是一个比较

合适的术语。

所以，本文其实使用了两个相关的术语，一个是“否定提升”，一个是“提升否定”。前者是从类似于例句(3)a和(4)a生成的角度来说的，后者则是从否定的角度来讨论的，二者的侧重点不同，尽管所反映的语言现象没有本质区别。

汉语学界对于汉语否定提升的性质的看法目前并不一致。代表性的有沈家煊(1989)和李双剑、陈振宇和范轶赟(2017)。沈家煊(1989)认为：“说话人对一个命题的否定判断越是没有把握，就越倾向于把否定词移到较远的位置。”也就是否定提升减弱了否定程度。但是，通过问卷调查及分析，李双剑、陈振宇和范轶赟(2017)的看法则是：“汉语否定提升是语用性质的，用于主观辩驳与否定，而并非出于委婉的需要。”这种观点其实是说否定提升表达了“反预期”或“反常理”的语气功能。李红叶、陈振宇(2015)对汉语中“没”的非常规搭配的讨论，部分也涉及到了汉语否定提升，并与上述李双剑、陈振宇和范轶赟(2017)的观点完全一致。本文赞同李双剑、陈振宇和范轶赟(2017)的观点，但此观点还需要进一步完善，理论解释上也需作进一步的提升。

本文首先探讨几个重要的概念，然后具体探究汉语否定提升的基本性质，最后从主观性理论角度解释汉语的否定提升。本文所用的语料主要来源是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CCL语料库现代汉语部分和北京语言大学BCC语料库。为了既便于区分又可以准确核对，对于CCL语料库我们做了具体标注，但不再标明“CCL语料库”字样；对于BCC语料库我们仅仅标出“BCC语料库”字样。

2. 几个重要的基本概念

本节涉及到以下几个基本概念：浮动，协同浮动，提升否定，内部否定、外部否定与双重否定，一般否定与特殊否定。这几个术语都是本文研究的基础，我们有必要首先交代清楚。

2.1) “浮动”与“协同浮动”

所谓“浮动”(floating), 一定是指在句子意义基本不变(命题逻辑真值不变)的限制条件下进行的。例如“对”字句:“你们母女不对我说实话。”“你们母女对我不说实话。”都是成立的, 只是浮动前后句子的某些方面(如语气、语用等)可能会有差别。

我们发现, 汉语中的否定提升句是出现否定词浮动现象的比较典型的一种句式。例如:

(5) 再过几年, 如果一切顺利, 我打算不再教书了, 到时候我将已执教40年了。学校因为我离去而蒙受的损失很容易弥补。(当代W报刊W读者W读者(合订本))——我不打算再教书了¹⁾

(6) “我们打算办了, 就领张证。”海藻说这话的时候, 语气里透露着无奈, 完全不似一个新娘子应该有的喜悦。(当代W文学W大陆作家W六六蜗居)——我们打算不办了

对比“我打算不再教书了”与“我不打算再教书了”、“我们打算办了”与“我们打算不办了”, 我们认为无论否定词处在什么位置, 都不构成相反或矛盾的关系, 语义上基本一样。否定词的这种位置变化, 我们就称之为浮动。

与否定词的浮动密切相关的一种情形是, 如果否定词要浮动, 那么与否定词句法语义密切有关的词语也要一起浮动, 否则, 否定词就不能浮动。例如:

(7) 简佳, 关于年龄这个问题你已经说过N遍, 我真仔细考虑过N+1遍, 我认为根本不能成立。(当代W电视电影W文艺W新结婚时代)——我根本不认为能成立——*我不认为根本能成立

(8) 这确实有点语出惊人, 惹得肥原哈哈大笑, 笑罢了又觉得一点不好笑, 只觉得荒唐, 沉下脸警告他:“你还有什么花招都一齐使出来。荒唐! 李宁玉在偷练你的字, 证据呢? 拿出证据来我就放你走。”(当代W文学W大陆作家W麦家风声)——笑罢了又一点不觉得好笑——*笑罢了又不觉得一点好笑

上面两个例句中的否定词“不”要浮动, 必须与其他词语一起, 也就是“根本不”“一点不”都要整体浮动到否定提升词之前, 说成“我根本不认为能成立”

1) 破折号后面是为了作对比, 我们自拟的、认为可以或不可以成立的小句或句子, 下同。

“笑罢了又一点不觉得好笑”；否则，就是不合语法的。这种整体浮动的情况，我们称之为“协同浮动”。之所以有协同浮动，我们认为这些与否定词一起浮动的词语都是（否定）强化词，它们的作用就是强化否定，所以必须与否定词在一起出现。²⁾

2.2) “内部否定”“外部否定”与“双重否定”

彭利贞（2007）在讨论汉语情态否定的类型时，认为对情态表达式的否定有三种类型，即外部否定、内部否定和双重否定。所举例如下：

- (9) a.她可能在办公室。
 b.她可能不在办公室。
 c.她不可能在办公室。
 d.她不可能不在办公室。

他认为（9）b可看作是对命题的否定，也可叫做内部否定，（9）c是对情态的否定，也可叫做外部否定，（9）d则是双重否定。

彭利贞的这种分类对我们研究汉语否定提升有重要启发。我们认为这三个术语可以用到汉语的否定提升研究中。先看下面几个例句：

- (10) a.我瞧着那个满脸堆笑、一个劲鞠躬致谢的歌手，觉得他挺可怜。（当代文学大陆作家王朔a）
 b.我觉得不是玩笑，你心里就那么想的。（当代文学大陆作家王朔a）
 c.不，我不觉得他时髦。他收入不高对么？（当代文学大陆作家王朔c）
 d.想我们这一代的人会更清楚，因为我们童年没有电视、没有电话、没有计算机，可是我不觉得那个时候不快乐。（当代文学台湾作家蒋勋生活十讲）

（10）a“觉得他挺可怜。”是一个肯定句。（10）b中“不”否定的是“是玩笑”，也就是“不是玩笑”是“觉得”的宾语，其实这就是一个否定性的从句（小句）作宾语，处于“觉得”的“内部”，我们可以称之为内部否定。（10）c“不”否定的是“觉得他时髦”，这其实是对整个句子的否定，“不”处在“觉得”的“外部”，我们可以称之为外部否定。（10）d则是一个既有内部否定又有外部否定的双重否定。

2) 尹洪波（2011）认为无论从结构上还是从意义上，“并不”已经具备了独立成词的资格。

学界有所谓的从句否定(小句否定)与主句否定这样的术语。如果把从句否定等同于内部否定,把主句否定等同于外部否定,也没有什么不可;但是有双重否定的这一类型,似乎用从句否定或主句否定都无法涵盖。所以,本文坚持使用“内部否定”“外部否定”和“双重否定”这一组术语。

我们可以这样说,提升否定包括了内部否定、外部否定和双重否定。

2.3) “一般否定”与“特殊否定”

众所周知,特殊是与一般相对说的。汉语的否定提升,我们认为是一种不占优势的“特殊否定”,与一般否定有不少区别。汉语当中的确存在否定提升现象,但相比较而言,是一种特殊否定;否定词位于从句中才是优势位置,否定词位于主句中不是优势位置。例如:

(11) 我对国内的情形有一些了解,我相信你不是普通人,但要搞我,也没那么容易,我也是认识一些人的。再说,做买卖也没有强买强卖的。(当代文学大陆作家王朔b)

(12) 我打算不要这件运动衫了。(当代报刊读者读者(合订本))

(13) 你父母我都很熟,我不相信他们会教你说这个话。他们要知道他们的孩子这么小就这么——怎么形容呢?(当代文学大陆作家王朔e)

(14) 可以理解,但我不打算按你说我改变自己。(当代文学大陆作家王朔c)

例(11)(12)是内部否定,也是一般否定;例(13)(14)是外部否定,也是特殊否定。我们之所以这样确定,至少有四个方面的证据。³⁾

(1) 语料统计方面, Xiao & MaEnergy(2008)的研究得出的结论是汉语否定提升极为少见。按照Horn(1978)的研究,表示见解类和意愿类的否定提升词在众多语言中是使用最多的两个小类;我们选择汉语中典型的否定提升词“认为”作为研究对象,考察它的词汇化过程,对这个词的用法做了统计。在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CCL)语料库老舍的作品部分中,“不认为”和“认

3) 我们在第四节还会有更加详细的理论上的解释。此外,语感方面,我们与方力(2002)的语感一样,普通话中更倾向于用“我认为……不……”句式,这也是我们询问不少汉语母语者的语感的一致结果。但在此仅作为补充性的一个证据。

为……不”即外部否定和内部否定的比例是1:4, 例句如下:

(15) 老实说, 他从来没有想过冤有头, 债有主, 他根本不认为自己造了什么孽, 犯了什么罪。(《四世同堂》)——特殊否定

(16) 打牌, 他认为不是什么正当的娱乐; 可是今天他不能不随和。(《文博士》)——一般否定

根据尉春艳和何青霞(2013)的研究, “认为”连用最早出现在宋代, 但最初是短语, 明代是“认为”词汇化的萌芽期, 意义表示的是对人或事物有某种看法、做出某种判断; 清代词汇化程度较高, 一直到现代汉语早期才彻底词汇化。“认为”连用时的词组义是“认(和没有关系的人建立某种关系; 分辨、识别; 承认)O1为(作为、做、当、担当)O2”; 此后“认为”意义发生了隐喻引申, “承认是某种关系或事实”进一步引申就是“对人或事物有某种看法、做出某种判断”, 于是“认为”就逐渐由词组演变为词。

这是“认为”在语义上由语义强度等级中的强项向中项降低, 也就是情态意义的弱化, 或者是从“半叙实词”演化为了“非叙实词”。(Kiparsky & Kiparsky, 1970)

我们检索了清代小说《红楼梦》、《儿女英雄传》和《三侠剑》, 前两部小说中并没有出现表示见解义的“认为”, 《三侠剑》中虽然有不少, 但是除一例否定词用于“认为”前外, 其他有“认为”的否定句的否定词都是位于“认为”之后即从句否定, 这一例在前的是:

(17) 这话什么意思, 就因为李清泉九代曾祖就是十王李文忠啊, 他拿出这种东西谁都不认为奇怪, 就认为真是他们李家祖上传下来的。(《三侠剑》)

(2) 对于中性问句的回答方面, 例如对正反问句的回答通常是一般否定, 鲜少有特殊否定。例如:

(18) A: 他会不会去北京?

B1: 我觉得他不会。

B2: ?我不觉得他会。

B3: 我觉得他并不会。

B4: ?我并不觉得他会。

对于“他会不会去北京?”这样的中性提问, B1和B3的回答都是可以的;

B2和B4的回答则不大好,除非在这样的回答之前已经有人说了“他会”这样的话,或者是说B2和B4这样句子的人此时内心认为有人会回答“他会”,才可能这样说。所以我们说B1和B3是一般否定, B2和B4是特殊否定。

(3) 英汉翻译方面,陆谷孙主编的《英汉大词典》(第2版)(2007:2032、2110)表明,适合否定提升的英语词译为汉语时,大都不能译为特殊否定的汉语句子。例如:

(19) I suppose he won't come.(或I don't suppose he will come.) (我想他不会来。)

(20) I don't think she loves him. (我认为她不爱他。)

英语中的suppose,在词典中被翻译为“猜想”“料想”“认为”“以为”,但例(23)翻译成汉语时(无论是I suppose he won't will come,还是I don't suppose he will come.),为了符合汉语说话习惯,都被译为“我想他不会来。”也就是说,英语中无论是否否定提升,在汉语中最地道的说法一般都是一个一般否定。

(4) 汉语方言方面,限于时间与精力,我们仅考察了中原官话里的开封方言。⁴⁾开封方言中的否定提升也并不发达,以一般否定为优势,常见到的如下:

(21) 俺不觉着洋窝哩年轻人难理解。(我不觉得现在的年轻人难理解。)

(22) 俺觉着洋窝哩年轻人不难理解。(我觉得现在的年轻人不难理解。)

(23) 他有感觉这事儿咋咋好。(我没认为这件事怎么好。)

(24) 感觉这事儿不咋咋好。(我认为这件事不怎么好。)

(25) 她有想着这孩子天生笨。(她没认为这孩子天生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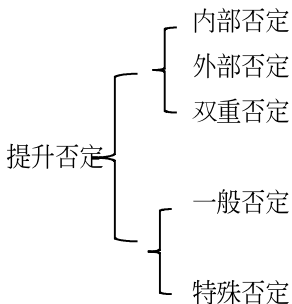
(26) 她想这孩子天生不笨。(她认为这孩子天生不笨。)

需要说明的是,开封方言中的“感觉”和“想着”有普通话中的“认为”的用法,但是都不能被“不”否定,只能被“有”否定。

那么,也可以这样说,提升否定包括一般否定和特殊否定。

我们把上一小节的内部否定、外部否定和双重否定,本小节的一般否定和特殊否定,与提升否定的关系整理如下:

4) 开封方言为北方方言中原官话郑开片的代表,详见张启焕等(1993:57)、孙富山(2001:445)、贺巍(2005)。



提升否定包括：(1) “S + V + S' + Neg + VP' ”、(2) “S + Neg + V + S' + VP' ”和(3) “S + Neg + V + S' + Neg + VP' ”。(1) 式是内部否定、一般否定；(2) 式是外部否定、特殊否定；(3) 式是双重否定、特殊否定。

3. 汉语否定提升的基本性质

本节我们谈论汉语否定提升的基本性质。在此基础上我们要明确回答汉语中究竟存在不存在类似于英语的否定提升；如果汉语中不存在否定提升，那么“否定提升”这一术语在汉语研究中是否还有存在的价值。

3.1) 汉语否定提升的本质

我们认为汉语的否定提升与英语等语言有着本质的区别。所谓的汉语的否定提升从句法上看，是依靠语序这一手段来达到表达不同的语义的方式。汉语中由于否定词的浮动，出现了一般否定与特殊否定，这是两类性质不同的否定，不仅仅句法上不同，语义上也不一样。汉语的否定提升本质上是，当强烈否认预先存在的一个预期性的认识时，使用特殊否定来加强语句的辩驳语气。这种语气功能本质上是主观性 (subjectivity) 的体现。⁵⁾例如：

(27) 春节期间不能说“破”呀、“漏”呀、“没了”等等，认为不吉利；万一小孩吃饭摔破了碗，老人们会边收拾碎片，边念叨着：“岁岁(碎碎)平安”。这是用吉利话

5) 第四节我们将会从主观性理论角度详细讨论。

来理解了。(当代W应用文W自然科学W中国儿童百科全书)——?不认为吉利

(28) 张向东: 很多人对创业有一个误解, 觉得一定要千辛万苦。其实生活中给予他的营养也很重要, 创意需要激发。

王微: 我不认为千辛万苦之后就一定要有回报, 这两者之间并没有直接的因果关系。动脑子也可以说是非常辛苦的事情, 经常脑子转得好象要脱轨一样, 但最终你不愿意也得学着享受这个过程, 不然怎么能坚持下去。(当代W口语W对话W创业者对话创业者)——?我认为千辛万苦之后不一定会有回报

例句(27)中的“认为不吉利”是一般否定。在这句的语境中只能用一般否定, 不能用特殊否定, 因为不是为了反驳或否认某一个预期, 所以在这个例句的语境中换成“不认为吉利”语义上是很别扭的, 不能这样说; 尽管不考虑语境因素“不认为吉利”可以成立。

例句(28)是一个两人对话, 张向东先说出了一个人很多人同意的观点, 就是创业一定要千辛万苦; 但王微并不同意这一观点, 为了反驳这一看法, 就说了“我不认为千辛万苦之后就一定要有回报”, 这种否认的语气很强烈。如果改为“我认为千辛万苦之后不一定会有回报”, 这种否认辩驳的语气相对弱很多, 无法突出王微的这种强烈的情感, 与此时的语境不大适合。

我们注意到, 针对典型的汉语中性问句——比如正反问句——回答通常都是一般否定, 鲜少有特殊否定。例如:

(29) 记者: 由于银行、证券市场的开放度更大了, 再加上关税调低, 外商在华直接投资会不会大幅下降?

贺力平: 我认为不会。(当代W应用文W社会科学W WTO与中国)——?我不认为会

(30) 第二个问题是, 非谓形容词都是不加标记充当定语而且只能充当定语, 那么非谓形容词是不是最典型的形容词? 我们认为不是。(当代W应用文W 议论文W 语言学论文W092)——?我们不认为是

例句(29)是记者的一个提问, 用的是没有偏向的正反问句, 这时候的回答如果是“我不认为是”, 那我们就感到很奇怪, 因为“我不认为是”是特殊否定, 是针对某一个看法的否认, 但这个语境中并不存在这样的情况, 恰当的回答当然是一般否定即“我认为不会”, 符合此时的语境。例句(30)可以作类似的分析。

3.2) 汉语究竟是否存在否定提升

如果我们把汉语中所谓的否定提升与英语等语言中的否定提升作对比,我们认为汉语中根本不存在类似于英语等语言中的否定提升,二者的性质根本不同。其实我们前文已经作了一些分析和比较。换句话说,如果以英语等语言中的否定提升作为“标准”,汉语就不存在否定提升。英语等语言中的否定提升会导致否定程度的减弱,出于交际的需要,起到表达委婉甚至更有礼貌的作用。可以说英语等语言是尽可能多用否定提升。与之相反,汉语的外部否定恰恰是强化了否定程度,反驳语气明显增强,不是表达更加委婉,而是更加直接,显得“没有礼貌”。所以,否定提升一旦用英语等语言作为衡量的依据,这种语言现象在汉语中是根本不存在的。这是我们对汉语中是否存在否定提升的明确看法。

3.3) 再谈术语“否定提升”

以上我们讨论到汉语的否定词的浮动时,用的都是“否定提升”这一术语。但是,正如上面两小节的讨论,汉语的否定提升与英语等语言有着本质的区别,“否定提升”在汉语中根本就不存在。

那么,“否定提升”这一术语在汉语中还有存在的必要吗?从汉语研究的内部来看,确实没有存在的必要,因为汉语中根本就不存在这一语言现象,内部否定就是内部否定,外部否定就是外部否定,分别都是形式与意义的统一体,也就是两类性质不一样的否定。

可是从跨语言的比较来看,我们又不得不承认,“否定提升”这一术语还是有其存在的价值。从跨语言研究否定提升来看,对于在汉语中保留“否定提升”显得就有必要。一是否定提升词的语义类别基本一致,二是从形式上看否定提升是极为广泛存在的一种语言现象,尽管语义上有差别甚至相反。那么,保留术语“否定提升”在汉语中,我们可以对这一语言现象进行一些跨语言比较研究。

尽管我们建议汉语研究中保留否定提升这一术语,但这确实是以英语等

语言的眼光来看待汉语的，我们要理解其中的“似是而非”。

4. 汉语否定提升的主观性

对于所谓的汉语的否定提升，该如何解释这一语言现象呢？本节要给出统一的理论解释。在进行理论解释之前，首先要对我们所用到的理论进行一些介绍。

4.1) 关于主观性理论

本文认为，否定词的浮动与语言的（交互）主观性和近几年刚刚兴起的一个假说即“主观性表达的位置不对称假说”有着极为密切的关系。在此，还是需要剖析一下主观性和交互主观性这一对概念与“主观性表达的位置不对称假说”。

(4.1.1) 目前学界对主观性的理解

语言的主观性研究是当今语言学界的一个热点议题。“主观性”这一术语自Bréal (1900/ 1964)提出之后，目前无论是国内还是海外的语言学界都存在着不同的理解，例如海外就有Benveniste (1958/ 1971)、Lyons (1977, 1982, 1994, 1995)、Traugott (1982, 1995, 2003, 2010, 等等)和Traugott & Dasher (2002)、Langacker (1985, 1990, 1991, 2003, 2006, 等等)、Verhagen (1995, 2005)、Nuyts (2001)等多种研究取向。所以目前关于语言主观性的探讨，包括从句法、语义、语用、语篇等各层面，有着不同的侧重点，并且重要论著极其丰富。

根据本课题的研究内容，加之Traugott (1982, 2003, 2010)和Traugott & Dasher (2002)与Lyons (1977, 1982, 1994)对主观性的认识基本一致，我们采用Lyons和Traugott对主观性的理解。“主观性”(subjectivity)是指语言的这样一种特性，即在话语中多多少少总是含有说话人“自我”的表现成分。也就是

说,说话人在说出一段话的同时表明自己对这段话的立场、态度和感情,从而在话语中留下自我的印记。(Lyons, 1977; 沈家煊, 2001、2009、2015)而“交互主观性”(intersubjectivity)是指用明确的语言形式表达说话人对听话人“自我”的关注,这种关注既体现在认识情态意义上(关注听话人对所说命题内容的态度),又体现在更具社会性的意义上(关注与听话人的社会地位和认同有关的“面子”或“形象需要”)。(Traugott, 2003, 2010; Traugott & Dasher, 2002)并且,(交互)主观性是一个共时性概念,而(交互)主观化是一个历时性概念。(Traugott, 2010)

(4.1.2) “主观性表达的位置不对称假说”

与(交互)主观性密切相关的研究方面是,句子(小句)外围(periphery)相关位置与(交互)主观性可能有着强烈的倾向性关联。Beeching & Detges (2014)根据自己和其他学者的相关研究,提出了句子(小句)的左缘(left periphery)、右缘(right periphery)上的语言成分在功能上的不对称,即“主观性表达的位置不对称假说”:左缘和右缘在功能上是不对称的,左缘与主观性功能相关联,而右缘则典型地与交互主观性功能相关联。这其实说的是(交互)主观性的表达在句子(小句)位置上的不对称。

此不对称假说主要是基于对印欧语的一系列研究,但目前是国际语言学界热烈讨论的一个问题,也出版了不少相关研究文献。例如, Degand & Fagard (2011)对法语中的 *alors*, Traugott (2012, 2016) 分别对英语中的 *no doubt* 和 *surely*、五种类型的语用标记, Degand & Waltereit (2014)对法语中的 *moi*, Ghezzi & Molinelli (2014)对意大利语中的 *guarda*, *prego* 和 *dai* 的讨论,等等。当然也有针对非印欧语的研究,例如 *Journal of Historical Pragmatics* 于 2016 年第 2 期 *Periphery - Diachronic and Cross-Linguistic Approaches* 专刊就分别有韩语、日语等的相关讨论。只是整体看来目前非印欧语的研究成果相对较少。并且围绕此假说主要是探讨语用标记(pragmatic marker)在左缘和右缘时(交互)主观性问题,对于其他成分的(交互)主观性的探索并不多。

关于“主观性表达的位置不对称假说”也遇到不少挑战。首先，目前关于“外围”的定义还存在争议，也可以说是“什么”的外围，这又与“外围模型”有关，例如存在Detges & Waltereit (2014)的“前导—述位模型”、Degand (2014)的“小句依存结构模型”和Onodera (2014)的“层状模型”等。模型不同，对“外围”的理解也不一样。其次，正如Beeching & Detges (2014)、Traugott (2012)等所认为的，左缘和右缘间的功能不对称可能只是一个强烈的倾向，而不是一条绝对的规则。跨语言的研究也证明了这一点，例如法语(Hansen, 2005; Degand, 2011)、英语(Traugott, 2012)、韩语(Rhee, 2016)、日语(Onodera, 2007)和汉语(Chen, 2018)中的一些现象就是此假说的反例。

针对此不对称假说，Chen (2018)从共时和历时角度研究了汉语语用标记“不是”在左缘和右缘的(交互)主观性和(交互)主观化，她的结论是汉语语用标记“不是”不管是在左缘还是右缘都是既有主观性又有交互主观性，是此假说的一个反例。完权(2017)考察了现代汉语中的几种(交互)主观性词语，他认为汉语(交互)主观性的表达并不依赖特定的位置，甚至连倾向性都没有，而在于标记性。

李双剑、陈振宇(2018)在讨论“对”字句否定式中否定词浮动的制约因素基础上，从否定的“焦点制约”和“主观性跃升”两个方面作了解释。焦点制约是从主观性研究中说话人的视角(perspective)方面所作的解释，但焦点制约并不能解释所有的“对”字句否定式中否定词的浮动问题；主观性跃升(subjective raising)是从主观性研究中说话人的情感(affect)方面所作的解释，即在说话者表示强烈情感时，汉语有将否定前置到(或上升到)主句VP首部的冲动。只是此文对汉语主观性跃升的探索不太深入和全面。我们看到，“主观性表达的位置不对称假说”如果用来解释否定词的这类浮动现象，就与主观性跃升的解释有着惊人的一致性；当然，受句法语义的限制，汉语句子中的否定词处在右缘时，一般只能是疑问形式。

世界语言的主观性表达手段多种多样，所以沈家煊(2009)认为：“语言中的韵律变化、语气词、词缀、代词、副词、时体标记、情态动词、词序、重复等手段都可以用来表达主观性，涉及语音、构词、语法、篇章结构等各个方

面。”不同的语言之间在表达手段上有共性但也有差异。

汉语句子中有否定词的浮动现象，这与英语等世界上很多语言中否定词的位置相对固定不同。本文认为汉语中的这种否定词的浮动即语序是表达主观性的一种手段，只是以前不大为学界所关注。与语言的主观性密切相关的“主观性表达的位置不对称假说”存在着不少争议，本文的研究可以从汉语否定词的浮动角度来验证甚至修正“主观性表达的位置不对称假说”。我们认为，目前语言学界尤其是国际上对于（交互）主观性和“主观性表达的位置不对称假说”都有着大量的研究，但是从（交互）主观性方面来研究汉语否定提升句中的否定词浮动还比较少，这确实是一个值得深入研究的课题。对于汉语中否定词的这种浮动的理论上的解释，将会充分考虑到不同语言间的共性与差异，相关研究成果可能是对主观性研究及语序类型学研究的一个重要学术贡献。

4.2) 汉语否定提升体现出的主观性

我们认为汉语的否定提升较为典型地体现出了语言的主观性。内部否定几乎没有主观性可言，只是一般的否定；外部否定由于否定词向右浮动体现出了很强的主观性。例如：

(31) 成才：别想了。不管怎么说，我觉得值得了。

许三多：我倒不觉得。（当代W电视电影W文艺W兰晓龙 士兵突击）

(32) 我把东西放下，想把这里叫做家。可是，我不觉得它是家。（当代W电视电影W文艺W兰晓龙 士兵突击）

例句（31）是两个人的对话。成才说“我觉得值得了”，许三多不同意他的看法，要反驳他，就说了“我倒不觉得”，辩驳语气很强。这句话里面的“倒”只是加强了这种反驳语气，如果去掉“倒”，直接说“我不觉得（值得）”也是可以表达他的看法的。例句（32）“我不觉得它是家”是对前面“把这里叫做家”的反驳，前面有“可是”也是对这种反驳语气的一种照应。这两句话“我倒不觉得”“我不觉得它是家”是特殊否定，里面的否定词“不”都不能向右移动，变成内部否定，因为内部否定是一般否定，不具有主观性，没有反驳的强烈语气。

我们再看内部否定的例句：

(33) 妇救会长一早就跑到区上来了……德松觉得事情不简单，就领着母亲和那妇救会长去找正在开会的姜永泉他们。（当代文学大陆作家冯德英 苦菜花）

(34) 本来站在前面惹人注意的地方的王镗子，听到这里，面色变白，心里忐忑不安，向人里头挤；但又急忙停住跟着叫道：“还想享福……”觉得不明确，又加上说，“想压迫人。”（当代文学大陆作家冯德英 迎春花）

例句(33) (34) 中的“德松觉得事情不简单”和“觉得不明确”都是内部否定。为什么要用内部否定？还是由语境决定的。例句(33) 里面由于“妇救会长一早就跑到区上来了”，德松知道后，认为这里面应该有文章，所以他认为“事情不简单”，很自然地使用“德松觉得事情不简单”这句话来表达德松此时的想法。例句(34) 里面“不明确”指的是王镗子仅仅说了“还想享福”这一句话，他怕别人听不懂，又加了一句“想压迫人”。所以“觉得不明确”很自然表达了王镗子所认为的仅说一句“还想享福”的感受。

例句(33) (34) 中的“德松觉得事情不简单”和“觉得不明确”这两句话不能分别改为“德松不觉得事情简单”和“不觉得明确”，因为这是外部否定，有较强的反驳语气，主观性强，与语境不适合。

4.3) 与汉语否定提升相关的三种情形与理论解释

汉语的否定提升所涉及到的否定词的浮动体现出了主观性，但这不是孤立的语言现象，还有其他情形与之平行或紧密相关，可以更为全面有力地论证我们的观点。

本节我们先讨论三类密切相关的语言现象，然后要从（交互）主观性角度深入探讨汉语否定词的浮动问题，进行统一解释。可以看到，所讨论的否定词的浮动与（交互）主观性有着密切的关系。

(4.3.1) 与汉语否定提升相关的三种情形

在当前相关研究的基础上，我们认为汉语中的否定提升与部分介词句（限于“主语+介宾结构+谓语”形式即“S+PP+VP”）是出现否定词浮动现象的两种比

较典型的句式。具体来说，否定词浮动又包括四种情形，本文认为都涉及到了汉语句子中否定词的浮动与（交互）主观性表现问题。为便于比较，我们同时列出这四类现象：

① 部分介词句中否定词的浮动相对自由，但(左向)浮动会造成语气或语用上的明显差别；或者是否定词一般不能出现的句法位置(主要是左缘)，在一定的形势下可以出现了。仅举“对”字句否定式为例：

(35) 目前，治安形势严峻，犯罪分子嚣张，群众对我们不满意，我们不把这个中心突出出来不行。(当代W报刊W1994年报刊精选W08)

(36) 这位顾客又试了一回，颜色合适了，但又对裤长不满意，最终还是没买。(当代W报刊W人民日报W1995年人民日报W9月份)

这两个例句中“群众对我们不满意”“但又对裤长不满意”不能分别说成“*群众对我们满意”“*但又不对裤长满意”，但在以下情形的句子中就可以成立：

(37) 我并不对他怎么满意。(反预期)

(38) 如果我不对他满意，就不会答应他了。(假设)

李双剑、陈振宇(2018)曾对此进行了研究，用主观性跃升作了解释。事实上，我们认为可以与其他三类情况进行统一的理论解释。

② 汉语存在着否定提升现象，但其性质与英语等语言并不一样。汉语否定提升中否定词出现在VP首位(左缘)与从句首位(句中)这两个不同的位置，其所对应的句子的语用意义或功能是不一样的。例如：

(39) 小王遇这样的事不是第一次，因此也不觉得拘束。(当代W文学W大陆作家W陈建功 皇城根)

(40) 我对不起你，我真地从内心里觉得对不起你。可我也真的从内心里觉得我并不爱你。(当代W文学W大陆作家W陈建功 皇城根)

李双剑、陈振宇、范轶赟(2017)一文对此有着不同于前人的解释，该文认为汉语否定提升句表达了“反预期”或“反常理”的语气功能。当然，此文也仅仅是对此类现象进行了一定的研究；根据我们的观察，汉语否定提升句与部分介词句中否定词的浮动有着极为相似的动因。

③ 受句法语义的制约，当汉语句子中的否定词处在句末(右缘)时，一般只能是疑问形式，例如：

(41) 你认识我不？不认识我来告诉你，我叫小秃，在车站上咱俩常见面。(当

代文学大陆作家冯志 敌后武工队)

(42) 不是,我怎么啦?她打三天前就天天把这副脸冲着我。我招你惹你不?

(当代文学大陆作家王朔b)

(43) 你见着燕生没有?这小子跑哪儿去了?(当代文学大陆作家王朔b)

(44) 甬跟我说这个,跟我说这个,听见没?(当代文学大陆作家王朔d)

介词句和否定提升句也都不例外。例如:

(45) 你老婆对你好不?(BCC语料库)

(46) 以文化名人余秋雨为代表的一系列中国文化名人齐聚海天佛国,共论观音文化。你对观音文化有了解不?(BCC语料库)

(47) 你觉得质量靠谱不?(BCC语料库)

(48) 这么说世界还真末日了,你相信有末日不?(BCC语料库)

④ 上面讨论的第一、第二类现象限于陈述句,如果把类似例(35)(36)(39)(40)分别变为相应的疑问句形式,否定词既可以保持在原位(句中),又可以处在句首(左缘)。例如:

(49) 你对你的工资不满意吗?(BCC语料库)

(50) 你觉得我不明白?(当代电视电影文艺王兰晓龙 士兵突击)

(51) 达明,你不对我负责吗?(当代文学大陆作家百合 哭泣的色彩)

(52) 你不觉得这个差异很大?(当代口语对话创业者对话创业者)

第3)类和第4)类疑问形式里,例句(45) - (48)中否定词处在右缘,例句(49) (50)中否定词处在句中,例句(51) (52)中否定词处在左缘。目前学术界对这两类现象的一系列差别和共性缺乏相关研究。我们认为,否定词处在左缘、句中、右缘时句子的(交互)主观性并不一样。下一小节我们具体讨论。

(4.3.2) (交互)主观性理论的解释

本文认为,汉语中这四类现象虽然呈现出来某些对立和差异,但是,毫无疑问都与句子中否定词的浮动有关。浮动当然也可以说是一种语序的不同,而“语序是更初始、基本的语言编码形式”(陆丙甫、罗彬彬,2018)。这种浮动即语序又与语言的(交互)主观性有密切的关系。换句话说,从(交互)主

观性表达的位置来看待这四类语言现象，那么可以从理论上得出统一的解释。本文所讨论的汉语句子中否定词的浮动，不仅涉及到了(交互)主观性，特别是涉及到了(交互)主观性表达的位置在功能上的不对称。

由于与句类有密切关系，为便于讨论，我们按照句类进行研究。

① 陈述句中的否定词的浮动

按照句类来分，我们初步认为，在陈述句中，当否定词处在左缘时，句子具有较强主观性功能；而否定词处在句中（即“S + PP + Neg + VP”或“S + V + S' + Neg + VP'”）时句子则没有主观性功能。或者说，否定词从处在句中到移动至左缘，会使句子的主观性大大增强。

(1) 否定词位于句中。例如：

(53) 去你的吧！那姓李的老大伯能落到敌人手里？他是个老革命，作战经验比我们也不少。（当代文学大陆作家杜鹏程 保卫延安）

(54) 我想我原来也会的，比她不差。可惜没机会了，本来想带张我小时候的照片给你看看……（当代文学大陆作家王朔c）

(55) 八十年代中国电影精神的“文化回归”之外的电影现象常常显得不那么成功。（当代报刊1994年报刊精选w09）

(56) 以前国画表现人物有个毛病，都是脸部非常细致，像素描、西洋画一样，但身上则是大笔一挥，显得不谐调。你的画，脸上、身上都很简练，显得协调。不容易、不容易！（当代报刊1994年报刊精选w11）

例句(53)和(54)是“比”字句否定式，但是否定词位于句中；例句(55)和(56)是提升否定的两个句子，否定词也位于句中。我们认为例句(53) - (54)中的“比”字句否定式和提升否定句都是内部否定或一般否定，句子本身没有主观性，就是因为否定词处在句中。

(2) 否定词位于左缘。例如：

(57) 比如说我们现在可以举很多的例子，很多女性在IT行业，高科技产业，她们创造的价值一点也不比男性少，那么像这样的现象就是一个基本的动因，什么动因呢？（当代电视电影非文艺百家讲坛w030307-030410w3月10日妇女与法律 信春鹰）

(58) 二，不盗皇陵盗王陵，盗皇陵弄不好就身败名裂，项羽便吃了这茬儿的

亏，而王陵随葬宝物并不比皇陵少，盗起来却稳妥多了。（当代W史传W倪方六中国人盗墓史）

(59) 1953年12月，毛泽东要休假离京，依照惯例提议由刘少奇在他休假期间临时主持中央领导工作。当时刘少奇谦逊地提出，还是由书记处的同志轮流负责为好。书记处的其他同志都同意由刘少奇主持，不赞成轮流，唯独高岗一再坚持说：“轮流吧，搞轮流好。”（当代W报刊W作家文摘W1993W1993B）

(60) 我们不赞成罢工，因为在我国，劳动者的根本利益与国家利益是一致的。（当代W报刊W1994年报刊精选W07）

例句(57)和(58)是“比”字句否定式，但是否定词位于左缘；例句(59)和(60)是提升否定的两个句子，否定词也位于左缘。我们认为例句(57) - (58)中的“比”字句否定式和提升否定句都是外部否定或特殊否定，句子具有很强的主观性，因为就是否定词处在左缘。

刘雪珂(2022)通过语料库定量研究发现，有反预期标记的“不比”句占总语料数量的59.62%(1147句)，无标记的“不比”句占总语料数量的39.86%(767句)，有顺预期标记的“不比”句占总语料数量的0.52%(10句)。可见，“不比”句要么可以不加任何预期标记，要么有大量的“不比”句有反预期标记，说明这样的句子具有很强的主观性。其实，我们更感兴趣的是她所研究的有顺预期标记的“不比”句。我们认为，有“确实”“实在”等所谓顺预期标记的“不比”句中的“确实”“实在”是对这种主观性的强化，而不是互相矛盾。张谊生(1996、2000:21)认为“确实”“实在”是评注性副词，并认为评注性副词是主观性最强的副词。我们认为在这样的“不比”句中出现“确实”“实在”是对这种主观性的一种加强，而不是语义上的矛盾。

② 问句中的否定词的浮动

在问句中，当否定词处在左缘时，句子典型地具有主观性功能；当否定词处在右缘时，句子具有交互主观性功能。

(1) 否定词位于左缘。例如：

(61) 拿我来说吧，为什么城市不住，那样的荣华不享，来到这荒山沟里呢？我受的教育、我的地位不比你高吗？这就叫大丈夫能伸能屈。（当代W文学W大陆作家W冯德英 苦菜花）

(62) 你是大队长，他是干事，在一起工作时间又长，不比我清楚？（当代W文学W大陆作家W李晓明 平原枪声）

(63) 爱是一个过程，在这个过程中，谁不希望爱情长久？谁不希望真情永驻？然而，爱情的长久和短暂，决定于相爱的人是否懂得培育和完美爱情。（当代W报刊W人民日报W1996年人民日报W6月份）

(64) 黄江北给林书记沏茶。黄江北说：“提前这么多日子召开市人代会，筹备工作相当紧张了……”林书记笑笑：“你不希望提前开？”（当代W报刊W作家文摘W1996W1996A）

例句 (61) - (64) 其实都是反问句。殷树林 (2006) 直接把“不比……？”类列为反问句。我们知道，反问句是说话人没有疑问、不需要听话人回答的一种问句句式，也就是所谓的“无疑而问”。周凌、张绍杰 (2022) 的语用实验表明，反问句的否定含义最强，礼貌性最弱。之所以如此，就是因为反问句的否定语气非常强，是主观性很强的表现。

(2) 否定词位于右缘。例如：

(65) 其实，很多事情关键在你自己努力。比如我，二十多岁就成了右派。当时的处境，比你们差不？可我却找了一个歌舞团的老婆……（当代W报刊W1994年报刊精选W07）

(66) 我怎么难受，也比史更新好受不？我非去不行！我……（当代W文学W大陆作家W刘流 烈火金刚）

(67) “……不必限定要武功，因为这一项敢说找不到敌手，老和尚以为我公道不？”“施主不愧一代英雄，果真公道之极。……”（BCC语料库）

(68) 紫衣人道：“求生，是人的本能，若说不怕死，那该是矫情，南宫大侠以为对不？”南宫逸奇轻声一笑道：“你这话很坦白，我答应放过你们三个，决不伤你们的性命是可以，不过你必须衷诚合作？实答我所问才行！”（BCC语料库）

例句 (65) - (68) 都是疑问句。疑问句通常是说话人通过提问需要听话人来回答，这就是比较典型的交互主观性。例句 (67) 和 (68) 就是这种情况的典型。比如例句 (67) 上句问到“老和尚以为我公道不？”下句就有回答“果真公道之极”。那么例句 (65) 和 (66) 只是发问，似乎听话人也没有回答，还是疑问句吗？其实这就涉及到疑问句的内部的不同类型。按照郭继懋 (1997) 的看法，一部分疑问句是有疑的，一部分是无疑的。我们认为例句 (65) 和 (66) 属于后者。

(3) 否定词位于句中。例如：

(69) 陆小凤道：“他平时对你姐姐不好？”雪儿道：“不好，他总是骂我姐姐，说她败坏了上官家的门风，我姐姐根本就不买他的账。”（当代文学台湾作家古龙 陆小凤传奇）

(70) 省组织部官员：你对我们不信任吗？

钱瑞青：这是尊重程序，程序正义是必须的。（当代电视电影文艺杨银波 中国的主人）

(71) “你认为我们不平等吗？”“我认为我们很平等。但平等不等于投桃报李，……”（当代文学大陆作家王朔b）

(72) “那你希望我不这样做吗？”“嗯是……不，”她回答，她好像在解一道数学难题，“不，我不希望你停止。我喜欢被人关注。”（当代报刊读者读者（合订本））

以上四个例句都是疑问句，并且否定词都位于句中。这些句子具有主观性功能，但所具有的主观性与句中的否定词没有关系，与上面那小类否定词位于右缘的情况不一样。这一类的主观性功能是疑问句本身带来的，而与由否定词的浮动没有关系，我们也可以这样认为，这一类否定词位于句中的情形，可以看作否定词没有浮动，因为“他平时对你姐姐不好”“你对我们不信任”“你认为我们不平等”“你希望我不这样做”也都是可以成立的、合乎语法的。

请注意，尽管部分介词句中否定词不能自由浮动，例如，一般来说，“把”字句和“被”字句中否定词不能位于句中，这是受句法语义制约的结果。但不可否认，受各种动因的驱动，汉语中否定词的浮动特别发达，所以否定词可以出现在左缘、句中、右缘等不同的句法位置。

(4.3.3) “主观性表达的位置不对称假说”再探讨

前面4.1.2小节介绍了“主观性表达的位置不对称假说”，即左缘和右缘在功能上是不对称的，左缘与主观性功能相关联，而右缘则典型地与交互主观性功能相关联。通过4.3.2小节的讨论，我们发现汉语否定词的浮动（向左或向右）所体现出来的（交互）主观性符合“主观性表达的位置不对称假说”，汉语否定词位于左缘时，无论是陈述句还是反问句，体现出来的都是主观性；汉语否定词位于右缘时，即是疑问句，体现出来的是交互主观性。

但是，我们注意到，否定词位于句中时，无论是陈述句还是疑问句，似乎都没有“交互”主观性。那么是否可以说汉语的句中位置是不能体现“交互”主观性的句法位置呢？对于人类语言来说，是否具有普遍性？这两个问题值得更多更深层次的探讨。

5. 余论

本文主要讨论的是允准否定提升的情况，也就是否定词可以相对自由浮动的情况。但是我们注意到，一些属于内部否定的句子是无法进行否定提升的。例如：

(73) 曹掌柜觉得不妥，劝道：“东家，您再想想……”（当代W电视电影W文艺W乔家大院）——*曹掌柜不觉得妥——曹掌柜不觉得妥当

(74) 他对这支以奥林匹克队员为主的中国队的赛后打算不加评论，说这不是这次比赛要谈的。（当代W报刊W人民日报W1995年人民日报W2月份）——*不打算加评论——不打算加以评论

这两个例句中的否定词“不”都不能提到否定提升词前，也就是“曹掌柜不觉得妥”“不打算加评论”都是不合语法的。我们认为，韵律方面的音节限制是一个重要影响方面。“妥”“加”作为单音节词成词性本身较弱，与典型的单音节词有很大不同。如果分别换成“妥当”“加以”，再进行否定提升就是可以的，也就是“曹掌柜不觉得妥当”“不打算加以评论”都可合乎语法的。“妥”“加”与否定词“不”结合后相对更加自由，可以自由使用，但这时就不能对否定词“不”进行提升了，否则就是不能成立。

韵律音节上的限制尽管具有普遍性，但不是影响不允准否定提升的唯一因素。例如：

(75) 高城觉得不大对，因为他根本是在对着许三多的膝盖训话。（当代W电视电影W文艺W兰晓龙 士兵突击）——*高城不觉得大对——*高城不大觉得对

(76) 不是呀，我妈觉得不太对劲，她说额头怎么会这么凉，然后就会给少年宫的老师打电话请假，我就不用了。（当代W口语W电视访谈W鲁豫有约红伶）——*我妈不觉得太对劲——*我妈不太觉得对劲

例句（75）和（76）无论仅仅是否定词“浮动”还是“协同浮动”都不允许。

主要就是因为例句中的“不大”“不太”类似于“有点不”，结合地很紧密，不能随意分开。并且“不大”“不太”的这种否定是一种较弱的否定，与纯粹的否定词性质也不一样，不能提升到否定提升词之前。

再如：

(77) 最后，我建议不要买外国香烟。（当代W报刊W人民日报W1993年人民日报W7月份）——？最后，我不建议要买外国香烟。——最后，我不建议买外国香烟。

(78) 虽然医生建议我不要再踢球了，可干到现在这个份上，就这么下来了实在是不甘心。（当代W报刊W人民日报W1994年人民日报W第1季度）——*虽然医生不建议我要再踢球了——虽然医生不建议我再踢球了。

例句(77)中否定词“不”直接提升到否定提升词“建议”前是“我不建议要买外国香烟”，这句话很别扭，需要把其中的“要”去掉说成“我不建议买外国香烟”才可以。为什么这样呢？我们初步认为，这里的处于小句中的“要”表示义务，否定形式是“不要”，可以改成“别”（吕叔湘，1999），“不”和“要”的联系更加密切，“不”不能抛开“要”直接提升。例句(78)也类似。

总之，关于允准否定提升的因素对于所有的否定提升词来说，有一定的共性，但也有一定的个性，就是允准不同的否定提升词的否定提升的因素可能不一样，这个课题值得进一步探索、研究。

◆ 参考文献

1. 资料

CCL：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BCC：北京语言大学数据与语言教育研究所(<http://bcc.blcu.edu.cn/zh/cid/0>)

2. 单行本

陆谷孙主编，《英汉大词典(第2版)》，上海：上海译文出版社，2007。
吕叔湘(主编)，《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北京：商务印书馆，1999。
彭利贞，《现代汉语情态研究》，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7。
孙富山(总编纂)，《开封市志》(第6册)，北京：北京燕山出版社，2001。

- 张谊生, 『现代汉语副词研究』, 上海: 学林出版社, 2000.
- 张启焕等, 『河南方言研究』, 开封: 河南大学出版社, 1993.
- Benveniste, Emile. 1971. Subjectivity in language. In *Problems in General Linguistics*, 223-230. Trans. by Mary Elizabeth Meek, Coral Gables: FL: University of Miami Press. Original French publication, 1958.
- Bréal, Michel. 1900. *Semantics: Studies in the Science of Meaning*. Trans. by Mrs. Henry Cust. New York: Dover. Original publication, 1964.
- Horn, Laurence R. 1978. Remarks on neg-raising. In Peter Cole (ed.), *Syntax and Semantics*, Vol. 9: Pragmatics, 129-220. New York: Academic Press.
- Kiparsky, P. & Kiparsky, C. 1970. Fact. In M. Bierwisch and K.E. Heidolph (eds), *Progress in Linguistics*, 143-173. The Hague: Mouton.
- Langacker, Ronald W. 1985. Observations and speculations on subjectivity. *Iconicity in Syntax*, ed. by John Haiman, 109-50. Amsterdam: Benjamins
- Langacker, Ronald W.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2: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onald W. 2003. Extreme subjectification: English tense and modals. In *Motivation in Language: Studies in Honor of Günther Radden*, Hubert Cuyckens, Thomas Berg, René Dirven, and Klaus-Uwe Panther (eds.), 3-26. Amsterdam/Philadelphia: Benjamins.
- Lyons, J. 1977. *Semantics* (Vol.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 1982. Deixis and subjectivity: loquor, ergo sum? In: Jarvella, R. J. and Klein, W. (Eds.), *Speech, Place, and Action: Studies in Deixis and Related Topics*. Wiley, New York, pp. 101-124.
- Lyons, John. 1994. Subjecthood and subjectivity. In Marina Yaguello (ed.), *Subjecthood and subjectivity: the status of the subject in linguistic theory*. Paris: Ophrys, 9-17.
- Lyons, John. 1995. *Linguistic semant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ndolph Quirk,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 Jan Svartvik,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Group Limited.
- Randolph Quirk, Sidney Greenbaum, 1973. *A University Grammar of English*, London: Longman Group Limited.
- Randolph Quirk,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 Jan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Group Limited.

- Richard Xiao & Tony MaEnery. 2008. *Negation in Chinese: a corpus-based study*,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36(2), 274-321. 又见Richard Xiao & Tony MaEnery 2013 汉语中的否定：基于语料库的研究，郑晓杰译，载石锋、张洪明主编『语言学译林(第二辑)』，pp.106-128，北京：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 Traugott, E.C. 1982. From propositional to textual and expressive meanings: Some semantic-pragmatic aspects of grammaticalization. In Winfred P. Lehmann and Yakov Malkiel (eds.), *Perspectives on Historical Linguistics*, 245-271. Amsterdam: John Benjamins.
- Traugott, E.C. 1995. Subjectification in grammaticalisation. In *Subjectivity and Subjectivisation*, Dieter Stein and Susan Wright (eds.), 31-5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ugott, E.C. 2003. From subjectification to intersubjectification. In: Hickey, R. (Ed.), *Motives for Languag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 124-139.
- Traugott, E.C. 2010. (Inter)subjectivity and (Inter)subjectification: A Reassessment. In Kristin Davidse, Lieven Vandelanotte and Hubert Cuyckens (eds.), *Subjectification, Intersubjectification and Grammaticalization*, 29-71. Berlin: Mouton de Gruyter.
- Traugott, E.C. 2012. Intersubjectification and clause periphery. In Brems, L., Ghesquière, L. and Van de Velde, F. (eds.), *English Text Construction*, 7-28. Amsterdam: John Benjamins.
- Traugott, E.C. and Dasher, R.B. 2002. *Regularity in Seman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hagen, Arie. 2005. *Constructions of Intersubjectivity: Discourse, Syntax and Cogn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 论文

- 方立，「“I don't think…”和“I think…not…”的句式分析」，『外语教学与研究』第6期，2002，pp.450-453.
- 郭继懋，「反问句的语义语用特点」，『中国语文』第2期，1997，pp.111-121.
- 李红叶、陈振宇，「副词“没”的非常规搭配」，『云南师范大学学报(对外汉语教学与研究版)』第2期，2015，pp.81-92.
- 李双剑·陈振宇，「否定词在“对”字句否定式中浮动的制约因素」，『语言教学与研究』第2期，2018，pp.91-103.

- 李双剑·陈振宇·范轶赞, 「汉语否定提升研究」, 『语言科学』第3期, 2017, pp.250-264.
- 刘雪珂, 「汉语二语学习者“不比”句习得研究」, 上海外国语大学硕士学位论文, 2022.
- 陆丙甫·罗彬彬, 「形态与语序」, 『语文研究』第2期, 2018, pp.1-13.
- 沈家煊, 「判断语词」的语义强度」, 『中国语文』第1期, 1989, pp.1-8.
- 沈家煊, 「语言的“主观性”和“主观化”」, 『外语教学与研究』第4期, 2001, pp.268-275.
- 沈家煊, 「汉语的主观性和汉语语法教学」, 『汉语学习』第1期, 2009, pp.3-12.
- 沈家煊, 「汉语词类的主观性」, 『外语教学与研究』第5期, 2015, pp.130-152.
- 徐盛桓, 「否定范围、否定中心和转移否定」, 『现代外语』第1期, 1983, pp.6-13.
- 完 权, 「汉语(交互)主观性表达的句法位置」, 『汉语学习』第3期, 2017, pp.3-12.
- 尉春艳·何青霞, 「“认为”的词汇化过程探析」, 『河北民族师范学院学报』第3期, 2013, pp.53-55.
- 尹洪波, 「“并不”中“并”的功能」, 『北华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3期, 2011, pp.33-35.
- 殷树林, 「现代汉语反问句研究」, 福建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2006.
- 张谊生, 「副词的连用类别和共现顺序」, 『烟台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2期, 1996, pp.86-95.
- 周 凌·张绍杰, 「反问句否定含义强度及(不)礼貌等级的实验语用学研究」, 『外国语』第1期, 2022, pp.25-35.
- Langacker, Ronald W., “Subjectification”, *Cognitive Linguistics* 1(1), 1990, pp.5-38.
- Nuyts, J., “Subjectivity as an Evidential Dimension in Epistemic Modal Expressions”, *Journal of Pragmatics* 3, 2001.
- Traugott, E.C., 2016. “On the rise of types of clause-final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Journal of Historical Pragmatics* 17 (1), 2016, pp.26-54.

논문접수일	2023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08일

Abstract

On the Nature of the Neg-Raising in Mandarin Chinese

Li, Shuangjian · Moon, Youmi

There is currently a controversy in the academic community over the view of the basic nature of neg-raising in Mandarin Chinese. Based on the discussion of several concepts, this paper argues that the neg-raising in Mandarin Chinese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English and other languages, and that there is no neg-raising in Mandarin Chinese similar to that of English and other languages. The condition for the use of the neg-raising in Mandarin Chinese is that when a pre-existing anticipatory realization is strongly denied, the special negation of neg-raising is used to strengthen the argumentative tone of the utterance. This tone function is also comprehensively demonstrated in three cases related to the neg-raising in Mandarin Chinese, which strongly proves that the neg-raising in Mandarin Chinese is essentially a manifestation of subjectivity. In this paper, we also find that the (inter)subjectivity embodied in the floating of the negatives in Mandarin Chinese (to the left or to the right) is in line with the “hypothesis of the asymmetry between subjectivity and clause periphery”, whereby when the negatives in Mandarin Chinese is located at the left edge, whether it is a declarative sentence or a rhetorical question, what is reflected is subjectivity, and when it is located at the right edge, i.e., in a question sentence, what is reflected is intersubjectivity. When the Chinese negative is located on the right edge, i.e., it is an interrogative sentence, reflecting the intersubjectivity.

Keyword neg-raising in Mandarin Chinese, floating, special negation, (inter)subjectivity

韩语母语者的“字感”研究

-以独体形近字为例*-

章婷** · 宋婷立*** · 周雅洁****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국제 중국어 교육 중국어 능력 수준 표준에 있는 527개의 형태소 밀접 문자 세트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였고, 그 중 140개의 독특한 형태소는 밀접 문자 세트로 '획수, 획의 모양, 획 조합의 관계, 획의 위치'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시선 추적 실험 결과, 중국어 원어민과 비교했을 때 한국어 원어민은 네 가지 유형의 고유한 단기 문자에 대해 동일한 처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네 가지 유형의 고유한 단기 문자의 인식률은 동일한 순서이며, 고유한 단기 문자의 처리는 부분 처리 가설에 부합하고, 이는 한국어 원어민이 중국어 원어민과 유사한 중국어 문자 인지 처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단어 감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원어민은 네 가지 획 유형을 인식하는 반응 시간이 길고 획 위치 유형에 대한 정답 단어 인식률이 낮았다는 점이다. 획 위치 유형에 대한 첫 시선 시간은 다른 세 가지 유형에 비해 짧았고, 획 위치 및 획 형태 유형에 대한 시선 점수는 획 조합 관계 및 획 수 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중국어 중급에서 고급 수준의 한국 모국어 화자가 아직 중국 모국어 화자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가까운 문자의 고유한 형태 습득에 있어 획 위치와 획 형태는 습득하기 어렵고, 획 조합 관계와 획 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습득하는 등 습득 난이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분석하고 몇 가지 교육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국어 원어민, 모노그램, 모양이 변하는 캐릭터, 시선 추적 기술

* 本研究得到2023年国际中文教育重点研究课题项目“基于《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的语素库建构与实证研究（项目编号为23YH18B）”的支持

** 南京师范大学 文学院 语言学及应用语言学专业 副教授, 第一作者

*** 南京师范大学 文学院 语言学及应用语言学专业 硕士研究生, 第二作者

**** 南京师范大学 文学院 语言学及应用语言学专业 硕士研究生, 第三作者

〈目象〉

1. 引言
2. 研究方法
3. 实验结果
4. 讨论
5. 结语

1. 引言

1) 韩国的汉字教学现状

韩国与中国同属于汉字文化圈，据史书记载，公元前3世纪汉字传入了朝鲜半岛，在很长一段时间里，一度作为朝鲜半岛的官方文字。直到1443年，世宗大王组织学者创制了谚文，这是一种与汉字表意系统不同的表音文字。1970年韩国政府规定在中小学和政府公文中全面取消汉字，汉字在韩国失去传播使用功能，仅以标注形式出现。虽然近些年汉字教学在逐步恢复，例如在初中阶段会开设古代韩国文字的教学，但是韩国文字与中国现代汉字在笔形、笔画组合关系、笔顺等方面差异较大，汉字在韩国并不作为一门独立的文字使用，汉字的教学并没有引起足够的重视，教学效果甚微。

汉字是一种内部结构复杂的意音文字，笔画和部件是汉字的两级构形单元，汉字笔画形体的近似性、部件组合的有限性等都会导致汉字出现大量的形近字，而形近字是韩国学生认读和书写汉字偏误的主要类型。形近字从字体结构上可分为独体形近字和合体形近字。现代汉字中独体字是合体字的组成部分，独体字是直接分解到笔画一级、整体不能进行部件拆分的汉字。研究独体形近字就是研究合体形近字中的部件。从某种意义上讲，形近字问题等同于形近部件问题。因此，独体形近字的区分对整个汉字系统的学习具有重要意义。

初级阶段的汉字教学中，独体字的教学量占比较大，一方面独体字都是

表意基础的常用字，另一方面独体字可形成合体字的成字部件，可较好地实现合体字的类推理解与批量学习，所以独体字教学是汉字教学的基础。目前的韩国中小学汉字教学中，独体字教学占比81%，远多于其他类型的汉字教学，但是教师常采用整字教学的方法，不重视笔画、笔形与笔画组合关系的教学（张思童，2022）¹⁾，导致学生常出现汉字书写的偏误与形近汉字的误判。所以对韩语母语者的独体形近字的习得进行实证研究，可以较好地了解韩语母语者对独体形近字的认知加工过程，了解笔画的多种因素对形近字识别的影响，有效指导汉字的教学。

2) 先行研究

国际中文教育领域的形近字研究以偏误分析与教学策略为主，认为形近字的识别和书写难度较大（石定果、万业馨，1998）²⁾，形近字教学一定要提高对字形区别特征的重视程度（梁彦民，2004）³⁾。学界对于韩国汉字教学的相关研究显示，韩国小学对汉字教学重视程度不够，汉字的笔顺和笔形是学习的难点，需要重视汉字独体形近字的认读，利用好汉字词的正迁移（金莲姬，2015；黄新萍，2014）⁴⁾。虽然部分韩国高中存在着“汉文教育”，但是与汉字教学有区别，因为学生对汉字的练习不足，所以在形近字的笔顺和笔画上的偏误比较多（燕艮秀，2013）⁵⁾。韩国成人汉语学习者常出现字形相近而导致的偏误，在部件的增减、笔画的变形以及字音相近等方面容易产生偏误

1) 张思童，「针对韩国不同年龄段汉语学习者的初级汉字教学研究」，兰州交通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2022。

2) 石定果·万业馨，「关于对外汉字教学的调查报告」，《语言教学与研究》第1期，1998，pp.36-48。

3) 梁彦民，「汉字部件区别特征与对外汉字教学」，《语言教学与研究》第4期，2004，p.76-80。

4) 金莲姬，「韩国小学汉字教学现状调查与分析」，扬州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2015。
黄新萍，「韩国小学汉字教学研究」，沈阳师范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2014。

5) 燕艮秀，「韩国汉语零基础学生的汉字偏误分析及教学策略——以韩国光州金龟初中为例」，辽宁师范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2013。

(彭滔, 2015) 6)。中级汉语水平的韩语母语者能够根据汉字的结构特征, 综合运用汉字的形音义来习得汉字, 而形似是其学习过程中最大的干扰因素。韩国学生与欧美学生书写汉字的偏误研究对比发现, 韩国学生因字形相近导致的错字明显多于因语音相同导致的错字, 表明其正字法知识缺漏 (Zhen & Maeng, 2021) 7)。

单从形近字的偏误研究入手, 并不能更深刻地了解韩语母语者对汉字加工的认知机制, 理解韩语母语者学习汉字时所具有的独特的“字感”优势, 从而对教学起到根本指导作用。在认知实验中, 利用眼动追踪技术可以考察受试者进行汉字信息加工时思维的紧张程度, 以及如何随着汉字形音义的难易程度发生变化 (张积家, 2022) 8)。利用眼动技术可以从汉字认读的角度建构简易的汉语能力鉴别指标 (伍秋萍等, 2017) 9); 探求不同汉语水平的汉语学习者阅读注音文本时对汉字、拼音和整句的认知加工等 (徐晶晶、江新, 2021) 10)。所以, 眼动追踪技术可以量化受试的注意力, 反映潜在的认知和处理过程, 对受试行为进行更加深入的认知原因探析。

心理语言学领域对汉语学习者学习汉字时形体要素笔画、部件与整字的加工关系, 有“整体加工”、“部分加工”、“整体-部分加工并行”三种假设: 整体加工假设, 也叫整字加工, 认为学习者先感知汉字整体, 再由此知觉汉字的部件笔画等组成部分 (郭德俊等, 1991; 王惠萍等, 2003; 徐彩华, 2022) 11);

-
- 6) 彭滔, 「初级阶段韩国学生汉字习得偏误分析及教学对策」, 湖南师范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2015.
- 7) Zhen, WU & Maeng, Joo-Oeck. “Analysis of Difficulties in Chinese Character Learning for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Learners[J]”. Chinese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 2021, pp.167.
- 8) 张积家, 『义符认知功能的心理语言学探索』, 北京: 光明日报出版社, 2022.
- 9) 伍秋萍·洪炜·邓淑兰, 「汉字认读在汉语二语者入学分班测试中的应用——建构简易汉语能力鉴别指标的实证研究」第1期, 『世界汉语教学』, 2017, pp.395-411.
- 10) 徐晶晶·江新, 「不同汉语水平的二语学习者注音文本阅读的眼动研究」第4期, 『世界汉语教学』, 2021, pp.548-561.
- 11) 郭德俊·彭聃龄·张素兰, 『汉字字形特征及单词使用频率对汉字识别的影响』, 成都: 四川科学技术出版社, 1991.

部分加工假设,也叫分析性加工,是指学习者先逐一加工汉字内部的笔画、部件、部件的组合关系,再知觉汉字的整体(Taft, Zhu & Peng, 1999; 彭聃龄、王春茂, 1997; 杨剑峰、舒华, 2008)¹²⁾;整体-部分加工并行假设,该假设认为整字加工和局部加工并行,共享着有限的注意资源,且在汉字识别的早期识别亚词汇部件,即笔画部件等信息先于整字被激活并起重要作用,部分研究发现汉语学习者加工高频词存在笔画数效应,即采用部分加工方式,不过随着语言水平的提高,学习者对部分加工的依赖程度降低,整体加工水平提高(喻柏林, 1998; 张积家, 2007; Jiang et al., 2020; Jiang & Feng, 2022; 周颖、蒋楠, 2023)¹³⁾。由此可见,汉字视知觉中的整体优势加工情况并不稳定,其原因有实验方法的差异,也与“整体-部分”构形关系的界定不同有关(胡发稳等, 2023)¹⁴⁾。

王惠萍·张积家·张厚粲,「汉字整体和笔画频率对笔画认知的影响」第1期,『心理学报』, 2003, pp.17-22.

徐彩华·刘婷·刘燕君,「汉语二语学习者汉字识别中的整体/成分加工倾向研究」,『语言文字应用』第1期, 2022, pp.56-69.

- 12) Taft, M., Zhu, X., & Peng, D. "Positional specificity of radicals in Chinese character recognition[J]".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 1999, pp.498-519.

彭聃龄·王春茂,「汉字加工的基本单元:来自笔画数效应和部件数效应的证据」,『心理学报』第1期, 1997, pp.8-16.

杨剑峰·舒华,「汉字阅读的联结主义模型」,『心理学报』第5期, 2008, pp.516-522.

- 13) 喻柏林,「汉字字形知觉的整合性对部件认知的影响」第4期,『心理科学』, 1998, p.306-309.

张积家,「整体与部分的意义关系对汉字知觉的影响」第5期,『心理科学』, 2007, pp.1095-1098.

Jiang, N., & Feng, L. "Analytic visual word recognition among Chinese L2 learners[J]". *Foreign Language Annals* 2, 2022, pp.540-558.

Jiang, Nan, Hou, Fengyun & Jiang, Xin. "Analytic Versus Holistic Recognition of Chinese Words Among L2 Learners[J]". *The Modern Language Journal* 3, 2020, pp.1-11.

周颖·蒋楠,「汉语二语学习者双字词加工方式研究」,『世界汉语教学』第1期, 2023, pp.111-126.

- 14) 胡发稳·李应兵·李丽菊,「大学生中文独体字知觉加工效应」,『心理发展与教育』第5期, 2023, pp.617-624.

学界对于汉字的认知加工大多采用行为实验, 分析正确率和反应时, 较少采用眼动指标, 未见专门针对形近字的认知加工的研究文献, 缺少对汉字文化圈的母语者汉字认知加工的相关研究。因此, 本研究首先对《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中所有形近字进行系统梳理, 选择独体形近字, 采用眼动技术, 通过形近字构成的词汇判断任务, 探究韩语母语者在形近字习得过程中对笔画各要素的认知过程和加工机制, 并针对性地提出一些教学建议。

3) 研究问题

本研究以汉字构形和汉字认知为理论基础, 选取汉语母语者和韩语母语者为受试, 探究他们对独体形近字的认知加工情况。我们提出以下研究问题: (1)韩语母语者与汉语母语者相比, 对于以笔画数量、笔画形体、笔画组合关系和笔画位置相区分的四类独体形近字的加工机制是否存在差异? (2)韩语母语者对独体形近字的加工是“整体加工”、“部分加工”还是“整体-部分加工并行”? (3)韩语母语者对于汉字的习得是否有心理优势? 对于这四类独体形近字的习得是否存在难易梯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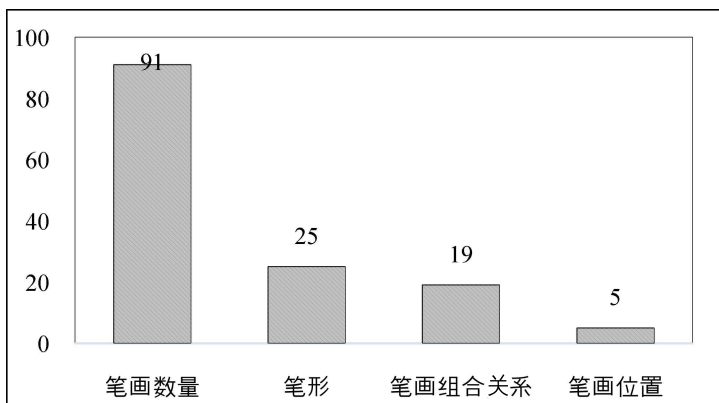
2. 研究方法

1) 语料来源及分析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作为国家语委语言文字规范自2021年7月1日起正式实施, 不仅是为汉语水平考试的学习、教学、评阅等而服务, 更是立足于国际中文教育, 面向全体汉语学习者和教学者的一部语言规范性的等级标准。该等级标准确定了音节、汉字、词汇、语法的四维语言量化指标体系, 首创性地将汉字分为识认汉字表和手写汉字表(郎尊, 2023)¹⁵⁾。其中识认汉字表分为三等九级, 初等包括一级到三级, 中等包括四级到六级, 高

15) 郎尊,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词汇表收录变化分析——以初等词汇为例」, 『汉字文化』第3期, 2023, pp.167-171.

等包括七级到九级。一级到六级分别有300个汉字，七到九级总计有1200个汉字，合计3000字。手写汉字表是对识认汉字表的再提取，只划分了等次，初等包括300个常用汉字，中等包括400个次常用汉字，高等包括500个次常用汉字，合计1200手写汉字。从《等级标准》所收的3000个汉字中经过人工筛选，得出了527组形近字，其中共有387组合体形近字，140组独体形近字。独体形近字中以笔画数量相区分的形近字有91组，占65.0%；以笔形相区分的形近字有25组，占17.8%；以笔画的组合关系相区分的形近字有19组，占13.6%；以笔画位置相区分的独体形近字有5组，占3.6%。



〈图1〉独体形近字数量分布

如上图所示，在独体形近字中，由于笔画数量不同导致的独体形近字所占比重最高，因笔画的组合关系和笔画位置造成形近混淆字所占比重相当，因笔画位置不同造成形近字所占比重最低。

(1) 笔画数量

笔画是指书写汉字时从落笔到提笔留下的痕迹，笔画数量是指构成某个具体汉字的笔画数目。在《等级标准》中，笔画数量的不同造成的独体形近字共有91组。例如：鸟—乌；尤—龙；十—干；凡—几；广—厂；目—日等。“龙”比

“尢”多了一撇，“乌”比“乌”多了一点，“干”比“十”多了一横。这些形近字的笔画形状、笔画位置和笔画组合相同或相似，只是因为增加或减少了一笔或两三笔就变成另外一个字。

(2) 笔画形体

笔形是指笔画写成后的样式，即笔画的形状。《等级标准》中有25组笔画形体不同造成的形近字，可分为两小类：①笔画数量相同的有22组，例如：于-干：“于”的第三笔是竖钩，“干”的第三笔是竖。犬-尢：“犬”的第三笔是捺；“尢”的第三笔是竖弯钩。②笔画数量不同的有3组，例如：乎-手：“乎”的笔画有五笔，第二笔和第三笔是点，“手”的笔画有四笔，第二笔是横。

(3) 笔画组合关系

笔画的组合关系主要是指笔画之间的空间关系，主要分为三种：相交关系、相接关系和相离关系。现代汉字中大多数字存在多种笔画组合关系，如“勺”由3画组成，存在相接和相离两种关系。形近字的笔画组合区别只包含一种关系。《等级标准》中共有19组笔画组合关系造成的形近字。如：井-开：相接关系/相交关系；入-八：相接关系/相离关系；儿-几：相离关系/相交关系。

(4) 笔画位置

有些汉字的笔画数量、笔画形体和笔画的组合关系都相同，只是由于个别笔画位置不同，形成了不同的字。《等级标准》中有5组笔画位置形成的形近字。例如：玉-主；犬-太；办-为；兵-兵；土-士。如“犬-太”这组形近字的笔画数量和笔画形体均相同，区别只在于笔画“丶”的位置不同。这类形近独体字的结构轮廓相同，仅有一个笔画的相对位置发生了变化，需要仔细辨认。

2) 实验方法

我们采用眼动追踪技术, 通过双音节词判断任务考察汉语母语者和韩语母语者能否在双音节词识别中有效区分不同笔画类型下的独体形近字, 重点探讨他们识别独体形近字的认知模式。

(1) 实验设计

采用4(笔画类型: 笔画数量、笔形、笔画组合关系、笔画位置) × 2(双音节词: 正确词, 干扰词) × 2组别(汉语母语者, 韩语母语者)的三因素设计。其中组别为组间因素, 笔画类型和双音节词属于组内因素。

(2) 受试情况

汉语母语者受试共25人, 均为在校研究生, 年龄23-26岁($M = 24.38$), 视力或矫正视力正常。选取HSK4-6级的韩语母语者(中高级汉语水平)25人, 由于正确率低于50%而舍弃的受试有2人, 最终收集到23份有效数据(男12人, 女11人)($M = 23.13$)。受试自愿参加实验并签署实验知情同意书, 实验期间精神状态良好, 实验结束后获得一定报酬。

(3) 实验材料

首先, 从笔画数量、笔画形体、笔画位置和笔画组合关系这4类独体形近字中各选3组, 共计12组、24个汉字, 平均笔画数为4.58画, 且都为《等级标准》中的低等级字, 最高等级不超过4级, 另选择24个初等汉字用于组配词语。正式实验前, 选取HSK3级汉语水平的汉语学习者进行识字测试, 所有例字均正确识别。之后, 将24个初等汉字分别与这24个独体形近字组成双音节词, 每个独体形近字构成两个词语, 其中一个双音节词是正确词, 另一个是词义错误的干扰词。比如选择初等汉字“中”与笔画数量类型的形近字“午-干”分别组成正确词“中午”和干扰词“中干”(词义明显错误), 初等汉字“活”构成干扰词“午活”(词义明显错误)和正确词“干活”。由此, 一组形近字形成4个双

音节词, 共48个双音节词, 构成24个正确词和24个干扰词。双音节词部分语料见〈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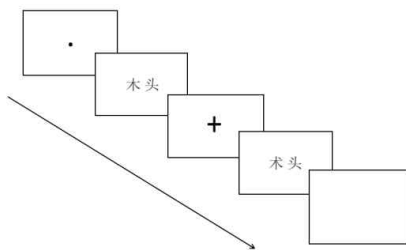
〈表1〉双音节词语料

序号	笔画数量		笔画形体		笔画位置		笔画组合关系	
	正确词	干扰词	正确词	干扰词	正确词	干扰词	正确词	干扰词
1	木头	术头	消失	消先	主要	玉要	自由	自田
2	手术	手木	先后	失后	青玉	青主	田地	由地

(4) 实验流程

使用SR-research公司生产的Eyelink1000型眼动仪对受试右眼的眼动数据进行记录, 单眼的采样率为1000Hz, 受试注视的电脑屏幕分辨率为1024×768。刷新率为100Hz。实验材料使用的汉字均采用宋体白底黑字, 汉字大小为100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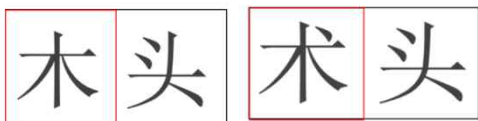
实验对受试进行个别施测。首先调试设备, 保证受试的水平视线能聚在屏幕中心。受试距离电脑屏幕大约60cm。采用九点校准法以保证眼动轨迹记录的精确性。所有受试均双眼阅读, 但实验只记录受试单眼(右眼)的数据。眼校准成功后开始实验。电脑屏幕上呈现指导语, 主试作实验内容和程序的简要说明。之后, 屏幕中央出现漂移校准点, 漂移校准成功后, 屏幕中央呈现正式的实验材料, 眼动仪开始记录数据。受试要在2000ms内按键判断该词是否正确。如果正确, 按“F”键; 反之, 按“J”键。按键之后进入下一个试次。如果受试未能在2000ms之内作出反应, 刺激自动消失, 进入下一试次。48个刺激随机呈现(实验流程如图〈2〉所示)。在正式实验前, 有4个练习试次, 保证受试熟悉实验流程。眼动仪记录所有过程。



〈图2〉实验流程图

(5) 数据处理

眼动仪自动记录行为数据和眼动数据。其中，行为数据包括反应时、正确率，眼动数据包括首次注视时间、总注视次数和总注视时间。选取独体形近字作为兴趣区（如图〈3〉所示）。删除错误反应的试次，其余数据均采用 spss26.0 进行重复测量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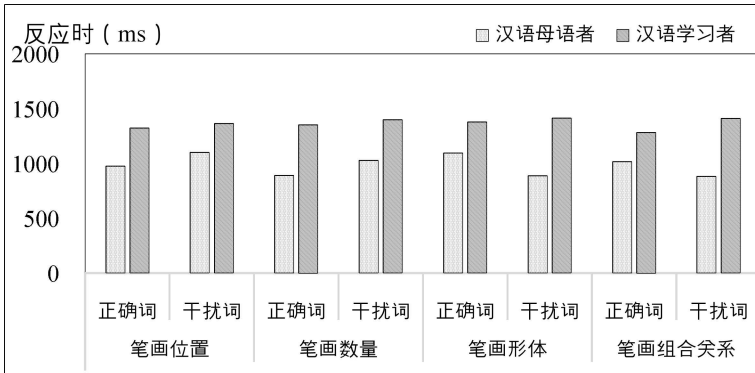


〈图3〉实验兴趣区

3. 实验结果

1) 反应时

韩语母语者识别四种笔画类型下的双音节词的反应时均明显长于汉语母语者。汉语母语者识别笔画位置和笔画数量类型的正确词短于干扰词，而笔画形体和笔画组合关系类型则相反；韩语母语者识别四种类型正确词的反应时均短于干扰词，其中识别笔画组合关系类型的反应时差异较为明显，其他类别差异甚微。详见〈图4〉。



〈图4〉加工四种笔画类型的双音节词的反应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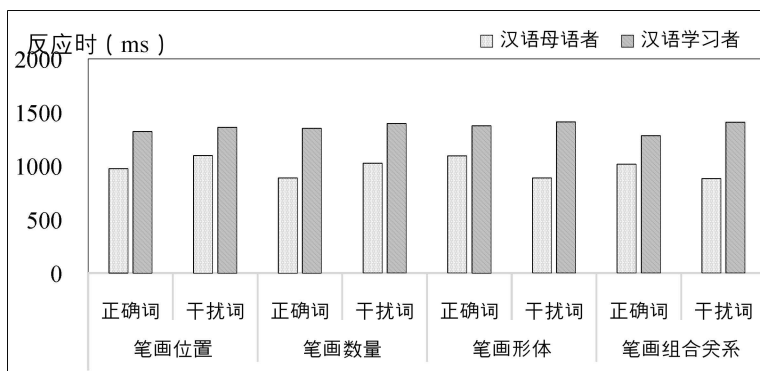
方差分析显示：组别的主效应极其显著，汉语母语者的反应时显著短于韩语母语者 ($F(1,30) = 39.623, p < 0.001, \eta^2 = 0.569$)；笔画类型的主效应不显著 ($F(1,30) = 0.539, p = 0.469, \eta^2 = 0.018$)；双音节词的主效应不显著，正确词和干扰词的反应时不存在显著差异 ($F(1,30) = 0.847, p = 0.365, \eta^2 = 0.027$)。组别*笔画类型的交互效应不显著 ($F(1,30) = 0.065, p = 0.126, \eta^2 = 0.061$)；组别*双音节词的交互效应边缘显著 ($F(1,30) = 3.298, p = 0.079, \eta^2 = 0.099$)；组别*双音节词*笔画类型的交互效应显著 ($F(3,90) = 5.753, p = 0.001, \eta^2 = 0.161$)。

进一步进行简单效应分析发现：

汉语母语者组内结果：(1)识别笔画形体类型正确词的反应时显著长于笔画数量类型的正确词 ($p = 0.004$)，其他笔画类型两两之间不存在显著差异 ($p_s > 0.05$)。(2)对笔画位置类型的干扰词的反应时显著长于笔形类型的和笔画组合关系类型的干扰词 ($p = 0.015$ ； $p = 0.001$)。韩语母语者组内结果：(1)在识别正确词和干扰词时，受试对四种笔画类型的反应时之间均不存在显著差异 ($p_s > 0.05$)。(2)在笔画组合关系类型中，干扰词的反应时显著长于正确词 ($p = 0.055$)。组间比较结果：在四种类型的形近字中，韩语母语者识别正确词和干扰词的反应时均显著长于汉语母语者 ($p_s < 0.001$)。

2) 正确率

韩语母语者识别四种笔画类型正确词的数量和顺序与汉语母语者趋同,按从高到低排序均为:笔画数量、笔画组合关系、笔画形体、笔画位置;韩语母语者识别干扰词的正确率均低于汉语母语者,但类别顺序上趋同:笔画组合关系、笔画形体、笔画数量、笔画位置。汉语母语者和韩语母语者对正确词和干扰词的加工存在一致性。详见〈图5〉。



〈图5〉加工四种笔画类型双音节词的正确率

方差分析结果显示:组别的主效应显著,韩语母语者正确率低于汉语母语者 ($F(1,30)=5433.346, p<0.001, \eta^2=0.995$)。笔画类型的主效应显著,四种笔画类型之间的正确率存在显著差异 ($F(1,30)=7.978, p<0.001, \eta^2=0.21$)。双音节词的主效应显著,干扰词的正确率显著低于正确词 ($F(1,30)=18.856, p<0.001, \eta^2=0.386$)。组别*双音节词的交互作用显著 ($F(1,30)=14.163, p=0.001, \eta^2=0.321$);组别*笔画类型的交互作用边缘显著 ($F(3,90)=2.508, p=0.064, \eta^2=0.077$);组别*笔画类型*双音节词的交互效应不显著 ($F(3,90)=0.488, p=0.691, \eta^2=0.016$)。

进一步简单效应分析发现:

汉语母语者组内结果:(1)在正确词中,笔画数量类型的正确率显著高于

笔形类型 ($p=0.037$)，其他笔画类型则不存在显著差异 ($p>0.05$)。(2)在干扰词中，四种笔画类型之间的正确率均不存在显著差异 ($p>0.05$)。韩语母语者组内结果：(1)在正确词中，笔画数量和笔画组合关系两种类型的正确率显著高于笔画位置类型 ($p=0.019$, $p=0.027$)。(2)在干扰词中，笔画数量类型、笔形类型、笔画组合关系类型下的正确率均显著高于笔画位置类型 ($p=0.007$, $p=0.011$, $p<0.001$)。组间比较结果：(1)在正确词中，汉语母语者识别笔画位置类型的正确率显著高于韩语母语者 ($p=0.059$)，其他笔画类型下的正确率均不存在显著差异 ($p>0.05$)。(2)在干扰词中，汉语母语者在笔画位置、笔形和笔画组合关系三种类型下的正确率均显著高于韩语母语者 ($p<0.001$, $p=0.007$, $p=0.015$)，笔画数量类型下的正确率不存在显著差异 ($p>0.05$)。

3) 注视时间和次数

眼动数据考察了首次注视时间、总注视时间和总注视次数。首次注视时间是指受试第一次注视某字的时间，它反映了受试对字的敏感性与早期加工情况。首次注视时间越短，表明该汉字笔画类型越能引起受试者的兴趣。总注视时间是指受试对某个字所有注视时间的总和，包括凝视时间与回视后停留在该字上的持续时间，是一个反映对该字加工注视时间的晚期指标。总注视次数是指落在兴趣区内注视点的个数。它在一定程度上也反映了对兴趣区的重复加工程度(赵燕,2012)¹⁶⁾。总注视次数越多，表明受试对该笔画类型的汉字加工过程较为困难，该类型的汉字对于受试者是习得难点。

其中，总注视时间的方差分析结果显示，母语类别以及笔画类别均不存在显著差异。说明韩语母语者对于独体形近字的加工在后期阶段已接近汉语母语者的加工水平。

16) 赵燕，「中亚留学生汉字识别的眼动研究」，新疆师范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2012。

(1) 首次注视时间

方差分析结果显示：组别主效应不显著 ($F(1,30)=3.325, p=0.078, \eta^2=0.1$)。笔画类型主效应极其显著 ($F(1,30)=15.454, p<0.001, \eta^2=0.34$)。双音节词主效应极其显著 ($F(1,30)=49.737, p<0.001, \eta^2=0.624$)。组别*笔画类型交互效应显著 ($F(1,30)=1.661, p=0.207, \eta^2=0.052$)。组别*双音节词交互作用不显著 ($F(3,90)=2.242, p=0.07, \eta^2=0.089$)。组别*双音节词*笔画类型的交互效应不显著 ($F(3,90)=2.242, p=0.07, \eta^2=0.089$)。

进一步简单效应分析发现：汉语母语者组内结果：四种笔画类型下的双音节词的首次注视时间均不存在显著差异 ($p_s > 0.05$)。韩语母语者组内结果：笔画位置类型下的双音节词的首次注视时间均显著短于其他三种类型 ($p_s < 0.001$)，其他三种类型下的双音节词的首次注视时间两两之间均不存在显著差异 ($p_s > 0.05$)。汉语母语者和韩语母语者组间比较结果：在识别以笔画位置和笔画组合关系相区分的双音节词时，汉语母语者和韩语母语者的首次注视时间不存在显著差异 ($p_s > 0.05$)；在识别笔画数量和笔形相区分的双音节词时，汉语母语者的首次注视时间显著短于韩语母语者 ($p=0.009, p=0.012$)。

(2) 总注视次数

方差分析结果显示：组别的主效应极其显著，韩语母语者的注视点次数显著多于汉语母语者 ($F(1,29)=17.69, p<0.001, \eta^2=0.379$)；笔画类型主效应不显著，四种不同笔画类型的注视点次数均不存在显著差异 ($F(3,87)=1.133, p=0.333, \eta^2=0.038$)；双音节词主效应不显著 ($F(1,29)=0.599, p=0.445, \eta^2=0.02$)。组别*笔画类型的交互作用显著 ($F(3,87)=2.99, p=0.035, \eta^2=0.093$)；条件*笔画类型刺激的交互作用显著 ($F(3,87)=3.493, p=0.019, \eta^2=0.108$)；组别*笔画类型*双音节词的交互作用显著 ($F(3,87)=3.67, p=0.015, \eta^2=0.112$)。

进一步简单效应分析表明：汉语母语者对正确词的四种笔画类型的注视

点次数均不存在显著差异 ($p_s > 0.05$)。在笔画位置和笔形两种类型下, 汉语母语者对干扰词的注视点次数显著多于正确词 ($p = .042, p = .001$)。韩语母语者对干扰词的注视点次数均显著多于正确词 ($p_s < 0.05$)。在正确词和干扰词中, 对笔画位置和笔画形体的注视点次数显著多于笔画组合关系和笔画数量类型。汉语母语者和韩语母语者组间比较结果: 在笔画位置、笔画数量类型、笔画组合关系类型中, 韩语母语者对正确词和干扰词的注视点次数均显著多于汉语母语者 ($p_s < 0.05$)。在笔形类型中, 汉语母语者和韩语母语者的注视点次数不存在显著差异 ($p_s > 0.05$)。

4. 讨论

1) 韩语母语者对独体形近字的加工以部分加工为主

对汉语学习者汉字加工机制的研究, 可以更深入的了解汉语学习者对于汉字形音义的认知方式, 从而为汉语教学提供心理学的实证。学界认为汉字加工既可以由整体到部分, 又可以由部分到整体, 并且整体与部分之间的关系是影响汉字加工机制的重要变量(管益杰等, 2006) 17)。

我们的实验任务是独体形近字的认知加工, 主要考察形近字的字形分辨。研究发现: 首先, 汉语母语者在识别干扰词的反应时均长于正确词, 韩语母语者识别的正确率虽然低于汉语母语者, 但他们对这些独体形近字的认知加工顺序却与汉语母语者一致, 正确率都为“笔画组合关系 > 笔画形体 > 笔画数量 > 笔画位置”, 说明他们在识别独体形近字时均对笔画和笔画组合关系等局部特征进行了精细化加工, 可以辨识独体形近字中存在的细微笔画差异。其次, 在首次注视时间上, 笔画类型的主效应极其显著, 双音节词的主效应极其显著, 组别*笔画类型的交互效应显著, 说明识别以四种笔画类型相区分的形近字时, 汉语母语者和韩语母语者重点关注汉字笔画的局部特征。再次, 在

17) 管益杰·李燕芳·宋艳, 「汉字字形加工的关键特征模型」, 『山东师范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第2期, 2006, pp. 126-129.

四种笔画类型中,韩语母语者对干扰词的注视点次数均显著多于正确词,说明韩语母语者在独体形近字识别过程中受到错误的局部特征的阻挠,从而在加工局部特征时,注视次数变多以排除错误干扰从而做出正确选择。可见,韩语母语者加工独体形近字时,与汉语母语者呈现一致的加工机制,对笔画组合关系、形体、数量和位置等进行深度加工,其加工方式主要为部分加工,符合部分加工假设。该结果与Jiang et al. (2020)¹⁸⁾对汉语学习者的研究结果一致, Jiang等人在研究中指出处理策略与视觉输入的暴露量有关,汉语学习者对汉字的接触有限,更多地使用部分加工作为首选或默认策略。同时,部分与整体加工可能会受到实验任务的影响:受试进行合体字的音义关系分辨任务时,更多先感知汉字整体,再由此知觉汉字的部件笔画等组成部分的特征,整体的加工速度比局部更快;但进行字形分辨相关任务时,受试采取部分优先加工方式,先关注汉字的笔画部件等局部特征,部分加工速度更快。本研究主要聚焦于独体形近字的形体分辨,因此汉语母语者也倾向于形体的精细化加工。

2) 韩语母语者对汉字认知加工有“字感”优势

韩语母语者在汉字的总注视时间上与汉语母语者趋同,在识别以笔画位置和笔画组合关系相区分的双音节词时,韩语母语者的首次注视时间与汉语母语者不存在显著差异,而且韩语母语者对干扰词的注视点次数均显著多于正确词,说明韩语母语者对于形近字的加工不仅停留在形体上,对其语义理解也有认知加工。这说明韩语母语者虽然母语文字是拼音文字,但是却具有对汉字加工的认知优势,具有一种不同于非汉字文化圈的学习者的“字感”。这种“字感”是指学生对汉字方块特点的认识,是无意识中获得的对汉字隐含规律的深刻直觉(白剑波、刘艳妮, 2006)¹⁹⁾。是对汉字直觉的感知把握能力,

18) Jiang, Nan, Hou, Fengyun & Jiang, Xin. "Analytic Versus Holistic Recognition of Chinese Words Among L2 Learners[J]". *The Modern Language Journal* 3, 2020, pp.1-11.

19) 白剑波·刘艳妮,「试论非汉字文化圈学生的字感培养与获得」,『现代语文』第5

是一个由外及内不断渗透的动态直觉感知能力系统。“外”指对字形、结构的区别辨认；“内”指学习者能自觉地将某字的字形与其内在理据性联系起来的一种汉字学习、理解能力(刘姝, 2013) 20)。

韩语母语者对字形、结构的区别辨认具有汉语母语者的心理优势。一方面与韩国使用汉字的悠久历史有关, 直到现在, 韩国图书馆中用韩文撰写的历史书籍不超过5%, 其余都是用汉字撰写的(河永三, 2011) 21)。韩国人对于传统文化的继承, 需要依赖于汉字这个书面载体。另一方面, 也与汉字在韩国的推行政策有关。韩国国内有针对汉字的能力测试——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即“全国汉字能力检定测验”, 题型涵盖了音形义、简繁体、字词联结、翻译等方面, 它同时考查了汉字的认读书写以及理解能力, 获得这个证书有利于升学和就业。将韩国的《汉字能力检定考试大纲》(共收录5978个汉字)与中国的《国际中文教育中文等级标准·汉字部分》(共收录3000个汉字)相比, 共现汉字有1476个, 占《汉检大纲》的42%, 占《标准·汉字部分》的49%(罗慧兰, 2020) 22)。虽然韩国的汉字在形音义上与中国的现行汉字有很大区别, 掌握“汉检”用字就能掌握接近一半的国际汉语教学用字。《汉检大纲》收录的汉字总数多, 字形差异主要是繁简体, 所以韩国母语者不同于其他拼音文字的汉语学习者, 他们了解母语文化的需求, 生活中有大量接触汉字的机会, 对汉字的方块形体有认知度, 在对四种类型的独体形近字识别的正确率上与汉语母语者呈现一致性, 在总注视时间上也没有显著差异, 因此, 他们拥有与汉语母语者相似的汉字认知加工机制, 具备“字感”优势。

期, 2006, pp.104-105.

- 20) 刘姝, 「初级阶段非汉字文化圈学生“字感”的培养及汉字教学」, 『长江学术』第1期, 2013, pp.137-141.
- 21) 河永三, 「韩国汉字教育历史回顾和现状分析」, 『中国文字研究』第1期, 2011, pp. 208-212.
- 22) 罗慧兰, 「韩国《汉字能力检定考试大纲》与《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汉字部分》对比研究」, 广东外语外贸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2020.

3) 韩语母语者对于笔画类型习得的难易程度有别

韩语母语者对于各类形近汉字的辨认正确率为：笔画数量、笔画组合关系、笔画形体、笔画位置。对于笔画位置类型下的双音节词的首次注视时间均显著短于其他三种类型，说明韩语母语者对于笔画位置类型的汉字比较敏感，在正确词和干扰词中，对笔画位置和笔画形体的注视点次数显著多于笔画组合关系和笔画数量类型。因此，我们可以推测出，韩语母语者对于独体形近字的习得难度等级大致可以分为两级，笔画位置和笔画形体较难习得，笔画组合关系和笔画数量相对容易习得。笔画数量类型的形近字组，如“鸟—乌；尤—龙”等，笔画的增加或减少，视觉上容易辨认出不同的字，所以正确率较高。而笔画组合关系类型的形近字组，如“由—田；目—且”，“丨、一”的长短与其他笔画的组合关系也较为明显，区分度较高。而笔画位置类型的形近字组，如“主—玉；士—土”，以及笔画形体类型的形近字组，如“干—千；见—贝”等，会造成习得的困难。这与汉字本身的结构特点、现行汉字与韩国汉字的异同、汉字和韩文的书写规则异同有关。

汉字笔画变形较多。汉字的基本笔画形体虽然只有五种或八种，但是变形却多达几十种。例如，折笔的变形有36种，从起笔到落笔，运笔方向左右上下连成一笔，折笔的长度和运笔的力度都会影响到笔画的不同，如“凸、凹”。所以笔画形体变化造成的形近字数量居多，对汉语学习者容易造成识别干扰。

现代汉字与韩国汉字的异同。《汉检大纲》与《标准·汉字部分》共有1476个共现汉字，字形完全相同占比54%，字形不相同的占比46%。《汉检大纲》收录的汉字很多都是古籍文献用字，保留了简化之前的汉字形体，包括繁体字、异体字、一字多形的旧字。其中字形差异的简繁体占比72.5%，新旧字差异占比19.1%，异体字占比8.4%（罗慧兰，2020）²³。《标准·汉字部分》是面向国际中文教育使用的现代规范汉字，是经过文字变革整理后的标准化

23) 罗慧兰，「韩国《汉字能力检定考试大纲》与《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汉字部分》对比研究」，广东外语外贸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2020。

用字。《汉检大纲》与《标准·汉字部分》中因新旧字形导致的字形差异微小，例如：空-空、步-步、半-半等。韩语母语者对笔形变化导致的形近字组“于”和“干”区分困难，是因为在韩国汉字中保留着竖钩的旧字形，如“步、秒、抄、尖”中“丿”与“丨”笔形的混淆。有学者分析统计了150万韩国留学生语料，发现繁体字的偏误只有48例，而书写失范字最多，达到了6673例，较多为新旧字形的偏误（刘丽媛，2013）²⁴。

汉字和韩文的书写规则相异。现代韩文是一种方块型的拼音文字，韩文笔形共有四种，即“横线、竖线、斜线、圆圈”（안상수, 1992）²⁵。韩文字形和汉字字形相似（안병희）²⁶。例如韩文辅音“ㄱ”，形似汉字笔画“横折”，书写时折的笔画却要向左边倾斜。辅音“ㅇ”是仅有的曲笔，在汉字书写里没有。由于母语文字的书写习惯负迁移的影响，韩语母语者在书写汉字时常常会产生各种各样的偏误，其中笔形偏误最多，常见有钩笔的省略、点笔与短横、短竖混淆、撇、捺、提笔的直线化等（潘先军，2004）²⁷。韩语母语者的汉字书写知识在形变偏误、对比偏误、部件结构偏误方面是随汉语水平的提高而减少，然而笔形偏误和结构松散偏误会延续到高级水平（朴恩实，2011）²⁸。韩语母语者对于笔画位置的形近字组辨别也存在难度，例如“未”和“末”的所有笔画都相同，只有长横和短横的相对位置不同，这种细微差别体现了韩语母语者对笔画的规则掌握较弱。

24) 刘丽媛，「基于韩国留学生汉语中介语语料库的汉字偏误研究及应用」，鲁东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2013。

25) 안상수, 「한글자형의 원형태 연구」, 『제 2 회 한글과 한글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1992, pp.598-610.

26) 안병희, 「한글의 창제와 보급」, 『민족의 글자 한글: 신세기록별전』, 2000, pp.174-183.

27) 潘先军, 「汉字基础在韩国留学生汉语学习中的负迁移」, 『辽宁教育行政学院学报』第3期, 2004, pp.62-64.

28) 朴恩实, 「韩国学生汉字错字成因研究」, 华东师范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2011.

5. 结语

本文首先系统梳理了《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中527组形近字，独体形近字有140组，可分为四类：笔画数量（91组）、笔画形体（25组）、笔画组合关系（19组）、笔画位置（5组）。其次采用眼动实验研究发现，韩语母语者对独体形近字的加工机制与汉语母语者相比有共性和差异。共性为：两类母语者对于独体形近字的辨认正确率具有顺序趋同性，对于独体形近字的加工符合部分加工假设，说明韩语母语者拥有与汉语母语者相似的汉字认知加工机制，具备“字感”优势。差异为：韩语母语者识别四种笔画类型的反应时均长于汉语母语者，对于笔画位置类型正确词识别低于汉语母语者，其他笔画类型下的正确率均不存在显著差异。对于笔画位置类型的首次注视时间均显著短于其他三种类型，对笔画位置和笔画形体的注视点次数显著多于笔画组合关系和笔画数量类型。说明韩语母语者对于独体形近字的习得难度有梯度：笔画位置和笔画形体较难习得，笔画组合关系和笔画数量相对容易习得。

汉字文化圈的学习者对于汉字习得的难点有别，韩国母语者对于汉字字音的激活较弱，但是字形上有先天的认知优势。我们基于以上研究，提出几点教学建议：第一，独体字与笔画教学。汉字字形的三级单位为笔画、部件和整字。其中多数部件由独体字演变而来，所以独体字是汉字的构成基础，数量有限但构字能力极强。独体字是笔画按照一定的书写顺序构成，很多韩语母语者到了中高级阶段依然是“画”汉字而不是“写”汉字，就是因为对笔画的形体、笔画的位置、笔画的组合关系以及笔顺规则不清楚。所以教师对笔画的相关知识要了然于胸，并注重笔画的书写教学。第二，对比类推教学。韩语母语者对汉字有“字感”优势，要充分利用已有的韩国汉字与中国现代汉字之间的对应关系，进行汉字字串教学。例如，教师先对比繁体“門-门”，再类推字串“悶、聞、間”简体字为“闷、闻、间”。先对比新旧字“角-角”，再类推字串“解、懈、斛”简体字为“解、懈、斛”。第三，文化教学。张思童（2022）²⁹对韩国学生最感兴趣的汉字项目调查结果显示，“汉字文化”占比最高，达62%。

汉字作为一种意音文字，不仅有语言交际功能，还有独特的文化功能。这种功能体现在汉字字形中蕴含着丰富的文化信息以及汉字使用过程中造就了多样的文化现象。汉字文化圈的汉语教师要充分利用好这种文化功能的互通性，加强学习对汉字文化的学习，通过字形演变动画、叙述汉字小故事、展示汉字中的对联、字谜、书法、篆刻等文化形式，促使学生对字形字义理据性的理解，更有利于汉字的认读与记忆，激发学习者的兴趣。

◆ 参考文献

1. 资料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由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于2021年发布实行。

2. 单行本

郭德俊·彭聘龄·张素兰，《汉字字形特征及单词使用频率对汉字识别的影响》，成都：四川科学技术出版社，1991。

张积家，《义符认知功能的心理语言学探索》，北京：光明日报出版社，2022。

3. 论文

白剑波·刘艳妮，「试论非汉字文化圈学生的字感培养与获得」，《现代语文》第5期，2006，pp.104-105。

管益杰·李燕芳·宋艳，「汉字字形加工的关键特征模型」，《山东师范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第2期，2006，pp. 126-129。

河永三，「韩国汉字教育历史回顾和现状分析」，《中国文字研究》第1期，2011，pp.208-212。

胡发稳·李应兵·李丽菊，「大学生中文独体字知觉加工效应」，《心理发展与教育》第5期，2023，pp.617-624。

黄新萍，「韩国小学汉字教学研究」，沈阳师范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2014。

金莲姬，「韩国小学汉字教学现状调查与分析」，扬州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201

29) 张思童，「针对韩国不同年龄段汉语学习者的初级汉字教学研究」，兰州交通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2022。

5.

- 郎尊,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词汇表收录变化分析——以初等词汇为例」, 『汉字文化』第3期, 2023, pp.167-171.
- 梁彦民, 「汉字部件区别特征与对外汉字教学」, 『语言教学与研究』第4期, 2004, pp.76-80.
- 刘丽媛, 「基于韩国留学生汉语中介语语料库的汉字偏误研究及应用」, 鲁东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2013.
- 刘姝, 「初级阶段非汉字文化圈学生“字感”的培养及汉字教学」, 『长江学术』第1期, 2013, pp.137-141.
- 罗慧兰, 「韩国《汉字能力检定考试大纲》与《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汉字部分》对比研究」, 广东外语外贸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2020.
- 潘先军, 「汉字基础在韩国留学生汉语学习中的负迁移」, 『辽宁教育学院学报』第3期, 2004, pp.62-64.
- 彭聃龄·王春茂, 「汉字加工的基本单元: 来自笔画数效应和部件数效应的证据」, 『心理学报』第1期, 1997, pp.8-16.
- 彭滔, 「初级阶段韩国学生汉字习得偏误分析及教学对策」, 湖南师范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2015.
- 朴恩实, 「韩国学生汉字错字成因研究」, 华东师范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2011.
- 石定果·万业馨, 「关于对外汉字教学的调查报告」第1期, 『语言教学与研究』, 1998, pp.36-48.
- 王惠萍·张积家·张厚粲, 「汉字整体和笔画频率对笔画认知的影响」第1期, 『心理学报』, 2003, pp.17-22.
- 伍秋萍·洪伟·邓淑兰, 「汉字认读在汉语二语者入学分班测试中的应用——建构简易汉语能力鉴别指标的实证研究」第1期, 『世界汉语教学』, 2017, pp.395-411.
- 徐彩华·刘婷·刘燕君, 「汉语二语学习者汉字识别中的整体/成分加工倾向研究」, 『语言文字应用』第1期, 2023, pp.56-69.
- 徐晶晶·江新, 「不同汉语水平的二语学习者注音文本阅读的眼动研究」第4期, 『世界汉语教学』, 2021, pp.548-561.
- 燕良秀, 「韩国汉语零基础学生的汉字偏误分析及教学策略——以韩国光州金龟初中为例」, 辽宁师范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2013.
- 杨剑峰·舒华, 「汉字阅读的联结主义模型」, 『心理学报』第5期, 2008, pp.516-522.
- 喻柏林, 「汉字字形知觉的整合性对部件认知的影响」第4期, 『心理科学』, 1998, pp.306-309.
- 张积家, 「整体与部分的意义关系对汉字知觉的影响」第5期, 『心理科学』, 2007,

- pp.1095-1098.
- 张思童, 「针对韩国不同年龄段汉语学习者的初级汉字教学研究」, 兰州交通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2022.
- 赵燕, 「中亚留学生汉字识别的眼动研究」, 新疆师范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 2012.
- 周颖·蒋楠, 「汉语二语学习者双字词加工方式研究」. 『世界汉语教学』第1期, 2023, pp.111-126.
- 안병희, 「한글의 창제와 보급」, 『민족의 글자 한글: 신세기록별전』, 2000, pp.174-183.
- 안상수, 「한글자형의 원형태 연구」. 『제 2 회 한글과 한글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1992, pp.598-610.
- Jiang, N., & Feng, L. “Analytic visual word recognition among Chinese L2 learners[J]”. *Foreign Language Annals* 2, 2022, pp.540-558.
- Jiang, Nan, Hou, Fengyun & Jiang, Xin, “Analytic Versus Holistic Recognition of Chinese Words Among L2 Learners[J]”. *The Modern Language Journal* 3, 2020, pp.1-11.
- Taft, M., Zhu, X., & Peng, D. “Positional specificity of radicals in Chinese character recognition[J]”.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 1999, pp.498-519.
- Zhen, WU & Maeng, Joo-Oeck. “Analysis of Difficulties in Chinese Character Learning for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Learners[J]”. *Chinese Language Education and Research*, 2021, pp.167.

논문 접수 일	2023년 10월 20일
심사 완료 일	2023년 11월 28일
게재 확정 일	2023년 12월 08일

Abstract

A Study of “Word Sense” in Native Korean Speakers
-The Case of Unicode Close-Up Characters-

Zhang, Ting · Song, Tingli · Zhou, Yajie

This paper systematically examines 527 sets of morphologically similar characters in the International Chinese Language Education Chinese Language Proficiency Level Standards. Out of which, there were 140 unique sets of close characters that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based on stroke count, stroke form, stroke combination, and stroke position. The eye-tracking experiments revealed that Korean native speakers share the same processing mechanism for the four types of unique Chinese characters as Chinese native speakers. The recognition rate of the four types of unique characters is consistent, and the processing of unique characters aligns with the hypothesis of partial processing. This indicates that Korean native speakers possess similar cognitive processing mechanisms for Chinese characters and enjoy the advantage of “word sense”. Korean native speakers exhibit longer response times in recognizing the four types of strokes, along with lower recognition rates for correctly identifying stroke position corresponding to words. Additionally, the first gaze time for stroke position was shorter compared to the other three types, while the stroke position and stroke form typ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ly higher number of gaze points compared to the stroke combination relationship and stroke number categories. This study indicates that Korean native speakers with intermediate to advanced proficiency in Chinese have not yet achieved the level of native Chinese speakers. Additionally, there is a gradient in the difficulty of acquiring specific features of close characters with stroke position and stroke form being more challenging to acquire compared to stroke combination relationship and stroke quantity. The paper offers a thorough analysis of the underlying reasons and presents several teaching recommendations.

Keyword Native Korean speakers, Solo characters, Close characters with unique shapes, Eye movement technique

韩国语话题构式"NP+같이선"及其汉语表达方式

卢锦仪*

국문요약

이 글은 한중언어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화제 구문인 "NP+같이선"과 "按/照/像+NP"에 대해 다룬다. 기존 연구에서는 "같이선"에 대한 연구가 적었지만 "按/照/像"류 표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성숙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같이선"의 세 가지 용법을 상세히 다루며, 일반적 가정, 비일반적 가정, 유추적 가정을 세분화한 후 화제화 및 화용적 추론 관점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 결과, 이 세 가지 용법은 화제 유형, 가정의 성질, 주관성 및 주관화의 정도성, 텍스트 기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나타내며 내부 구성원 사이에 비대칭성을 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按/照/像+NP"와 비교하여 번역에서 그들은 '일대다(一對多)' 관계를 형성하며 대조 화제, 응집성 및 말차례 가지기(turn-taking) 기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구문 간에는 문법화 발전 경향, 주관성 및 주관화 정도, 형태적 구성 등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어 "같이선"과 직접적이거나 완전히 대응된 중국어 표현이 없다.

주제어 같이선, 按/照/像, 화제 구문, 화제화, 문법화

〈目次〉

1. 问题的提出
2. "NP+같이선"的用法再分类
3. "NP+같이선"的话题演变趋势
4. "NP+같이선"的语用推理分析
5. "NP+같이선"和"按/照/像+NP"的异同
6. 结论

* 上海外国语大学 韩国语系 博士研究生

1. 问题的提出

"갈아선"是《延世大学韩国语教程：第五册》第43课中出现的一个惯用型语法点，教材中指出它用于名词后，表示"假设在先行名词所示的情况下，预测后文的结果"¹⁾。相比教材，《国立国语院标准国语大字典》中给出的解释更到位，它明确地将"갈아선"的用法分为两类²⁾：

[1]'마음', '생각' 따위의 명사 뒤에 쓰여 '지금의 마음이나 형편에 따르자면'의 뜻으로 쓰여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 用于"마음, 생각"等名词后，表"根据现在的想法或情况“想怎么样，但实际上并不如愿。

[2]일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그 시간에 벌어진 일이나 상황 따위가 계속 된다면의 뜻으로 쓰여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 用于"요즘, 오늘"等部分时间名词后，表"某段时间内，某种事情/情况持续发生，但并不希望它持续下去"之义。

虽然新版教材已与时俱进，吸收字典释义，重新解释了用于"갈아선"前的名词类别³⁾，但仍未明确地区分这两种用法。在深入分析教材例句之后，我们还发现，"갈아선"似乎可以进一步细分出第三种用法。因此我们认为，还可再做相关的后续研究。在检索字典用法与例句的同时，我们还发现了"갈아선"与汉语表达的复杂性对译关系。

1) 갈아선 : 명사에 붙어서 쓰이며 선행명사와 같은 경우를 가정하여 후행문의 결과를 예상하는 뜻이다. (用于名词后，表示"假设在先行名词所示的情况下，预测后文的结果".)

(07版《延世韩国语5》：68页)

2) 出自2023年12月6日在线字典〈표준국어대사전〉：“갈다”第三个义项中的第三、四种用法。

3) 如2016版的《延世韩国语5》第198页中，已将"갈아선"解释为：“마음, '생각', '기분', '욕심' 등의 명사나 일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요즘', '지금', '오늘' 등에 붙어서 쓰이며 '지금의 마음이나 형편에 따르자면'의 뜻으로 쓰인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新版教材将两种用法合二为一，实际上两种用法是有区别的。

〈表1〉"갈아선"对应的汉语表达

原句	译句	《NAVER韩中字典》中的具体出处	对应汉语表达
마음 갈아서는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按照我的意愿,本来是想跳舞的。	Eduworld标准韩韩中词典	按·想(法)
내 생각 갈아서는 결코 이렇게 안 한다	依着我的意思,决不这么办		依·想(法)
아침 갈아서는 비가 곧 올 것 같더니 날이 또 맑게 개었다.	照早晨的架势,马上就要下雨似的,可这会几天又晴了。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韩中词典	照·(情况)
요즘 갈아서는 세기 밥 먹기가 힘들다.	现如今一日吃三餐都很难。	韩国外国语大学韩语学习词典	现如今/就·而言
마음 갈아서는 며칠 쉰 쉬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돼야 말이지.	本想好好休息几天,但情况不允许呀。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韩中词典	原以为/本以为/本想
생각 갈아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막상 달라붙어 보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原以为是根本不可能的事情,可是实际着手做起来并不是那么难。		
마음 갈아서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다.	恨不得跑到她身边。	Eduworld标准韩韩中词典	恨不得

通过上述译文可知,“갈아선”与其对应的汉语表达形成了“一对多”的关系。这种不完全对应的原因需要进一步探讨。一种语言的语法特征除了可以在个体语言学内部进行研究之外,还可以通过对比语言学或语言类型学的方法来进一步揭示⁴⁾。通过与汉语相关用法的对比,或许能更好地定位“갈아선”的本质特征。因此,本文通过分析“갈아선”的语料频率⁵⁾、语法意义、形态构

-
- 4) 如近来学界推出的“语义镜像法”,就是通过对译语料的比对,提取两种语言在不同方面的异同。但由于“갈아선”相关的对译语料较少,本文仅使用《NAVER韩中字典》、《延世大教材5:活用练习》中的例句译文、部分韩剧剧本的中文台词和本人所做的中文母语译文,做为对译语料对象,谨慎地从中提取相关的语法规律。
- 5) 本研究所用的韩国语语料分为三部分:一为20世纪延世语料库,用于整体统计,二为韩剧台词剧本,三为韩国语教材及《NAVER韩中字典》相关例句与译文;本研究所用的汉语语料也分为三部分:一为北京大学语料库(BCC),二为上述韩剧台词剧本中的

件、语义表达、语用推理等特点, 尝试解决四个问题: 一、“같아선”的用法是否可以再分? 二、“같아선”是否可以再进行另一角度的定位? 三、“같아선”的上述相关意义应该如何理解? 四、“같아선”用法的生成机制如何从理论角度做出解释? 并通过将其与汉语中的“按”、“照”、“像”类表达进行对比, 尝试揭示“같아선”与汉语表达不完全对应的原因。

2. “같아선”的用法再分类

根据前项名词的不同类别, 字典将“같아선”的用法分为两种。本章中, 我们首先讨论语料库的检索情况, 然后再对其用法进行系统性分析。

在延世20世纪韩国语语料库中, 可以检索到与“같아선”相关的969条语料, 其表现形式可以分为原型“같아서는 (792条) ”、缩略型“같아선 (177条) ”和变型“같아서야 (40条) ”。969条语料多为小说形式的书面语, 部分为杂志采访中对话形式的口语。我们对“같아선”搭配的前项名词进行了统计, 统计结果如下:

〈表2〉“같아선”前项NP词频统计

类别	前项NP	词频	合计 (969条)
“想法”类NP	마음/생각	611次	734次 占比75.75 %
	감각/추측/의견/소견 /욕심/태도/속내/기 분/감정/심정/성질	123次	
“时间”类NP	지금/요즘/요새/오늘 /옛날/어제/어제밤	176次	176次 占比18.16 %
其它	우리들/너/보통 사람/한국	59次	59次 占比6.09%

最后, 我们还检索了“같아선”近义句式“같으면”。“같으면”相关语料共

中文译文, 当然这些译文并不一定完全到位, 文中作了一定说明解释, 三为相关论文中的例句, 出处都做了标注。

4619条。值得注意的是,还能检索出其变式"-같으면은"10条。

通过数据我们可知:一、相较于同表“假设”的句式“같으면”,“같아선”的使用频率较低。这可能是“같아선”的构件形态更多、用法相对复杂导致的,语用功能也使其在特定语境中受到了限制;

二、原型“같아서는”、缩略型“같아선”和变型“같아서야”三种形式使用不均衡。原型较多,缩略型相对较少,变型最少。“는”和“야”语料的显著差异来源于两个补助词的使用频率差异,“는”暂时可以称为典型的话题标记,使用范围广泛,而“야”则是用于表示“当然”主观义的补助词,使用范围相对较窄⁶⁾。原型“같아서는”和缩略型“같아선”共存,说明两种形态都在使用之中,两者并未完全固化为一个形态。

三、前项名词出现频率最高的是“마음/생각”。“같아선”前还出现了一些与“마음/생각”有关的名词:“짐작/추측/의견/소견/욕심/태도(猜测/推测/意见/看法/欲望/态度)”等。考虑到这些名词与“같아선”搭配时,用法与“마음/생각 같아선”一致,我们暂时将其一并归入“想法”类NP中;出现频率第二高的是“时间”类NP。想法类NP与时间类NP分别对应《国立国语院标准国语大字典》中给出两种用法;而表2中最后一栏的名词我们无法归类,其中部分例句与“같아선”的第三种用法相关⁷⁾,下面我们进行详细讨论。

6) “같아서야”中的“야”一般认为表示强调,但“强调”的说法过于笼统,因为我们可以同样说,表示对比的补助词“는”也可以表示强调的意思。而究其本质,“야”应做“当然”之意来理解为宜。

가:무위도식하며 한량으로 지내는 재미도 썩 쏘솔하옵니다. 在外闲云野鹤也很有乐趣。
나:그래 요즘 같아서야 자네 같은 은둔 생활이 부럽네. 是啊,如今这种世道,我也羡慕你这种隐姓埋名的生活。(韩剧《一枝梅》第一集)

“요즘 같아서야”表达了话者对“요즘(最近)”这个时间段所包含的社会氛围和时代特点有了更深入的理解,然后将其与“其他时期”进行对比,得出结论,认为“最近”最舒服的生活方式当然是“隐姓埋名”。“같아서야”的使用频率相对较低,但为了简化叙述,我们以“같아서는”作为这一语法结构的典型代表,以便进行分析。

7) 其他类NP出现了59次,其中仅有部分例句与本文所总结的用法三相关。即,在这些例句中,前项名词是人称代词或类指性名词,才符合本文所提及的用法三。除去除用法三,其余名词的出现缺乏明显的规律,难以进行系统性的归纳。因此,我们选择集中在能够总结的规律上进行分析。

1) 用法一

如前所述, 韩国语教材通常将“같아선”定义为“假设”, 但这是一种整体性描述, 需要将其用法进一步细分, 分类的标准是其前出现的名词类别:

[用法一]: “같아선”最常见的用法, 可以称其为“常规性假设用法”。在这种用法中, 主要出现的名词类别是“마음/생각”等表示“想法”的词汇。

[마음]마음 같아선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요. (07版延世大 5: 68页) 按真实的想法, 真想表白一切, 但没有那个勇气。(笔者译)

上述例句表达的是, 根据两人关系的进展程度, 话者的第一直觉是“到了该向对方坦告白的时刻了”, 但由于个人性格等多种原因, 制约了话者按照最初的想法去采取行动。这里, 话者的假设与“常规性逻辑思维”⁸⁾一致, 都为“是时候表白了”, 然而实际上并不如意, 未能采取“常规行为”, 而是作出了一种相反行为“未告白”。

这种用法强调了根据当前内心的想法, 话者提出了一种常规性的假设, 这种假设符合常规性逻辑思维及常规行为, 但实际上未必如愿, 这是一种“逻辑一致性假设”。因此, 相较于其他两种用法, 可以命名为“常规性假设”用法。如表2所示, 在语料库相关例句中, 这种用法出现734次, 占比高达75.75%。这种用法中前项名词还有“생각/기분/감정/성질/심정”等。

从完整事件表达的角度来看, 话者说完常规性想法后, 就会陈述相反的非常规性行为。若将用法一的“같아선”形式化表达为“NP+같아선+S1, S2”, 我们发现, 小句S1通常使用主观意愿性句型(如“-고 싶-”)和转折性连接词尾(如“-지만”), 小句S2则用来表达相反行为, 从而完整呈现整个事件。然而, 有时事件呈现不完整, 如:

제 생각 같아선 먼저 사과하고 잘못을 미는 게 나올 것 같은데요. (07版延世大5:68) 如果按我的想法, 首先道歉, 请求原谅似乎比较好。(笔者译)

8) 常规性逻辑思维是按照通常的逻辑规则和认知模式来进行思考和推理的方式。它依赖于已知信息和一般性知识, 遵循传统的逻辑原则, 以制定合理的结论。

上述例句中, 只有常规性假设, 而未明确描述相反的实际行为, 即省略了S2。即使相关事件表达不完整, 但用法一的意思还是不变的。

2) 用法二

根据“같이선”前名词的种类, 其用法还可以进一步分为第二种和第三种。具体如下:

[用法二]: “같이선”与表示“요즘”等时间的名词搭配使用, 我们暂时称其为“非常规性假设”用法或“时段逆常假设”用法。

[지금]지금 같이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07版延世大5: 68页)
如果像现在一样, 谁也不想见。(笔者译)

在上面的例句中, 话者的常规性逻辑思维及常规行为应该是“平时需要多见见朋友”, 但在“지금”所表示的时间范围内, 话者提出了一种反常的假设, 即“谁都不想见”。这种假设与常规性逻辑思维相反, 也与话者平时的行为相反。该句中,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与“지금”也不是“解释与被解释”的关系, 而是叙述了一种“逻辑非一致性假设”。

这种用法强调了在某一特定时间段内, 话者提出了一种非常规性的假设, 即他们的行为或想法与常规行为、常规性逻辑思维相反, 希望在那一时段内发生相反的情况。我们暂时将其称为“时段逆常假设”或“非常规性假设”用法。

如表2所示, 在语料库相关例句中, 这种用法出现176次, 占比18.16%。这种用法中, 出现在“같이선”前的其他时间名词还有“요즘/요새/오늘”等。用法二与用法一相同的是, 因为都表假设, 所以后继小句都会出现表示推测的句型⁹⁾, 但不同的是, 用法二后句不再出现“-지만”等表示转折的连接词尾, 因为后句不再表达一种相反事件, 而是通过语境蕴含表达相反或否定, 完整事

9) [用法一]: **제 생각 같이선** 먼저 사과하고 잘못을 비는 게 나올 것 같은데요.

[用法二]: **이번 달 같이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게 나올 것 같아요.

件通过前后语境呈现。

3) 用法三

[用法三]: 该用法中, 前项名词的特征未有用法一与用法二那样整齐醒目, 较难归类。如, “너”、“이런 추세”、“보통 사람”等。根据后文分析, 我们暂时称其为“类比性假设”用法。

[너]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 같아선 어디 믿고 살겠니? (07版延世大5: 68页)
世上的人都像你一样, 怎么活下去? (笔者译)

上例中, “세상 사람들”(世界上的人)是“一般对象”, “너”(你)是“特殊对象”。话者的常规性逻辑思维应该是“世界上的其它人按照他们的生活方式是能活下去的。然而, 如果世界上的其他人按照你的方式生活, 那么他们活不下去”。这里, 话者采用“反问”的修辞形式对特殊对象“你”作出假设“像你一样, 怎么活下去?”, 其目的是为了给予更强烈的肯定, 表达“像你一样, 都活不下去”, 因此该假设符合话者的常规逻辑思维。

通过上述分析可知, 用法三与用法一相似, 都是表达与常规逻辑思维一致的“常规性假设”。不同之处在于, 用法一通常表达肯定式常规性假设。用法三中, “같아선”后继小句通常采用反问或比喻的修辞形式来表达否定式常规性假设, 这使其主观化程度更强。此外, 它与用法二类似, 完整事件需要通过前后语境来呈现。

另外, 在后文的分析中, 我们还发现用法三的语篇功能也有所不同, 因此我们认为用法三是用法一的一种拓展与变体, 有必要将其与用法一和用法二区别开来。在这种用法中, 前项名词不是关于个人内心想法或特定时间段的描述, 而是类似于“너”这类具有定指性的人称代词, 或“보통 사람”, “이런 추세”这类具有类指性的名词, 话者以某个具有代表性的特殊个体、或以某一类普通性群体为假设对象, 作出一种广泛的类比或比喻性的假设, 从而找出特殊对象与普通对象的差异, 同时表达一种概括性的观点或看法。我们暂时称其为“类比性假设”。这一命名有助于更好地理解用法三的特点和功能, 同时也

强调了它与用法一和用法二之间的区别。

3. "NP+같이선"的话题演变趋势

上文中, 我们根据“같이선”前项名词的类别将其用法分为三种。值得注意的是, 在这三种用法中, 前项名词分别代表着三种不同性质的话题。下面, 我们将首先探讨“NP+같이선”的话题演变趋势, 随后进行语用推理, 以分析这三种用法之间的异同, 最后对三种话题的性质进行分析。

1) 构件特征

从认知语言学的角度来看, “같이선”句型可以视为一种准“假设构式”。要分析该构式的话题化趋势, 必须首先分析各构件的特征。

(1) “같다”的假设义

学界通常将“같다”的句型分为比较句、比喻句、形容句、推测句四类。学者们基于这四种句型来研究“같다”的语义演变过程(如, 김동욱2000、하운하2019、김선혜2021等)。其中, 안주호(2007)涉及本文研究对象“같이선”, 且分析较为深入。该研究首先对“같-”的活用型进行了分类(详见안주호2007: 表1), 并指出比较句和比喻句是“같-”的原型用法, 具有四种原型特征。通过测试原型特征在六种活用型中的可接受程度¹⁰⁾, 进而对活用型中“같다”的语法化程度进行排序, 最终得出以下结论:

같다语法化路径为: [+相同]→[+比较]→[+比喻]→[+示例]→[+假设]→[+差异]→

10) 原型特征分别是: 携带两个参照对象并可互换、可还原的“와”、可转化为复数名词、以及可插入“서로”副词的特征。研究通过测试“같이선”结构的例句, 发现它接受“와/과”的复原, 允许名词短语位置的转换, 但不接受“서로”副词的插入和复数名词的转换。“같이선”在四种特征的可接受程度上位于“같으면”之后但在“N같은N”之前。详细分析可参考안주호(2007)的表1。

[+推测]¹¹⁾

这一路径符合人类认知规律, 即从“相同”到“类似”再到“差异”的逻辑扩展路径。比较句和比喻句位于“相同”到“类似”的逻辑扩展路径上, 而假设、差异、用差异表否定及表推测的用法则位于“类似”到“差异”的逻辑扩展路径上。我们认同안주호(2007)的论证, “같이선”结构中的“같이”具备[+假设]义。

(2) “-아/어서”的顺承义

众多学者认为“-아/어서”是表客观性、确定性依据的连接词尾, 根据前后小句的逻辑关系, 其语义功能为[+顺承]、[+原因](남기십1978、김진수1983等); 部分学者则认为“-아/어서”也有表主观性、不确定性依据的功能, 此时其语义功能区别于[+原因], 应单独归纳为[+理由](이희자1999、이경우1987等)。

정수진(2012)在认知语言学的视角下对“-아/어서”的语义扩张现象进行了分析, 此研究指出“-아/어서”的原型义为[+顺承性], 这里的“顺承性”指两个事件在时间上的依次排序及前一事件对后一事件产生的特定影响。在特定语境下, “-아/어서”前后事件的时间逻辑关系触发人类认知推理机制, 原型义[+顺承]可推理出[+完成持续]、[+原因/理由]、[+目的]三种语义功能, [+完成持续]继续扩展出[+手段/方法]、[+背景]两种语义功能。

本文认为, [+顺承]表达的是事件或信息在时间上的先后顺序。时间作为一切事物发展的前提, 也是人类理解和认知世界的基础之一。因此, 将[+顺承]分析为“-아/어서”的是原型义是合理的。

(3) “는(ㄴ)”的突显义

关于补助词“은/는”的本质功能, 学界尚未达成共识。主要有以下几种观

11) [NP+같이-]表示例, [NP+같이면]与[NP+같이선]表假设, [N같이N]表差异, [NP+같이으니]表否定, [NP1가...ㄴ/르것 같다]表推测。

点：一、表话题与表对比(채완1977、이정훈2004等)；二、只表话题(박철우2003、최동주2012等)；三、只表对比(임동훈2012等)；四、表话题、对比话题、对比焦点(전영철2005、박진호2015)；五、表强调或突显(김일규2016、2019等)。从以上几种观点可知，“은/는”是一种与信息结构相关的语用标记，表话题与对比的功能毋庸置疑，但关于其本质功能的界定，学界存在争议。本文认可김일규(2016、2019)的观点，“은/는”的本质义是[+突显]，其话题功能、对比功能则由所在语境及句法分布触发而生。从形态上看，它是一种话题标记、对比标记。若从认知语言学视角上看，它是一种“窗口化标记”。

2) 话题化分析

在前人研究的基础上，我们对“같이선”的各构件特征进行了简要总结，从而得出一个初步性想法：每个构件在该构式中都扮演了特定的语用角色。在“NP+같이선”中，我们可以确定“같다”是其核心，它赋予该构式假设义，而假设结构最易演变为话题结构¹²⁾。另一方面，“-아/어서”的作用是提供顺承义，它连接前项名词和该结构的后半部分，使得在提及某一性质的话题后，自然而然地引出与该话题相关的事实，进一步突显了顺承的语用功能。此外，“은/는”提供突显义，我们将在后文详析，由于“같이선”频繁出现在反预期语境中，在语用推理与语境吸收的共同作用下，触发“은/는”的对比话题功能，同时赋予该构式更强的话题性质。

如果“NP+같이선”构式发生话题化，那么“같이선”这个单位在语法化进程中，则是朝着(话题)助词的方向发展。”关于“같이선”是否助词化，在之前的研究中难以找到明确的讨论。下面我们从句法和形态、语义和功能、出现环境、相邻表达等角度出发，分成四步，依次考察“같이선”助词化的可能性¹³⁾。

12) 正如Haiman(1978)所述，“条件句中，特别是表达假设的条件句，它们被看作是谈话双方所共有知识的一部分，为交际对话提供了可选的结构框架。话题标记是条件句标记的重要来源。”考虑到该构式的核心是表假设，这进一步推动了该构式朝着更强话题性的方向发展。

13) 该操作参考오규환(2008)、서희정(2015)等学者对“-이)라면”，“같으면”的助词化

[步骤一] : 句法和形态分析

[3]내 생각과 같아서 는 결코 이렇게 안 한다. (S1+같아선+S2)

내 생각 같아서 는 결코 이렇게 안 한다. (助词省略)

생각 같아선 결코 이렇게 안 한다. (主语省略 : NP+같아선+S2)

[4]요즘의 상황과 같아서 는 세끼 밥 먹기가 힘들다. (S1+같아선+S2)

요즘 상황 같아서 는 세끼 밥 먹기가 힘들다. (助词省略)

요즘 같아서 는 세끼 밥 먹기가 힘들다. (旧信息省略)

“같아선”中, 构件“-아/어서”是表顺承的连接词尾, 正常情况下用于衔接两个小句, 以表达它们之间的逻辑关系, 形式上可以表达为S1+같아선+S2。但我们发现, 前项小句S1的第一人称主语、旧信息经常被省略, 如上[3]及[4], 小句S1逐渐固化为“마음”与“时间”两大类名词, 整个结构变为NP+같아선+S2, 名词短语直接搭配“같아선”, 这说明“같아선”由句法单位向形态单位演变。

[步骤二] : 语义和功能分析

由上节构件特征分析可知, “같다”在“같아선”中原型[+相似]义已消失, 虚化为[+假设]义; 步骤一中, 对构件“-아/어서”的分析也可推知, “-아/어서”衔接小句功能弱化, 在“같아선”中它主要衔接前项名词与后项小句。同时“같아서”还与补助词“은/는”结合。该结构中, 一个构件的语义虚化, 一个构件的句法功能弱化, 同时能与补助词结合, 这说明该结构正在经历语法化。

[步骤三] : 出现环境分析

[5]마음 같아서 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다.

마음 같으면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다.

마음이라면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다.

마음은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다.

继续观察“같아선”的出现环境, 查看前项名词是否成为后继小句的叙述对象: 在“NP+같아선+S1”结构中, S1一般是对NP的具体解释与叙述, 这表明前

分析方法。该方法源于Choi(1999)、Lee(2008)、Ahn(2011)等学者提出的助词化判定标准。

项名词与后继句子之间存在关联, NP是话题, 具有相关性。其次, "같아선"基本可与'은/는'互换, 《延世现代韩国语字典》已标明"같아선"相当于"로는"、“에는”。同时, 我们还发现, 它有时能和助词化单位“같으면”、“(이)라면”互换, 〈우리말큰사전〉、〈표준국어대사전〉已记载了“(이)라면”当助词的用法, 오규환(2008)、서희정(2015)则论述了“같으면”的助词化。

[步骤四]: 与相邻结构助词化的对比

由3.1.1节“같다”的语法化路径可知, “같아선”的相邻结构是“같으면”, 核心语法义都是[+假设]。서희정(2015)对“같으면”的助词化进行了详细的分析: 一是句法层面, “같으면”经历了省略主语、省略旧信息、“”改为顿号由“引出假设从句→引出反事实性假设从句”到“省略从句并直引名词”的变化; 二是构件层面, “같다”失去+[比较]义, 同时“(으)면”句法功能弱化, 助词化后不能还原为假设从句, 被视为固定形式, 不能插入‘-었-’和‘-(으)시-’; 三是出现环境, 通常跟在关于主题信息的先行语后面, 将前置名词作为叙述的对象。可与“(이)라면”、“은/는”互换, “같으면”是一个引导性话题助词。本文认为, “같아선”在上述三个层面都呈现出与“같으면”相似的变化, 二者都在朝着话题助词化的趋势发展。

通过以上四个步骤的分析, 我们认为“같아선”充分具备语法化为话题助词的可能性, 主要用于引出“对比话题”。我们未在本节详细讨论这一功能, 是因为这种对比性功能由“같아선”所在语境触发。为了更清晰地理解这一点, 下文我们进行语用推理分析, 然后再重新审视其对比话题功能。

4. "NP+같아선"的语用推理分析

1) 反常理表达

“같아선”通常与“-지만”、“-는데”等转折词尾共现, 其后转折句的内部, 前半句通常提出假设, 而后半句则否定这一假设。有时候, 甚至在省略后半句或不使用转折句的情况下, 整个句子也能传达出一种反常理义, 即“理应如此或希望如此, 但并未实现”。我们认为这种反常理义实际上是一种语用逻辑推

理, 可以通过陈振宇 (2017) 提出的预期认知模型进行深入分析, 具体如下:

[用法一]: "마음"类名词+같아선

[6]저희 딸이 올해 30살인데요, 아비 마음 같아선 딸이 빨리 시집을 가서 정착을 했으면 좋겠는데, 딸아이가 얼마 전 3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놀고 있어요. 我女儿今年三十岁了, 作为父亲我很希望她快点结婚稳定下来, 但女儿最近辞掉了干了 3 年的工作, 现在正在玩。(笔者译)

例[6]中, 反预期语境的四个组成部分分别为:

条件O: 저희 딸이 올해 30살이다. 我女儿今年三十岁

预期 P(M|O): 딸이 빨리 시집을 가서 정착을 하다. 希望女儿快点结婚稳定下来 (显性预期, 同时是常规性假设)

当前信息 P(M): 딸아이가 얼마 전 3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놀고 있다. 女儿最近辞掉了干了 3 年的工作, 现在正在玩

预期性:反预期信息

[用法二]: 时间类名词+같아선

[7]가:오늘 따라 왜 이렇게 버스가 콩나물 시루같지요? 今天公交车上怎么挤得像沙丁鱼罐头一样呢?

나:오늘 같아선 중고차라도 한 대 샀으면 싶어요. 像今天这样,我真想买辆二手车。

例[7]中, 反预期语境的四个组成部分分别为:

条件O: 平时公交车不会这么挤 (隐性条件)

预期 P(M|O): 公交车不挤, 不需要买车。(隐性预期)

当前信息 P(M): 버스가 콩나물 시루같다. 今天公交车挤得像沙丁鱼罐头一样; 중고차라도 사고 싶다. 想买二手车。(非常规性假设)

预期性:反预期信息

[用法三]: 定指性/类指性名词+같아선

[8]가:집값이 너무 올라서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房价上涨得厉害, 真不知道什么时候能买上房子。

나:이런 추세 같아선 내 집 장만은 그림의 떡이겠지요. 如果按这种趋势发

展下去, 我购房的打算就是画饼充饥了。

例[8]中, 反预期语境的四个组成部分分别为:

条件O: 집값이 너무 올랐다. 房价上涨得厉害(显性条件)

按照一般情况, 话者认为房价不会上涨得太厉害, 所以能买得起房。

(隐含条件)

预期 P(M|O): 希望房价别涨太厉害, 希望能买得起房子。(隐性预期)

当前信息 P(M): 이런 추세에 따라 내 집 장만은 그림의 떡이겠지요. 房价上涨是最近的发展趋势, 我买不起房(类比性常规假设)

预期性: 反预期信息

通过以上分析, 我们可以得出结论, “같이선”的反常理义主要源于当前信息 P(M)与话者预期之间的不一致。但三种用法有所不同, 总结如下:

〈表3〉三种用法的反常理表达

用法	前项NP名词	反常理表达的推理
1	마음类	常规性假设: 从“明示性正预期(自己的想法)到“显性”反常理事件。
2	지금类	非常规性假设: 从“隐含性正预期到”到反常理事件, 提出的假设中蕴含反预期信息。
3	定指/类指NP	常规性假设: 从“隐含性正预期到”到反常理事件, 提出的假设中蕴含反预期信息。

在用法一中, 话者提出的常规假设其是就是其预期, 即预期为显性; 然而, 在用法二和用法三中, 预期是隐性的, 蕴含在语境之中。话者提出常规或非常规假设, 主要是为了表达一个与预期相悖的事件(当前信息), 三种用法的反预期性都通过语用推理得出。随着使用频率的增加和推理模式的不断重复, 这种构式的反常理义逐渐被规约化。

2) 对比性语境

接上分析, “갈아선”构式的反常理义主要通过对比反常事件(当前信息)与话者预期期间的不一致性来实现。经过规约化, 导致该构式在对比语境中高频出现。其构件“은/는”的原型义为[+突显], 在反常理的语境作用下, [+突显]义转化为[+对比]义。因而, “갈아선”三种用法共享一个重要特性: 引出对比话题。下文我们直接分析具体例句:

[9]가: 해외 임무요? 海外任务吗?

나: 마음 갈아선 다른 요원 보내고 싶지만 위에서 내리온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按我的想法, 是想派别的要员去的, 但是因为上头下的命令, 没办法只能派你去。韩剧《雅典娜战争女神》(笔者译)

[10]가: 새로 시작한 사업은 여전히 잘 되시죠? 新开始的事业一直顺利吧?

나: 웬걸요. 요새 갈아선 사업을 그만 두고 싶어요. 哪里啊。像近来这样, 都想放弃这一事业了。《07版延世大5: 80页》(笔者译)

[11]가: 깊은 산 속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도 살아 남은 사람이 있었대요. 听说飞机坠落到深山里了, 但还有活下来的人。

나: 웬만한 사람 갈아선 그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如果是一般人, 在那样困境中是难以坚持下来的。《07版延世大5: 80页》(笔者译)

在例[9]中, “마음”(想法)与“현실”(现实)形成对比: 我的想法是派别的成员, 但面对现实压力, 只能派遣你。对比关系可还原为“마음은 다른 요원을 보내고 싶지만, 현실상으로는 널 보내야 한다”, 对比话题分别是“마음”与“현실”。在例[10]中, “요새”(近来)与其他时间点形成对比, 话者表明最近想放弃事业, 但在过去或将来并非如此。对比关系可还原为“요새는 사업을 그만 두고 싶어요. 다른 때에는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어요”, 对比话题分别是“요새”与“다른 때”。在例[11]中, “웬만한 사람”(一般人)与“살아 남은 사람(活下来的人)”形成对比。一般人在飞机事故中难以生存, 活下来的人却抵住了那样的困境。对比关系可还原为“비행기 사고 중 웬만한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다”。对比话题分别是“웬만한 사람”与“살아 남은 사람”。

虽然三种用法都引出对比性话题，但存在差异。用法一，如例[9]中，“같이선”所引话题是一种解释补充性话题。虽然“마음”类名词属于抽象性名词，在指称上属于无定，较难直接充当话题。但例[9]完整结构是“내 마음 같이선”，人称代词在语篇中的作用是指示活跃实体。由于第一人称代词做定语修饰抽象名词“마음”，使其具备一定已知性。同时，“같이선”引出话题之后，话者立刻对“마음”的所指进行了补充解释，形成了一种回指或下指关系，从而使“마음”有定化直接充当话题。用法二，如例[10]所示，话题的时间属性最显著，时间和空间通常是谈话的起点，作为一种背景，为其后述题提供参照背景。话者将“某段时间”作为客观参照点及假设的起点，这种假设引发“可能世界”¹⁴⁾，并将这种“可能世界”作为一种“参照世界”，与现实对比，形成一种客观性较强的现实推理式话题。至于用法三，由于出现频率低，但在现有的少数语料中，我们发现用法三所引的话题通常是人称代词或一个类指性集体名词，用于进行类比假设，以说明不同类别的个体或集合之间的差异。根据前文对用法三的语法意义解释，我们认为这是一个类比性话题。如例[11]中，“웬만한 사람”是一个类指性集合名词，话者通过假设“普通人在坠机中都得死”与“幸存者”这类集合进行对比，以阐明“幸存者在困境中活下来”。

上文中，我们对“NP+같이선”的话题演变趋势进行了分析，讨论了三种用法所引话题的异同，并通过语用推理说明了对比话题性的成因。下面，我们通过表格总结三种用法的话题功能，具体如下：

〈表4〉“같이선”三种用法话题功能的异同

用法	前项名词	话题性质	相关述题	述题表现形式	主观性
1	“想法”类	[+补充解释] [+对比性]	常规性假设	多为推测性转折句，转折句内部，前半句为肯定表达，后半	强

14) 陈振宇(2017:9-41)提出“指称”涉及两个世界，一种是说话者所在的实际世界，另一种是说话者的意识和话语引发的虚拟认知世界，称为“可能世界”。

				句表示某种相反事件。	
2	“时间”类	[+现实推理] [+对比性]	非常规性假设	多为推测句型, 不再表达一种相反事件。	弱
3	定指/类指类	[+类比性] [+对比性]	常规性假设 类比性假设	多用反问句、比喻句表示否定。	比1弱 比2强

在对“갈아선”三种话题性质进行分析的基础上, 我们自然地得出了三种用法的主客观性差异。就话题性质而言, 用法一属于补充解释类话题, 因此其主观性较高。用法二则涉及时间参照点的现实推理, 相较于用法一更倾向于客观表达。用法三是用法一的拓展与延伸, 其主观性自然高于用法二。然而, 与用法一相比, 用法三通常用于比较两个对象之间的差异, 因此在某种程度上更具客观性。同时, 由于用法三中的述题常采用反问等修辞性表达形式, 它在主观化程度上超过了用法一, 反映了话者强烈的立场和态度。接下来, 我们使用量级模式来分析这三种用法的主观化程度。

3) 量级推理

在一个特定范畴中, 我们可以根据成员们在语用含义上的强度来对它们进行排序, 从弱到强, 以构建一个语用量级。如果我们考虑“假设”这个范畴中的成员: “常规性假设”与“非常规性假设”, 那么根据人类从“一般规则”到“特殊事例”的认知模式, “常规性假设”通常更容易实现, 符合人们通常的认知方式, 因此我们可以将其视为一种语用较弱的概念。相反, “非常规性假设”的实现性通常较低, 因为其内容可能超出人们通常的认知范围, 更倾向于特殊情况, 所以我们可以将其视为一种语用较强的概念。“갈아선”三种用法的语用量级如下:

〈表5〉“갈아선”三种用法的语用量级

用法	语用量级		假设的主客观	对比对象语用量级	
1	常规	弱量	主观	非常规	强量

	假设			(现实)	
2	非常规假设	强量	客观	常规(普通时间)	弱量
3	常规假设	弱量	主观	非常规(对象)	强量

接着，我们再从认知情态层面与言者话语层面对三种用法的语用量级进行再分析，可以得到以下主观化程度的推导图：



〈图 1〉主观化程度推导流程

〈表6〉"같이선"三种用法的主观化程度

用法	假设	语用量级	认识情态层：对假设实现概率的认知	现实世界	言者话语层：对所言内容的立场与态度	主观化程度
1	常规	弱量	"一般规则"→发生概率高	未发生	发生概率高却未发生→消极(隐含失望、不满、遗憾)	强
2	非常规	强量	"特殊事例"→发生概率低	未发生	发生概率低且未发生→中立态度	弱
3	常规	弱量	"一般规则"→发生概率高	未发生	发生概率高却未发生→反问句、修辞句表示显性消极	最强

用法一中，从认识情态角度来看，话者认为“常规性假设”发生的概率较高，因为它们都是常规的。然而，当这种常规性假设在现实中未发生时，话者表达隐含沮丧或消极类态度。从话语层面看，主观化程度较高。由此推之，用法二中，对于那些发生概率较低的“非常规性假设”，如果它们未发生，这并不会让说话者感到太意外或失望，此时话者的态度没有这么消极，是中立的。从话语层面看，主观化程度弱。用法三较为特殊，它也涉及常规性假设，当这种常规性假设未反生时，话者会通过反问句和修辞句明确表达出沮丧或消极的情

感。因此，用法三的主观化程度最为显著。

在本文前几章中，我们首先对“같이선”的用法进行了分类，然后分析了该结构在话题化后的语用功能，同时比较了这三种用法的话题性质、主观性以及主观化的异同。我们之所以要进行这些区分，是因为在汉语中没有直接或完全等同于韩国语中的“같이선”的表达方式，部分原因在于“같이선”内部三种用法的差异。

5. "NP+같이선"和“按/照/像+NP”的异同

接下来，我们对“같이선”和“按/照/像”类表达进行对比，以更准确地认识“같이선”的本质特征。根据第一章表1，我们可以看出，在汉语中并没有与韩国语“같이선”直接或完全等同的表达方式。这种不对应现象可以归因于二者在语法化趋势、主观观性、主观化程度、和结构形态等方面均存在差异。尽管二者构成“一对多”的关系，但“一”和“多”仍然共享部分相同的意义，我们将首先总结这些差异，然后总结它们的共同点。

1) 不对应性分析

我们要再次强调的是，韩国语中的“같이선”并没有直接或完全等同的汉语表达方式。检索韩中字典例句译句、韩剧台词的中文翻译时，我们发现主要有以下汉语表达方式：

[用法一]对应的汉语表达有：按（照）我的想法、依（据）我想法、照我的想法、根据我的想法、我想、我很想、我是很想、原以为、本以为、本想、恨不得、巴不得...¹⁵⁾

[用法二]对应的汉语表达有：照…（情况）、就…而言、（如果）像…一样、（如果）按…一样、现如今、就现在、像最近…

15) "想法"一词还可以换为"마음"类的其它名词：意愿、推测、心情、性格等，对应翻译有：按（照）我的意愿、依（据）我推测、照我的性格等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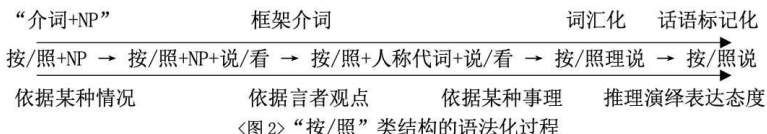
[用法三]：(如果)按…、(如果)像…、如果是…

从上述“一对多”的对应关系中，我们可以观察到，“같이선”主要对应汉语的话题结构“按/照/像+NP”，同时，也对应一些介词框架，如“就/以…而言”，以及一些话语标记，如“现如今”和“恨不得”等。我们可以理解为该韩国语话题构式同时对应汉语的话题结构、介词框架、以及话语标记。我们认为，造成这种结构不对应的原因之一是，二者在语法化进程上存在差异。

(1) 语法化不对应

本文已在3.2节完成了对“같이선”的话题化的分析，我们认为“NP+같이선”是话题构式，其中“같이선”朝着话题助词方向发展。由于“按/照/像”类表达已有非常充分的研究成果，下文我们直接在前人研究的基础上，总结汉语“按/照/像”类结构的语法化过程，再与“같이선”作对比。

根据王世群(2011)、刘红妮(2014)、方舒(2022)等研究可知，“按”和“照”在从动词演变为介词后，发展出介宾短语“按+NP”和“照+NP”的用法，此时的NP是话题，“按/照+NP”是话题结构。当“按+NP”和“照+NP”位于句首作状语时，它们通常修饰“表达话者观点和意见”的子句，例如，“按/照…的想法/意愿/观点，……”。随着语言的演变，人们趋向于更简洁的表达方式，因此引入了言说动词“看”和“说”来代替话题性名词短语“XX的想法/意愿/观点”，这一结构演化为“按+人称代词+说/看”，或者将宾语泛化，直接表达为“按理说、照理说”，此时的“理”表某种常理，表示话题的名词短语消失。最终，在追求语言经济性的原则下，宾语被逐渐省略，形成了“按说/照说”。位于句首的“按说/照说”常常承担衔接功能，因此演化成为一种话语标记，相关演变过程如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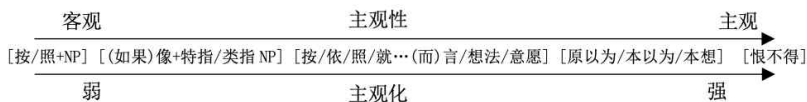
“갈아선”主要对应于图2中的“按/照+NP”结构，这个结构也属于话题结构，其中介词“按/照”引导的名词就是话题。这正是“갈아선”主要被翻译为“按/照+NP”以及“像+NP”这三种翻译格式的重要原因之一，因为二者同为话题构式。

通过观察汉语中“按/照”类表达的语法化演变趋势，我们可以推断，如果“갈아선”的语法化进程持续下去，它或许将逐渐朝着话语标记的方向发展¹⁶⁾。这也是为什么“갈아선”除了对应话题结构之外，还可以被译为介词框架结构和话语标记的原因：由于两种语言相关结构的语法化进程不一，话题构式不仅可以对译为话题构式，还可以被翻译为语法化过程中的相邻构式：如框架介词类构式“按/照+NP+说/看”、“按/照+人称代词+说/看”等。因此，在接下来的对比中，虽然“갈아선”主要对应“按/照+NP”，我们还将拿其与位于语法化末端的“按说/照说”进行对比。尽管通常情况下，“갈아선”不能被直译为“按说/照说”，但需要强调的是，“按说/照说”是“按+NP”、“照+NP”语法化后的相邻结构。为了更好地定位“갈아선”的本质特征，我们不仅要对比“按/照+NP”，还要同时从语法化进程的角度，考虑“按/照+NP”相邻结构与“갈아선”的异同。

(2) 主观性及主观化不对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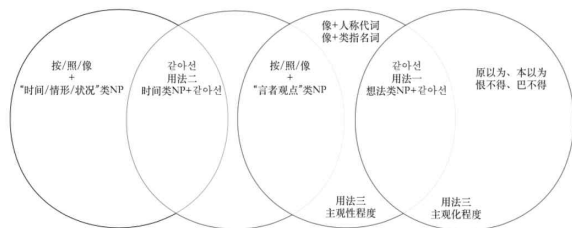
本章开头首先总结了“갈아선”在汉语中的具体表达方式，接下来我们对这些汉语表达进行主观性与主观化的强弱排序，具体如下：

16) 根据匿名评审专家的宝贵建议，我们给出“갈아선”可能朝着话语标记发展的推测依据：一是与汉语对比，“갈아선”主要对应构式“按照+NP”，据图2可知，该构式最终演变为话语标记。因此，汉语的演变趋为我们提供了推测갈아선”语法化发展趋势的部分依据。二是，语料中出现了这样的例句：가: 행복 총 양에 법칙이나 고통 총 양에 법칙을 위안 삼아서 오늘도 묵묵히 일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나: 요즘 갈아선요. 어찌 더위 총 양에 법칙이 더 절실해집니다. 칠월 이십사일 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모두의 말뭉치-방송대화SBI) 这里的“요즘 갈아선요”出现于句首，独立于句法结构之外，即有独立性与分离性，似乎具备一定话语标记的特征。



〈图 3〉汉语相关表达的主观性强弱

第四章中，我们通过语用推理，对"같아선"三种用法在主观性和主观化方面的不对称性进行了详细分析，这种不对称性导致了韩汉对译中的“一对多”现象。为了更清晰地呈现“같아선”与“按/照/像”类表达在主观性及主观化方面复杂交错的关系，我们尝试用集合交叉图进行整理：



〈图 4〉“같아선”与对译表达的交叉关系图

上图所示的四个集合按照主观性与主观化的程度从弱到强的顺序排列。当“按/照/像+NP”中的短语是时间、情形、状况等名词时，其客观性最强，表示话者依据某种情况作出客观性评价，这与“같아선”用法二存在交集。用法二以时间类名词作为客观参照点，作出某种非常理假设以表达某种事件的反常理性，由于该用法表假设，因此客观性比前一集合弱；当“按/照/像+NP”中的短语由“情形”变为“言者观点”类时，其主观性增强，此时该结构表示话者的主观性评价，与“같아선”用法一存在交集。当用法一所处语境的对比性较弱时，即反常义较弱时，通常被翻译为“按/照/像+言者观点”的格式；当用法一所处语境的对比性较强时，即反常义较强时，通常被翻译为“原以为、本以为”，当这种反常义达到极值时，被翻译为“恨不得、巴不得”；

值得注意的是，用法三较为特殊，它扩展自用法一，因此主观性自然高

于用法二。其语用目的是利用假设进行类比以突显某种差异，因此具备一定程度的客观性，即主观性弱于用法一。它经常被翻译为“(如果)像…(一样)”，此时的“像”既有依据义又有类比义，即客观又主观。上图中，用法一与用法二的主观性与主观化均呈正相关关系。唯有用法三，其主观性与主观化程度不完全匹配：用法三的主观性介于这三种用法之间，但其主观化程度最高。在第4.3节的分析中，我们发现话者通过使用反问句和修辞句来明确表达消极情感，从而使其主观化程度达到最高。

根据图4的交叉性分析，我们发现在翻译“갈아선”时，应考虑不同用法的主观性、主观化程度的强弱，以及所处语境对比性的强弱。在韩剧台词的中文翻译中，我们常常感到句子不够自然，其根本原因在于译者未能根据语境的强弱来选择与之主观性相匹配的词语。例如：

[12] ...그래서 애를 혼자 집에 놓고 오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마음 갈아선 보다가드든 뭐든 붙여놓고 싶은데 싫다고 난리칠 것 뻔하고. 我刚送颂伊回家,但真是不愿意离开。我是真想派一堆保镖过去,可明摆着她会拒绝。
《来自星星的你》第八集(网络字幕组译)

此台词出现的情景为，女主角公千颂伊遭受突袭，男性友人担心其安危想派保镖去守护她，在这种情境下，话者提到想要派遣保镖，但也明白千颂伊会拒绝。这种对比强调了话者内心的强烈愿望与实际情况之间的冲突。即“마음 갈아서는”所在的语境对比性与反预期性均较强，此处应该翻译为“我恨不得派一堆保镖过去”更贴切，更能表达男性友人急切的心情。

2. 对应性分析

(1) 对比话题

第4.2节中，我们已详细分析了“갈아선”的话题功能，这些话题主要分为三类，性质不一，但都具备对比话题功能。在与“按/照/像”类表达进行对应性分析之前，我们采用赵新建(2012)最大公约数(GCD)¹⁷⁾的方法提取“갈아

17) 赵新建(2012:48)指出：GCD为数学中“最大公约数(Greatest Common Divisor)”的

선”三种用法话题功能的最大共同之处，以更好地进行对比。具体分析如下：

"같이선"

=GCD (같이선1, 같이선2, 같이선3)

=GCD (用法1, 用法2, 用法3)

=GCD (按, 照, 象...)

=GCD (提示常规对比话题, 提示非常规对比话题, 提示常规对比话题)

= [+提示][+对比][+话题]

由以上分析可知，“같이선”三种用法的最大共同特征是[+提示][+对比][+话题]，“같이선”话题用法公约为：提出某个常规性或非常规性的对比话题。下面我们直接分析“按/照/像”类表达的对应性功能，并进行对比，具体例句如下：

[13]按我的想法，我觉得咱们应该想新的乐园夸进一步。(=按我说、照我看...)

[14]照现在的价格水平，这需要购房者有大笔稳定的高收入，有多少购房者可以承受？

[15]像你（一样），不会游水，又会晕船，还不是一点用也没有。

上面三个中文例句中，“按/照/像”均为介词，分别引出话题“我的想法”、“现在的价格水平”、“你”，三个例句中话题结构均携带停顿，由逗号进行标识，逗号之后是述题结构。

[16]按我看，这个方案更加可行。(=按我的想法、按我想、按我说...)

[17]照说他应该很忙，但他最近一直很轻松。(=照现在的情况(说)、照理说...)

[18]现如今，平板电脑已经风靡全球。(=像现在(的情况)、就现在...)

例[16]中，隐含的对比义是：“按我的想法”即从我的视角出发，这个方案可行，但如果“按别的想法”，别人可能觉得这个方案不可行；[17]中，话者对”

字母略语，如在2、4、6、8中，2就是2、4、6、8的最大公约数。GCD作为一种提取某集合成员最大共性的方法，其实可以看作逻辑学中的抽象和归纳方法。

他"应该是有一定了解,从话者对"他"的认知出发,话者推理认为"他应该很忙"。而此时的对比语境是显性的,后半句"他最近一直很轻松"否认了话者的推理性认知;[18]中,对比语境是隐性的,"现如今"与"过去"形成对比,"以前,平板电脑未风靡全球"。"现如今"这个结构中,"如"等于"像",该结构等同于"像现在(的情况)、就现在"。需要指出的是,"像现在(的情况)"这种表达在翻译中偶尔会出现,但在汉语中的使用频率较低,因为它相对较繁琐,不够简洁。

如上所示,尽管我们无法对"按/照/像"类表达所引话题的性质进行分类,但在语料库的例句分析中,我们可以清晰地看到它们倾向于引出三类话题。首先,它们常常引出"言者观点"类话题,这类话题通常用于引出话者的主观性看法或客观性评价,如例[13]与[15]。其次是"时间"类话题,这类话题通常以某个时间点为基础,用来描述和对比其他时间序列或事件的发展情况,如[18]。最后是"情形"类话题,这种话题类似非论元话题中的背景语域式框架话题,它强调的是一种[+语域性],为其后述题提供参照性辖域,如[14]。尽管"按/照/像"类表达在各种语境中广泛使用,不受限于特定话题,但从上述分析可知,它们与"같이선"所引话题存在相似之处:[+提示][+对比][+话题]。

二者在话题功能上的对应性还间接反映了韩汉两种语言话题结构的扩展趋势。唐正大(2013)指出话题结构显然具备"模型"这样的功能,它能使得多种结构或范畴都倾向于用类似于典型话题结构的形式表达。在汉语中,话题结构通过受事、工具、旁格等成分的提取、条件句、状语从句和介词短语的去句化压缩进行范畴扩展,使这些结构都带有话题性或演化为话题。汉语的"按/照/象+NP"结构就属于话题结构在状语从句与介词短语层面的扩张,该结构是介宾短语,常用于句首引出状语从句,逐渐发展为来源性话题标记,最后变为理据性话语标记"按/照说"。而韩国语的"같이선"似乎属于话题结构在条件句相邻范畴的扩展,"NP(와) 같다"和"아/어서"的结构表假设性条件,逐渐被压缩为"NP+같이선",같이선"话题助词化,同时扩展出引出三种不同性质话题的用法。虽然汉语是话题显赫类语言,韩国语是主语话题并重类语言,上述对应性分析说明韩汉语题功能都很发达,都在影响不同语言结构。

(2) 语篇功能

两种结构在语篇中, 都具备衔接连贯、组织会话话轮的功能。基于前人研究(如, 丁宇红2008、王世群2011、岳辉2017、施伟伟2017等)可知: "按/照/像"类表达常常出现在话语中的三个位置, 即话轮的开头、中间和结尾, 它们在语篇中扮演着衔接和联系的重要角色。下面我们直接分析"갈아선"的语篇功能:

[19]가: 검은색 정장을 입었네요. 어디 다녀오는 길이에요?

다: 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을 다녀왔지요. 마음 갈아선 밤을 새우고 장지까지 따라가고 싶었지만 워낙 요즘 연구소 일정이 빡빡해서요.

가: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이 보통인가요?

다: 아니.....

在这个对话中, 话者听到了朋友父亲去世的消息, 因此前去送别。话者本想通宵守夜并参加葬礼, 但研究中心的日程安排太紧了, 所以无法实现这一愿望。这里, "갈아선"引出话题"마음", 并在话轮中间具体解释了话者的愿望, 从而为听者提供了更多关于话者的情感和动机的信息。这种用法使对话更具连贯性, 帮助听者更好地理解话者的内心世界。在语料库中, 我们发现用法一经常出现在话轮中间, 主要功能是补充解释。

[20]가: 행복 총 양에 법칙이나 고통 총 양에 법칙을 위안 삼아서 오늘도 묵묵히 일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다: 근데요. 요즘 갈아선요. 어째 더위 총 양에 법칙이 더 절실해집니다. 칠월 이십사일 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在上述对话中, 话者表达了对于那些默默工作的人的支持。此后, 话者使用了"근데요"表示转折, 同时使用"요즘 갈아선요"开启一个新话题, 即天气变热。"갈아선"在这里的作用是开启新话题, 引入对天气变热的讨论, 使话者在转变话题时不生硬、让对话更流畅。在语料库中, 我们发现用法二经常出现在话轮开头, 人们经常用时间与天气开启一个新话题, 因此"时间类名词+

같이선”更容出现在话轮的开头。

[21]가: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스웨덴인 부녀와 알메달렌을 아냐고 묻자 바쁘다며 사라진 멧쟁이 아저씨 등... 대체로 스웨덴의 생활과 정책에 만족감을 느낀다 했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같이선 다들 한숨부터 내쉴 주제이죠.

在上述对话中, 话者提到了一些与生活满足度、生育愿望等相关的话题, 并将瑞典与韩国的相关情况进行对比。“같이선”位于话轮结尾, 具有收拢结束的语用功能, 是一种总结或归纳, 展示了一种反常理或不太理想的情况, 并暗示了话者一种潜在的不满或讽刺、失望的态度。

尽管本小节主要目的是分析“같이선”与“按/照/像”类语篇功能的对应性, 然而, 我们仍发现了“같이선”三种用法在语篇功能上的不对称性: 第一种用法多出现在话轮中间, 功能是进行补充解释; 第二种用法多出现在话轮开头, 功能是开启话题; 第三种用法多出现在话轮结束位置, 功能是进行收拢结尾。也正是因为三种用法具备不同语篇功能, 这才使得“같이선”在结构整体上能与“按/照/像”类表达在语篇中形成相应的对应关系。

6. 结论

本文细化了“같이선”的三种用法, 分别是: 用法一为常规性假设, 用法二为非常规性假设, 用法三为类比性假设。这样命名的好处是, 能给教材和词典增加更为多样的实际用法与用例, 并能对其进行更细致地综合性理论解释, 论述相关的生成过程和不同层面的特点。

三种用法在多个层面表现出不同特性, 包括所引话题的性质、所表假设的性质、主观性与主观化功能的强弱、语境环境和语篇功能等。与此同时, 它们也共享一些相似之处, 本文提取三种用法的最大共性进行用法公约, 将“같이선”的公约性用法定义为“提出某个常规或非常规对比话题”。

为了更好地把握“같이선”的本质特征, 本文还将其与汉语相关表达进行对比。翻译上, “같이선”与汉语“按/照/像”类表达形成“一对多”的关系。虽然它们

都具有对比话题、连贯衔接和话轮组织的功能,但它们在多个方面存在显著差异:一是语法化不对应性,"갈아선"助词化,而"按/照/像"相关表达最终话语标记化;二是主观性与主观化程度上的不对应,"按/照/像"类表达相关成员与"갈아선"三种用法在主观性与主观化程度上,均呈现内部不对称性,这导致它们形成复杂的交叉性关系;三是形态上的不对应,"갈아선"更为抽象,与汉语表达形成“一形对多形”的关系。以上的异同之处导致了在汉语中,并没有直接或完全等同于韩国语"갈아선"的表达方式。

最后,关于“갈아선”历时层面的语法化动因与机制有待进一步研究,我们将在今后继续推进。

◆ 参考文献

1. 单行本

- 박철우,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 역락, 2003.
 이정훈, 『조사와 어미 그리고 통사구조』, 서울: 태학사, 2008
 이희자, 이종희, 『사전식 텍스트 분석적 국어 어미의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1999.
 최동주, 『国语‘能格性’ 논의의 问题点』, 서울: 탑출판사, 1989.
 陈振宇, 『汉语的指称与命题:语法中的语义学院里』,上海:上海人民出版社, 2017.
 延世大学语学堂编著, 『延世大学韩国语教程5』,世界图书出版社, 2017.
 延世大学语学堂编著, 『延世韩国语5活用联系』,世界图书出版社, 2014.
 延世大学语学堂编著, 张光军等审订, 『延世大学韩国语教程5』, 世界图书出版社, 2007.
 赵新建, 『韩国语语法多义现象研究』,北京:中国出版社, 2012.

2. 论文

- 김동욱, 「한국어 추측표현의 의미차이에 관한 연구」, 『 ㄴ 것 같다, ' ㄴ 듯 하다' 와 ' ㄴ 가 보다', ' ㄴ 모양이다' 의 의미 차이를 중심으로』, 『국어학』 제35집, 국어학회, 2000, pp.171-197.
 김선혜, 「'- ㄴ /ㄴ 것 같다' 구문에 쓰인 '같다'에 대한 연구」, 『韩民族语文学』 제91집, 2021, pp.9-34.
 김일규, 「한국어 '-은/는'과 '-이/가',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외국어로서의

- 한국어교육』 제45집, 2016, pp.83-117.
- 김일규, 「On the Mechanism of Generating Contrastive Implicature of CT in Korean」, 『한국어학』 제85집, 2019, pp.31-59.
- 김진수, 「국어 접속문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1987.
- 남기십, 「-아/어서 의 활용론」, 『말』 제3집, 1978, pp.321-238.
- 박진호,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 제73집, 국어학회, 2015, pp.375-435.
- 서희정, 「(이)라면, ‘같으면’, ‘하면’의 助詞化 研究」, 『어문연구』 제43집, 2015), pp.151-177.
- 안주호, 「용언 ‘같-’ 구문의 공시성과 통시성」, 『새국어교육』 제77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pp.441-466.
- 오규환, 「‘같-’의 활용형의 문법화와 관련된 몇 문제」, 『형태론』 제20집, 2008, pp.353-372.
- 이경우, 「접속어미 ‘-아서’와 ‘-니까’의 연구」, 『국어교육』 제30집, 한국어교육학회, 1987, pp.24-40.
- 임동훈, 「은/는과 중형의 의미 관계」, 『국어학』 제64집, 국어학회, 2012, pp.217-271.
- 전영철, 「한국어 소위 특정성 표지들에 대하여」, 『언어학』 제30집, 2005, pp.716-743.
- 정수진, 「연결어미 ‘-어서’의 의미 확장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 『국어교육연구』 제50집, 2012, pp.405-428.
- 채완, 「现代国语 特殊助词의 研究」,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77.
- 하운하, 「-것 같다’ 구문의 의미와 형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忠南大学校 大学院, 2019.
- Haiman, J, 「Conditionals are topics」, 『Language』 제54집, 1978, pp.564 - 589.
- Seongha Rhee, 「Grammaticalization of similatives in Korean and across languages」, 『담화와 인지』 제12집, 2005, pp.85-104.
- 丁宇红, 「现代汉语方式、依据类介词比较研究」, 국외석사학위논문, 苏州大学, 2009.
- 方舒, 「现代汉语“按照”类介词比较研究」, 국외석사학위논문, 上海外国语大学, 2023.
- 刘红妮, 「表层结构简化与“按说”的词汇化」, 『汉语学习』 제02집, 2014, pp.40-47.
- 施伟伟, 「现代汉语传信标记“X说”研究」, 국외석사학위논문, 吉林大学, 2017.
- 唐正大, 「类指性、话题性与汉语主语从句——语言内部象似性视角」, 『汉藏语学报』 제7집, 2013, pp.194-208.
- 王世群, 「按说”的话语标记性及语篇功能」, 『南京工程学院学报(社会科学版)』 제11집, 2011, pp.19-23.
- 岳辉, 施伟伟, 「演绎传信标记“按说”与“照说”的语义、语用研究」, 『吉林大学社会科学

学报』 제57집, 2017, pp.193-203.

3. 字典及语料库

《NAVER韩中字典》：<https://zh.dict.naver.com/#/main>

《国立国语院标准国语大字典》：<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延世20世纪韩国语语料库：<https://ilis.yonsei.ac.kr/corpus/#/>

BCC语料库：<http://bcc.blcu.edu.cn>

논문 접수일	2023년 11월 09일
심사 완료일	2023년 11월 23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2월 08일

Abstract

An Analytical of Korean Topic Construct "NP+같아선" and its Chinese Corresponding Expression

Lu, Jinyi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wo topic constructions in Korean and Chinese: "NP+같아선" and "按/照/像+NP". Prior research has only explored "같아선" to a limited degree, while "按/照/像" has been more extensively investigated. Hence, in this work, we initially clarify the three applications of "같아선", namely, conventional hypothesis, non-conventional hypothesis, and analogical hypothesis, and subsequently examine them via the lens of topicalization and grammaticalization reasoning.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three usages display distinct characteristics across various aspects, such as the type of topic introduced, the expression of the hypothesis, the intensity of subjectivity and subjectivization functions, and the discourse function. Specifically, the internal members demonstrate asymmetry. In terms of trans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按/照/像+NP" and "one-to-many" can be compared. Both possess the functions of contrasting theme, coherence, and turn organization. Nevertheless, there exist notable disparities in grammaticalization, subjectivity, degree of subjectivization, and morphology between the two languages. Consequently, there is no direct or complete counterpart of the Korean term "같아선" in Chinese.

Keyword "NP+같아선", "按/照/像+NP", topic constructions, topicalization, grammaticalization

한중인문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중인문학회(한문표기 : 中韓人文學會, 이하 “학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한국학의 진흥 및 그 성과의 해외 소개
2. 재외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해외 한국학의 활성화
3.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학술문화사상적 교류 및 관계 탐구
4. 기타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 및 정체성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제3조(사업)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2. 학회지 『한중인문학연구』 간행
3. 한중인문학 관련 도서 간행
4.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제4조(연구 윤리)

1. 학회의 제반 활동은 학술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다.
2. 회원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별도의 <윤리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한중인문학 관련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문화, 언어교육 분야 등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기타 한중문화 교류에 관여하는 전문가 및 기관

제6조(가입) 학회의 가입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조직)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전공별, 지역별)
3. 분과이사 약간명
4. 감사 2인

제11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분과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2. 행정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의 사업을 기획·조정한다.
3. 분과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와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재무사항 일체를 감사하며 매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4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사업 계획의 심의
 - ②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③ 임원 선출 및 인준
 - ④ 회칙 개정
 - ⑤ 기타 중요사항
3. 임시총회는 학회 운영상 특별히 의결이 필요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공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 ③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중요사항

제16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제반 활동 및 회원의 연구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 연구 윤리 규범을 홍보하고 <윤리 규정>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의결) 회의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내역)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기금, 입회비, 연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21조(예결산) 예산 및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기 타

제22조(내규)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부 칙

- 이 회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중인문학연구』編輯委員會 規定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발행) 본 위원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는 다음 지침에 따라 발행된다.

1. 연4회 발간하되, 3월 30일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 게재 심사 대상은 투고된 학술대회 발표문과 수시로 접수한 논문으로 한다.

제3조(연구 윤리)

1. 본 위원회의 활동은 학술연구자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 이행에 바탕을 둔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의 활동은 본 학회의 〈윤리 규정〉에 의한 제반 규약을 준수한다.
2. 이와 관련한 사안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처리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1.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인원) 편집위원은 아래의 분야에 따라 위촉한다.

1. 한국 인문학 : 문학, 어학, 고전, 역사, 문화, 교육 등 6개 분야
2. 한중 비교학 및 중국학 : 중국 문학, 중국 어학, 중국 사상, 비교 문학 등 4개 분야
3. 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로서 연구업적과 활동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 임명한다.

제6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편집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
2.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자

제7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 편집활동의 제고를 위해 약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제9조(투고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이면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0조(논문의 범위)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로 한정한다.(기취득한 학위논문을 요약 및 발췌한 내용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의 접근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1. 한국학의 내적 특성을 심화시키거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
2.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인문학 분야 및 한국학의 정체성 탐구와 관련 있는 내용

제11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 논문 한 편 당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2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심사하여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 점수	5	4	3	2	1
논문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총점					

제4장 심사 절차 및 심사 규정

제13조(접수)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을 통해 수시로 받는다.

제14조(예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여 예심을 한다.

제15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예심을 거친 논문을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의뢰서’와 함께 보내 심사를 요청한다.

제16조(심사 절차)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 평가란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가운데 택일하여 기록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원고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규정)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서 3인 이상이 게재에 동의할 경우 반드시 게재한다.
2. 최종평가에서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1주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수정확인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5. 최종평가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6. 논문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7. 심사결과 2인 이상 ‘게재 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무조건 반려한다. 단 1인 이하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이 판정은 ‘수정 후 게재’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심사 결과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① 투고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구체성 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한 가지 중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다수의 판정 결과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 ③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차례에 한한다.
 - ④ 재심사에 들어갈 경우 이의 신청자는 재심 논문 심사비 등을 포함하여

내규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재심은 심사비 납부 이후에 진행된다.

9. 투고자에게는 논문의 게재여부와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명시한 ‘논문심사 결과서’를 보낸다.
10.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경우 만약 심사자의 의견에 대한 수정보완이나 구체적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게재를 제한한다.
11. 발행 면수 제한 때문에 논문 편수를 더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최하위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12. 외국어 논문을 학회지에 일정 비율 수록하도록 한다. 수록 비율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13. (재투고 금지) 재투고는 1회에 한하며, 이전의 심사결과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아 반려된 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재투고된 논문은 1차 심사절차와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제5장 투고 규정

제18조(투고) 투고는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메뉴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시 학회에서 요구하는 ‘논문투고신청서’ 양식과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문헌 유사도 검사지를 제출해야 한다. 국문으로 쓴 논문은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상세 결과지를, 중문으로 쓴 논문은 ‘CNKI論文查重’의 〈文本複製檢測報告單(全文標明引文)〉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공동저자인 경우에도 저자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논문투고신청서’에 반드시 저자정보를 밝혀야 한다.

제19조(접수 마감) 접수 마감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20조(원고 작성) 논문 작성 요령은 제26조의 논문 작성 양식을 따른다.

제21조(투고 제한) 단독 저자 및 공동 저자의 투고 시, 연속 2회 투고 및 게재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을 재투고할 수 없다.

제22조(원고의 제출) 논문의 내용 상 그래프나 표 등이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1 부를 출력하여 그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기, 겉표지와 논문을 첩하여 아래의 학회사무실로 제출하고 인수증을 받는다. 우편 제출 시 논문 겉표지에 『한중인문학연구』 제 00호 투고 논문'이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쓴다.

학회사무실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관악캠퍼스 1동 314호
한중인문학회 김유중
E-mail : kochih@hanmail.net

제23조(심사비)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비를 학회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서 접수 후 심사위원들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24조(게재료) 심사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일반 논문과 연구비 수혜 논문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영문초록)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학술논문 영문교정 전문기관에 영문 초록 교정을 의뢰한다. 영문 초록 교정에 드는 비용은 논문 저자가 부담하여, 게재료에 반영한다. 단 저자가 별도 교정을 원할 경우, 저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영문 초록 교정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영문 초록 교정 확인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연구 윤리) 연구 윤리를 심의 감독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회장이 임명한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7조(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방지) 논문 투고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관련 보고를 요구받았을 때, 즉시 학회 측에 이해상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 후라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즉시 이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에 돌입한다.

제28조(논문 작성 양식) 논문 작성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논문은 “한글(2010 이상)”으로 작성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편집 후 총면수 24쪽 이내) 내외로 하고, 150매 이상(편집면수 30쪽 이상)은 투고를 제한한다.(출판 편집 후 24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1쪽 당 2만원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한다.)
3. 논문의 체제는 제목, 성명, 국문개요, 국문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 성명,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으로 한다.
4.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 등은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표시하고, 공동 저자가 있을 경우 주저자(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또는 제2저자) 등을 빠짐없이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성명/대학명/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성명/대학명/학부과정, 석사과정, 석사수료,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명/교사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명/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기관명/직위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성인	성명/전)소속명/종별 학위, 전)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소속/직위가 없는 미성년자	성명/최종소속명/학생, 졸업, 재학연도

- 모든 논문은 국문개요와 영문초록을 첨부하고 국문 주제어와 영문 주제어를 각각 5개 이상 표기한다.
- 편집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 종류	용지 여백		용지 방향
사용자 정의 폭 : 153mm 길이 : 225mm	위쪽	19,0mm	중계
	아래쪽	27,0mm	
	왼쪽	22,0mm	
	오른쪽	22,0mm	
	머리말	13,0mm	
	꼬리말	0	
	제본	0	

-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의거한다.
 - 본문의 항목구분은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 표 및 그림은 <표1> 제목, <그림1> 제목의 순서로 한다. 중국어논문은

〈表1〉 제목, 〈圖1〉 제목의 순서로 한다.

③ 〈 〉 작품, 『 』 작품집, 「 」 논문, 『 』 신문 · 잡지 · 저서,
 ‘ ’ 강조 및 간접인용, “ ” 직접 인용으로 한다.

8. 논문의 스타일 모양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논문일 경우

스타일 이름	글자모양				문단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줄 간격	정렬 방식
바탕글	10	90	-6	휴먼명조	0	0	10	170	양쪽
국문요약	8.5	95	-9	휴먼명조	0	0	10	160	
논문제목	14.5	95	-9	신명태명조	0	0	0	160	중앙
1	12	90	-6	신명태명조	10	0	0	170	양쪽
1)	10.6	90	-7	신명중고딕	10	0	0	170	양쪽
(1)	10	95	-8	신명중명조	10	0	0	150	양쪽
①	10	95	-9	휴먼명조	10	0	0	170	양쪽
인용문	9	95	-9	휴먼명조	10	0	10	150	양쪽
각주	8.6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14	138	양쪽
참고문헌	8.9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30	145	양쪽
영문초록	9	90	-7	신명신명조	10	0	0	150	양쪽
표제목	8.5	95	-7	중고딕	0	0	0	170	중앙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오른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양쪽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② 중국어논문일 경우

스타일 이름	글자모양				문단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줄 간격	정렬 방식
논문제목	14.5	95	-9	신명조 간자	0	0	0	160	중앙
국문요약	8.5	95	-9	휴먼명조	0	0	10	160	
바탕글	10	90	-6	신명조 간자	0	0	10	170	양쪽

1	12	90	-6	신명조 간자	20	0	0	250	양쪽
1)	10.6	90	-7	신명조 간자	10	0	0	210	양쪽
(1)	10	95	-8	신명조 간자	10	0	0	200	양쪽
①	10	95	-9	신명조 간자	10	0	0	170	양쪽
인용문	9	95	-9	신명조 간자	10	0	10	150	양쪽
각주	8.6	95	-9	신명조 간자	0	0	내어쓰기 14	138	양쪽
참고문헌	8.9	95	-9	신명조 간자	0	0	내어쓰기 30	145	양쪽
영문초록	9	90	-7	신명조 간자	10	0	0	150	양쪽
표제목	8.5	95	-7	신명조 간자	0	0	0	170	중앙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8.7	90	-5	신명조 간자	0	0	0	170	오른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8.7	90	-5	신명조 간자	0	0	0	170	양쪽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 중국어 투고 논문은 간체자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모양은 신명조 간자를 사용한다.(다만, 변체자 사용 지역에서 투고하는 경우나 중국의 고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변체자를 사용할 수 있다.)

9.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수정 2016. 01. 13)

① 저자,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인용쪽수는 p 또는 pp로 표기한다.)

② 영문 각주일 때 논문은 “ ”로,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0. 참고문헌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참고문헌은 단행본과 논문으로 나누어 완전한 서지정보를 표기한다.

② 학술지에 실려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게재 면수(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반드시 표기한다.

③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기타 동양권 문헌 다음에 영어, 불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④ 국내문헌은 저자의姓을 가나다 순서로, 동양권 문헌은 저자 독음을 가나다순으로, 그리고 서양권 문헌은 저자姓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⑤ 외국 논문의 경우 자국 언어의 문헌을 국내문헌으로 간주한다.

제6장 논문의 학회 이용권

제29조(학회의 저작권)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저작권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학회의 이용권을 자동 허락한다.

제30조(논문의 이용)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게시된 논문은 회원에 한하여 무료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논문 공개) 한국연구재단(KCI)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술지의 모든 논문은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상업 이용 금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저자와 학회 간에 별도 협약을 맺는다.

부 칙

제33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를 따른다.

제34조(개정)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한중인문학회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제반 활동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약)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 규정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 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 규정 준수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의무) 본 학회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회원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학회의 윤리 조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해야 한다.
2. 회장은 회원의 연구 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제6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일반적 윤리

제8조(사회책 책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9조(학문의 자유) 연구자는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로서의 자세) 연구자는 자신의 학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한다. 연구자들은 오직 학문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본인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을 삼간다.

제3장 연구 관련 윤리

제12조(저자의 의무)

1.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 출판 업적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회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인터넷 및 SNS 등등 게시 자료 포함)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

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6.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금지

저자는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논문 게재 후라도 연구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

제13조(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4조(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

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구성과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임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2.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20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부칙

제21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2조(시행)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彙報

- 2023.11.10. 한중인문학연구 81집 1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 2023.11.20. 한중인문학연구 81집 2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 2023.11.29. 한중인문학연구 81집 3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 2023.12.26. 한중인문학연구 81집 4차 편집위원회 개최
- 2023.12.30. 한중인문학연구 81집 발간

2023年度 事業計劃

- 1) 한중인문학연구 78집 투고 마감(2023년 02월 10일)
- 2) 한중인문학연구 78집 발행(2022년 03월 30일)
- 3) 한중인문학연구 79집 투고 마감(2023년 04월 30일)
- 4) 한중인문학연구 79집 발행(2023년 06월 30일)
- 5) 제 51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2023년 05월 13일, 서울대학교)
 - 주제: 한중 우호, 상생과 연대의 기억
- 6) 한중인문학연구 80집 투고 마감(2023년 08월 10일)
- 7) 한중인문학연구 80집 발행(2023년 09월 30일)
- 8) 한중인문학연구 81집 투고 마감(2023년 11월 10일)
- 9) 제 52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2023년 11월 18일, 강원대학교)
 - 주제: 한중 국교 수립 이전의 상호 교류
- 10) 한중인문학연구 81집 발행(2023년 12월 30일)

〈알림〉

1. 『한중인문학연구』 중간 안내

2014년부터 학회지 발간을 4회로 증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투고 마감일 : 01월 30일, 04월 30일, 07월 30일, 10월 30일
- 발행일 : 03월 30일, 06월 30일, 09월 30일, 12월 30일

2. 『한중인문학연구』 82집 원고 모집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실 회원은 원고 마감 기한을 지켜 학회로 원고를 보내주시시오. 원고 분량은 편집면 기준 30쪽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타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잘 참고하시어 투고하시기 바랍니다.(학회의 논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만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 논문 투고 :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
- 투고 마감 : 2024년 01월 30일
- 발행 예정 : 2024년 03월 30일

3.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 안내

76집부터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외국학자 논문도 동일 적용)

- 심사료 : 7만원(재투고 논문일 경우에도 동일 적용)
단, 이의제기로 인한 재심사 논문의 경우에는 재심 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심사료 7만원과 회의비 4만원(합계 11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 게재료 : 기본 10만원(편집면 24쪽 이내)
추가분량 편집면 1쪽당 2만원씩 추가(편집면 최대 30쪽까지 가능)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교내지원 20만원, 교외지원 30만원 추가
단, 두 곳 이상의 지원을 받는 연구비 수혜논문은 항목별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가 납부한다.(게재료는 연구비 지원이 높은 곳

을 기준으로 청구비는 가장 높은 금액 100%와 나머지는 각각 50%를 합하여 계산한다.)

- 편집면 24쪽 이내 게재료의 예:

교외지원(100%)+교내지원(50%)=40만원

교외지원(100%)+교외지원(50%)+교내지원(50%)=55만원

4. 회비 납부 안내

학회 가입비, 연회비 및 심사료는 다음과 같으며, 논문 심사는 연회비 및 심사료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가입비 : 30,000원

연회비 : 30,000원

투고 논문 심사료 : 70,000원

학술지 해외 배송료 : 20,000원 (중국의 경우, 기타 해외지역은 별도문의)

학회통장 : 신한은행 100-029-987203 한중인문학회

* 연회비를 장기미납하신 회원의 경우 아래의 가, 나, 다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국내, 국외 회원 동일하게 적용)

가. 1년 연회비 3만원과 재입회비 3만원, 총 6만원 납부

나. 3년 연회비 9만원 납부

다. 5년내 연회비를 납부실적 있을 경우 재입회비 면제, 연회비 3만원 납부

* 회원 주소록을 정비하오니 소속,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회원께서는 학회 메일로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학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한중인문학회 신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인문학회 도메인 주소 : <http://kochih.kr/>

신규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ID 생성 시 영문 또는 숫자만 허용합니다. 이에 기존 가입자 중 특수기호나 스페이스가 들어간 ID는 교체를 권장해드립니다.

6. 학회지 PDF 발송

2018 가을 학회 총회 의결에 따라 제62집부터 기관 회원 등을 제외한 모든 회원님께 PDF 파일로 된 학회지를 발송합니다.

한중인문학회 제13기 임원진 및 위원진

(2022.1.1~2023.12.31)

명 예 회 장 :	김상대(아주대 명예)	한계전(서울대 명예)	송현호(아주대 명예)
	최병우(강릉원주대 명예)	한용수(동국대)	임경순(한국외대)
	유성선(강원대)		
고 문 :	김공환(아주대 명예)	김종철(서울대 명예)	김호웅(연변대 명예)
	김현숙(이화여대 명예)	류종렬(부산외대 명예)	민현식(서울대 명예)
	박경현(경찰대 명예)	박순애(호남대)	박옥걸(아주대 명예)
	박인기(경인교대 명예)	박일룡(홍익대 명예)	서준섭(강원대 명예)
	송하춘(고려대 명예)	우한용(서울대 명예)	유인순(강원대 명예)
	윤석달(항공대 명예)	윤여탁(서울대 명예)	이정숙(한성대 명예)
	전인영(이화여대 명예)	정병현(숙명여대 명예)	조창환(아주대 명예)
	최유찬(연세대 명예)	최학출(울산대 명예)	
회 장 :	김유중(서울대)		
전공 부회장 :	이지영(어학:서강대)	구재진(문학:세명대)	김원중(고전:단국대)
	김 호(역사:서울대)	임치균(사상:한중연)	임대근(문화:한국외대)
	민병곤(교육:서울대)	이은희(여성:한성대)	이해영(중국어:중국해양대)
지역 부회장 :	이병찬(서울:덕성여대)	이태숙(경기:단국대)	김풍기(강원:강원대)
	윤의섭(충청:대전대)	김성진(경상:대구대)	김혜영(전라:조선대)
	송현정(제주:제주대)		
행정 부회장 :	정래필(영남대)		
분 과 이 사 :	<u>[총무]</u> 광명숙(아주대)	<u>김형규(아주대)</u>	임대근(한국외대) 민재원(전북대)
	박진(국민대)	정진석(강원대)	조명숙(경희대)
	<u>[기획]</u> 김정우(이화여대)	최미숙(상명대)	윤선자(전남대) 여호규(한국외대)
	박진호(서울대)	황영미(숙명여대)	남연(북경대)
	<u>[연구]</u> 김진규(가천대)	김근호(전남대)	김원중(단국대) 김은성(이화여대)
	송윤미(강원대)	이미옥(서울대)	김명숙(중앙민족대)
	<u>[편집]</u> 최호영(강원대)	우신영(인천대)	송재연(서원대) 이명아(국민대)
	조현일(원광대)	신정수(한중연)	최유학(중앙민족대)
	<u>[국제]</u> 진공(국민대)	이영남(광서사범대)	지수용(화중사범대) 엄홍화(회해공대)
	신영덕(인하국립대)	박춘란(사천외대)	윤경애(대원민족대)
	<u>[섭외]</u> 조원일(전남대)	김환기(동국대)	박강(부산외대) 천춘화(숭실대)
	이정란(한중연)	홍순애(동덕여대)	유전진(운남사범대)
	<u>[홍보]</u> 박성일(한국체대)	김상일(동국대)	김현주(한국외대) 이영호(제주대)
	최재선(산업대)	선저이쿠마르(코리아헤럴드)	여수일(중곡국립대) 여수일(중곡국립대)
	<u>[교육]</u> 류수열(한양대)	권순희(이화여대)	김미순(한국외대) 김영주(대전대)
	김호정(서울대)	한창훈(전북대)	전영근(광동외대)

[정보] <u>송지언(홍익대)</u>	강남욱(경인교대)	이승준(항공대)	이희정(경북대)
장은영(조선대)	최인자(가톨릭대)	노금숙(호남사대)	
[출판] <u>조하연(아주대)</u>	황혜진(건국대)	오영미(교통대)	권유리아(부산외대)
정혜영(대구대)	유정은(강원대)	김경선(북경외대)	

감 사(2) : 류순태(서울시립대), 차희정(명지대)

간 사(3) : 행정학술-전세진(서울대), 편집정보-신문봉(서울대) 백지윤(경희대)

* 밑줄은 실무담당 상임이사입니다.

〈편집위원회〉

편집자문위원 : 권용욱(남서울대 명예)	김석희(인하대 명예)	류종렬(부산외대 명예)
민현식(서울대 명예)	박인기(경인교대 명예)	서준섭(강원대 명예)
손희하(전남대 명예)	윤여탁(서울대 명예)	윤정룡(한남대 명예)
이영춘(한중문화연구소)	전인영(이화여대 명예)	정병현(숙명여대 명예)
최유찬(연세대 명예)	우한용(서울대 명예)	김호웅(연변대 석좌)
심정창(부경대 명예)	윤윤진(길림대)	김기석(상해외대)
허세립(길림대 주해)	김종철(서울대 명예)	김하림(조선대)
박일용(홍익대)	정호웅(홍익대)	유문선(한신대)
이후일(선문대)	공종구(균산대)	박경수(부산외대)
차성만(서경대)	문철영(단국대)	박현규(경북대 명예)

편집위원장 : 이선이(경희대)

편집위원(13) : 이정란(어학(한), 수도권:한국학중앙연구원)	김원중(문학(중), 수도권:단국대)
이명아(어학(중), 수도권:국민대)	오영미(문화, 충청:한국교통대)
송현정(언어교육(한), 제주:제주대)	김 호(역사, 수도권:서울대)
박성일(언어교육(한·중), 수도권:한국체대)	유정은(철학, 강원:강원대)
민재원(문학교육, 전라:전북대)	신경수(한국학, 수도권:한국학중앙연구원)
최호영(현대문학(한), 강원:강원대)	이혜영(중국학, 해외:중국해양대)
정우탁(고전문학(한), 경상: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 유성선(강원대)

위원(14) : <u>김유중(서울대)</u>	<u>이선이(경희대)</u>	<u>정래필(영남대)</u>	<u>곽명숙(아주대)</u>
<u>김형규(아주대)</u>	<u>최호영(강원대)</u>	<u>김진규(가천대)</u>	김정우(이화여대)
박성일(한국체대)	서혁(이화여대)	이은희(한성대)	임치균(한국학중앙연구원)
전공(국민대)	조원일(전남대)		

*밑줄 당면직: 학회장, 편집위원장, 행정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한중인문학연구 제81집

2023年 12月 27日 印刷

2023年 12月 30日 刊行

發行人 : 김 유 중

事務室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관악캠퍼스 1동 314호

한중인문학회 김유중

T. 02-880-6050 F. 02-878-1246

<http://kochih.kr/>

E-mail : kochih@hanmail.net

製作處 : 한유북스 E-mail : hanyubooks@naver.com

값 15,000원